

CBETA電子佛典集成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X72n1437

永覺元賢禪師廣錄

(嗣法)道霽重編

中華電子佛典協會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No. _1437-A 無異大師贊](#)
 - [No. _1437-B 永覺大師贊](#)
 - [No. _1437-C 永覺和尚廣錄序](#)
 - [No. _1437-D 禪餘內集序](#)
 - [No. _1437-E 禪餘外集序](#)
 - [No. _1437-F 最後語序](#)
 - [No. _1437-G 鼓山晚錄序](#)
 - [永覺和尚廣錄總目](#)
 - [住福州鼓山湧泉禪寺語錄](#)
 - [住泉州開元禪寺語錄](#)
 - [住杭州直寂禪院語錄](#)
 - [住劍州寶善庵語錄](#)
 - [再住鼓山湧泉寺語錄](#)
 - [小參](#)
 - [普說](#)
 - [茶話](#)
 - [拈古二十九則](#)
 - [頌古](#)
 - [佛事](#)
 - [鼓山天王殿上梁](#)
 - [鼓山大雄殿上梁](#)
 - [新建禪堂成掛鐘板](#)
 - [寶善掛鐘板](#)
 - [天寧寺禪堂掛鐘板](#)
 - [落髮](#)
 - [付衣](#)
 - [為闡谷大師起龕](#)
 - [為闡谷大師掛直](#)
 - [為闡谷大師封塔](#)
 - [壽昌老人誕日拈香](#)
 - [壽昌老人忌日拈香](#)
 - [博山和尚忌日拈香](#)

- [掃玄沙宗一大師塔拈香](#)
- [聞谷大師三週忌日拈香](#)
- [翠雲菴昌和尚忌日拈香](#)
- [重修佛心才禪師塔拈香](#)
- [為馬頭山了喻靜主舉火](#)
- [為吼峯上人下火](#)
- [為長揖法師舉火](#)
- [送眾僧靈骨入塔](#)
- [為我聞老宿舉火](#)
- [為超塵上座舉火](#)
- [為興琨上人入塔](#)
- [為性泰菴主入塔](#)
- [為智光上座舉火](#)
- [為本智西堂舉火](#)
- [入塔](#)
- [為旭華勤舊舉火](#)
- [入塔](#)
- [為照空侍者舉火](#)
- [為洞牛上座舉火](#)
- [入塔](#)
- [為跬存上座舉火](#)
- [送秀牛靜主人塔](#)
- [為卓牛禪人舉火](#)
- [問答](#)
 - [受戒三問](#)
 - [室中六問](#)
- [法語](#)
 - [示本照上座](#)
 - [示某上人閉關](#)
 - [示惟謙上人](#)
 - [示黃孟揚居士](#)
 - [示丁元關居士](#)
 - [示伯駒上人](#)
 - [示劉孔學茂才](#)
 - [示緣生上人](#)
 - [示若水上人](#)
 - [示無安上人](#)
 - [示爾袿上人](#)

- [示密因上人](#)
- [示太雅上人](#)
- [示印朗上人](#)
- [示圓照上人](#)
- [示一如上人](#)
- [示照遠上人](#)
- [示自參上人](#)
- [示忠求居士](#)
- [示持平慧度二上人](#)
- [示心觀上人](#)
- [示心涵上人](#)
- [示四弘上人](#)
- [示潤如上人](#)
- [示無參上人](#)
- [示茅蔚起居士](#)
- [示尼淨光](#)
- [示瑞雲上人](#)
- [示約心上人](#)
- [示孫冶堂居士](#)
- [示頤浩寺禪堂大眾](#)
- [示汪子野居士](#)
- [示王心宰居士](#)
- [示黃爾巽居士](#)
- [示善侍者](#)
- [示羽吉居士](#)
- [示尚實上人](#)
- [示靈生上人](#)
- [示時中禪人](#)
- [示渾朴禪人](#)
- [示無生禪人](#)
- [示法珍禪人](#)
- [示石岐上人](#)
- [示寒輝禪人](#)
- [示梵珠禪人](#)
- [勛會侍者](#)
- [示非鏡侍者](#)
- [示恒光上人](#)
- [示漢章禪人](#)

- [東警語](#)
- [西警語](#)
- [書](#)
 - [答新城江孝廉](#)
 - [與僧論不許參禪](#)
 - [與沙縣曹智齋文學](#)
 - [與建陽蕭傲韋明府](#)
 - [答三山禪者](#)
 - [答穎上人](#)
 - [與李青郎茂才](#)
 - [與朱葵心茂才](#)
 - [復李青郎茂才](#)
 - [復蔡司衡茂才](#)
 - [答聞谷大師](#)
 - [答翁茂才](#)
 - [答潘茂才](#)
 - [復一念法師](#)
 - [答如是師](#)
 - [復林得山農部](#)
 - [復曾二雲大參](#)
 - [與曾二雲大參](#)
 - [與張二水相國](#)
 - [與呂天池司農](#)
 - [與蔣八公太史](#)
 - [與黃季弢先生](#)
 - [與劉仲龍文學](#)
 - [答密因上人](#)
 - [復方子凡孝廉](#)
 - [與曾二雲方伯](#)
 - [答湛可上人](#)
 - [答東魯武源淨居士](#)
 - [與曾二雲中丞](#)
 - [復周芮公吏部](#)
 - [答謝介蕃文學](#)
 - [答曹愚公學院](#)
 - [答嚴冲涵比部](#)
 - [答陳白菴太守](#)
- [啟](#)

- [答呂天池司農](#)
- [答傅幼心諫臺](#)
- [答杭州洪清遠中丞諸鄉紳](#)
- [答嘉興施羽王相國諸鄉紳](#)
- [答金壇于潤甫別駕諸鄉紳](#)
- [答楊聯京太守](#)
- [答黃昇如諸文學](#)
- [序](#)
 - [建州弘釋錄序](#)
 - [法華私記序](#)
 - [楞嚴翼解序](#)
 - [送洪禪人參方序](#)
 - [送僧出游序](#)
 - [送本立上人歸山序](#)
 - [淨慈要語序](#)
 - [重梓鐵關禪師語錄序](#)
 - [壽昌西竺禪師語略序](#)
 - [數珠翼序](#)
 - [楞嚴略疏序](#)
 - [諸祖道影傳贊序](#)
 - [釋門直孝錄序](#)
 - [傳信錄序](#)
 - [金剛瀆蒙序](#)
 - [重刻華嚴要解序](#)
 - [鼓山志序](#)
 - [無異大師語錄集要序](#)
 - [金剛貫解序](#)
 - [泉州開元寺志序](#)
 - [淨慈二書序](#)
 - [淨十四經合刻序](#)
 - [重刻大慧禪師書問法語序](#)
 - [金剛略疏序](#)
 - [四分戒本約義序](#)
 - [律學發軔序](#)
 - [合仁王護國經疏序](#)
 - [楊惟遜主政詩集序](#)
 - [澹軒集序](#)
 - [植桂集序](#)

- [晞髮集序](#)
- [繼燈錄序](#)
- [補燈錄序](#)
- [佛祖三經指南序](#)
- [禪林疏語序](#)
- [般若心經指掌序](#)
- [刪定筆疇序](#)
- [壽謝獻可居十七十序](#)
- [題跋](#)
 - [古梅禪師語錄跋](#)
 - [雪峯語錄跋](#)
 - [鼓山興聖國師玄要集跋](#)
 - [題卓吾焚書後](#)
 - [題般若無知論後](#)
 - [題招慶放生卷](#)
 - [題周振伯居士血書金剛經後](#)
 - [重刻仁王經跋](#)
- [記](#)
 - [請方冊藏經記](#)
 - [重修聖泉巖記](#)
 - [荷山菴記](#)
 - [重建龍頭庵記](#)
 - [重建黃梅山靈源庵記](#)
 - [淨名菴記](#)
 - [重興開元寺尊勝閣記](#)
 - [翠雲菴記](#)
 - [重建鼓山湧泉禪寺記](#)
 - [重建寶善禪院記](#)
 - [重建定光巖記](#)
 - [寶善庵舍利塔記](#)
 - [沈槐庭居士歸西記](#)
 - [無明和尚行業記\(有引\)](#)
 - [無明和尚鶴林記](#)
- [文](#)
 - [戒殺生](#)
 - [戒溺女](#)
 - [勸放生](#)
 - [善友篇](#)

- [祭玄沙宗一大師塔](#)
- [祭直寂聞谷大師](#)
- [祭滕秀實居士](#)
- [祭張達宇居士](#)
- [考](#)
 - [三玄考](#)
 - [龍潭考](#)
- [疏](#)
 - [獨詣師造靜室疏](#)
 - [道顯建佛頂庵疏](#)
 - [妙高峰建觀音殿疏](#)
 - [隆福山建庵疏](#)
 - [南禪寺結盂蘭盆會疏](#)
 - [栢山建庵疏](#)
 - [雙滌寺造佛像疏](#)
 - [北山靜室化米疏](#)
 - [避影山房化佛像疏](#)
 - [龍潭靜室化田疏](#)
 - [蕉林金仙庵化萬人緣買田疏](#)
 - [白水巖諷華嚴經疏](#)
 - [萬石灘頭建中元水陸齋疏](#)
 - [寶善庵請大藏經疏](#)
 - [鼓山鑄法華銅鐘疏](#)
 - [一中上人請方冊藏經疏](#)
 - [鼓山諷華嚴經疏](#)
 - [鼓山募米疏](#)
 - [怡山長慶西禪寺重建法堂疏](#)
 - [寶善庵建舍利塔疏](#)
 - [羅山法海寺修淨土懺疏](#)
 - [募建鼓山湧泉禪寺疏](#)
 - [鼓山建中元薦會疏](#)
 - [修長樂龍泉寺疏](#)
 - [諷經護國疏](#)
 - [崇禎皇帝遐升禮懺疏](#)
 - [崇禎皇帝遐升禮懺表](#)
 - [建州孫道臺請祈雨疏](#)
 - [誕日薦親疏](#)
- [銘](#)

- [直寂聞谷大師塔銘\(并序\)](#)
- [博山無異大師衣鉢塔銘\(有序\)](#)
- [博山古航舟禪師塔銘\(有序\)](#)
- [壽塔銘\(有序\)](#)
- [方鏡銘](#)
- [端硯銘](#)
- [鼓山鐘銘](#)
- [開元寺鐘銘](#)
- [瑞石銘\(并序\)](#)
- [論贊](#)
 - [建州弘釋錄論贊](#)
 - [達本論](#)
 - [顯化論](#)
 - [崇德論](#)
 - [輔教論](#)
 - [棲賢澄湜禪師傳贊](#)
 - [天寶逆川智順禪師傳贊](#)
 - [金道人燒身傳贊](#)
 - [楊文公億傳贊](#)
 - [胡文定公安國傳贊](#)
 - [朱文公熹傳贊](#)
 - [鼓山寺志論](#)
 - [勝蹟志論](#)
 - [建置志論](#)
 - [僧寶志論](#)
 - [田賦志論](#)
 - [藝文志論](#)
 - [雜誌論](#)
 - [溫陵開元寺志論](#)
 - [建置志論](#)
 - [開土志論](#)
 - [藝文志論](#)
 - [田賦志論](#)
- [諸祖道影贊\(有序\)](#)
 - [序](#)
 - [僧寶之始](#)
 - [橋陳如尊者](#)
 - [禪宗諸祖](#)

- [初祖迦葉尊者](#)
- [二祖阿難尊者](#)
- [三祖商那和修尊者](#)
- [四祖優波鞠多尊者](#)
- [五祖提多迦尊者](#)
- [六祖彌遮迦尊者](#)
- [七祖婆須密尊者](#)
- [八祖佛陀難提尊者](#)
- [九祖伏默密多尊者](#)
- [十祖脇尊者](#)
- [十一祖富那夜多尊者](#)
- [十二祖馬鳴尊者](#)
- [十三祖迦毗摩羅尊者](#)
- [十四祖龍樹尊者](#)
- [十五祖迦那提婆尊者](#)
- [十六祖羅睺羅多尊者](#)
- [十七祖僧伽難提尊者](#)
- [十八祖伽耶舍多尊者](#)
- [十九祖鳩摩羅多尊者](#)
- [二十祖奢夜多尊者](#)
- [二十一祖婆修盤頭尊者](#)
- [二十二祖摩拏羅尊者](#)
- [二十三祖鶴勒那尊者](#)
- [二十四祖師子尊者](#)
- [二十五祖婆舍斯多尊者](#)
- [二十六祖不如密多尊者](#)
- [二十七祖般若多羅尊者](#)
- [二十八祖菩提達摩尊者](#)
- [二十九祖慧可大師](#)
- [三十祖僧璨大師](#)
- [三十一祖道信大師](#)
- [三十二祖弘忍大師](#)
- [三十三祖慧能大師](#)
- [牛頭山融禪師](#)
- [嵩嶽慧安國師](#)
- [南嶽讓禪師](#)
- [青原思禪師](#)
- [永嘉直覺禪師](#)

- [龔公山馬祖禪師](#)
- [石頭遷禪師](#)
- [百丈海禪師](#)
- [南泉願禪師](#)
- [大珠海禪師](#)
- [天皇悟禪師](#)
- [黃檗禪師](#)
- [為山祐禪師](#)
- [趙州諗禪師](#)
- [睦州陳尊宿](#)
- [臨濟玄禪師](#)
- [洞山价禪師](#)
- [徑山國一禪師](#)
- [圭峰密禪師](#)
- [雪峰存禪師](#)
- [曹山寂禪師](#)
- [巖頭叡禪師](#)
- [龍湖闍禪師](#)
- [鳥窠道林禪師](#)
- [雲門偃禪師](#)
- [風穴沼禪師](#)
- [首山念禪師](#)
- [法眼益禪師](#)
- [汾陽昭禪師](#)
- [雪竇顯禪師](#)
- [慈明圓禪師](#)
- [佛印元禪師](#)
- [天衣懷禪師](#)
- [永明壽禪師](#)
- [黃龍南禪師](#)
- [楊岐會禪師](#)
- [白雲端禪師](#)
- [長蘆隨禪師](#)
- [五祖演禪師](#)
- [天童宏智禪師](#)
- [徑山大慧禪師](#)
- [虎丘隆禪師](#)
- [天童應菴禪師](#)

- [普菴肅禪師](#)
- [無準範禪師](#)
- [雪巖欽禪師](#)
- [高峰妙禪師](#)
- [鐵山瓊禪師](#)
- [中峰本禪師](#)
- [斷崖義禪師](#)
- [松隱茂禪師](#)
- [千巖長禪師](#)
- [天如惟則禪師](#)
- [泐季潭禪師](#)
- [金壁峰禪師](#)
- [啟教諸祖](#)
 - [天親菩薩](#)
 - [攝摩騰尊者](#)
 - [竺法蘭尊者](#)
 - [康居會尊者](#)
 - [鳩摩羅什法師](#)
- [台宗諸祖](#)
 - [北齊慧文尊者](#)
 - [南嶽慧思尊者](#)
 - [天台智者大師](#)
 - [章安灌頂法師](#)
 - [法華智威尊者](#)
 - [天宮慧威尊者](#)
 - [左溪朗尊者](#)
 - [荊溪湛然尊者](#)
 - [國清塚尊者](#)
 - [國清修尊者](#)
 - [國清物外尊者](#)
 - [國清琇尊者](#)
 - [國清竦尊者](#)
 - [螺溪淨光尊者](#)
 - [寶雲義通尊者](#)
 - [四明法智尊者](#)
- [華嚴諸祖](#)
 - [杜順和尚](#)
 - [賢首法藏法師](#)

- [清涼澄觀法師](#)
- [慈恩諸祖](#)
 - [玄奘法師](#)
 - [窺基法師](#)
- [淨土諸祖](#)
 - [東林慧遠禪師](#)
 - [法旻禪師](#)
- [律宗諸祖](#)
 - [南山宣律師](#)
 - [靈芝旻律師](#)
- [瑜伽諸祖](#)
 - [不空上師](#)
 - [一行禪師](#)
- [應化聖賢](#)
 - [佛圖澄國師](#)
 - [慧約國師](#)
 - [寶誌大士](#)
 - [寒山大士](#)
 - [拾得大士](#)
 - [布袋和尚](#)
 - [長耳和尚](#)
 - [濟顛禪師](#)
- [諸贊](#)
 - [彌陀佛贊](#)
 - [釋迦佛贊](#)
 - [出山像贊](#)
 - [觀音大士贊](#)
 - [三大士贊](#)
 - [文殊大士贊](#)
 - [布袋和尚贊](#)
 - [寒山拾得贊](#)
 - [空牛尊者贊](#)
 - [十八羅漢贊為金仙庵題](#)
 - [豎指](#)
 - [執卷](#)
 - [扶杖](#)
 - [撥眉](#)
 - [入定](#)

- [合掌](#)
- [擊磬](#)
- [洗耳](#)
- [降龍](#)
- [伏虎](#)
- [憑几](#)
- [抱膝](#)
- [補衲](#)
- [看經](#)
- [弄獅](#)
- [寫經](#)
- [負袋](#)
- [托塔](#)
- [達摩贊](#)
- [三教圖贊](#)
- [達觀大師贊](#)
- [雲棲大師贊](#)
- [雲棲壽昌直寂三大師贊](#)
- [壽昌和尚贊](#)
- [博山和尚贊](#)
- [滕秀實居士贊](#)
- [兵憲林得山居士贊](#)
- [侍講陳仲謀居士贊](#)
- [德山樵者贊\(有引\)](#)
- [白贊](#)
- [偈頌](#)
 - [示張居士](#)
 - [玉爐峰夜坐見月上紙窓因成二偈\(辛酉年二月十八夜\)](#)
 - [白沙邑取舟到劍津舟中聞僧誦法華經因成二偈\(癸亥年九月二十一日\)](#)
 - [客問山居何所作為占偈答之](#)
 - [送僧謁五臺](#)
 - [書臥](#)
 - [拄杖頌](#)
 - [拂子頌](#)
 - [戒尺頌](#)
 - [淨瓶頌](#)
 - [念珠頌](#)

- [蒲團頌](#)
- [鉢盂頌](#)
- [袈裟頌](#)
- [坐具頌](#)
- [辭博山歸闈](#)
- [送印南上人住山](#)
- [送嚴心上人入關](#)
- [庚午夏余病甚篤沈道礎居士來山為作四偈](#)
- [示修淨業](#)
- [示禪人參即心即佛](#)
- [心曇禪人請益](#)
- [示禪人參乾屎橛](#)
- [示禪人參趙州無](#)
- [過漏澤園](#)
- [端陽送施主](#)
- [偶成](#)
- [與儒生論中和](#)
- [火炮](#)
- [示量智上人](#)
- [示無餘上人](#)
- [示松溪嚴用正居士](#)
- [為百拙座主閉關](#)
- [示松溪陳蘊奇茂才](#)
- [示松溪葉泰交茂才](#)
- [題龍頭井](#)
- [示順侍者](#)
- [示武林夏調生居士](#)
- [云三山陳茂才](#)
- [示初度沙彌](#)
- [示契宗上人](#)
- [示圓常上人](#)
- [示康上人](#)
- [送僧歸博山](#)
- [警眾](#)
- [示徽州余維坤居士](#)
- [示我白居易](#)
- [示芙蓉和上人](#)
- [甲戌冬修山堂和尚塔](#)

- [參禪偈](#)
- [念佛偈](#)
- [示林洵庵居士](#)
- [示淨土社諸善友](#)
- [與丘守戎將軍](#)
- [與馮中軍](#)
- [示茶頭](#)
- [示超覺上人](#)
- [示龜洋山僧\(二首山有二祖師肉身\)](#)
- [示大道巖僧](#)
- [示密因上人](#)
- [答尼覺林](#)
- [示海澗太蘇善友](#)
- [凡木上人歸里省親](#)
- [戒多營僧](#)
- [示志西上人](#)
- [安平尤母道喬死入冥司冥司令歸請偈](#)
- [答劉仲龍文學用來韻](#)
- [示莊太振居士](#)
- [示吳善友](#)
- [示磨可上人](#)
- [示王無偏居士](#)
- [示夏君都居士](#)
- [示慈茂上人](#)
- [示省安上人](#)
- [示心宇居士](#)
- [示寧遠上人](#)
- [示慧直上人住山](#)
- [示卓然上人](#)
- [示雲庵上人住山](#)
- [示空諸上人](#)
- [示心求上人](#)
- [牧牛圖十頌](#)
 - [未牧](#)
 - [初調](#)
 - [受制](#)
 - [回首](#)
 - [馴伏](#)

- [無礙](#)
- [任運](#)
- [相忘](#)
- [獨照](#)
- [雙泯](#)
- [示初參](#)
- [示汪子野居士](#)
- [示來上人](#)
- [示初度沙彌](#)
- [交割](#)
- [示法林上人](#)
- [示明給上人](#)
- [答林道敬居士](#)
- [示眾](#)
- [咏芝山佛牙](#)
- [雙際寺](#)
- [示謝介菴居士](#)
- [勛洞生維那](#)
- [勛順侍者](#)
- [勛九達知客](#)
- [示恒初上人](#)
- [示悟心上人](#)
- [示壽昌禪者](#)
- [示粹然禪者](#)
- [示古源上人](#)
- [示楊逸凡居士](#)
- [示張克一茂才](#)
- [示沈同青茂才](#)
- [答黃仲馨文學](#)
- [示皎日居士](#)
- [明儒](#)
- [送南詢禪者住白雲洞](#)
- [示別傳上人](#)
- [示陳其人居士](#)
- [王正南居士五旬求偈](#)
- [日光禪人薦親求偈](#)
- [示朱居士](#)
- [示莊居士](#)

- [示張魯白居士](#)
- [示道日上人](#)
- [示一鋤禪人](#)
- [付戒](#)
 - [跬存禪人](#)
 - [洞牛禪人](#)
 - [藻鑑禪人](#)
 - [莫違禪人](#)
 - [警心禪人](#)
 - [宗聖禪人](#)
- [勛王右君居士](#)
- [示鄭用弼居士](#)
- [示朱朗仲畫士](#)
- [勛為霖禪人](#)
- [示逸倫禪人](#)
- [示參微禪人](#)
- [示事玄禪人](#)
- [示柯止言居士](#)
- [示清宇上人](#)
- [示睿侍者](#)
- [示彭爾仁居士](#)
- [示彭爾達居士](#)
- [示黃仲丹居士](#)
- [淨十偈](#)
- [示唯省禪人](#)
- [示守愚禪人](#)
- [示法珍禪人](#)
- [示陶太諒居士](#)
- [勛寄牛禪人](#)
- [勛爾白禪人](#)
- [示覺海禪人](#)
- [示燦然禪人](#)
- [示孤月上人](#)
- [示上牛上人](#)
- [示鄭居士](#)
- [示晉江楊居士](#)
- [示潘山子孝廉](#)
- [示潘中子茂才](#)

- [示萬法上人](#)
- [示達理上人](#)
- [送石岐禪人歸省](#)
- [示寒輝禪人參方](#)
- [示明一禪人](#)
- [病中示眾](#)
- [臨終偈](#)
- [詩](#)
 - [五言古](#)
 - [游白水山剎](#)
 - [廬陽蒟絲](#)
 - [金仙庵得李青郎茂才書有懷其人](#)
 - [寓秀水楞嚴寺聞復創之緣賦以志慨](#)
 - [城南路](#)
 - [答清漳劉漁仲戴平子來山見贈](#)
 - [往玄沙埽祖塔](#)
 - [登昇山有感](#)
 - [登鼓山大頂](#)
 - [祝聞大師七十壽](#)
 - [贈僧養母](#)
 - [答黃麗甫文學用來韻](#)
 - [題道士松巖圖](#)
 - [題用拙齋](#)
 - [山中有感](#)
 - [懷智者慧約國師](#)
 - [懷博大士](#)
 - [七句\[言*\(廷-王+旦\)\]日](#)
 - [贈潘十閣居士四十誕辰](#)
 - [送沈君耀居士還潭邑](#)
 - [因跌倒病](#)
 - [懷鄭所南\(有序\)](#)
 - [懷夢觀禪師\(有序\)](#)
 - [破屋歌](#)
 - [七言古](#)
 - [讀紫栢老人集有感](#)
 - [袁水部乘游招住壺山前住持印山師願充修造賦此以壯其行](#)
 - [謝曹能始靈長來山見贈](#)
 - [與清漳何平子茂才](#)

- [潭陽瀛洲橋成丁生來索詩頌沈侯德](#)
- [祝支提樵雲老師八十壽](#)
- [贈鷲峰上人書華嚴涅槃二經](#)
- [題般若庵兼壽主人](#)
- [饑饉行](#)
- [福城嘆](#)
- [僧兵嘆](#)
- [送淨和師歸舊隱](#)
- [送卓庵禪師歸壽昌](#)
- [送本立上座歸潭陽](#)
- [輓林得山兵憲](#)
- [輓鄭漢奉司空](#)
- [五言律](#)
 - [登聖泉岩](#)
 - [山中聞邊警](#)
 - [寓蓮臺山](#)
 - [春日同諸子游雲際山](#)
 - [西圃](#)
 - [謁白雲約禪師塔](#)
 - [山居](#)
 - [小塘](#)
 - [過寶山菴逢友人話舊](#)
 - [辛未秋日寓清修寺刻弘釋錄](#)
 - [季夏八日同本智洞微二師游喝水巖次韻](#)
 - [贈空牛師修玄沙祖塔用闍大師韻](#)
 - [題玄沙院](#)
 - [和闍大師登昇山掃祖塔](#)
 - [秋日搗謙居士來山索賦](#)
 - [答魏具瞻游鼓山次韻](#)
 - [題開元寺\(寺古有桑樹白蓮石柱牡丹庭前瑞草紫雲蓋頂等瑞\)](#)
 - [其二\(寺有神僧稱袒膊和尚挑燈道者又有僧稱文殊化身鈔唯識論\)](#)
 - [其三\(寺有甘露戒壇照律師所建有井味如甘露故名戒環禪師著法華要解等書\)](#)
 - [其四\(洪武間帝命潔菴來住持及引見曰汝但清心潔己自然眾服故立清心潔己堂\)](#)
 - [游彌陀巖歷巢雲山房晚抵大道巖賦](#)

- [南臺](#)
- [題片瓦巖 \(二首 其形如龜故又名六眸洞\)](#)
- [宿薛際可居士風木堂](#)
- [宿龍山寺](#)
- [游紫雲室和何鏡山先生韻](#)
- [題古拙上人靜室](#)
- [題彌天上人園居](#)
- [歸鼓山寄答傅幼心諫垣用來韻](#)
- [過嚴灘](#)
- [除夕](#)
- [題香象菴](#)
- [登石盂山](#)
- [寓娑羅塢](#)
- [過等巖為冲如上人賦](#)
- [秋日過邵練要居士山齋](#)
- [祝洞白師六十初度](#)
- [初夏苦雨](#)
- [清明日掃祖塔](#)
- [霜降](#)
- [咏魚鼓](#)
- [秋興](#)
- [步林茂卿居士登鼓山韻](#)
- [中秋夕全鄭漢奉司空林得山農部步月石門因坐水雲亭](#)
- [行](#)
- [住](#)
- [坐](#)
- [臥](#)
- [七言律](#)
 - [舟中望武夷](#)
 - [登黃楊山](#)
 - [山中得家報寄答諸友](#)
 - [廬陽山中歲暮積雪因小僧哦筇山偈為賦之](#)
 - [山中得蕭徹韋明府書](#)
 - [壬戌冬十月館於沙邑之雙髻峰遺中陽居士](#)
 - [秋日登北山](#)
 - [書林](#)
 - [七石山訪獨詣師](#)
 - [七石山中秋對月渾朴上人請賦](#)

- [丁卯仲春居荷山有感而賦](#)
- [五十誕日](#)
- [秋日過西湖](#)
- [戊辰孟秋往秀水請藏經還過錢塘適江潮大漲客舟盡沒余舟獨脫於險喜而志之](#)
- [己巳孟秋歸壽昌掃和尚塔夜坐有感](#)
- [妙高峰訪達宇居士](#)
- [哭博山和尚](#)
- [山中咏懷](#)
- [達宇居士以誕日來鼓山同遊靈源洞賦此致祝](#)
- [謝徐興公居士見訪](#)
- [夜坐蹴鰲橋次洞微師韻](#)
- [一念法師見訪濂別用韻奉答](#)
- [山中積雨初霽鄭汝交二守見訪用韻奉答](#)
- [往壽昌掃塔至建州遇徐興公用韻奉答](#)
- [乙亥夏歸壽昌掃先和尚塔](#)
- [麥壘圻\(有引\)](#)
- [歸潭日寓天堂寺有感](#)
- [歸潭日示諸姪](#)
- [山居](#)
- [楊復自居士登山見贈用韻奉答](#)
- [聞谷大師放生社留別和韻](#)
- [元宵登尊勝閣](#)
- [再登尊勝閣用前韻](#)
- [遊九日山\(山有晉朝松姜相峰秦系註經硯\)](#)
- [過報親寺登飛來閣](#)
- [遊清源洞](#)
- [避暑黃氏山房](#)
- [遊五峰和羅一峰先生韻](#)
- [過安平石佛寺](#)
- [到鼓山寄答呂天池司農用來韻](#)
- [翠雲庵](#)
- [重過嚴陵灘](#)
- [寓王回庵](#)
- [普明山中偶興](#)
- [余自浙歸聞寓寶善庵百拙法師以詩見訊用韻奉酬](#)
- [石筍江放生](#)
- [挽燕京死節諸臣](#)

- [詔上建文皇帝徽號及贈死節諸臣爵諡](#)
- [寓雙滌寺](#)
- [九日自雙滌歸寶善途中有感](#)
- [山中即事用寓雙滌韻](#)
- [續山中即事仍用前韻](#)
- [丁亥夏五月霖雨如注江流大漲芝城為之半淹至七日始退賦以志災](#)
- [重陽有感](#)
- [中秋臥病](#)
- [自嘲](#)
- [獨坐有感](#)
- [初春日慶無諍居落成](#)
- [山中元霄燈火寥寥而月色如書為賦一律](#)
- [鄒連山孝廉游鼓山信宿禪院以詩見示用韻奉答](#)
- [謝祁文載居士](#)
- [贈渾朴禪人五十初度](#)
- [送僧歸江北](#)
- [人日今諸友游靈源洞](#)
- [仲春望日佟開府同顧南金林得山諸公宿上院坐月以詩見示用來韻奉酬](#)
- [初春日薛玉海明府登鼓山見訪賦詩以謝](#)
- [孟春三日偶作](#)
- [設粥賑饑](#)
- [五言絕句](#)
 - [登西山\(蔡西山先生讀書處四首\)](#)
 - [溪樓晚眺](#)
 - [乞食](#)
 - [臨川道中](#)
 - [題茆齋壁](#)
 - [空亭獨宿](#)
 - [山齋即景](#)
 - [春日游南澗](#)
 - [入東林](#)
 - [城南有感](#)
- [六言絕句](#)
 - [劣巔峰](#)
 - [鳳池](#)
 - [靈源洞](#)

- [舍利窟](#)
- [七言絕句](#)
 - [羅參軍歸隱東山](#)
 - [葉茂才請題畫](#)
 - [秋夜懷翁仲實文學](#)
 - [懷陳薰臣文學](#)
 - [講經臺\(三境俱在博山\)](#)
 - [禪那窟](#)
 - [靈源橋](#)
 - [庵居雜咏](#)
 - [殘蕉](#)
 - [贈清涼山僧](#)
 - [頑石過訪索余舊稿為占二絕](#)
 - [湖山堂](#)
 - [送百拙座主住山](#)
 - [往崇福道中](#)
 - [宿崇福院](#)
 - [石林即景](#)
 - [白雲洞](#)
 - [達摩洞](#)
 - [達磨洞次聞大師韻](#)
 - [示素謙上人](#)
 - [咏甘露松壽我白居易](#)
 - [題石船](#)
 - [過雒陽橋](#)
 - [聞黃克念居士別館灾以二偈奉訊](#)
 - [題黃季弢先生讀書處](#)
 - [山居](#)
 - [巖居](#)
 - [玉林八咏](#)
 - [晚登開寶庵](#)
 - [莆田道中](#)
 - [渡馬頭江](#)
 - [西湖有感](#)
 - [題畫](#)
 - [送某法師歸閩](#)
 - [題王回菴](#)
 - [到莊屏菴次前韻](#)

- [秋思](#)
- [辛巳仲秋歸閩度仙霞嶺](#)
- [山門晚眺](#)
- [似李可甫居士](#)
- [似李羽吉居士](#)
- [贈元佐裴將軍](#)
- [寶善雜咏](#)
- [宿劍津](#)
- [秋九月既望菊尚未開為賦二絕](#)
- [山中聞警](#)
- [採茶](#)
- [春雨](#)
- [春晴](#)
- [題獅子菴](#)
- [贈心閑上人住閩安萬壽寺](#)
- [戲贈樵者](#)
- [反催牡丹](#)
- [反贈牡丹](#)
- [世難](#)
- [懷徐希盧廣文](#)
- [贈本智上座](#)
- [贈跬存上座](#)
- [贈一中上座](#)
- [送黃植三司馬北上取藏經](#)
- [送稅擔淨輝二禪人請藏經](#)
- [為李竊生居士題峩眉山圖](#)
- [讀周櫟園司農瑞蓮記](#)
- [橫山夕照](#)
- [錦江夜釣](#)
- [建溪春色](#)
- [洞上古轍](#)
 - [序](#)
 - [參同契註](#)
 - [寶鏡三昧註](#)
 - [洞山五位](#)
 - [五位總圖](#)
 - [五位圖說](#)
 - [洞山五位頌註](#)

- [汾陽五位總頌](#)
- [慈明圓五位總頌](#)
- [投子青頌\(并序\)](#)
- [宏智覺頌\(洞曹二家頌後推此五頌為最\)](#)
- [自得暉頌](#)
- [鼓山賢頌](#)
- [曹山五相頌\(此頌載五燈會元者俱錯列今依宗門玄鑿圖定之\)](#)
- [五位答問](#)
- [洞山五位功勳](#)
- [永嘉欽頌](#)
- [洞山三種滲漏](#)
- [泐潭炤頌\(此三頌舊刻顛倒今正之\)](#)
- [洞山賓主句](#)
- [天童覺頌](#)
- [綱宗偈](#)
- [石霜五位王子](#)
 - [誕生](#)
 - [朝生](#)
 - [末生](#)
 - [化生](#)
 - [內生](#)
- [善權志頌](#)
- [王子答問](#)
- [曹山君臣五位旨訣](#)
- [太陽玄頌](#)
- [曹山四禁](#)
- [曹山三墮](#)
- [百丈端頌](#)
- [又頌](#)
 - [披毛戴角隨類自在](#)
 - [見色聞聲隨處自在](#)
 - [禮絕百僚尊貴自在](#)
 - [總頌](#)
- [同安察十玄談](#)
 - [心印](#)
 - [祖意](#)
 - [玄機](#)
 - [塵異](#)

- [佛教](#)
- [還鄉曲](#)
- [破還鄉曲](#)
- [轉位](#)
- [回機](#)
- [正位前\(亦名一色過後\)](#)
- [太陽三句](#)
- [芙蓉楷門風偈](#)
 - [妙唱非千舌](#)
 - [死蛇驚出草](#)
 - [解針枯骨吟](#)
 - [鐵鋸舞三臺](#)
 - [今古無間\(諸家語錄中不見有此題獨芙蓉有之\)](#)
- [古德立小五位](#)
- [天童覺四轉靈機](#)
- [天童覺三一色](#)
- [大功一色頌](#)
- [正位一色頌](#)
- [今時一色頌](#)
- [天童覺四借](#)
 - [借功明位](#)
 - [借位明功](#)
 - [不借借\(即兼至位上說\)](#)
 - [全超不借借\(即兼到位上說\)](#)
- [自得暉五轉位](#)
 - [匣內青蛇吼](#)
 - [金針去復來](#)
 - [秦宮炤膽寒](#)
 - [午天銀燭輝](#)
 - [深巖藏白額](#)
- [先德微言](#)
- [後序](#)
- [竊言](#)
- [續竊言](#)
- [福州鼓山白雲峯湧泉禪寺永覺賢公大和尚行業曲記](#)
- [鼓山永覺老人傳](#)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贊助資訊](#)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1」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No. 1437-A 無異大師贊

真寂廣印

吞却死猫頭。嚙盡生人膽。脚跟不踏艸。鼻孔自遼天。眉毛忒羸而
魔外喪氣。眼光遠爍而佛祖難容。機迅直似雷轟。舌辯每同泉涌。
祇有藏身一著無人識。果然傳得壽昌宗。

No. 1437-B 永覺大師贊

昨非菴弟子鄭瑄

這老阿師。壽昌嫡血。拙若醜石。硬同頑鐵。大弘正中妙挾之旨。
克紹前徽。遠繼通霄路上之蹤。直還原轍。一枝麈尾。掃開百世迷
雲。七尺藤條。指出千山皓月。禪教律化作一家。儒釋道同歸點
雪。五百年來僅此人。是聖是凡休浪說。

No. 1437-C 永覺和尚廣錄序

鼓山大和尚永覺賢公。遷化之三年。其嗣法子。今住山為霖霈公。
結集師生平說法語錄及諸撰述。所謂禪餘內外集。晚錄。最後語。
洞上古轍。窺言等。編釐為三十卷。而題之曰廣錄。命之蕃序其卷
首。蕃自顧鈍根。落箭鋒之機者數矣。序曷敢為。又念居師座下。
親承教誡。涵泳淘汰。自少至老。已非一日。不可謂無所得於師
也。序曷敢不為。謹序曰。昔世尊于靈山會上。百萬眾前。拈華示
眾。獨飲光尊者。一笑投機。遂付正法眼藏。謂之教外別傳。自
是。四七二三。以及五宗諸祖。繩繩相繼。燈燈相映。莫不皆用此
機付此法。如水傳器。了無滲漏。奈何法久弊生。真人罕出。以偽
傳偽。疑誤頗多。吾師乘願再來。為法檀越。具大福慧。施大辨
才。以無明為師。無異為友。父子兄弟。後先繼美。鼓揚斯道。振
曹洞墜地之綱。藥末法必死之疾。金章玉句。苦口婆心。無不與從
上佛祖心血骨髓一脉貫通。具鷲王擇乳之眼者。一見自識。安容蕃
贊一辭耶。他日必有佛心天子。為納大藏中。與永明宗鏡。明教鐔
津。及諸尊宿語錄。並行天壤間。洗光佛日。剔耀祖燈。蓋以大法
為公。非敢阿私所好也。且師行道海內。垂三十載。特立獨行。不
為世風所搖。譬雪中峩眉。拔地凌空。巍然迴出。世人孰不景仰。
況有是錄。以發其矇。而啟之寤。則師之道不於此而益大光明哉。

師手著更有楞嚴金剛二疏。心經指掌。四分約義。律學發軔。弘釋錄。繼燈補燈二錄。淨慈要語。鼓山志。開元寺志等書。俱別行。茲不復贅。是為序。

賜進士第奉訓大夫吏部考功司郎中前浙江道監察御史菩薩戒弟子林之蕃和南題

No. 1437-D 禪餘內集序

永覺大師。自浙反閩。復休老于福之鼓山。侍者太冲上人。錄其三會之語。類而合之。為禪餘內集。集既成。來檇李問序于予。予雖忝讀佛書。于佛之道。實毫無所窺測。安能知大師哉。不知而妄序之。則予之辜也。上人固請。弗克辭。乃曰。無已則姑述予之知大師者可乎。大師學貫天人。識達今古。大而理亂興亡之故。小而賢否進退之幾。幽而河洛星曆之微。顯而禮樂刑政之蹟。罔不精究其致。或出一言。便可千秋。此則予之知大師者。知其學之精也。靈光磅礴。任筆所之。理無不精。意無不達。議論變化。莫知端倪。然皆清真雅澹。春容和鬯。無藻繪浮靡之習。無激揚揮霍之氣。此則予之知大師。知其文之粹也。年近耳順。方鳴斯鐸。開堂兩載。即思卷舌。所居一任外緣。如不事事。絕無喜巧之念。貪營之思。此則予之知大師。知其養之恬也。鐵骨擎空。孤風絕侶。操行剛方。動必師古。雖歷主四刹。而足不入俗。雖日接顯貴。而語無阿順。此則予之知大師。知其節之峻也。室中單提祖印。牢把鐵關。雖英衲鱗集。率皆望厓而退。絕未見其濫有許可。付拂傳衣。以圖門庭熱鬧。此則予之知大師。知其守之嚴也。至于陞堂說法。矢口而成。機辯自在。電捲雲蒸。而實不局守一途。或痛快。或綿密。或高古。或平實。此則疑其如摩尼圓映五色不定。亦如巨海波瀾涌沒何常。即大慧所謂大方家手段。禪備眾格者非歟。此特隔江望刹影。描寫于依稀恍惚之間。有如此者。豈予之謏劣。能知大師哉。然予嘗聞之。大師云。我生今之世。直是形影相弔。實未見有能知我者。然我亦不求知于今之世。但斯言未泯。吾道在茲。他日倘有能因吾言而見吾心。則少林一宗。庶幾不滅矣。今請以斯語弁之卷首可乎。上人唯唯。遂筆之以為序。

峕崇禎癸未孟夏四月。佛[言*(廷-壬+旦)]日。賜進士出身奉勅提督南京應天等府學政前巡按江西等處原任湖廣道監察御史[橘-矛+佳]李弟子曹谷稽首和南題

No. 1437-E 禪餘外集序

古今以文鳴者三。有德性之文。有問學之文。有才情之文。世所盛傳者。問學才情而已。至于德性之文。則自六經以降。不少。槩見作者固希。而知者蓋亦寡矣。永覺大師。早專魯誥。善朱程之學。壯歲棄去。遂入壽昌法社。久之。歸閩住福之鼓山。門人錄其藏稿以行。師自命名曰禪餘外集。丁丑春。浙中諸縉紳。請居杭之真寂。門人益增。其所未刻為卷者八。為目者十有二。余迺為較而梓之。余何能知大師哉。第讀其文。見其不馳騁于才情。而實非富于才情者不能至。不組織于問學。而實非深于問學者不能道。直如春工化普無迹可尋。亦如白雪調高有耳難聽。且余每見其下筆疾書。千言立就。靡不痛快醇至。至于微顯闡幽。開今古不敢開之口。而皆出之。以平易和雅。無艱險綺麗之習。所謂德性之文非耶。蓋師佩壽昌法印。慧光渾圓。叢林推為第一。而實心實行。無不可方軌前賢。垂範後學。尤稱為末流砥柱固宜。其見之文者如此。是豈可以才情問學相比況哉。余不揣愚蒙。僭弁簡首。固知輕汙珠玉無所逃罪。然姑以述生平欣仰之私。云爾。崇禎庚辰秋八月既望日賜進士出身中順大夫常州府知府歸安弟子陳瑄題。

No. 1437-F 最後語序

梁普通間。菩提達磨。自南天竺國來。倡為禪宗。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其付法偈曰。我本來茲土。傳法揅迷情。一華開五葉。結果自然成。嗣是六代傳衣。五宗競出。由唐歷宋。其化大焉。五宗者。為仰雲門法眼三宗。與宋運俱終。其傳至今日者。唯臨濟曹洞二宗。其洞上一宗。亦已久衰。至萬曆間。壽昌無明老祖傑出。始中興于世。壽昌入室弟子凡數人。其最著者。博山無異和尚。與先師鼓山永覺老人。老人年二十五省發。四十出家。四十六悟道。五十七歲出世。八十歲入滅。二十餘年間。四坐道場。大作佛事。言滿天下。道被域中。凡叢林久參耆衲。罔不腰包來覲。而海內賢士大夫。亦多折節問道。其生平語錄著述甚富。俱已刊行于世。而此萬餘言。是其最後絕唱。標名最後語者。老人所自命也。竊惟老人之道。廣大精微。其學貫通該博。其見地圓明超絕。其說法縱橫無畏。其所守嚴。其所養到。其福德壽考。允稱圓備。而臨終之日。說偈辭眾。危然坐脫。頭正尾正。即求之古尊宿。亦不多得。況時輩乎。嗚呼達磨一宗。傳至今日。而弊已極矣。老人出而挽之以力行。鎮之以正大。繩之以綱宗。驗之以言行。牢把鐵關。不少假借。故雖諸方號飽參者。其始至。不無行行然擎頭戴角。而老人不動聲氣。微垂勘辨。即皆土崩瓦解。懣懣而去。唯真參之士。具擇法眼。乃能俯就爐鞴。久煉不退。蓋知當今

之世。少林一綫之脉。不至墜地者。唯老人是賴耳。無何世緣告畢。遽戢化權。人天眼滅。孰不哀慕。于是建州弟子謝飛卿氏。請以最後語。壽諸梨棗。公之海內。庶幾他日問道者。知路頭在茲。不至迷誤入于邪林。甚盛心也。小子霈。忝預法席有年。茲又濫膺付囑。凡老人生平歷履。頗得其詳。于是謹序其梗槩于卷首。其他備乎林涵齋居士行業曲記云。時歲在丁酉仲冬下浣嗣法弟子道霈焚香稽首題。

No. 1437-G 鼓山晚錄序

余當晚歲。悞入世網。作此蟲豸。幸不遘殂。延至今日。凡二十載。所有應酬之語。如蟲御木。如風號竅。不能自節。乃至連編累牘。甲申以前。不辭醜拙。已擲向人間。恣眾彈射。至今壬辰。復八更裘葛。卮言未息。侍者復彙輯成編。將付之剞劂。請名於余。余時季已七十有五。不亦晚而又晚者乎。迺命名晚錄。夫歲當晚則化機閉塞。日當晚則人物宴息。樹當晚則枝葉脫落。而正命於根。人當晚則營衛日竭。而與死為隣。余今當與死為隣之日。僅此奄奄一息。未遽絕耳。一生伎倆。至此而盡。一生行業。至此而終。余尚何言哉。余尚何言哉。若夫是臧是否。可存可廢。則付之世間具擇法眼者。

石鼓老人元賢自題

永覺和尚廣錄總目

- 卷首
 - 序(廣錄林之蕃序 內集曹谷序 外集陳瑄序 最後語道霈序)
- 卷第一
 - 住福州鼓山湧泉禪寺語錄
 - 住泉州開元禪寺語錄
- 卷第二
 - 住杭州真寂禪院語錄
 - 住劔州寶善庵語錄
- 卷第三
 - 再住鼓山語錄
- 卷第四
 - 小參
- 卷第五
 - 普說
- 卷第六

- 普說
- 茶話
- 卷第七
 - 拈古
 - 頌古
- 卷第八
 - 佛事
 - 問答
- 卷第九
 - 法語
- 卷第十
 - 法語
- 卷第十一
 - 書問
- 卷第十二
 - 書問
 - 啟
- 卷第十三
 - 序上
- 卷第十四
 - 序下
 - 題跋
- 卷第十五
 - 記
- 卷第十六
 - 文
 - 考
- 卷第十七
 - 疏
- 卷第十八
 - 銘
- 卷第十九
 - 論贊
- 卷第二十
 - 諸祖道影贊
- 卷第二十一
 - 諸贊
- 卷第二十二

- 偈頌
- 卷第二十三
 - 偈頌
- 卷第二十四
 - 詩
- 卷第二十五
 - 詩
- 卷第二十六
 - 詩
- 卷第二十七
 - 古轍上
- 卷第二十八
 - 古轍下
- 卷第二十九
 - 窺言上
- 卷第三十
 - 窺言下
 - 福州鼓山白雲峯湧泉禪寺永覺賢公大和尚行業曲記
 - 永覺老人傳

永覺和尚廣錄總目(終)

No. 1437

永覺和尚廣錄卷第一

嗣法弟子 道霈 重編

住福州鼓山湧泉禪寺語錄

開戒示眾。靈山一片老婆心。掇出虛空要賣人。觀音傍見微微笑。波離出眾便當承。分明祇是無風浪。帶水拖泥古至今。此中若有僊陀客。不向如來行處行。豎起尺云。優波離來也。揮尺一下云。說戒竟。大眾還知麼。若知得。更不須瑣屑。便能倒跨須彌。橫吞世界。指日月而西昇。旋乾坤而右轉。有斯奇特。豈不丈夫。其或未然。山僧傳得箇本子。少刻一一與諸人誦過。莫道山僧瞞大眾好。元宵示眾。新年以來。東海龍王與日月燈明佛。大相爭戰。不分勝負。今晨山僧性發。將二人各打三十山藤。趕過北鬱單越去也。二人是非且置。祇如晴明陰雨外一句作麼生道。僧出曰。晴明陰雨。師曰。情知你只解與麼。僧擬進語。師便喝。乃曰。今既無人道

得。山僧打葛藤去也。太虛無畔涯。滄海無覆蓋。晴看銀竹垂。雨把袈裟曬。狸奴白牯却知有。三世諸佛遭捉敗。更有神前酒臺盤。却最會捏怪。倒騎佛殿出三門。驚倒金剛在門外。此夜諸佛諸祖之法。盡說了也。更有一句子。乃諸佛諸祖說不到底。本欲盡情與諸人說破。怎奈山僧住持事繁。待天王殿落成之後。為諸人說破在。夜寒。珍重。

端陽示眾。昔日雪山老人。指鹿為馬。東西諸祖。證龜成鼈。次第累及山僧。亦不免將錯就錯。今當端陽佳節。不可虛過。祇得將太虛空。捏作箇小粽子。要與諸人充腸果腹。乃以手托起香盒。示大眾云。大眾。若咀嚼得破。行見競龍舟歌楚些。一任煙波自由。不用飲蒲酒挂艾旗。自然妖蹤頓息。如咀嚼不破。一箇小粽子。塞斷諸人口門去也。咦。臨淵無限傷心處。安得黃金鑄屈原。

誕日示眾。師舉扇子云。祇這箇。放開則比比不同。谿山各異。收住則十方坐斷。雲月是同。至於不收不放又作麼生。今日三世諸佛。在老僧扇子頭上放光動地。若有伶俐衲僧。請出相見。僧問。拄杖子年多少。師云。露柱證明。進云。和尚年多少。師云。問取露柱。進云。如何是無量壽。師云。剎那剎那。問。未出母胎時如何。師云。人疑殺。進云。已出母胎時如何。師云。疑殺人。進云。二俱不涉時如何。師云。鑑。進云。天上天下唯吾獨尊。尊箇甚麼。師云。坡垃堆頭破木杓。僧禮拜。師云。明年更有新條在。惱亂春風卒未休。久立。珍重。

中秋示眾。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今夜金風透幙。玉露垂枝。素月流輝。碧天如洗。落葉點點飄林。寒蛩聲聲入耳。簾外之青山盡曙。江中之白浪搖光。祇此因緣。還有佛性義也無。若說有。錯認驢鞍橋。若說無。面南看北斗。畢竟如何。咦。不因夜來鴈。怎見海門秋。

冬至示眾。一陽來復。諸陽積而成乾。一陰初姤。諸陰積而成坤。動靜如環無端。造化繇茲闔闢。只如大易云。復其見天地之心乎。大眾作麼生會。先儒云。動見天地之心。或云。靜見天地之心。或云。動靜之間見天地之心。或云。非動非靜見天地之心。諸人試道。這四語。那一語較親。今日鼓山未免為諸人註破。以拂子擊案左云。動見天地之心。擊案右云。靜見天地之心。擊案中云。動靜之間見天地之心。收拂子云。非動非靜見天地之心。驀豎起拂子云。還見麼。喝一喝云。諸人莫道。鼓山習氣重。今日猶向人前。誦易經好。

歲夜示眾。今夜舊年尾。明朝新年頭。今來便古往。刻刻實難留。三界諸生死。輪迴何日休。若不勤修省。如何異馬牛。唯有狸奴

精。咲破自無愁。縱說真常道。是甚臭屎籌。諸人且道。狸奴精有甚長處。不見古人道。唯有狸奴却知有。直向毗盧頂上遊。

元旦示眾。爆竹聲中歲已殘。春風浩蕩海天寬。新年佛法今何在。桃李花開映寶欄。映寶欄莫顛預。若不於此通消息。枉向茲山走一番。僧問。請和尚別通箇消息。師與一掌云。是甚麼。僧無語。師云。何不道元正啟祚。萬物咸新。

元宵示眾。今乃元宵佳節。山僧趨日子吉利。在石鼓山頭。開箇賣燈心的小舖席。諸人有要傳燈續燄者麼。便請向前。眾不出。師云。昔百丈於火爐中。拈起一星。頓令為山輝天鑿地。龍潭於黑夜裏。吹滅紙燭。直使德山瓦解冰消。乃至三世諸佛。火火相傳。千七百祖。燈燈繼燄。各各耀古騰今去也。山僧今夜也要與諸人成箇交易。管使人人慧炬燭天祥光徧野。乃以手作[○@火]云。大眾會麼。良久咲云。本店買賣。分文不賒。

示眾。虛空粉碎。大地平沈。諸佛不得出頭。十方悉皆坐斷。孤峻也儘孤峻。撇脫也儘撇脫。但在鼓山門下。尚滯半途。總成死漢。所以洛浦參夾山。山云。坐斷天下人舌頭則不無。怎教無舌人解語。有等代云。更喝一喝。也是蝦跳不出斗。何曾夢見夾山在。大抵衲僧家。切莫坐守枯椿以為極則。須知有時恁麼。有時不恁麼。有時恁麼却不恁麼。有時不恁麼却恁麼。有時高踞毗盧頂上。有時低處螻蛄脚下。有時滿盤托出。有時什襲珍藏。有時瞞盡世人。有時單虧自己。有時明出祁山。有時暗渡倉水。顛倒倒顛。佛祖猶為攢眉。是非非是。古今莫能擬議。諸人且道。他因甚如此虛滑。呵呵。貼肉汗衫如未脫。難教赤體顯風流。

元旦示眾。金鷄叫起五更頭。無限祥光匝地浮。大眾新年增一歲。相逢相賀沒來由。至於老僧手裏拂子。還增一歲否。諸人莫道無歲好。無舌兒童親口道。不萌枝上辨春秋。無影波中紅日杲。鷲奴白牯却知有。出門有路落荒草。今日乃元旦啟祚之辰。老僧特為陞座祝延 聖壽。即今報恩護國一句作麼生道。金輪永鎮三千界。寶籙長延億萬年。

恒如老友請。示眾。老僧昔年與恒如老友。同入博山社火。其時博山老人。祇以一口氣不來向甚麼處去話。鈍置天下人。至今二十五年矣。今日恒如特登山見訪。不免重拈舊話報博山恩去也。生從何來。鐵鋸舞三臺。死從何去。三臺吞鐵鋸。勿以明相覩。勿以暗相遇。坐斷兩頭關。銀花開鐵樹。堪咲當年博山老。不解放行。祇解把住。老僧今日放行去也。諸人還會麼。咦。夜半石人方反側。一場好夢向誰言。

我聞老宿入塔請。示眾。枯木裏有龍吟。吼破虛空不露身。髑髏裏有眼睛。炤徹乾坤不見塵。今日收歸無縫塔。大悲手眼莫能尋。諸

人還識得無縫塔麼。昔唐肅宗問忠國師云。百年後所須何物。師資分上。仁義道中。國師云。為我造一無縫塔。婆心太切。亦是老不知休。肅宗云。請師塔樣。作家君王。國師良久云。會麼。無言可對。無理可伸。這裏活陷多少人。肅宗不會。到底作家。國師云。吾有得法弟子耽源。可詔問之。推禍離身。遷化後詔問耽源。國師意旨如何。向餬餅裏討汁。耽源頌云。湘之南潭之北。畢竟是甚麼所在。中有黃金充一國。失却了也。無影樹下合同船。切莫認著。琉璃殿上無知識。要有作麼。今日老僧將無縫塔重重托出了也。如其未會。老僧再為註破。珍重。下座。

元旦示眾。鼓山三載不開堂。箇中甘露每洋洋。如何更起無風浪。兔角拈來論短長。拈起拂子云。諸人會麼。此是壽昌老人。三十年前。在峩峩山頭。最初拈出。今日落在山僧手中。不免舉出與諸人慶賀新正。若能會得。便能使地天交泰。海岳齊平。狼煙頓息。鯨浪不興。如駭鷄寶枕。圓炤無方。若摩尼神珠。出生無盡。眉間挂劍。殺活同時。肘後懸符。舒卷自在。慶賀且置。更有一人不受賀者。諸人還親近得麼。縱臨濟用單刀直入。不敢正眼而窺。任洞山玉線金針。未免結舌有分。疎密雲中籠紫極。高低闕下繞千官。

住泉州開元禪寺語錄

三門。佛語心為宗。無門為法門。且道。如何是無門之門。喝一喝。

佛殿。響。若道是佛。山僧瞞大眾。若道非佛。大眾瞞山僧。畢竟作麼生。且禮三拜。一任疑著。

祖師堂。神頭鬼臉。驢唇馬舌。承虛接響。證龜作鼈。

伽藍堂。若人識得心。大地無寸土。且道。土地神在何處藏身。呵呵。元來只在這裏。

方丈。昔年舊戰場。今日新條令。三世諸佛不得出頭。歷代祖師盡皆乞命。喝一喝。

開堂。師至座前。拈疏云。靈山佛法。囑付王臣。如何是王臣的佛法。舉起疏云。會麼。如或未會。勞表白重宣一遍。宣疏畢。師指座云。昔日維摩居士。借此座於毗耶城中。廣坐靈山法眾。祇明箇不思議境。今日維摩居士。借此座於溫陵城中。止坐山僧一人。明得甚麼邊事。會麼。如會得。喝散大眾。推倒法座。還恠得渠麼。如或未會。山僧逢場作戲去也。遂登座。拈香云。此一瓣香。端為祝延今上聖壽萬安。伏願。堯天永蕩。舜日長明。萬民遊熙皞之天。四海樂時雍之化。此一瓣香。恭為大道臺及本府本縣合郡官僚。伏願。永為四民慈父。長作大地陽春。此一瓣香。恭為本寺諸

大檀越。護法宰官居士等。伏願。長作皇家柱石。永為佛國金湯。此一瓣香。未敢酬恩報德。但要知源識委。供養壽昌堂上本師無明大和尚去也。斂衣就座。白槌竟。問答不錄。師良久云。恁麼會去。早是第二義了也。山僧未出方丈。早已明白會彰。待至白槌一番。便是風動塵起。況待山僧開兩片皮。成得甚麼。但既到此。祇得將無作有。應箇時節。大眾還知第一義麼。莫是四禪八教。莫是五乘十玄。莫是臨濟三玄。莫是洞山五位。莫是雲門三句。莫是浮山九帶。且喜沒交涉。雖然。把住則黃金失色。放開則瓦礫生光。浮山九帶也是。雲門三句也是。洞山五位也是。臨濟三玄也是。乃至鴉鳴雀噪。風動雲起。無非第一義。還會麼。如不會。山僧不免作箇三家村教讀先生去。昔日百丈大師謂。祇要透得三句。第一句不得於境上取著。第二句不得住於不著。第三句不得作不住不著底知解。若出得三句。自然通天徹地。駭象驚龍。經國治邦也好。談宗說教也好。務本耕農也好。為商為賈也好。所謂法法圓通。有何窒礙。大眾且道。如何是透過三句底句。卓拄杖。下座。

結制上堂。山僧走入溫陵城。大驚小恠呼活佛。祇是破敗老凡夫。徹底看來無一物。不談五位及三玄。逢人祇是阿漚漚。臆八安僧說甚麼。口門盡力何所似。蒼是松翠是竹。玄是烏白是鵠。九九原來八十一。六六祇是三十六。若從此會去。却在門外草菴宿。還知有門內句麼。紫雲殿角木頭陀橫遭一擗。習儀亭石柱揚聲大哭。東西二塔撫掌大笑云。屈屈。大眾會麼。無事歸堂好。

上堂。衲僧門庭。一味調直。不用漢語胡言。那管前三後七。如問拾得姓名。叉手當胸而立。又如百丈開田。展手分付大義。恰值老僧洗脚。趙州道底平實。大道本來如斯。有何委曲隱密。纔起擬議思量。良驥追風不及。好似適燕南轅。也是黑夜尋日。今日山僧又作麼生。久立。珍重。

除日上堂。山僧今日性命在諸人手裏。或用長蛇偃月。或用匹馬單鎗。便請設施。特為證據。眾不出。師復云。歲已暮歸何所。鎮日經營皆是苦。勸仁者。須自覩。巢知風穴知雨。雲從龍風從虎。孔雀佳屏為客開。老鶴健翼因風舞。趙州道箇無。雲門却云普。普化祇搖鈴。禾山解打鼓。舉拂子云。會麼。良久云。牟尼不在西天。仲尼不居東魯。

元旦上堂。今朝正月一。泰運方開日。換了舊桃符。拈起新官曆。五福盡持來。相贈無有惜。燈籠與露柱。箇箇都賀畢。更有一人。還受賀也無。受賀且置。畢竟作麼生見得此人。古云。直下猶難會。尋言轉更賒。若論佛與祖。特地隔天涯。既不許尋言。又不許直下。如何得會去。若會得。此人說甚麼臨濟三玄。說甚麼洞山五位。說甚麼歸宗斬蛇。羅漢書字。雪峯鞦韆。大隋燒畚。這般古恠

的古恠。于渠耳朵弦也不上。因甚如此。呵呵。曾經大海休誇水。除了須彌不是山。

上堂。今年正月又過五。鳴起法鐘敲法鼓。不用如何并若何。不用拈今并舉古。起身展兩手云。佛法當堂兩手交。露柱燈籠齊作舞。諸仁者。還承當得去麼。良久拈拄杖云。晴乾不肯去。須待雨淋頭。卓一卓。下座。

上堂。三陽起運。萬物咸新。桃花能紅。柳眼能青。明明祖師意。明明古佛心。只貴直下會。切莫亂沉吟。更有一般奇特事。蝦蟆跳過東海濤。大眾會麼。良久云。當初只道茅長短。燒了方知地不平。

上堂。明機自昧。息慮迷源。語默難顯。肯諾不全。畢竟作麼生得相應去。莫是豎一指麼。莫是豎一拳麼。莫是喝一喝麼。莫是畫圓相麼。莫是旋身一匝麼。莫是打筋斗麼。莫是推倒法座拂袖便行麼。且喜沒交涉。諸仁者。各自歸堂。仔細看好。

上堂。昔龐居士參馬祖。有頌云。十方同聚會。箇箇學無為。此是選佛場。心空及第歸。後來有或庵參此庵于天台護國。舉此頌。至此是選佛場。此庵喝之。或庵大悟。作投機頌曰。商量極處見題目。途路窮邊入試場。拈起毫端風雨快。此回不作探花郎。山僧今日不免從頭註脚去。或庵參此庵于天台護國。臭肉引蒼蠅。舉頌至此是選佛場。挑著一擔禪。此庵喝之。奪饑人之食。或庵大悟。七花八裂了也。商量極處見題目。上大人丘乙己。途路窮邊入試場。五逆聞雷。拈起毫端風雨快。己遲八刻。此回不作探花郎。尚有寒酸氣在。諸仁者。且道作麼生是中式底事。莫是學得無為麼。莫是悟入心空麼。且喜沒交涉。畢竟如何是中式底事。呵呵。一番親切處。逢場必自知。

上堂。若論此事。非干動靜。不涉有無。豈落言詮。無容擬議。一棒一喝。正是節長枝生。說妙說玄。莫非塵埋霧隱。非為祖道。不當宗乘。作麼生是宗乘中事。山僧今日牙痛。

上堂。拈拄杖。卓一卓云。汝諸人識得這木上座麼。上座生來不記年。神頭鬼臉不堪傳。慣掣風顛人莫測。虛空背上打鞦韆。橫拄杖曰。十方諸佛無出頭處。豎拄杖曰。三世諸佛無藏身地。若也不橫不豎。諸佛有眼覷不見。有口道不得。有手摸不著。至于今日應機示眾一句。又作麼生。卓一卓曰。還聞麼。如聞得。汝諸人長年與木上座眉毛廝結。其或未然。木上座往琉球國開堂去也。下座。

上堂。錯錯錯。銅頭鐵額爭強弱。是非一毫如未盡。何曾免得閻羅縛。莫將籬下破沙盆。當作佛前青石鉢。任你驚天并動地。仔細看來不如莫。畢竟如何是出是非外一句。五宗門下無蹤跡。大悲手眼摩不著。

佛涅槃日。上堂。釋迦文佛。于四月八日降生。演出一本傳奇自喝采。開場之後。或離或合。或悲或歡。到二月十五日。曲盡局終。作箇大收場于雙林示滅。大眾不可祇作矮人看場。須是識破他這一點毒心腸始得。山僧今日不惜眉毛。為汝諸人註破。以拂子擊案左邊云。釋迦文佛于此降生毗藍園內。以拂子擊案右邊云。釋迦文佛于此示滅雙林樹下。至于非生非滅底又作麼生。舉拂子云。是甚麼。咦。

上堂。箇中實地。自然凡草不生。格外玄機。直是桑蓮遍樹。不須文殊化身重重抄出。何用夢中羅漢箇箇特來。挑燈道者反增迷暗。袒膊和尚枉走街坊。若知濕即是水。甘露涓涓不從天降。若或認奴作郎。紫雲片片長封目前。今有咲破紫雲封吐却甘露味底漢子麼。好教七十餘員高僧藏身無地。一雙古龍眼井徹底清涼。咦。石塔凌空高萬丈。多少遊人枉費觀(開元古有十奇客。臨師出堂。請師以十奇說法)。

上堂。箇箇圓。處處妙。法法皆同向上竅。無始知見若能消。縱橫無礙弘機要。須彌頂上扣金鐘。新羅那畔放鐵鷄。驅出泥牛海上行。打得石虎嗥嗥叫。舉拂子曰。知箇甚麼。又見箇甚麼。擊案曰。礙箇甚麼。擲下拂子。喝一喝。下座。

上堂。昔有箇秦國夫人計氏。問法于開善謙。謙曰。我徑山和尚。祇教人看箇狗子有佛性也無。及竹篋子話。不要下語。不要思量。不得向舉起處會。不得向開口處承當。但參云。狗子有佛性也無。無。夫人依之而參。便得發明。大慧曾為普說。滿口讚揚。他是閨中之婦。無有道友商量。無有宗師警策。何能便爾悟去。蓋為渠信得極。便能著實用功。所以收功快也。這箇且置。又有箇婆子。遣人送錢。到趙州觀音院請轉藏經。趙州下禪床遶一匝云。轉藏經竟。傳與婆子。婆子云。我請轉全藏。如何祇轉半藏。當時趙州聞語。無言可對。無理可伸。恁地休去。如今有人道。趙州見他恁麼道。便好當頭便喝。或劈面便打。或下禪床再遶一匝。這些見識。何曾夢見婆子境界。諸人若識得趙州轉身處。便識得那半藏。識得那半藏。便識得秦國夫人悟處。識得夫人悟處。便識得趙州無。你們看。這兩箇都是世間俗婦。乃能通宗師血脉。豈可作丈夫漢反爾蹉過。禪期將滿。切宜用心。庶不孤今日蘇太傅夫人設齋之意。珍重。

上堂。禪期將滿。八十九日中。山僧開兩片皮。說黃道白。無非是埋沒諸人。諸人耳卓朔眼動定。聽山僧說黃道白。無非是添枷添鎖。有甚麼益。古人有箇良遂座主。他講經講論有一肚佛法。然却不能自穩。來參麻谷。谷見他來。全不管他。荷鋤頭入園去。良遂亦隨入園。谷不顧。竟歸方丈。良遂大悟。乃曰。和尚今日莫瞞我

好。又有箇禮上座。挑一擔禪到處走。到五祖演處。如何若何。演但云。上座也分些緇素好。次次來次次。如是道凡一年半。一日見演祖上堂云。同門出入。宿世冤家。忽然如秤鎚落相似。你看他。這兩箇宗師說箇甚麼。這兩箇學人悟箇甚麼。蓋此等宗師。是天下第一等宗師。此等學人是天下第一等學人。若祇向七玄八妙處尋討。逢人祇管禪去。及到臘月三十日。禪不去了也。今禪期將滿。切不可作將滿看。各宜緊把繩頭。同著祖鞭。珍重。

解制上堂。三月安居。九旬禁足。若能打破大散關。掣開布袋口。撥動聖箭子。放出遼天鶻。回看山僧九十日所說。是甚麼熱碗鳴聲。若祇記一肚抄一本學弄鬼戲。有甚麼用處。昔洞山解制云。諸兄弟東去西去。直須向萬里無寸草處去。祇如萬里無寸草處。作麼生去。翠巖解制云。一夏已來。為諸兄弟。說東說西。看翠巖眉毛在麼。諸人向去。各有二老漢。在你脚跟後。大須審細。不可祇說九十日為一期也。黑漆崑崙舉步遲。鐵鷄搏空不受羈。脚下直須無寸草。莫教孤負翠巖眉。

永覺和尚廣錄卷第一

住杭州真寂禪院語錄

三門。這門庭八字打開了也。大眾作麼生。休向脚跟下。重添多少泥。

彌勒殿。橫拖布袋呵呵笑。十字街頭等箇人。且道。等甚麼人。咄。

佛殿。金佛不度爐。木佛不度火。泥佛不度水且置。祇如趙州道真佛屋裏坐。不知面皮厚多少。大眾今日。且道。禮甚麼佛。

伽藍堂。法本法無法。汝今護何法。護伽藍神惺惺著。

祖師堂。一隊不啣[口*留]。盡無風起浪。仔細箇點來。俱不免拄杖。人事道中。且禮三拜。

據室。續真寂之舊案。行壽昌之正令。茗水溪中白練長。孔青山上黃雲淨。咄。

開堂。師至座前。拈疏云。欲弘大法。須假金湯。直把擎天之手。轉作扣關之拳。仰勞維那逐一宣出。宣疏畢。師指座云。須彌燈王如來。為諸人徹困了也。如或未聞。待山僧為汝註破。遂登座。拈香云。此一瓣香。端為祝延今上聖壽萬安。伏願。金輪永鎮於八紘。鼇極長安於萬世。此一瓣香。恭為兩院三司各郡官僚以及數郡護法宰官檀越居士等。伏願。常膺一人之簡在。永為萬姓之具瞻。此一瓣香。恭為真寂堂上聞谷大師。伏願。生生永坐旃檀林。在在常為獅子吼。此一瓣香。恭為壽昌堂上本師無明大和尚。仰酬法乳之恩。斂衣就座。白槌竟。僧出問。今朝選佛場開。且喜羣英會集。如何是轉凡成聖一句。師云。我不敢孤負汝。進云。轉凡句子蒙師指。堂奧之中事若何。師云。汝即今擗。僧禮退。問正法眼藏向這瞎驢邊滅却。為甚又覓一箇半箇。毋令斷絕。師豎起拂子云。是斷絕是不斷絕。進云。舊時門戶。今日重開。凡聖咸臨。和尚如何接待。師云。我這裏一總不容。進云。為甚麼不容。師云。恁我不得。問。寶劍當空即不問。如何是超佛越祖之談。師云。不敢塗汙汝。進云。恁麼則箇箇成佛去也。師云。也不消得。僧禮退。更有欲出問者。師云。住住。任你一人有百千舌。舌有百千聲。聲有百千問頭。祇消山僧擊一下拂子。盡答汝竟。若說有未答處。便是萬里望關山去也。舉拂子云。這箇是第一義。第二義。且莫妄生擬議。任你銅頭鐵額枉用剛強。鬼眼龍睛徒傷伶俐。機鋒巖峻只是罵雨呵晴。針線綿密盡是捕風捉影。今日蒙諸宰官居士及諸大德。命

山僧到此。教我如何開演。山僧一味杜田。沒有新鮮言句。也無花草文章。但事不容己。只得剖心剝膽費盡舌頭。為汝諸人說破。咦。多虛不如少實。珍重。居士問。殺佛殺祖盡落古人圈績。行棒行喝不脫今時窠臼。請和尚盡底掀翻直指西來大意。師云。向己道過。士禮拜。師便下座。士喝一喝。師笑云。多了這些。佛誕日上堂。僧問。世尊未出母胎。度人已畢。為甚麼今日一手指天。一手指地。師云。全身腥臭。問。悉達不降生。萬古如長夜。雲門道打殺。意旨如何。師云。止響揚聲。進云。恁麼則草枯鷹眼疾。雪盡馬蹄輕。師云。尊重好。問。諸法本離言。和尚離言如何闡揚。師豎起拂子。進云。只此。更別有。師放下拂子。僧禮退。師乃云。釋迦冤債未能了。年年一次熱湯澆。祇為兒孫奉重來。承虛接響知多少。唯有雲門解報恩。一棒打殺非奇巧。真淨又要罨雲門。壓良為賤真難曉。乃卓拄杖云。山僧今日據令而行。真淨老人還放得過麼。這三大老爭奇競峭。各逞風流。要知祇得一橛。山僧今日又作麼生道。鴛鴦枕上雙行淚。半是思君半恨君。黃海岸司理請。上堂。海岸居士問。和尚得法壽昌。得箇甚麼。師展兩手。士便禮拜。僧問。把住要津即不問。放開一線時如何。師豎起拂子。進云。龍得水時添意氣。虎逢山勢轉威寧。便拂袖歸眾。師哂之。問。有無不立。中亦不安時如何。師云。所供是實。進云。莫是學人安身立命處麼。師便喝。問。王臣親臨。光被泉石。護法恩深。將何報答。師云。護箇甚麼。進云。果然處處剎塵堪駐節。不須解帶鎮山門。師云。且禮拜著。問。不問臨濟三玄要。洞上五位請師宣。師云。問將來。問。如何是正中偏。師云。古鏡自含光。進云。如何是偏中正。師云。雪覆崑崙頂。進云。如何是正中來。師云。不向死水蟠。進云。如何是兼中至。師云。縱橫無忌諱。進云。如何是兼中到。師云。古殿積烟雲。進云。正偏五位蒙師指。不立功勳事若何。師云。向上瞧。僧禮退。師乃云。昔日郭公輔訪白雲端。端為上堂。舉云。上大人丘乙己。化三千七十士。爾小生八九子。佳作仁可知禮也。端謂。此偈能為天下人。卸却炙脂帽子。解却鶻臭汗衫。山僧看來。此偈在公輔分上。却是加一箇炙脂帽子鶻臭汗衫了也。今日海岸居士垂顧真寂。真寂又作麼生。顧居士云。居士遠來不易。居士復問。如何是上大人。師云。向下瞧。士云。莫是丘乙己麼。師云。你自看。士云。沒量大人如何在甸裏。師云。非公境界。士云。因甚到甸裏來。師云。東山月上西山月。士云。徑山路向甚麼處去。師云。驀直去。士云。五峯曾到麼。師云。總瞞不得。下座。士送師上樓。又問云。要窮千里目。更上一層樓。如何是一層樓。師彈指一下。士云。莫更有

進步處麼。師云。莫妄想。士云。勘破了也。師不顧。士云。壽昌多幸。師亦不顧。直入方丈。

六句誕日上堂。僧問。香雲飄緲。長瞻不老之春。龍象班齊。仰祝無疆之壽。敢問。如何是無疆之壽。師云。文殊算不清。進云。盡力搜尋不得時如何。師云。逼塞虛空。進云。滿盤托出時如何。師云。千手摸不著。進云。承師有言。隨家豐儉。作用不同。故有五宗之別。不落五宗一句又作麼生。師云。虛空為汝說。進云。如何是直捷門風。師云。一棒一條血。進云。如何是綿密門風。師云。金針不許知。進云。如何是暗合門風。師云。如空合空。進云。如何是平實門風。師云。喫茶喫飯。進云。如何是險峻門風。師云。鐵壁千尋。又僧問。今日誕生。不問降尊示劣。謾言倒嶽傾湫。雲門道。一棒打殺與狗子喫。意旨如何。師云。祇扶得一半。進云。假如今日雲門來。又作麼生相見。師云。啊啞。進云。此去還有向上事也無。師云。石人眼裏不栽花。僧禮歸眾。師乃云。六十年前今日生。六十年後今日說。軒轅花甲轉如環。好似甸中一片雪。諸公把住太虛空。特來為我慶時節。可憐負著臭皮囊。刻刻生兮刻刻滅。生是生滅是滅。蘇秦枉掉三寸舌。生非生滅非滅。孫臏出門脚遭刖。縱到生滅不相干。李白江頭手捉月。豎拂子云。是生是滅。是非生是非滅。是相干是不相干。喝一喝云。為汝諸人註破了也。會麼。假饒如此會得。要見真寂。尚少一隻眼在。下座。

唐祈遠孝廉請。上堂。壽昌不肖兒。舉動最顛倒。今朝撞著唐居士。不覺全身都破了。有時拈朽草而作黃金。有時指黃金而作朽草。有時喝大地而成微塵。有時搗虛空而出百寶。有時向虛空外簪花。有時向泥窟裏洗澡。顏回聞之不能愚。孔子聞之直笑倒。鬼谷洞中失却龜。問著孫臏無處討。呵呵。大眾無事歸堂好。唐居士問。如何是參禪得力處。師云。三箇孩兒抱花鼓。莫來攔我毬門路。下座。

長揖法師請。上堂。僧問。晝夜參尋。只圖見性。如何是見性一句。師云。今日不答話。進云。識得自性。方脫生死。一口氣不來時作麼生脫。師云。口自橫鼻自直。進云。脫得生死。明知有去處。眼光落地時向甚麼處去。師云。即今在甚麼處。問。孤身臨大敵時如何。師云。敵箇甚麼。進云。敵後如何。師云。莫孤負好。進云。揮戈轉日三邊外。午夜綸音事若何。師云。請尊重。問。古云。莫謂無心即是道。無心猶隔一重關。如何透得一重關。師云。汝今在關內在關外。僧擬進語。師云。去。僧禮退。師乃云。海若決無殊味。舜若豈有異疆。祇為迷封滯殼。便有我里他鄉。金丸彈子之誚。有自來矣。今長揖法師。演教閩中。不遠二千里。逐臭而來。請山僧演法。可謂。具無私之玄鑒者也。昔有人問。祖意教意

是同是別。古德云。雞寒上樹。鴨寒下水。又有云。冰塊雪團。雖各具通方正眼。但未免落在同異窠臼裏。俱未知有向上關楸子。若有人問山僧祖意教意是同是別。山僧劈面便打。何故。為人須為徹。殺人須見血。

結制上堂。今朝結期煅鍊。大家各宜抖擻。步步緊把芒繩頭。時時牢守布袋口。直須萬里一條鐵。莫學苕谿隄畔柳。大地山河成片雪。忽然變作獅子吼。頓使虛空亦腦裂。驚得須彌顛倒走。三世諸佛古塚精。千七百則棄芻狗。只如恁麼。還當得衲衣下事麼。笑云。也是蝦跳不出斗。至于跳出一句。作麼生道。良久云。醜。下座。

于潤甫別駕請。上堂。僧問。衝開巨浪百千重。透網金鱗氣勢雄。巨浪衝開即不問。如何是透網金鱗。師云。若是則透網去也。僧轉身云。今此風雲會。飛騰上九霄。師云。且歸本位著。問。一念圓滿無前後。不落階級事如何。師喝云。落何階級。問。穩臥片帆天正朗。前山無復雨鳩啼時如何。師云。足下躡驪珠。休問長天月。進云。畢竟的意如何。師云。閉目家中坐。却怨月無光。問。先大師問儀峯和尚云。十界從心生。心從何處生。請問。畢竟心從何處生。師云。闍黎問意。從何處來。僧作禮歸眾。師乃云。今日乃金壇于潤甫別駕。修大悲懺圓滿。浼山僧上堂。潤甫先生旃檀其質。金玉其韻。德風久播于閩南。聲價直高于斗北。猶謂。人非聖人。孰能無過。乃命諸阿郎。到真寂院中。修禮大悲懺法。大抵懺悔之法。似揩磨古鏡。雖不無揩磨之功。要自知本有光明不屬揩磨。若識得本有光明。則拈香擇火無非道場。禮拜誦持總歸實相。然此猶是化門邊事。更須知有古人道底。古人問。古鏡未磨時如何。云此去漢陽不遠。古鏡已磨時如何。云黃鶴樓前鸚鵡洲。又有問。古鏡未磨時如何。云昧不得。古鏡已磨時如何。云黑似添。又有問。古鏡未磨時如何。云古鏡。已磨時如何。云古鏡。此三大老。還有親疎也無。若無親疎。眼在甚麼處。若有親疎。那一箇較親。試辨別看。古又有一居士。問二祖云。弟子宿纏。乞師懺悔。好似膠舟請渡。二祖云。將罪來與汝懺。可謂打蛇得七寸。士云。覓罪相不可得。賊身已露。二祖云。為汝懺悔竟。宜依佛法僧住。矢上加尖去也。士云。此罪相不在內。不在外。不在中間。如其心然。咄。是何言歟。大小祖師作取次語。猶欠悟在。山僧則不然。誰管渠懺悔未懺悔。誰管有罪相無罪相。山僧事今日普令五彌須一時摧崩。四大海當下枯竭去也。擊拂子。下座。

冬至上堂。僧問。羣陰剝盡一陽生。淑氣初臨曙色新。剝盡羣陰即不問。如何是一陽生的道理。師云。庖羲畫不成。進云。一句分明該萬象。從教大地盡陽回。便禮拜。師云。歸位著。問。葉落樹枯

時如何。師云。足下踏泥龍。進云。還存後陰也無。師云。掌上擎日月。問。觀身實相。觀佛亦然。如何是實相。師云。泥塑木雕。僧掩耳而拜。師云。蹉過了也。乃云。一陽初生。海底吼泥牛之月。六陰漸泯。空中落翳眼之花。手探月窟。足躡天根。左能旋乾。右能轉坤。奇特也儘奇特。要是生滅邊事。祇如白日遶須彌而晝夜不與。太虛包乾象而消長弗關。是則也是。望達磨門下。猶在北鬱單越。作麼生是達磨門下一句。修羅掌上擎日月。夜叉足下踏泥龍。

臘八上堂。二千年前。世尊于臘月八日夜覩明星。見一切眾生一時成佛。這老漢猶鼓粥飯氣在。山僧則不然。山僧今于臘月八日晝覩日輪。見一切眾生無佛可成。若有箇無面目漢出來。推倒法座。喝散大眾。山僧亦恁伊不得。祇如二千年前事。與二千年後事。是同是別。却請拄杖子。判斷去也。拈拄杖卓一卓。下座。

除日上堂。僧出問。臘月三十日。有人與和尚索債。和尚如何發付他。師展兩手。問。四眾俱集。鐘鼓分明。目前聲色全彰。箇中誰是當人。師云。好自看。進云。亡家破宅。阿誰是主。師云。好自看。進云。一年臘盡春方至。崖畔梅花透鼻香。師云。多了兩句。問。承和尚示偈云。住山切莫染浮塵。敢問。浮塵堆裏學山居時如何。師云。片月行空。白雲自在。進云。寂滅身心道有餘時如何。師云。片月行空。白雲自在。進云。但得箇中憎愛盡時如何。師云。片月行空。白雲自在。進云。不參禪亦是工夫時如何。師云。片月行空。白雲自在。僧禮拜。師云。此四轉語。可仔細參詳去。問。森羅萬象法法俱彰。如何藏得。師云。孤峯獨秀。不挂煙蘿。進云。倚天長劍。截斷老漢舌根時如何。師云。弄虛頭作麼。前話未會在。僧禮拜。師云。短販樵人。徒誇書劍。乃云。山僧習懶成痼癖。抱拙養殘年。事出不已。與諸人打口鼓。未能撈龍打鳳。亦未能漉鱔釣蝦。皆緣山僧為人刀子不快。非諸人之咎也。今到臘月三十日。閻羅老子要來算飯錢。諸人又要山僧說箇圓滿伽陀。山僧記得古人云。殺人須用殺人刀。活人須用活人劍。又有云。殺人須用活人劍。活人須用殺人刀。大抵古人家富力強。用得許多刀劍。山僧一貧如洗。祇有寸鐵。要殺便殺。要活便活。有時以活為殺。有時以殺為活。諸人還知麼。今日山僧更有一箇最後最後底句。總說與諸人去也。珍重。便下座。

元旦上堂。昨夜歲華方結局。今朝韶景又開新。五更早起忙底事。拈香祝聖賀新正。齋後打鼓催上堂。看來事事盡天真。更要山僧開口說。燈籠笑倒露柱嗔。然雖如是。更聽老僧一偈。柳解揚眉桃解笑。醉倒靈雲尚未醒。石牛吸盡三春霧。到此方明一片心。

解制上堂。今日解制。諸兄弟。未免或東或西。山僧有三句分付。第一出門不得挖著死屍走。第二到人家喫飯不得沾唇。第三不得向萬里無寸草處住著。若能不犯這三句。他日燒一片香供養老僧。未為分外。若于三句中有犯。切莫道。在真寂過冬。珍重。

翠雲庵燈節。上堂。今日然燈古佛。知時應節。欲放大光明。為諸眾生。說諸佛未曾有底法。却被雪山老人先機而作。將四花繽紛而下。一時占斷青山。四壁盡堆寒玉。千峯總罩彤雲。普使一切眾生。同遊大光明藏。各住諸佛眾生平等本際。露柱便出來道。大地山河一片雪。燈籠却出來道。鷺鷥立雪非同色。香爐又出來道。二老兄著甚麼死急。你且道。好雪片片落在甚麼處。咄。這三人雖則同遊大光明藏。怎奈鼻孔被雪山老人穿却了也。惟有翠雲老僧。却不受他差排。畢竟作麼生。閉門高臥袁安被。那管堦前雪幾深。

燈節後日。法林監院請。上堂。昨夜千家燈火。萬戶笙歌。火樹燦銀花。星橋連鐵鎖。妙光法師說盡蓮華經。直使穠李遊妓醉舞。王孫悉成普光明佛。至於今日。妙光法師向什麼處去也。這箇且置。且道。作麼生是所說底經。良久云。向下文長。付在來日。下座。

住劍州寶善庵語錄

結夏上堂。寶善今朝初結制。九十日中須子細。憤然豎起鍬脊梁。單單看著自家鼻。昏魔散鬼盡遣除。從前絡索都拋棄。不須更問古佛心。不須更問西來意。洞山父子不唧[口*留]。臨濟兒孫成特地。百千三昧盡希奇。拈到老僧俱不是。既盡希奇。因甚俱不是。老僧年老解藏身。未許傍人輕擬議。珍重。

佛誕日上堂。今當悉達降生之日。四來諸大德。逐臭尋聲。求老僧說戒。古人云。戒之一字。諸佛所師。甜瓜徹蒂甜。又云。戒之一字。諸祖所忌。苦瓜連根苦。佛之與祖。本同一箇鼻孔。因甚分途而趣。有等道。師一任師。忌一任忌。似則也似。未免拈向左邊著。有等道。師無所師。忌無所忌。似則也似。未免拈向右邊著。老僧年老。氣力衰微。心力短少。更無許多計較。大眾不如歸堂去好。

解夏上堂。僧問。四蹄俱過了。為何尾巴過不得。師云。鼻孔礙人。問。正偏不立。功位無依。正當此時。請師直指。師云。老僧今日頭痛。僧禮退。師乃云。昔日結中有解。今朝解中有結。九十日中恁麼過。看來刻刻有生滅。昔日結中無有解。今朝解中無有結。九十日中恁麼過。看來刻刻離生滅。若能透過兩重關。便是教家稱極則。達磨門下事如何。直是半點無交涉。豎拂云。只如這

裏。是結耶是解耶。是有生滅耶。是離生滅耶。有事不如無事好。莫向空中重下櫬。喝一喝。下座。

佛誕日上堂。僧問。世尊初生。分明漏泄。為甚雲門要一棒打殺。師云。雲門太多事。僧云。和尚又作麼生。師云。生一任生。殺一任殺。僧云。和尚因甚全無獨斷。師云。虛空豈有減增。問。悉達降生。未免靈龜拽尾。雲門行棒。要且止響揚聲。去此二途。請師垂示。師豎起拂子。僧便禮拜。師乃云。古人道。世尊未出母胎。度人^已畢。既是未出母胎。因甚度人^已畢。老僧道。世尊^已出母胎。一人不度。既是^已出母胎。因甚一人不度。識得老僧底。便識得古人底。今日香爐頭上。三世諸佛。歷代祖師。於此轉大法輪。且道是度是不度。良久云。向下文長。珍重。

孫道臺請祈雨。上堂。拈香竟乃云。今日伏承道臺孫公。及合郡尊官諸春元文學。命老僧冒登此座。懇求甘雨。諸仁者。風從何來。雨從何起。電王飛出黑雲頭。問渠畢竟何所止。娑羯羅龍王行雨時。但動一念。娑婆世界雨悉周徧。子細看來。也不離這裏。這裏是甚麼所在。還知麼。拈拄杖云。老僧拄杖子化為龍。吐霧興雲。遮天掩日。大布滂沱。盡閻浮提悉皆周徧。大眾且道。他承誰恩力。卓拄杖。下座。

上堂。論是論非。好似將軍徒罵陣。滅蹤滅影。恰如頑石礙當門。說妙說玄。捕風捉影而徒勞。行棒行喝。帶水拖泥難自脫。到這裏。教老僧作麼生開口。良久云。聽取一偈。寶善菴中日似年。北窓高臥羲皇前。枝頭紅葉無心緒。一任風吹落枕邊。

中元日江海若居士請。上堂。今日海若居士。為薦先考懷潭封君。命老僧。陞座演法。憶昔佛于是日。教尊者目連。設盂蘭盆。仗十方僧伽之力。其母得出離苦趣。生華光天。又憶佛說供養百千諸佛。不如供養一無心道人。且作麼生是無心道人。有等便謂。東西不辨。南北不分。隨緣放曠。任性逍遙。何異萬里望鄉關。老僧今日不惜口業。為諸人道破。山如是青。水如是綠。鳥自能飛。魚自能遊。若於此作有佛法見。貶向二鐵圍山。作無佛法見。亦貶向二鐵圍山。不作有無見。祇管隨緣放曠。任性逍遙。亦貶向二鐵圍山。擊拂子云。二鐵圍山倒了也。無心道人來也。且道。作麼生供養。金菓不須猿摘去。玉花何用鳳銜來。

上堂。昔韓文公問大顛云。和尚年多少。顛提起數珠云。會麼。公云不會。顛云。晝夜一百八。這公案。老僧昔在真寂曾拈云。大顛雖是一員老將。怎奈齒不關風。老僧則不然。若有人問和尚年多少。答云。須彌重九斤。這一轉語。却有衲僧氣息。但今老僧年老氣衰。佛法又變了。若有人問和尚年多少。亦提起數珠云。會麼。彼云不會。亦云。晝夜一百八。諸人且道。老僧底與大顛底。是同

是別。若人識得大顛底。老僧在西牛貸洲打鼓。若人識得老僧底。大顛在東勝神洲作舞。東西雖有異。南北頗相通。珍重。誕日上堂。老僧今年六十六。寶善菴中借一宿。今朝道是我生辰。大家齊上南山祝。前既不來今不往。兩頭不移中豈續。此中正好悟無生。莫道。雙輪如轉軸。假饒壽若須彌盧。我道祇如彈指速。假饒壽若太虛空。也是虛空畫眉目。惟有鰲奴不記年。踏破虛空無兩足。三世諸佛不能知。露柱發笑燈籠哭。仁者若要明端的。請看多福一叢竹。

上堂。至道玄默。靈智絕依。任你行喝行棒。早已落二落三。更加如何若何。直是千里萬里。所以從上諸佛結舌有分。歷代諸祖舉似無門。昔三祖信心銘云。至道無難。唯嫌揀擇。但莫憎愛。洞然明白。豈不是剖心剖膽。說與後人。但既曰唯嫌。便是揀擇。既曰但莫。便是憎愛。况有明白可指。豈為究竟之談。須知。至道無難亦無易。無揀擇亦無無揀擇。無憎愛亦無無憎愛。無明白亦無無明白。祇如老僧恁麼道。還免得過也無。老僧雖不落揀擇憎愛。亦是借揀擇憎愛為弄引。豈能免過。畢竟作麼生免得。老僧是洞下兒孫。却憶洞上之言。

上堂。今日張華宇居士。命老僧冒登此座。舉揚大法。吾佛大法。以識心達本為宗極。以忘情默契為入門。若本分舉揚。必與諸君。大相杌鑿。今且借諸君尋常茶飯。就地輟將去。冀諸君得箇入處。如中庸開口便道。天命之謂性。大學開口便道明明德。孟子亦云盡心知性。豈不是以識心達本為宗極。如孔子云予欲無言。又云默而識之。子貢云。夫子之文章。可得而聞也。夫子之言性與天道。不可得而聞也。豈不是以忘情默契為入門。自是後之學者。流于訓詁。變為舉業。與斯道直是千里萬里。豈儒者之學則然哉。今日諸君有志于大道。切不得落于知解。滯于語言。須是謝去聲色。專其心。一其志。將通身精神。通身力量。用在一句無義味話頭上。精研之久。一朝黑漆桶忽然爆裂。自然通天徹地。放大光明。古宿嘗云。要明此事。須是如猫捕鼠。絕無他顧。亦如鷄抱卵。煖氣相接。自然得入。不見道。君子愛財取之有道。大眾久立。珍重。李羽吉居士施衣。請上堂。多子塔前。露柱共燈籠鬪額。黃梅夜半。鰲奴與白牯交參。正當恁麼時。所付何事。師拈起袈裟角。示眾云。不是天孫組織。全因化母機梭。若是一線相通。直可遮天盖地。果然寸絲不挂。便好七縱八橫。昔阿難問迦葉云。世尊傳金襴袈裟外。更有何事。迦葉召阿難。阿難應諾。迦葉云。倒却門前剎竿著。諸人還會也未。如其未會。老僧不免頌出。剎竿倒却虛空裂。萬聖千賢立下風。祇因一諾些兒事。直令千古費分疏。今日還有人分疏得下麼。縱能分疏得下。也未免拄杖三十。下座。

陳韞玉中翰請。上堂。秋風颯颯。點紅葉于玉堦。秋雲飛飛。變白衣于蒼漢。秋露垂垂。人物同沾沆瀣。秋月皓皓。山河盡入玻璃。諸人。當此之際。切不得作境會。亦不得作心會。亦不得作道會。百姓日用而不知。諸佛知之而難名。若強名之。其在世尊兩眉之間。喚作白毫相光。其在觀音胸前。喚作金色[口*紇]哩字。其在普賢毛孔裏。喚作普現色身三昧。其在勢至寶瓶中。喚作百寶光明。其在寶善水晶瓶裏。喚作真身舍利羅。舉拂子云。在老僧拂子頭上。又喚作甚麼。良久云。海神知貴不知價。留與人間光照夜。劉長卿文學請。上堂。今日乃劉長卿文學。命老僧。陞座演法。特薦故室陳氏。陳氏昔日恁麼生。而實無所生。陳氏今日恁麼滅。而實無所滅。拈拄杖卓一卓云。老僧卓杖作聲。是聲之生也。生從何來。卓已聲滅。是聲之滅也。滅從何去。既無來去。則知生是幻生。滅是幻滅。既知生是幻生。滅是幻滅。則知原未嘗有生。原未嘗有滅。識此不生不滅底。則陳氏女。不勞彈指。入七寶池。坐勝蓮花去也。陳氏且置。只如衲僧。到此又作麼生。且莫揚聲大叫。眼空四海。老僧祇分付渠。在門外止宿。園中運糞。何以故。青原山上鋤斧子。從來不肯妄流傳。卓拄杖。下座。

師到興福寺。陳曉人居士請。上堂。諸方浩浩競談禪。老僧長抱白雲眠。今朝却被陳居士。無端拉出畫堂前。諸仁者。要老僧說禪麼。且將古人數則葛藤。與諸人提唱一番。僧問古德云。如何是禪。答云。猢猻上樹尾連顛。又問。如何是禪。答云。猛火著油煎。又問。如何是禪。答云。碌磚。此三轉語。如駭鷄犀。八面玲瓏。如大火聚。棲泊不得。如塗毒鼓。聞之則喪身失命。若於此三句透得。則千七百則臭爛葛藤。一一透得。但老僧底。却不如此。若僧問如何是禪。答云。鳳山深處雨如煙。又問。如何是禪。答云。門前池水養新蓮。又問。如何是禪。答云。鷓鴣啼破白雲天。若會得老僧底。盡會得古人底。會得古人底。未必會得老僧底。今日還有人會得麼。老僧別甌炊香飯。供養於此人。

師到雙滌寺。上堂。老僧數載不開堂。一任諸方競舉揚。撒玉撒沙懶分辨。多年舌上苔蒼蒼。因甚如此。不是逢強即弱。不是退已讓人。不是無意度生。不是習懶成癖。蓋為達磨一宗。不可向口舌上辦。知解邊取。如老僧昔在寶善。聞箇雙滌寺。及昨日出寶善。過南雅口。度集瑞橋。上杉谿嶺。山如削壁。路若羊腸。崎嶇數里始達上方。方知雙滌寺不是往日舌頭上底。然更須知。不是隔岸望見已為到雙滌寺也。不是入大門已為到雙滌寺也。不是到佛殿禮三拜佛。轉過方丈吃茶。已為到雙滌寺也。到這裏。因甚猶道未到。以渠問著雙滌寺事。依舊茫然。必須問問分明。事事通達。方可稱到雙滌寺。然老僧也向他。道箇未在未在。昔日青原許箇鋤斧子。與

石頭住山去。石頭便請。青原祇垂一足。若會得青原垂足意。方吃得山僧手中棒也。大眾珍重。
永覺和尚廣錄卷第二

再住鼓山湧泉寺語錄

大雄殿上梁。上堂。昔風穴垂語云。若立一塵。家國興盛。野老嚮蹙。不立一塵。家國喪亡。野老安恬。雪竇則謂。先豎千秋偉績。後崇萬里清風。天童則謂。渭水經綸。首陽清節。雙存竝重。拈拄杖卓一卓云。三大老百雜碎了也。鼓山老人今日向無何有中。幻出空花佛事。從不思議處。建立鏡像道場。諸人且道。是立耶。是不立耶。按拄杖云。橫按鑊鄒全正令。太平寰宇斬癡頑。卓一卓。下座。

結制上堂。僧問。今日大開鑪鞴。鍛凡鍊聖。忽有箇非凡非聖底人來。和尚作麼生鍛鍊。師云。三十棒。進云。過在什麼處。師云。過在非凡非聖。進云。能凡能聖底人來。和尚又如何。師云。三十棒。進云。過在什麼處。師云。過在能凡能聖。進云。恁麼則吾師鉗鎚。大異諸方。師云。異箇什麼。僧禮拜。師便打。乃云。老僧三緘其口。七載不上堂。蓋不欲教壞人家男女也。諸方禪衲多謂。諸方肯為人。老僧不肯為人。殊不知老僧實為人。諸方却不為人。諸人還知也未。今因大中丞邵公劍津居士。新造禪堂成。結制安僧。復命老僧上堂。老僧事無一向。今日為人去也。舉起拂子云。會麼。諸人若能於此直下會取。則鼓山禪到手了也。鼓山禪最簡易最直捷。無三灣四曲底禪。無戴花插柳底禪。無奇異古恠底禪。無隱蔬秘密底禪。但能於此會取。則諸佛說底。也在這裏。諸祖說底。也在這裏。更有諸佛諸祖說不到底。也在這裏。若更回睛轉腦。則白雲萬里去也。莫道。老僧不為人好。卓拄杖。下座。

上堂。老僧前日舉拂子。要諸人直下會取。諸人還會也未。老僧恁麼道也是嚼飯餵小兒。若向箇漢道。被他驀口攔。老僧還恠得他麼。然也不可亂攔。昔興聖國師云。有一人不跨石門。須有不跨石門句。作麼生是不跨石門句。莫是道猛焰無蚊蚋得麼。莫是道師姑是女人得麼。此皆是門內句。非不跨石門句。作麼生是不跨石門句。昔有僧問興聖。不跨底事作麼生。興聖以拂子驀口打。諸人若於拂子下會得。已是遲了八刻。如或未會。老僧不惜眉毛。為諸人註破。良久云。珍重。

上堂。僧問。昔鏡清云。諸方只具啐啄同時眼。不具啐啄同時用。請問和尚。如何是啐啄同時眼。師云。的。進云。如何是啐啄同時用。師云。當。進云。南院道。作家不啐啄。啐啄同時失。又作麼

生。師云。老僧留著口喫飯。問。承聞。和尚道最簡易最直捷底禪。今日可得聞否。師云。道甚麼。進云。恁麼則今日聞於未聞也。師云。如何是聞底事。進云。待無人處白和尚。師云。好與拄杖。乃云。老僧無伎倆。只打鼓山鼓。不說禪與道。不論佛與祖。甜瓜現成甜。苦瓜現成苦。露結必為霜。雲騰必致雨。看來萬法仍舊。自然超佛越祖。千聖既皆如是。老僧何用重舉。更有一事報君知。也要大家驗取。昨夜捉得石烏龜。天明看時原是螺江神女。上堂。僧問。三千七百葛藤即不問。如何是平常事。師云。喫茶喫飯。進云。大眾分中。又作麼生。師云。喫飯喫茶。進云。恁麼則箇箇盡平常也。師便嘆。問。臨濟三玄即不問。洞山五位請師宣。師云。問將來。僧云。如何是正中偏。師云。黑漆崑崙空裏眠。進云。如何是偏中正。師云。玉女手捧空王印。進云。如何是正中來。師云。青天白日轟霹靂。進云。如何是兼中至。師云。江上興波不作浪。進云。如何是兼中到。師云。泥牛入海無人見。僧禮拜。師乃云。佛道閑曠。不涉程途。建立乖真。俱非本色。先聖事不獲已。乃有五位之設。明月夜懸秋壑。涼風暗透疎林。此是曹洞家風。運足在威音之外。遊戲入狸奴之穴。此是曹洞行藏。舉目能令三界靜。振鈴直使九天歸。此是曹洞作用。作麼生是曹洞宗。良久云。寧可截舌。

上堂。僧問。法堂鐘鼓分明。諸人耳目炳烺。敢問。鐘未鳴鼓未響消息。可得聞否。師云。側耳側耳。進云。鐘已鳴鼓已響景象。可得見否。師云。瞎作麼。進云。視而弗見。聽而弗聞。端的一句作麼生。師云。閉目作夜。問。洞山尋常教人行鳥道。未審鳥道作麼生行。師云。不是闍黎跨足處。問。有言有句即不問。無言無句時如何。師云。且收蝦蟆聲。乃云。無言無句其事轉親。有言有句其事轉遠。蓋為有言有句。皆在機境中求。所以德山云。汝但無事於心。無心於事。則虛而靈。寂而妙。先興聖國師云。不如休去歇去。一念純朴去。時中無間。却易現露這箇。此乃先聖誠言。若好在機境上求。則無論你大事未明。即自謂大事已明。而掀翻世界。推倒佛祖。亦未免毒氣未消。殺活自由。縱橫莫測。亦未免伎倆未化。止滯半途。非為究竟。何以故。塵中雖有隱形術。爭似全身入帝鄉。

冬至上堂。積陰之下。一陽復生。此造化之復也。積迷之下。一念頓醒。此人心之復也。當其未復。潛於何所。及其方復。來於何方。及其既復。何所標指。還知麼。於此窮之。則知渠今古無間。動靜不干。然亦是由人力安排。作如是說。渠實未曾說我是今古無間底。我是動靜不干底。畢竟作麼生是來復底事。噫。不是知音者。徒勞話歲寒。

上堂。僧問。為因過水逢渠後。曲垂三路接羣機。如何是鳥道接人。師云。下足不沾塵。進云。如何是玄路接人。師云。推爺向裏頭。進云。如何是展手接人。師云。覷面已相呈。進云。鼓山門下。以何接人。師云。老僧無三路。只有一路。進云。如何是一路。師豎拂。僧禮拜。問。昔從真寂住。今向湧泉來。未委。吳山越水。是同是別。師便咄。問。門庭施設即不問。堂奧之中事若何。師云。且歸位著。僧禮拜。師乃云。亭亭日午猶虧半。寂寂三更尚未圓。六戶虛通無煖意。往來多在月明前。丹霞老人此偈。將洞上家私。一時布施了也。鼓山今日。特為註破。亭亭日午猶虧半。紅焰碧波流。寂寂三更尚未圓。木鷄啼子夜。六戶虛通無煖意。秋風透竹戶。往來多在月明前。墨汁染皂衣。諸人若得此意。洞上家風不至寂寥。然此亦是門庭施設。接引中下。若有箇漢。於堂奧之中。向上關楨。一脚踏翻。則徧身無影。舉步無蹤。當此之際。還有晝夜也無。還有寒熱也無。還有明暗也無。噫。只恐不是玉。是玉也大奇。

上堂。問。潺湲一派長如玉。喝過他山杳不聞時如何。師云。山下接取。進云。道底都是污染。如何是自心靈妙。師云。鼻孔裏看取。進云。如何是無思中流出的句。師云。頂門上薦取。進云。如何是通霄路。師云。脚跟下看取。僧禮拜。師乃云。乾峯上堂云。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敢問諸人。一作麼生舉。莫便下一喝麼。莫便行一棒麼。莫道乾屎橛麻三斤麼。且喜沒交涉。唯雲門有斷舌之才。出眾道。昨日有人。從天台來。却往徑山去。且道。他是舉一是舉二。乾峯云。典座來日不得普請。便下座。且道。他是答雲門話。是不答雲門話。此等如石女當歌木人撫掌。其中自有深趣。正所謂打麩還他州土麥。唱歌須是帝鄉人。

上堂。僧問。昔百丈問滄山。併却咽喉唇吻。作麼生道。滄山云。却請和尚道。其理若何。師云。明月高懸未照前。進云。五峯道。和尚也須併却。又是何意旨。師云。操戈入室。進云。只如雲巖道。和尚有也未。作麼生喪却兒孫。師云。反隔一重。進云。忽有人問和尚。和尚又作麼生道。師云。汝但併却咽喉唇吻。問將來。問。承和尚有言。動著即乖本色。只如一切處不乖時如何。師云。青天白日莫弄影。進云。乖與不乖。總是這邊事。作麼生是那邊事。師云。沒角泥牛犇夜欄。問。四方干戈。將何法以寧之。師卓拄杖。進云。四方火災。將何法以熄之。師卓拄杖。進云。四方疾疫。將何法以療之。師卓拄杖。進云。四方饑饉。將何法以濟之。師卓拄杖。僧禮拜。師便打。乃云。明月高懸未照前。休將影象論虧圓。一點靈光周劫外。今古何曾有間然。諸人還見也未。如見得。方入鼓山門。鼓山門下。必須言行相顧。理事圓融。若有一毫

見地未消。一毫意氣未泯。一毫影跡未淨。終墮半途。至於到家一句。作麼生道。客散雲樓玉燭殘。六窓虛靜暗生寒。鐘聲何處因風至。驚起牯牛犇夜欄。珍重。

元旦上堂。師拈拄杖云。一元更始。含弘光大。春風浩蕩。萬物維新。至於老僧拄杖。又作麼生。雖則亘古亘今。亦能隨時逐節。有時作出海金龍。興雲布雨。有時作漫天絲網。打鳳撈龍。有時作金剛寶劍。斬妖戮魔。有時作探竿影草。勘臟驗賊。今日元旦啟祚。又作箇什麼。化作須彌為壽嶽。仰祝 今皇億萬年。卓拄杖。下座。

上堂。師云。嵯峨萬仞。鳥道難通。劔刃輕冰。誰當踐履。必須通身無影。足下無私。始稱其人。不然。雖眉間掛劔。肘後懸符。若到此門。未免點額。何以故。曾經大海休誇水。除了須彌不是山。解制上堂。僧問。曹洞正宗。和尚得傳。和尚正宗。阿誰得傳。師云。老僧不從曹洞傳。也不從諸佛傳。進云。恁麼則從何處傳。師以拂子敲香爐云。渠從何處傳。僧禮拜。師乃云。老僧九十日前。說東說西。還有法與人說也無。若有法與人說。是闍黎辜負老僧。若無法與人說。是老僧辜負闍黎。九十日後。不說東說西。還有法與人說也無。若有法與人說。是老僧辜負闍黎。若無法與人說。是闍黎辜負老僧。今朝正當九十日。又作麼生得不辜負去。三千里外。逢人不得錯舉。

羅山爾和上人為本師誕日請。上堂。正脉難通。邪見易熾。超佛越祖。看來總是階梯。妙唱玄提。即此便名窠臼。白雲巖下。多沉出格之英。芳草渡頭。久滯他鄉之客。所以曹洞門下。別設宗趣。金鳳搏空。不止須彌頂上。鐵牛駕浪。偏入大海波心。不犯當頭。猶貴轉身有路。行於異類。直須足下無私。雖然如是。不是逐步安排。隨時湊泊。須知有功不能涉。位不能該一著。若知此著。則一念可以頓圓。一時可以全具。所以洞山老人云。如大地火發相似。今日乃恒如師耳順之期。其徒爾和上人為設齋。請老僧陞座。特為舉揚斯事。至於因齋慶讚一句。作麼生道。斬新日月年年長。不老乾坤世世同。

淨和師請。上堂。老僧昔年與淨和老友。同往雙髻峯頭冷雲窩中。一室孤燈相對寂然。向後老僧一念之錯。墮作流俗阿師。淨師脊梁若鐵。兀坐空山。垂三十載。今日特上鼓山設供。請老僧陞座。不知渠是何心行。今日所謂醜媳婦。不免見公姑去也。昔洞山老人過水觀影大悟。作偈曰。切忌從他覓。迢迢與我疎。我今獨自往。處處得逢渠。渠今正是我。我今不是渠。應須恁麼會。方得契如如。此一偈五位十玄。三墮四禁。盡在其中。今日當大眾前。逐一註破。切忌從他覓。畢竟要從何處覓。迢迢與我疎。誰是最親者。我

今獨自往。亂走作麼。處處得逢渠。見神見鬼。渠今正是我。猶隔一重山。我今不是渠。蹉過知多少。應須恁麼會。要會作麼。方得契如如。三十棒教誰喫。老僧恁麼花擘了也。諸人還會麼。老僧三十年前。學臨濟禪。不肯死在臨濟窟裏。三十年後。學曹洞禪。不肯死在曹洞窟裏。何以故。孝順還生孝順子。忤逆還生忤逆兒。陳蓮石太史。建神光法堂成。命慧超上人。入山設齋請。上堂。一陽初動。喜見天心。聖壽無疆。乾坤將泰。陳蓮石太史應時行令。移神光法堂而入鼓山。老僧就路還家。移鼓山法堂而入神光。於中泯彼此之相。絕去來之跡。但見鐵地藏徹底放光。石如來通身是口。其中諸眾生。各各不識不知。飽飧法味。又何待老僧打鼓陞堂搖唇鼓舌。然後為說法哉。雖然如是。今日老觀門戶大開。老僧證明有分。

師七旬誕日。上堂。僧問。和尚今日壽旦。是有量壽。是無量壽。師云。八角磨盤空裏轉。問。聖人出世。風不鳴條。雨不破塊。今日和尚誕辰。因甚風雨大作。師云。石鼓正喧空。問。和尚今年七十。敢問。七十年前作麼生。師云。但看今日。僧禮拜。師乃云。浮光弗久。世相靡堅。歷觀世間。渾同夢事。老僧憶年四十時。在壽昌寺裏初脫白。其時眼前境相熾然。無出身之路。年五十時。遯跡建州荷山。灰頭土面。栽禾博飯。其時雖已安下鼻孔。却為鼻孔所礙。年六十時。向杭州苕溪岸頭。張箇漫天金網。擬欲撈龍打鳳。其實一螭螟蟲。也撈不得。今年七十。在石鼓峯頭。耳聾眼暗。志氣銷盡。惟在七尺單頭。證箇瞌睡三昧而已。歷觀前此三十年。經幾番變易。盡是虛名幻影。全非真實。到今日。亦絕無長處可道。然既到此。強為諸人道一句去。堂前幾陣風雷息。萬里謳歌賀太平。珍重。

雪子禪人請。上堂。老僧今年七十一。白露降後西風急。昔年露柱忽生兒。大家盡道是好日。脫空捏恠許多年。欺聖瞞凡無一識。弄到於今家業空。獨留手中一榔栗。三玄五位雖不知。撐天拄地承渠力。有時拈出法堂前。驚破金剛半邊鼻。諸仁者。且道。這榔栗從何處得來。良久云。更待三十年後。為諸人說箇來歷。

澤普禪人請上堂。建州全城生命。盡為大兵所屠。澤普禪人愍而薦之。仍請老僧陞座演法。夫有生者必有死。此人之所共知。但未知生而未嘗生。死而未嘗死者。非水火之所能劫。刀兵之所能傷者也。譬如鏡影往來。而鏡體不動。海波起伏。而海體常安。達其常安不動之體。則超登彼岸。執其往來起伏之用。則流浪不窮。昔洞山冬至日。吃果子次。垂一問云。有一物。上拄天下拄地。黑似漆。常在動用中。動用中収不得。過在甚麼處。泰首座答云。過在動用中。洞山喚侍者。掇退果卓。洞山此問。心倖不少。首座雖是

一員老將。怎奈龍門點額。後來人爭要為首座出氣。看來要吃洞山果子。俱未得在。惟有同安顯。別云不知。此所謂猛火場中橫身直過。刀鎗林裏掉臂獨行者也。至於老僧。則不然。但答云不動用中還収得麼。管取洞山縮舌去也。

臘八日。惟善僧綱請。上堂。昔日世尊。在雪山六載。蘆芽穿膝。蛛網挂眉。為明此事。逗到臘月八日。夜覩明星。朗然大悟。始成正覺。後代兒孫。承虛接響。為渠舉揚。諸人且道。悟底是箇甚麼。若道是心。心不見心。若道是佛。佛不成佛。若道是禪。禪不名禪。既不是心。不是佛。不是禪。又是箇甚麼。已上通供。竝是詣實。諸人切莫錯認驢鞍橋。作阿爺下頷。珍重。

徐爾昌居士報親請。上堂。人之有生。莫不本於父母。故父母之恩。如天普蓋。似地普擎。無有能報盡者。今欲報盡有生之恩。須明無生之理。良久云。泥牛耕練色。木馬嘯春風。雙江無一滴。滔滔向海東。

上堂。春風浩蕩。淑氣氤氳。枝頭鶯語。聲聲喚遊子歸家。牆外桃腮。色色見毗盧出位。此中若有仙陀客。便可一擔領荷。雖然。也不可草草。須知有洞山道的。洞山大師云。渠今正是我。我今不是渠。渠既是我。因甚又道我不是渠。若不識此意。便落在洞山三滲漏。亦落在乾峯二種光不透脫。亦落在曹山四禁。如何做得洞下兒孫。老僧今日。不覺頓揚家醜。只要諸人得箇真正鼻孔。不失曹洞血脉。還有麼。噫。出頭天外看。誰是箇中人。

孫鷺林問卿居士請。上堂。今日孫鷺林問卿居士。為薦夫人林氏。屈老僧到此。發明往生之旨。夫吾心。本有一片乾淨國土。非有生非無生。亦非非無生。祇為諸人粘妄發光。變成五濁凡區。古佛乃教人修離垢之行莊嚴之功。由是變為極樂淨土。夫五濁凡區。與極樂淨土。總是浮光幻影。無有真實。若究其實體。則身心世界。無非一如。本無變易。正如今日。雲迷霧集。大雨淋漓。天實未嘗動著。倏忽之間。雲收霧散。杲日當空。天亦未嘗動著。但此一如之體。不可容易擬議。若只在情識中卜度。隱隱地見有箇物。則祇是一箇泥團子了也。諸人須打破泥團。跳出虛空。則盡十方世界。總是一箇無量光佛身。盡十方世界總是一箇寶蓮花淨土。更欲何生。更欲何往乎。這裏正是諸人往生處。不可不知也。大眾久立。珍重。

不遠禪人薦親請。上堂。昔那吒太子。欲報親恩。乃析骨還父。析肉還母。然後現本身。為父母說法。既析骨肉還父母了。又喚什麼作本身。又喚什麼作本身所說之法。雲門云。扇子[跳-兆+孛]跳上三十三天。[祝/土]著帝釋鼻孔。東海鯉魚打一棒。雨似盆傾。傅大士云。空手把鋤頭。步行騎水牛。人從橋上過。橋流水不流。若

會得此意。則一切有情無情。一時成佛。又何父母之不度脫哉。至於今日。事體又別。不遠禪人欲報父母之恩。更不消析骨還父析肉還母。止將父母所生之身。為父母請法。老僧亦止將父母所生之口。為大眾演說。且道。與古人是同是別。噫。不因漁父引。怎得入桃源。珍重。

茂熙上人薦親請。上堂。孝之一字。儒家謂之天經地義至德要道。至我釋門。梵網一經。演說菩薩大戒。開口便道孝名為戒。亦云孝順至道之法。是儒釋竝以孝為首重也。但吾釋之孝。與儒不同。儒者之孝。不過口體奉養。盡誠盡敬。立身揚名。葬祭以禮。孝之道惟斯而已矣。吾釋之道。則異於是。蓋以人子所有法身。即是父母之本身。若能知此法身。然後加奉重之功。念茲在茲。至於承當擔荷。一旦頓忘。則與法身冥合無間。古人謂之著力推爺向裏頭。又謂之全身歸父。到此。始稱孝順之子。不然。雖能立身揚名葬祭以禮。亦祇是一場夢事。其與父母之精神命脉。迥然違背。又安能孝乎。大眾不可不知。珍重。

三山鄭道恭道人請。上堂。今日四月五。打起鼓山鼓。驚得石人忙。跳出庭前舞。木人問言。你因甚如此。報言。只為王宮生悉達。多少歡喜。多少愁苦。木人言。何不向父母未生前安處。卓拄杖云。老僧今日正令當行。將二人各打三十拄杖。趕出三門去。何以故。你看。世尊初生。乃至雙林入滅。還曾出得父母未生前否。皆是後人眼見空花。妄生枝節。真淨界中。實無是事。珍重。

誕日。溫陵陳太忍等請。上堂。枯木巖前一橛禪。不明五位并三玄。行年七十有三歲。執拗全無有變遷。諸方笑罵渠不管。坦然高臥白雲邊。任他賢聖俱訶叱。一橛甘將蓋地天。諸仁者。似者等無用老頭陀。正好填坑塞窟。安用請他上堂。然事既到此。不容空過。仍將者一橛。與諸人結箇緣去。舉拄杖云。大眾會麼。卓一卓。下座。

海藏禪人薦師請。上堂。道存上座。親參博山。真操實履。垂三十載。今以病來鼓山。約日期時。端坐而化。茲當四七之辰。其眷屬屈老僧到此。不免舉舊日葛藤。與諸人商量看。昔僧問雪峯。亡僧遷化。向什麼處去。峯云。如冰歸水。後舉似玄沙。沙云。某甲則不然。峯云。子作麼生道。沙云。如水歸水。二大老千古龜鑑。後學稟承。鼓山安敢步趨。只得別道去也。若問亡僧遷化向什麼處去。答云。如空歸空。諸人且道。老僧底與古人底。相去多少。不免再為頌出。冰來歸水待消融。水若歸時尚有蹤。虛空本自無分合。到底無歸絕異同。

壽寧秀生靜主請。上堂。僧問。受戒之人。殺生害命。持呪懺悔。撞著箇殺佛殺祖底來。作麼生懺。師云。你還殺得麼。進喝一喝

云。殺却了也。師笑云。錯。乃云。佛祖妙道。至易至近。即在尋常日用之間。無有難知難行之事。又安用殺佛殺祖。費許多氣力作麼。祇如今日打鼓撞鐘。各人披衣拈具。脚輕步快。趨上法堂。展具三拜。收具聽法。一一天真。一一明妙。竝不違時失候。即此便是世尊不說說底。迦葉不聞聞底。亦便是諸佛諸祖說不到底。又安用殺佛殺祖為。所以古人云。善哉三下板。知識盡來參。既善知時節。吾今不再三。古人如此吐露。更有何事。然亦須知有箇避忌處。如何是避忌一句。止許恁麼知。不許恁麼會。

白雪善生二靜主。請藻鑑悅眾歸鄞江請。上堂。僧問。古人云。澄潭月影。靜夜鐘聲。隨扣擊以無虧。觸波瀾而不散。猶是生死岸頭事。且道。過在什麼處。師云。墮身死漢。進云。轉得身時如何。師云。雷破空山寂。進云。更有尊貴一句。請師親道。師云。老僧今日倦。僧禮拜。問。拈起金針玉線。穿過機先。截來兔角龜毛。發明向上。猶是者邊事。如何是那邊事。師良久。進云。祇如古人道。手指空時天地轉。回途石馬出紗籠。又作麼生。師云。溪山雖踏徧。脚下總無蹤。問。一切語言盡落今時。如何是向上一句。師豎拂子。進云。猶是今時事。師便喝。僧禮拜。師乃云。昔高峯云。意句不到。宗說不通。盲龜跛鼈。意句俱到。宗說俱通。盲龜跛鼈。見西峯恁麼告報。將謂離此別有生涯。亦是盲龜跛鼈。高峯此三科。收盡一切衲子。作麼生出得此三科去。老僧今日設箇方便。將拂子空中點一點云。祇者些兒。也有權。也有實。也有照。也有用。也有正。也有偏。也有賓。也有主。諸人若能一擔領荷。便是千里神駒。追風逐電去也。豈三科之所能收。諸人知麼。下座。

不虛上座入塔。上堂。東方佛西方佛。徹底窮源無一物。東方土西方土。草鞋踏破無尋處。人人盡道有往生。生即不生何不悟。守著不生亦太迷。禪人到此須自顧。泉州不虛老友。素修淨業。今日灰飛煙滅。藏身有地。諸人且道。是往生耶。非往生耶。亦生亦不生耶。非生非不生耶。咄。夜半烏龜飛上天。東邨王老謾商量。珍重。

一脉禪人為本師誕日請。上堂。僧問。者箇分明在目前。饑來吃飯困來眠。此外還有事也無。師云。未嘗無事。進云。更有何事。師云。眉毛蓋眼。僧禮拜。師乃云。今時人。但言饑來吃飯。困來打眠。千休萬歇。便爾承當。殊不知其中大有事在。老僧今日。不免為渠指出。石牛長吐三春霧。木馬高嘶午夜風。冬瓜架上吞北斗。扁擔門下笑虛空。此四句中。也有實。也有權。也有照。也有用。諸人還會麼。如其未會。不可便謂坦然無事去也。今日乃智光師耳順之辰。其徒一脉。特為設齋。請老僧陞座。老僧適來。因風叨

咀。不及道祝壽一句。遂拈起拄杖云。且道。者上座年多少。卓一卓。下座。

覺林警心禪姪請。上堂。昔白樂天問鳥窠禪師云。如何是佛法大意。鳥窠云。諸惡莫作眾善奉行。樂天云。三歲孩兒。也解恁麼道。鳥窠云。三歲孩兒雖道得。八十老人行不得。鳥窠乃唐代高僧。豈不能談玄說妙。遮蓋門戶。因甚却如此。蓋此二語。言之則易。知之實難。而行之又難。何謂知之實難。諸惡莫作是誰莫作。眾善奉行是誰奉行。何者為惡。何者為善。此知莫說是人天種子。即是諸佛慧命。不亦難乎。何謂行之又難。若論其極。惟佛一人。庶幾無愧。等覺以降。俱有慚德。所以云。行之又難。近日有等人。行棒行喝。說玄說妙。自謂高出三界。及至些小事到面前。要喝喝不開。要棒棒不去。要止止不得。妄情牽將去。要行行不得。幻境壓將來。祇得倒在三途隊裏。縱貪嗔痴過日。是知鳥窠此二語。真千載之龜鑑。近代之藥石也。今日覺林警心老姪。特來鼓山設齋。請老僧陞座。覺林雖不能開堂說法。亦能實心實行。化導一方。是覺林之說法久矣。覺林之說禪深矣。大眾不可不知。珍重。清流陳而慧兄弟請。上堂。參學之士。當以參禪為貴。參禪之功。必以識病為先。不識病則禪為偽禪。禪既偽則道為外道。所以爭人競我。貪名逐利。為今日之禪是也。如何是病。老僧開堂二十年來。逢人說心說性。說道說禪。說權說實。說照說用。竝是無始劫來深重病根。未能破除。如何是禪。老僧前六月十三日。因晒書失跌。左足疼痛。困臥牀席。已周一月。未能痊愈。諸人猶來強老僧說法。三三五五。擡到法堂。者箇是老僧真實禪。若識得老僧真實禪。便識得老僧真實病。識得老僧真實病。便識得諸佛諸祖真實禪。然更有箇禪病俱忘一句。且待病愈日。為諸人道破。

寧化謝爾賓居士請。上堂。僧問。洞山道。當時幾錯會先師意。敢問。如何是他不錯底。師云。澄潭不許蒼龍蟠。進云。曹山云。去亦不變易。祇如春生夏長秋收冬藏。作麼生道不變易。師云。亘古亘今。何曾變易。進云。雲居云。頭頭上了。物物上明。只喚作了事人。終不是尊貴。如何是尊貴。師豎起拂子。僧禮拜歸位。師乃云。石門天外海風清。浩蕩無涯法界深。九萬扶搖人不識。却尋雁影小溪濱。東也錯。西也錯。些兒動著頭生角。前也莫。後也莫。却似無繩還自縛。凡也非。聖也非。捉著虛空要剝皮。是也喝。非也喝。右軍愛鵝失却鶴。老僧今日恁麼告報。雖是為眾喫緊。也是畫蛇添足。添足且置。蛇即今在什麼處。僧攏前作怕勢。師云。三級浪高魚化龍。痴人猶辱夜塘水。卓拄杖。下座。

清流王長公居士請。上堂。古德云。轉山河大地歸自己則易。轉自己歸山河大地則難。古人恁麼說話。總是一己之私未忘。眼前影像

未消。不知山河大地是箇什麼。自己身心又是箇什麼。況又於中分難分易。却似較空花之濃淡。論兔角之短長。豈非大謬。諸人但向父母未生前。睜開正眼。如教中謂。一人發真歸元。十方虛空悉皆銷隕。又安有山河大地自己身心哉。老僧今日不免依教申明。從權辯惑。聊打者箇葛藤。若鼓山杜蠻禪則不然。也不論山河大地。也不論自己身心。也不論父母未生前。也不論父母已生後。卓拄杖云。但向者裏會取去。更有何事。會麼。釣船載到瀟湘岸。氣噎無聊問白鷗。

高開熙居士薦親請。上堂。今日乃高開熙居士。為其母林安人終七之辰。請老僧上堂。安人在日。篤修淨業。臨終坐化。了了分明。且囑其子到鼓山。請老僧上堂。為發明往生見佛之旨。當斯時也。玉露橫江。金風透幙。丹桂飄香於前庭。金蟬發噪於晚樹。諸人且道。即此是西方耶。非西方耶。若道是西方。錯認驢鞍橋作阿爺下頷。若道非西方。含元殿裏更覓長安。唯古人道箇萬象之中獨露身一句。最親切。諸人若會得。即見阿彌陀如來。橫身為物。金沙寶地。昭然目前。林安人即今在七寶池中。坐寶蓮花。成等正覺去也。如其未然。西方去此。十萬八千。珍重。

福城劉惟一居士請。上堂。老僧行年七十五。帶病來打鼓山鼓。癡癡逐逐不知休。笑倒庭前栢樹子。老僧曾憶。五十九歲。始在溫陵開堂。至今已一十七年。說法不為不久。歷主四刹。舌根拖地。說法不為不多。今年既衰憊。正好屏息深山。以待天年。豈可復向人前簸弄口鼓。茲又因劉居士苦屈老僧上堂。乃對諸大眾辭却。此舉以後。不必復請。蓋此道離言說相。離文字相。言可以明道。亦可以晦道。可以載道。亦可以廢道。昔者維摩默然。文殊讚其真入不二法門。須菩提巖中晏坐。帝釋便來散花。諸人當善會此意。不然。老僧更說一十七年。有何所益。會麼。啼得血流無用處。不如緘口過殘春。珍重。

師八十誕辰。當山大眾再請。上堂。把住虛空作一場。三十餘年特闡揚。五載深藏三寸舌。潦倒隨風更上堂。此一上堂。蓋為家中眾兄弟。以老僧八十誕日請。老僧應箇時節。然既是家裏人。正好說家裏話。自有宗門以來。諸師各因其性之所近。權巧建立。接一路機。惟曹洞則不然。言行必須相顧。理事必須圓融。智行必須竝重。可以高坐萬仞之上。可以深沉九淵之下。高者不墮于奇險。卑者不墮于平實。乃千聖同遊之大道。行之萬世而無弊。非一時權巧所建立也。其始則必以知有為入門。既已知有。然後可施奉重之功。可造尊貴之位。可以翱遊于鳥道。可以混跡于類中。然形跡尚存。非為至當。必須今時及盡。炭裏藏身。遊于無何有之鄉。然又不可滯于劫外。須知。石牛吐出三春霧。靈鷲不棲無影林。始可謂

無功之功。今古無間。而曹洞之能事畢矣。老僧今日。為諸兄弟。漏逗一番。也是憐兒不覺醜。貧子數家珍。諸兄弟還會麼。良久云。三千里外。逢人不得錯舉。卓拄杖下座。

心閒上人請。上堂。幻寄人間八十年。半生蹤跡白雲邊。不學達磨徒面壁。那師孔子斷韋編。人來慶壽壽何在。剎那生滅相非堅。纔道無量還成量。描邈虛空白倒顛。大抵世事皆虛妄。慶弔相尋疾轉旋。不如絕去閒知解。把手同遊太古天。太古天最上禪。妙明體淨更何言。纔著語言成染污。莫將心印亂流傳。舉拂子云。且道。是太古耶。今時耶。是有量耶。無量耶。喝一喝。下座。

雙峯靜主率眾請。上堂。昔洞山大師。於冬至日。吃菓子次。垂一問云。有一物。上拄天下拄地。黑似漆。常在動用中。動用中收不得。且道。過在甚麼處。當時有箇泰首座答云。過在動用中。洞山命侍者。掇退菓子卓。此一則公案。傳來將千載。批判者不少。會意者無人。若據老僧意。有一物。上拄天。是此物外有天。下拄地。是此物外有地。常在動用中。動用中收不得。則非動用中還收得麼。此問不過是洞山權巧建立。作箇探竿影草。若向此中求有過無過。也是胡餅裏討汁。虛空裏釘橛。今日老僧。打破千年營寨。點開萬古心胷。罪過彌天。尚容下座懺悔。久立。珍重。

諸山同眾護法請。上堂。今日乃福城內外諸山大德。同林孔碩眾居士。以老僧八十誕日。特來設齋。請老僧再說無生之法。夫有法則有生。無生則無法。若說無生時。法法何曾法。今日老僧。略為傍通一線。一切凡夫。只是起於有生。一切聖賢。只是始於無生。此生與無生。實聖凡之大判。若要明此無生之旨。古人大有樣子。古論中云。諸法不自生。亦不從他生。不共不無因。是故說無生。古今諸師。多依此釋。若據老僧意。則不然。本無自。說甚自無生。本無他。說甚他無生。本無共。說甚共無生。本無無因。說甚無因無生。此所謂體本無生也。諸人還會此意麼。若會得。便可當下超出三界。永斷輪迴。更無別法。珍重。

泉州開元寺大眾請。上堂。憶昔老僧年五十九歲。在泉州開元。始開堂。此後將娘生鼻孔扭捏。搖唇鼓舌。說黃道白。至于今日。年已八十。拙語流布。已至二十餘種。而開元諸兄弟。復來請老僧說法。將謂老僧有說不盡底法。今日方說麼。將謂老僧有不肯說底法。今日方說麼。殊不知。老僧一言半句。無不傾倉倒廩。更無其餘。又有何法可說。然既到此。不可虛過。亦有一句子。分付大眾。昔達磨懸記云。此土眾生。明道者多。行道者少。後來古德亦云。說得一丈。不如行得一尺。皆言說之固易。而行之甚難也。然老僧謂。雖能說能行。未免更有事在。必將謂。我獨能說。彼不能說。我獨能行。彼不能行。逢人譽已。則嬉然解頤。逢人謗已。則

艷然變色。是皆人我之相未忘。是非之見未泯。雖說玄說妙。自謂超佛越祖。殊不知實閭閻俗漢中收。老僧反躬自省。負愧良多。所以血誠告報。諸兄弟。毋趁飛龍之口。勿墮跛鼈之羞。是為老僧最後分付。大眾努力。珍重。

建州眾道友請。上堂。金風掠地生愁苦。世變滔滔不可阻。二十四年不奈何。只似當軒搥布鼓。布鼓如何能警人。舌根拖地有何補。八十翁翁入戲場。可憐兩袖郎當舞。而今折合更何言。也要叮嚀一句子。者一句子。作麼生道。今朝七月十五。這一句子。諸佛之所未說。諸祖之所未傳。百千佛法俱在裏許。若更此外求奇。便是喚齊作魯。今日乃建州眾道友。以鄉情之舊。來為老僧慶壽。請上堂。不免漏逗一場。雖然。若守一曲之見。而無域外之觀。西天大有人不肯在。

壽昌竺庵禪師請。上堂。今日乃壽昌竺庵禪師。遣心月上人等。來為老僧慶壽。且請上堂。壽昌乃先師所建道場。不募外緣。不干豪右。唯取給於犁鋤之下。居十年。而壽昌成。煥然為一方法社之冠。至明鼎既移。綠林蜂起。壽昌遂成灰燼。後有竺庵。毅然肯來。獨任其事。當其時。事勢有牴牾。人情有向背。竺庵乃能用柔用剛。任恩任怨。以成其事。至今八年。前後棟宇皆已略備。功固偉矣。但住持不是易事。古德有云。住持必具仁智信勇廉五者。方成大器。老僧于萬曆間。徧訪諸名宿。惟雲栖大師及壽昌先師。可稱具五。老僧出世。勉行其三。尚缺其二。所以弄到今日。只成得箇村裏師子。竺庵今為住持。為具五耶。為缺二耶。為國裏獅子耶。為村裏師子耶。竺庵年富力強。不可不勉。老僧于竺庵。有厚望焉。珍重。

寶善藻鑑長老請。上堂。寶善乃聞谷大師道場。大師去後。寥落無人。老僧力不能兼。委藻鑑長老主之。藻鑑乃能善繼其事。棟宇重新。禪衲輳集。道風大振。在延建邵汀四郡中。稱寶善為第一叢林。餘無能及者。今來鼓山。為老僧慶壽。且請上堂。記得。三十年前在寶善。參聞谷大師。大師問予。如何是本法。予當時默然良久。大師曰。情知。在鬼窟裏作活計。予曰。大師作麼生。大師曰。不辭向汝道。祇恐不善聞。予曰。大師善說本法。即禮拜。次有僧問。如何是寶善。寶大師展兩手。僧罔措。大師曰。汝不是辨寶波斯。少頃喫茶次。予曰。識得寶善寶。便識得本法。識得本法。則無法不識。大師曰。不可恁麼道。予曰。大師作麼生。大師曰。識得本法。則諸法。如生冤家相似。今因寶善來。此特舉出此兩則。機緣廣施大眾。以報大師法乳之恩。然老僧今日。事體又別。非獨不能說本法。且又不能知本法。難向人前誇劍術。惟同樵子和山歌。珍重。

定西奉化二上人同壽。寧慶元眾緇素閱大藏經。為師祝壽。圓滿日請。上堂。鼓山重創以來。獨闕大藏。有泉州黃植三居士。發心印出。復得榕城內外諸居士。錦上鋪華。裝潢成帙。又有壽寧秀生道友。同其法屬。化眾緇素。開演此藏。今得圓滿。請老僧上堂。唱箇圓滿伽陀。老僧記得。昔有一婆子。送錢與起州。請轉藏經。趙州下禪床。繞一匝云。轉藏經竟。婆子聞云。本請轉全藏。如何祇轉半藏。者婆子。具甚麼手眼。敢恁麼道。老僧看來。這婆子。見滯有無。情存向背。只成箇世間俗婦。被趙州活埋。八百餘年。至今未起在。老僧今日。又作麼生轉。拈拄杖卓一卓云。大眾且道。是半藏是全藏。是圓滿是不圓滿。喝一喝。下座。

淨輝禪人請。上堂。老僧行年今八十。世間事事皆收拾。唯有說法未能除。費盡舌頭三寸力。今日乃淨輝上人。為老僧慶壽。請上堂。不知淨輝。以何為壽。老僧自己推窮。亦不見有壽。將以年月日時為壽。此乃大化推遷。循環不窮。與老僧全沒交涉。若以精神血氣為壽。則年消月耗。日趨于盡。有何壽之可言。兩者既不可言壽。將以何者為壽。若謂人有金剛不壞之性可以言壽。不知此性。上至諸佛。下至蠢動。悉皆具足。豈獨老僧有之。且此性如虛空。無有成壞。無有長短。因世俗之壞。以得不壞之名。即金剛不壞四字。亦是以世諦語言。裝點虛空。無有是處。禪和子。豈可被這般虛名假號所迷惑哉。禪和子。畢竟作麼生。虛空打破翻筋斗。一任人間論短長。

無一書記同弟張克一子聖謨請。上堂。黃金世界桂花香。風吹紅葉滿庭颺。手把金針須密縫。莫隨幻影自生狂。大功纔轉鋤頭歇。到此方知入故鄉。入故鄉須轉步。雪屋迷人成自誤。金鷄不住鳳凰臺。銀鶴飛上雲頭路。雲頭路上獨往還。始出故鄉舊門戶。今日乃無一書記。同其弟克一子聖謨。以四十年鄉梓之舊。特來為老僧祝壽。請上堂。老僧不辭饒舌。然更須知盡十方無寸土。向甚麼處。道箇他鄉故鄉。盡十方是故鄉。向甚麼處。說箇入故鄉出故鄉。會麼。如或未會。更聽老僧一偈。道曠無涯何底止。虛空[打-丁+送]倒又扶起。舌頭無骨為誰宣。不為鄉情故如是。珍重。

付法為霖首座。上堂。曾在壽昌橋上過。豈隨流俗漫生枝。一髮欲存千聖脉。此心能有幾人知。潦倒殘年今八十。大事于茲方付伊。三十年中鹽醬事。古人有語不相欺。逆風把舵千鈞力。方能永定太平基。遂付衣拂。下座。

永覺和尚廣錄卷第三

小參

開元入院小參。山僧一介草茅。半生擔板。三十年來。未曾向人前說一禪字。今日狹路相逢。不免出乖弄醜。若論佛法。本自無法。今日禪和佛法太多不見。古云。法法何曾法。又云。四十九年未曾說著一字。諸兄弟。莫因山僧說無法。便在虛空中。釘箇橛子。若在虛空中。釘箇橛子。則無法便成有法了也。今諸兄弟。且須守箇本分。莫妄生擬議。如今有等人。祇弄虛頭。向古人公案上穿鑿。學頌。學拈。學答。話向人前。或喝。或棒。擎拳。豎指。從東過西。從西過東。拂袖便行。推倒禪床。轉身作女人拜。打箇筋斗出門去。此等雖是古人已用三昧。今日種種相襲。便成惡套了也。如何是佛法。所以山僧總不理他。蓋為無許多閒氣力也。大眾要佛法麼。山僧今夜將三世諸佛歷代祖師。一切諸法盡情。與諸兄弟說去好麼。良久云。燈籠跳出人前。却說。和尚今日。開堂辛苦。珍重。

小參。德山入門便棒。臨濟入門便喝。秘魔祇解擎叉。俱抵祇是豎指。今日山僧。拋下鼓山鼓。來掃紫雲雲。將前絡索。老和尚縛作一網。丟在洛陽橋下去也。且道。山僧有甚麼長處。良久云。莫莫。無事歸堂好。

除夜小參。古人云。臘月三十日。作麼生折合去。此語最為利害。蓋為諸人長年。祇在街頭巷尾。索殘唾過日。全非真實。臘月三十日如何受用。得著此事。必須向自己本地風光上透出。始有受用。有等人。祇在公案上。穿鑿孰為向上孰為向下。孰為全提孰為半提。一一解了。却又要學拈學頌。學上堂學小參。徒弟呈覽。師父塗改。以此過日。謂之操宗。又有等人。祇在語言快便機鋒圓活上留心。終日學問學答。驢唇馬舌。到處亂弄。又有等人。祇認著一箇無名無相非有非無的境界。以為極則。到處亂截亂掃。殊不知。此乃儻侗。真如宗門中。更有千聖不傳的一路在。未可顛預去也。又有等人。祇認著一箇能見能聞處處具足的。執以為真。此正認奴作郎。顛倒知見。大抵此數等人。似箇窮乞兒牽著箇無尾巴獼猴。前村後店到處弄。弄來弄去。自謂渠生意好弄。到臘月三十日。鼓也打破了。獼猴也走去了。頓足撻背。悔之何及。昔日北禪賢。烹露地白牛。與諸人分歲。未免將官物作私用。看來也好與拄杖三十。開元今夜。叢林初興。常住淡薄。舉箸向空中。畫一圈云。山

僧祇將箇餠餅。與諸人分歲。一任諸人餐采。若餐采得管取飽。欣欣地過了殘年。其或未然。這箇餠餅。變成棘栗蓬。要吞吞不得。要吐吐不得。此乃諸人之咎。非山僧之咎也。

小參。叮嚀損君德。無言真有功。任從滄海變。終不與君通。雖然如是今日。按下雲頭。略通一線。拈數珠曰。不得說是珠。不得說不是珠。不得當頭便喝。不得奪珠拋在地上。不得說放下著。不得拂袖歸堂。請各下語看。如下語相應。山僧拂子。當堂分付。非獨山僧。三世諸佛也不奈你何。試道看。眾默然。師曰。各請歸堂參看好。

上元小參。今晚上元節。不必山僧說。家家有花燈。處處懸明月。日月燈明佛徹底為君洩開浩浩處。快承當煖烘烘地。休分別。雖然如是。更有密移一步的句。作麼生道。冷似日兮煖似鐵。

彌陀殿小參。此事不遠如人在空。如魚在水。出入進退。無不是。空順逆游泳。無不是水。祇為見起情生。所以白雲萬里。昔日投子參翠微。問。如何是西來意。翠微但以目顧視。投子擬進語。微曰。更要第二杓惡水麼。投子便大悟。你看他這裏還容得一點情見麼。後來投子住菴。雪峯往參。投子下禪床立。峯竚思。被投子托出庵外。峯直得哭。你看他這裏還容得一點情見麼。所以山僧今日。祇作死馬醫。教人離心意識參。透出箇本有光明。不是鈍置。諸兄弟。蓋為這箇不是知解邊事也。僧問。如何是本有光明。師笑一聲。僧曰。未笑已前時如何。師云。汝未會在。

小參。千思萬慮不如休。千言萬語不如歇。不用捧出破砂盆。何須提起乾屎橛。雖然。也不可一向恁麼道。祇如甘露戒壇。跳入你眼睛裏。又作麼生袒膊和尚在你背後行。又說甚麼話。也須著些精彩。始得。

小參。但是禪衲。祇要除得四病。第一不得沿途覓唾。第二不得釘椿搖櫓。第三不得斬頭求活。第四不得頭上安頭。能離四病。自然天下太平。

小參。昔馬祖向大梅道。箇即心即佛。好似箇九轉靈丹。服之者。頓令凡身變為仙骨。後來又道。箇非心非佛。好似箇金剛寶劍。當頭一揮。直要斷人命根。後來南泉又道。箇不是心不是佛不是物。好似婆心太切。徹底相為學人不必思量。千玄萬妙。且于此三轉語中透去。便可歸家穩坐。但是鼓山門下。則又不然。不飲君王宴。安問杏花村。還知麼。黑虎夜行頭戴雪。笑殺堂中老聖僧。

小參。曲如箭。直如鈎。小是海。大是漚。蚯蚓跳過東海。跛鼈飛上雲頭。參。

蔡司衡母二七請對靈。小參。樹頭霜占白。庭下月生寒。要明今日意。識取最初關。今日乃蔡母劉孺人二七之辰也。今秋余過沙鎮。

寓長芳僧舍。孺人屢為法來。叩我百年時事。余為說西方勝緣甚悉。閱數月而病。病數日而告終。世俗謂五十五年前。孺人之生也。五十五年後。孺人之死也。余謂。威音王以來。刻刻孺人生。無有不生時。刻刻孺人死。無有不死時。世人見其粗。而不見其精。見其顯。而不見其微。乃喚今日是二七。數水底之魚蹤。辨空中之鳥跡。豈不大可慨哉。然既知常生常死底。更須知不生不死底。既是常生常死底。作麼生是不生不死底。莫是唯其不生不死故。能常生常死麼。莫是唯其常生常死故。能不生不死麼。此乃教家極則。若我達摩門下。猶隔江在。今日且問。孺人化去。已經二七。即今在甚麼處。安身立命。二七之前。四大無恙時。又在甚麼處。安身立命。五十五年前。未入胞胎時。又在甚麼處。安身立命。喝一喝云。箇中若能明得這一喝。今日意最初關一時打翻了也。坐看靈柩成三昧。笑殺燈臺淚兩垂。

入堂小參。諸方有法說得。有公案商量得。有棒喝施設得。到老僧這裏。却是一味關門打睡。且道。還有為人處也無。古人云。顧鑿嘸呻。曲為中下。閉門打睡。接上上機。老僧今夜入堂。便是拖泥帶水。況為諸人說長道短耶。然既到此。也不免隨例喋喋一番。大抵學禪者。第一。不得鑿壁偷光。有等學人。專向古人公案上。穿鑿解說。以為了。當殊不知。你雖說得滴水不漏。依舊是古人底。與諸人毫無干涉。第二。不得撥波求水。自謂。今日是迷。求他日悟。謂眼前萬境。以及內心意識。悉皆幻妄。却要這裏求見真心。殊不知。即妄說真。已是鈍漢。況棄妄說真耶。第三。不得空中釘橛。有等學人。於古人方便。執而不捨。以為奇特。如臨濟三玄。洞山五位。雲門三句等。或癡守孤危。或偏墜平實。或貪向上。或好格外。此正是法執不忘。去道奚啻萬里。諸人若能離此三病。方是當家種草。雖然。更有事在。昔馬祖云。自從胡亂後三十年。不曾少鹽醬。先和尚拈云。老僧自從胡亂後三十年。不曾有鹽醬。二大老分疆列界。名有為人處在。老僧則又不然。老僧自從胡亂後三十年。祇管逢茶喫茶。逢飯喫飯。那管渠有鹽醬。無鹽醬。諸人若也會得。老僧有箇破鉢囊。兩手交付。其或未然。且向期中。再四參看好。

小參。直截根源。不存知解。當陽露出不費纖毫。若也眨起眉毛。早成蹉過。纔落擬議。便隔千山。所以睦州見僧來。便掩門。魯祖見僧來。便面壁。可謂。真實相為。豈似我輩阿漚漚地。說三道四。問妙答玄。雖然。也須識得古人譎訛處始得。如魯祖面壁。羅山云。我當時若見。好與五火抄。何故為渠解放。不解收。玄沙云。我當時若見。也好與五火抄。且道。與羅山意。是同是別。二

大老。總是借西家燈。炤東家壁。各具手眼。今日老僧簡點將來。好將三大老。各與五火抄。還知麼。橫身當宇宙。誰是出頭人。小參。舉馬祖云。凡所見色。皆是見心。心不目心。因色故有。汝但隨時言說。即事即理。都無所礙。菩提道果。亦復如是。於心所生。即名為色。知色空故。生即不生。若了此意。乃可隨時著衣喫飯。長養聖胎。任運過時。更有何事。師曰。馬祖好似一箇老婆婆。嘔心嘔血與汝諸人說了也。但近日稍通文字者。俱云會得。及見僧問馬祖。如何是西來意。祖便打云。我若不打汝。諸方笑我在。諸人見此。俱云。這裏却難會。既是這裏會不得。因甚前面底會得。既是這裏會不得。前面會得底俱非也。或有云。我會也我會也。打處正是直指他底意。或云。打處祇是斷他解心。苦哉苦哉。馬祖正法眼。但恁麼流通去也。今日若有人問。如何是知色空故。生即不生。老僧便打。諸人又作麼生商量。莫將閑學解。埋沒祖師心。

小參。舉懶安初參百丈。問曰。學人欲識佛。何者即是。丈曰。大似騎牛覓牛。安曰。識得後如何。丈曰。如人騎牛到家。安曰。未審。始終如何保任。丈曰。如牧牛人執杖視之。莫令犯人苗稼。安自茲領旨。師曰。此一則公案。可見。古人之大全。大抵古人沉厚細密。大非今人之比。百丈是馬祖門下。親遭一喝。得大機者。其答安公之問。豈不能一喝一棒。却云。如騎牛覓牛。及問識得後如何。便云。如人騎牛到家。夫既到家。則千穩萬當。更有何事。却又問云。始終如何保任。若是今人答這話便咄云。將謂汝是箇人元來作這般見解。百丈却不然。又云。如牧牛人執杖視之。莫令犯人苗稼。安從茲領旨。便養成一頭露地白牛。其不墜師訓如此。今人視之。可謂大不啣[口*留]漢也。今日諸人說保任且置。還有識得牛者麼。牽出與老僧看。眾無語。師曰。莫道。古人不啣[口*留]好。

小參。本分衲僧。自然寥廓。分別不生。迥異諸學。不問未生前。不管清淨覺。菩提與涅槃。是甚破木杓。指毫末為泰山。視滄海為一勺。顛三倒四沒來繇。千聖聞之眉皺却。因甚如此。祇緣迸斷黃金索。此土西方尋不著。

承天寺小參。今之承天。古之招慶也。第一代稜和尚。有一則公案。七百年來未了。招慶嘗云。萬象之中獨露身。諸仁者作麼生會。還是撥萬象。還是不撥萬象。若說撥萬象。渠又說萬象之中。若說不撥萬象。渠又說獨露身。既不許說撥。又不許說不撥。畢竟作麼生說。莫祇喝一喝打一掌拂袖便行。以為了當。須是有箇真實會處。若是仙陀客。舉頭便知尾。其或未然。且學稜和尚坐破七箇蒲團去也。今人多道。不消用功。祇要放下。殊不知。你纔起念放

下。這一念。便放不下了也。或有云祇須直下承當。殊不知。你纔起念承當。這一念。便隔千山了也。或有專學驢唇馬舌。問東答西。謂之不受人安排。不受人纏縛。以為了當。殊不知。你纔起此念。便自家安排。自家纏縛了也。蓋為你纔生一念。便有能有所。非妄而何。咦。鶴有九臯難翥翼。馬無千里謾追風。珍重。

興化菩提庵小參。若論這箇處處全彰。祇如今日海風如雷。大地震動。已為諸人說法竟。若能從此會去。何用叨咀。其或未然。須知。諸人本有之性。與諸佛無二。因甚諸佛成無上尊。而我等祇為博地凡夫。蓋為我等有妄識妄情故也。何謂妄識。于一切境上。起種種有無是非之見也。何謂妄情。于一切境上。起種種愛憎取捨之情也。繇有妄識。乃起妄情。繇有妄情。乃造妄業。造天業則生天。造人業則生人。造鬼業則生鬼。乃至造地獄業。則生地獄。無有不繇業而生者。生繇業生。造繇情造。情繇識起。諸人若能于一切境上。不生有無是非之見。則能于一切境上。不起愛憎取捨之情。斯人于聖凡位中。收不得。又豈有生死之可言哉。若有箇漢聞恁麼道出來。推倒法座也。怪他不得如未穩在。且莫弄虔頭。山僧且教渠作死馬醫。但二六時中。發起勇猛堅固之心。看箇話頭。念茲在茲。如猫捕鼠。如龍護珠。無一刻放下。日久月深。情窮理極。忽然磕著。管取通天徹地。古德云。塵勞迴脫事非常。緊把繩頭做一場。不是一番寒徹骨。怎得梅花撲鼻香。

大道巖小參。山僧今晨。出圭峯過金雞橋。迤邐田野間。日午始到彌陀巖。齋後取道巢雲。石壁天高。捫蘿百折。寒泉天瀉。飛濺人衣。崎嶇數里。始達大道巖。至晚課後。與諸人相見。祇如恁麼來。還有佛法也無。若道無。諸人眼在什麼處。若道有。畢竟佛法在什麼處。咦。滿林桃李皆春色。為問東君幾箇知。

中秋小參。年年八月有中秋。此夜中秋更可愁。嶺上木鷄御月走。溪邊石犬吠難休。驚起東村王大姐。點燈床下覓蹤由。捉得蝦蟆生兩翅。轉身飛去狀如鷗。諸仁者。莫強求。鬼谷燒龜亡五兆。君平起數失雙籌。

小參。棒如雨點。喝似雷轟。朝打三千。暮打八百。古人如此為人。豈不痛快。但是山僧。這裏未肯挨門傍壁受古人雜毒在。若有客來。祇向他道。箇五三九七。殺人刀活人劍。各自領取。

聞大師入塔。小參。茲當聞大師入塔之次。四來緇素。霧擁雲屯。還有知聞大師住處者麼。莫是云鼻孔裏安禪。眉毛上[跳-兆+孛]跳麼。莫是云清風度廊下。秋月轉簷前麼。莫是云依稀湘南。彷彿潭北麼。莫是云紅霞不離碧落。白日祇遶須彌麼。莫是云乾坤包不得。日月炤難周麼。恁麼說話。似則也似。在則未。在。驀豎起拳云。元來祇在老僧拳頭上。要與諸人相見。揮案一聲云。一音演說

隨類各解。收拳云。忽化作出海金龍。直透青霄去也。你諸人莫認驢鞍橋。作阿爺下頷。

結制日小參。諸兄弟今日。又逢結制。須知期有解結。功無始終。直要萬里一條鐵去。唯有本參死對頭在。尚不問悟與不悟。況其他乎。若夫古人言句。切不得妄生穿鑿。起心解會。為這箇法。不是你穿鑿得的。不是你解會得的。且不必舉出古人許多古恠機緣。祇如德山道。汝但無心于事。無事于心。自然虛而靈。寂而妙。此四句盡情說破。更無隱諱。不難解會。但汝纔說無心。便是有心了也。纔說無事。早是有事了也。能虛麼。能寂麼。既不虛寂。則雖通身是口。辨若懸河。總是生死岸頭。濁智流轉而已。所以上代諸祖。祇教你將通身膽力通身精神。全用在一句話頭上。看來看去。忽然爆地一聲。則身心世界。一旦平沉。千差萬別。一旦融通。七玄八妙。一旦消滅。那時更說甚麼。無事有事。無心有心。虛靈寂妙四字。直是無處安著。那管德山老人喚來打折渠驢腰。其或未然。且莫亂統。九十日中。仔細參詳好。

曹侍御夫人吳氏。百日請對靈。小參。小艇移來芳草岸。流鶯啼破綠楊枝。昨宵又下催花雨。添得春光滿穆溪。不用達摩來面壁。何須諸佛露全機。若能腦後開雙眼。佛性因緣在此時。夫人向此中會也未。若會得時。便向南方無垢世界成佛去也。如或未會。老僧不免瞞夫人去。夫人六十年前。生在吳家。祇緣父精母血假合而有生。六十年後。卒于曹家。亦祇緣父精母血離散而有死。前之生者若實。則後安得有死。前之生者非生。則後之死者亦非死。所以生死止同幻化。絕不相干。汝自看。即今歷歷孤明。能聽老僧說法者。還有生死也無。夫人更須知有道吾道底。昔道吾同漸源。到一家弔慰。漸源拊棺而問曰。生耶死耶道。吾曰。生也不道。死也不道。源曰。為甚不道。吾曰。不道不道。源曰。若不與某甲道。打和尚去也。吾曰。打則任打。道則不道。夫人試看道。吾意在甚麼處。擊拂子曰。忽然打破閻浮夢。笑倒南無觀世音。

對靈示曹嘉魚居士。小參。嗚呼居士而遽往耶。居士之恬和恭儉宜壽。孝友仁厚宜壽。歸心真乘。奉佛精虔亦宜壽。何得此促報。而遽往耶。以世俗之見觀之。固宜哀怨之不已。呼號而不平者也。苟能達受命之元由。酬業之深脉。則或延或促。或豐或嗇。非從天降。悉本自招。將何尤乎。是須知報從業致。業從識生。識從幻起。正如鏡中有影。待物而彰。水面生波。因風而動。迷者執鏡定有影。水定有波。而不知其本實非有。盡從幻起。若了此幻源。則非幻不滅者可識。識此非幻不滅。則幻可不除而自淨。於是為生死乎。為無生死乎。咄。居士倘能明此。則歷劫業因可從此識。無始

習氣可從此消。又何長年短算之可言哉。今承尊翁嚴命。對靈為汝演說。汝其念之。

天寧寺小參。祖師云。至道無難。惟嫌揀擇。但莫憎愛。洞然明白。諸人若能于此直下領略。更有何事。如或未能。山僧打葛藤去。眾生所以汨沒生死。長劫冥冥。無有出期者。只為你有箇揀擇分別之心。有分別便有好醜。有好醜便有愛憎。有愛憎便有去取。有去取便有善惡。繇是善者上升。惡者下墜。報在天人。即欲去善惡。而取無善無惡報。在二乘。所以終不能超生出死。只為有分別之識。愛憎之情也。所以諸佛諸祖。教人直出輪迴者。無有他術。唯要你泯此妄識妄情而已。若要泯此識情。須是要一步死工夫。古人工夫無定。總只為渠一箇。為生死之心切急急忙忙。如作一件大不好事在。將露未露之間。展轉思惟。求箇出路。亦如在狹小路頭。逢著一箇生死冤家。直須拚命打出。日久月深。情忘識絕。心花頓開。逢緣遇境。而生死之心盡矣。後來人根器既劣。偷心日重。雖說參話頭做工夫。而浮慕之心日分。為道之念日澹。加之。狂慧競起。便爾隨俗流墮。師之所傳弟之所受。以口舌為三昧。以偈頌為正參。殊不知。你答話似趙州。偈頌過雪竇。總歸生死窟穴而已。所以古人云。老兄下語。即老僧未能過。但未能脫生死耳。或又云。任你上堂也上得。小參也說得。拈也拈得。頌也頌得。祇是未在。何以故。莫將閑學解。埋沒祖師心。

王回菴小參。王回山上白雲塢。門外落花如紅雨。青松翠竹各爭妍。紫燕黃鸝相共語。虛空逼塞盡春風。何須更說。雲門普斬斷雪峯鼈鼻蛇。倒騎玄沙白額虎。臨濟只是小廝兒。西河那有真獅子。任渠百妙與千玄。到底看來只如此。何以故。甜瓜徹蒂甜。苦瓜連根苦。

莊屏菴小參。開藍早抽身。僻谷偏留情。王回不厭深。今復到莊屏。豈為耽獨樂。世衰道難行。靜處閑叉手。為人不自為。只如深山僻谷之中。作麼生是為人一句。和煙拾橡栗帶月灌菠薐。珍重。智者寺小參。婺州為古聖垂跡之地。智者大師其一也。老僧今到婺州。首得瞻禮。憶昔大師。曾入澡瓶中趺坐。為是廓瓶以容身。為是縮身以就瓶。若作神通商量。錯認驢鞍橋。若不作神通商量。又作麼生商量。古人云。相逢不拈出。舉意便知有。今日老僧與諸人相逢了也。拈出了也。作麼生是知有底事。好向黑白未分前。看取。

普明寺小參。草碧泉清舊日山。牧牛人去未曾還。我來慣把泥牛牧。等閑笑破幾重關。昔日有箇南泉。稱善牧者。曾云。自小牧一頭水牯牛。擬向溪西牧。未免犯國王水草。擬向溪東牧。亦未免犯國王水草。不如隨分納些些總不見得。看來却似畫地為牢。轉動不

得。未為好手。又有箇懶安。稱善牧者。曾云。養得一頭水牯牛。變成箇露地白牛。眼前孤迥迥地趨亦不去。看來却似氣窮力竭。驅遣不得。亦未為好手。唯有普明禪師。原始要終。分為十則。牧牛之義無遺矣。但老僧却又不然。只牧得一頭折角泥牛。那管溪東溪西。不論山南山北。有時耕翻大地。有時觸破虛空。諸人還識也未。良久云。吽。

冬至晚小參。僧問。如何是無位真人。師良久云。會麼。進云。恁麼則無出入也。師云。無亦不可得。進云。古人又道。面門出入何也。師云。指影只為標真。進云。如何又道。是什麼乾屎橛。師云。若無後語。何有臨濟。僧禮拜。師乃云。大易云。先王以至日閉關。商旅不行。此戒諸人妄動也。蓋本分大事。不容動著。動著些兒即乖本色。所以成佛作祖。是頭上安頭。明心見性。是眼中著屑。大機大用。是體妙失宗。返本還源。是棄家外走。諸人莫見我如是說。便作無事無心會。若作無事無心會。也是陰山鬼窟裏坐。縱饒你不恁麼。也是蟪蛄雖脫殼。未免抱寒枝。老僧已是滿盤托出。與諸人了也。若更凝眸。不勞相見。

小參。生從何來。空裏片雲莫亂猜。死從何去。滿眼空花落甚處。休言。昔日與今朝。莫計生滅并常住。昔人苦口曾垂示。有無恰如藤倚樹。樹倒藤枯更浪尋。一笑分明重指注。重指注。畢竟一句歸何處咄。

為葉子暄居士對靈小參。福唐葉子暄居士。以妙齡慧質。遽爾云亡。宗族隣里。皆共惜之。老僧却謂。居士實未嘗亡。祇于今一靈真性。惺惺不昧。來聽老僧說法者。還有存亡也無。此既無存亡。則從前一切生死。皆如夢幻泡影。無有真實。蓋此幻妄。原從心境而得。心本無心。因境而有。境本無境。因心而現。心境交妄造成幻業。既有幻業。汲引生死。今但能知此生死之妄。則諸佛涅槃。實不出此。遂舉拂子云。子暄居士惺惺著。但能於此會得。則不必言妄。亦不必言不妄。不必言亡。亦不必言不亡。不必言知。亦不必言不知。三世諸佛。一切妙法。盡在此中。徹透根源去也。老僧葛藤不少。居士。珍重。

小參。舉龐公問馬祖云。不與萬法為侶者。是什麼人。祖云。待汝一口吸盡西江水。即向汝道。公便悟去。後草堂清拈云。若恁麼道。魚龍蝦蟇。向什麼處安著。今日鼓山諸人。各代馬祖。轉一語看。一僧云。隨聲便喝。一僧云。草堂合吃老僧手裏棒。一僧云。待汝一口吸盡西江水。即向汝道。一僧云。喚什麼作魚龍蝦蟇。一僧云。恁麼即水生也。師云。諸人各能為馬祖出氣。可謂。同坑無異土。但祇是扶強不扶弱。據老僧看來。馬祖語不妨痛快易會。但是應機合節。亦祇得八成。後廣巖澤別馬祖云。城中青史樓。雲外

高峯塔。廣巖合喚來。與馬祖洗脚。諸人還有道。得十成者麼。請各道看。一僧背師前叉手而立云。請和尚鑑。師云。好與七藤條。一僧云。萬象之中獨露身。師云。的當甚的當。但是借照隣家。一僧云。今日事繁。不能為汝說。師云。親切甚親切。但恐相習成風。一僧云。天不能蓋。地不能載。師云。錯亦不錯。但無大人作略。一僧但向師前挺身而立。師云。非即不非。是即未是。一僧曰。咄。說什麼與不與。師云。似也似。但可惜許。一僧云。某甲但扭住問他。你是阿誰。師云。他便劈面一掌。你又作麼生。一僧云。靈源洞口石將軍。師云。你到做得廣巖弟子。一僧云。不識。師云。不識又不識箇什麼。一僧云。某甲今日。滿口道不出。師云。且放汝三十棒。師復云。今日諸人各具一知半解。下語各有來由。但淺深不一。多難出得古人蹊徑耳。十成語。且待他日。下座。

為太史陳仲謀居士。及夫人李氏對靈。一切眾生。沉溺生死海中。頭出頭沒。無有出期。其始只因一念之迷。以至于此。所以起貪嗔痴。發身口意。四生六道。輪迴不息故。世尊于金剛會上。末後叮嚀說偈云。一切有為法。如夢幻泡影。如露亦如電。應作如是觀。能如是觀。即是成佛之初門。出生死之要道也。今日子嘉居士。為先太史陳公。及夫人李氏禮懺。屈山僧到此。不免向葛藤窠裏。與渠相見。舉拂子云。嚮。無量生死百千業債。但向此中脫去。咄。為優婆夷林氏對靈。生死從來本寂。佛法一切現成。爭奈後人不守本分。曲為來機。施出種種三昧。也總明者箇事。若到鼓山門下。却又不然。道吾笏秘魔叉總請放下。德山棒臨濟喝。到此都休。今日老僧。為優婆夷林氏對靈。又說箇什麼。如人夏則搖扇。冬則附爐。寒則添衣。饑則進食。者裏便是少林心髓。曹溪血脉。若能會得。方知生死從來本寂。佛法一切現成。眾生成佛。其來舊矣。會麼。珍重。

為宗見監院對靈。宗見上座。生平以戒月嚴身。悲花接物。在樟湖固為一方知識。在石鼓亦為一眾綱維。一旦拂袖歸西。灰飛烟滅。將就窠堵。諸法眷屈老僧到此。為渠說箇最後祖餞。夫人有身。總由虛妄因緣所成。不由你差排。不由你管攝。你要念念常存。他要念念速滅。挨到臘月三十日。一場戲劇已完。須要求箇非生非滅真歸休處。如何是真歸休處。莫是離生滅而求不生不滅麼。斯人未見道源。莫是即生滅而求不生不滅麼。斯人亦未見道源。畢竟作麼生即是。舉拂子云。見則便見。會則便會。說什麼生滅不生滅。又說什麼即生滅離生滅。宗見上座會也未。山中梅樹花開徧。幾箇能聞一段香。

為秀生上座對靈。秀生上座。秉志堅貞。律身清苦。似鐵骨之凌空。若天花之不染。三十年守一破茅蓬。念念專歸淨邦。步步腳踏實地去。冬十月臥疾。至臘月十七日。念佛坐化。頂門如炙。其生西之驗明矣。可謂。僧中翹楚。世外瑤璋。今乃終七之期。其徒等問等宣請老僧。為渠對靈說法。老僧更有何說。不是當風點燭。便是醉後添盃。何以故。全身已坐黃金剎。安用疎山臘月蓮。

小參。古云。叮嚀損君德。無言真有功。任從滄海變。終不與君通。昔山僧在壽昌日。僧問老人參廩山。得何指示。老人云。實無指示。山僧曰。若無指示。這片香因甚燒向廩山去。老人云。若有指示。這片香不燒向廩山去也。因言。我在廩山時。先師絕口。不提宗門事。一日因與兄弟。論金剛經義甚快。先師笑曰。宗眼不明。非為究竟。我聞著茫然自失。乃請問。如何是宗眼。先師拂衣而起。後因到郡城。訪羅近溪先生于從姑山。始見五燈會元。句句如攔路虎歸。請得一部。日夕披玩。每以疑義請益先師。但云我實不知。汝自看取。一日因見僧問興善寬。曰。如何是道。寬曰。大好。山不覺豁然。後千七百則。無少滯礙。乃入方丈。通所悟。先師曰。悟即不無。却要受用得著始得。不然恐祇是箇汞銀禪也。我後辭先師隱峩峩。一夕山境大喧。不覺驚動。因憶先師之言。乃曰。小境尚動。況生死乎。即點燈。信手抽會元一卷來看。正值珪禪師為嶽神受戒章。廓然無畏。而生死之心始盡矣。所以我這片香燒向廩山去。祇重他一箇無指示。若當時為我阿漚漚地說來。豈有今日也。此意非獨廩山。山僧當日見壽昌。有所請問。和尚但云。我不如你。一日問如何是清淨光明身。和尚振衣而立。山僧曰。祇此更別有。和尚拂衣便行。山僧忽有省。乃入方丈。禮三拜。未及啟口。和尚舉杖打三下曰。向後不得草草。諸兄弟看。這兩箇老人果有何法示人。然此便是第一等相為也。葛藤且止。祇如今日恁麼舉。是叮嚀是無言。是通是未通。咦。莫將閑學解。埋沒祖師心。

永覺和尚廣錄卷第四

普說上

諸山請普說。近日世風薄惡。祖道荒蕪。諸禪人邪風入骨。魔毒纏心。爭弄口鼓。全無實得。為師者。若曲從時好。祇圖門庭熱鬧。却似揀燃增燥。援溺加濡。非徒無益。反滋其惡。所以山僧。半生竝不道一禪字。至住鼓山三載。甘同寒蟬。深緘石口。一任法堂前草深一丈。三門外荊棘參天。撫已而觀。了無慚色。今年六十。破衲虛舟。任風飄蕩。流到茗谿岸畔。事不獲已。却來與諸兄弟相見。拈拄杖卓一卓云。會麼。若也會得。山僧當下座。領維那三十痛棒。如若未會。山僧叨叨坦坦去也。若論此事。不涉唇齒。所以古人云。承言者喪。滯句者迷。超佛越祖。猶落階級。雷轟電閃。尚墮聲容。任你玄中更玄。妙中更妙。總在這邊。未到彼岸。必須威音那畔回頭。空劫已前轉身。然後可入廛垂手。顯出大機大用。如信手撒水銀。珠珠皆圓。亦如月映千江。江江有月。但隨家豐儉。作用不同。所以有五宗之別。如臨濟單貴直捷痛快。曹洞單貴綿密安詳。為仰則暗機圓合。法眼則一切現成。雲門則高古曠險。雖有五宗差別。實無二道。譬如同一味水。羣器盛之。各各不同。諸兄弟說此羣器之水。還有優劣否。又如三人捉賊。一人賞以飲食。勸諭其歸。一人痛杖一番。方釋之。一人也不賞。也不杖。即解縛放他去。諸兄弟。說此三人捉賊。還有優劣否。餘宗且置。祇如曹洞一宗。今日欲振起。他莫要識得五位君臣麼。莫要識得五位王子麼。莫要識得曹山三墮四禁麼。若如此欲振起曹洞宗。却似挑一擔臭糞。向門前過。有甚麼共語處。必須要向青原垂足處認取。洞山睹影處認取。昔有僧問洞山。如何是沙門行。山云。頭長三尺。頸長二寸。山令侍者。將此語問三聖。三聖向侍者手中。掐一掐。諸人須向這裏認取。又一日夜參無燈。有僧問答罷。山令侍者點燈來。及點燈來。山云。取三兩粉與這僧。其僧拂袖而去。後有省出資打齋供眾住三年。一日來辭洞山。山曰。善為。雪峯在傍問。此僧去幾時復來。山云。他此去不解再來。其僧向衣鉢下坐化。雪峯報山。山云。猶較老僧三生在。諸人須向這裏認取。又洞山三十年。土地神覓渠不見。雲居膺時住寺。後經旬不過堂。山詢之。膺云。自有天神送食。山呵之為說破。天神遂不復來。諸人須向這裏認取。若于此等處。一一個儻分明。還振起得曹洞宗麼。猶未猶未。必須重加陶煉。使心心無處所步步無影迹。於此相續無

間。方合主中主也。諸兄弟若未到這般田地。必須依樣畫貓兒去。古人一則無義味話。如金剛山。無你鑽研處。如猛火聚。無你覷向處。既無鑽研處。無覷向處。便是諸人斷命根處。若于此處捻得。破三世諸佛也。無撈摸處。況閻羅老子耶。如或未能。未免在閻羅鐵棒下過。諸君大須仔細。必須將前習氣是非恩愛人我。一切坐斷。將通身精神通身力量。全用在一句話頭上。不管十年二十年三十年。併力做去。此事亦非難。祇在人眉睫前。會則便會。其有不。會者多為自生知解。便成千里之隔。若辦肯心。直下採取。決無難事。有等魔風。不做工夫。祇習學古人言句。搖唇鼓舌。慣弄虛頭。假粧模樣。自表剛強。人我益高。是非亦熾。比之俗人。猶為不謹。此等永當墮無間獄。無有出期者也。又有等稱做工夫者。單論話頭淺深。謂參得某公案了。又要參某公案。某公案參得。某公案參不得。緣渠看見古人。或在此公案上有省。在彼公案上過不得。便謗公案有淺深。殊不知過祇在人緣。渠於一則公案上。不能一脚踏到底。所以說這裏通得。別處通不得。殊不知別處通不得。則這裏通得底。亦不是了也。其實趙州無。一歸何處。庭前栢樹子。麻三斤。乾屎橛。竹篋子。秘魔叉。睡中主。一通俱通。豈有差別。若于此等處。作差別知見者。總是門外俗漢而已。又有等稱做工夫者。但于塵勞暫息處。得少光影處。便稱悟道。更有古人言句透不去處。便逐一思惟註解。殊不知。這思惟註解底。便是火枷芒繩了也。又有等于公案上。驀有悟入。但悟迹不除。知見未消。雖於古人公案。一一透得。却自己受用不得。所以為山百仞。功虧一簣。可勝惜哉。諸人若要發明此事。必須全身放下。老實真參。直到古人田地。若有纖毫知見可說。總為魔罣而已。山僧今日。因風舉火。叨咀一番。挖泥帶水。罪過不小。作麼生是真寂本分家風。拈拄杖云。五宗踏破無蹤跡。毗盧頂上別翻身。卓一卓。下座。

授戒普說。諸仁者不辭跋涉。遠來下剎。乞受戒法。須知。云何為戒。戒云何受。諸人將以壇場為戒耶。問清淨為戒耶。三說羯磨為戒耶。和尚阿闍黎為戒耶。教威儀著袈裟。乞食正命為戒耶。若將此為戒。則盡屬生滅。終歸有漏。安得名為究竟尸羅。昔佛曰孝名為戒。諸人將以孝為戒耶。夫孝者順也。順者順何。又以何為順。孝之實未明。安能識戒也。又曰。攝心名戒。諸人將以攝心為戒耶。夫心是何物而可攝。攝又是何物而可攝心。水不洗水。金不博金。則攝心之義何歸。又六祖云。本性無非自性戒。諸人將以本性。無非為戒耶。六祖此語。可謂。喫緊為人。直捷指出。然亦未免尚帶枝葉。良以。非因是立。是由非生。既本性無非。將以何者為是。既本性無是。將以何者為非。而言不非。若學人滯於言句之

下。是非之見未泯。則此戒尚隔千山。須得是非情盡。靈光獨露。則所謂戒者。已為魚遊水中。人在空中。無你受處。無你背處。無你持處。無你犯處。搭衣展鉢。盡是金剛道場布薩羯磨。孰非毗盧境界。喻如神龍入海。何妨出沒波濤。所以高沙彌云。長安雖鬧。我國晏然。良有以也。如若未能到此。切莫妄相倣效。且據渠見處。祇得一概。正如偃鼠飲河。但能自滿其量。若是箇沒量大人。作略自異。雖一塵不立。不妨世界橫吞。雖脚踏毗盧。正好通身泥水。昔六祖。於黃梅會中。親受衣鉢。厥後猶於嶺南法性寺。稟受智光律師滿分淨戒。豈可謂。我國晏然。竟不須受也。蓋此戒。始自凡夫。終至成佛中間無一時無一事可離此戒。又過去未來現在諸佛。並無一人不從此戒而得菩提者。是知。此為聖凡共由之要戶。今古共涉之通津。捨此非特進道末由。亦乃喪失慧命。正如臨陣者。必須鎧甲。弗得則離免鋒鏑。亦如渡海者。必須巨筏。弗得則必遭淪沒。所以我佛世尊。始坐金剛道場。即說波羅提木叉。於菩提樹下。即為賈客二人。說二歸之法。次鹿苑為耶舍父。說三歸五戒之法。至羅睺羅出家。說沙彌十戒之法。後為舍利弗請。遂因事制。立比丘比丘尼諸具足戒之法。凡依之而修者。三業既淨。則心不妄緣。心不妄緣。則定從此入。慧從此發。雖周旋折旋。中規中矩。而徹底無依。全身灑落。是為法門之柱石。後學之典刑也。有等狂妄之徒。輕剽圓頓之糟粕。習成豁達之邪空。便謂。我親見衲僧巴鼻。穿過佛祖髑髏。或胡喝亂棒。或指馬呼牛。如發癩病相似。及夷考其行。則恣心所欲。恣身所行。毫無忌憚。乃謂。我得無礙大解脫門。殊不知。左之右之。一一並成魔業。舉足下足。在在總陷泥犁。諸人如食肉。不異食蔬。方可食肉。飲酒不異飲水。方可飲酒。見寶女不異木偶。方可行姪。若也見有美惡。則境未亡。情存欣厭。則心未空。心境對立。何所不有。將見鐵城銅柱。罔不熾然。劒樹刀山。何能無礙。經所謂。大妄語成。墮無間獄。千佛出世。不能垂救者也。有等悠悠之輩。雖曰受戒。但取受戒之名。全無受戒之實。隨羣逐隊。苟簡登壇拜跪。尚言不堪。精神何由感格。是以受戒者多。得戒者少。至於受戒之後。便爾荏苒度日。或營俗緣。或耽世樂。所受戒法。並不肯請問明師。勤翻貝葉。云何為戒法。云何為戒體。云何為戒行。率皆懵然。鹵莽一生。與未受戒者何異。諸人既發心來此。切莫懈怠。未蒙得戒之益。反招瀆法之愆咎。將安歸誠。當於未受戒前。頓斷諸緣。崑心修懺。若得罪根枯滅。方為受戒良器。至於臨受之際。務在發勇猛心。直趣無上菩提。發廣大心願。攝三有眾生。懇切翹勤。如希重寶。仰承聖法。心無異緣。則於三羯磨中。自然感發無作戒體。既得此體。便為法身種子。直至菩提。永無喪失。如食金剛。終不銷

滅。可為喻也。受戒之後。便當親近明師。習學戒相。審明持犯。或開或遮。各有攸宜。習之既久。自能人忘於法。法忘於人。四威儀內常冥。妙戒任運不犯。如順風張帆。速達薩婆若海。廣化眾生。報佛恩德。是為出家勝丈夫之事也。大眾。珍重。

溥夫人請普說。世道交喪。天地冥晦。鬪爭堅固之秋。魔羅競起之日。老僧祇得叉手當胸。退身三步。唯將一嘿。仰報洪恩。諸人若能於此見得。便是老僧建大法幢。吹大法螺。擊大法鼓。震動大千去也。怎奈夫人不肯相信。仍來請老僧演法。今日祇得向平地上。打箇觔斗。與大眾。結般若緣。若是真寂禪。決無奇特。如適來僧問。世尊拈花示眾。和尚又作麼生。老僧舉起拂子。僧云。祇此更別有。老僧放下拂子。諸人若於此領得。則百千三昧。無量妙義。皆於此中。徹透根源去也。所以迦葉纔爾微笑。世尊便云。我有正法眼藏涅槃妙心。付與摩訶迦葉。嗟嗟。後代人心不古。伎倆愈增。却喚作世尊不說說。迦葉不聞聞。隔一重了也。更云。動容揚古路。不墮悄然機。又隔一重了也。況分向上向下。分權分實。分炤分用。分三玄五位。不白雲萬里哉。祇如老僧適來舉起拂子。諸人便向舉起處擬議。放下拂子。諸人又向放下處擬議。正是隔山取火。如何搆得。近來禪和弊風。大抵如是。所以將古人緊要處。悉皆錯過。如昔日有一女子。在佛邊入定。文殊盡其神力。不能出定。罔明彈指。女子即從定出。文殊是七佛之師。因甚出不得。罔明因甚又出得。此公案近日禪和。錯會不少。但云。文殊智有所困。罔明乃以無心而通。或云。冤有頭債有主。若恁麼會。祇作得箇座主奴去。又有箇凌行婆。到浮盃處。問云。盡力道不得底句。分付阿誰。盃云。浮盃無剩語。婆云。未到浮盃。不妨疑著。盃云。別有長處。不妨拈出。婆斂手哭云。蒼天中更添冤苦。盃不語。婆云。語不知偏正。理不識倒邪。為人即禍生。盃又不語。此公案近日禪和。多謂浮盃便好將婆打出。怎奈渠無大機大用。故受婆撞突一場。全不知婆如神龍。盃如巨海。龍雖出沒波濤遊戲自在。總不出巨海之中。又有一婆子。遣人送錢。到趙州處。請轉藏經。趙州下禪床。遶一匝云。轉藏經竟。婆聞云。本請轉全藏。因甚祇轉半藏。近日杜撰長老。却于趙州求過謂。趙州祇合默然良久云。轉藏經竟。又有代趙州答後語者謂。合將傳語人劈頭便打。似此見識。何曾夢見。趙州婆子來。不知這公案。好似一片月餅。兩人共擡去也。此等舊時臭爛葛藤。且止。祇如老僧。前日緊閉口縫。今日復開兩片皮。諸人且道。前日不說底是。今日說底是。若道說底是。枉殺維摩乃金粟後身。若道不說底。是枉殺文殊乃七佛祖師。有人見恁麼道。便云。這箇不在語默上。我且問。渠不在語默上。畢竟在甚麼處。畢竟如何是離語默底事。有等嗜酒糟漢。便

來擎拳豎指。下喝行棒。此輩正好分付在東園裏運糞。若真寂禪。未夢見在。咦。賣扇老婆手遮日。笑殺甸街趙七郎。除夜普說。四時八節循環過。挨到今宵歲已窮。簡點一年成底事。却如夢幻一場空。諸仁者當此臘月三十日到來。試各自簡點看。此一年三百六十日中。不耕而食。不織而衣。享檀信之膏脂。飲行人之汗血。畢竟作麼生消受。又一年三百六十日中。親師取友。問道參禪。探諸佛之教言。窮祖師之命脉。畢竟有何進益。又一年三百六十日中。歲變月遷。時移刻減。光陰迅速。剎那不住。既無駐顏妙藥。又無換骨靈丹。畢竟作麼生。得不蹉跎光陰去。此事且置。祇如大限到來。四大分離。識神無主。前路茫茫。冤業相牽。到此之際。生前勢力。靠不得了也。師友眷屬。替不得了也。金銀珍寶。用不得了也。田園產業。恃不得了也。文章學問。顯不得了也。智謀機械。使不得了也。且道。作麼生得擺脫去。莫是齋得幾員僧。拜得幾拜佛。可脫生死麼。莫是持得一卷經。持得一箇呪。可脫生死麼。莫是講得三經五論。如瓶瀉水。可脫生死麼。莫是將祖師公案。逐一商量。如何拈。如何頌。可脫生死麼。祇如拈頌一節。近日學人。互相倣效。將達摩門風掃地滅盡。如玄沙道。諦當甚諦當。敢保老兄未徹在。莫是惑亂天下人麼。且喜沒交涉。如德山低頭歸方丈。巖頭道。大小德山。不會末後句。莫是巖頭智過於師麼。且喜沒交涉。如巖頭道。我與雪峯同條生。不與雪峯同條死。莫是悟體則同。發用則別麼。且喜沒交涉。如楊岐道。三脚驢兒弄蹄行。莫是格外拈來。超言思之表麼。且喜沒交涉。如首山道。新婦騎驢阿家牽。莫是顛顛倒倒。越本常之理麼。且喜沒交涉。如進山主道。這箇監院房。那箇典座房。莫是當央直指麼。且喜沒交涉。如洞山道麻三斤。莫是問在劫外。答在今時麼。且喜沒交涉。諸人若但如此穿鑿。號曰宗師。管取入地獄如箭射。且勿論他商量錯謬。即於本分中。實有見處。三千七百則。臭爛葛藤。一一穿過。無毫髮可疑。要也脫不得生死。何以故。以渠如夾冰之魚。雖是渾身在水。怎奈轉動不得。又如司庫之吏。雖然出入珍寶。一一分明。怎奈非渠所有。所以衲僧家。必使釋迦在我背後立。達摩在我脚下行。方有擺脫分。此是衲僧。有始有終一大關節處。更有箇不落。始終一句作麼生道。木牛吞却鐵崑崙。驚倒門前石敢當。珍重。

寶善受戒普說。老僧昔年在寶善庵中。受聞谷大師委曲一場。將箇雲棲戒本。子相付。今年復到寶善。四方大眾。尋腥逐臭來。請老僧說戒。將謂老僧有戒。與諸人說耶。不知此戒。不是老僧底。亦不是聞大師底。亦不是雲棲老人底。亦不是南山律師底。乃至亦不是釋迦牟尼佛底。祇是諸人自心本具底。所以六祖大師云。本性無

非自性戒。今老僧年老。不能與諸人逐一詳細說得。但省煩與諸人說去。如何是五戒。梅花鬪雪開。如何是沙彌戒。石笋破蒼苔。如何是比丘戒。寒河連底凍。如何是菩薩戒。膏雨足霧[雨/沱]。諸人若會得此四句。當下頓得無作戒體。永成金剛種子。直至菩提樹下。無有差池。大眾還會麼。如其未會。老僧不免再垂方便。老僧昔年在真寂院中說戒。曾垂三問。第一問。戒必師師相授。請問。威音王從何人受戒。若識得此一問。便明最初一句。亦明末後一關。百千諸佛。百千戒法。盡從脚跟下流出。第二問。梵網經云。戒光從口出。非青黃赤白。請問。畢竟作何色。若識得此一問。則一切聲色塵中。並可橫身直過。無有些毫過患。第三問。經云。破戒比丘。不入地獄。既是破戒比丘。因甚不入地獄。若識得此一問。則姪坊酒肆。隨處自在。手把豬頭。口誦淨戒。諸人還會麼。如又不會。老僧瞞諸人去也。吾人本性。無善無惡。無持無犯。祇為無明忽起因而境界妄現。境界既現。則有好醜。既有好醜。則有愛憎。既有愛憎。則有去取。至於有去取。則有罪福。有果報。六道循環。如汲井輪。無有斷絕。諸佛愍之。首為說戒。所以止其妄情。不為妄境所惑而已。能守此戒。則妄情不橫流。妄境不惑亂。既妄情不橫流。妄境不惑亂。則定可成。慧可發。定慧雙嚴。成無上道。是知皆肇始于戒故。戒者如行百里者。乃是最初一步。此步若差。必無能到之日。亦如造百尺高樓者。乃是先築其基。此基不固。必無成樓之日。又如善采畫者。乃是先有素地。若素地不成。必無能畫之理。所以修行者。必首重戒法。今來求授。切莫苟簡登壇隨羣逐隊。跪得一炷香。便云。我已受戒了也。若恁麼受戒。有何利益。既無受戒之益。反招瀆法之愆。又不若在家穩坐為勝也。若要受戒者。必先要發箇最上心。何謂最上心。須是不為求人天而受戒。亦不為求聲聞緣覺而受戒。亦不為求權乘諸位菩薩而受戒。須是直求無上菩提而受戒。又要發箇最大心。何謂最大心。須是不為自己而受戒。不為眷屬而受戒。須是要度一切含靈。皆成佛道而受戒。若具二種心。真誠懇切。自然感得無作戒體。如食金剛。終不消滅。直至成佛。決非虛語。雖然。如是。老僧更有最後一句。叮嚀。諸人在家為客易。出路作商難。珍重。

薦大中丞邵公劍津居士。普說。恁麼去也恁麼來。幻影浮光不用猜。昔年諸葛成何事。亦似殘花點翠苔。今日邵練要居士。為薦先考大中丞劍津居士。命老僧冒登此座。諸仁者還識得劍津居士麼。三十年前。好讀書。善屬文者。此劍津居士也。二十年前。鼓逸翮於秋風。奪頭角於春浪者。此劍津居士也。二十年中。佩金章紫綬。歷中外諸任者。此劍津居士也。至於巡撫全蜀。提數十萬之兵。禦數十萬之寇者。亦此劍津居士也。一旦勢與願違。君恩未

報。決志長往。前路茫茫者。亦此劍津居士也。由今日而觀前日。則前日皆虛。由前日而觀今日。則今日豈實。故知。生乃幻生。死乃幻死。然生死皆幻者。何故以一切生死。不出於境緣身心四者。此四者俱無有實。境緣何以非實。以待身心故。若無身心。安有境緣。身心何以非實。以待境緣故。若無境緣。何有身心。若知四者非實。則所謂無生無死者可識矣。大眾會麼。如或未會。老僧不免再饒舌一番。汝等試思。三十年前。好讀書善屬文的。是箇甚麼。二十年前鼓逸翻於秋風。奮頭角於春浪的。又是箇甚麼。二十年中佩金章紫綬。歷中外諸任的。又是箇甚麼。至於巡撫全蜀。提數十萬之兵。禦數十萬之寇的。又是箇甚麼。若於此會得。則無榮無辱。無窮無達。無生無死。亦無無生死。始是劍津居士立地處。大眾還知麼。豎拂子云。即今劍津居士。在老僧拂子頭上。放光動地。說摩訶般若波羅蜜法。普令大眾當下。離一切業障報障。煩惱障。然後往南方無垢世界。現三十二相八十種好。圓滿無上菩提去也。雖然。尚不是衲衣下事。如何是衲衣下事。日本國裏金獅子。昨夜無端嘯一聲。驚起白龍江上躍。淋雨千山未肯晴。會麼。久立。珍重。

臘八日普說。昔日雪山老人。於臘月八日明星出時。忽然看破。無些子事。却被人喚作悟道成佛。及至盡力舉揚。只拈得一枝金色鉢羅花。後來四七二三。承虛接響。隨邪逐惡。一印印定。總是同坑無異土。凡有指示。皆如渾金璞玉。絕無奇巧。怎奈人心不古。宗風日變。由是門庭各立。穿鑿百端。雖金亦昔時之金。玉亦昔時之玉。而琢玉成器。鑄金成像。尖巧艷麗。反似遠勝古人。而淳龐渾厚之意。則索然無存矣。今日老僧。這裏也不用行喝行棒也。不用玄提玄唱也。不用格外相逢也。不用埋兵索鬪。但舉幾則。古人臭爛葛藤刻的示人處。為諸人指箇入路。昔日達磨初來此土。武帝問云。如何是聖諦第一義。武帝精通教理。而教家以聖諦第一義。為極則故。舉以問達磨。答云。廓然無聖。乃是用金剛王寶劍。當頭一揮。驅耕夫之牛。奪饑人之食。怎奈武帝不能領略。却在人我上較計。再問。對朕者誰。達磨也不與他論人論我。只奉箇不識兩字。直似鐵壁千尋。窺伺無門。這公案乃宗門打頭一節。若能從此悟入。便可歸家穩坐。後渡江至少林九年。面壁而坐。正是渠正令全提徹底為人的所在。怎奈人多望崖而退。有箇神光座主。却來乞安心。這老漢也把不住。乃為渠開一線道。將心來。與汝安。神光也太伶俐。便云。覓心了不可得。達磨云。為汝安心竟。神光便悟去。渠只道。箇安心竟。畢竟悟箇甚麼。還會也未。如或未會。再看龐居士參石頭。問云。不與萬法為侶者。是甚麼人。石頭便將手掩其口。這裏人境俱奪。截斷眾流。正是用達磨金剛王寶劍也。龐

居士從此有省。後參馬祖。亦問云。不與萬法為侶者。是甚麼人。馬祖云。待汝一口吸盡西江水。即向汝道。這裏奪境存人。傍通一線。亦是用金剛王寶劍也。居士遂大悟去。後來南泉。又道。不是心。不是佛。不是物。這公案却似。福州人吃荔枝。相似把皮都剝了。送在你口裏。只要你吞下。大抵禪和。不能直下領略。都只在心上求。佛上求。見人說非心非佛。又疑畢竟是箇甚麼物。南泉三處俱破。亦是用達磨金剛王寶劍也。諸仁者既不是心。不是佛。不是物。且道。是箇甚麼。於此未會。再看百丈下堂句。百丈一日上堂說法竟。眾下堂。丈忽召云。大眾。眾回首。丈云。是甚麼。此是忽然提出。靈光獨露。迥脫根塵處。若從此證入。是為親切。又羅山問巖頭云。起滅不停時如何。巖咄云。是誰起滅。就路還家快便難逢。山正擬議間。巖急提云。肯則未脫根塵。不肯則永沉生死。夫不肯固永沉生死。肯因甚又落根塵。蓋有能肯之心。是之謂根。有所肯之境。是之謂塵。心境對立非妄而何。以上所舉百丈巖頭葛藤。並向六根門頭指出。可謂。太近。但恐人只守著。昭昭靈靈。認奴作郎。翻成太遠。須知有岑大虫道底。大虫為亡僧作偈云。眼前無一物。當下亦無人。蕩蕩金剛體。非妄亦非真。人都于有見有聞處。說金剛體。渠獨向無見無聞處。說金剛體。若能從無見無聞處認得。方能於有見有聞處認得也。然岑大虫。只就一觸體言之。更須知有忠國師道底。僧問忠國師。如何是古佛心。國師云。墻壁瓦礫。僧云。還說法也無。國師云。常說熾然。說無間歇。人都于有情上說古佛心。渠獨向無情上說古佛心。若能于無情上認得。方能于有情上認得也。學者到此始知。這箇無一物不是。無一處不週。無一時不現故。經云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然更有事在諸人。也不可不知。乾峯云。法身有三種病二種光。更須知有向上一竅。老僧今日。不惜眉毛。為諸人註破。凡山河大地。明暗色空。一切萬象。窒礙眼光。皆為法身之障。是謂一種病。或見諸法空。隱隱地見有法身之理。是謂法執不忘。亦是一種病。或雖透得法身。簡點將來。或覺無可倚靠處。或覺無可主張處。或覺無可指示處。亦是法執不忘。是謂最後一種病。前一種病。是一種光不透脫。後二種病。亦是一種光不透脫。學者若能透向上一竅。則三種病二種光。不消一捏而破。始謂之參學事畢也。老僧今日。入泥入水。如泥裏推車。四脚著地。步步區區。只要諸人得箇入處。或有人笑老僧。不能直截為人。只管打葛藤。殊不知。老僧葛藤處。節節皆直截之法。師復笑云。汝諸人更要直截底麼。老僧這裏也有些。拈拄杖。卓一卓云。大眾。珍重。

永覺和尚廣錄卷第五

普說下

興福寺授戒普說。師拈香祝聖竟。僧問。六百年前行此令。今朝興福又重新。祇如七省師僧一時雲集。和尚將甚麼利生。師云。空中書梵字。進云。忽遇箇五戒不持。十善不修。無面目漢出來。和尚作麼生相見。師云。三十棒趲出院。僧禮退。師乃云。興福禪寺創來六百餘年。並未有人舉揚正法。今春各房合餐。屈老僧到此。四方逐臭尋馨千眾雲集。逼老僧陞座說戒。若論諸佛金剛寶戒。不落根塵。無有名言。無有能受者。亦無所受者。如昔日百丈大師上堂云。靈光獨耀。迥脫根塵。體露真常。不拘文字。心性無染。本自圓成。但離妄緣即如如佛。此語緊要。只在靈光獨耀迥脫根塵二句。識得靈光獨耀底。是之謂真受戒也。盤山大師上堂云。心月孤。圓光吞萬象光。非照境境亦非存。光境俱亡復是何物。此語緊要。只在光境俱亡二句。識得復是何物。便識得靈光獨露底了也。又有箇張拙秀才因得法。石霜作偈云。光明寂炤徧河沙。凡聖含靈共一家。一念不生全體現。六根纔動被雲遮。此偈八句不必盡舉。其緊要。只在一念不生全體現一句。正是百丈盤山二師註脚也。然得此戒者。古人亦大有樣子。如秦望山鳥窠禪師有箇會通侍者。多年不與說法。一日辭去。窠問。何往。者云。諸方學佛法去。窠云。若是佛法老僧這裏。也有些子者。便問。如何是和尚佛法。窠拈起布毛吹之。者便大悟。鳥窠可謂善說戒者。會通可謂善受戒者。如此受戒。還有根塵可染麼。還有文字可拘麼。還有光境可亡麼。是之謂諸佛金剛寶戒。得之則立地成佛者也。然渠接引白侍郎處。却似話分兩橛。諸人不可不仔細。白侍郎曾問。如何是佛法大意。窠曰。諸惡莫作。眾善奉行。白云。這箇三歲孩兒也道得。窠曰。三歲孩兒雖道得。八十老人行不得。看渠拈布毛處。如在萬仞峯頭。翹足而立。看渠答白侍郎處。却似挖泥帶水。就地打鞦。然須知渠萬仞峯頭事。然後知渠挖泥帶水處。滴滴歸元。知渠挖泥帶水處。然後知渠萬仞峯頭事。函蓋無盡。諸人還會也未。如其會得。老僧已說戒了。諸人已受戒了。如或未會。老僧傳得箇本子。一一與諸人宣說。向下文長付在來日。

臘八普說。今日堂中諸兄弟。請老僧為四來大眾普說。老僧見聞既寡。舌根又鈍。不能大有發揚。且據古佛誠言。先德明訓。為諸人打葛藤去。大道無涯。貫滿十方。箇箇圓成。無不具足。先佛依此義故。故說有情無情。俱有佛性。亦說有情無情。本來成佛。大道

無形。體本寂滅。彌滿清淨。中不容他。先佛依此義故。故說十界聖凡。一切依正。一切因果。悉皆空寂。大道至一。無有變異。在染在淨。性相不動。先佛依此義故。故說生死即涅槃。煩惱即菩提。貪嗔癡即戒定慧。凡此三義。皆約理體本寂也。眾生無始以來無明。妄起現有心相。心相既形。妄境斯現。妄境既現。始分好醜。好醜既呈。始有憎愛。憎愛既生。乃有去取。既有去取。乃有善惡。既有善惡。乃有因果。由是而四生九有。三界六道。無不熾然建立。此則約事相不無也。眾生既沉生死大海之中。頭出頭沒。無有出期。諸佛愍之。為說出苦之要。還源之術。說天人法。出三途之苦。說二乘法。出天人之苦。說大乘法。出二乘之苦。說一乘法。出三乘之苦。在天台則判之。為四教。在賢首則判之。為五教。要而言之。總不出破人法二執。顯人法二空。以證真如實相之體而已。此則因事相不無。還理體本寂也。後佛因大梵天王所獻金色鉢羅華。拈出示眾。時百萬人天。悉皆罔措。惟有金色頭陀。破顏微笑。佛乃曰。吾有正法眼藏涅槃妙心。付與摩訶迦葉。因此歷代相傳。以至達磨大師。西來此土。不涉名言。不立修證。惟直指人心。見性成佛而已。夫心本無形。云何可指。性本無相。云何可見。佛本現成。云何復成。其意祇是因眾生妄起諸見。迷却本心。故渡海西來。息其妄見。使還得本心。此如太空之中。妄生閃電電光。既息則空體湛然。始知前非有失。今非有得。特因妄見起滅。似有得失。所以三祖信心銘云。不用求真。惟須息見。何謂息見。有見無見。亦有亦無見。非有非無見。乃至佛見法見。道見禪見。毗盧師法身主見。向上關楨涅槃後心見。一有諸見。悉是天魔眷屬。外道種性。一息諸見。即是如來真子。祖師命脉。故息見二字。實還源之要旨也。既悟本心。尚須保任。蓋為無始劫來。習氣深重。未能頓除故。保任之功。不可或疎。然所謂保任者。非假造作。有為之法不過。嘗惺惺地不為凡心所雜而已。昔天皇悟囑龍潭信曰。任性逍遙。隨緣放曠。但盡凡心。別無聖解。任性逍遙。隨緣放曠二句。切莫錯認將縱恣放逸。無所忌憚當之。須知所謂逍遙放曠者。乃是於一切妄境。超然不著。如鳥飛空。而毫無所牽繫。如龍出海。而毫無所障礙者也。若聞聲為聲所牽。見色為色所牽。見財為財所礙。見勢為勢所碍。則縛著拘滯甚矣。豈曰放曠逍遙哉。凡若此者。皆為未盡凡心之故也。凡心者何。一有是非之心。凡心也。一有取舍之念。凡心也。一有淨穢之見。凡心也。一有聖凡之別。凡心也。一有迷悟之分。凡心也。若能盡却凡心。所謂海為龍世界。空是鶴家鄉。有何不逍遙。不放曠哉。近日有等狂妄之輩。徒執理體本寂。不知事相不無。便成斷空之見。動輒謂。我等本來是佛。識得便了。無功可用。本無迷悟。何用參禪。本無持

犯。何用戒律。因果罪福一切滅裂。至於貪名奪利。有如狂狗。恃氣起爭。不啻猛虎。喪盡人心。無所不至。是說佛法。則一切俱空見。世法則一切俱實。蓋彼道本來是佛。無功可用。你看蝦蟆蚯蚓。渠亦本來是佛。比之毗盧遮那。何有增減。怎奈這蝦蟆蚯蚓之身。未能脫得。彼道。識得便了。無功可用。如今諸人。削髮為僧。住居僧房。或一睡去。夢在俗家。經營俗事。夫一夢之中。便能變僧為俗。變僧房為俗舍。毫不覺知。你知道之見。恐不及知自己為僧之真。你生死關頭。恐不止一夢之迷。而今顛倒錯亂。既已如此。又豈可恃此虛妄見解。抵敵生死乎。此等乃波旬之流。竊入袈裟之下。破滅佛法者也。諸人當視之如毒蛇。遠之如火坑。切莫親近。今日諸人。既已圓頂方服。入三寶數。又能擁毳入叢林。以參究大道為務。便是超凡入聖之時。便是除疑祛惑之時。可謂。希有殊勝。一切人中。所不易得者。各宜勤修正法。實心參究。舉步必法先蹤。毋自墮於邪黨。若墮邪黨。入地獄如箭射。古云。地獄苦未是苦。袈裟下失却人身。是為最苦。可不懼哉。珍重。

大司空漢奉鄭公。恤部蘇門黃公。儀部聯岳朱公。及諸縉紳。為祝釐於建州淨慈禪院。修大悲懺法。圓日請普說。師陞座。拈香祝聖竟。斂衣就坐。僧問。如何是大悲心。師曰。青空。朗日無私炤。進云。恁麼則箇箇沾恩去也。師曰。你擬逃向甚麼處。進云。覆盆之下又何如。師曰。也是閉目作夜。問。大悲菩薩用許多手眼作麼。師曰。也祇是一片大悲心。士禮拜。師乃云。山僧仰蒙聖恩。遠承眾請。冒登此座。闡揚大悲之心。夫此大悲心者。乃凡聖之同體。亦禍福之同源。天得之而清。地得之而寧。堯舜得之。而垂拱無為。湯武得之。而易暴施仁。失之則天地易位。雨暘不時。饑饉疾疫兵戈之禍。無不畢至。此理之必然者。故上自君王。下至黎庶。無有一人一刻可無此大悲心。此大悲心。如乾元之資生。春風之吹萬。不以有為而發。不以勉強而生。又不得分於他岐。若分於聲色。則大悲之心喪矣。若分於資利。則大悲之心喪矣。若分於忿怒。則大悲之心喪矣。若分於殘忍。則大悲之心喪矣。大悲之心既喪。豈可以語言之敷揚。儀文之粉飾。而曰吾能大悲哉。今聖主當陽。大弘慈悲之化。山僧因風舉火。廣為四眾宣說。諸人若能常懷此心。無有間斷。即是觀音大士。現無量神變。放無量光明。覆護眾生了也。自然天步常亨。皇威遠震。萬邦納欵。四海同文。又何待致香火之敬。效祝誦之勞耶。此事且止。老僧今日恁麼說話。也祇是舊時習氣。佛法不曾動著。到此忍俊不禁。不免逗漏一場。如何是佛。善見塔頭開口笑。如何是法。放生潭上水東流。如何是僧。大悲堂與丹青閣鬪額。說箇甚麼。諸人若能識得此三語。則諸

佛諸祖所說底。更無有餘。如若未會。老僧更有箇直捷指出一句。汝等諸人。好自參取。拈拄杖。卓一卓。下座。

茶話

除夕茶話。老僧被業風吹到鼓山。不覺已滿一年。未曾有一句佛法。與諸人結緣。今當除夕。監院再三啟請。祇得於茶筵中。與諸昆仲。說幾句淡話。此茶老僧二十年前。從壽昌採得。如法熏焙。如法珍藏。今夜窄路相逢。不免烹出供養大眾去也。擊拂子一下云。諸人若能於此領略。則世尊四十九年。說黃道白。諸祖千七百則。指東話西。盡皆透過。無有其餘。如或未然。老僧再引舊葛藤。與諸人商量看。昔趙州見僧來。便問。曾到否。僧云。曾到。州云。吃茶去。或云。不曾到。州亦云。吃茶去。今問諸人。若見趙州時。畢竟作麼生祇對他。莫是云和尚也不消得麼。莫是云謝和尚指示麼。莫是便下一喝麼。莫是掩耳出去麼。今時學人伎倆。不過如此。要見趙州也大難。諸人且道。諦當一句作麼生。咦。夜靜水寒魚不食。滿船空載月明歸。夜寒。珍重。

元夕茶話。風吹玉屑下瑤穹。頓使千峯失翠容。箇中別有通明處。却在寒巖凍雨中。

歲夜茶話。大眾。歲功已畢。歲運已周。全在今夜折合去。今夜已前。冰堅雪老。萬機寢削。滅也而實未嘗滅。今夜已後。桃紅柳綠。萬物咸新。生也而實未嘗生。至於今夜。大眾且道。生即是。滅即是。生滅且置。祇如生滅不相干一句。作麼生道。良久云。白雲影裏無聲谷。半夜烏雞帶日飛。

茶話。諸兄弟。明日初八。乃世尊成道之期。今夜設茶。送諸人入堂去。切宜把住虛空。做這一回。莫輕自退屈。須知我等與世尊。無二無別。金剛經云。是法平等。無有高下。以何為驗。拈起數珠云。大眾見麼。你也恁麼見。我也恁麼見。釋迦老人也恁麼見。喝一喝云。大眾聞麼。你也恁麼聞。我也恁麼聞。釋迦老人也恁麼聞。人人同此見聞。則人人合具有不思議事。喝一喝而大地震動。按一指而海浪沸騰。擲一棒而須彌粉碎。唾一唾而劫火頓消。如是威神。如是力用。人人具足。本無欠少。因甚世尊夜覩明星。豁然大悟。成無上尊。而我等都祇在暗地裏薩婆訶。果是何故。擊案作聲曰。祇為分明極。翻成所得遲。

受戒畢茶話。今日受戒已畢。湛淵上人設茶。山僧將無作有。酬些茶錢去。大抵受戒與付戒者。今日多成箇套子問著。各各云能持能持。不知能持二字。有多少難在。豈可容易。諸人既逢此會。當生慶幸勉力受持。不可放逸。如高沙彌云。長安雖鬧。我國晏然。則

戒之一字。不須提起。如其未能。且莫虛頭。所謂戒者。雖有五戒十戒。大乘小乘之不同。約而言之。不過諸惡莫作。眾善奉行。自淨其意而已。蓋吾心本淨。而習染弗淨。故說戒以防之。總以完吾心之本淨也。今夜重將五戒十戒。二百五十戒。十重四十八輕戒。作一壇說去好麼。以拳擊案一聲曰。豈不是五戒。復擊一聲曰。豈不是十戒。復擊一聲曰。豈不是二百五十戒。復擊一聲曰。豈不是十重四十八輕戒。復豎拳云。是甚麼。喝一喝。

茶話。今年正月又二十。茶果從來不易喫。惟有狸奴精古恠。跳出虛空頭上立。等閑拈起一芥子。打倒鐵圍如破壁。搖頭不信少林宗。達磨是甚破驢脊。三世諸佛不知有。破廟判官手無筆。有時受盡世人虧。鑊湯爐炭都甘入。有時瞞盡世間人。釋迦彌勒俱不識。且道。他有何所得。得如是去就。咦。餬餅討甚麼汁。

茶話。世間萬法。不出心境兩種。心非有心。因境而生。境非有境。因心而得。一不獨成。二不單立。可知。全為虛妄。若向這虛妄動靜裏擬議。正如向龜毛兔角裏覓影跡。有何可得。昨日有僧入方丈。却問。心境俱亡。復是何物。山僧只向他舉起箇扇子云。是甚麼。若向這裏作境會。未免白雲萬里。作心會。亦未免白雲萬里。作非心非境會。亦未免白雲萬里。畢竟作麼生會。喝一喝。

茶話。十寸為尺。十尺為丈。佛大泥多。船高水漲。箇箇個儻分明。目機銖兩。忽有人問。袒膊和尚。今年有幾多歲。還道得麼。如道不得。紫雲堂裏。也有朽床破席。

茶話。參者須教著實參。休管前三與後三。徧界揣摩尋不著。賣却疎山破布單。手握寶珠行乞去。一朝笑破始知慚。不須枉走三千里。藤枯樹倒得心安。

興化菩提庵茶話。荷錫向南來。佛法無可說。朔風吹凍耳。衣衾冷如鐵。達祖西來意。親切更親切。再若問如何。紅爐尋片雪。

惠安青藜館茶話。大慧昔日來惠安。小溪搥動喧天鼓。山僧今日來惠安。青藜館內香雲紫。昔日今朝事不同。仔細看來爭幾許。承君命我說茶話。好似逼起石人舞。不說趙州無。不說雲門普。從前絡索都刊下。斬新條令今朝舉。鼈鼻咬殺毒蛇。大虫吞却猛虎。諸人還會麼。良久云。且喜滿座顏回。山僧不勞重舉。

大道巖茶話。臨濟喝收歸後架。德山棒拋向前坑。不用從前殘羹餽飯。即今大道巖頭一句。作麼生道。只把一根無孔笛。夜深吹出碧巖頭。

除夕茶話。且喜歲華今結局。那堪葉落又抽枝。韓愈有文徒送鬼。賈島無餽可祭詩。至於衲僧分上事。又作麼生。北禪分歲大家知。大家知。喫了莫言滋味惡。木人夜半捉烏鷄。

上海居士。請茶話。三春已去。九夏方臨。黃鶯聲漸老。紫燕語方嬌。岸柳垂煙重。園竹長新枝。四者分疆列界。各弄風光。明明祖師意。明明古佛心。從這裏會去。不道全無。但到真寂門下。未免萬里崖州。祇如南山白額咬殺東海鯉魚。陝府鐵牛吞却嘉州大象。又作麼生會。咦。山僧今夜。不合向鉢盂上安柄。三十棒自喫去也。珍重。

唐居士設浴。請茶話。今日唐居士。為眾僧設浴。諸人各各隨例浴訖。畢竟作麼生還得浴錢去。昔有跋陀婆羅。同十六開士隨例入浴。忽悟水因。得無所有。諸人且道。渠悟箇甚麼。莫是悟水無性麼。莫是悟諸塵本空。體亦常寂麼。莫是悟無能觸。亦無所觸。中間觸相。直如龜毛兔角麼。恁麼說得個儻分明。許渠作得箇座主。然說食豈能飽人。畫餅不可充饑。若是親到無所得處。如來禪許渠會。祖師禪未夢見在。若到真寂門下。未免朝打三千。暮打八百。不見古人云。頭頭上明。物物上通。猶是借句。又云。山河大地。明暗色空。一捻粉碎。猶是半句。既是借句。如何得不借句。既是半句。如何得滿句。若要酬還唐居士浴錢。恐浴堂裏燈籠笑破嘴去也。諸人還知麼。鶻臭汗衫都脫下。赤條條地見當人。未明獅子翻身法。依舊山高水更深。

誕日茶話。真寂生來無一竅。千聖機關俱不要。三玄拋在桑田東。五位將來埋屎窖。門庭堂奧盡掀翻。驚倒象王撒驢尿。赤手空拳要殺人。迦葉逢之不敢笑。此是老僧六十年後事。祇如六十年前事。又作麼生。良久云。這裏無你諸人開口處。且聽老僧一偈。石牛兀兀不知秋。到處雲山信步遊。兩岸煙光全不隔。古今風月一時收。咄。

鄒居士設浴。請茶話。今日鄒居士。為眾僧設浴。諸人已各向香水海中。一絲不挂。脫體風流。通身作用。放大光明了也。今夜又要邀老僧到此。更有何事。只為箇末後句未曾道得。作麼生是末後一句。喫茶後無事歸堂好。

除夕茶話。老僧居苕溪。尋常未曾鼓兩片皮。與諸人葛藤。今當歲除之夕。俗例分歲。適逢荒歉。常住淡泊。也無雲門餅。也無趙州茶。也無金牛飯。也無北禪牛。但烹苕溪一滴水。普供養大眾。這一滴水。斟一任斟。酌一任酌。取之不禁。用之不竭。且道。是甚麼滋味。有道得者麼。試出眾道看。良久云。如道不得。老僧為諸人傍通去。切忌有口者吞。只許無舌者嘗。時寒久立。珍重。

茶話。近日學人。見十二分教。則呵為拭瘡疣紙。見五宗言句棒喝。則奉為鎮海明珠。不知這箇不在十二分教上。亦不在五宗言句棒喝上。若只向言句棒喝之下鑽研。求通宗師血脉。則全成邪見。

聚八閩之鐵。不能鑄成這一錯也。所以古人道。門裏出身易。身裏出門難。諸人切莫倚門靠戶說禪也。

茶話。秋風至時秋葉黃。遊子未歸心慘傷。舊日田園雖未失。怎奈雲山隔渺茫。諸仁者。因甚隔渺茫。挾策博奕遊。異趣均亡羊。但能俱放下。管取到家鄉。

永覺和尚廣錄卷第六

拈古二十九則

舉。達摩既遷化。葬于熊耳山。後魏使宋雲。自西域回。遇於葱嶺。見其持隻履翩翩獨逝。雲問。師何往。祖曰。西天去。雲歸奏魏主。啟墳視之。惟空棺。止存隻履。舉朝驚歎。奉詔取遺履。於少林寺供養。

師曰。此是達摩最後一著。諸人作麼生會。宋雲遇于葱嶺。便當一棒打殺。也見東土有人。既已蹉過。却來奏魏主。啟視空棺。珍重一隻破履。留殃後代。亦太憤憤也。

舉。僧於馬祖前作四畫。上一畫長。下三畫短。曰不得道一長三短。離此四字。請和尚答。祖乃畫地一畫曰。不得道長短。答汝了也。

師曰。此僧立箇問頭。也甚奇恠。若是今時杜撰宗師。祇用瞎棒打將去。祖却不然。就地畫一畫。可謂。投之木瓜。報以瓊瑤。這僧小出大過也。但祖云不得道長短。答汝了也。却似嚼飯餒小兒。祇為慈悲之故。有此落草之談。

舉。亮座主參馬祖。祖問。見說座主大講得經論。是否。亮曰。不敢。祖曰。將甚麼講。亮曰。將心講。祖曰。心如工伎兒。意如和伎者。爭講得。亮抗聲曰。心既講不得。虛空莫講得麼。祖曰。却是虛空講得。亮不肯便出。將下階。祖召曰。座主。亮回首。祖曰。是甚麼。亮豁然大悟。便禮拜。祖曰。這鈍根阿師。禮拜作麼。亮曰。某甲所講經論。將謂無人及得。今日被大師一問。平生功業。一時冰釋。禮謝而退。隱入洪州之西山。更無消息。

師曰。此是馬祖一粒救死靈丹。但近日禪和。不能服食。見渠道虛空講得。便向虛空中下槩。見渠道是甚麼。便向是甚麼處見鬼。雖有百馬祖。其奈之何。你看渠吐露云。被大師一問。平生功業。一時冰釋。可謂。皮膚脫盡。惟一真實。後隱入西山。更無消息。可謂。頭正尾正。亘古亘今。如雷如霆去也。謂之不為人得麼。

舉。洞山與泰首座。喫菓子次。山問。有一物。上拄天。下拄地。黑如漆。常在動用中。動用中收不得。且道。過在甚麼處。座曰。過在動用中。山便喝。令侍者掇退菓卓。劔門庵主拈云。我當時若在。亦對云。過在動用中。待渠令侍者掇退菓卓。便拈起菓子。將洞山劈面痛擲。

師曰。洞山此問。心倖不少。首座已遭活陷黜罰。何疑劔門猶欲強作主宰。正好三十痛棒趁出院去。所謂。打麵還他州土麥。唱歌須是帝鄉人。

舉。法空禪師到鹽官齊安國師處。請問經中諸義。安一一答了。却曰。自禪師到來。貧道總未曾作主人。法空曰。請和尚便作主人。安曰。今日夜也。且歸本位安置。明日却來。空下去。至明日。安令沙彌屈法空。法空至。安顧沙彌曰。咄。這沙彌不曉事。教屈法空禪師。祇屈得守堂家人來。空無語。

師曰。齊安放去收來。權衡在手。主禮有餘。法空隨聲喚轉。茫然無據。不會為客。老僧若做法空。待渠云貧道總未作得主人。便合云。和尚可謂習氣難忘。渠云。只屈得守堂家人來。便合云。莫怪沙彌。和尚亦未識法空在。拂袖便出。管取齊安作主不成。

舉。僧參平田。田便打。僧進前把住拄杖。田曰。老僧適來造次。僧打田一拄杖。田曰。作家作家。僧禮拜。田曰。是闍黎造次。僧大笑。田曰。這箇師僧。今日大敗也。

師曰。平田伸縮安閑。自是慣戰老賊。這僧生遭活陷。前倨後恭。弄巧成拙去也。雖然。今日討這僧。亦不可得。

舉。百丈再參馬祖。祖見來。拈拂子豎起。百丈云。即此用離此用。祖掛拂子於舊處。侍立片時。祖云。爾已後鼓兩片皮。如何為人。丈取拂子豎起。祖云。即此用離此用。丈掛拂子於舊處。祖震威一喝。丈後來謂黃蘗云。我當時被馬祖一喝。直得三日耳聾。

師曰。此公案。今古拈提者多謂。百丈脚跟尚未全穩。得馬祖一喝。方能了當。若如此。何異萬里望鄉關。百丈捲席時。祖云。汝深明昨日事。便是徹骨徹髓了也。所以雪竇拈云。大冶精金。應無變色。但百丈既是精金。馬祖一喝。入他耳弦也不得。當馬祖喝時。便合掩耳出去。云何又三日耳聾。既是三日耳聾。何故云應無變色。此一則公案。乃是臨濟肇始處。此處未明。又安問其他哉。須知。轉身一路。千聖不傳。末後一句。古今難搆。諸人也須審細好。

舉。僧為疎山造壽塔畢。白山。山曰。將多少錢與匠人。曰。一切在和尚。山曰。為將三錢與匠人。為將兩錢與匠人。為將一錢與匠人。若道得。與吾親造塔來。僧無語。後僧舉似大嶺庵閑和尚。嶺曰。還有人道得麼。僧曰。未有人道得。嶺曰。汝歸與疎山道。若將三錢與匠人。和尚此生決定不得塔。若將兩錢與匠人。和尚與匠人。共出一隻手。若將一錢與匠人。累他匠人。眉鬚墮落。僧回如教而說。山具威儀。望大嶺作禮。歎曰。將謂無人。大嶺有古佛。

放光射到此間。雖然如是。也是臘月蓮花。大嶺後聞此語曰。我恁麼道。早是龜毛長三尺。

師曰。疎山恁麼垂語。陷阱不少。幸得大嶺放光。一一炤破。雖然。要與疎山造塔。亦大遠在。諸人且道。作麼生與匠人。舉。洞山解制云。秋初夏末。諸兄弟未免或東或西。直須向萬里無寸草處去。祇如萬里無寸草處。作麼生去。良久云。此事須如枯木上糝花。始與他合。

師曰。洞山恁麼說話。正是瑞鳳不棲於凡木。金龍豈守於寒潭。轉功就位轉位就功即不無。看來也祇似猢猻上樹。捨一取一。未為好手。且道。作麼生是本分底去處。良久云。釣船載到瀟湘岸。氣噎無聊問白鷗。

舉。炤布衲一夕指半月。問溥上座曰。那一半在甚麼處去也。溥曰。莫妄想。炤曰。失却一半也。眾共嘆美。

師曰。諸人且道。溥上座過在甚麼處。炤布衲雖得便宜。也是壓良為賤。眾雖嘆美。也是噎酒糟漢。但溥欠箇後語耳。待他云失却一半也。便合云。果妄想不少。管取炤布衲一場懨懨去也。

舉。石霜遷化。眾請堂中首座繼住持。九峯云。待某甲問過。若會先師意。如先師奉侍。問云。先師道。休去。歇去。一念萬年去。寒灰枯木去。古廟香爐去。一條白練去。且道。明甚麼邊事。座云。明一色邊事。峯云。元來未會先師意在。座云。你不肯我那。但裝香來。香烟斷處脫去不得。即不會先師意。遂焚香。香烟未斷。便坐脫。峯乃撫座背云。坐脫立亡即不無。先師意未夢見在。

師曰。首座不免逐句。故遭九峯點罰。然渠喚作一色。便是不肯安此以為極則。如何後人便以迷于一色誣之。天奇瑞註頌古。直謂是明法身斷德。則認為極則。正迷在一色中了也。逐句之失。何止在三千里外耶。既不許認作一色。又不許認作法身。先師意。畢竟作麼生。

舉。僧問青林。學人徑往時如何。林云。死蛇當大路。勸子莫當頭。僧云。當頭時如何。林云。喪子命根。僧云。不當頭時如何。林云。亦無迴避處。僧云。正當恁麼時如何。林云。失却了也。僧云。未審向甚麼處去。林云。草深無覓處。僧云。和尚也須隄防始得。林撫掌云。一等是箇毒氣。

師曰。既不許當頭。亦不許迴避。暫生擬議。便隔千山。教學人畢竟如何行履。虛舟無意浮秋水。檣柁渾亡渡月明。

舉。南泉一日。因兩堂爭貓。泉提起猫云。道得即不斬。眾無對。泉斬猫為兩段。趙州自外歸。泉舉問之。州脫履安頭上而出。泉云。子在救得猫兒。

師曰。南泉舉令廓爾無前。兩堂祇得拱手而聽。趙州雖能超出。怎奈也祇在刀下全身。老僧當時若在。却不恁麼。但云。兩堂未爭時。和尚又作麼生。管取渠束手入方丈去也。

舉。龐居士辭藥山。山命十禪客送出門。士指空中雪云。好雪片片不落別處。全禪客曰。落在甚麼處。士打一掌。全曰。居士也不得草草。士曰。恁麼稱禪客。閻老子未放你在。全曰。居士又作麼生。士復打曰。眼見如盲。口說如啞。

師曰。龐公如俊鷹捉兔。不容轉眼。亦如獅子捉兔。用其全力。可謂。慈悲太煞。但龐公初語亦自具負門。還有簡點得出者麼。若簡點得出。許渠具參學眼。

舉。馬祖見僧來。便畫一圓相云。入也打。不入也打。僧便入。祖便打。僧曰。和尚打某甲不得。祖靠拄杖便休。雪竇云。二俱不了。靠却拄杖。擬議不來。劈脊便棒。

師曰。賓主到恰好處。正好便休。何云未了靠却拄杖。其僧若有語。却好打出。

舉。漸源因寶蓋來看。源乃捲簾入方丈坐。蓋下却簾歸客位。源令侍者傳語云。遠涉不易。猶隔津在。纔語了。蓋便打一掌。者云。有堂頭和尚在。莫打某甲。蓋云。只為有和尚在。所以打你。者回舉似源。源云。猶隔津在。

師曰。漸源藏身穩密。寶蓋通身吐露。漸源見寶蓋。寶蓋未見漸源。但待渠道猶隔津在時。合答云。謝和尚法誨。管取漸源道箇相見了也。蓋却打侍者。奚啻隔津乎。

舉。乾峯示眾云。法身有三種病。二種光。須是一一透得。更有向上一竅在。雲門出云。菴內人為甚麼不知菴外事。峯呵呵大笑。門云。猶是學人疑處。峯曰。子是甚麼心倖。門云。也要和尚相委悉。峯云。直須恁麼始得穩坐地。門云。喏喏。

師曰。乾峯大開陣勢。不同小可。雲門却向渠頭上。踏下來。然菴外事且置。菴內事又如何。道得者。鼓山與渠結箇同參。

舉。石鞏見僧。執弓架箭以示。三平至。鞏曰看箭。平撥開胸當之曰。此是殺人箭。活人箭又如何。鞏扣弦三下。平便展拜。鞏曰。三十年舉一張弓。架兩隻箭。只射得半箇聖人。遂拗折弓箭。

師曰。披胸當箭。宛有大人之略。然只認作殺人箭。再來問活人箭。蹉過多少。鞏為作死馬醫。雖然救得。也只是半箇了也。

舉。佛前有一女子入定。文殊乃白佛。云何此人得近佛坐。而我不得。佛告文殊。汝但覺此女。令從三昧起。汝自問之。文殊乃運神力。托上梵天。出定不得。佛乃云。下方罔明大士。能出此定。須與罔明至。勅令出定。罔明彈指一下。女子便從定出。

師曰。天童謂。若定若動。當人變弄。是即是。也。也只道得一半。孰知三人皆是不守本分漢。女子至今。猶未出定在。

舉。雪峯與三聖遊山次。見一隊獼猴。峯云。只這獼猴。各各佩一面古鏡。聖曰。歷劫無名。何以彰為古鏡。峯曰。瑕生也。聖曰。一千五百人善知識。話頭也不識。峯曰。老僧住持事繁。

師曰。三聖神鋒穎利。下視諸方。獨此處遭人鈍置。譬如雪峯厠一堆臭屎。已過橋去。三聖却向屎邊挑剔。所以被雪峯道箇瑕生也。後來又無轉身之術。只管進前。正好劈頭便棒。幸雪峯是大人氣象。天覆地載。千古良規。

舉。僧問臨濟。如何是吹毛劍。濟曰。禍事禍事。僧禮拜。濟便打。

師曰。僧恁麼問。正好劈頭便棒。如何却云禍事禍事。蓋大善知識。縱奪自如。且看他轉變處也。然作麼生免得這一棒。雖是佛來。也無免處。

舉。文殊三處過夏。迦葉欲擯文殊。纔近椎。乃見百千文殊。世尊遂問。汝擯那箇文殊。迦葉無對。

師曰。文殊雖得便宜。怎奈醜態盡露。當時何不默受擯去。管取迦葉三十年。摸索不著。

舉。臥輪偈曰。臥輪有伎倆。能斷百思想。對境心不起。菩提日日長。六祖聞之。別曰。慧能無伎倆。不斷百思想。對境心數起。菩提作麼長。

師曰。六祖為救臥輪。施此法藥。若執以為實。作臥輪奴也不得。

舉。香嚴垂語云。若論此事。如人上樹。口銜樹枝。脚不踏枝。手不攀枝。樹下有人問。如何是祖師西來意。若不對。違他所問。若對。又喪身失命。正當恁麼時。作麼生即得。時有虎頭招上座云。樹上即不問。未上樹時請和尚道。嚴乃呵呵大笑。

師曰。香嚴設箇譬喻。已剝心瀝膽。說向人去。豈可更問樹上樹下對與不對也。招上座自是老賊。別設機宜。暗中合顯。父子唱和。千古繩規。

舉。玄沙問鏡清。古人道。不見一法。為大過患。你且道。不見甚麼法。清指露柱曰。莫是這箇法麼。沙曰。浙中清水白米從你喫。佛法未夢見在。

師曰。鏡清恁麼道。未嘗不是。因甚玄沙點罰。但出語未越常流。且有逐塊之病。若是鼓山。便道。問這破草鞋作麼。他若道佛法未夢見在。便道。且喜且喜。

舉。三聖云。我逢人即出。出即不為人。興化云。我逢人即不出。出即便為人。

師曰。二師也甚奇怪。但未免因人出入。却成固必。鼓山即不然。幽洞豈拘關鎖意。縱橫不涉兩頭機。
舉。興化云。若立一塵。家國興盛。野老顰蹙。不立一塵。家國喪亡。野老安恬。

師曰。諸人且道。立即是。不立即是。若道有時立。有時不立。却似發瘡病相似。若道雙炤雙遮。遮炤同時。猶未離教家極則。畢竟作麼生。須知有向上一竅在。拈拄杖。卓一卓。
舉。雲巖掃地次。道吾曰。太區區生。巖曰。須知有不區區者。吾曰。恁麼則有第二月。巖提起掃帚曰。這箇是第幾月。吾便休去。玄沙云。正是第二月。長慶云。被他倒帚攔面撼。又作麼生。沙休去。雲門云。奴見婢殷勤。保福云。雲巖太似泥裏推車。步步區區。

師曰。雲巖舉掃帚。便是一槌兩當。玄沙等眾口鑠金。非是不知雲巖意。總只要渠據令而行也。雪峯門下。不道不是。藥山門下。兼帶妙叶。當不其然。故天童云。象骨巖前弄蛇手。兒時做處老知羞。

舉。僧問鏡清。新年頭。還有佛法也無。清云。有。僧曰。如何是新年頭佛法。清曰。孟春猶寒。劍門菴主拈云。若有人問劍門。不恁麼道。但道孟春猶寒。

師曰。二語既是一般。因甚有異。總之善知時節。同露春光。但是新年頭佛法。俱未夢見在。

頌古(五十首)

舉。世尊在靈山會上。拈華示眾。是時眾皆默然。唯迦葉尊者。破顏微笑。世尊曰。吾有正法眼藏。涅槃妙心。實相無相。微妙法門。不立文字。教外別傳。付囑于汝。毋令斷絕。

黃面老子婆心切 頭陀一笑難藏拙
瑞瓣靈枝劫外春 看來是甚乾屎橛

舉。百丈再參。

毒龍頭角已完全 忽遇轟雷便躍天
傾湫倒嶽喧千古 一句分明尚未圓

舉。雪峯在德山作飯頭。一日飯遲。德山擎鉢下法堂。峯見乃曰。鐘未鳴鼓未響。拓鉢向甚麼處去。德山便歸方丈。峯舉似巖頭。頭曰。大小德山。未會末後句在。山聞。令侍者喚頭去。問。汝不肯老僧那。頭密啟其意。山乃休。明日陞堂。果與尋常不同。頭至僧堂前。拊掌大笑曰。且喜老漢會末後句。他後天下人不奈伊何。雖然。也祇得三年活。

德山父子賽英雄 末後一句活如龍
直是電光追不及 人從水裏覓魚蹤
舉。僧問同安。如何是天人師。安云。頭上角不全。身上毛不出。
毛角未生是甚麼 五眼何曾識得他
喚馬喚牛俱不是 藏身長在白雲阿

舉。九峯問首座。

鶉鳩樹上啼。意在麻畚裏。樵人祇認聲。錯向枝頭擬。雖然。九峯
還會先師意麼。依稀越國。彷彿楊州。

舉。芭蕉清禪師上堂。拈拄杖示眾曰。你有拄杖子。我與你拄杖
子。你無拄杖子。我奪却你拄杖子。靠拄杖下座。

師姑兩面赤鬚鬚 剃去栽來作丈夫
何如門外幡竿子 獨立參天見也無

舉。晏國師上堂云。鼓山門下。不許咳[口*敕]。時有僧。咳[口*
敕]一聲。師云作麼。僧云傷風。師云。傷風即得。瑯琊拈云。雷
聲浩浩。雨點全無。

雷聲浩浩雨全無 浪說將軍智用疎
誰識孫吳機莫測 時舒時卷總由渠

舉。踈山造塔。

浮漚滿載當珍珠 豐儉用來總不如
嶺頭古佛雖饒舌 丈二龜毛縛太虛

舉。大隨庵側有一龜。僧問。一切眾生皮裹骨。這箇眾生。為甚骨
裹皮。隨拈草履。覆龜背上。

尋聲逐影兩頭猜 面目多從箇裏埋
西川古佛能除楔 拈起蒼前破草鞋

舉。洞山解夏上堂云。秋初夏末。兄弟或東或西。直須向萬里無寸
草處去。良久云。祇如萬里無寸草處。作麼生去。石霜云。出門便
是草。明安云。直饒不出門。亦是草漫漫地。

情存取捨一何艱 怎似從來絕往還
不是渠儂多氣槩 他家曾踏上頭關

舉。雪巖欽禪師問高峯云。日間浩浩時。還作得主麼。峯云。作得
主。又問。睡夢中作得主麼。峯云。作得主。又問。正睡著時。無
夢無想。無見無聞。主在甚麼處。峯無語。欽囑曰。從今日去。也
不要汝學佛學法。也不要汝窮古窮今。但只饑來吃飯。困來打眠。
纔眠覺來。却抖擻精神。我遮一覺主人公。畢竟在甚麼處安身立
命。峯遂奮志入臨安龍鬚山。自誓曰。[拚-厶+去]一生。做箇癡
漢。決要遮一著子明白。越五載。因同宿友。推枕墮地作聲。廓然
大悟。自謂。如泗州見大聖。遠客還故鄉。元來只是舊時人。不改
舊時行履處。

幾年止認影為真 有時不見却難尋

一朝撲落從前底 始識師姑是女人

舉。疎山參大滄安和尚問。承聞和尚道。有句無句。如藤倚樹。是否。滄曰。是。山曰。忽遇樹倒藤枯。句歸何處。滄方泥壁。乃放下泥槃。呵呵大笑歸方丈。山曰。某甲三千里。賣却布單。特為此事而來。和尚何得相弄。滄喚侍者。取二百錢。與這上座去。遂囑云。向後有獨眼龍。為子點破在。後聞明招謙和尚出世。(謙眇一目)徑往禮拜。招問。甚處來。山曰。閩中來。招曰。曾到大滄否。山曰。到。招曰。有何言句。山舉前話。招曰。滄山可謂頭正尾正。祇是不遇知音。山亦不省。復問。忽遇樹倒藤枯。句歸何處。招曰。却使滄山笑轉新。山于言下大悟。乃曰。滄山原來笑裏有刀。遙望禮拜悔過。

白雲一片迷幽谷 要把虛空尋面目

逢人點破便知非 翻身跳出野狐窟

舉。昔有婆子。供養一菴主。經二十年。常令一二八女子。送飯給侍。一日令女子抱定曰。正恁麼時如何。主曰。枯木倚寒巖。三冬無煖氣。女子舉似婆。婆曰。我二十年。祇供養得箇俗漢。遂遣出燒却庵。

敵手相逢各有奇 神謀豈許外人知

轉相陷害冤難了 最毒心腸機上機

舉。女子出定。

三箇猢猻夜簸錢 倒四顛三太可憐

攪亂叢林無了日 笑破燈籠嘴半邊

舉。僧問趙州。萬法歸一。一歸何處。州云。我在青州。做一領布衫。重七斤。

分明徹底窮光棍 那得青州一布衫

識破渠儂無避處 海濶何處不生鹹

舉。百丈上堂。每有一老人隨眾聽法。一日眾退。唯老人不去。丈問。汝是何人。老人曰。某非人。於過去迦葉佛時。曾住此山。因學人問。大修行人。還落因果也無。對曰。不落因果。遂五百生墮野狐身。今請和尚代一轉語。貴脫野狐身。丈曰。汝問。老人曰。大修行人。還落因果也無。丈曰。不昧因果。老人于言下大悟。作禮云。某已脫野狐身。住在山後。乞依亡僧津送。丈領眾至山後巖下。以杖挑出一死野狐。乃依法火葬。

一點邪涎起禍胎 葛藤窠裏浪疑猜

忽然一撥通身轉 倒跨金毛出窟來

舉。僧問趙州。狗子有佛性也無。州云無。

趙老心腸真儻侗 隨處黃金當面捧

直路如何反做彎 甘把虛空鑽窟窿
舉。僧問齊雲炤曰。靈山會上。法法相傳。未審。齊雲將何付囑。
炤曰。不可為汝一人。荒却齊雲山也。曰莫便是親付囑也無。炤
曰。莫令大眾笑。

逐臭尋聲眾似麻 何曾望見法王家
路途絕處青天遠 纔擬承當轉見差
舉。僧問雲幽惲禪師。如何是和尚一隻箭。惲曰。盡大地人無髑
髏。

聖箭從來無向背 十方凡聖總難存
靈機未審從誰發 猛虎閒將白額吞
舉。紙衣道者問曹山。一靈真性。不假胞胎時如何。山云。未是
妙。者云。如何是妙。山云。不借借。

透網金鱗猶滯水 出籠銀鶴尚迷封
一遇紅爐重煅煉 石牛吸盡太虛空
舉。僧問雲巖。二十年侍百丈巾瓶。為甚心燈不續。巖云。頭戴寶
花冠。僧云。意旨如何。巖云。大唐天子及冥王。後有僧問九峯
虔。大唐天子及冥王。意旨如何。峯云。却憶洞上之言。

高坐龍樓勢獨尊 野老何曾問闕門
鼓腹不知堯舜力 荷鋤引犢過前村
舉。雲巖問藥山。如何是異類中行。山云。吾今日困倦。且待別時
來。巖云。某甲特為此事來。山云。且去。巖便出。

撥轉當頭別有機 旁行一路少人知
古殿雲深無屐跡 春風草長過前溪
舉。龍牙問翠微。如何是祖師西來意。微曰。與我過禪板來。牙取
禪板與微。微接得便打。牙云。打即任打。要且無祖師意。又問臨
濟。如何是祖師西來意。濟曰。與我過蒲團來。牙取蒲團與濟。濟
接得便打。牙曰。打即任打。要且無祖師意。牙住後僧問。和尚當
年。問翠微臨濟祖師意。二尊宿明也未。牙曰。明則明矣。要且無
祖師意。

蒲團禪板能行令 却似輸他陷虎機
直是逆風能把拖 西來無意許誰知
舉。雲際師祖禪師問南泉。摩尼珠人不識。如來藏裏親收得。如何
是藏。泉曰。王老師與汝往來者是。祖曰。不往來者。泉曰。亦
是藏。祖曰。如何是珠。泉召師祖。祖應喏。泉曰。去。汝不會我
語。

水乳從來不易分 能分還是讓鷲王
呼應往來祇這是 兩番提起自然彰
舉。僧問投子。凡聖相去幾何。投子下禪床立。

德山臨濟慣行令 何如投子下床時
箇中本自無蹤跡 安用干戈斷眾疑
舉。僧問九峯虔禪師。如何是西來意。峯曰。一寸龜毛重九斤。

祖意西來未許傳 言偏理喪幾能圓
却聞石虎當門吼 驚起烏龜飛上天
舉。雲門云。光不透脫。有兩般病。一切處不明。面前有物。是一。透得一切法空。隱隱地似有箇物相似。亦是光不透脫。又法身亦有兩般病。得到法身。為法執不忘。己見猶存。坐在法身邊。是一。直饒透得。放過即不可。子細簡點將來。有甚麼氣息。亦是病。

幾重關隘路行難 說與行人莫自瞞
但得揭開腦上蓋 縱橫出入海天寬
舉。滄山問仰山。甚處來。仰云。田中來。滄曰。田中多少人。仰插下鋤。叉手而立。滄云。南山大有人刈茆。仰拈鋤便行。

溪東拍板西溪鼓 隔岸相逢兩目覩
的是再來難躲避 等閑逼出跳牆虎
舉。僧問潼泉。如何是相傳底事。潼曰。龍吐長生水。魚吞無盡漚。僧云。請師挑剔。潼曰。播鼓轉船頭。棹穿波底月。

祖祖相傳事有無 休將吞吐強分疎
竿頭絲線從君弄 不犯清波意自殊
舉。洞山五位。

正中偏 黑漆崑崙空裏眠
雖是不曾親切得 眼前影象却昭然
偏中正 將軍手持無字印
鐵馬金戈事正勤 未得歇時難自信
正中來 夜半梅花鬪雪開
一陣香風飄出谷 始知未許雪深埋
兼中至 出匣青蛇難擬議
陰陽反覆事何常 莫道相逢憑意氣
兼中到 事理全銷無可道
不是寒巖獨守空 本無變易閑名埽
舉。龐居士云。但願空諸所有。慎勿實諸所無。

一條白練本天然 點染從來不值錢
初祖九年惟面壁 被人誤喚作單傳
舉。古德云。如牛過窓櫺。兩角四蹄都過了。尾巴因甚過不得。
出籠金鳳尚棲枝 一滴醍醐是禍機
必待渾身流白汗 翻天覆地得便宜
舉。僧問雲居。僧家畢竟如何。雲曰。居山好。

為僧畢竟居山好 世上浮塵不用掃
頭頭盡是說無生 那問春花及秋草
舉。僧問洞山。如何是沙門行。山曰。頭長三尺。頸長二寸。山令侍者。持此語問三聖。聖于侍者手上。捻一捻。侍者回舉似山。山肯之。

十分古恠類難收 不是人兮不是牛
好似葫蘆挂東壁 識者難言是趙州
舉。僧掃地次。曹山問。佛前掃佛後掃。僧曰。前後一齊掃。山曰。與山僧。過鞞鞋來。

步步貪登最上峯 眼中今古欲全空
自言身在青霄上 不知已被白雲封
舉。西園和尚自燒浴。僧問。何不使沙彌童行。園撫掌三下。
室中穩密許誰知 燒燈煮茗見沙彌
門外客來休鹵莽 主僕攸分祇此機
舉。僧問韶山普曰。是非不到處。還有句也無。普曰。有。曰是什麼句。普曰。一片白雲不露醜。

萬仞孤峯不露頂 目力既窮徒引領
看來無舌却能言 夜半令人發深省
舉。僧問梁山。如何是祖師西來意。山曰。莫亂道。

祖意如空莫浪傳 纔形文彩喪真詮
金剛寶劍當頭截 雲廓中霄桂魄圓
舉。蛤溪道者相看洛浦。浦問云。自梨溪相別。今得幾年。溪云。和尚猶記得昔時事。浦云。見說道者總忘却年月。溪云。和尚住持事繁。且容子細。浦云。打即打會禪漢。溪云。也不消得。浦云。道者住山事繁。

同氣同聲本一途 共來水上捺葫蘆
兩輪互照非干舌 千古令人作範模
舉。曹山辭洞山。洞曰。子向甚處去。曰不變易處去。洞曰。不變易處。豈有去也。曰去亦不變易。

今古坦然無歲月 東西一色亘虛空
衲僧本分自如是 豈由鬼力及人功
舉。僧問雪峯。古人有言。峯便臥。良久起云。你適來問什麼。僧重問。峯曰。虛生浪死漢。

葛藤截斷露全機 今古全空更孰依
拂袖便行猶鈍置 那堪重舉仍前非
舉。僧問玄沙備禪師。如何是和尚親傳底事。沙曰。我是謝三郎。
門頭戶底莫須商 此事親供不覆藏
白龍江上月如畫 幾人識得謝三郎

舉。藥山與雲巖遊。山腰間刀響。巖問。什麼作聲。山抽刀驀口一斫。

大人養子異尋常 慈悲切處絕商量
輕輕動著全身喪 啟口原來是禍殃

舉。僧問風穴。古曲無音韻。如何和得齊。穴云。木鷄啼子夜。葛犬吠天明。

石女手橫無孔笛 古音吹動滿乾坤
此曲祇應天上有 人間能得幾回聞

舉。僧問洛浦。如何是一大藏教。收不得者。浦云。雨滋三秀草。片玉本來輝。

滿園桃李待緣生 葉葉枝枝總是春
一物不從天地得 春秋歷盡祇如新

舉。僧問芭蕉清。如何是透法身句。蕉云。一不得問。二不得休。僧云。學人不會。蕉云。第三度來。與你相見。

要關把斷路難通 誰知直下便相逢
等閑不坐空王殿 倒騎木馬驟西風

舉。僧問長慶。如何得不疑去。慶展兩手。

學處雖多疑轉多 眼前何事不譎訛
等閒傾盡心腸去 雲散秋空月印波

舉。僧問趙州。如何是道。州曰。牆外底。曰不問這箇道。州曰。問什麼道。曰大道。州曰。大道透長安。

日用門頭有也無 忽然指著莫分疎
明明大道如天潤 怎奈行人別一途

舉。僧問禾山。即心即佛即不問。如何是非心非佛。山曰。解打鼓。

一聲鼓震絕來機 多智禪和喪所依
深谷夜寒雲寂寂 金烏突出照巖扉

舉。未生前本來面目。

底事分明不覆藏 未生之日更郎當
百千問答俱成隔 何如擊竹絕商量

永覺和尚廣錄卷第七

佛事

鼓山天王殿上梁

棟隆斯吉。橫開解脫之門。護法儼臨。永作金湯之固。示眾生歸元之路。防僧海外侮之侵。自然海晏河清。風和日煖。更有究竟圓滿一句。作麼生道。坐斷千峯平若掌。頓教大地盡黃金。

鼓山大雄殿上梁

白雲峯下紫雲屯。金殿崔嵬奉至尊。石鼓一聲天地震。靈源澎湃喜長存。

新建禪堂成掛鐘板

石鼓峯頭。是何時節。峻嶺老寒松。清風拂白月。室內一孤燈。庭前三尺雪。洞上至今水逆流。亘古亘今無斷絕。分付渠儂為舉揚。金口木舌分明說。

寶善掛鐘板

寶山深處舊叢林。此日翻成特地新。堂內誰能輕擬議。簾前報告要分明。掛鐘板畢。復云。簾前報告要分明。獅吼爭同野干鳴。忽得一聲山海震。直教大地盡醒醒遂擊。

天寧寺禪堂掛鐘板

觀世音耳中有眼。憍陳如舌上生苔。若要那事分明。全憑此老打開。二百餘年曾放下。而今偶爾舉將來。一聲直透威音外。露柱燈籠笑滿腮。

落髮

金刀揮處露堂堂。腦後須臾放異光。直使魔宮俱震裂。衲僧鼻孔正昂藏。

堦前剗草障雲消。烈火光中發異苗。箇箇頭顱元似佛。不勞彈指出塵囂。

付衣

托衣云。會麼。此非娘生禪袴。亦非婆與衣衫。多子塔前共談斯事。黃梅夜半默自傳來。昔日大庾嶺頭。不堪提掇。今朝苕溪岸畔。正好承當。若夫一線相通。便已全身披搭。未能脫體風流。權且依例信受。

為聞谷大師起龕

八角磨磬隨日轉。三脚驢兒逐電過。一生唱此無腔曲。直至於今誰敢和。恭惟。聞谷大師之靈。奪白馬令。續雲棲案。白雲峯下。見鬼見神。苕溪岸畔。入泥入水。陶家輪。撥轉向上機關。破沙盆。托出從前佛祖平生。好向放行中把住。直令窺伺無門。今日請。向把住中放行。共喜追送有路。祇如放行一句。作麼生道。泥牛吼出江干道。踏破前山幾片雲。

為聞谷大師掛真

挂角羚羊善躲身。直教千聖總難尋。今朝落在山僧手。不免掀開示箇人。遂挂真云。響。雙瞳炯炯如秋日。炤破山河沒點塵。

為聞谷大師封塔

以手打圓相云。出而聖入而神。不離這箇。騎虎頭把虎尾。還渠作家。恭惟。真寂開山。聞谷大師之靈。倒行臨濟令。別顯少林機。把斷虛空。幻出人間佛事。掀翻大地。放開腦後神光。慣好欺聖瞞凡。直要藏身沒影。祇為婆心太切。未能剿絕於生前。所以贓物尚存。還須蓋覆於身後。今日兜著冤家。不免重下毒手。這裏全身都放下。直教千載祇知名。

壽昌老人誕日拈香

強把虛空計鳥跡。老人生來今八十。生耶死耶總不道。蜜在口邊誰會喫。洞庭蒼茫本無蓋。鐵牛渾身自流汁。可憐荷山不肖兒。兩眼何曾識得一。當年曾誤犯其鋒。劈頭毒手打不息。直至於今痛未休。此恨綿綿何有極。今朝拈出這瓣香。不覺薰著露柱鼻。

壽昌老人忌日拈香

鋤頭柄下機橫絕。鐔津舟上日初曦。狹路相逢躲不過。却憶當年負痛時。既有當年。須有今日。今日事作麼生。遂燒香。

博山和尚忌日拈香

三載相依何所求。抱毒歸來恨未休。石鼓山頭重會處。不妨舉出報冤仇。

掃玄沙宗一大師塔拈香

七百年來老毒龍。今朝撥草問前蹤。湘南潭北誰能見。不是冤家定不逢。

聞谷大師三週忌日拈香

昔年寶善菴裏。曾分一片旃檀。今朝苕溪岸頭。權借三冬曲盞。雖然。南斗六北斗七。要也前三三後三三。祇如前後異同之外。別有相見處麼。燒香云。嚮。

翠雲菴昌和尚忌日拈香

莫言嫩桂久昌昌。此日凋零冷似霜。絕筆不禁尼父淚。登堂空濕沼公裳。千鈞巨鼎憑誰舉。一髮如絲有幾長。最是傷心無限處。一年一度獨燒香。

重修佛心才禪師塔拈香

五百年前公非我。五百年後我非公。莫道古今成永隔。鼓山依舊白雲中。即今祖塔重新。千載相通一句。作麼生道。遂燒香。

為馬頭山了喻靜主舉火

生前不相識。祇緣青嶂幾重。去後却相逢。獨有紅蓮一朵。恭惟。竹菴了喻常禪師。澄神澹泊。毓德清真。堅閉石關。不許紅塵侵几席。深藏竹塢。惟饒翠色映袈裟。野菜可殮。何須問蘇州有常州有。把茅堪隱。那管渠驢頭北馬頭南。去歲丟開杓柄長。今朝一任皮囊破。祇此喻還了也未。以火把打圓相云。火燄與君重說法。要見烟消灰滅時。

為吼峯上人下火

相隨來也。祇為這箇。決志便行。不離這箇。好似虬蛇戀窟。到此始知大錯。即今末後一句。作麼生道。吼峯上人惺惺著。烈火光中一轉身。獅子吼斷黃金索。

為長揖法師舉火

颯颯秋風正爾思。忽傳楚破碧琉璃。孤峯坐斷渾閑事。生鐵烹成莫自奇。塵界已知長揖去。皮囊須了未生時。今朝一句聊相贈。勝熱門頭別有機。

送眾僧靈骨入塔

石鼓山頭徹骨寒。大家相送出林巒。唯有髑髏全不識。却如鐵壁與銀山。蕩然獨露金剛體。唯願諸人仔細觀。諸髑髏還知麼。生耶死耶俱不道。折角泥牛出荒草。以手指云。髑髏裏面眼睛開。夜半樹頭紅日杲。無縫塔裏好藏身。萬聖千賢無處討。以手指骨云。烈火堆中煅煉來。世界身心俱放下。炭裏藏身幾箇知。不須更說無生話。

為我聞老宿舉火

以火把順打○云。如是之法。我從佛聞。以火把逆打○云。如是之法。佛從我聞。復作⊕云。如是之法。誰從誰聞。我聞老宿。即今還聞也未。我既不立。聞亦不存。九十六年消息斷。好看峯頭月一輪。今朝更有末後句。請參勝熱婆羅門。

為超塵上座舉火

閻浮一夢誰先覺。到此方知全是錯。今朝相送出石門。雲收雨散山川廓。山川廓欲何託。放下娑婆破布衫。從茲直證西方樂。

為興琨上人入塔

劣崩峯頭祖令寒。灰飛烟滅觸體乾。藏身不是無蹤跡。箇裏從來不許看。

為性泰菴主人塔

漏盡香銷燭亦殘。尚留贓物待今安。衲僧自有藏身訣。潭北湘南一任看。

為智光上座舉火

猛火炎炎六月蓮。親參勝熱到門前。四大本空何所有。任君鼻孔自遼天。

為本智西堂舉火

空山晦跡久忘年。笑看浮雲幾變遷。尋常愛說無生偈。今日無生更躍然。一點靈光超法界。說甚威音那畔前。爍破多生夢幻影。騰騰火內現金蓮。

入塔

本智上座。歇盡馳求。養恬守默。三十餘年。為眾作則。不重子才。只重子德。今日何歸。湘南潭北。

為旭華勤舊舉火

知君宿有鼓山緣。出俗盟心復湧泉。晝夜勤勞三十載。鐵石身心不變遷。梵剎重興功第一。冰霜雅操許君全。臨行贈汝光明種。迥然直下出三千。

入塔

旭華上座。剛骨擎天。實心若鐵。勤勞苦功。未嘗少歇。再造湧泉。千古為烈。今日休歸。證甘露滅。

為照空侍者舉火

二十四載。執侍相依。實心實行。知彰知微。今朝唱箇還鄉曲。出籠銀鶴向天飛。雖是一具黃金骨。也須親見勝熱一會。始得。

為洞生上座舉火

生也空死也空。却似無端加一重。生亦如死亦如。亦成點染非吾宗。雖然如是。怎奈賊私尚在。必須勝熱門中過。方得高歌天外峯。

入塔

雲聲普徧。誰是知音。雖然。未得大用。也是久鍊黃金。今日到此。形銷影滅。正是炭裏藏身。

為跬存上座舉火

跬步必存。受鵝湖之囑付。寸心不昧。奉石鼓之毗尼。規圓矩方。堪作後來龜鑑。言信行果。實為先輩典刑。至于今日。又作麼生。直須爍破者些兒。便可高超安養界。

送秀生靜主人塔

尚志弗易。清脩無染。學道者多。似君者鮮。今日到此。歸休不受。世塵一點。

為卓生禪人舉火

生也無來。死亦無去。來去既無。中有何住。即云應如是住。尚欠末後一句。作麼生是末後一句。遂下火。

問答

問。壽昌和尚。以何法為人。師曰。莫謗先師好。進云。和尚以何法為人。師云。未敢辜負。進云。恁麼則不為人也。師云。因汝致得。進云。今日所說又是箇甚麼。師云。韓獪逐塊。

僧問。如何是君。師云。一人居五位。端拱自無為。曰如何是臣。師云。調和憑智力。經綸在萬方。曰如何是君視臣。師云。帝德本無私。恩波出九重。曰如何是臣向君。師云。羣星皆拱北天。極體常如。曰如何是君臣道合。師云。殿虛無影跡。香雲繞御筵。

問。如何是學人自己。師云。拄杖是榔栗。進云。學人不問拄杖。師便打。進云。過在甚麼處。師云。不識痛痒漢。問。博山云。大圓鏡裏。說箇禪字。早是痕生。然則無痕一句。作麼生道。師云。無痕亦是痕。

僧問。古澗寒泉。水作麼色。師云。覷著者瞎。

問。箭鋒相拄底。應機乃纖毫無差。邊方言語不相諳。如何辯他子細。師云。待他開口。堪作甚麼。

問。格外明機底。問南則以北為酬。饑餒急切相投。未審。如何賑濟。師云。一粒鼠粘子。大地沒饑人。

問。妙用縱橫底。臨機辯若懸河。毗耶城裏。彼上人來。未審。若為酬對。師云。舌根下一句。教渠如何吞吐。

問。寒灰枯木底。到這裏寂寞無言。家中給侍之人。日用如何指授。師云。誰教渠坐。在死水裏。

問。覷面相逢時如何。師便打。

僧問。臨濟家事。可得聞麼。師云得。問。如何是賓中賓。師云乞食到門前。曰如何是賓中主。師云家事總茫然。曰如何是主中賓。師云。入水見長人。曰如何是主中主。師云。王令不容情。

問。如何是鼓山境。師云。海岸峯高鳥絕棲。進云。如何是境中人。師云。倚杖雲中嘯一聲。

問舉心即錯。動念即乖。二六時中。如何履踐。師云。舉心即錯。動念即乖。

問。寶月懸空。因甚不著地。師云。太尊貴生。

問。百尺竿頭如何進步。師云。妄想作麼。進云。恁麼則無進步處也。師云。醉漢不堪扶。

問。夜深月落。古路雲橫。無人共誰啐啄。師云。死水不藏龍。

問。主人不出戶。如何見客。師云自有侍者在。

問。如何是西來意。師云。老僧今日舌頭落。進云。和尚將何為人。師云。賴遇闍黎取起來。進云。當陽指出無生路。縱橫天地任優遊。師云。閒言語。

問。如何是臨濟炤。師云。然犀鬼莫逃。曰如何是臨濟用。師云。揮戈定太平。曰如何是炤用同時。師云。百步穿楊箭。

僧問。有智之臣。因甚不用。師云。無渠著力處。
師夢中有僧請益三玄。師云。汝問來。問。如何是第一玄。師云。開口便見舌。曰如何是第二玄。師云。開口不見舌。曰如何是第三玄。師云。兩口無一舌。僧禮拜。師呵呵大笑。
問。洪波萬丈時如何。師云。淹殺闍黎。進云。犀牛角在手。師便喝。僧拂袖歸眾。師呵曰。偷心漢。
僧問。既是無垢淨光院。因甚又作浴堂。師云。淨地恐迷人。
僧問。如何是佛。師云。破木杓。曰如何是法。師云。惡語言。曰如何是僧。師云。擔枷帶鎖漢。
僧問。如何是道。師云。東去洛陽三十里。曰如何是禪。師云。劈破虛空。作兩邊。曰如何是心。師云。未曾開口見猶親。
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破驢脊上足蒼蠅。進云。見後如何。師云。鐵牛背上無蚊蚋。
僧問。我有一百問。請師一句答。師曰。答。僧曰。畢竟如何答。師云。却成兩句了也。
僧問。某甲昨日一問。今日請和尚答。師曰。昨日答汝竟。僧曰。今日又如何。師云。兩重公案。
僧問。行住坐臥。不離這箇。如何是那箇。師云。仁者自生分別。進云。不分別時如何。師云。現分別在。僧便喝。師笑而不顧。又問。昨日夜叉頭。今朝菩薩面時如何。師云。又是自生分別。僧禮退。
僧問。如何是一。師云。我聽得不清。僧便高聲問。如何是一。師云。却是你聽得不清。
僧問。如何是西來意。師云。鴉鳴鵲噪。問。如何是箇中人。師云。眼橫鼻直。
僧出禮拜。師云。一任設施。僧便問。如何是和尚為人一句。師云。草賊大敗。
僧出禮拜。師云。猶較些子。僧擬進語。師云。白雲萬里。僧云。豈無方便。師云。尚嫌少在。
僧問。如何是獨露無私一句。師曰。須彌山。進云。還許學人趣向也無。師便喝。
僧問。如何是第一義。師云。問底是第二義。僧曰。無問無答時如何。師便打。僧曰。過在什麼處。師云。大好無問無答。
僧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此是臨濟事闍黎且止。曰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我此中無這樣事。曰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老翁去後空山寂。曰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少年春日對芳叢。曰人境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師云。燈籠說去。露柱

傳來。僧問。如何是諸佛出身處。師云。撲鼻杏花香。曰如何是免生死底人。師云。要免作麼。

僧問。摩耶夫人乃諸佛之母。未知那箇是夫人之母。師云。多箇頭作麼。

僧問。世尊初降。日顧周行。指天指地。惟我獨尊。後雲門欲打殺與狗子吃。未知。雲門是甚麼心行。師云。世尊垛生招箭。雲門止響揚聲。

僧問。自達祖西來。只是覓箇不受惑底人。後分皮髓時。還有不受惑者麼。師曰。一狀領過。

僧來參。師曰。自何來。僧曰。黃蘗來。師曰。還帶得黃蘗棒來否。僧便作行棒勢。師曰。果然龍生龍子。僧無語。師曰。三十棒。汝自領去。

僧來參。便喝。師亦喝。僧復喝。師亦喝。僧又喝。師曰。饒你更喝八萬四千。不如還我未喝前一句來。僧無語。師云。杜撰禪和。好與三十棒。

僧問。善才童子參德雲比丘。為甚却在別峯相見。師云。相見定是別峯。

僧問。單刀直入魔軍陣。戰勝何曾殺一人。既是戰勝。為甚麼不殺一人。師云。你擬殺箇甚麼。

僧問。風穴道。金沙灘頭馬郎婦。意旨如何。師曰。惱亂眾生。

僧問。一人在險道中行。後人持刃逼殺。前是虎狼衝齧。兩傍萬丈深坑。正恁麼時。進退不得。有何方便。令不喪身失命。師云。也祇是一場幻夢。

僧問。真非真。恐迷我常不開演。不開演箇甚麼。師曰。任你拈出。也只是箇破草鞋。

僧問。急水灘頭波浪急。誰人過此得無虞。師云。誰知平地裏。也更有波濤。

海岸居士請齋于宗鏡堂。僧問。如何是宗。師云。籬根破草鞋。曰如何是鏡。師云。黑漆桶。曰打破鏡來時如何。師云。相見了也。

曰見後如何。師云。切忌道著。僧問。如何是向。師云。無你背處。

曰如何是奉。師云。無你忽處。曰如何是功。師云。無你歇處。

曰如何是共功。師云。無你分處。曰如何是不共功。師云。無你合處。

曰如何是不涉功勳一句。師云。無你問處。

僧問。如何是黃龍三關。師云。苕溪一關。也未過在。進云。如何是苕溪關。師云。萬里望崖州。進云。恁麼則銀山鐵壁。飛鳥不度。師云。誰向汝恁麼道。僧無語。師云。咦。

僧問。如何是函蓋乾坤句。師云。一點不漏。曰如何是截斷眾流句。師云。一滴不存。曰如何是隨波逐浪句。師云。看風使帆。曰

三句外還有句也無。師云。有。曰如何是三句外一句。師云。禮拜著。僧禮拜。師云。是甚麼。僧無語歸眾。

僧問。世尊纔陞座。文殊便云。法王法如是。如何是如是之法。師云。合取兩片皮。

問。馬祖上堂。百丈卷席。和尚上堂。肯容掀座否。師云。效顰不是西子。

問。昔日永明。今朝永覺。經云覺明為咎。請判是咎非咎。師云。你作得箇座主。

問。佛之一字。我不喜聞。早晚佛聲不絕。還聒耳否。師云。終無別樣。

問。出則不為人。和尚為人否。師云。老僧無意必。

問。棒喝交馳。盡落古人園續。和尚將何。殺活當機。師云。諸方火葬。這裏活埋。

問。先真寂大師遷化。向何處去也。師云。如今來也。還知麼。

問。洞山三十年。鬼神尋不見。安平真人。却來和尚處乞戒。此與古人是同是別。師云。拯溺須臨水。嘯月却登峯。

僧問。和尚昔到溫陵。海水再潮。人人驚異。今到武林。還有異事也無。師云。好事不如無。

僧問。說黃道黑。鈍置渠儂。豎拂拈槌。眼中著屑去。此二途畢竟如何為人。師云。且合兩片皮。

問。法華經云。一稱南無佛。皆已成佛道。為甚麼。趙州道。念佛一聲。漱口三日。師云。一任顛倒。

問。若人識得心。大地無寸土。爭奈目前峯巒奇秀。師云。是甚麼。

問。古人道。皮膚脫落盡。惟有一真實。未審。將甚麼喚作真實。師云。破木杓。

問。從門入者。不是家珍。如何是自己胸襟流出底。師云。天不蓋地不載。

問。古人云。若向一句中薦得。堪與佛祖為師。未審。是那一句。師云。也是堦下漢。

居士問。雲門大師云。法身有三種病。兩種光。且道。是甚麼病。是甚麼光。師云。眼底重加屑。

問。和尚在鼓山。因甚不肯陞座。今在甸裏。因甚說黃道白。師云。莫向語默中。覓取老僧。

僧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燈月交輝處。公子醉扶歸。曰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出門一長嘯。杳然天地空。曰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仙人既羽化。丹竈亦坵墟。曰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上林花似錦。每帶馬蹄香。

問。那叱太子。析肉還母。析骨還父。然後現本身。為父母說法。敢問。如何是本身。師曰。析肉骨還父母的。是誰。

問。一口吸盡吳越水時如何。師曰。吸向甚處去。僧無語。師云。急須吐却。

問。大地無寸土時如何。師曰。闍黎在什麼處住下。僧無語。師曰。好箇大地無寸土。

僧參。問。獨坐當軒者是誰。師起身。出位探頭云。道什麼。僧復問。獨坐當軒者是誰。師便搖手。僧云。原來和尚。不解作主。師笑之。僧便出。師顧侍僧云。分明記著。

僧問。學人不識路頭。乞師指示。師云。汝從那裏來。曰寶壽來。師云。大好不識路頭。

僧問。如何是金剛大義。師云。擬著即禍生。進云。不擬時如何。師云。無你躲跟處。

問。壽昌和尚如何為人。師云。壽昌橋下水流東。曰今日苕溪又作麼生。師云。決無異味。曰未審是什麼味。師云。試啞啞看。僧擬進語。師便喝。僧禮拜。師云。這一喝何曾落地在。僧無語。師云。淹殺這漢。

師自寶善歸。僧問。還帶得寶來麼。師展兩手。僧擬議。師曰。去你不是辨寶底。

僧問。如何是寶。師曰。無人著價。曰如何是善。師曰。千聖行不得。曰更有向上事也無。師曰。有。曰如何是向上事。師曰。不名寶善。

二僧登大頂歸。師問。還到大頂麼。一僧曰。到。師曰。見箇什麼。曰海曠天空。師曰。你祇在二頂住脚。何得妄語。曰大頂事作麼生。師便打。又問。一僧你到大頂。見箇什麼。曰與這裏一般。師曰。作麼生是一般底事。僧便喝。師曰。這一喝是學來底。別道看。僧無語。師亦打。僧問。鳳凰池上還有鳳鳴否。師曰。鳴則不無。祇恐闍黎不聞。曰聞時如何。師曰。喪却闍黎。

問。先興聖國師云。直下猶難會。尋言轉更賒。若論佛與祖。特地隔天涯。意旨如何。師曰。切忌從他覓。曰畢竟從何處覓。師曰。覓亦不可得。不覓亦不曾失。曰恁麼則無事去也。師曰。千年鬼窟。曰恁麼則某甲如坐荊棘林中。請和尚救拔。師便打。

問。凡有言句。盡屬染污。如何得不染污。師曰。大小鼓山。被汝一問。直得口如鼻孔。曰恁麼則無言也。師曰。是何言歟。曰作麼生。師曰。鼻孔如口。

問。古云。相逢不拈出。舉意便知有時如何。師舉手曰。如今拈出也。知有也未。僧無語。師曰。脫空作麼。

問。文彩未生時如何。師曰。闍黎恁麼問。蚤是生了也。曰不恁麼時如何。師云。亦是生也。

僧問。如何是古曲。師曰。今人不得聞。曰聞者如何。師曰。不是今人。

問。向上一著。千聖不傳。和尚如何傳。師曰。若傳則瞎却闍黎。曰不傳。又安得到於今。師曰。渠無今古。

問。擬心即差。不擬時如何。師曰。你擬向這裏蹉跟麼。曰如何得體會去。師曰。體會什麼。僧又擬問。師便喝出。

問。古帆未掛時如何。師曰。古帆。曰古帆已掛時如何。師曰。古帆。曰如何是古帆。師曰。不是今時物。

問。如何是賓中賓。師曰。野老不知朝。曰如何是賓中主。師曰。鬧市逢天子。曰如何是主中賓。師曰。御門見臣下。曰。如何是主中主。師曰。宮內不聞聲。

問。如何是和尚為人一句。師曰。鐵崑崙。曰學人如何趣向。師曰。何曾背來。曰學人初入叢林。請師方便。師曰。方便久矣。

僧問。洞上宗風即不問。不落五宗一句。作麼生道。師曰。葱嶺西。曰達摩西來又作麼生。師曰。無風起浪。曰起後如何。師曰。鴛鴦枕上雙行淚。半是思君半恨君。

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一堂風冷淡。千古意分明。曰忽有客來。將何祇待。師曰。滿盤無米飯。三杯不濕湯。

問。如何是不墮凡聖句。師曰。靈源洞口石將軍。曰如何是無間古今句。師曰。年年江水向東流。曰如何是不涉事理句。師曰。崑崙入海無音耗。

僧問。如何是鼓山。鼓師曰。一聲直透威音外。曰此鼓誰人能打。師曰。無手人行杖。曰何人得聞。師曰。劣峯側耳。

僧問。久嚮師風。請垂一接。師曰。不接。曰和尚出世為人。如何不接。師曰。鐵壁鐵壁。曰學人便恁麼承當時如何。師曰。你承當箇什麼。僧無語。師曰。放汝三十棒。

問。如何是高高山頂立。師曰。我道是墮頂漢。曰。如何是深深海底行。師曰。我道是埋沒漢。曰如何是閨閣中物。師曰。高高山頂。深深海底。曰若是則如何保任。師曰。保任箇什麼。曰此事。師曰。此事是什麼。僧下喝。師曰。喝則不無別道看。僧再下喝。師便打趣去。

僧問。大道玄邈。如何趣向。師曰。與闍黎隔多少。曰雖然不隔。爭奈迷何。師曰。既是迷。爭知不隔。僧無語。師曰。祇這不隔迷却了也。僧禮拜。

問。如何是不跨石門一句。師曰。前江潮正滿。曰恁麼則徧界不能藏也。師曰。是什麼。僧曰。某甲今日舌頭短。師曰。放汝三十

棒。

問。古云。一步密移玄路轉。如何是密移一步。師曰。石牛夜出山前路。曰移後如何。師曰。金鳳朝穿碧落雲。

僧問。萬法歸一。一歸何處。師曰。眉毛下。

問。觸波瀾不散。隨扣擊無虧。亦是生死岸頭事。如何透得過。師曰。識得不涉聲色底麼。

問。虛空粉碎。大地平沉。未審。向什麼處。安身立命。師曰。喚什麼作身命。

問。婆生七子。六箇不遇知音。這一箇也不消得。拋向水去。未委。年高老大。靠誰養老。師云。終是靠人不得。問。眉間赤為父報仇。自喪其身。後來此劍。不知。是何人得去。師曰。家家門前火把子。

問。一朝蛇入布裩襠。是甚麼時節。師曰。急。

問。梅花漏洩春消息。花在枝頭。春在什麼處。師云。甕裏。何曾走却鼈。

問。洞上密意。乞師略通消息。師云。硬如綿。軟如鏡。

問。百尺竿頭須進步。未審。這一步作麼生進。師云。金龍出海。白浪滔天。

問。不可以有心求。不可以無心得。不可以語言會。不可以寂默通。畢竟如何即得。師云。要不悶守本分。

僧問。家裏人方識家裏事。作麼生是家裏事。師云。夜半烏鷄頭戴雪。

問。不見一色。猶是半提。如何是全提底時節。師云。木馬火中嘶。

問。末後一句始到牢關。作麼生是末後一句。師云。千聖不奈何。

僧問。眼光落地時。向什麼處去。師云。海為龍世界。空是鶴家鄉。

師有偈。勉善侍者云。從來佛法無多子。縱橫妙用有多門。末後一關如踢破。大地山河一口吞。者便問如何是末後一關。師良久。者禮拜而出。

問。如何是向。師曰。幼子常思母。一飯未能忘。曰如何是奉。師曰。手捧瑠璃鏡。何嘗更顧他。曰如何是功。師曰。老農清夜坐。

披襟待月來。曰如何是共功。師曰。羣影高低現。一鏡本無私。曰如何是功功。師曰。銷兵放馬後。鼓腹樂昇平。

問。如何是類墮。師曰。綠楊芳草岸。穩臥醉春風。曰如何是隨墮。師曰。朝隨芳草去。暮踏落花回。曰如何是尊貴墮。師曰。黃屋簾垂後。堦下不聞聲。

問。祖師西來即不問。如何是隻履西歸。師呵呵大笑云。賣草鞋漢。

問。如何是大人相。師云。蟻子。進云。此人上來與和尚相見時。作麼生。師云。一脚躓死。

問。古人道。參學之要。祇是箇最初句。與末後句。若透得。則參學事畢。請問和尚。如何是最初句。師曰。摸著鼻孔。曰如何是末後句。師云。拈却鼻孔。曰最初句與末後句。相去多少。師便咄。

問。向去底人。因甚不居正位。師云。死水不藏龍。曰却來底人。因甚不住偏方。師云。有為終不貴。

師因失跌。僧問。昔宣律師。因行道失跌。天人為之捧足。今和尚因晒經失跌。天人向甚麼處去。師云。汝但問取天人。

昔僧問保福云。龍披袈裟一縷。金翅鳥不能吞。今僧全披。因什又被虎吞却。福作忍痛聲。僧請師別語。師別云。袈裟有時護不及。僧云。因甚護不及。師云。二祖往鄴都。

受戒三問

- 戒必師師相授。請問威音王。從何人受戒。
- 戒光從口出。非青黃赤白。畢竟作何色。
- 破戒比丘。不墮地獄。既是破戒。因甚不墮。

室中六問

- 五虎攢羊。如何救得。此羊出去。
- 離却語默動靜。別通箇消息來。
- 茗溪一滴味異眾流。未審。是甚麼味。
- 真寂門前。烟波浩渺。不假舟楫。如何得渡。
- 眼空宇宙。腳踏毗盧的人。因甚猶在半途。
- 倒挂須彌。逆旋日月的人。因甚猶遭痛棒。

永覺和尚廣錄卷第八

法語上

示本照上座

本來成佛。因甚自取沉淪。本有家珍。何故拋却外走。祇為一念生迷。致使百非俱集。由是甘受波吒。不能自出。正如人在夢中。受大苦惱。擺脫不得。若道是有。分明是夢。若道是無。現今受苦。忽然老鼠翻盆。破夢而出。則夢中之事。更不必論其有無。又況乎捨之取之哉。上座夢中之事種種非一。苦惱亦非一。要取取不得。要捨捨不得。日以繼日。歲以繼歲。無有覺時。則苦惱亦無有已時也。應知。處這境界。無有別方。得箇擺脫。祇要識得渠是夢。識得渠是夢。豈更有人。於已夢之事。而作取捨之想。動哀樂之情哉。然睡蓋既深。要醒亦良不易。曾記得。先佛有一偈。曰假借四大。以為身心。本無生因。境有前境。若無心。亦無罪福。如幻起亦滅。上座能將此偈。常持不輟。深究其旨。有朝磕著觸著。則大夢必醒。管取呵呵大笑去也。既到這般田地。不用問人。任你獨居也得。領眾也得。縱橫自在。出沒無方。又何論瑣瑣細末哉。余居荷山八載。唯得上座往還最稔。今有鼓山之行。乃從予求法語。夫法本無法。語有何語。凡有語言。盡非實義。但仁義道中。未可以無言也。乃為諄諄如此。他日大夢醒後。唯無呵罵為幸。

示某上人閉關

余聞。古之學道者。博參遠訪。陸沉賤役。勞其筋骨。餓其體膚。百苦無不備嘗。竝未有晏坐一室。閉關守寂。以為學道者也。自入元始。有閉關之說。然高峯閉死關於天目。乃是枕头落地後。非大事未明。而畫地以自限者也。入明乃有閉關學道之事。夫閉關學道。其最初一念。乃是厭動趨寂者也。祇此一念。便為入道之障。況關中既不受知識鉗鎚。又無師友策勵。癡癡守著一句話頭。如抱枯椿相似。日久月深。志漸靡力漸疲。話頭無味。疑情不起。忽然轉生第二念了也。甚至身坐一室。百念紛飛者有之。又何貴於關哉。今上人既發心入關。便當具真實心。發決定志。將生死二字。貼在額頭上。勇猛向前。更勿擬議。如一人與萬人敵相似。我若不殺死他。他必定要殺死我。苟不[拚-厶+去]命殺出。豈有自活之日

哉。直須一日緊過一日。一月緊過一月。逼來逼去。如老鼠入牛角。則自有活路去也。

示惟謙上人

我嘗謂學道之士。第一要信得及。第二要放得下。第三要守得堅。有此三要。方可學道。何謂信得及。信得我本來是佛。不少一毫。又信得佛祖垂下一言半句。等閒如倚天長劍。必能斷人命根。有此實信。方可策進。若稍涉狐疑。策進無由。所以要箇信得及。何謂放得下。人被許多虛名浮利恩愛業緣種種牽纏。如鐵城銅鎖。無能自解。必須勇猛奮發。一切斬斷。再不復顧。方可策進。若稍有留戀。必遭絆倒。所以要箇放得下。何謂守得堅。緣人一時感激向前。亦似信得及放得下。但恐遭逆順二風吹將去。則信者不信了也。放得下者。依舊要擔取去了也。所以要箇守得堅。具上三者。然後看一句話頭。不管生不管死。不管閒不管忙。盡力提撕日久歲深。自然瞥地。此是歷代諸祖已行的路。上人勉之。

示黃孟揚居士

眾生所以不能出生死者。只是箇迷。何謂迷。以其妄識橫起。見有外境也。既見有外境。則有好醜。既有好醜。則有愛惡。既有愛惡。則有取捨。既有取捨。則有善惡。既有善惡。則有果報。善極生天。惡極沉地。總屬輪迴。無有休息。今要破此外境。首要斷此妄識。此妄識從無始劫來。根深蒂固。豈可容易。然此妄識。全無實體。所以亦非難斷。若得本光一透。便可立破。古人有於一言之下。立地承當者。非是誑語。但眾生根機遲鈍。未能頓悟。所以歷代祖師。教人看箇話頭。看話頭者。非可悠悠地過去。直須切上加切。勇猛向前。如單鎗匹馬。遇著三軍圍繞。直須[拚-ム+去]命殺出。若稍遲緩。有能自活者哉。每日應種種緣。雖無刻暇。而此話頭。不可間斷。或遇緣打失。便要鞭起。參來參去。日久歲深。忽然疑情頓起。內不見有五官百骸。外不見有山河大地。惟是一箇話頭。綿綿密密。到此地位。更須大加精彩。忽爾因地一聲。則話頭破矣。話頭破則前境破。前境破則生死破。斯時也。依舊青山綠水。一任地獄天堂。便好向人說本來是佛可也。說無淨無穢可也。說無佛無眾生可也。若妄識未滅。分別千差。貪嗔癡慢。熾然不息。乃向人說無佛無眾生。則魔種邪氣耳。此話頭未破之時。工夫逼拶得緊。或見種種異境。或生種種異解。竝是妄識作恠。便當一刀揮斷。待得因地一聲。自然千妥萬當。若初做工夫時。勢必難

上。蓋是昏散。二魔習熟難遣耳。雖千做不上。萬做不上。決定要做上。如古人所謂。愚公移山者焉。捱來挨去。自然工夫漸熟。自有到家之日。眾生無始劫來。許多苦楚。甘自承當。這些小難處。却攢眉怕怖。是謂愚也。若謂不消。恁麼別有一法可出生死。即是外道家法。暫時自誑。終入輪迴。何也。以渠迷情未破故也。

示丁元闢居士

靈光獨耀。迥脫根塵。此二句太說盡了也。若能於此會去。山僧安敢饒舌。其或未然。且打葛藤去。眾生靈光。本無遮障。怎奈迷情妄起。由是內有六根。外有六塵。根塵對立。妄識橫生。作好作惡。起善惡業。因業受報。六道輪迴。如汲井輪。波波劫劫。頭出頭沒。無有已時。諸佛愍之。為說大法總之。要明箇靈光獨耀而已。若靈光不昧。根塵頓泯。心忘境寂。圓照無外。覺體如如。其名曰佛。若其光未露。須是有箇方便。方便者。非是求人講說。非是穿鑿經書。非是多作福田。非是閉目死坐。但於日用中。剔眉睜眼看。箇如何是本來面目。不得計難易。論遠近。亦不得愁我根機遲鈍。慮我業障深重。只管向前做去。日久歲深。忽然撞著。始知飯是米。做燈便是火。這些說話。好付丙丁了也。呵呵。

示伯駒上人

眾生為無明所覆故。心境對立。心境對立故。百非交起。然心本無心。境本無境。但由無明作障故。心境妄現。如空中華。祇緣眚生耳。既云本無。豈可評量。仁者乃欲論其異。論其同。果可得乎。非獨異同不可得。即言本無。異同果可得乎。如今能知本無者。是謂心。所知本無者。是謂境。心境歷然。所謂本無者。又安在乎。即如仁者所問。不思議境乃天台觀法。彼教謂。一念具三千性相。即空即假即中。是謂不思議境。然已云境。乃是對觀立名。若觀諦不忘。總居門外。有甚好智者耶。即使觀諦雙忘。方稱入門。望祖師門下事。猶隔江在。可輕引之以為比擬哉。仁者此去不必扯動葛藤。但專其心。銳其志。向本參上。深錐痛筍。不到不休。有朝摸著鼻孔。依舊山青水綠。冬寒夏熱。心耶境耶。不道不道。

示劉孔學茂才

世謂。周孔之道。宜於經世。釋迦之道。宜於出世。各擇所宜而宗之。是淺之乎論二教者也。夫使周孔無出世之實德。則所謂經世

者。非雜於功利。必束於名相。何世之能經。使釋迦無經世之實用。則所謂出世者。非墮於邪計。必局於自私。何世之能出。故知。經世出世實無二。道實無二心。周孔蓋得釋迦之妙用。以弘經濟。釋迦蓋得周孔之密印。以證涅槃。世俗徒執其外迹而二之。如水炭之不相入。則亦未之深考也。公今既欲措於大道。更不必論其異。論其同。隨舉聖賢一則。語言上深窮到底。但不可落情識。如孔子曰。予欲無言。子貢曰。夫子之言性與天道。不可得而聞也。可知。不是情識上事。若得情忘識絕。則本來巴鼻自然現露。非言語可以形容。既得此巴鼻。儒也可。釋也可。非儒非釋亦無不可也。勉之。

示緣生上人

諸法從緣生。亦復從緣滅。此靈山老人偈也。知法從緣生。則法無自性。法無自性。則非滅非生。非滅非生。則體本自如。體本自如。則言有性者妄也。言無性者亦妄也。即言體本自如者。亦無非妄也。雖然。恁麼說去。恁麼解去。還當得悟也未。既有路可上。更高人也行。須是言語道斷。心行處滅。親證一回。始知從前所說。玄上玄妙上妙。是甚麼。熱碗鳴聲。思之。

示若水上人

近日宗風掃地。魔鬼興妖。到處妄稱知識。冬瓜印子。妄相印可。互相牽引入無間獄。看來反不若一專崇戒行者。猶有成佛之因。山僧至此。事不獲已。說黃道白。看來也是一場敗缺。但區區之意。乃欲於冥冥長夜中。令諸人窺見一線光明。然魔黨熾盛。獨力奈何。所冀高明。從真實參究中透出。從言語不到處悟入。不可落在鬼窟中。不可絆在葛藤內。任白馬坑。垂手直過。縱黃龍關。掉臂而行。未是丈夫之事。況祇學盧頭胡喝亂棒。他日大有事在。若水上人。性素樸茂掩關三載。徧閱大藏。可謂有道精勤者。但未知有向上一竅。如老鼠入飯甕。畢竟無出身處。須將三載所閱。放教無半點字脚。然後以堅固志。奮勇猛力。向一則公案上。力參力究。不許作知解。不許求講說。不許將心待悟。不許自生退屈。但恁麼做工夫。自有透脫之日。回視一大藏教。無一非單傳直指。西來大意矣。勉之。

示無安上人

淨土一門。別無巧說。祇要這一句佛號。時時不斷。念念不忘。不要管是理持。是事持。這一句子純熟。如雲開日露。事也了。理也了。更有一句事理不到的。也了但今日念佛者多。生西者少。其故何哉。祇為你口說極樂。意戀娑婆。如何去得。所以念佛人。須持起一把金剛寶劍。將許多閒情。一截截斷。方有趨向分。又有一等人。纔念佛又愁不悟道。却要參禪。心挂兩頭。功不成就。全不知。念佛也是這心。參禪也是這心。參禪參得到的。念佛也念得到。昔蘇東坡。初參禪無入處。後見東林總。總曰。你的障與諸人不同。須是死心。念一箇佛號始得。東坡依之。單持阿彌陀佛。久之得入。乃述偈曰。溪聲便是廣長舌。山色無非清淨身。夜來八萬四千偈。他日如何舉似人。渠是什麼聰明人。乃能死心於此得入。今人纔識。得之乎。也者便說我是高明人。怎肯守著這愚法。看來真自愚也。上人若肯信受。便請加鞭。更勿躊躇。斯為善耳。

示爾袿上人

汝要我明白開示麼。殊不知我宗門中。實無委曲處。實無隱諱處。皆是明明托出。祇為你自生障蔽。所以。白雲萬里。若是箇沒意智漢子。自然如鏡照鏡去也。如昨小參云。曲如箭。直如鈎。小是海。大是漚。蚯蚓驀過東海。跛鼈跳上雲頭。已是滿盤托出。怎奈你却疑三疑四。不能直下領荷。如今向汝道。直如箭。曲如鈎。大是海。小是漚。神龍驀過東海。玄鶴飛上雲頭。你還信得麼。信得便請領去。

示密因上人

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教中道。祇是箇妄明一生。便見有山河大地。妄明不生。則山河大地。無非清淨本然。這箇道理。教中太煞明了。當時長水難道不知如何。竟抱疑不釋。往參瑯琊覺。便問云。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瑯琊便憑陵答云。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問也恁麼問。答也恁麼答。因甚長水便悟去。須知宗門中。別有長處。無非要坐斷你知解。脫釋你名言。令你直下領略。現量親證。若祇如教中恁麼道。雖解得十分明白。怎奈山河大地。依舊障塞眼睛。清淨本然。依舊白雲封裹。正如說食不能飽人。何以故。為渠祇以比量識心。依著名言揣擬。如隔牆見角。比之為牛。隔山見烟。比之為火。豈是真實哉。今上人。但於瑯琊答處。常常提起。看他是箇甚麼道理。他時後日忽然捉敗。瑯琊却向鼓山門下。喫痛棒去。勉之。

示太雅上人

昔孫思邈曰。膽欲大而心欲小。智欲圓而行欲方。此語非獨在世法中。為名言。即在佛法中。亦為名言。凡有志於學佛者。首要一箇大膽。直將成佛作祖。為己分內事。一切人天小乘。俱非所願。況區區聲色之末乎。有此大膽。方有趣向分。雖有大膽。而無小心。則羸率鹵莽。其流至於猖狂自恣。未得謂得。未證謂證。自以為高。而實卑。自以為進。而實退故。須一箇小心。有小心。方能韜光斂彩。潛思密究。深造而至於自得也。深造而至於自得。則靈光渾圓。照滿十方。更無偏滯之執。若未能至於自得。則東倚西靠。右牽左扯。如獼猴上樹。無自繇分。無自繇分。豈有出生死分耶。故智欲其圓。智光既圓。其行必方。非智外有行。行外有智也。率此本圓之智。全無隱僻之礙。自無不方之行矣。若行而有未方者。必其智有未圓。或習氣未淨也。智有未圓。固當勉力參究。打破最後一結。若習氣未淨。更須照。管保任。如古人牧牛之說。未可縱他犯人苗稼。到得如露地白牛。趣亦不去。方可任他出門耕翻大地去也。雅上人以絹來請法語。彼年少力強。有志斯道。而千里之行。慎於跬步。故為詳之。

示印朗上人

凡要參禪。須是先要打疊得。意根下十分乾淨。方有趣向分。若意根下。有許多不淨的意思。縱饒用工真切。而病根必乘間而發。必然別有境界現前。十箇五雙。落在魔道。雖因緣到時。亦多出世。稱善知識。而心必毒。如蛇猛。如虎媚。如狐狡。如兔專。逞人我。妄起生滅。一朝報盡。入地獄如箭射。故知。必先要箇乾淨心腸。既有此心腸。逢著一則。機緣過不去。便須勇猛向前。直要究明。不悟不已。決不可將知解揣摩。他是什麼道理。若暫起此念。便隔千里。何也。為這箇不是知解邊事。為無始劫來。被知解埋沒故。今日教你參話頭。正是要你意識不行。庶天光忽露得。見本來面目。若一用知解。則緣木求魚。決無得理。既自己不可揣摩。亦不可求人說破。何以故。為這箇不是言語上事。的要親證。若他人人口上說破。我便將識心領略。則重增埋沒了也。但只要時時提起。念念追究。如尋箇要緊物相似。穿衣喫飯時。迎賓送客時。隨眾作務時。竝如是尋討。不暫放下。尋來尋去。忽然因地一聲。身心世界。一切平沉。一段圓光。輝天鑑地。本無向背。亦無中邊。千七百則。是什麼臭爛葛藤。三千諸佛。是甚麼野狐精魅。到此之際。

順行逆行。天亦莫測。左之右之。聖亦難知。有何三界可出。聖位可安也。是謂大丈夫之事。切宜自勉。

示圓照上人

上人諱慧日。字之。曰圓照。夫日輪在天。靡有不照。而廣廈重樓。飛簷礙日。則其照弗能及。高峯峻壁。倒影成陰。則其照弗能圓。暗雲昏霧。迷翳弗開。則其照弗能現。日落西嶺。星月爭輝。則其照弗能全。是日之照。非天下之至明也。所謂天下之至明者。必其無地弗照。無時弗照。非外境可得。而蔽之。而無思無為。自然圓照一切。此釋氏所謂圓照三昧。而觀音之八萬四千手眼。不足以喻其廣也。若欲入此三昧。但將一箇庭前栢樹子。著力看。是箇什麼道理。莫生卜度。莫生知解。一味拍盲做將去。有朝。虛空中湧出日輪頂門上。突開正眼。是之謂圓照也。勉之。

示一如上人

內而父母所生。血肉身分。外而山河大地。明暗色空。總祇一如。更無別有。無你悟處。無你迷處。無你向處。無你背處。三世諸佛。無立地處。十界依正。無安著處。祇為你妄起知見。便向無中造有。結暗中之杌鬼。現空裏之乾城。由是。三界六道。如汲井輪。頭出頭沒。而所謂一如者。不可得而見矣。必須假著一則無義味話。令汝實參實究。忽得一念不生。自然全體呈露。百如千如。祇是一如。更無不周不徧。通天徹地。大用顯行。直向毗盧頂上。打箇觔斗。撫掌大笑。說甚麼。達摩祖師喚來洗脚。揩背亦何不可。

示照遠上人

人人具有一大光明炬。本自照天照地。無遠弗屆。與諸佛諸祖。無二無別。特為妄想塵勞所蔽。不能發露。所以必須學力磨之。何謂學力。蓋是將生平意氣精神。四大血力。悉住在一句話頭上。不容有絲毫走作。久之非獨意氣精神四大血力。凝作一團。即大地山河。以及十方虛空。亦皆凝作一團。如一箇鐵丸子相似。有朝逢緣遇境。忽鐵丸子。爆開迸出。達摩眼睛。則山河大地。總一大光明藏。說甚千七百則。臭爛葛藤。三百餘會。拭瘡疣紙。悉皆照破。無半點字脚。共為照也。不亦遠乎。

示自參上人

禪之道尚參。參之為義也。非師長所能詔。非兄弟所能代。非客氣所能雜。非外形所能拘。唯在自心之力。勇猛直前。如關壯繆單刀匹馬。直入百萬軍中。斬其渠魁。豈不偉哉。但稍計其難易。慮其遠近。憂其成敗。則自且不立。況參乎。至於自不立。則客氣得而乘之。而自雜矣。外形得而拘之。而自局矣。至於雜且局。雖師長兄弟。日從而策勵之。其何能之。有憶。昔人有一偈曰。學道須是鐵漢。著手心頭便判。直取無上菩提。一切是非莫管。參之義其如是乎。上人字自參。執紙來求法語予。但為拈此。令其顧名思義。力而行之。其於道或庶幾焉。

示忠求居士

淨土法門。千妥萬當。不容擬議。且此一句。佛開口便道著。有何難念。然舉世之念佛者多。往生者少。其故何也。祇為娑婆念重故也。譬如萬斛之舟。正欲乘風張帆。有瞬息千里之勢。你若向舟頭。釘一椿。不肯拔去。其能進否。所以。雖日念佛。而西方尚遠。往生無分。今念佛人。若能將娑婆世界上。一切恩愛。一切產業。一切冤債。一刀兩斷。不復回顧。但祇隨緣過日。任運而行。單單祇靠著一句佛號。動靜苦樂。一切境中。不許暫離。晝夜無間。如珠走盤。圓活自在。則雖身在五濁。便已神棲九蓮。又何待彌陀放光。觀音勸駕。而後往生哉。伏惟信受。是幸。

示持平慧度二上人

龍之躍也。必於潛雷之厲也。必於復機之發也。必於寂氣之舒也。必於翕廣而推之。天地之撰。神明之德。萬物之情。其屈伸往復之機。靡有不如是者故。古來學道之士。必貴凝其神。一其志。覃其慮。銳其精。然後可以造忘言之奧。[忽-心+口]無思之致。而聖人之能事。可庶幾焉。若夫矜狂浮露。其光外炫。躁競奔馳。其神外分。則非獨聲色足以汨其心。名相足以濁其智。而重玄極妙之思。反成鳩毒。適足以自戕其慧命而已。餘杭之龍門山。以石為關。陡絕天半。迴隔塵寰。飛鳥不度。蓋磬音弗及之境也。有二除饑士。築室宴坐其中。皆出於真寂之門。雖各具一知半解。而無矜狂浮露之態。躁競奔馳之狀。韜鋒肅氣。穆然以居。研窮大事。必求至於古人之域。而路途茶飯。化城几席。非其所安矣。茲執卷來索余。一言為贈。余謂。古人鼻孔。多得於激發之餘故。具大志者。必須

萬里鬣足。朝夕參請。不敢以一室自局。然古亦有退處一室。而疑團撲落者。如南陽之擊竹。茶陵之墮驢。龍鬚之落枕。皆子處重雲。形影相弔。而逢緣觸發。卒以償徧參之宿債畢。生平之大願又安在。參請之力哉。良以其神凝。其志一。其慮覃。其精銳。即是而求之。鮮有弗獲者。況清風一塢。明月一林。鳥囀枝頭。泉鳴澗底。未嘗不深談實相。善說法要也。上人勉旃。

示心觀上人

心是何物而可觀。觀是何物而觀心。能所既分。面目斯失。愈觀而愈遠矣。蓋眾生各具佛性。祇緣渠妄識分別故。障雲日深。靈光日錮。無有出期。我祖師門下。首禁分別。祇將一句無義味話。令你嚙嚼。不許作解會。不許落口吻。日久歲深。功窮力到。忽然情忘識絕。則如雲開日現。水到渠成。輝天鑑地。耀古爍今。而丈夫之能事畢矣。若情將忘而未忘。識將絕而未絕。坐此勝妙境界中。得少為足。妄稱了事者。十嘗八九。殊不知認假作真。禍根非小。須知。此中雖玄中玄妙上妙。要未能忘能所。心境畢竟相待。學人善能察知。一坐坐斷。直窮到底。方是丈夫漢也。觀心之義。固如是耳。

示心涵上人

昔達摩大師。初來震旦。示教外別傳之旨。猶慮此土信者不及。乃以楞伽四卷為證。古德云。此經以佛語心為宗。無門為法門。夫既無門。則無可窺伺處。無可趣向處。無可領略處。惟得出一身白汗者。自然默契。如人在空中。不作有門想。不作無門想。不作門內想。不作門外想。古人云。折合還歸炭裏坐。意殊深矣。若夫公案上參詳。功夫上逼拶。時時瞥然。得箇入路。此盡是光影中事物。途路上茶飯。未為了當。何以故。為渠有禪可悟也。蓋公案上。許多玄妙道理。不出有能見之心。所見之理。心與理畢竟未忘。則此心非實。乃緣境之分別。此理非實。乃識變之妄影。其視心忘境絕。洞徹法源者。奚啻天淵也。昔興陽剖將入滅。大陽勘之曰。那事作麼生。剖曰。匝地紅輪秀。海底不栽花。若到恁麼田地。庶幾稱本分衲僧也。雖然有等聞恁麼道。便云。我會也。我會也。恐又在海面上。栽花去也。上人勉之。

示四弘上人

佛祖之道。如日中天。而盲者弗見。豈日之咎哉。如三祖云。至道無難。惟嫌揀擇。但莫憎愛。洞然明白。滿盤托出了也。怎奈你要承當早落憎愛。又如盤山云。心月孤。圓光吞萬象。光非照境。境亦非存。光境俱亡。復是何物滿盤托出了也。怎奈你要領略早居心境。若聞恁麼舉。心精脗合。亦無能合所合之迹。識浪頓澄。言詮獨脫。謂之為悟。亦成謗語。況說臨濟曹洞耶。其或未能。且依樣畫貓兒去。將古人一句無義味話。著實參去。使你愛憎之念頓消。心境之迹頓泯。自然雲開日現。水到渠成。趙州關雲門寨。可一笑而破矣。如未到這般田地。且須著急。勿生第二念可也。然我今日。更有一句子。不要你用許多功夫。不要你用許多商量。且道是甚麼句。珍重。

示潤如上人

或謂。宗門但貴知見。不尚操履。不知。所謂但貴知見者。以知見外。別無操履也。若別有操履。則其知見。猶未真在。此如暗室中。忽然一燈。但貴燈明。豈更除暗。若有暗可除。則其明亦未明矣。近日緇流類。多以狂解當之。貪嗔熾然。乃曰。我宗門中。但貴知見。不尚操履。此則波旬之見。入地獄如箭射矣。上人辭匡山涉長江。順流而下。徧參知識。切莫逐浪隨風。墮入魔境。須是向自己脚跟下。真參實究。直得聖凡情盡。虛空粉碎。菩提尚不可得。何況煩惱。涅槃尚不可得。何況生死。是之謂真知見。亦即是真操履也。上人勉旃。

示無參上人

參之為言。微矣哉。不可以雜心取。不可以泯心合。不可以名言究。不可以境相尋。惟是究明大事一念。歉歉然。如有所失。亟亟然。如有所求。使其神凝。其氣翕。其精奮。其志銳。自然紛雜之塵頓清。暗蔽之雲頓淨。譬如提燈覓火者。當其覓時。亦不勝無火之苦。一旦知燈是火。其歡喜為何如。久之不獨無失火之苦。亦且無得火之喜。乃至煎湯炊食。焚澤燎原。亦不見有火之功矣。是之謂無參。若也安然自放。而曰我不須參。天生成的木杓。世間曾有幾乎。上人勉之。

永覺和尚廣錄卷第九

法語下

示茅蔚起居士

本來面目。體自常明。纔落言詮。便成千里。所以諸佛不敢正眼觀著。諸祖不敢一語犯著。但今曲為方便。不免饒舌一場。蓋真如不守自性故。無明突起。能所橫生。能所既生。謬成四見。或見為有。或見為無。或見亦有亦無。或見非有非無。四見既興。百非斯作。而去道日遠矣。正如睫在眼前。而長不能見。豈睫之果遠哉。是知祇此四見。便是生死之根。脫此四見。便無生死可出。然要脫此四見。非在經書講究上得來。非在師友商量上得來。非在修止習觀上得來。非在作善崇福上得來。的須反己而參。看箇父母未生前。是甚麼面目。這話頭。乃香嚴已驗之良方。昔香嚴在百丈會中。問一答十。馳騁知解。後到瀋山。山問渠如何是父母未生前。本來面目。却答不得乃。將從前所學所解底。一拋在東洋大海。去向南陽。結茅以居。一日因擊竹大悟。作偈呈瀋山。瀋山乃撫而印之。居士但將此語。著實究心。直須勇猛精勤。如救頭然。則疑情自切。疑情既切。則靈機自豁。譬之窮冬閉極故。一陽來復。三陽啟泰。乃理之自然。亦勢之自然也。勉之。

示尼淨光

禪學之弊。大都有二。一則失於籠侗。一則失於支離。而吾道喪矣。失於籠侗者。守著箇顛預。佛性一味。虐驕逢人。則胡喝亂棒。強作主宰。於差別門庭。全過不得。祇成箇擔板俗漢。失於支離者。逐件商量。用盡心力。批判益精。支離益甚。於本源中。依舊黑如漆桶。祇成箇鹽鐵判官。欲免籠侗之弊。非是從商量學解中得。要免支離之弊。非是從癡守一槩中得。須是百尺竿頭。透出一歩。自然日輪當空。山河無隱。七縱八橫。通身是口。於諸法門。或立或掃。或開或合。罔不自在。所謂二弊不遣而自無矣。太倉尼淨光。執紙請法語。聊書數語。以勉之。

示瑞雲上人

曦輪在天。無有弗照。而覆盆之下。其暗自若。此豈日照之弗徧哉。則盆之為障深也。上人若參有年。而大事未明。此亦非他能障汝。祇緣汝自己昏散二魔。日為之蓋覆耳。此之二魔。來於何所。去於何方。有何種姓。有何形迹。而能為汝障乎。其病皆由汝主人精力不猛故。客邪得乘隙而入。若能猛力提撕。看箇話頭。如搥頭然。如拯子溺。如父母忽喪。如大敵忽臨。有此誠切。則昏散二魔。無隙可乘矣。更能乾乾不息。如萬里一條鐵去。久之慮漸清志漸一一且磕著撞著。打翻窠臼。便能頂門開眼。腦後放光。而三千諸佛。千七百祖。皆不勞一麾而退矣。況昏散二魔乎。上人勉之。

示約心上人

天下之至約者。莫如心。天下之至博者。亦莫如心。何以言其約也。以其體之至微。而為萬有之所共宗也。何以言其博也。以其用之至廣。而非虛空之所能囿也。然則求心者。將安所致力乎。亦惟致力於約而已。致力於約者。毋分其志。毋淆其神。終日亟亟焉。如有所失。務必得之。且持之以久。守之以純。如水之必東。而逝者弗回也。如日之必運。而照者弗息也。誠如是。則可以默契其約之體。既契其約之體。則其用之博。自能彌綸宇宙。焜耀古今。又何待修而後成。學而後得哉。上人勉之。

示孫冶堂居士

禪之道微矣。非語言之所能傳。心思之所能及。而況倣效於聲容之際。擔當於氣魄之間。又奚異卜肆而掛義皇。山雞而冒鳳冠也。必須識得古人道底。如古有僧問。如何是禪。答曰。碌磚。又有問。如何是禪。答曰。猛火著油煎。又有問。如何是禪。答曰。獼猴上樹尾連顛。此三轉語。一人能殺不能活。一人能活不能殺。一人殺活雙行。若能辨得。方許向老僧處。喫痛棒去也。

示頤浩寺禪堂大眾

法當末運。魔風熾盛。人多懈怠。樂於放逸。營世緣。則百難而不厭。修正道。則三拜而猶煩。況復各懷輕薄之心。好逞無根之見。以貢高為事。唇舌爭長。考實則半點全無。論過則千尤竝集。不知慚愧。妄作人師。自謂。高登祖域。下視塵寰。一旦祇遭一芥子便打得。七花八裂。全無主宰了也。況生死乎。此等非獨佛祖門庭。非渠可濫。即泥犁苦趣。應自難逃。諸仁者。若是好心出家。此等

魔民。切莫相近。先以戒德律身。秋毫勿犯。然後或參禪。而求妙悟。或念佛而冀往生。老實精勤。自然到家有日矣。

示汪子野居士

娑婆火宅。是五濁竝聚之鄉。五欲奔馳之境。眾生居此中。若無佛法為之拯拔。鮮有不淪墮者。今欲出此火宅。更無別法。止是自淨其心而已。淨心之法。佛有多門。求其簡徑易行。直出輪迴者。無若念佛之一門也。此門不須多學問。不須多才幹。不論是老是少。是貴是賤。是男是女。是僧是俗。祇要你會念得一句。阿彌陀佛將此四字。如一產須彌山相似。一切時無能搖動。他亦如一把金剛寶劍相似。一切境緣。逢之即破。有如是之功力。則現生即見彌陀。踞蓮華臺。遊清淨七寶池中。更不消問。往生了也。如其功力有間。亦須急自鞭逼。將娑婆世界事。日生厭離。日至澹泊。急急忙忙。求生淨域。如雛兒憶母。如久客思歸。借此欣厭二情。便為往生舟楫。臨命終時。必能移神極樂。終至菩提矣。

示王心宰居士

山河大地。以及無邊虛空。謂之萬法。此萬法全同泡影。虛幻不實。皆不出一心之所變現。但今人皆知一心變現。而不知此心果在何處。以為身內乎。以為身外乎。以為不在內外。將在中間乎。悉屬妄見。無有是處。又況以為心者。念起念滅。倏忽不定。乍善乍惡。變遷靡常。將以何者為心乎。既此等處。各不是心。將以為無心乎。豈有人而無心哉。居士可於此中。著實參究。討箇下落處。但恁麼參去。不得作解說。不得生卜度。不得求人說破。不得或進或退。一味死心究去。不管二十年三十年。力參無間。自然徹去有日也。勉之。

示黃爾巽居士

學無多術。祇要識得自己真心而已。今觀此身之內。四大假合。日趨於盡。所謂真心者。何在意念紛起。生滅不常。非真心也。或善或惡。遷變靡定。非真心也。又全因外物。而現外物。若無此心。安在非真心也。況此心於一膜之內。不能自見。是暗於內。非真心也。一膜之外。痛疾全不相干。是隔於外。非真心也。若曰回光內照。覺有幽閒靜一者。將以為真心乎。殊不知。此幽閒靜一。乃由妄心所照。有能照之心。有所照之境。則此幽閒靜一。總屬內境。

即楞嚴所謂內守幽閒。猶為法塵分別影事。豈真心哉。既此等俱非真心。將以何者。為真心乎。居士。試於二六時中。看如何是自己真心。不用生卜度。不用下註解。不用求人說破。不用別求方便。不用計年月久近。不用計己力強弱。但如是默默自追自究。畢竟如何是我自己真心。響。有朝忽然撞破。方知三教九流。決無二致。萬聖千賢。決無異轍。為儒為釋。經世出世。無一毫頭許可為間隔也。居士勉之。

示善侍者

鼓山禪。與諸方大不相同。諸方要人學偈頌。這裏不要人學偈頌。諸方要人學答話。這裏不要人學答話。諸方要人學上堂小參。這裏不要人學上堂小參。所以諸方禪易參。老僧禪難參。老僧只要你向解說不通處。憤憤地。如揉頭然。如喪考妣。急著力鑽研。鑽研來鑽研去。忽然大地平沉。通身脫落。跳出虛空之外。跨上毗盧之頂。方稱真正參學人。若委委瑣瑣。向他人脚跟後步趨。向他人鼻涕唾下咀嚼。向他人門壁外倚靠。正如生盲倚杖。却道。我是臨濟宗。我是曹洞宗。不知。面皮厚多少。古人云。不慕諸聖。不重己靈。若是當家種草。自然不入他家社火。勉之。

示羽吉居士

眾生本有之性。無不輝天鑑地。怎奈無明橫起於無起之中。由是妄識突生。既有妄識。則有妄境。既有妄境。則有好醜。既有好醜。則有愛憎。既有愛憎。則有去取。既有去取。則有善惡。既有善惡。則有升降。善惡相傾起。輪迴性如汲井輪。無有斷絕。雖曰苦樂天殊。實皆虛妄。諸佛愍之。為說出苦之要。只在破最初無明而已。然此無明非道理可遣。非言語可除。非禪定可克。非苦行可銷。非諸佛之力可去。非積善之功可滅。要在當人自發肯心。切己推窮。如擒賊必須擒王。殺草必須殺根。推來推去。窮來窮去。自有到家之日。如古人大有樣子。昔大慧常教人看。僧問。趙州狗子還有佛性也無。州云。無。眾生皆有佛性。因甚道無。這箇無字。直是聰明。過於顏閔也。無你領略處。今但向這無字上推窮。不可將道理解說。不可將心思卜度。但恁麼疑去。有朝捉敗。趙州識得渠面目。自然七通八達。所謂輝天鑑地者。不可昧也。

示尚實上人

老僧自出頭來。歷經四剎。說出許多玄言險句。無非要諸人不落知解。得正知見而已。如今看來。也不消得不。若就平常吃緊處。說與上人去。上人欲學道。先須歇却攀緣心。知解心。使心同木石。自然與道玄會。德山云。汝但無心於事。無事於心。自然虛而靈。寂而妙。龐居士云。但願空諸所有。慎勿實諸所無。百丈云。心地若空。慧日自現。此等皆是先德誠諦之語。蓋以心自靈明。一切智慧神通。無不具足。但為外物所蔽。所以弗露。所蔽若遣。更有何事。正如治鏡者。但磨去其垢。則本明自現。又何待假明於外。如銷金者但鍊去。其鑛則本金自純。又何待借色於他。明心之法。亦復如是。非有待於外也。今時學人。多是向外。假借許多閑骨董。怎奈轉增障礙。與斯道千里萬里也。上人思之。

示靈生上人

予年十八時。偶得六祖壇經讀之。見其所說。圓妙超曠。得大歡喜。自以為有得也。但於諸師語言譎訛處。却全不會。意謂。是後人穿鑿。作此隱語耳。一日見信心銘云。境由能境。能由境能。始知。前之所得。乃是意根領略。法塵前境。全同影事。非為真實。由是始下參究之功。近日諸人參禪。稱悟者大率在這裏。作活計。更兼商量公案。習學偈頌問答。以為操履。弄得知解日多。口頭漸滑。自謂得大辯才。而去道益遠矣。蓋參禪祇要你忘情絕解。死盡偷心。得箇無念心體而已。今轉向外邊。搬入許多骨董。正所謂祇名運糞入。不名運糞出也。如何了得大事。上人若肯相信。但將從前所得所學底。一坐坐斷。單單向一句死話頭上究。將去這死話頭。不可知解處。正與本分事相近。要你向這裏。磨來磨去。忽然解心銷盡。則本有光明。自然輝天鑑地去也。今人却在不可知解處商量。討箇路走。豈非大錯乎。老僧當此時。說此等話。誰人肯聽。但此心自不可欺。祇得依實吐露。聽與不聽。非我之咎也。

示時中禪人

覺皇之道。莫尚乎參禪。參禪之法。貴乎妙悟。所謂妙悟者。非可以一毫人力。與於其間。惟是天然神照。冥契於不思議之表而已。今日學人。十箇有五雙。俱要參禪。而卒流於不肖之歸者何哉。以不求妙悟也。不得妙悟者何哉。以不知所避忌也。汝今欲學斯道。須知有四種避忌。一者立心。不可不正。以立心乃造道之本。如造屋之有基也。若立心不正。則基先缺陷。雖有禪定智慧。皆為魔業。豈可以入聖人之道哉。故今入道之始。一切希名譽。圖利養。

起生滅。競人我等心。悉皆屏除可也。二者用心。不可不專。無上妙道。非粗心浮氣可入。必須一其志。凝其神。專以求之。庶可企及。若分心於他岐。則方寸既雜。而濁智流轉。邪氣外乘。與斯道背而馳矣。三者宿解。不可不捐。學人昔於經卷上分別。或師友邊商量。起種種見。執之為實。則靈機窒礙。妙悟弗彰。必須蕩去。方能發起新悟。四者新解。不可不除。鑽研之久。忽然新解頓生。或遇境便成四句。此乃聰明境界。正是陰魔作病。行人不達。以為妙悟。其禍非細。必須自覺。大抵此解。雖極其巧妙。要之必緣境而發。故非真實。若不急於剷除。神機何由廓徹。此上四種。竝是生死之重病。隨犯其一。功必唐捐。必須深自省察。而剪滅之。然後方可稱宗門下真實用心者也。勉之。

示渾朴禪人

今之學道者多。而明道者少。豈道之果難明哉。弊在有所明故也。蓋道體幽玄。不可以有心求。不可以無心會。不可以言語得。不可以寂默通。其要在於忘情泯見。則體自昭。然譬之太虛湛湛。豈有去來。忽雷電橫生。則失其本有。必雷收電寂。始見湛湛之體也。禪人參究有年。不可謂全無所見。但見諦弗淨。為障非少。直須掃空葛藤單單向。全無縫罅處。痛下死功。自然有一條活路。通天徹地去也。祖師云。不用求真。惟須息見。此乃古聖誠言。豈欺人哉。

示無生禪人

學道之士。先須虛靜其心。蓋心必虛靜。然後可以玄會妙理。心若不虛。則如盛驢乳之瓶。又安能盛師子乳。心若不靜。則如當風之燭。起浪之水。又安能鑑照萬形。故學者先須息慮省緣。使心虛靜。然後造道有基。德山云。汝但無心於事。無事於心。自然虛而靈。寂而妙是也。但不可安於虛靜。悠悠蕩蕩。坐在無事甲裏。必須有一念真實懇切之心。勤究力參。如救頭然。然後迷關可破。大事可期。但人從無始劫來。習氣深重。今日要與和根翻轉。不是易事。必當具堅固志。常加策勵。不計歲月。勉進其功。習之既久。自然寧一。豈可更別求方便哉。勉之。

示法珍禪人

予昔丙子之歲。開法溫陵。見城中諸衲。多重福緣。崇淨業於。少林門下事。少有留心者。及今庚寅之春。法珍禪人。訪予於石鼓山頭。則見其留心祖道。不入他家社火。亦可謂卓然有志。不囿於俗者也。但今世衰道微。禪風大壞。學者多祇重知解。習見聞。少有能以妙悟為期者。夫悟之一字。古人所重。即悟後尚當掃除。況全未悟者乎。蓋以識心對境。一一分別。了了能知。雖似有禪可會。有道可學。然而絲毫纔動。即便相違。所以世尊。喻為欲以螢火。燒須彌山。終無得理。石霜喚作朝生之子。非人王種。雲居謂。其頭頭上了。物物上通。祇喚作了事人。終非尊貴。當知。尊貴一路自別。古人作如是言。豈欺我哉。昔僧問石霜。如何是頭。霜曰。直須知有。後有僧問九峯。如何是頭。峯曰。開眼不見曉。是知。開眼不見曉。方謂之真知有。豈識心對境。了了分別之事乎。然此知有。尚當掃除。到無有變易之地。方可謂之大休歇地。法珍立志。誓明祖道。豈可以路途茶飯自足乎。法珍勉之。

示石岐上人

淨土法門。惟是一心。能淨其心。則土無不淨。所謂淨心之法。但當將六字聖號。念念純持。將許多閑思雜想。消歸六字佛上。久之。閑思不生。雜想不發。則此一片潔白境界。便是生淨土時也。更能猛加精進。踏破此潔白境界。則花開見佛。又豈更有別時哉。此之法門。最為徑簡。人多以好奇之心。自失殊利。所以。先佛苦口勸人。廣在諸經。即後代祖師。若遠公永明慈受中峯天如等。皆極力贊揚。非為妄語。祇如近日雲棲大師。其把定題目。不肯少開別徑。豈其智有不及哉。至於近日參禪者。半成外道。罪過彌天。有何益乎。蓋參禪而不求妙悟。專圖拂子以欺人。皆地獄業也。雖已得妙悟。尚當剷除見病。深加保養。方可少分相應。可容易乎。公當諦信斯法。守之不變。便是佛之肖子。不然。則虛棄一生也。勉之。

示寒輝禪人

近年以來。世運晦冥。而法運亦湮滅無存矣。以故諸方號為知識者。全無真實為人之心。祇圖門庭熱鬧。由此不問可否。亂付匪人。渠雖付至一千二百。總是破滅道法。玷辱宗風而已。汝今既到鼓山門下。切莫思作這樣勾當。祇宜守著古人之訓。參一句無義味話。不管年月遠近。直頭做去。亦不必用意卜度他。亦不必去問人。但于自己疑情上。切上加切。亦不必愁我根器太鈍太利。亦不

必要取靜避喧。但日用中。常常提起可也。若年久月深。未得開悟。切莫中道退還。自失大法。久久鑽研。如水投石。自有穿日。蓋此工夫。是將你無始無明。要你當下開交。不是易事。若欲求易。自有諸方在。朝入禪堂。暮得拂子者多矣。何必老僧乎。

示梵珠禪人

人心佛心。無二無別。但由悟迷之異。而凡聖分焉。人具有靈知。因何有迷。則以外為物蔽。內為情掩。所以先聖苦口叮嚀。非有別說。祇要你明自心見自性而已。唐宋以來。諸祖教人。或用言說。或用棒喝交加。無非要你得箇入處。或不得已。作死馬醫。教人看箇話頭。後來因此得入者甚眾。此誠方便中之方便也。但看話頭一著。須是具真實心。辦堅久志。又不誘于外物。方有發明之日。若無真實之心。則此念先迷。何可求悟。若不辦堅久之志。則乍作乍輟。如鷄抱子煖氣不續。何由可得。若誘于外物。則雜念紛飛。方寸如猿猴燥急。何由得入。所以人人說參禪。百無一悟者。祇此三者之故也。汝今若能依我所教。驀直行去。何有久參而不得力者乎。

勉會侍者

學道之士。先須奉戒清淨。然後或參禪或念佛。各隨其便。若參禪。則須日夜孜孜。惟以大事未明為急。看箇話頭。一心究窮。直到大休歇處。方為了當也。若有些毫未了。切不可自欺欺人。作假知識。若念佛。祇要六字。常常自提。一切世間之事。一刀兩段。不復留戀。有此實心。勤修不歇。不患不生安養不成聖果也。勉之。

示非鏡侍者

學道之士。莫要於見性。性無形迹。云何可見。祇要你息盡馳求。不為諸妄所惑而已。所以古人云。不用求真。惟須息見。可見。古人真實為人處也。後人見學者全無入頭處。教他看公案。凡看公案者。切莫生別念。生別念。便是偷心。驢年也未有人處。所以但于公案上起疑情。念念不捨。如鷄抱卵。煖氣相續。年久月深。自然透脫。但將悟未悟之際。若被邪境所轉。則前工盡唐捐矣。慎之。

示恒光上人

人人具有本性。常自返照。則昭然現前。若逐外緣。則昏迷不醒矣。所以古人看箇話頭。便爾念歸一處。不被外境所牽。久之。境忘緣泯。而本有之光。自然透露了也。若妄生卜度。便入錯路。若要問人。亦增迷悶。所以看話頭之法。只在念茲在茲疑情不散。大疑則大悟。小疑則小悟。不疑則不悟。此是決定之事。今人不肯看話頭。只管三箇五箇商量。某話頭是如何。某話頭是如何。說得明白了。便謂大悟也。師家既無真正眼目。見他語言相似。便把冬瓜印子印之。謂之得人。師徒互相欺誑。所以今日宗風衰冷。而狐羣狗隊。到處稱尊。以欺天下。其入地獄如箭射矣。上人要參禪。切不可落他家魔黨裏去也。勉之。

示漢章禪人

我法本無語。我語不是法。但知法無法。便是真實法。何以故。纔涉語言。反成染汙。須知解絕情忘一句。自然鑑地輝天。若祇在言句上。逐一揣摩。正如螢火欲燒須彌山。無有是處。今汝發心參究。但將一句無義味話。常常提撕。久之。自然雲開日現。又何患虛空之不朗照哉。

東警語

為僧首要老實。接物必重慈悲。澹泊安心。乃毓德之要道。精勤鍊行。實作聖之良規。願往蓮邦。切莫留情欲界。思明祖意。必須先斷偷心。發言休可傷人。臨事尤宜觀理。惟寬必能得眾。惟儉方可養廉。亂世當善藏身。退而守默。薄福何由免悔。靜而寡營。要崇中正之標。宜親益友。思消邪僻之習。莫狎匪人。恭以與人。何往弗利。傲而恃氣。觸途難安。大言必自招尤。小心終是寡過。輕毀戒律。必是無賴禪和。好說世榮。豈為高尚大德。見利必趨者忘義。有恩不顧者鮮仁。眼暗何可為人。終成悞己。力小休思任重。必至傷生。聖賢之轍可遵。葛藟之言毋忽。

西警語

既入僧倫。宜遵佛制。莫隨庸劣之侶。借潤邪資。勿學狂妄之流。貪求放逸。立志定須倣古。檢身切莫徇私。時閱古聖之書。無非寶訓。確遵毗尼之軌。的是明師。恕字終身何行。孔言非謬。謙卦六爻皆吉。易教毋忘。莫妒他長。妒長則己終是短。莫護己短。護短則己終不長。言語輕浮。決非成器之士。步趨端謹。方是任道之

資。禪風已頹。宜守固窮之節。世道久喪。休圖盛化之名。好大喜功之人。少成多壞。寡廉鮮耻之輩。雖得何榮。寧可守己以隨緣。豈得忘身而徇物。智者達觀三世。念念知非。愚僧祇重目前。憧憧造惡。試思鐵城之苦。宜省藥石之言。

永覺和尚廣錄卷第十

書上

答新城江孝廉

承諭。謂本來無事。何得妄起疑情。忘之則一。疑之則二。故教人起疑情者。是謂將忘作藥。愚意。忘之勝疑。誠如來諭。然忘之一字。亦不容無辨。有迷而忘者。有悟而忘者。有自然忘者。有作意忘者。若執情未破。而作意忘之。果可忘乎。縱曰能之。亦不過昏昏汶汶而已。若疑之之念。固為覺體之障。在有志者。因其勢而善用之。則反可假之。以為破障之術。蓋以疑之與悟。其機相待也。其勢相因也。其理一貫也。故求悟者必貴疑。請為居士詳之。夫人心之機。不凝結必不能開豁。如隆冬閉塞。實釀泰元。若氣泄而不完。則其發生也必無力。故貴疑者。貴其疑則凝結也。法界之源不深研。必不能遠到。如雪夜孤軍。深抵蔡城。擒元濟於榻上。豈為分外。若以披靡之卒。遊其外藩。望蔡州若天上矣。故貴疑者。貴其疑則深研也。是知。疑為悟因。悟為疑果。殆若暗之必有明。而吸之必有呼矣。可無疑乎。可無疑乎。至於疑而悟。則悟且不存。疑於何有。正足下所謂忘之則一者是也。豈更憂其將忘作藥哉。狂瞽之談。有瀆玄鑑。惟冀採擇幸幸。

與僧論不許參禪

吾聞。禪之與教。非有二也。教為禪詮。禪為教髓。執文義而守詮。禪亦為教。離文義而契心。教亦名禪。昔永嘉精天台觀法。因閱維摩經有省。後謁曹溪。遂承印可。乃曰。分明佛勅曹溪是。果有禪教之分乎。長水精鍊三學。說法如雲。及見琅琊。問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瑯答曰。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水遂豁然。歸講楞嚴。天為雨華。果有禪教之分乎。今聞。師垂示云。修行宜遵佛教。不宜參禪。禪宗乃後代權巧建立。依之而修。多有錯誤。誠如師論。則是謂永嘉長水。為不遵佛教。而受後代之權巧也可乎。且佛云。始從鹿苑。終至跋提。中間未嘗說得一字。則師所遵。果何教乎。世尊拈華。迦葉微笑。乃曰。吾有教外別傳。涅槃妙心。付與摩訶迦葉。此皆佛教明文。師何獨不遵之乎。大都教多曲示。禪唯直指。曲直隨機。佛心靡二。師必欲廢禪而遵教。

則非獨不知禪。且不知教也。又聞。師謂。看教則今生現資妙解。當來必獲智慧之報。參禪而不悟。則終身面墻。大失法利。以此較之。不宜參禪。愚請以喻明之。參禪而未悟。似讀書而不第者也。看教而獲益。似納例而得官者也。今見納例便可得官。讀書難以取第。而盡勸讀書者之納例。可乎。出家立志。便當誓取菩提。而安意於義解之學。非釋子之發心也。且參禪之士。雖未徹證。其益必有大於看教者。良以。參禪一念。蓋發無上心。求無上慧也。其功德。寧有量哉。念念內薰。冥增智種。現世必能使惑薄障消。吉祥來集。當來必能作菩提因。成涅槃果。祖云。再出頭來。一聞千悟。此語終不虛也。若看教。雖今生後世。竝沾殊益。而要之。散亂聰明。終為道障。古亦有反得愚癡之報者。蓋以其中無正觀。而馳心於外。安得不隔世而茫然乎。合而較之。參禪而不悟。實為悟因。看教而得益。只增解路。參禪則用心於內。實兼治心之功。看教則用心於外。全無返聞之力。其益果孰大乎。若曰吾念佛以為正修。誦讀以資正信。則淨土法門。千妥萬當。誰敢議之。但執一非他。則師之失也。若曰參禪一法。非上根莫受。中下之流。且從漸入。則應根施教。千佛一轍也。誰敢議之。但一槩竝遮。則師之失也。況明興二百年來。單傳一脉。不絕如綫。我輩丁此陵夷之運。不能張大而廣傳之。可縱心生滅。令祖道之益湮乎。望師廓無外之大觀。納愚者之一得。則斯道幸甚。臨楮不勝竦栗。伏惟海容是禱。

與沙縣曹智齋文學

數承來諭。竝據經文。佛旨可憑。灼然非錯。然山僧終不相肯。豈自生我慢。強相委曲哉。蓋緣所據經文。竝是方便權說。若祇依語生解。則墮在道理障中。是非窠裏。大丈夫漢。決不如此。須是離窠出格。道得一句。始有參學分。不然。向殘編斷簡中。以聰明領略。說得滴水不漏。亦安能敵生死哉。達摩門下。提唱此事。大都要絕是非。泯觀智。忘道理。離心識。始可以出生死。而續祖燈。故下一語。必如太阿鋒。觸著則傷。如塗毒鼓聞之即喪。豈可依經解義。如一老座主耶。且尋常謂生死事大。急宜剿絕。然窮其根源。決非他物。即今惺惺靈靈。向經論中。探討道理。分別是非者是也。若今祇在經輪中。鑽研分別。則是重培其根。而益浚其源。豈有出離之日乎。故要出離生死者。直須除其根源。要除其根源者。非可靠著人來。非可靠著佛來。非可靠著一切經論來。須是將生平所學的所解的。一刀兩斷。拈向他方世界之外。然後將一句無義味話。一提提起。不管生。不管死。不管久。不管近。至於正念

純一。情識自然消滅。情識消滅。則瞳開正眼。十界平沉。而丈夫之能事畢矣。若所謂入生死出生死。不竝為贅語哉。公宿有靈骨。似非一等。故敢披瀝。不覺囉哆。伏惟垂察是荷。

與建陽蕭徹韋明府

某自落髮來。已經七白。欲亟見而無由也。今秋本立來山。忽接華翰。恍如覩面。欣慰欣慰。及開緘捧讀。始知近以太夫人之故。旋旌梓里。而不忘故舊。遠承念及。足見交情矣。第睽違既久。未悉起居。不識於本分上。曾留心否。蓋老丈生平。學要精。文要精。又聞。如今地理也要精。更有一件。還精也未。某見海內許多名公大老。才長學博。睥睨千古。將朝政之得失。人物之賢否。著述之是非。一一之乎者也。說得滴水不漏。又遠而天文。潛而地脉。微而氣化。竝須徹觀洞見。如示諸掌。及輕輕向渠。問如何是你本命元辰。便茫然失措了也。宜急者偏緩。宜緩者偏急。至遠者偏明。至近者偏暗。其故何哉。只為耳目心思。為外塵所惑。便忙忙外奔。逐一分別。所以似事事精明。若本命元辰。須是不為外塵所惑。情忘識絕。分別都休。始堪默契。故知之者鮮矣。又有一等。自謂留心斯道。却祇在冊子上作活計。將妄識。一一揣摩將去。解說將去。雖曰究心。實成大障。又安能默契耶。今老丈年近知命。已非少壯之比。況位益高。政益繁。任益重。緣益廣。某恐忙忙外逐之病。實甚於蓬蒿之下。則此一段大事。又將何日了乎。豈老丈事事要精。偏此不要精乎。願老丈。於功名鼎盛之秋。切不可忘却此念。縱不能撥冗謝浮。專心斯道。且向紛囂雜亂之中。常思那箇是我本命元辰。不要說道理。不要作知解。但常提此一念。則他日超生死。證菩提。便是此一念。為之種也。若宿緣有在。靈根頓發。逢聲遇色。忽然撞著。又不待出紛囂雜亂之中。而豁然徹證矣。既到此地位。便解出大機。顯大用。祖述三皇五帝也得。呵罵仲尼老莊也得。談兵也得。治水也得。一切坐斷。向萬仞峰頭。目視雲漢也得。良以。莫非妙體映現。則莫非妙用難思也。社中諸友。唯老丈確有正信。但向上一著。無心擔荷。故爾不勝煩瑣。緇素異途。私衷頗切。伏惟炤亮幸甚。

答三山禪者

遠承垂念瑤札寵頒。意中必有新知堪為我助。及啟讀之。則謂法門正脉。唯當以機用接人。不宜授人以死話頭死工夫。噫是何言歟。夫法門正脉。非汝所知。且置勿論。至於話頭上一步死工夫。則實

非吾之臆說也。昔者黃蘗肇端。諸師傳承。而大慧尤主張之。夫大慧中興濟北之道。豈其機用弗具。而開示來學。一一例以一句話頭。塞斷其咽喉。消磨其伎倆。然後顯大機大用。以激發其精光。故依而獲證者。四十餘人。蓋師家之機用。學者之功夫。必兩相宜。而後可以有成也。若不策進其功夫。而唯以機用接人。則上根上器。當下知歸者。能有幾人。將見中下之流。永失法利。而掠虐之輩。乘風接響。達摩一宗。掃地盡矣。夫達摩西來。九年面壁。可謂壁立萬仞。及其接引神光。則亦不廢方便。乃曰。汝但外息諸緣。內心無喘。心如墻壁。可以入道。此即死工夫之說也。夫工夫不死。則情識橫生。非亂逐於名利。即深膠於知解。雖有機用。將安施乎。至於法門正脉。豈涉機用。非獨看話頭者。為自生枝節。即入門便棒。入門便喝。早生枝節了也。今執之為正脉。奚啻錯千錯萬哉。周道如砥。請速改玉。儻執前非。非汝益矣。戒之戒之。

答穎上人

來教。以專持名號。兼讀大乘。為淨土良猷。此法門千妥萬當。何容再贅哉。第慮守之弗堅。行之弗久。他日不覺不知。分於他岐。便亡了羊也。況專持名號。誰不云然。多見兄弟。只將一句阿彌陀佛。向昏沉散亂中混過。自謂。我每日念幾千幾萬。逗到臘月三十日。手忙脚亂。却道佛法無靈驗。豈果無靈驗哉。則念之非其念也。愚謂。念佛一門。決不可悠悠緩緩。借此躲跟。直須奮起一念。如倚天長劍。使昏散二魔。逃竄無地。如紅爐猛火。使無始情識。銷鑠無餘。則一念佛。一念西方。十念佛。十念西方。千念萬念佛。千念萬念西方。及至打翻窠臼。再立乾坤。則呵笑怒罵。屙屎放尿。無不西方。又安問往生。若今日依舊。祇是娑婆人物。七三八四。半上半下。要得臨終生彼。豈不難哉。豈不難哉。蓋目今色身康健。志氣精明。忽然逢緣遇境。要推推不開。要坐坐不斷。乃俟八苦交煎之日。冀其一念相應佛來接引。果可得乎。辱承論及。不辭逗漏。高明以為何如。

與李青郎茂才

前承華翰。知丈能向此門。發如是志。嗟嘆再三。每向人前。亟稱東家李矣。及涵初居士來山。又聞。律身端謹。範眾嚴肅。益見非空騰口說者。嗚呼衰暮之季。何得有此乎。夫臭利之場。見者馳神。大道之言。聞者掩耳。非獨風澆俗靡。弗克自振。亦其智劣骨俗。故甘受轉輪耳。今丈乃能當斯世。而奮然自拔。直欲窮到古人

見處。不圖。今日復見漢官威儀也。但斯道之人。未可容易。不得向自己思慮上求。又豈可向他人口[勿/口]上討。直須從人法雙忘。後突開正眼。然後見一切語言。一切知見。全不當情。始稱丈夫之事。若稍覺有可見處。有可喜處。有可擬議處。有可主張處。並是邪魔外道。非吾眷屬。或稍覺無可見處。無可喜處。無可擬議處。無可主張處。亦是邪魔外道。非吾眷屬。如今日一二士夫家。借儒解釋。援釋談儒。非不自謂新奇度越。其於斯道。直是如醉如狂。而且廣煽邪說。誑誤後學。則其罪通於天矣。蓋一心境界。決非一切。若不從全無縫罅處拶入。通身脫落後承當。縱有百千神通。百千三昧。終成下鬼也。丈欲從事於此。可不擇門而趨乎。儻能撥冗入山。尚當別有傾倒。

與朱葵心茂才

某謬墮僧數。鄙穢無聞。辱荷曲成。感愧感愧。然壺山之事。終不敢染指者。非矮節以自高也。特以某非住庵之僧耳。某削髮入山。祇為生死二字。至於田舍眷屬。早已唾涕棄之。豈於此而收其已棄耶。此不可住庵一也。素性疎散。不閑世務。迂拙任情。難投時好。此不可住庵二也。某受先師戒約。不營世緣。不干豪貴。瓶鉢隨緣。分文不畜。一旦住庵。則油鹽茶米。將安所取乎。此不可住庵三也。又聞。建城諸僧。見士大夫之禮。反在庶民之下。此法滅之兆也。可勝痛哭哉。故某自來。未嘗輕投一刺。即有枉顧。並不報謁。或承寵召。托故避之。豈曰倨侮。以為僧之體。宜如是也。此不可住庵四也。茲袁公喬梓。辱承翰教。雅愛殊深。謙光可挹。令人心愧。然奈某之不可住庵何哉。第興造之緣。為釋子者義。當殫力贊成。其敢自愛。至於庵事。仍付舊僧攝理。餘不盡言。專俟駕臨傾倒。

復李青郎茂才

清脩借榻。時領玄音。兼承高誼。益深刻銘。別來歸山。音信未通。三月接司衡書。始知足下首冠多士。固卜璞不容其久晦。亦知學道不礙於應世也。來書云。世人被業風簸弄。如傀儡然。真可笑愨。誠如來諭。但請即從業風簸弄處。推而窮之。則傀儡之義益精。傀儡之義益精。則不見可笑。亦不見可憫。身心不遣而自無。世界不觀而元寂。而所謂傀儡者已化為廣長舌相。即三藏所詮。五宗所指。又豈有出於是哉。今司衡以札見召。蓋欲理九賢之舊業

也。端陽之後。當復聚首。傀儡之義。不猶信乎。到日擬為足下作罷參齋。唯足下留意。幸甚。

復蔡司衡茂才

仲春之初。曾會陳良老云。尊駕尚未抵郡。及接手書。始知。到郡已遽歸也。來書云。歸日萬緣都澹。唯有一件大事未明。實增慚愧。終日忽忽。如有所失。若實實有此意思。則入道不遠矣。但復云。如更闌戲散。酒罷客歸。生出無聊景況。則所謂忽忽如有所失者。已分於第二念了也。譬如世人忽失重寶。急於尋覓。豈更暇顧更闌戲散等。而生無聊之景況乎。大都學道之士。只以大道未明為憂。決不可妄生第二念。況世緣如幻如化。生非有生。滅非有滅。若見其有生有滅。已錯了也。更從而欣之戚之。不尤錯之錯乎。九賢書。偽妄實多。遠玷前哲。刪而正之。實余本懷。茲承雅召。敢不趨赴。擬於端午後出山。不必遣人來接。鐘山事。俟到日商之。

答聞谷大師

某前趨謁。遽以俗緣促歸。未及飽領法誨。心殊悵悵。所命述諸祖道影贊。以他緣羈絆。未及速成。至今月初方就。正具書呈上。函未出門。而省衷師至。辱承寶翰。兼荷寵錫。感愧何極。祖影下卷。沈文學。方失之延津。而曹大參。乃遞自湖南二千里外。不謀而合。先後不差。機會亦大奇矣。但某思。曹公所請。重在大師巨筆。某何人斯。敢代大匠斲乎。矧愍大師鴻裁。如日月光。某冒昧而續其貂。則爝火之失照久矣。觀者不以為鄙。必以為狂。是立謗之招。而開罪之隙也。第尊長有命。弗敢固方。故思勉強撰就。呈以報命。蓋冀慈恩之斧削耳。若曰傳示四方。則某豈敢。前聞。儀峯老人。高風密證。真末世之標表也。某心不覺嚮往之甚。思當斯日。而有斯人。可令其湮沒弗傳乎。然其責實在大師。乞詳錄出付梓以傳。亦今日一盛事也。何如。

答翁茂才

前辱臨敝剎。未及奉挹清光。及承雅咏。始知非塵俗中品也。復蒙翰教。知已發大心。已具正信。良為不易。昔人有望剎影而知歸者。有隔江招手而悟去者。相知豈在形迹哉。但足下既以養親為事。豈容棄去。良以。孝為大戒之首。孝為成佛之本。能善事二親。即全供養諸佛也。抑來教云。法法元無法。觀心何有心。又

云。受色仍空色。聞音不礙音。誠如是。又何出世入世之分乎。祇為從來依文字義理上領解。所以說無法無心。而實有法有心。說色空音空。而實有色有音。則足下之所不能自欺者也。今要知人世出世本領。須是將此等語言知解。一坐坐斷。惟向聖賢句中。實實參去。如中庸道鳶飛魚躍。即斯道之著察。今單單看。鳶飛魚躍。如何即是道。不可將心思揣度。不可將語言註解。不許向師友問辯。但默默向己實實參去。日久月深。雲開日現。自然悟去。則知向所論有法無法等。皆戲論也。承賜佳咏。足徵高雅。愧枯拙無以和。小刻附呈。此復。

答潘茂才

來教謂。人我相難盡。此豈特足下。三教聖凡。實判於此。有我謂之凡。無我謂之聖。然此我相根底甚深。蓋在本命蒂中生來。此病不是解說道理者可去。亦不是用心克制者可去。亦不是澄心息念者可去。直須向父母未生前。開一隻眼。則又何人我之可得哉。然所謂父母未生前者。非揣摩潦草而得。要在當人深參實究。忽然於不思議中勘破。則能所忘。是非泯。聖凡一。仲尼老子。是箇甚麼。非獨仲尼老子。千賢萬聖。決無別路了也。足下勉之。

復一念法師

前辱臨敝剎。冀領大教。不意遽別。心殊悵悵也。繼承華音慰問。感謝何如。所示五燈證教。足見為法心勤。良為不易。但愚意。禪講相非。虛空強割。自古及今。弊非一日。又何必今日特集一書乎。況足下資稟高明。意氣恬密。衛護法門。當圖其大。今日宗不成宗。不待教家非之也。教不成教。不待宗家非之也。蠱亂眾生。慘如砒鴆。某深夜思之。未嘗不墮淚再三。今足下儻能深加體究。廣為弘揚。其衛道之功。不尤遠且大乎。前覽天主教辯數條。理俱無疵。但文字上。頗有礙處。乞再審之。以行何如。餘容面悉。不一。

答如是師

金仙一別。屈指十霜矣。忽辱華翰慰諭。知高誼不忘念不慧也。但過譽種種。令人增愧。兼承珍錫。頂戴曷寧。承諭。邪風流布。莫甚今日。此實法門之深憂。奈不慧人微望輕。德涼智淺。又安能迴狂瀾於既倒乎。區區之望。實願諸賢競起。共掃魔蹤。庶幾再見漢

官威儀也。泉城諸友。既能共究台宗。扶佛正法。誠為不易。此又法門之深慶也。但台宗最為精密。未可草草。亦必須兼善他宗。方可獨崇本旨。其尤可痛懲者。不可墮在義學社火裏。必當冥修內觀。以求正悟可也。若觀諦未忘。坐在玄妙窠臼中。則圓頓之旨。止是路途茶飯。況內觀全無。但逐語言生解。只在爭競是非上過日。豈是大丈夫之事哉。余每謂。天台一宗。自四明之後。變成義學。竟不知智者親見靈山一會。是何境界。可不悲哉。惺谷師剛腸直履。固所素聞。但當相見時。乃已事未明。而急於判斷是非。未免至明人前。有三尺暗也。所遺筆記。或此之類。則足下不可不再審也。伏惟慈炤。不宣。

永覺和尚廣錄卷第十一

書下

復林得山農部

屢承寶札。諄諄挽留。且急以開堂為勸。足見為法心勤。非浪稱檀越者比也。但某思。時當末運。魔鬼為害。到處妄據師席。力謀開堂。破滅宗風。莫此為甚。所以鼓山三載。緊閉口門。不啻三緘。非甘心自委。蓋不欲打人流俗隊中也。今歲泉南之役。乃為彼中全不知有此事。況又人事湊集。勢不容委。故孟浪為之。聊作嚆矢。然亦是自守弗堅。遂為業風所轉。所謂聚六州之鐵。不能鑄成這一錯也。伏乞。海涵容其自便。譬之麋鹿逢人。豈勝恐怖。一任山深林密。是為至幸矣。會晤有期。尚容面悉。

復曾二雲大參

佛所說諸經。有三乘不同。未可一槩而說。如除相空以存本性。去邪念以歸正道。此正小乘宗旨。二語只是一意。由執相故邪念。由邪念故執相耳。若大乘則了相即性。諸相本空。安待除。本性自如。安待存。若必除彼以存此。是之謂生滅法。楞嚴經中。備陳此旨。細看。當自知之。如高皇帝所詔三經。楞伽乃大乘頓教。開卷百八問。便非二語所能攝。即金剛心經。雖有破相之說。然彼云。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不增不減。是何等境界。若如二語所說。則正是有生有滅。有垢有淨。有增有減。豈知真空實相者哉。承諭作三經路疏。恐力有不逮。但楞嚴一經。能備三經之旨。精研一經。三經如破竹耳。佛語宗語。實非有異。但佛語有淺深。普接三根。宗語單接上根。即佛所謂。最上一乘。及教外別傳也。六祖以前。不尚機鋒。平實開示。緣人於口吻下承當。則祖道遠矣。故馬祖以後。乃用機鋒。只是從旁敲顯。使人自悟。於正旨上。未敢一言措及。恐人依語生解也。如云相見了也。若是箇中人。便如鏡照鏡。若稍涉疑端。便白雲萬里。豈可更加註脚。如云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此乃斷絕渠解路。令渠無作活處。若是箇中人。便超出牢籠去也。愚見若此。幸炤裁之。

與曾二雲大參

前承台諭。有禪語不同佛語之疑。已略奉答。然以楮盡。未悉所陳。今請詳之。禪語之不同於佛者。言句也。其旨則無有不同。即佛所說三乘之外。最上一乘也。其原出於世尊拈華。迦葉微笑。佛已自謂是教外別傳。既稱別傳。豈強同於諸經哉。他如文殊之白槌。彌勒之彈指。迦葉之倒剎竿。以至達摩之不識。二祖之拜起依位而立。六祖之舉網張風。其語不一。皆與諸經迥別。又非待後人始為之也。大都禪語。不可作奇險看。不可作幽深看。不可作隱謎看。乃是直指此事。令人當下領會耳。臺下但能於儒家驚飛魚躍處。吾無隱乎爾處。予欲無言處。親切透出。則宗下語言。皆可一笑而破。又安有異同之可言哉。若局在言句上。較其同異。則名言成礙。義理作障。又安能入默識之境界耶。某茲以浙中聞谷老宿示寂。乃某稟戒之師。分當往弔。計必中夏方歸。楞嚴略疏。僅完六卷。前蒙按臺應公見顧。取草閱之。亦許為災木。但今有此行。恐一時未能卒業也。謹此奉聞。曷勝悚慄。

與張二水相國

某冒昧一出。指鹿為馬。宜不齒於大人君子之口。何幸。道愛特深。俯垂慈炤。安居半載。僧眾無虞。實大德之所併矜也。敢不深銘。前辱珍儀。不勝愧謝。百首山居。足見於本分留心者也。雖轉身一路未見所長。而清逸流麗。灑然出塵之意。覺諸老所和。當讓一籌也。紫雲舊有開士傳。茲為重較。仍為補勝國及我明諸尊宿。一期小錄。深知不似。特以壽昌一脉。若斷若續。而兼之魔風廣煽。蠱亂法門。故勉強鼓兩片皮。冀欲掇其萬一矣。茲以二冊奉覽。伏惟照亮。曷勝榮幸。

某冒據紫雲。結制兩期。但虛費舌頭而已。非獨無一人稍通其意者。即求一真實參究之士。亦不可得。蓋我宗門下。無意識領略底禪。無逐段商量底句。直要渠向全無縫罅處透入。通身脫落後承當。其或未能頓領。始有看話頭等法。蓋是死盡其偷心。庶幾天光自發也。近日宗風大變。率尚虛頭。師徒授受。專學答問。學拈頌。文字稍通者。則冬瓜印子付之。自誤誤他。甚至飲酒博奕戲笑猖狂。自謂我宗下人。不受繩檢。不拘小節。視吾輩所勸勉。直以為老婆禪而已。嗚呼宗風欲滅。魔鬼興妖。靜言思之。良可痛哭。但某力絀識劣。不堪大任。故思打退鼓。屏息於青山白雲之中。煨折脚鐺度日而已。茲歸鼓山。未及躬叩。謹以寸楮布謝。伏惟慈炤。幸大。

與呂天池司農

佛法本非難事。而人自難之。所以頓成千里之隔。正如人坐在海裏叫渴矣。但能不起諸見。直下領會。有何難哉。如山谷聞木樨香。雖是得晦堂力。然晦堂何嘗於本地上。著得一字指示。但是截斷其生平見處。待伎倆不行。知解銷落。乃忽然撞著。今老居士。當歸林之暇。世間之念已空。文字之好已絕。能從此放下中。更加放下。然後於二六時中。獨提起一則無義味話。漫漫地參詳。嘿嘿中體究。看他是箇甚麼道理。不可生卜度作知解。但祇恁麼參去。忽然有日于知解不動處。豁然磕著。而大事畢矣。切莫言年老不能參。亦莫言工夫用得淺。蓋此事不論人之老少。亦不論工夫淺深。乃是尋常眉睫邊事。會則便會去也。茲歸鼓山。感銘厚德。未能躬叩。謹以寸楮布謝。兼致區區。伏惟慈炤。幸大。

與蔣八公太史

儒釋雖分途。而終無二性。但儒用之以經世。釋用之以出世。經世故。止談人道。止談現在。出世故。廣談十界。備說三世。其教似分。而實合也。居士獨能廣涉儒釋。精研一性。在溫陵。可多得哉。但夫子所言。性與天道。決不可聞。所以重默識。欲無言。大有深意。此一著子。更願留神。庶幾孔子心腸。釋迦命脉。總在居士手中耳。某虛度兩期。懨懨而歸。仰戴厚德。曷勝銘感。不及躬叩。謹以寸楮布謝。兼致區區。伏惟慈炤。幸大。

與黃季弢先生

溫陵一郡。賢豪最多。科甲最繁。獨于理學一門。大為欠事。前輩雖有虛齋紫峰諸老。用心最苦。然皆縛於訓詁義學。其於根本之地。實自茫然矣。今老居士。獨能主張理學。肩道南之一脉。誠可謂空谷中跫音也。但更須知有離文字出知解一著子。不然。雖日講良知。明至善。亦何以異於訓詁之學哉。某言歸故山。感戴厚德。特布謝忱。兼致區區。伏惟炤亮。不宣。

與劉仲龍文學

禪學一宗。無非自完其本心而已。此心非穢非淨。非聖非凡。非動非靜。非有非無。包虛空而無外。變萬形而無迹。千佛之所不能測。三藏之所不能詮。此豈可以言思而擬議者哉。緣眾生無明妄起。乃有差別之見。因有差別之見。乃有取舍之情。繇是或舍穢而趨淨。或舍淨而趨穢。遂有六道之分。聖凡之判也。今日若能頓絕

差別之見。頓忘取舍之情。則成佛其來舊矣。然有一等外道。自謂。不舍不取。隨緣放曠。任性逍遙。不知此乃舍取舍。而取不取不舍。正墮在取舍病中。何曾免得差別之見哉。要忘取舍之情。須泯差別之見。要泯差別之見。須破無明之關。居士若能直破無明關。便出三界外。晏坐毗盧頂上。山僧何敢誑汝念佛。如若未然。且死心在一句佛上。若得念力專精。無明便可立破。更不消說往生。縱無明未破。假茲念力。得入蓮邦。究竟成佛。決不相誤。茲歸鼓山。感懷道愛。布此區區。伏惟炤亮。幸甚。

答密因上人

我宗門下。祇貴直下親證。無逐段商量底禪。亦無漸次習得底禪。所以要汝拍盲做將去。不許胡思亂想。妄生知解。若信得過。便如是參究。不必問東問西。蓋大事未明。盡千七百則。孰非可疑。祇要在一則上。拌命拶去。若一則過得。百千則無不過得也。據來書。謂忽然有省。頓識物我一如。此非真實。乃光影中事。依舊是妄識作崇。所以條有條無。若是真正悟入。如白日青天之下。見親生父母。豈有今日認得。明日復認不得者乎。後來復云。妄明一生。山河大地。復是何物等語。正如人以葛藤自縛。豈有出期也。從今後。將此等惡知惡見。一坐坐斷。單單研究一則無義味話。自有到家之日。問單數則附回。此不足學也。

復方子凡孝廉

承示居士搭衣說。所述摩訶止觀及輔行。固自詳明。然切不可執此說。而云居士受戒。必付衣必搭衣也。昔古心以僧家三衣。付居士。居士受之。尋常用之。禮佛禮人。一如僧法。甚為非制。故雲棲深呵之。引慈雲辨惑篇為證。然慈雲辨惑篇中。亦云居士有入道場衣。但是單縫。與僧衣不同。則不可謂雲棲不見辨惑也。亦不可謂慈雲不見輔行也。二大老。既皆知有單縫衣。居士可搭。而必嚴於遮止者何。良以。此衣特為入道場而設。非居士可常搭耳。蓋此衣。居士唯入道場時可搭。出道場家居時。俱不許搭。則居士受戒時。不必受衣。要入道場。則臨時受之。聞柴季良欲入大悲懺堂。乃入雲棲。受菩薩戒。雲棲付伊單縫七衣。則付者受者。兩俱合法。益以見雲棲之不苟也。況此衣既受之後。不許遠離。離之得無量罪。今居士。能出入不離者。幾人乎。故知。居士受戒。而不受衣。未為有過。唯受衣而不能不離。方為有過。則知。居士決不宜濫受三衣。惟要入道場。方可受之耳。至於靈源所釋。尤有未當

者。如經云。若離二丈。得無量罪。此謂出道場時。當常隨身也。又云。尺寸不離。離之得障道罪。此謂入道場時。不可暫離也。經語甚明。而靈源乃曰。前云二丈。謂餘二衣。其謬甚矣。愚謂。此板直可劈去。幸裁之。

與曾二雲方伯

不覲慈光。寒暑已經四更。不審。邇日起居安否。閩中久沾化雨。罔不刻骨銘心。怎奈陽春有脚。台駕臨楚。而閩人遂失所天矣。某自丁丑春。來杭州。弔聞谷大師。蒙諸縉紳留居真寂禪院。此後閩浙分疆。徒切瞻仰。繼聞任楚。音信益希。今春閱報。始知。分藩海右。適陳白菴太守見顧。乃托奉訊。想。年來精研大事。踏穿漆桶。千聖命脉。不出一鑑中矣。前承命。作楞嚴略疏。今已梓行浙中。敬奉清覽。伏惟炤亮。臨楮不勝瞻望。

答湛可上人

某樗櫟無似。濫竽真寂。幸得稍安無事。皆藉聞大師之靈。及諸檀護眾執事之力。某何與哉。蒙諭。令人益增愧赧。茲承問數則。前則疑一心有五宗之別。後則疑一心有差別之殊。語幾數百言。大抵無非體一用殊而已。所謂體一者。非僮侗之死一。所謂用殊者。非散漫而無統。如一鏡而現萬影。萬影何妨一鏡。亦如一金而鑄萬像。萬像何非一金。又如今目前。天之高。地之下。日月之照明。雷電之激發。萬木異形。千花殊品。其類不勝分矣。然必有未嘗分者主之。足下將以為異乎。將以為同乎。疑其異之妨同。同之礙異乎。故知足下之所疑者。皆不必疑者也。況同異之名。亦是權立。因異立同。因同立異。若悟入一心。則此等語。率同幻妄。何容分別擬議其間哉。餘不及悉。伏惟炤亮。不一。

答東魯武源淨居士

單傳一脉。自入明來。幾成斷絕。中間雖有提唱者。多是知解之徒。口舌之輩而已。非獨北地如斯。南方亦爾。長沙所謂可痛哭流涕長嘆息者也。今捧讀來諭。獨有志于向上。謂非豪傑之士。無文猶興者乎。但今既知有此法門。便當猛力究明。不可以年衰自廢。蓋此法門。不論新學久參。亦不論年少晚景。況斯道不遠。如人坐在大海中叫渴。豈水之遠人哉。祇在一念自知而已。且居士。當衰暮之日。世相之虛幻已明。人間之事業已定。唯有此一段大事。當

如救頭然。不容少緩。倘得一念相應。豈非殊勝之大益哉。若其用功之法。小錄已備陳之矣。承賜愧領。謝謝拙刻五冊附上。伏惟簡入是幸。

與曾二雲中丞

辱蒙寵顧。兼荷珍錫。感謝何如。承論習靜一端。正是造道之初門。蓋為平日耳目精神。日逐外塵起滅。無暫息時。既被外塵所引。則外反為主。而本有之靈光。適足供外塵之差役。昏昏擾擾。無自由分。今既習靜。則外塵似不可撓。然習氣病根。久據於方寸之中。但如石壓草。未可破除。故雖習靜。又須於靜中觀察。如何是我本性。假此觀察之力。遍開本有靈光。靈光既露。則所謂病根習氣。自然消滅。如主人仗劍當堂。諸賊有不潛遁者乎。至于靜中。亦切不得認靜境。以為本體。蓋動靜俱是境。此中有貫動靜而非動靜者在。固不可認奴作郎也。昨蒙示及敢一披陳。狂瞽之言。幸希采擇。不盡。

復周芮公吏部

兩承翰教。知門下天資學力。大非等流所可及。但此大事。的不是說了便休。須是收視返聽。冥觀一念未起之先。是何面目。從此忽有契入。則一切山河大地。功名富貴。無非妙明中物。無纖毫可取。亦無纖毫可棄。可謂無不自在也。但人從無始劫來習氣。並是逐境起心。既逐境起心。則心逐境轉。而本有靈光。遂為外物所障。無自由分。中有稍知究心者。又祇在文字上分別。道理上推窮。乃是讀書人第一箇深病。全不知文字道理。亦祇是境。此心有非文字所可攝。道理所可言者。豈可以識見擬議哉。若能直下返觀一念未起之先。是何面目。便是打蛇得七寸了也。雖然。又不要認著空寂處。以為極則。蓋空寂亦只是境。非真面目。故楞嚴經云。縱滅一切見聞覺知。內守幽閒。猶為法塵分別影事。若能內觀。不被法塵所惑。則寶所在近也。承論妄疏所見。唯采擇是幸。

答謝介菴文學

金剛一經。解者不下數百家。多是任意揣摩。不達教家大旨。所以纔一著語。便成笑具。若要通此經。的須於楞嚴圓覺法華三經。熟究一番。然後考之無著天親彌勒三菩薩所釋。融而通之。方可註經免杜撰之謔。近日如古音輩所註。則俚語也。至於宗門中語。切忌

拈著。拈著。盡成邪說。謗大般若。周程張邵之學。在儒固是大儒。在釋猶在門外。邵子止說氣數消息之機。固可聽。若夫性命之微。未敢相許。張子正蒙一書。已醇疵相半。大都皆苦思力索而成。去道遠矣。二程俱醇正。但見地則伯子為勝。叔子次之。定性一書。良為儒學指南。然二程皆宗周子。周子通書。亦皆醇正。而太極圖說。恐不能無過。昔老僧於窺言中。已力辨之。然自是儒家書。不必深咎也。大抵學問。須是於根本上。窮究親切。次看書。須是於大聖大賢真正大典上。留心可也。若於世俗杜撰書上留心。則不覺被人將黑豆換却眼睛了也。讀足下近菑。知高才慧質。可以坐進斯道。止為不遇作家。不讀正典。故一生寶燕石以終身。如肯相信。將從前所學所聞。盡拋在東洋大海那邊又那邊去。從頭依著一部大慧語錄。親參實究一番。如不能。且依一部楞嚴經。虛已考究。亦得一箇真正人品也。狂瞽之言。不勝冒犯。伏惟海容。是幸。

答曹愚公學院

真寂僧來。得接翰教。深慰私懷。承惠塔金。已登之常住。感謝何既。前蒙刻祖影傳贊。功已垂成。所少者十餘影。請考之武林長明寺。當必獲之。如未全。則曾聞。令郎云。水西祖影甚詳。今不知水西何在。若是涇縣水西。則以臺命取之。易易也。昔人嘗指高僧影。問曰。影在這裏。高僧在何處。是因其影而追其人也。今則遺其人。而守其影。不大堪捧腹乎。此則老僧罪過。因以累及門下也。茲復蒙諭。再住真寂。天下不馮婦我乎。況今身任三剎。脩造之功實繁。竟不知了手何日。兼之病軀躑躅已極。瞬息難待。又安敢跋涉關河。而肩此大任乎。方命之罪。固無所逃。惟願慈炤。幸甚。

答嚴冲涵比部

睽違數載。實切瞻注。忽接瑤緘。恍如對玉山而見青蓮也。承示。及法門鬪爭之風。大為流俗譏訶。彼亦安知其醜哉。只顧黨護已私。不肯平心觀理。的是波旬之徒。借我門庭。破我道法。正所謂法滅之兆也。某向來真寂。已見此風大煽。不覺涕淚橫流。遂禁上堂結制。亦甘心絕嗣。不敢輕付非人。蓋以老僧緣薄力綿。不能回天挽日。只得慎重法門。不敢與敝惡之輩。同步而趨。俾天下知佛祖之道。亦有不盡如彼者。是則老僧報佛報祖。一片赤心腸也。不識門下能信之否。承命。再以真寂見招。此則事勢萬有難從者。蓋

老僧近任三剎住持。修造之役。費將萬金。不知他日如何結案。況敢冒昧踰嶺。收已棄之唾耶。萬冀。炤亮臨楮神馳。曷勝仰戴。

答陳白菴太守

前在金華。聞台駕奉 旨入京。返錫閩中。音問既疎。不得復聞起居。然對月臨風。每動深懷。未可謂道人果忘情也。茲真寂僧來。得承翰教。始知旋旆湖上。是公冶無罪。覆盆蒙炤。雖曰不幸。亦大幸也。又聞。貴恙已有勿藥之喜。色力既堅。便可益脩淨業。用行舍藏。自是孔顏家法。況湖光山色。儘可逍遙。何必履荊棘之途。登虎豹之穴。而與世人。爭蝸角之微哉。禪餘外集。已荷刻成。不意。蛙聲蝻語。遂得仰瀆大方。幸也何如。弁首之言。自當藉重彩毫。豈更有他屬哉。茲復蒙諭再住真寂。使某得仍瞻芝宇。良為三生厚幸。但近日身任三剎。厥事實繁。鼓山大殿將傾。今謀重修。而興福已伐木改創。寶善舍利殿。雖幸落成。而塔實未鑄。以三剎之役。而一衰老肩之。捐此而出。勢萬弗能。伏乞炤亮。宥其方命之罪。幸甚。

啟

答呂天池司農

直指無指。要在默契而忘言。心宗莫宗。不妨隨緣而悟入。故拈華豎拂。打開本有之光明。舞筊張弓。點破從前之幻夢。祇為本來無物。何嘗分外生端。奈何法螺久寂之時。正當慧命懸絲之日。法從緣起。道在人弘。恭惟。台下儒宗柱石。佛國金湯。為楫為霖。負蒼生之重望。如麟如鳳。現聖世之祥光。爰為六和之緣。特垂九鼎之命。如某濫入緇門。慚窺剎影。石鼓聖箭。未得覩其鋒鏃。壽昌鐵鋤。何能襲其孤峻。捧寶牘而心悚。聆玄音而神搖。固知蚊負何堪。安敢株守自便。私惟分當竭蹶。怎奈勢有羈縻。容出初春。祇承大教。伏惟海涵。曷勝雀躍。

答傅幼心諫臺

儒釋同源。似太虛而豈分疆界。素緇異軌。如一臂而自有屈伸。達之則一道齊平。昧之則千差競起。苟非智鑰。曷啟迷關。恭惟。台下學窮內外。識洞幽明。百里絃歌。小試牛刀之刃。九重鳳旨。頓超驄馬之班。愍佛法之久頽。悲愚情之罔化。爰垂鼎命。下逮田

衣。知紫雲固唱道之場。驚某甲非任重之器。但承寵召。豈取固方。無奈事有羈縻。以故行而濡滯。容乘春風之鬯。祇承大教之嚴。伏惟炤亮。曷勝幸孔。

答杭州洪清遠中丞諸鄉紳

伏以。千尋巨嶽。非蚊力之可勝。一呖微鳴。豈雷音之堪並。忝承上剎。深赧匪材。恭惟。台臺慧光渾圓。道韻凝遠。傳心宗於東魯。契桂香而忘言。探密旨於西乾。見鞭影而自驟。既炳上國之光。復峻法城之衛。不珍台札。下諭田衣。如某螢光何照。鼯技多窮。謬嗣壽昌之燈。已稱混玉。復居苕溪之席。無異續貂。深厪淵臨之憂。猶懷形穢之慙。謹布謝忱。曷勝悚慄。

答嘉興施羽王相國諸鄉紳

恭惟。台臺古今洞貫。真俗妙融。作皇家之柱石。久沛甘霖。為佛國之金湯。頓培智種。遠聆道韻。未覲慈光。忽承鼎命之榮。下逮田衣之賤。囑續苕溪之前浪。特為雙徑之後到。似將王位而直授庸材。如舉泰山而頓俾蚊負。捫衾意慙。難煥燭火之光。捧牘神搖。已盡小巫之氣。推委未遑。勉強應命。謹布謝忱。曷勝悚慄。

答金壇于潤甫別駕諸鄉紳

伏以。祖印空懸。非智臣安知奉馬。法筵地湧。豈野鶴可乘高軒。却命固為不恭。當仁敢曰不讓。卷舒唯觀時義。保綏必藉檀門。恭惟。台臺睿襟天朗。學海淵凝。出為國瑞。德風播上苑之聲。居作世模。道價高龍門之望。紹玄猷於紫栢。振頽運於金沙。愧識荆之未能。幸仰斗之有日。某志甘守璞識。局凝冰。虛慕丹霞選佛之規。冒入壽昌揆空之社。驀探虎穴。當買臣入仕之年。伏處荷山。幾仲尼耳順之日。守先師之重囑。自分藏拙於雲林。遇聞老之慈光。乃獲張風於石鼓。因行掉臂。便爾欺聖瞞凡。無水生波。遂敢撒沙揚土。茲來苕水。懷一瓣以重拈。纒繞鶴林。冀雙趺之再現。何期鼎命之賁。遂有虛席之招。既固遜而弗容。乃勉承而莫逮。燭火繼日月之耀。不亦難乎。拱木當棟梁之推。非其質矣。驢承象任。謾言雲月是同。鷄入鳳巢。深愧溪山各異。徒厪臨水之懼。能忘維谷之憂。臨啟。無任慚愧感戴之至。

答楊聯京太守

伏以。禪河欲決。防護全藉堅堤。法棟思隆。撐持必須合抱。靈山已親囑付。末法尤重金湯。恭惟。台臺上郡循良。清時偉器。龔黃政最。洒湛露於人寰。山斗望崇。布陽春於聖世。黔首盡荷春暉。緇衣亦沾化雨。悲少室宗猷之欲墜。值紫雲殿役之奏成。寶牘垂光。荒林改色。其蠡測難及。竽濫知慚。昔曾冒肆蛙鳴。今敢再陳驢技。況妖風浩浩。幾成滿地之邪蹤。正脉涓涓。難漲朝宗之巨浪。捨其難而趨其易。勢可挽乎。慎於行而密於藏。時之宜也。所以急搥退鼓。一任堦下草深。不辭拙比寒蟬。豈慮舌根苔長。若再鳴榘椎於當路。非所敢聞。倘得挂瓶錫於閒房。是所素願。俯俟鈞裁。萬冀鑒亮。臨楮。不勝瞻仰之至。

答黃昱如諸文學

某濫竽緇侶。借座名藍。三學久疎。不成五長之技。十科有缺。僅同一喙之鳴。問舍翠雲。擬學龍山之隱。還錫石鼓。深懷馮婦之羞。空受累於虛名。飄蕩弗息。知難逃於俗網。勞役靡寧。道路遙遙。未聞縮地之術。雲山邈邈。每動登龍之思。忽接雲箋。恍對玉山峭立。欣讀瑤翰。渾同甘露繁濡。豈意哀慵之蹤。尚煩高明之慮。兼蒙厚貺。益重深慚。惟願。檀度益弘。金城永固。俾魔外繇是潛蹤。僧行於焉安處。則翠雲幸甚。某亦幸甚矣。臨楮。不勝瞻跂。

永覺和尚廣錄卷第十二

序上

建州弘釋錄序

弘釋錄者。錄能弘釋氏之道者也。斯道自金人見夢。白馬西來。代有作者。大弘其教。以故。千燈競照。輝映今古。浩浩乎。莫可紀也。其在我建。則六朝以前。槩未有聞。唐興始建梵剎。自馬祖入關。肇化於建陽之佛蹟嶺。而禪學始大行焉。厥後雖禪教殊宗。性相異旨。共能使玄化風飛。法泉箭湧。皆我釋之津梁也。迨。明興以來二百餘載。宗燈絕燄。教海日湮。間有二三。亦落落如晨星。則弘道之責。將屬之何人乎。賢潭邑之鄙人也。濫入緇流。幸投法窟。雖螢火難照。鼯技俱窮。而好古一念。每切愚悃。諦仰先標。輒至揮涕。因思。古此溪山也。此日月也。今亦此溪山也。此日月也。今之人豈獨異於古之人哉。夫何法門寥寂。今古相懸乃爾。其無乃前蹤既沒。則觀感之無藉歟。狃於近習。則激發之無人歟。用是不揣顛蒙。博探羣籍。取諸師之產於建者。或開法顯化於建者。悉錄而傳之。俾晚學之士。得見古人如是之辛勤。如是之嚴慎。如是之博大。如是之遠到。倘能翻然易轍而趣。望標而進。則唐宋之盛。庶幾再見於今日。亦未可知也。嗚呼人皆可為堯舜。子輿氏決非誑語。在有志者。事竟成耳。若苟於自安。嚴於自畫。即使諸祖儼然臨而詔之。彼將掉頭弗顧。亦何貴有斯錄哉。故斯錄之行。願與有志者共之。

法華私記序

近世談經者夥矣。愈精而愈晦。愈巧而愈謬。豈經之果不可明哉。蔽在以己談經。而不以經談經也。亦蔽在以經談經。而不以己談經也。能以己談經。而不蔽於己。能以經談經。而不蔽於經。庶幾可與談經矣。余初讀易嶽山。聞僧誦法華偈。曰。我爾時為現清淨光明身。忽喜躍不自勝。即索經讀之。無所發明。然知周孔外。別有此一大事也。嗣是博求之疏鈔。徧探之羣籍。冀欲卒聞乎此。而困於葛藤。不能自拔。越十有餘載。因參壽昌先師。聞舉南泉斬貓話。忽有省。遂棄所習。從先師學枯禪。復十有餘載。一日聞僧舉法華經。云。一時警效。俱共彈指。是二音聲。徧至十方諸佛世

界。豁然撲破疑團。始知無己非經。無經非己。而所謂靈山一會。儼然未散者。特窺語耳。嗚呼。談經詎可容易哉。遇之於二十餘年之前。契之於二十餘年之後。索之於銳志湛思之日。得之於精殫力竭之頃。談經詎可容易哉。今夏無事。因為諸人。旁通一線。拈其大旨。錄之成卷。夫此經。自天台樹幟。溫陵奪標。餘子碌碌。後無來者。而余於茲輒有異談。豈天台之為弗玄。溫陵之為未要乎。亦自記其私而已。亦私記之以示余後人而已。是為序。

楞嚴翼解序

甚矣治經之難也。即疏鈔以求之。失之局。離疏鈔以求之。失之蕩。失之局者。神機弗廓。而我為經困。失之蕩者。正軌罔由。而經為我裂。唯有不局者。然後可以用疏鈔。亦唯有不蕩者。然後可以廢疏鈔。斯稱善治經者也。楞嚴一經。解之行者。不下十餘家。天如會而集之。國朝治經之士。率株守而弗敢易。至萬曆間。雪浪交光二師。首廢舊解。而紫栢老人。亦力主獨玩經文之說。由是後學有躍然自奮之思。視會解。如瘴水疾馳。而不敢一顧。未幾英敏者。既藐視前修。則競逞臆裁。而全經之旨。幾至掃地。稍鈍者。進無新得。退失故居。則有從席下拾殘唾而已。獨不思前人之疏鈔。既不堪為後人之几杖。今人之口吻。獨可為今人之著蔡耶。又不思今人之新得。安知非前人己揀之砂。前人之陳解。獨不能佐今人牛溲馬渤之用耶。故吾謂。善治經者。諸疏咸為我助。不善治經者。經文早生支離。固不在疏之存與廢也。今山中閒寂。客有請益楞嚴者。仍俾以舊解為指南。間有未安者。乃旁採眾說。或出私意。以翼之。非敢必為世珍。蓋亦備溲渤之用云。

送洪禪人參方序

道非學無由致。非博學亦無由致。然阿難以歷劫多聞。乃曰。不如一日修無漏業。則何以說也。蓋不假多聞。則不能修無漏業。多聞而不修無漏業。則如遇王膳。而莫之嘗。與未遇何異。茲洪禪人。夙稟靈資。獨懷壯志。去秋自鼓山。來金仙。聚首數月。今春將腰包出嶺。徧參諸大老。是欲以多聞之功。成無漏之業也。客難曰。昔雪峯三登投子。九上洞山。後乃契旨於德山棒下。然猶曰未穩在。直至鰲山。巖頭示之曰。向自己心中。蓋天蓋地去。峯乃大悟。豈非到底不從人得耶。余曰。若到鰲山。即謂從自心得。亦成謗語。若未到鰲山。不妨更買草鞋行脚。因贈之數語。以壯行色。俟到鰲山後。再作一好相見也。

送僧出遊序

溪山泉石之勝。今古名賢。好而遊者多矣。遊而吟咏不置者。亦多矣。然未聞有真能好者。蓋簪纓之士。籠於世網。雖暫時翫賞。亦覺神怡然。終非其所安也。其何能好。隱逸之士。守寂空山。要亦厄於時。窮於遇。乃托之而遊焉。其何能好。孤臣孽子之憂怨。英雄豪傑之憤發。登臨感慨。染翰淋漓。乃借此以泄其抑鬱不平之氣。其何能好。騷人墨士之風流。緇衣羽客之清逸。嘲笑山雲。歌弄溪月。自謂此好莫與爭盟。是亦外適其形而已。其何能好。然則何如而後。稱能好乎。吾聞。古之人有能好者。掩關宴坐。視聽俱泯。而好非澹。奇觀異境。應接滿前。而好非濃。卷石勺水。獨對悠然。而好非少。峻岳巨海。歷覽無垠。而好非多。乃至握大柄於朝端。驅強胡於塞外。補既闕之蒼天。扶將傾之赤日。亦無往而非此好之流通而發揚者。夫然後為真能好也。孔子不云乎。智者樂水。仁者樂山。茲某上人。素有泉石之癖。遇勝絕處。輒徜徉終日。躍然而喜。灑然而忘。直不知身之在霄壤間也。邇來更欲徧探名區。增滿奚囊。余不知其真能好否。及岐。諸君咸有贈言。乃不以余為陋。俾弁其端。余惟。仁智之樂。自是儒家事。姑置之。昔者東坡入東林。呈偈曰。溪聲便是廣長舌。山色無非清淨身。夜來八萬四千偈。他日如何舉似人。咄。好箇蘇學士。祇在門外打之遶。上人於此。識得學士敗闕處。則大千一坐具耳。如其未然。竊恐溪聲山色。沒埋了英雄漢也。知之。

送本立上人歸山序

曹溪一派。灌溉域中。渺乎其莫可窮也。其在我閩。則自百丈黃蘗。崛起一方。繼而象骨。分德嶠之脉。而諸賢競出。已若江河之澎湃。大海之浩蕩。故名列傳燈者。幾半天下。至於勝國之季。法運寢衰。然古梅鐵關諸老。猶能存什一於千百之間。入明以來。二百餘載。聖賢隱伏。法脉久湮。問有一二自稱得旨者。亦優孟之叔敖而已。自萬曆間。壽昌先師。入閩大布法雨。人始知有向上之事。然聞則有之。信則未也。信則有之。行則未也。又況乎信之篤。行之力。終其身而弗倦者乎。建陽本立上人者。其殆庶幾焉。上人初受業於聖泉。來從余遊。始發大志。及謁壽昌老人。遂謝絕外緣。誓明已事。次入博山。陶煉益久。仍適越抵吳。徧參雲棲顯聖諸大老。久之返錫閩中。將尋一蒲團地。作終焉之計。予觀其東西參請。萬里間關。屹然不休。蓋十餘載於茲矣。非所謂信之篤。行之力。將終身而弗倦者乎。丁斯際。而有若人。即未能大有發

明。其品固已度越流輩不少也。雖然。傳有之。掘井九仞。而不及泉。猶為棄井也。子能一錐得泉。往來井井。他日當為子。大書特書。以詔來者云。

淨慈要語序

淨慈者何。聞谷大師所命菴名也。菴名之以淨慈者何。謂念佛放生也。念佛放生。其所求者何。謂還其心之本淨本慈也。蓋本然之心。廓然常淨。自眾生迷其本然。則心外見法。故目為色染。耳為聲染。鼻為香染。舌為味染。身為觸染。意為法染。流逸外奔。不能自返。繇是起業造罪。永沉五濁之區。無有出期。我佛愍之。乃為說治染還淨之法。機固靡一。教亦各殊。然念佛一門。其最要者也。一心念佛。用志不分。六根都攝。淨念相繼。則目不為色染。耳不為聲染。鼻不為香染。舌不為味染。身不為觸染。意不為法染。即現處娑婆界內。渾身已坐在蓮華國裏。又何後報之不清淨乎。然雖修念佛三昧。而福德不具。善果難成。故必廣修眾善。以為助因。眾善夥矣。而慈行其首也。慈行亦夥矣。而戒殺放生其首也。蓋以眾生所最愛者。莫如生。所最苦者。莫如死。凡有血氣。斯情萬均。祇為相習於忍。同體之仁。痿痺不行。乃恬然殺戮。不以為怪。豈心之本然哉。以故。我佛苦口叮嚀。首戒殺生。廣勸放生。與其所最愛。而救其所最苦。功德之及物。為何如也。建州城若緇若素。奉大師之教。篤於念佛放生之業。有年矣。猶慮其不能廣且遠也。乃謀於余。余為取淨土及戒殺諸書。集成要語。付之梓行。庶幾淨慈之化。益洋溢於不窮也乎。嗚呼淨慈之義大矣。豈止於念佛放生而已哉。念佛放生。可以言淨慈。而不可以盡淨慈。極而言之。淨極覺圓。成無上道。不出一淨義也。廣度有情。悲臻永劫。不出一慈義也。夫諸菩薩。上求佛果。下化眾生。自前前。以及後後。諸大乘經明此。至汗牛充棟。今以二字括之。了無剩義。敢謂大師命名之意。止於念佛放生而已哉。諸君當善體此意。擴而充之可也。雖然。更有一句子。淨慈二字括不得。余欲總為諸君說破。怎奈舌頭短也。諸君其質之大師。

重梓鐵關禪師語錄序

當元之季。建州稱善知識者三人。仰山友。斗峯璋。天寶樞是也。樞禪師。獨能據險扼要。鑄鐵為關。令天下有眼者莫能窺。有足者莫能度。鷄鳴狗盜之客。祇得慙懼而退。其功詎不偉歟。茲錄傳之三百餘年。塵封霧隱。無問及者。近又為水蟻所壞。板且不存。余

心甚痛之。適見孟滕君來鼓山設供。余乃以茲錄囑累之。噫武侯往矣。魚腹石蹟。猶在江煙蘆月間。風雲龍鳥之勢。固隱隱日中也。但今日而有如桓大將軍者。誰其人乎。若按圖列陣。自號知兵。則趙括之讀父書也。予又不能無重痛云。

壽昌西竺禪師語略序

四來直指。翻盡窠臼。雖有神悟。急宜吐却。而況文字乎。自垂手接人。機用繁興。一言半句。流落人間。遂有語錄之傳。然悟心其本也。機用其末也。學者當求其本。本立則其用必彰。若徒求其用。而本弗立。則非佛之徒矣。濟下。自馬駒以一喝開場。黃蘗以三棒接拍。以故。人人如獅子哮吼。動地驚天。皆本深而末自茂。體圓而用自神者也。至元之季。其道日衰。捨本趨末。相率為偽。唯雪巖欽稱善繼者。欽傳之鐵牛定。定傳之般若誠。誠傳之古梅友。友傳之慈舟濟。若壽昌西竺來公。則受記於濟者也。西竺之道。大槩見於行業記。先和尚創壽昌時。已為梓行。而語錄則弗有傳者。及先和尚遷化後。師兄闡然禪師。乃得草本於居士篋中。然朽蠹之餘。可句讀者無幾矣。取而訂其亥豕。合行業記而梓之。乙亥夏。余歸壽昌掃塔。始得寓目焉。僅嘗一滴。未吸全潮。然據一滴而收全潮。全潮皆一滴也。今觀其語脉。大都從真參實踐中來。雖於機用未見其長。而忘言親證者不少。視世之盲拳瞎棒。誑嚇閻閻者。天淵不啻也。蓋有本而嗇於用。其猶不失於佛之徒也乎。昔宋人有掘地得玉尺者。以為周尺也。及太常取定樂。則以為漢尺。或曰。其於周也不猶近乎。予于是錄亦云。

數珠翼序

物無大小。以適用為貴。至於適用。而通神明。越變化。有不可得而思議者。非物之至貴者乎。余觀數珠之為物。是矣。此方自白馬西馳。東林倡化。而數珠始適於用。久之厥用愈神。至於入水不濡。入火不焦。閻老不敢誰何。極樂藉為贄物。則是珠之用。世間允稱第一。求其匹休者。而不可得矣。天目海公。學博詞宏。撰述甚富。間借此物至貴至神。而反不登於作者。乃為纂六翼。且自比於茶經荔譜焉。余曰。不然。茶荔僅資日用之需。難超神化之域。於是。而經之譜之。雖為博雅者所好。以吾道視之。皆綺語耳。今此翼之行。俾持者崇正信。脫世氛。卒之飄然遊菡萏之國。坐菩提之樹。謂非藉此膏其車。而策其駿乎。余故為之合掌。而弁其首。

楞嚴略疏序

余忝學禪。於講師之門。未能一顧也。迨罷參歸閩。山中無事。取大藏徧閱之。於楞嚴一經。自謂獨得其關鍵。因作翼解二卷。稍抒鄙見。以佐諸疏之所未逮。時天啟甲子歲也。至崇禎丙子。余開法於泉之開元。適二雲曾公。分憲泉南。公政之餘。每常命駕。商略大事。問及楞嚴。以為苦於諸疏之繁亂。囑余為撰大旨。余謂。治禪者。多樂觀大旨。然曲折有所未晰。終不能盡掃餘疑。而遽以己意通之。其失靡細。乃為廣翼解。而作略疏。間亦博採眾說。融為一家之言。大旨固不憚闡揚。而曲折亦所必晰。務使觀者。觸目而爽然會心。不為經文所蔽。諸疏所亂而已。天台耶。賢首耶。固未暇問其後塵也。前三卷成於開元溽暑中。秋歸福州鼓山。繼成三卷。明年春有浙西之行。諸鄉紳留居苕谿之真寂。後四卷始克成焉。戊寅燈節後。樞李曹愚公侍御過訪。暫一寓目。不勝嘆賞。遂命工災木。工既竣。乃謹識其歲月於此。蓋一時緣起之功。未可忘也。

諸祖道影傳贊序

癸酉之春。樞李沈君敷受。遊學劔州。謁聞谷大師於寶善。以祖影八十八尊。請為傳贊。大師屬不慧為之。甫及半。陽羨曹安祖大參書來。亦以傳贊為請。則加至一百三十餘尊也。不慧自夏徂秋。凡五閱月。而後成。繕以報命。會曹公備兵中州。流寇入境。戎事孔棘。弗克登石。及寇退。得告以歸。歸則病。病且不復起矣。無何。聞大師遂亦遷化。明年春。不慧出嶺赴弔。浙西諸老。留居真寂。今春因天寧之請。得過樞李。曹君嘉魚來見。首以是書未行為歉。遂同厥弟。發願流通。不慧因為補訂而授之。夫數載之間。二老既已作古。而幻朽之軀。亦且奄奄待盡。今猶及見是書之行。豈非一快事哉。雖然。今之可得而傳者。影也。有不可得而傳者。非影也。觀者倘能因影而求其真。因可傳而得其不可傳。則是書之行。功不唐捐。若徒瞻仰於形似之間。探尋於糟粕之末。買櫃還珠之謔。當知難免矣。又烏用是哉。

釋門真孝錄序

甚矣孝之為義。大也。身非孝弗修。人非孝弗治。天地非孝弗格。鬼神非孝弗通。即無上至真等正覺。非孝亦無由致。是知世出世間之福田。實無有踰於孝者。世俗釋孝。其義有五。即諡法稱孝。其

義亦有五。約之為三。則順也。究竟也。度也。總而言之。則善事父母也。事之而弗順。非善也。順之而弗協於理。非順也。所謂究竟。則順之而始終罔間也。所謂度。則順之而禮儀弗忒也。充此義之盡。非無上至真等正覺。何以克當其稱哉。故知世俗之孝。孝之小者也。釋氏之孝。孝之大者也。奈何世之為僧者。率借我佛之門庭。營一身之私殖。又何恠世俗譏我佛為無父無君乎。錢塘夢宅居士。有慨於衷。乃取諸經論之言孝者。彙為一編。使為僧者。知我佛孝順至道之本意。以免世俗無父無君之謗。其用心亦良苦矣。茲來苕上。命余弁其首。此余素所樂道者。故不敢以不文辭。

傳信錄序

粵稽古。大聖人之興。必大有造於世。非偶然也。當梁武之際。義學波騰。專崇講說。其弊必至於膠滯空言。弁髦實踐。釋尊之化。幾何而不湮滅也。故少林出。而不立文字。獨傳心印。雙林出。而不惜軀命。廣弘萬行。二師所用。似若天殊。然總歸於補偏救弊。措羣靈於安樂之境。其指一也。至於雙林法身諸頌。遂為宗門鼻祖。反似發少林未發之機。謂非慈氏後身。其能然乎。余來癸暮月。即遇大士錄。如獲上珍。及閱之。覺其雜糅相半。莫覩全璧。前卷雖有增飾。而本質未亡。後二卷率多膚學應酬。村老傳布之語。如行路難行路易諸篇。又俱唐以後體。其為偽撰何疑。且其間妄談般若。疑悞後來。迷謬相承。為禍烈矣。所幸者。心王銘。法身頌。諸篇尚存。如披沙見金。精光奪目。大士之化。於是乎不滅也。余不揣凡愚。妄希擇乳。取諸本而較之。置其所疑。錄其所信。凡得十之五。命名曰傳信錄。昔者世尊入滅。而水潦鶴之徒。至不信有阿難。今大士化去。千有餘年。余何人。斯乃欲取信於天下乎。雖然。碎金非全。識者亦珍。腐鼠為璞。良賈知其弗顧也。詎可謂天下盡水潦鶴之徒哉。若必欲探其全。則有雙林之舊刻在。

金剛瀆蒙序

金剛一經。為般若要義。故受持甚盛。而註疏亦甚夥。古今不下數十家。然彼是此非。玉石爭鳴。後學莫知所從。獨無著天親二論。遠宗內院。似為可據。厥後圭峰長水。復從而疏之記之。一以二論為指南。然其語或失之晦。或傷於冗。觀者病焉。由是寶善心師。乃祖二師。為瀆蒙。而晦者顯之。冗者裁之。間亦時出別意。率皆稟承師說。以仰補二師之闕者也。是疏一出。而老師宿學。久懷疑悶者。可一見而豁然。詎曰瀆蒙哉。憶昔壬申之秋。余訪聞谷大師

於寶善。大師為余。談金剛奧義甚快。余曰。盍註之。大師搖首曰。大非易事。昔雲棲先師。於諸經。或講或註。獨於是經。不敢講。亦不敢註。今不揣饒舌。犯先師之所禁。亦不過自述其一得而已。後五載。大師沒於真寂。余忝繼其席。又五載而歸。冬寓寶善。心師乃出瀆蒙示余。且曰。先師講而未註。堅今不講而註。非敢曰成先志。但恐年月駛遷。微言欲絕。故筆之。以示後人耳。余受而讀之。頓覺大師當日談笑。儼然如在目中。大師為不沒矣。故為之僭。引其端。

重刻華嚴要解序

華嚴為世尊成道。最初所說。實稱性之直談。非逐機之曲說。他經不可得而竝擬者也。昔杜順大師。首為發端。賢首繼之。頗暢厥旨。至於清涼。而表裏發揮。罄無餘蘊矣。然其旨幽。其理圓。其文富。其義豐。非淺薄之機所敢窺。故學者多望洋而退。至方山李長者。則別為合論。約繁就簡。獨明大旨。蓋是大聖方便。用接此方好略之機。非二師之有軒輊也。溫陵環禪師。既宗合論。而復參合清涼。折衷以成此解。僅一萬八千言。使學者得此解。而窮之。則可以納履於方山。游刃於清涼。而所謂塵說剎說。熾然無間。稱性周徧者。又豈有外於是哉。劉君仲龍氏。重為殺青流布。蓋以一念信心。投入華藏海中。作斯佛事。是亦華藏海中。一滴之功也。然須知一滴全收巨海。巨海全歸一滴。百城煙水。十會深談。端不出此一念耳。余來溫陵。幸值斯典。劉君且以弁言見命。余雖不敏。聊題數言。用表隨喜之忱云。

鼓山志序

鼓山之鎮我閩也。非獨以其形勝奇偉。足冒羣巒。寔以諸祖之碩德宏聲。輝映千載。故東南半壁。咸式仰之。是豈可令其湮沒於涼煙荒草。而弗之傳乎。若夫考古傳今。實惟志之是藉。茲山古無志。志之自永樂問釋善緣始。然序列無紀。采錄亦疎。觀者病之。至萬曆戊申。郡紳謝在杭。同布衣徐興公。再為纂輯。則綱舉目張。井然有紀。旁搜遠攬。纖悉靡遺。大有功於是山者也。迄今四十六載。黃金重布。紺宇再隆。石門壁聳于青霄。毒鼓雷轟于白日。亦庶幾讀獅絃之絕響。繼喝水之遺聲。且遊履日眾。歌咏日繁。興公復采而集之者二卷。及余自浙東歸。興公以所集見付。曰[火*勃]老矣。精力弗逮。師其卒成之。余頂受。如獲瑾璧。由是乃因前志。而更修之。詳其所未及收。廣其所未及紀。間有訛誤者正之。

泛濫者刪之。合之為目者六。為卷者十有二。余山野之鄙人也。三長有愧。五技俱窮。何敢妄登作者之壇。但為當今之世抱長才者。方志圖其大。弗暇及此。或有餘力者又鮮。究心禪學。則以茲山為登眺之區。吟嘯之境而已。任是者實鮮其人。況余今年及衰暮。木末殘照。光景幾何。釋今弗為。後將安託。故不揣愚蒙。謬成斯志。志成。以山野之筆。不敢邀弁首于名門。但自敘其顛末。以告來者云。

無異大師語錄集要序

佛祖之道。如金剛王寶劍。得之不易。用之不易。付之亦不易。以其皆不易也。故傳持斯道者。實鮮其人。而魚目混珠。山鷄冒鳳者。嘗半天下也。我曹洞一宗。盛於唐。衰於宋。至元似復盛。而實衰。其故蓋難言之也。自元初。雪庭裕公奉 詔住少林。天下學者。翕然宗之。歷傳至萬曆改元。小山書遷化。詔幻休潤補其席。四方之腰包而至者。如鳥投林。如魚赴壑。而潤公乃講習評唱為事。大失眾望。時有蘊空忠和尚。先事小山老人有年。受其密印。歸隱盱江之廩山。天下不得而物色之。壽昌先師。從其薙落。後蒙記莛。始為弘揚。既得博山來公繼之。其道遂大行於世。師苦參日久。備嘗險阻。故其言功夫。為獨詳。其慧光渾圓。辨才無礙。波瀾浩蕩。莫窺涯際。故學者多望洋而退。其門庭緊密。金鑰立辨。高提祖印。不妄許可。故假鷄聲韻者。不得冒渡關津。而惑亂羣聽也。余因先師遷化後。曾相依三載。雖無所得於師。然三載之中。未見其一語。滲入情識。但勉以向上事。則師之有造於余。也大矣。及余隱荷山。師自石鼓歸。道經建州。晤於光孝寺。師曰。壽昌塔掃也未。余曰。掃即不廢。只是不許人知。師曰。恁麼則偷掃去也。余曰。某只如此。和尚又作麼生。師曰。掃即不廢。只是不曾動著。余曰。和尚却似不曾掃。乃一笑而別。及師入滅。其語錄浩繁。連編累牘。流通為難故。遐方僻壤。聞師之名。向師之化。而語錄實未嘗觸於目者有之。余自壬午春。歸錫石鼓。乃因渾朴上人之請。僭於全錄中。擇其精要。類而合之。視全錄。僅十之三。然簡而易行。約而易致。使天下學者。即是窮之。可以見其大全。使知博山之道。其廣大深密。有如此。非癡守一槩者。可恍惚其萬一也。嗚呼廣陵散。不復作矣。今幸其譜猶存。安得於涼風白月中。再聞斯曲乎。

金剛貫解序

劍津之陽。蓋有謝介菴云。謝君為諸生。夙擅才名。屢見知於當道。而伯敬先生。猶重之。近歲乃屏去括帖之習。留心金剛般若。得十七家等解。遂作是註。踰載自知其非。乃削而更註之。適余在劍之寶善。謝君持此註求證。且請弁言。余為卒業。見其隨文引義。貫徹始終。深而顯出之。廣而約言之。使天下學者。讀之無不了然於目。豁然於心。亦善巧方便。接引初機之一法也。劍州般若之化。自謝君始矣。然余不重。謝君之能註是經。而深重謝。君之能改是註。昔橫渠張子。坐虎皮講周易。學者多從之。一日二程至。聞其所講。即撤去虎皮。謂學者曰。某平日所講。皆亂道。近有二程至。精於易理。汝等當從之。繇是橫渠之學大進。卒為名儒。至今學者宗之。今謝君之學。且三更矣。其年尚富力尚強。靈心慧質。可以坐進斯道。忽一日能破是註而焚之。則周金剛□再來矣。又安論橫渠。老僧當為之拭目以俟。

泉州開元寺志序

泉南舊稱佛國。名山勝剎。碁布星列。然開元一剎。實為之冠。蓋創自唐之垂拱。是歷年所。為最久也。廣至一百二十院。是聚毳流。為最繁也。其禪教律三宗之彥。雀起而鼎立。是毓賢哲。為最盛也。有剎若是。則往事之可書者。宜不勝夥。豈可任其湮沒。而莫之紀乎。茲剎自唐以前。未有紀之者。紀之自宋許列始。名曰紫雲高僧傳。元夢觀氏譏其剽竊。傳聞附會。穿鑿侷陋。不足觀也。乃作開士傳。其學博其識端。其命意奇拔。其鑄辭典雅。允登作者之壇。稱善史矣。過是以至今日。寥寥三百餘載。禪風弗競。日就陵夷。似無可紀者。然其間或興或廢。或因或革。則亦不可無考也。萬曆丙申。止止陳公始為之志。而探考疎略。眾弗以為善。崇禎乙亥冬。溫陵諸縉紳命余開法紫雲。說法之餘。追詢往事。首得開士傳夢觀集二書閱之。始知紫雲之多賢。實不勝感慕之私。時季弢黃公屢以寺志為言。而余適承二雲曾公之命。方有事於楞嚴。故弗敢諾。迨壬午之春。余自浙歸閩。諸公復召結制。而幼心傅公復以志事請。乃不揣鄙劣。率爾操觚。凡元以前。一以開士傳為據。後此則考之舊碑及陳氏志。且傍採他集。而益以耳目所覩聞者。錯而綜之。類以聚之。其為目凡四。一曰建置而規模著矣。二曰開士而才德章矣。三曰藝文而琬琰重矣。四曰田賦而供需具矣。四者既備則一寺千載之陳蹟。庶幾可得其槩也。雖然。余何能志哉。余南州之鄙人也。學儒不成。棄而學佛。承諸公之命。兩至溫陵。虛弄口鼓。深愧無以報德。諸公不以為不才。猶以志事相委。其母乃代

大匠斲乎。鹵莽塞責。聊以補一時之闕。他日有具如椽之筆者出。則此志退而覆瓿可也。

淨慈二書序

昔我佛設教。非止一術。如大醫王。徧療羣病。而處方各異。雖曰佛智難量神化莫測。亦惟是因時因機。視其所急者。而先之耳。茲者法當末造。教化陵夷。眾生之根性日劣。修諸法門鮮。克成就必藉我佛之深慈弘願。庶可破魔網而出苦輪。是念佛一法。實為今日之最急者也。世運衰微。俗尚殘忍。眾生之殺機日長。惡業日深。故致干戈。滿地生靈塗炭此非挽之。以仁慈又安能已殺機而轉殺運乎。是放生一法。又為今日之最急者也。吾人生當此時。日擊世變。修此二法。固宜如救頭然。如沃焦釜。豈可少緩然。無奈其情關久閉識鎖難開。反以此為虛誑而嗤之。即不然亦視為不急之務而已。其無乃警策之功少。而發揮之力有未盡歟。余昔為建州淨慈庵。作淨慈要語僅二卷。時為二者之書。連編累牘。觀者多苦其難徧。於是反博為約而成要語。使諸人不煩廣閱。而深悉其旨。所謂易則易知。簡則易從也。梓行已二十餘載。今莆田六觀居士乃博採經論而彙輯之。成淨慈二書。視余作將十倍之。余見其文富義豐。徹底播揚。使淨慈之旨。無不曲暢傍通。炳然昭著。正如春雷鼓蟄。春風吹萬。其警策之功。發揮之力不已至乎。是知。辭寡辭多。諸書之撰述弗一。好詳好略。羣生之根器各殊。故約之為要語不為慳。廣之為二書不為侈。亦竝因其所宜。而投其所急者也。余深善居士之有是書。故不惜膚言。僭辨其首。

淨土四經合刻序

三山楊逸凡居士。篤信淨土。取寶積經無量壽如來會佛說阿彌陀經佛說觀無量壽佛經并華嚴行願品合刻之。總標云淨土四經。刻既成。命余序之。余乃焚香稽首而言曰。現水月之淨刹。攝幻化之眾生。佛佛皆然。非獨一無量壽佛也。釋迦出廣長舌相。說經三百餘會。歷稱諸佛淨土。奚啻百千萬億。亦非獨一極樂世界也。但其間極口讚揚。苦勸往生。為一切眾生究竟成佛之大方便者。則唯極樂是歸。而他土弗與焉。諸經中述極樂功德莊嚴者。莫詳于無量壽如來會。其示往生行相。則以發菩提心專念彼佛為本。以積集諸善根為助。而又加之回向發願。以導歸極樂。語意最為周備。其次為佛說阿彌陀經所讚極樂功德莊嚴。與前經大意俱同。但有詳略之異耳。其示往生之因。則不言發菩提心及積集諸善根。但耑勸執持名

號。即是多善根福德因緣。法簡而易。從亦能徹上徹下。普攝三根。此土依之而修者。多獲往生。則其益為甚廣也。若觀無量壽佛經者。乃以彼土之主伴依正。俱為繫念之境。使行人身居娑婆。而神遊淨土。豈有沒而不往生者哉。其後三觀。歷陳三輩往生之相。則前二經所未及詳者也。夫一念淨心。即可往生。佛語誠為非妄。但行願未廣。終虧全德莊嚴。法身與淨土。又安得不遠待多劫乎。昔普賢之十大願王。則廣大難量。靡所不包。所謂菩提心必于此而圓滿。眾善根必于此而具足。法處比丘攝二十一億清淨國土。發四十八願。廣接十方念佛眾生。亦皆不出此法。無二無別也。今合四經而徧窮之。則見其文旨。互陳高下畢列眾生。合隨其根力。同取淨土。蓋臨終十念。與普賢十願。惟是一心。極樂一剎。與二十一億諸剎。決非他物。總之指果。佛以顯自性之佛。指果土以顯惟心之土。法門之善巧方便。誠無出其右者固宜。諸佛同讚。諸祖同稱。以為成佛之要道也。然此法門最為平實。而功利殊常。淺者多弗能信。一有疑悔。則淨業難成。昔有難予者曰。心量本周。渺無邊際。今端念一剎以自局。則偏而弗圓。凡所有相。皆是虛妄。今貪影響之外境以為淨。則幻而非實。況厭穢欣淨。則分別之見不忘。舍己從他。則狂走之情未歇。是知。念佛一法。乃為中下之根。巧設方便。誘彼進趨。正同黃葉化城。非為真實。今子極口讚揚。以為成佛之要道。則是認黃葉為金錢。執化城為寶所。非獨自悞。兼且誤人。竊于子不取也。予曰。子之所據。竝是我佛誠言。但子不能深達其旨。故有斯難。如所謂心量本周者本體也。端念一佛者工夫也。執本體而疑工夫。又奚獨念佛者之為偏而弗圓哉。所謂凡所有相。皆是虛妄者。空宗破相之談。獨不思有所謂一色一香無非中道者乎。又不思有所謂一聲念佛十六妙觀皆三觀圓融者乎。所謂厭穢欣淨。分別未忘者。固矣不知。淨穢雙泯者。到家之事也。分別未忘者。路途之事也。今責窮途客子而曰。何不享在家之樂。不亦悖乎。所謂舍己從他者。謂彼我橫分。而向外馳逐。則誠謬矣。今念佛一門。以心念佛。全佛是心。以佛攝心。即心是佛。原無內外之分。烏有舍從之異哉。客於是語塞而退。今因述四經之旨。竝拈舊日葛藤于此。非敢于佛頭上著糞。蓋以釋疑而勸信也。是為序。

重刻大慧禪師書問法語序

達祖西來。單傳佛之心印。此印不落陰界。故非思惟之所能通。不涉名相。故非語言之所能解。惟在捨諸方便。以神智冥契而已。故世之求道者。每苦于窺伺無門進趨無路。如停驂頓轡于懸岩絕壁之

下。求其能逸駕而馳者。不亦難乎。繇是佛祖廣設方便。乃有參究之法。俾其從有思以入無思。從有言以入無言。自唐以至宋元。諸祖竝依此法。得入佛之大光明藏。其有不善用心者。則滯于思惟。溺于言語。而禪病生焉。禪之有病。其症非一。或有墮于孤危者。則以孤危為禪。或有墮于平實者。則以平實為禪。或有墮于險怪者。則以險怪為禪。或有墮于廉纖者。則以廉纖為禪。此皆繇其見有偏枯。故情存向背耳。至有一等全無見處。但穿鑿文句。以為參究。或閉目靜坐。以待成佛。此乃症之最下者也。昔當宋南渡後。有妙喜老人出現于世。從有句無句下。發明大事。得甚奇偉。同輩鮮有及者。見世之病。卒莫能愈。乃以無礙辨才。直抉其根。繇深破其巢穴。如手然犀炬。魑魅難掩。如迅雷破寂。聾者皆聞。其開示痛快。真千載一人也。萬曆間吾閩普門居士泰宇楊公取其錄中書問法語。別刻以行。可謂善施方者也。惜其板遭兵燹。溫陵崑刻書問。竟遺與曾天游書六通。不無缺陷之嘆。今楊椒斯居士。復承先志。乃為補足。而重刻之。刻既成。持以示予。且徵序焉。予曰。善哉子之能助我也。能起予也。予思。今禪家之病。視妙喜時。不啻十倍。總之皆最下之症。多是師友商量。口耳傳授。如天奇之註頌古。少林之講評唱。非特不能無思。皆邪思也。非特不能無言。皆妄言也。非特不能傳佛印。且佩魔王之印也。是之謂膏肓痼癖。豈世醫所能愈哉。昔虢世子有尸蹙之疾。世醫拱手以為死矣。惟秦緩知其可救。為鍼三陽五會而活之。今日之為尸蹙者眾矣。妙喜之言。正秦緩之金針也。可不深思而服膺之哉。雖然。此書蓋為有病者言之也。至於上智之士。若青原永嘉之見曹溪。南泉大梅之見馬祖。如世良馬見鞭影而行。則此書翻成贅語。而吾道幸甚矣。吾安得若人而見之。旦夕且跂足焉。

永覺和尚廣錄卷第十三

序下

金剛略疏序

眾生汨沒於生死海中。頭出頭沒。無有出期。其故何哉。良以。心鏡本淨。像色元虛。而眾生認以為實。由是起欣厭。生去取。造妄業。而自甘招幻輪而忍苦。譬如夢中見虎。人與虎而俱非。眼裏生花。眼並花而交病。執之不捨。寧有已時。我佛憫之。為說破有之法。名大般若。般若凡有八部。而金剛其一也。金剛凡有六譯。而秦譯其一也。文約而義豐。辭顯而理奧。實為八部之精要。其指歸於破人法之妄執。了一心之實相。令諸眾生不取於相。如如不動而已。余弱冠時。即知讀此經。求其義於諸疏。心殊厭之。以理本直也。而釋之以紆回。辭本顯也。而索之於隱昧。蓋多絆於二論之葛藤。而不能自脫者也。及有弗宗二論者。則又妄逞胸臆。越宗趣而違佛旨。識者呵之。故疏金剛者。不下數十家。求其善疏。莫之或聞。辛巳之秋。余自婺返建。寓居寶善。時心石師作金剛瀆蒙。一宗圭峰長水。而刪繁就要。以便初機。命余訂之。余雖從事其間。亦不過依他作解。因人成事而已。於己心中。終未能安。故金剛一疏。反成不了之業。迨乙酉春解制後。倦於說禪。終日坦腹而臥。無以消閒。乃取是經日疏之。盡誅舊日葛藤。獨揭斬新日月。但理求其當。辭求其達。無紆回隱昧之弊而已。三易稿而疏成。客有難余者曰。古疏上祖慈尊下宗二論。無片言隻字不有所本。今子棄之而弗從。豈子之智。能超於諸大聖哉。余曰。是不然。子謂天親能背無著不。曰不也。子謂無著能背內院不。曰不也。子既謂三聖相承。如水傳器。則宜確守師說一字不敢移易可也。今觀天親立二十七疑。已非無著之意。無著分一十八住。亦非內院之言。則何其分道而馳若此哉。子若知無著天親之必不背內院。則知余今日之必不背無著天親也。客謝而退。因并錄之。以弁簡首。

四分戒本約義序

昔庚辰歲。余在杭之真寂。欲效顰圭峯。挈毗尼之要。以示晚學。卒以病阻。迨今春自鼓山來寶善。謝絕參請。但弘唱毗尼而已。諸人以戒本請註。作新戒方便。予曰。此宿志也故諾之。發筆於仲秋

初旬。輟筆於孟冬末旬。凡三閱月。三脫稿而後成。其中若事若義。悉採之四分律藏。所有開遮。亦悉本佛制。非敢妄以意裁也。嗚呼是書之成。乃在今日也耶。今當此乾坤鼎革之際。草昧未寧之秋。白刃凌空。橫尸遍野。居民逃奔。山谷旦夕。莫必其命。而余乃力疾作此何哉。蓋以人知世運之變。其苦為甚。而不知法運之變。其苦為尤甚。世運之變苦在一時。法運之變苦在萬劫。一時之苦禍止殺身。萬劫之苦禍極三途。以此較彼。豈百千萬億。能及其一哉。但人見已然。不能見未然。故於此則驚惶失措。於彼則怡然苟安也。余慨。自天啟以來。耆德凋喪。晚進日趨日下。如狂瀾之莫迴。且又妄逞空見。弁髦戒律。不有防之。後將安極。余所以孳孳亟亟。勉成此書。未敢以世難阻也。但思。行此書於今之世。正如鼓瑟於齊王之門。不鄙而嗤之則幸矣。況敢望其依而習之乎。雖然。此亦告朔之羊也。或存或去。是在仁者。

律學發軔序

丙戌之冬。余作戒本約義。終客有以律學揭要請益者。余閱之大都。目不見律。而襲取他書。乃水潦鶴之徒所輯也。因為作律學發軔以示之。言發軔者。示慎始也。夫萬里之行。起於跬步。跬步一錯。萬里徒勞。故初學之士。不可不慎。若夫誤信。非人誤習謬說。將有終身而不知其非。歷世而傳以為是者。其遺害可勝道哉。今之所輯。姑示諸戒之大端。使知所向。方雖未極其廣大精微之致。然即是而求之。則所謂廣大精微者。固不出此。正如出門膏車。先端塗轍。將無遠之弗屆矣。成是書雖眇。所關甚大。余所以不避委瑣之誚。以成之也。若夫高明之士。自當博閱全律。何是書之足云。

合仁王護國經疏序

昔天台智者大師。廣說諸疏。皆已廣行震旦。獨仁王一疏。流落海外。凡數百載。至宋藉賈客之力。始還本土。亦弗克大行於世。僅秘之龍藏而已。近因國運式微災變迭至。本炤上人深抱杞人之憂。乃鏤仁王經板印行。普勸持誦。繼而為霖上人又謂。經義幽遠。非疏莫通。乃取天台舊疏合之。夫此疏傳自陳隋。已千有餘載。而若存若亡。不能大顯於世。雖老師宿學鮮有得一見之者。今二子乃能舉行於四海鼎沸蒼生塗炭之秋。是知此疏與末劫眾生。有大因緣。故龍天借其力。以疏通之歟。但願。人人因疏而通經。因經而達理。則般若神力。靡所不破。亦靡所不護。而佛果菩薩。且賴之成。

立。況國土乎。況生靈乎。或者謂治亂循環。天之所命。閉門誦經。前人敗德。今又何取於此。余謂。治亂固由天命。天命實本人心。故人心者。治亂之源也。非獨釋氏侈談此旨。即遠稽儒典。若大易。若洪範。亦備載之。豈可盡委之。天命而無造命之術哉。誠能深味此經之旨。則造命無遺術矣。知命君子。請於茲三致意焉。

楊惟遜主政詩集序

今春之仲。予以祝釐事趨行在。得晤楊君惟遜氏。見其英銳超逸。真奇傑之士。猶疑其必工於詩。久之出近稿相示。則見其蒼雅沉鬱。方軌作者。而忠義之氣。時勃勃見於筆端。乃知惟遜之果工於詩也。然余謂。其資可以進道。其才可以應世。而何獨致工於是。其無乃家本寒素食貧有日。其困鬱無聊之氣。悉憤而發之於詩。故其詩獨工乎。則予悲惟遜之能有是詩也。今避亂入閩。遭逢聖主拔主駕部。豈可仍前作雕蟲之業。固宜戮力勤公。劬勩王事。蕩平海內。復我青氈。然後作長歌短賦。以粉飾太平。不亦快乎。故予不願惟遜之獨有是詩也。予本山野枯衲。以禪為業。今於惟遜。不能以禪學進。而乃以功名勸何哉。蓋當此臥薪嘗膽之日。受人之爵。食人之祿。而以禪自高。則非人心也。惟遜豈其人乎。俟他日功成名就之後。布袍黃冠。訪予於石鼓峰頭。固當自有別論。

澹軒集序

昔莊生論詩云。詩以道性情。溫柔敦厚詩教也。即此觀之。則詩惟在得其性情之正而已。後世之論詩者。反是專以雕琢為工。新麗為貴。而溫柔敦厚之意。索然無復存者。是豈詩之教哉。潭陽立上人素不學詩。然亦有其詩。蓋逢緣遇境。偶有倡和。若詩若偈。各若干首。今夏來劍州寶善。出其全帙示余。予見其詩。蓋有古之道焉。其情宛而至。其氣肅而和。其辭雅而溫。其趣清而逸。無非率其性情之正發其所欲言者。而已至若末世妖麗之形。刻畫之苦。煩囂之氣。浮冗之辭。毫無所與於其間。其於莊生所論。不既近之乎。夫詩之道。其廢久矣。不意。子之能若是。但非世俗所尚。世鮮有能知之者。然子亦非求知於世也。老子曰。知希者貴。子之詩其可貴者矣。故特為弁其首。以貽諸後云。

植桂集序

昔四聖演大易。箕子陳洪範。已究極天人之際。深晰感應之機。然人見世之感應。有不盡然者。故弗能深信。或謂。可以倖得倖免者。或謂。如草木生長榮枯。於大造之中。亦任其自成自化。而天實無意者。至有仁人孝子拂鬱莫伸。卒無以自解。亦不能無憤於天道之無知。而況其下者乎。自佛教西來。首唱因果之說。貫通三世。無微不悉。而大易洪範之旨。始大著明於世。然世猶有忽而不信者。則以其情塵難遣。我相方堅。故於諸聖之言。弗克深省。是之謂違天。是之謂侮聖。罪何加焉。虬溪姜居士志在學孔。而惟違天侮聖之是懼。乃有植桂之刻。入寶善命予弁其首。予曰。子雖善言。其能有愈於諸大聖人哉。故惟以敬天尊聖之說告也。是為序。

晞髮集序

晞髮集者。宋遺民謝臯羽所著也。臯羽抱長材負大志。適逢世難。踰嶺他鄉。而艱貞自守。志不少易。慷慨悲歌。以終其身。聞者莫不義之。余讀宋遺民錄及婺州志。已知臯羽之志節卓然。為宋季奇士。及得是集觀之。始知其詩。若文皆力追唐轍。古風諸什。則與李賀張籍竝駕。五言近體。則與孟郊賈島齊肩。至其所撰諸記。則出入於昌黎柳州之間。總之無片言隻字。落宋人口吻。楊升菴謂為宋季文人之冠。其然乎。然愚謂。士所豎立節義文章。千載竝重。若臯羽者。其孤憤一腔。血淚數斗。直可上追採薇。下同楚騷。非杜子美李青蓮輩。所可恍惚也。且予見黃潛集中。稱其風節行誼。為世所尊師。後進爭親炙之。杖履所臨。一言一笑。無非教也。若然則臯羽。又非激烈任俠。為一節之士也。是豈止為宋季文人之冠哉。予適丁世難方殷之日。屏息山林。憶其人論其世。不得不三復是集。故為序而行之。

繼燈錄序

禪家歷世相傳。喻之為燈。取其能破暗以顯物。亦取其能繼照於無盡也。自宋景德間。道原大師始為傳燈。嗣是則有廣燈續燈聯燈普燈之作。所述互有詳略。學者難以盡考。由是大川濟公。合之為會元。始終一貫。後學便之。功至渥也。若紹定以後諸師。會元未及收者。猶賴續燈收之。但採錄未備。且止於宋末元初。自元以至今日。將四百載。諸師靈光鑿彩。未獲著明於世。伊誰之責乎。愚不自揣。乃於戊子之春。博採旁蒐。冀以緝補前闕。至庚寅夏。復得遠門柱公所輯五燈續略。益補其所未備。無何而病作殊劇。歷三月始愈。愈則目加昏耳加聾。手亦不能復親筆硯。故其所錄。尚闕成

化以下。蓋止乎其所不得止也。錄凡六卷。名之曰繼燈。或謂禪家貴在心悟。語言文字。其糟粕也。何必連編累牘。牽枝引蔓。如五燈耶。況又益之。為繼燈耶。是不知言可以障道。亦可以載道。執之則精醇即為糟粕。了之則糟粕皆為精醇。言顧可盡廢歟。至其所錄。或詳或略。則亦因其時與機之不同。其勢不得不然也。如少林面壁二祖安心。此則上古結繩之政也。繼而有信心銘法寶壇經。則軒轅之書契也。唐世馬祖石頭二派。浩浩說禪。非三代之禮樂乎。宋世五派競興。五燈迭出。非洙泗之六經乎。時當略則結繩不為少。時當詳則六經不為多。要在逗眾生之機。以明本有之性而已。若責春秋之民曰。何不為結繩之簡。不亦悖乎。至今日而猶有作者。非得已也。政如六經之後。復有孟氏之七篇。道性善稱堯舜。倡仁義息邪說。亦以明先王之道耳。豈曰益之而為贅哉。若夫所錄混濫。弗當於西來之旨。則如王通之五經。雖自謂可繼孔氏。而不自知實塵飯塗羹之戲也。其罪戾不亦重乎。此則吾之所深懼。而不能自逃者。尚當質之大方。以俟郢削云。

補燈錄序

達摩西來。創示心要。翻盡從前窠臼。由是分燈續焰。化滿支那。非但坐曲盃床者。能鼓舌播揚。即農夫饁婦。釣叟樵翁。皆能抵掌而談禪悅。此豈一人耳目之所能盡窮。一手編牘之所能盡載哉。唐興以來。紀宗門下機緣者。始有寶林傳。在五代則有續寶林傳及聖胄傳。至宋景德間。道原師始合三傳。而益以近事。名傳燈錄。其同時有李遵勗者。則謂。其所收未詳。乃作廣燈。嗣是佛國白公作續燈。於建中靖國之初。迄淳熙間。晦翁明公作聯燈會要。其同時復有雷菴受公。亦謂。其所收未詳。復作普燈以廣之。此之五燈。卷帙浩繁。學者難以盡通。由是大川濟公。始合五燈為會元。後學便之。但其裁削之下。點額者多。不無遺珠之嘆。況採錄亦自未備。如淮河以北。金有大定一燈。大川亦未及見。則其遺漏。不既多乎。此後復有續燈者。不知何人所作。其所收為最廣。其濫竽者。亦為最繁。然藉此得見前五燈之所遺。則其功亦偉矣。今之學者。惟知有會元一書。續燈則秘之大藏。雖名德俊衲。有終身而弗一見者。嗚呼。諸師之苦口微言。披心瀝膽。僅以承塵土飽蠹魚。不亦深可痛哉。予乃為盡搜續燈。因旁及諸傳記。擇其可傳者錄之。凡得一百八十五人。總而名之。曰補燈錄。夫大道圓明超曠。迥出世數。闕之何所減。補之何所增。但為世諦流通。發前賢之秘光。開後學之智眼。則與其闕之。孰若補之。毋謂。此盡大川已揀之砂。便可棄而弗顧也。

佛祖三經指南序

禪家有所謂佛祖三經者。叢林中傳習已久。大都無高遠廣博之譚。皆日用切近之誨。不過防浮情誠邪業。以軌之于正道。是學佛之初門。而廸蒙之寶訓也。凡為僧者。不可不知。正如為山九仞。功必始于一簣。若舍一簣。而譚九仞。雖童稚亦知其必無成耳。近世禪流。浮慕高遠。耻譚卑近。見此等書。輒掉頭弗顧。妄以為。上根上智。不屑及此也。不知。上根上智。正不妨兼修中下。如飲光尊者。一笑傳衣。稱宗門第一祖。而常行頭陀。終身不舍。豈根智之弗若哉。今此輩根智視飲光。為何如也。不過妄情難制。樂于放逸。故託言高遠。自便其私。吾知其必自暴自棄而已。茲霈子初註是經。用為末學指南。會意發揮。亦自明暢其有一簣之思云。

禪林疏語序

禪林之有疏語。非佛制也。亦非祖制也。但此土有僧以來。引羣生以歸佛海。其間表事陳情。則必有藉于疏。故疏之為用。其來已久。在唐宋時。叢林中特重是職。非才學兼優者。莫與其選。入明以來。僧中堪此職者實鮮。但因襲陳文腐語。苟且應酬而已。予昔在眾日。每任是職。苦于無舊可因。故率多杜撰。應酬積之既久。不覺成帙。有好事者。謬相珍重。抄錄以傳。蓋三十餘年矣。近見有俞君時篤。乃為鏤板于武林。而泉南諸善友。亦復繼武林。而殺青焉。不過謂其事雖細而用實難廢。辭雖鄙而意亦可達。此諸君流通之意也。若諸大叢林中。必有奇杰之士。啟口盡珠璣。揮筆成風雲。又安用此哉。漫題數語。以引其首。

般若心經指掌序

般若無知。諸法本寂。根由一真之妙體。影現二諦之浮名。似實似虛。非虛實之所能擬。亦離亦合。非離合之所能明。所以空而非空。有而非有。互成不妨。互奪並存。亦可竝亡。泯立無闕。隱顯自在。是謂般若之玄宗也。怎奈凡心易惑。智火難然。如舉網以張風。似從波而捉月。徒歷艱辛。翻成障礙。由是百苦交纏。千殃竝集。都由此一念之執耳。茲般若心經者。文約而義寔豐。詞顯而理殊奧。首開空色兩門。專破有無二執。有無盡而實相可顯。色空合而妙義方圓。日用明此般若之道。思過半矣。嘗見諸家註釋。罕臻其奧。唯賢首孤山二疏。果稱法壇老將。但廣摭經論。侈在筌罟。

非初學之所可通。故茲特為指掌。使其易見。所以便初學也。然萬里之行。起于跬步。觀者幸毋忽焉。

刪定筆疇序

明初有隱君子王達。陸沉塞北。撰書一編。命名筆疇。以其言皆平易無奇。而實切于人生日用之常。有如疇也。然予想見其人。必備觀世變。久經憂患者。故所述皆切中時弊。實為衰世。遠害全身之要術。立行成德之格言。且其言既淺近。不必問初機宿學。皆可一見而喻。其勸化為尤廣。而感人為尤速也。使能遵而行之。則唐虞三代之治。又何讓焉。語云。器不必皆瑚璉。適用為先。藥不必皆參苓。治病為急。其是書之謂歟。是書首自戶部郎中林公樞翻刻于金陵。次則右副都御史韓公文。重刻于西夏。此二刻皆三十二章。後山東憲副潘公玉卿。梓行于濟南。而新安戴仲良氏。復梓行于建州。此二刻皆七十七章。予詳之潘戴二刻。乃其全本。而林韓二刻。乃其刪定本也。茲重為刪定。得三十九章。復于每章。各標其目。有如荀焉。建州謝純一氏。見而善之。請梓以公同好。甚盛心也。乃為述其顛末。如此。

壽謝獻可居士七十序

丁酉之秋。七月十九日。屬予八十初度。建州謝君飛卿氏侍乃翁獻可老居士。特齋香供。遠來稱賀。且請陞座。舉揚第一義諦。為四來緇素。結法喜之緣。既而進言曰。愚父子叨居老和尚會下。凡二十餘年。飫領醍醐。佩服法教。無間然矣。茲者八月二十有八日。乃值家君七十初度。親友畢會。敢因老和尚大壽。特丐一言。為家君壽。且欲垂為家譜。使子孫繩繩相繼。為善不墜。予不得而辭。謹按。翁諱以懋。字獻可。建州建安人。姓謝氏念墩桂林其世居也。系出宋駙馬梅谿公。與理學疊山先生。其冠蓋蟬聯。代不乏人。至父頤仰公。好善樂施。有長者風。亦嘗歸依壽昌先師于董巖。持齋念佛。凡四十餘年如一日。生子三人。翁其季也。翁幼習舉業。未遂厥志。然賦性剛方。秉質樸茂。睦族惇親。恤菴周急。任天率履。毫無塗飾。故每為當路諸公祖所賞識。且各有表楔見褒。以彰風德焉。娶陳氏生子六女一。婚嫁皆畢。長即飛卿氏諱旌。少遊郡庠。食弟子餼。文行彬彬。蜚聲藝苑。其餘各安本業。孫曹十餘人。冢孫龍錦繼遊泮。其諸孫則皆嶷嶷爭秀。方進而未艾者。予嘗竊試論之。自乾坤鼎革以來。人心世道。交相變易。日趨于下。殆不可揅。所賴惟善人君子。以佛法陰翊之。庶幾存什一于

千百。不然。何所抵止哉。昔宋文帝。謂其臣何尚之曰。適見顏延之宗炳著論。發明佛法。甚為明理。並是開獎人意。若使率士之濱。皆感此化。朕則垂拱。坐致太平矣。夫復何事。尚之因進曰。夫百家之鄉。十人持五戒。則十人淳謹。千室之邑。百人修十善。則百人和睦。持此風教。以周寰區。編戶億千。則仁人百萬。夫能行一善。則去一惡。去一惡則息一刑。一刑息于家。萬刑息于國。則陛下之言。坐致太平。是也。然當今之世。淳風既漓。而不軌者。以謂。為善無徵。而競趨于惡。以故。兵戈紛錯。刑網稠密。且殃及良民。其慘有不可勝言者。若使天下皆如謝氏。祖父子孫。歷世相傳。奉佛受戒。積善修德。其所以訓誡子孫者。唯讀唯耕。克勤克儉。然則雖有兵刑。尚復何用哉。宋文所謂垂拱坐致太平者。為不誣矣。且翁今年登古稀。而鬚髮皤然。面有孺子之色。其壽考殆未可量也。其俊子賢孫。濟濟滿前。家聲丕振。則善慶所鍾。他日必有豎光明俊偉之業。大度越于前者在也。予老。久不親筆硯。凡求文者。力辭去之。獨于飛卿氏之請。不能忘情。故特為舉佛法之有益于世者。以為翁壽。是為序。

題跋

古梅禪師語錄跋

直指之宗。盛於唐。衰於宋。至元而五燈之失嗣者三。唯臨濟曹洞二燈僅存。然臨濟得之在痛快。而失之在鹵莽。曹洞得之在綿密。而失之在廉纖。至於鹵莽廉纖。而流風餘韻。幾乎息矣。當其時。臨濟一宗。唯雪巖欽。崛起於衰殘寥寂之餘。庶幾不失家法。嗣之者唯高峯妙。鐵牛定。定之後有般若誠。誠之後則古梅友公繼之。友公初參末山本。後受般若鉗錘。卒于鉢盂動定之際。頓斷命根。脫盡區宇。遂據高仰席。握金剛圈。呵佛罵祖。使鬼驅風。衲子之腰包而趨者半天下。則臨濟之道。賴以不墜者。非師而誰。明興以來。斯道益晦。所在登華王座。稱善知識者。輒以野干之鳴。混濫獅吼。鹵莽之甚。莫有今日。又安得起。古梅諸老。而一正之乎。昔者臨濟之道。至風穴而衰。穴升堂演法。輒至揮淚。使其見有今日。又不知痛哭之何若也。茲遊書林登仰山。禮古梅老人塔。獲睹茲錄。正如陰晦長夜。忽睹夜光之珠。故喜躍而跋其後。

雪峯語錄跋

粵自嫩桂肇昌以來。推得人之盛者。莫如馬祖。其次則推雪峰。雪峰老人。從德山棒下。脫却桶底。鼇山店裏。傾盡家珍。便爾七縱八橫。蓋天蓋地。歸闕演法於象骨峯下。不說理性。不事遮遣。但突然而出。凡一言半句。無不超羣拔萃。坐斷古今。非心意識所到之境。真諸佛之慧命。列祖之骨髓也。其後分燈揚化者。凡四十六人。衍於雲門法眼兩派。謂非源遠而流長者乎。予自脫白以來。渴慕雪峯之語。恨不多見。及考之大藏。竟遺落弗收。後得雪峯寺藏板。如獲瑾璧。但見其卷後所錄雜偈。及藍氏遺囑大師遺誡等篇。率多偽妄。反掩前人之美。心殊病之。一日在古書肆中。得元至治間樵隱逸所鏤板。始知卷末所增。皆非其實。今一依樵隱本校定。諸方若欲知木毬下事者。當於是乎求。

鼓山興聖國師玄要集跋

甲戌之春。予初到鼓山。即首詢興聖語錄。無能知者。後檢之大藏。乃得見是錄。然亦僅一小帙。蓋是後人收拾於朽蠹灰燼之餘。非復了宗所集之舊也。缺漏良多。水窟不少。觀者未久輒已欠伸思睡。又安能了其歸趣哉。予乃於暇日。訂其亥豕。刪其重複。庶幾復見興聖面目。大都興聖語言。不尚奇險。不事文飾。但於尋常口頭。顯石火電光之用。瞬目千里。難為湊泊。凡出一言半句。則千人萬人搖撼他不動。擬議他不得。此非肘後懸符頂門具眼者。其能然乎。當知。象骨家傳。本自如是。師能深得其旨。故當日有聖箭子之稱也。茲為校定。用備高鑑。昔竹菴珪謂。是錄唱高和寡。後世禪學。或不能知。今日而有能知是錄者。則鼓山道法。不至寂寥也。

題卓吾焚書後

卓吾與天臺。初為莫逆交。因論學不合。遂至成隙。後二家之徒。亦互相詆訾。至卓吾不得其終。皆論學為之媒也。此其病在以情學道。以情學道故靡不溺于情。雖學問益博知解益廣。而我執之情益盛。由是堅愈甲冑。利愈戈矛。其勢不至于相殘不止也。其所持論。天臺以人倫為至。卓吾以喜怒哀樂未發為至。余向居楚時。所接緇白。率皆左袒卓吾。余謂。天臺勿論矣。即卓吾亦未能無過也。譬之手焉。舒則為掌。卷則為拳。拳掌雖殊。手體不變。何容取舍哉。今所謂人倫之至者。拳之舒為掌也。所謂未發之中者。掌之卷為拳也。一則執掌為至。一則執拳為至。其相去能幾何哉。使其知手之體。則所執拳掌。特龜之毛兔之角耳。蓋聞。道不涉動

靜。而常為動靜之體。道不落有無。而常為有無之君。今之學道者。必欲舍動而取靜。舍有而取無。是豈中庸之意哉。昔韓大伯點雪竇偈曰。一兔橫身當古路。蒼鷹纔見便生擒。後來獵犬無靈性。空向枯椿舊處尋。卓吾執未發之中。正所謂枯椿舊處尋也。豈知喜怒哀樂之際。而未發之中。已如赤日懸空。無可逃避哉。其所見若此。所以不能轉喜怒哀樂。而為喜怒哀樂所轉。當逆浪顛風之會。生死危疑之間。毫無主宰。遂至自刎。哀哉。

題般若無知論後

紫栢老人跋此論云。用之以出世。度越諸乘。穩證自心。用之以經世。即事即理。橫拈倒弄。靡不合聖帝明王之轍。客有疑般若之道。不宜於經世者。余謂。般若之所詮者二空也。二空之所顯者一心也。此心既不受人法之障。則虛而靈寂而妙。世出世間。何用而不可哉。倘謂般若不宜於經世。則是一心不宜於經世也。一心不宜於經世。則堯舜禹湯文武之治功。果孰從而建立乎。且愚觀古之為帝為王為賢為聖者。靡不由忘人法。而後能臻其妙。使其法不忘。以法成礙。人不忘。以人成礙。人法交礙。百過俱萌。雖欲踐仁義修禮樂。不過勉強安排。外襲其跡而已。一遇榮辱毀譽之加。能受之若虛空乎。利害得失之際。能視之若龜毛乎。生死險惡之會。能挺立如金剛乎。不特此也。即一技一術之微。人法不忘。亦無能臻其妙者。如舞劍者。必手與劍忘。劍與手忘。然後縱橫拋擲。靡不合度。稍有不。則局於度矣。如斲輪者。必手與輪忘。輪與手忘。然後疾徐應心。不乖其則。稍有不。則失其巧矣。由此觀之。孰謂般若不可以經世哉。壬申初春讀此跋。因客問而為題其後。

題招慶放生卷

放生一法。豈佛海之仁波。脫世間之苦阱。雲棲老人舌根拖地久矣。招慶慧空師續演其波。乃開池結社。月為一會。人樂從之。且以其地控湖山之勝。波光映月。翠色浮烟。川泳雲飛。悠然得所者。固甚眾也。今空師特持楮來。索余一言。余復何能贈金之黃哉。然不免為塞白以歸之。祇如古人道。護生須是殺。殺盡始安居。既是護生。作麼生用殺。莫是本自無生。安得有放麼。莫是生即無生。放即無放麼。莫是據南泉斬猫之令。用歸宗斷蛇之機麼。若恁麼會去。却似隔山取火。月下挑燈。大沒來由。畢竟作麼生。呵呵。湖南羅漢長相對。直為宣通古至今。

題周振伯居士血書金剛經後

般若妙光。如金剛燄。無可湊泊。如金剛劍。無可護存。三千諸佛不敢出頭。歷代祖師無處藏身。又豈手筆之所可描寫。血紙之所可呈似哉。今居士穴膚瀝血。力書此經。以報母恩。福德不無。但不免是世間之孝。更須知此一點一畫。無不出於居士之筆與血。此筆與血。無不出於居士之手與身。此手與身。無不出於居士之報母一念。今問此一念。果自何來乎。若能從此看破。則無能寫所寫。無能報所報。無能生所生。亦無無生矣。至此則汝母成佛。其來已久。經云。其福德與虛空等。非算數譬喻所處及。豈誑語哉。居士勉之。

重刻仁王經跋

仁王護國經者。詮性空之玄慧。顯實相之妙體。護佛果護菩薩。捨此更無他道。然今獨以護國得名者何。以此道用之以治心。則坦趣寂滅。用之以治國。則坐享無為。至於世運式微。災難竝興。其根苗所起。積禍之原。非此亦莫能拔而除之。故佛與諸大國王。丁寧再四。令各受持以綿寶曆。以益睿算。以殄天災。以紓民困。功利殊常。未可億測。宋元間。叢林朔望。必共宣揚。至我明。叢林之禮法既廢。此經無或知者。近日潢池弄兵。天驕肆虐。饑饉沕臻。蒼赤塗炭。聞谷大師深抱杞人之憂。乃命工鏤板。俾眾諷誦。以仰答國恩。然登高而呼千里。無或應者。建州黃梅菴本炤上人。獨能抽資。梓行閩中。使大師若在。其歡喜讚嘆。當何如也。茲令厥徒。齎經來婺。命予為跋其後。余隨喜讚嘆。固不勝踴躍。但更願。凡我同倫在處諷誦。俾天災永靖。鼇極常安。庶幾不負我佛囑累之訓。亦不負聖天子覆育之恩也。若謂此經不充應赴。視為閑典。豈釋子之用心哉。

永覺和尚廣錄卷第十四

記

請方冊藏經記

諸佛慧命。非文字也。然托之文字以傳。故善讀者。化文字為慧命。不善讀者。化慧命為文字。雖曰化慧命為文字。而文字之存。即慧命之存。如春在花。花未殘則春為未殘耳。震旦以文字寄慧命者三藏也。六朝以前。諸經始至。唯唐為最盛。至宋而寢衰。即譯經之局。僅一開而不能再。至元則譯經之局弗開。然藏板流通。尚不下二十餘副。至今日則前板散失。視元已少十之九。僅有南北二藏而已。南板歷年既久。字畫寢沒。且舛譌甚焉。北板雖善於南。而藏之禁中。非奉明旨。誰敢問之。夫僅僅千載之間。而盛衰相懸若此。使再傳數百年之後。則二板之存。果可保乎。二板既不可保。有再刻藏如高祖成祖者乎。二祖不再出。則慧命無所寄矣。誠思及此。則大法垂滅。已若日之墜西。歲之臨暮。欲延慧命以待將來者。可無數百年之遠慮哉。嘉靖間。袁汾湖嘗憂之。而力不能舉。萬曆間。紫栢老人痛劇於衷。乃與諸宰官。往復較量。易梵帙以方冊。以其價廉而功省。易為流通。使寒邦僻邑。皆得窺佛祖之秘謀。甚善也。第惜當日任事者。唯法本道開二師而已。法本早已作古。道開亦以病隱去。老人且以妖書之旤。竟至長逝。而刻藏之緣。遂乃中阻。後雖有繼之者。率不得其人。唯賴金壇諸金湯。稍續刻之。然僅及十之六七。又不知完局當在何時也。吾觀紫栢之悲心熱腸。如惜命根。如掬頭然。而後人乃若秦人視越人之肥瘠。非徒無益。且因以為利焉。人品之相懸。何至此乎。崇禎戊辰之春。秀實居士來荷山。談及方冊藏經。欣然願請之。余乃以六月八日。冒暑踰嶺。七月朔抵樞李楞嚴寺。以暑毒抱病甚劇。半月而病差。請經以歸。至錢塘值海潮之變。水陸居民。滔沒者以萬計。而余舟獨脫於險。則藏經之力也。然帆落水。而舟幾覆者亦三矣。舟至清湖。山溪亦湧漲。平陸成江者七日。及水落。則路崩橋折。涉者往往遭溺。至八月十七日。始還富沙。居士一見喜甚。而不能言。蓋余未歸前數日。有傳余病劇者。又聞浙中大水之災滔沒甚眾。故居士一見。如隔世再逢。喜可知也。嗚呼斯藏詎可容易哉。紫栢如申包胥號泣秦廷。苦心血淚。積數十年之久。始克就此。而居士慷慨揮金。余則出萬死一生。以獲斯藏。斯藏詎可容易哉。後

之觀斯藏者。倘能由誦讀而精義。由精義而入神。由入神而致用。庶幾不負刻者請者之勤勞。而諸佛慧命。且藉是而輝映於不窮耳。是為記。

重修聖泉巖記

潭邑之南鮮巨剎。剎之著者唯聖泉。乃唐劉大師卓錫處也。大師嘗遊此山。以錫卓石。泉隨錫涌。鄉人異之。遂為立菴。嗣是代有興廢。邈不可稽。勝國之季。僧普德拓而大之。稍如叢林之制。立田百畝有奇。迨國朝正德間。斗峰僧道昂來主院事。適縣奉部檄。取田入官。而存者無幾矣。續有徒德勝繼之。遂克大振其業。重創大殿禪堂丈室三門。視舊制倍之。時當嘉靖七年也。至三十年。建橋九間於山之麓。復甃石路。自橋直抵於庵。其衣鉢之餘。仍立田以充香膳。勝公沒。甲乙住持。內外恒數百指。至天啟初。屋復老朽。眾僧欣然。各殫其力。若大殿。若禪堂。若丈室。皆更新之。功告畢。是為崇禎元年。茲夏以河伯之患。橋為崩塌。眾復建之。如勝公之舊。時僧益眾食益繁。田之入者弗給。乃共增立。至若干畝。嗚呼盛衰何常。要在得人。勝公之後。亦可謂有人矣。朽者新之。闕者補之。予於後人何誅。雖然。梵剎之建立。詎可以創修當佛事哉。予束髮遊其地。知聖泉稔矣。所居霜顛螺頂。楚楚令儀。視諸剎為獨勝。今復遊此。則見其朱楹畫棟。掩映岩巒。綠疎青瑣。吞吐雲月。其超軼前規。為何如也。然諸君亦頗憶前人之事否。予聞。昔嘉靖間。禪堂如斗。聚十數衲。修圓覺觀。於時金峰禪師為座元。天真禪師為西堂。尅期三載。多獲現證。非汝岩中之故事乎。萬曆初。雲陽禪師。以居士服。來聽楞嚴。遂從剎落。卒為大善知識。非汝岩中之故事乎。令範不遠。良導有方。顧力行何如耳。今諸君丁此日中之運。乘此希邁之緣。請毋自限。各著祖鞭。則般若之門可入。光明之殿可遊。庶幾不令金峯諸老。擅美於前也。區區修創云乎哉。是為記。

荷山菴記

荷山古剎也。弘治間為祝融氏所廢。厥後金地。鞠為茂草。福產沒於豪右。蓋有年矣。逮天啟初。里人見泉徐居士及厥嗣柞等。咸歸心佛乘。矢志淨邦。徘徊舊址。不覺愴然。乃贖其地而重創之。由是寶殿聳空。危樓礙日。禪房映月。丈室雨花。金軀晃耀於中天。香霧氤氳於法界。且贖山以廣樵采之地。立田以充香膳之需。法物供器。無不畢備。經始於天啟壬戌。畢功於崇禎戊辰。功甫畢。見

泉公。遂及大故。諸子懼歲月迅馳。人心叵測。謀貞之石以垂有永。乃徵記於余。余惟。建安古稱法窟。勝剎相望。然皆集眾緣以奏績。未有獨任而獨成者。今公介然其力。化棘林為寶坊。現聖像於幽谷。其施可謂鉅。其功可謂宏矣。嗚呼施者固難。受者不易。後之居此食此。亦思何以報德乎。若能體公之心。而不愧佛之教。遵佛之教。而不負公之心。則公於僧為金城。僧於公為法筏。詎弗休歟。其或濫竽緇侶。不循清檢。虐蠹施利。罔念前功。則滴水粒米。何非鐵丸銅汁哉。法戒凜然。聖言不妄。凡我後人。確宜自律。是為記。

重建龍頭庵記

東峰之東有山。矯首雲端。如躍如飛者。龍頭山也。山之上。土演而沃。林蒼而密。中有朱楹畫棟。崢嶸于晴嵐夕暉之間者。龍頭庵也。庵之立。不知昉於何年。至國朝已湮沒於荒草涼煙。無可復識。嘉靖己亥。江右僧德讓。尋挂錫之地。得牧者指之。因獲遺址。檀越江君等遂施其地。乃結茆以居。凡數載。適江坑仙庵既廢。眾檀議移舊殿於此。續創兩廊三門。僅成蘭若。仍化立田若干。以為香燈之需。無何讓公遷化。諸檀請斗峰僧德日。繼治其業。日公德風四被。善緣日集。思成廣大之規。乃請本師天真和尚主緣。吏部李公默為之外護。不期年而大殿禪堂兩廊三門。皆更新之。時當嘉靖庚戌也。及日公示寂。厥嗣弗守其業。至萬曆丙子。乃請僧明嵩居之。嵩公當衰否之餘。極力砥礪。備嘗辛苦。復得徒真玉輔之。遂克大振其業。於萬曆壬寅。改創方丈齋堂及雲廚庫司等。仍增立山林田產凡若干。由是棟宇之宏麗。香積之富饒。推為一方法苑之冠。繼而玉公以中年遽沒。幸有孫性乘。能世之故。如日之升。方進而未已也。今嵩公年已八十有四。而精力之爽健。不減少壯。脊梁如鐵。雙瞳如漆。蒞眾以嚴。律已以約。至于好善樂施。尤其天性。蓋亦僧中之傑然者也。茲公懼木末之光未能有幾。而興替之本末。創守之艱難。不可以無紀也。乃請余。為述其略。用以永垂來鑑云。

重建黃梅山靈源庵記

建州出東郊。溯流而上。幾五十里為南源。源之窮有山。巋然出雲者。黃梅山也。中建庵曰靈源。自唐僖宗乾符二年乙未。杭沙門淨海。始卜築于茲。海實出于黃梅五祖之嗣。故以黃梅名山。志不忘所自云。厥後歷宋歷元。歲久傾圮。迨國朝洪武五年壬子。比丘覺

明。復募眾建菴以居。正德元年。僧慧海。別構丈室三間。嘉靖己亥。郡主錢公。召僧圓淨住持。以本境五里四水歸流之地。悉給本菴焚修。至萬曆某年。屬前僧遷化。里中耆德。僉請僧真能主之。能斗峰天真禪師之五世孫也。儉朴精勤。垂二十秋。遂克大振其業。及見棟宇將撓。勢難久仍。乃鳩工聚材。革而新之。中為大殿。前為三門。左為香積。右為客寮。或爽而為樓。或密而為室。唯丈室三間。尚存慧海之舊。經始于天啟某年某月某日。告成于某年某月某日。是役也。不咨眾謀。不藉羣力。獨取辦于一己。而規制之恢宏。視昔大有逕庭。亦可謂難矣。丁卯之冬。余應大雲之請。道過黃梅。住僧固請。為紀其事。余惟。黃梅之居高且廣矣。黃梅之產富且腴矣。師之所遺。弟之所受。止于此而已耶。昔者黃梅五祖。以金剛圈。籠罩天下。末後唯一盧行者。能奪其圈而用之。至于今是賴爾。後人若能于盧行者用處。鑽研得入。則黃梅一脉。庶幾不墜。而今日重建之功。亦庶幾不唐捐云。

淨名菴記

楚石居士。家居錦江之上。讀孔氏之書。修孔氏之業。行將曳履文石。讀秘木天者也。乃其風致凝遠。迥然有出塵之趣。早歲築庵於巴嶺之陽。路轉山迴。谷深雲密。居士時避囂息影。其中同二三緇流。或禪或誦。作出世行持。聞谷大師至潭。乃為命名曰淨名。因為之記。居士來鼓山。出此記示余。余讀大師記。其喫緊處。欲渠學居士行。具菩薩心。深入不二法門。以臻于不思議之本。今試思。居士行從何處學。菩薩心從何處具。不二法門從何處入。要之欲學居士行。必先具菩薩心。欲具菩薩心。必先入不二門。能入不二門。則橫心所發。無非菩薩之心。橫身所作。無非菩薩之行。即極之。至于借座燈王。取飯香積。種種不思議事。又孰有出此不二者乎。然此不二門。畢竟從何處入。咄。

重興開元寺尊勝閣記

開元之有尊勝。蓋昉于黃氏之桑蓮云。按志。唐垂拱二年。州長者黃守恭。晝夢僧乞其地為寺。守恭曰。必須樹產白蓮乃可。僧喜謝忽失所在。見千手眼菩薩騰空而去。越二日園中桑果產白蓮。守恭即產蓮處。建尊勝院。延匡護大師居之。有司以瑞聞。勅建蓮華寺。後寺號屢更。至開元二十六年。始易今名。寺之居廣。至一百二十院。而尊勝其肇基也。熙寧間。僧本觀建大悲閣於其中。紹興中災。後更主者六。草創卑陋不稱。至慶元四年。僧法暄改作新

殿。郡縉紳梁克俊李訖實合贊之。至正丁酉災。戊戌僧法持重建。嘉靖間廢。盡為告給者所有矣。崇禎五年壬申。寺僧戒煌。思本源之地不可不復。乃捐衣鉢。贖其故地。郡刺史叔闇陳公為主緣。繇是眾緣輻輳。更創傑閣。上奉西方三大聖。而環周小屋。以便居守。越乙亥冬。始告成。規制弘敞。丹雘輝煌。尊勝之舊。復聳拔于雲中矣。余以是冬。開法紫雲。乃登閣問故。憑弔之餘。不能無遐思焉。昔匡護大師。每夏講上生經。輒致千人。非尊勝始祖乎。慎公法嗣慈明見夢羅山為禪者師。非尊勝十世孫乎。至于禪教律三宗。如麟如鳳。出于世瑞者。不下二三十人。非尊勝之毓其秀。發其源乎。是尊勝者於周為禱。於漢為沛。夢觀氏其知言哉。然今日之尊勝。地如故也。閣如故也。圓頂方袍亦如故也。觀者猶以今古不相及為恨。其故何哉。抑余聞之故老。云昔尊勝興而寺繇之以興。尊勝替而寺繇之以替。是尊勝乃一寺之權輿也。今尊勝復矣。英衲之鵲起。法音之雷震。可計日以待也。諸君其勉之。以應斯會。因援筆而為之記。

翠雲菴記

余居真寂兩載。多見敝惡之輩。冒據師席。浩浩說禪。學者承風。如狂如醉。真所謂裨販如來者也。余乃思為自逸之計。一以懲禪學之敝。一亦耻與此輩同稱知識也。因來餘杭之西舍。得片地可居。乃黃氏山也。及詢之黃氏。則皆醇醇儒生。有長者風。遂樂捐其地五畝。乃卜日闢土為基。陶土為瓦。鳩工聚材。首事於戊寅之八月。落成於明秋之九月。及辛巳歲當大禳。菴中數十人。分衛實難。適建州有書來請。遂移錫返閩。而茲室則付之智慈。以奉香火。有術者告余曰。茲地不可居。余曰。何也。術者曰。凡居者宜向南。今向北。則無光明發越之意。凡居者宜有對。今無對。則無知遇接引之人。以是二者不宜居。余曰。誠如子言。但顧居者為何人耳。功名之士。志在功名。則必重知遇希發越。若緇衣禪侶。棄俗入山。甘守寒寂。又何取於此。今居此者。但能灰頭土面。分衛自給。寧求向晦。毋求向明。寧求自立。毋求世寵。則于斯道。其或庶幾。因為之記。用以垂誡來者云。

重建鼓山湧泉禪寺記

天下之事。倏興倏廢。若靡有常。然亦若有常。而不可強者。則時焉耳。時之未至。雖巨力任之而弗就。時之既至。雖綿力舉之而克成。吾於湧泉之事見焉。自湧泉之廢於嘉靖壬寅也。僧之欲力起其

廢者。不一其人。需之至九十載。不一其時。而卒莫底績。至遠延博山父子主其席。彼望重一時。僧眾樂歸。諸檀樂護。則茲寺之復。宜同插草而竟。以博山任重辭去。此豈非時之未至。雖巨力任之。而弗就者乎。余之來茲山也。在崇禎之甲戌。其時寺中猶半草莽。有大殿巋然中立者。宮保曹公學佺。重闢草所建也。殿之傍為齋堂。堂之後為客寮。為香積。為庫司。則皆眾僧建之。以延博山者。殿之後為法堂。堂之右為方丈。則僧弘曉之力也。方丈之前為禪堂。乃以西菴改為之。狹陋不足以居廣眾。余時徘徊四顧。凜然有弗勝之懼。是冬兵憲林公弘衍。為建鐘鼓二樓。明年曹公復為建天王殿。丙子秋。為建藏經堂於法堂之東。丁丑春。余以聞谷大師歿。千里赴弔。遂留居真寂。凡五載而後歸。歸則見大殿為海風所劫。兩角已崩。淋漓滿地。雖佛像如生。而金碧亦且剝落矣。乃謀再造。即命石工。甃殿前月臺及大庭石。明年癸未。求木於建州。冬乃鳩工造殿。復移正天王殿。而益其傍。為十方堂。甲申夏。於大殿左右。各翼以游廊。而上達於法堂。廊之西為禪堂。大中丞邵公捷春之所建也。堂之前為梵行堂。乃改舊禪堂而廣之。用居行僧。梵行之西為圍為溜。凡十二間。冬復建伽藍閩王二祠於殿之左廡。建祖師壽昌二祠於殿之右廡。乙酉夏。改齋堂南向。齋堂之前為白雲堂。以待賓客。白雲之東。為小客寮。即移昔之客寮於此也。齋堂之東。為香積者六間。丁亥塑三寶天王諸大像。庚寅建淨業堂於白雲堂之前。建華嚴堂於梵行堂之前。建碓磨坊於寺之東臂。至是而寺之廢無弗舉者。是役也。前後凡十五載。而功始竣。是皆龍天之默廕。檀那之樂輸。僧行之勤勞。而余實尸居丈室。說顛預佛性。證瞌睡三昧而已。初不知其何以至此也。此豈非時之既至。雖綿力舉之。而克成者乎。是知。天下之事。功不可以倖成。勢不可以力爭。大易為五經之源。而吉凶悔吝。惟時是趣。孔子為諸聖之尊。而仕止久速。惟時是律。時乎時乎。其可違之以自立乎。寺既成。例當有記。乃為紀其歲月。用貞之石云。

重建寶善禪院記

萬曆間。聞谷大師。佩雲棲法印。唱道苕溪。重建真寂禪院。僧俗歸向者如雲。歲在戊午。院事甫畢。大師單瓢踰嶺。掛錫建州崇聖荒寺。分衛而食。久之人漸知。親覲者漸眾。居三載。真寂數來請。始言歸。建諸弟子如失乳兒。慕之弗置。厥嗣心石師乃與眾謀。欲請大師再至。立一刹以慰眾望。卜得劍之寶善。寶善雖劍屬。而去建為近。僅四十里而遙。故建人樂成之。實天啟改元辛酉歲也。此菴屋老而隘。居僅數人。心石師慮無以容廣眾。遂建閣五

間於大殿之後。明年郡中諸縉紳及諸善友僉議。遣使迎大師弗得允。凡七往返。屆天啟丁卯之秋。方再至。冬十月鳩工聚材。舉菴一新之。中為佛殿。左為齋堂。右為禪堂。旁周小屋。為庫司。為客寮。為倉。為庖。為溜。皆具。明年既落成。大師遂返錫。崇禎庚午。大師有黃安之行。心石師復就楚迎至。至則四方禪衲。無不腰包而赴。心石師謂。禪衲既集。典籍不可不備。遂取大藏於金陵。因於齋堂後。建閣五間以藏之。又以方丈狹隘。迫近客寮。仍別建閣三間於禪堂之後。至是寶善之規模。稱大備矣。乙亥春。大師復歸浙。明年冬十二月告寂。丁丑春。予赴弔真寂。諸縉紳遂命予繼其席。予居真寂五載。辛巳秋乃謝院事。復歸閩寓寶善。心石師謂予曰。寶善之事既竣。而尚有待者。以片石未立也。堅拮据斯役。計歷二十餘載。先師既已西逝。同事諸君。亦半化為異物。釋今弗紀。後將何知。今菴事之顛末。惟師為最悉。先師之交。惟師為最深。師殆不可吝一言也。予承命唯唯。不敢以不文辭。遂援筆記之。

重建定光巖記

建州南四十里。為南雅口。復入山五里。為定光巖。巖中祀定光大師。故以為名。定光大師者。即傳燈所載南安巖主。雲門法孫也。原由古聖應現。故靈應特著。里人多祀之。災患必禱焉。此巖志所弗載。不知昉於何代。年歲已久。而田業散失。僧行逃亡。棟宇頹敗。香火闕如。往來禪衲。足跡之所弗及。至崇禎初。杭州聞谷大師。遊錫至建。里中桂峰居士。同諸善友。贖寶善菴。以為大師駐錫之地。居士復首為經理院事。既而禪衲輳集。屋無所容。居士乃贖是巖。而重建之。以為禪衲掛搭之所。歲在崇禎之辛未也。凡三載而功告竣。復立焚修之田若干畝。至是命予。為紀其事。余惟昔辛酉之秋。曾寓此巖者兩月。時居士初贖此巖。已發重建之願。及丙戌之春。余來建州。居士復延至巖。則璇宮花宇。煥然一新。是居士之宿願。無不畢酬耳。余故為詳其始末。貞之於石。然憶昔別居士時。居士向余請偈。余說偈曰。波斯閉眼嚼生鐵。十界聖凡都撲滅。忽然嚼破血淋漓。啞子吞聲向誰說。計今已二十七年矣。未審。居士此鐵曾嚼破也未。今因記其事。而併及之。不獨為居士著鞭。亦使後之人。不敢謂定光巖頭。全無佛法也。是為記。

寶善庵舍利塔記

世間分段之身。如泡沫風燈。最不可久。一旦氣盡。則敗不旋踵。惟至人之身則不然。能以形妙於神。氣化於道。雖器界之羸。猶頓變為金剛寶地。況根身乎。昔者世尊示滅雙林。荼毗之後。所稱三十二相八十種好者。悉化而為舍利。圓瑩皎潔。世所希覲。時天宮海藏。以及五天諸國。無不競取供養。蓋是世尊悲願所遺。永為世間福田也。自漢以來。其轉流而至此方者。則如浙東之鄞山。廬山之金輪峰是也。宋皇祐元年曹后命中官。建塔於汴之通許縣洪福寺。盡取宮中所奉舍利。藏於塔之第四層。後歲久塔圯。至崇禎甲戌。流寇侵境。縣官取其磚修城。得一石匣於瓦礫堆中。啟之。中有水晶瓶七。俱貯舍利。銀瓶一貯佛骨一節。中有舍利。如黍者甚眾。銀匣一貯金佛像二尊。考之舊碑。始知其由。時戎事孔棘。弗及謀所以藏之者。遂各持散。宜興曹安祖兵憲得其一。持歸擬建塔於南嶽寺。以病弗果。臨易簣。託之嘉興曹石倉侍御。戊寅之秋。侍御公延予至天寧。未幾歸。以舍利相囑。予辛巳奉以歸閩。至建州。乃置於寶善庵。是冬僧大堅。始闢塔基於庵之西塢。癸未建塔殿。丙戌僧性激。乃募銅範塔。琢石為座。以事勢牴牾。工未竣。而性激已化為異物。至藻鑑長老來主方丈。方畢其事。以壬辰八月十七日。奉舍利入塔。夫自戊寅受囑以來。無日不思為舍利計。而淹蹇至今。凡一十五載。其成之不亦難乎。然當此乾坤鼎革之會。羽檄旁午之秋。閭里十室九空。生民半登鬼錄。一飯之頃。尚難苟安。誰能營及不急之務。其成之難。不亦宜乎。獨幸得寶善一刹。安堵如故。僧行猶能致力於此。於此塔偏成於大亂之中。如梅蘂破雪而開。菡萏從火中現。是豈人力之所能及哉。良以。世尊悲願所持。龍天呵護之功也。抑予於茲尤有厚幸焉。憶昔丙戌之秋。予在寶善藏經閣上。見舍利瓶中。現柱一根。其長與瓶齊。既而柱沒。復現護法神像。約高一寸二分。初不曉其何意。即今日觀之。建州法門凋敝極矣。而此塔之成。適當其時。是知。此塔必為法門中之砥柱也。必能擁護法門。使不滅也。他日再興之兆。不於此而可卜哉。故併記之。以為他日左券。

沈槐庭居士歸西記

潭州之東。有槐庭居士沈公。柔善而寡力。且少未嘗習儒。故不能窮梵經譚諦理。人多以其弱而少智忽之。一日從余學佛。問進修之法。余曰。察公賦質。惟修念佛三昧。必得實效。公問。別有法過於此否。余曰。藥陳萬品。治病為先。若藥病不相應。雖日投之參蓍。何益乎。公唯唯。遂決志淨土。持佛弗怠。時有黃口禪和。播弄唇舌。多有為所惑亂者。惟公確守弗易。且曰。說食豈能飽耶。

後二十年。丁丑春。余居杭州真寂。聞公於舊冬十二月得病。自擇日曰。廿六日吉。吾其行矣。是日辰刻。本立上人來問疾。公一見笑曰。望師久矣。將何以助吾行乎。本立曰。廿年來用的工夫。全在今日。公還受用得否。公舉起數珠云。正好著力。遂呼諸子。掖出正寢。設香案佛像。挺然危坐。時諸親友皆來會。達宇居士呼曰。槐庭生死關頭。切不可為恩愛所縛。公曰。屢蒙究竟。今得受用。但無以報道愛。遂舉手謝之。光宇居士忽作吁聲。公顧曰。噯。諸子潸然下淚。公叱之。遂屏退妻子。但捏數珠念佛。自辰至午。諸親友皆環遶念佛。有聞天樂聲者。忽曰時至矣。吾行也。乃舉手當霄。別眾長往。移時頂門如炙。停龕三日。顏色如生。合邑縉紳士庶。罔不嘖嘆希有。邑侯沈公特旌之。余惟。世之英雄豪傑。有力而多智者。其進修此道。非疲精于末路。則分志于他岐。能精修不倦。用志不分。直往蓮邦。如公者能有幾乎。乃公竟以弱而少智得之。然則謂公為弱而少智可乎。是世之稱大力量大智慧者。亦莫有公若也。余恐其事久而湮沒。故詳記之。以傳諸後云。

無明和尚行業記(有引)

某於萬曆丁巳秋九月。懷香入方丈。請行實。先師為手述一篇。凡六百餘言。明年春先師遷化。某因作行業鶴林二記。時忌者紛然。遂不敢出。本立上人得而藏之。後執事者。請塔銘於憨山大師。述先師入道機緣。率多失實。胸中殊芥蒂。今夏來劍州寶善。本立上人以舊稿至。某讀之潸然。乃再定而行之。夫此稿藏之笥中。已二十七年。行之乃在今日。豈真果不容掩耶。抑斯文顯晦。亦自有時也。崇禎癸未秋八月中秋日。識於寶善丈室。

師諱慧經。字無明。撫州崇仁裴氏子。生而穎異。智種夙彰。九歲入鄉校。問其師曰。浩然之氣。是箇甚麼。師無以應。年十八遊上清。慨然有天際真人之想。遂棄筆硯欲卜隱。而未果。年二十一。寓新城之洵溪。偶過居士舍。見案頭有金剛經。閱之如獲故物。輒踴躍不自禁。士曰。汝見甚麼道理乃爾。師曰。吾見其功德。果如虛空不可量。士大驚曰。子若出家。必為天人師。師於是日即斷葷酒。決出世志。時邑有蘊空忠禪師。佩小山老人密印。隱於廩山。師往從之。執侍三載。柔退緘默。喜怒不形。嘗疑金剛經四句偈。一日見傅大士頌。曰若論四句偈。應當不離身。忽覺身心蕩然。因述偈。有本來無一字。徧界放光明之句。後益披尋梵典。默符心得。自謂泰然矣。一日與諸兄弟。論金剛經義甚快。廩山聞之曰。宗眼不明。非為究竟。師遽問。如何是宗眼。山拂衣而起。心甚疑之。繼得五燈會元讀之。見諸祖悟門。茫然自失。思前所得。總皆

不似。乃請益於山。山曰。老僧實不知。汝但自看取。由是愈增迷悶晝夜兀兀然。若無聞見者。眾咸謂師患癡矣。凡八閱月。一日見僧問興善寬曰。如何是道。寬曰。大好山。疑情益急。忽豁然朗悟。如夢初醒。信口占偈曰。欲參無上菩提道。急急疏通大好山。知道始知山不好。翻身跳出祖師關。入方丈通所悟。山曰。悟即不無。却要受用得著。不然。恐祇是汞銀禪也。時年二十有四。是冬辭廩山。結茅於峩峰。茲山林巒幽險。虎豹縱橫。人跡罕至。師孑然獨居。形影相弔。食弗充。則雜樹葉野菜啖之。嘗大雪封路。竟絕食者數日。一夕山境喧甚。聲若崖崩。林谷震動。俄若眾馬爭馳。直抵庵後。師不覺驚起。因憶廩山之囑。乃曰。小境尚動。況生死乎。即起然燈。信手抽會元一卷閱之。正值珪禪師為嶽神受戒章。珪謂嶽神曰。汝能害空與汝乎。忽廓然無畏。山境遂寂。乃曰。聖人無死地。今日果然。述偈呈廩山。曰透徹乾坤向上關。眉毛不與眼相參。聖凡生死俱拋却。管甚前三與後三。廩山曰。此子見地超曠。他日弘揚佛祖之道。吾不如也。向未薙髮或勸之。師曰。待具僧相乃爾。至是始請廩山。到峩峩落受具。師生而孱弱。如不勝衣。及住山日。慕百丈之風。不顧形骸。極力砥礪。晝則鑿山開田。不憚勞苦。夜則柴門不掩。獨行岡上。迄五鼓始息。率以為常。至萬曆戊戌歲。眾鄉紳請師住寶方。時師年五十有一也。師自住峩峩。足不下山者。二十八載。至是因應寶方之請。乃先到廩山掃塔。始入院。師之住寶方也。雖臨廣眾。不以師道自居。日率眾開田。齋甫畢。已荷纁先之矣。時有志於禪者日漸集。庚子春。師自以未及徧參為歉。乃西登匡廬。溯流上武昌。歷荊襄。復北走中原。訪無言宗主於少林。主大賞識之。遂留過夏。每見當道撝謙推譽。故兵道劉公以煥。司理熊公尚文等。爭延禮之。尋歸。明年復東遊兩浙。泛三吳。乃北渡江。抵五臺。訪瑞峩老人於宰殺溝。師問曰。某甲數千里來。特請和尚決疑。峰曰。疑箇甚麼。師曰。臨濟道。佛法無多子。畢竟是箇甚麼。峰曰。向汝道。無多子。又問甚麼。師曰。玄沙謂靈雲。敢保老兄未徹在。何處是他未徹處。峰曰。大抵玄沙亦未徹在。師曰。趙州勘破婆子。那裏是勘破處。峰曰。却是婆子勘破趙州。師曰。雖然如是。請和尚頌出。峰曰。知是般事便休。師即禮拜。後峰轉詰師頌。頌臨濟曰。醍醐上味出乎乳。滴水攪中總不成。三十棒頭開正眼。何曾傳得祖師心。頌靈雲曰。敢保老兄未徹。一隊閒神野鬼。不是焦面王來。受陷遭坑幾許。頌趙州曰。暗藏春色。明露秋光。有眼莫鑑。縱智難量。到家不上長安路。一任風花雪月揚。峰大賞之。賓主相得。有如舊識。居久之。下臺山入燕都。講肆宗席。靡不徧歷。時達觀禪師寓西山。師往訪之。中途遇一僧。舉觀乾屎橛頌。師遽返曰。

已相見了也。至是。師之心亦倦遊矣。乃旋寶方。癸卯始開堂。時眾謂師必嗣少林或臺山。及片香拈出。乃嗣廩山。眾心大服。時舉弟子元來。為第一座。師資雅合。玄唱玄提。四方聞風而至者。絡繹於道。挂搭常數千指。乙巳重建寶方。戊申春。建陽傅震南刺史。及趙湛虛文學等。請師就董巖。開堂結制。聽法者幾二千人。冬回寶方。明年春遷壽昌。壽昌故西竺來禪師道場也。來臨滅遺識云。壽昌好牧牛。西竺再來遊。至是荊榛滿目。敗屋數椽而已。及眾請師至。適與來同鄉。且同姓。人咸謂師為西竺再來云。師居敗屋。日中率眾開田。一如寶方。未嘗少倦。數載之間。重建一新。莊嚴偉麗。甲於江右。叢林所宜有者。悉備焉。仍別創菴二十餘所。以居廣眾。丁巳臘月七日晚。自田中歸。忽謂眾曰。田中之事。汝等善為之。老僧不復砌石也。眾愕然。十八日示微恙。除夕猶上堂。元旦猶上殿祝聖。初三日病甚。醫者來。師曰。吾非病。會當行也。初八日遂禁藥食。作兩剎遺囑。十五日陞座辭眾。因作別諸外護書。數日之間。問疾者雲至。師諄諄勸勉。略無倦色。十六日分付茶毗。眾請留全身。不許。十七日未刻。自取水[口*敕]口。洗面拭身。索筆大書曰。今日分明指示。擲筆而化。茶毗火光五色。頂骨及諸齒俱不壞。師天性朴茂。操行端方。著於容則端嚴。發於聲則侃直。雖不修邊幅。而望之者起敬。雖不事逢迎。而見之者心服。其自奉甚薄。人多有不堪者。師笑曰。丈夫踐履佛祖之道。可被三寸舌根轉將去耶。歷主三剎。皆不發化主。不扳外緣。任其自至。叢林之事。動多獨斷。而暗合前規。雖有時事當煩劇。精疲力竭。而胸次悠然。如不事事者。四十餘年鋤犁弗釋。年迨七旬。尚混勞侶。必先出後歸。未嘗有一息苟安之意。三剎歲入。可供三百眾。皆師血汗之力也。學者來弗拒去弗追。病者必親調藥食。遷化者必躬負薪茶毗之。其施教也。縱奪無方。激裁多術。賢愚咸獲其益。室中參請。則單提祖令。橫掃異蹤。屹然如銀山鐵壁。學者多望崖而退。故說法四十餘年。未嘗輕有印可。生平偈頌。隨叩而應。不落思議。雖色澤未敷。而識者爭寶之。鄧潛谷徵君。見師山居偈。擊節嘆賞曰。何期。瀕老得飲醍醐。湯海若祠部。見師答問。即命工鐫行。稱為能道人再至。由是一時縉紳先生。翕然歸仰。益王嚮師道風。亦屢遣存問。師降誕於嘉靖戊申三月念五日辰時。示寂於萬曆戊午正月十七日未時。世壽七十有一。僧臘四十有六。是冬建塔於本寺方丈。門弟子千有餘人。惟元來開法於博山。語錄二卷。甚行於世。竊惟。明興以來。知解教戒之學。幾徧寰海。而西來一脉。至有老死而不聞其名者。吾師挺生茲會。紹前緒於既墜。破久暗而重輝。法眼圓明。機辨自在。師於法門。有再造之功焉。且其孤風峻節。若雪中峩眉。其強忍精

進。若乾行弗息。上下千載。寥寥罕儷。大智之後一人而已。今師鶴樹譚終。芳躅日遠。後學罔聞。何由私淑。況西來慧命。僅此一綫。可令其湮沒不傳乎。用是。不揣庸鄙。述其梗概。非敢阿其所好也。是為記。

無明和尚鶴林記

萬曆丁巳臘月七日晚。師自田中歸。謂眾曰。田中之事。汝等善為之。老僧不復能砌石也。眾愕然。十八日示微恙。身熱而痰甚。除夕例當上堂。眾以師弗安。不敢請。師自命侍者挂牌。某驚趨入方丈曰。和尚弗安。大眾不敢煩起居。師曰。有始者必有終。子知之乎。上堂曰。今年只有茲時在。請問諸人知也無。那事未嘗親磕著。切須綿密作工夫。從上諸祖。莫不如是。昔歸宗會下有僧。夜大叫曰。我大悟也。次日歸宗上堂曰。昨夜大悟僧出來道看。僧出曰。師姑原是女人做。歸宗遂休去。若論歸宗。乃馬祖下八十餘員善知識之一也。此僧若不的的當當。到這般田地。怎肯許他。大眾且把這公案。左看右看。反覆細看。是箇甚麼道理。還有佛法也無。還有宗乘也無。且喜沒交涉。此是老僧最後分付。大眾切宜珍重。戊午元旦。猶上殿祝聖。初三日有以藥進者。師笑曰。老僧非病。會當行矣。至八日遂止藥食。唯飲沸湯。醫者曰。和尚脉絕。已數日矣。而精神炯炯如無恙。殆未可以常情測也。十二日作寶方遺囑。答董巖書曰。山野自戊申歲。領潭城緇素惠愛。感荷不勝。今復叨錫雅召。區區薄德。不遑趨命。蓋佛祖利生。總為那邊事。故興陽剖。在大陽不安。大陽躬勘問曰。是身如泡幻。泡幻中成辦。若無箇泡幻。大事無由辦。若要大事辦。識取箇泡幻。剖曰。此即這邊事。陽曰。那邊事作麼生。剖曰。匝地紅輪秀。海底不栽花。陽曰。且喜汝惺惺耶。剖咄曰。將謂我忘却。竟爾趨寂。居士等若於茲舉。叩已真參。到海底不栽花境界。即與那邊相應。庶不辜垂愛之至矣。十三日作壽昌遺囑。仍書偈令送博山。偈曰。吾道五十年大闡。不合元來亂統之。分付諸方為痛責。相逢復爾重加錐。十五日身不復熱。痰亦不作。猶起示眾曰。人生有受非償。莫為老病死慌。啖破無生法忍。自然業識消亡。一時雲淨常光發。佛祖皆安此道場。故云。我今安住常寂滅光。名大涅槃。縱佛祖曲示玄妙。差別門庭。七方八便。總不出大寂滅光而已。下座。復作別諸檀護書。十六日分付茶毗禮。大眾請留全身不許。時有僧請偈。書曰。不成句。豈為法。天地非似。佛祖難合。十七日覺背痛。僧有為師拊背者。泣曰。某甲緣淺。不得久事和尚。師咄曰。馱子。汝但勤護正念。即為承事老僧。亦為承事恒沙諸佛。何用作兒女態

耶。旋取水。自[口*敕]口洗面拭身曰。去後不必再浴。徒費常住薪水。未刻趺坐索筆。題曰。今日分明指示。擲筆而化。茶毗火光五色。頂骨及諸齒俱不壞。初師之示疾也。日猶強起。不食者凡十餘日。而所作遺囑及諸書。悉手書之。問疾者屢滿門外。侍者多止之。師不許。悉召見。諄諄勸勉。唯以真參實悟為期。或求法語。或求偈頌。或請益公案。其應如響。無有倦色。及臨終手作數字。筆力遒勁。勢欲飛舞。猶為特異云。嗚呼某自戊申謁師於董巖。於茲十年所矣。深羈塵網。未及頓出。去歲始依座下。未周一白。遂有鶴林之悲。障深緣淺。嗚呼痛哉。然涅槃一會。親瞻勝瑞。始知大善知識。生死關頭灑落自在如此。則又未可謂不幸也。焚香掃素。謹記之以傳諸後。

永覺和尚廣錄卷第十五

文

戒殺生

殺生之戒。佛家首重之。此非佛家之私言也。蓋緣人物之情。所最愛者莫如生。所最苦者莫如死。故惡之最大。罪之最重者。莫如殺。又聞之。天地之大德曰生。則知。人之大惡曰殺生矣。上帝好生。則知上帝所惡在殺生矣。元善之長也。則知。殺生為惡之長矣。仁人心也。則知殺生非人心矣。殺戒可弗重歟。且人既以仁為心。則量包虛空。寧有痿痺之處。機貫終始。寧有歇滅之時。所謂天地萬物為一體者。此心也。此仁也。故儒家聖人。致中和。必極於天地位萬物育。至誠盡性。必極於能盡物之性。非迂也誕也。一體之仁。本如是也。一體之仁既本如是。而聖人之治天下。乃不免於鮮食者何也。則聖人之不得已也。吾嘗考之佛經矣。劫初生民。淳朴無偽。故天生地肥及粳米。以資其日用。厥後機心漸長。則地肥及粳米俱弗生。而民乃艱食。繇是饑火所逼。殺機妄動。以強凌弱。以智凌愚。受禽獸而食之。亦猶禽獸之相食而已。然初計在塞其饑餒。卒乃貪其腥味。日甚一日。屠戮肆行。聖人起而哀之。乃立禮以為之防。曰仲春不許破巢毀卵矣。魚不盈尺不鬻矣。祭必以禮。有常供矣。宴必以禮。有常數矣。大夫無故。不殺牛羊矣。士無故。不殺犬豕矣。此豈聖人之本意哉。不能止其所趨。聊以防其所濫。故曰此聖人之不得已也。夫物之與我。形軀雖隔。知覺實同。貪生怖死。與人何異。今乃加彼無窮之極苦。資我一刻之微甘。於情安乎。於理當乎。取彼至切之身命。享我閑泛之人情。於情安乎。於理當乎。殺彼命而冀延我之命。殺彼身而冀養我之身。殺彼父母妻子。而冀保我之父母妻子。於情安乎。於理當乎。即不待反己而推。試思。其生上刀砧。活投湯鑊。恐怖呼號之狀。疾痛怨恨之情。可忍乎。可食乎。如以為可忍可食。則其心已非人心耳。孟子曰。君子見其生。不忍見其死。聞其聲。不忍食其肉。豈姑息之私情哉。至於晚近之世。尤有不忍言者。世風薄惡。競尚浮靡。窮極口腹之欲。羅盡水陸之珍。一殮之饌。至殺生靈數百命。其尤可痛者。居父母之喪。飲酒食肉。宛同吉宴。所殺生命。尤為無數。祇此一節。遠違古聖之禮。近犯天朝之律。外結怨恨之仇。內滅仁孝之脉。為儒乎。非儒乎。為善乎。非善乎。每有規之

者。輒以世俗譏嫌為辭。夫不懼聖制。不懼王法。不懼不仁不孝之實惡。而獨懼世俗之浮議。果何見哉。果何見哉。嗚呼凡愚之民。固宜隨俗而趨。豪傑之士。豈可習而弗察乎。昔黃山谷作頌曰。我肉眾生肉。形殊體不殊。元同一種性。只是隔形軀。苦惱從他受。肥甘為我須。莫教閻老判。自揣看何如。戒殺之意。斯頌盡之矣。至於因果感應之說。理所必然。決難逃避。非獨佛經詳之。史傳載之。即耳目覩聞。昭然不誣。但君子止惡。非為畏罰。為仁。豈為貪報。不過自完其人心而已。高明者幸鑒之。

戒溺女

嘗聞業海之中。惟殺業為最重。殺業之中。惟殺人為最重。殺人之中。惟父子相殺為最重。殺子之中。惟無罪而殺為最重。今世俗溺女。正所謂殺無罪之子。愆之莫大者也。而世俗恬不知怪。視以為常。不亦異乎。昔孟子謂。今人乍見孺子將入井。皆有怵惕惻隱之心。非納交於孺子之父母也。非要譽於鄉黨朋友也。非惡其聲而然也。直曰。無惻隱之心非人也。今舉女而溺之。是愛子不及鄰人之子矣。不特此也。獄中之囚罪本當決。刑官尚展轉於秋冬。以延其須臾之生。今舉女而溺之。是愛子不及罪死之囚矣。不特此也。仁人惻隱之情。無不徧滿。即蠅飛蠕動。尚不忍傷。今舉女而溺之。是愛子不及蠅蠕之微矣。不特此也。凶頑之極。莫尚乎禽獸。然聞猿因哀子而斷腸。虎數回頭而顧子。其愛子之情。豈有擇於男女哉。今舉女而溺之。是愛子不及禽獸之仁矣。為人父母。而所為若此。姑勿論其明有償殺之條。幽有絕嗣之報。但觀其纔離母胎。即拋死所。呼號不及。痛苦無訴。宛轉溪澗之中。路人不敢正視。而為之父母者。果可為乎。不可為乎。嗚呼人之所以異於禽獸者。以其有不忍人之心也。今忍心至此。曾禽獸之不如。又何以自命於天地之間也。吾嘗深求其故。莫能自解。將謂女仕他門。無關於代老承祧。而溺之歟。獨不曰生男而流蕩四方。其奈之何。將謂省費奩貲。而溺之歟。獨不曰生男而賭嫖傾家。其奈之何。將謂逆料不賢。而溺之歟。獨不曰生男而敗辱家聲。其奈之何。將謂家貧難度。而溺之歟。獨不曰生男而必衣必食。其奈之何。將謂無男多女。而溺之歟。獨不曰受此冥報竟世無男。其奈之何。揆厥所繇。不過習殺為常。仁心漸滅。處流俗之皆同。欺王法之無舉。徒便私家之計。罔畏鬼神之誅耳。用是知。為之女者其冤枉忿恨之情。直當貫日而飛霜。為之父母者。其乖戾不祥之氣。必且遮宇而蔽宙。豈非造莫大之愆。貽無窮之禍哉。觸目傷心。用茲饒舌。冀其力

改。相勸回風。倘見他人棄女。曲為區處。全其生命。未必非轉禍成祥之一機也。

勸放生

嘗聞之。諸佛眾生一心也。諸佛以眾生之愛。而成其慈。故其慈最大。眾生以諸佛之慈。而封為愛。故其愛最深。最深之愛。靡不愛也。而莫愛於獲己命。最大之慈。靡不慈也。而莫慈於拯眾命。是以古之君子。樂於放生者。良以上體諸佛之大慈。下滿眾生之深愛。為善之大。孰過於是。慨自殺機一啟。慘毒廣行。百計搜羅。千方掩取。或緊閉籠檻之內。或生懸刀俎之間。膽落魂飛。母離子散。口憤憤而誰告。目盼盼而求援。正如擬決之囚。逼近死門。亦如安居之眾。忽遭橫擄。其疾苦之狀。哀怨之情。為何如也。所以諸佛於此苦戒殺生。廣勸放生。捐我不堅之財。贖彼至重之命。或少止一二。或多至萬千。使其易危為安。臨死得活。天高海濶。一任遨遊。日煖風和。同歸熙皞。雖曰最小之施。實為莫大之德矣。即毋論其或為未來諸佛。或是多生父母。但知覺是同。理必難忍。亦無論其或獲報於生前。或受償於沒後。但生機一觸。情自難忘。況當草木之黃落。尚戚然而生悲。見雲霧之陰慘。猶凄然而失樂。驗知。真心必徧滿於十虛。至仁直流貫於萬彙。豈有血氣之屬。反無哀愍之誠哉。唯願常行拯贖。俾仁脉之恒流。廣喻朋儕。使慈風之普被。完滿本來真心。保全自己諸佛。仰贊皇仁之化。默回殺運之機。是謂為善最樂。莫非太平盛事。請垂隻手。毋攢雙眉。

善友篇

友之誼尚矣。德不孤立。仁必有輔。功難獨運。器非自成。雖據崇高之位。非友則不能安。雖懷琦瑰之資。非友則多自棄。至有父不能得之於子。君不能得之於臣。兄不能得之於弟。夫不能得之於婦者。每發於友之一言。而卒完其美。友之功顧不重歟。然友之名一。友之實殊。有友以情者。有友以利者。有友以道者。友以情友以利。又何貴於友哉。其必友以道乎。友以道則相忘于形迹之表。相契于聲色之先。切磋砥礪。唯道是歸。可以去吾之偏。可以啟吾之蔽。可以補吾之闕。可以成吾之長。易曰。麗澤兌。君子以朋友講習。友誼之不可不重。也明矣。自世風既降。友道日衰。天下之稱友者。利與情而已。或利有時而弗得。情有時而偶乖。則怨尤起。或求之己者。約求之人者備。諱己之所短。忌人之所長。則怨尤起。由是憤憤焉。告於人曰。天下無良友。天下無良友。豈盡友

之弗良哉。則取友之道未善也。古之善於取友者。勿盡人之情。勿覬人之利。勿以所長蓋人。勿以所短病人。亟亟焉惟善是取。至有抱神明之資。居九五之位。而察及葛藟。訪及工瞽。則何莫而非友哉。至於景行前哲。則友不問今古矣。他石攻玉。則友不問善惡矣。廣之至於天法其高。地法其厚。日月法其明。寒暑法其變。羽毛鱗甲。草木金石。罔不有則。罔不可法。豈可謂天下無良友哉。余少多狂疾。不能納交於大人君子之門。又以才疎學淺故。大人君子。亦多弗錄於囊中。然卒之于道。不至大有悖戾者。實得於友之功。居多也。茲有所感。乃筆之以諭來者。毋曰天下無良友。則善也。

祭玄沙宗一大師塔

崇禎甲戌閏八月十五日。鼓山白雲峰湧泉寺住持後學比丘某。謹以山蔬巖茗。致祭於古玄沙院宗一大師之塔。而言曰。大道既南。宗燈益熾。雪峯演德嶠之脉。枯木開覺樹之華。唯師首出。實稱再來。白龍江上。棹回萬頃之波。飛鳶嶺頭。踢破大千之界。逆風把柁。收回象骨之毬。出格生機。奪却鼓山之眼。寄去三幅白紙。直要欺聖瞞賢。接得三種病人。盡教成佛作祖。敢保靈雲未徹。走遍四海之脚跟。直折鏡清深潭。束盡諸宗之手段。雷霆千載。輝映十方。某濫入緇流。稍窺剎影。叨主鄰峰之席。如淵如水。幸瞻白塔之光。若山若斗。松濤鳥韻。長聞法語之恒流。山月江雲。盡覩靈儀之如在。茲掃片石。贖物尚存。特爇瓣香。玄關非邈。伏惟。尚饗。

祭真寂聞谷大師

崇禎丁丑春三月朔旦。住福州鼓山湧泉禪寺稟戒弟子某。謹以瓣香杯茗。致祭於甸山真寂堂上聞谷大師之靈。而言曰。於惟。大師世隆隱德。夙稟靈姿。將降毗藍。門外驚介冑之擁。方離襁褓。額邊瞻翠堵之懸。岐嶷即斷葷茹。齟齬不為兒嬉。早慕真諦。深厭俗塵。既入緇流。遂培慧種。清平菴裏。便究生心之源。屍院林中。忽達歸真之路。儀峯鼓震。奪來不用擬心。五雲門深。直入何須彈指。蒙頭雙徑。笑破虛空講得經。插草苕溪。頓變黃金。渾作地。佛眼同佛心交徹。永明之宗鏡煌煌。妙智兼妙行雙超。幻住之高蹤歷歷。屹末流之砥柱。力挽狂瀾。握當代之金錘。剔開蒙翳。鐵關據險。鷄韻難瞞。犀燭生光。妖形莫遁。眉間挂劍。殺活祇在臨時。舌本含蓮。語默無非這箇。法雲蔭地。合地載而同滋。慧日亘

空。盡空含而普耀。每橫寶掌之錫。三屈無諸之鄉。拂開寶善寒雲。宛成佛國。大布閩甌化雨。有竝河傾。寸草悉獲春暉。鼯鼠亦恣海飲。某癡懷腐璞。癖甘繫匏。舌長深苔。安庸羣石之點首。門無半履。自分一壑以藏身。偶覲慈光。即蒙過譽。爰有寶戒之託。兼參密印之同。類神鼎之垂引慈明。似圓通之力噓大覺。豈意古道而再見今日。遂使駑駘。而備驅後塵。三越王春。未瞻象表。兩承手翰。猶聽獅絃。何鶴林之談遽終。乃蓮邦之緣正熟。深痛梁木之速壞。益嗟大地之無光。鳥韻風聲。總成愁嘆。江雲山月。盡是悲心。既千里而特來。僅杯茗以致奠。特陳缶慙。聊展禱誠。伏惟尚饗。

祭滕秀實居士

崇禎壬申秋九月望後三日。建安荷山菴比丘某。謹以山茗園蔬。致奠於秀實滕公大居士之靈。而言曰。嗚呼公而果逝也耶。公逝而有不逝者耶。其逝者逝矣。其不逝者。遠在人心。未可得而俱盡也。良以。素封之家。多不樂施與。即樂施與。亦多恃財自矜。好諛悅佞。或逐勢炎涼。隨時上下。雖有施與。而實德則病矣。惟公則異於是。予之納交於公。計已八更裘葛。始自金仙一晤。得瞻芝宇。明年秋。予辭金仙。策杖走三百餘里。徧尋結茅之地。竟不可得。次春始至郡城。寓城南古觀中。公聞之即趨赴。時天大雨。谿漲橋沒。公冒雨褰裳而渡。及見如逢已親。意殊懇懇。嗚呼予何所感於公。乃能傾蓋如故若是耶。未幾。予往居荷山。凡菴中所乏。必惟公是需。山刹初立。典籍全缺。公乃出重貲。往秀水。請方冊藏經以歸。及予作弘釋錄及窺言二書成。公喜甚。亟壽之梓。嗚呼予何所感於公。乃能樂施弗倦若是耶。且予孑然一衲矣。素無名聞。亦無知交為之游揚。兼之性多執古。不妄與人往還。坐是人多不悅。或有竊議而嗤之者。或有數短予於公誘其他向者。公皆若不聞也。嗚呼予何所感於公。乃能貝錦莫移。克恒厥德若是耶。迄今歲之八月。公困於二豎。謂予曰。弟子此病。決不能起。但臨終一著。老師何以教我。予曰。即從今日打點去。將家下事及親與冤。悉皆放下。惟專持一句佛號。若臨終時。得此念不失。便是往生見佛時也。公唯唯。遂一如予言。閱二七日。沐浴更衣。扶出坐正寢。請諸淨土友人。相助念佛。合掌而化。嗚呼予何所感於公。乃能脫重罣於片言。歷生死而弗二若是耶。茲值公三七之辰。予以俗禮。致奠於公。不能為文以廣頌公德。但備述予深銘於心。而不能忘者如此。此必公之獨有深契於衷。非他人可得而喻者。或宿緣有在。即

公亦不自知其何以至此也。嗚呼如公者。豈可復得耶。靈如不昧。其來歆斯。

祭張達宇居士

崇禎癸未秋七月朔。住福州鼓山湧泉寺沙門某。謹以靈源之泉。鳳池之茗。致祭於達宇張公大居士之靈。而言曰。人之有生死。猶日之有晝夜。歲之有寒暑也。故生不足以為慶。死不足以為悲。所重在生而能善其生。死而能善其死。則非具大智慧大力量者。不能也。余未脫白時。與公及懷庭沈公。結淨土社。二公皆篤信淨土。而余獨兼帶於禪淨之間。迨余脫白。徧參不能長聚首。然未嘗不神交千里也。及余歸閩。公獨延余。居金仙菴者三載。尤見縈戀之情。繼居杭之真寂。聞沈公預自擇日。沐浴更衣。端坐西逝。頂如炙焉。生西之證甚明。余為合掌讚嘆。喜社中之有人也。迨辛巳之秋。歸自金華。寓於三峯。公同沈公之子。皆來會。彼此皤然。非復舊時顏面。及別余執手曰。木末殘陽。光景幾何。彼此老大。恐不復再相見也。彼此皆悵悵而別。今春有興福之役。擬或得一見。未幾而訃音至矣。且聞其臨終坐化。一如沈公。生死之際。超然得力如此。謂非具大智慧大力量者。能然哉。大都沈以沉密勝。公以決烈勝。沉密則其功純。決烈則其功猛。故皆能頓捨穢質。毓神淨邦。善生善死。為聖人之徒也。但思。二公皆先我著鞭。超然遐舉而余獨後死。遲回濁區。良友既達。孤立無與。此則不能忘情於二公也。茲遣僧來奠。鄙不能文。特敘其相與之始末。及欣仰之私情而已。公其鑑之。

考

三玄考

予三十年前學臨濟。三十年後學曹洞。自從胡亂後。始知法無異味。又因曹洞而得臨濟。近因諸師大起三玄之諍。後學莫知適從。予不忍傍觀。聊出一手。豈曰好辯哉。

臨濟曰。大凡演唱宗乘。一句中須具三玄門。一玄中須具三要路。有權有實。有照有用。汝等諸人。作麼生會。

此三玄之始也。既曰一句具三玄。一玄具三要。豈可如古塔主洪覺範之逐句分別乎。有權有實。有照有用。三玄三要。總不出此。

汾陽曰。凡一句語。須具三玄門。每一玄門。須具三要路。有照有用。或先照後用。或先用後照。或照用同時。或照用不同時。先照後用。且要共你商量。先用後照。你也須是箇人始得。照用同時。你作麼生當抵。照用不同時。你又作麼生湊泊。

玄要之旨。又被汾陽開通發揚之。快會取好。昔天台韶國師答彥明之問。以三要。為照要用要照用同時要。失其旨矣。僧問汾陽。如何是學人著力處。師曰。嘉州打大像。曰如何是學人轉身處。師曰。陝府灌鐵牛。曰如何是學人親切處。師曰。西河弄師子。乃曰。若人會得此三句。已辯三玄。更有三要語在。切須薦取。不是等閒。與大眾頌出。曰三玄三要事難分。得意忘言道易親。一句明明該萬象。重陽九日菊花新。

汾陽三句。如火聚。近之不得。背之非火。若能會取三玄。無剩旨矣。然猶云更有三要語在。切須薦取。何也。汾陽不云乎。一句明明該萬象。重陽九日菊花新。若未忘言。難契此旨。

又舉三玄語曰。汝還會三玄底時節麼。直須會取古人意旨。然後自心明去。更得變通自在受用無窮。喚作自受用身佛。不從他教。便識得自家活計。所以南泉曰。王老師。十八上解作活計。僧便問。古人十八上解作活計。未審。作箇什麼活計。師曰。兩隻水牯牛。雙角無攔捲。復云。若要於此明得去。直須得三玄旨趣。始得受用無礙。自家慶快。以暢平生。大丈夫漢。莫教自辜。觸事不通。彼無利濟。與汝一切頌出。頌曰。第一玄。法界廣無邊。森羅及萬象。總在鏡中圓。第二玄。釋尊問阿難。多聞隨事答。應器量方圓。第三玄。直出古皇前。四句百非外。閻氏問豐干。

汾陽云。直須會取古人意旨。然後自心明去。更得變通自在受用無窮。即此觀之。臨濟之全體大用。一三玄盡之矣。有祇作大機大用看者。非是。汾陽三頌。雖分為三。乃是不分而分。分而不分。三頌雖止云第一玄第二玄第三玄。其實首一頌。即明體中玄。第二頌即明句中玄。第三頌即明意中玄。達者詳之。

僧問古塔主曰。三玄三要之名。願為標出。古曰。三玄者。一體中玄。二句中玄。三玄中玄。(有云意中玄)此三玄門。是佛祖正見。學人但隨人得一玄。已具正見。入得諸佛閻奧。

昔臨濟大師。但云。一句須具三玄。一玄須具三要。未聞有體中玄等名目。汾陽頌亦祇云第一玄等。故洪覺範非古塔主妄立。然浮山遠公有云。意中玄者。非意識之意。遠曾親見汾陽。且久依之者。則是三玄之名。其來已久。非古塔主所立也。後來見諸師語錄。率皆承用。如圓悟碧巖集中。亦云三玄者體中玄句中玄意中玄。圓悟既如是釋。則三玄之名。殆未可非也。

古塔主釋汾陽頌曰。三玄三要事難分。總頌三玄也。下三句別列。得意忘言道易親。此玄中玄也。一句明明該萬象。此體中玄也。重陽九日菊花新。此句中玄也。

據汾陽頌。明言玄要難分。但得意而忘言。則一句之中。無所不包。如云重陽九日菊花新一句。三玄三要。皆可冥會。今塔主乃逐句。分釋三玄。則三要又將何分釋乎。

僧問。如何是體中玄。塔主曰。如肇法師云。會萬物為己者。其惟聖人乎。又曰。三界唯心。萬法唯識。又曰。諸法所生。唯心所現。一切世間因果。世界微塵。因心成體。如此等。方是正見。纔缺纖毫。即成邪見。便有剩法。不了唯心。僧又問。何等語是體中玄。塔主曰。如佛以手指地曰。此處宜建梵剎。天帝釋將一莖草。插其處曰。建梵剎竟。佛乃微笑。水潦被馬祖一踏踏倒。起曰。萬象森羅。百千妙義。祇向一毫頭上。便識得根源去。僧問趙州。如何是學人自己。州曰。山河大地。此等所謂合頭語。直明體中玄。正是潑惡水。自無出身之路。僧進曰。有何言句。明出身之路。塔主曰。如杏山問石室。曾到五臺否。對曰。曾到。曰見文殊否。對曰。見。曰文殊與汝道什麼。對曰。道和尚父母拋在荒草裏。僧問甘泉。維摩以手擲三千大千世界於他方。意旨如何。曰。填滿溝壑。僧曰。一句道盡時如何。曰百雜碎。雲門問僧。甚處來。曰南嶽來。又問。讓和尚為甚入洞庭湖裏。僧無對。雲門代曰。謝和尚降尊就卑。此等語。雖赴來機。亦有出身之路。要且未得脫灑潔淨。更須知有句中玄。

古明體中玄。所引言句。姑未論其是否。但其意祇是認平常理性。未出格量。豈臨濟體中玄哉。

僧又問。既悟體中玄。凡有言句。事理俱備。何須句中玄。塔主曰。體中玄。臨機須看時節分賓主。又認法身法性。能卷舒萬象。縱奪聖凡。彼此見解所纏。不得脫灑。所以須明句中玄。若明得。謂之透脫一路向上關楨。又謂之本分事祇對。更不答話。僧曰。何等語是句中玄。塔主曰。如比丘問佛說甚法。佛曰。說定法。又問。明日說甚法。佛曰。不定法。曰今日為甚定。明日為甚不定。佛曰。今日定。明日不定。僧問思和尚。如何是佛法大意。思曰。廬陵米作麼價。又僧問趙州。承聞。和尚親見南泉。是否。州曰。鎮州出大蘿蔔頭。又僧問雲門。如何是超佛越祖之譚。門曰。餬餅。如何是向上關楨。門曰。東山西嶺青。又僧問洞山。如何是佛。山曰。麻三斤。若於此等言句中。悟入一句。一切總通。所以體中玄見解。一時淨盡。從此已後。總無佛法知見。便能與人去釘楔。脫籠頭。更不依倚一物。然但脫得知見。見解猶在。於生死不得自在。何以故。為未悟道故。於他分上所有言句。謂之不答話。

今世以此為極則。天下大行。祖風歇滅。為有言句在。若要不涉言句。須明玄中玄。

古曰。透向上關楨。無佛法知見是也。又曰。能與人去釘楔。脫籠頭。不依倚一物是也。但曰。脫得知見。見解猶在。且曰。未悟道。既未悟道。則所謂見解。何能透向上關楨乎。自己之釘楔未拔。籠頭未脫。何能為人去釘楔。脫籠頭乎。是知古之所謂句中玄。但是學解之流。說出許多玄言妙句而已。豈臨濟之句中玄哉。

僧問。何等語是玄中玄。塔主曰。如外道問佛。不問有言。不問無言。世尊良久。外道曰。世尊大慈。開我迷雲。令我得入。又僧問馬祖。離四句絕百非。請師直指西來意。祖曰。我今日無心緒。但問取智藏。僧問藏。藏曰。我今日頭痛。問取海兄。僧問海。海曰。我到這裏却不會。又臨濟問黃蘗。如何是佛法的大意。三問三被打。此等因緣。方便門中。以為玄極。惟悟者方知。若望上祖初宗。即未可也。

古所引因緣。皆是不涉言句者。謂之玄中玄。惟悟者方知。誠如是。則前所引。廬陵米。麻三斤。雲門餅等。祇是句中玄。未具玄中玄。皆未悟者。所能知也。又如汾陽。所謂嘉州打大像。陝府灌鐵牛。西河弄師子等。亦祇是句中玄。未具玄中玄。皆未悟者。所能知也。其謬甚矣。是知。古之所謂玄中玄。盡屬妄想。豈臨濟之玄中玄哉。

僧曰。三玄須得一時圓備。若見未圓備。有何過。塔主曰。但得體中玄。未了句中玄。此人長有佛法知見。所出言句。一一要會三乘對答。句中須依時節具理事分賓主。方謂之圓。不然。謂之偏枯。此人以不忘知見。故道眼未明。如眼中有金屑。須更悟句中玄乃可也。若但悟句中玄。即透法身。然反為此知見奴使。竝無實行。有僧愛人我。以心外有境。未明體中玄也。雲門臨濟下兒孫。多如此。凡學道人。縱能悟得二種玄門。又須明取玄中玄。方能不坐在脫灑路上。始得平穩。腳踏實地。

既悟體中玄。而曰不忘知見。道眼未明。則此體全妄。未得為玄也。既曰但悟句中玄。即透法身。而猶曰未明體中玄。何也。夫體中玄。正是法身邊事。豈有透法身之人。尚不明法身者乎。是知古所認體中玄。非明法身。句中玄非透法身。總之。妄生擬議而已。大抵三玄。須是一句具三。一時圓備。不可以前後淺深分。一若有缺。則二皆滲漏。亦不得名玄也。至覺範。好論古之失。而不能深明其失。但詆其不合以玄沙三句。判三玄而已。夫玄沙三句。其語具在。彼第一句有云。若知出格之量。則不被心魔所使。入到手中。便轉換落落地。言通大道。不坐平常之見。

今古所云長有佛法知見等語。正未出格量。坐平常見者也。擬之玄沙第一句。不大逕庭哉。玄沙第二句有云。出生入死。廣利一切。迥脫色欲愛見之境。今古云。為知見奴使。竝無實行。有愛憎人我。擬之玄沙第二句。不大逕庭哉。玄沙第三句有云。大用現前。應化無方。全用全不用。全生全不生。今古但云不涉語言。乃取世尊良久。馬祖答離四句。臨濟三次喫棒等證。謂其不涉語言。擬之玄沙第三句。不大逕庭哉。是知古固不識玄沙。而覺範非特不識玄沙。亦竝不識古也。輕呵妄引。覺範之過甚矣。覺範曰。此方教體。以音聞應機。故明道者。假以語言。發其智用。以言遣言。以理辯理。則妙精圓明。未嘗間斷。謂之流注真如。此汾陽所謂。一句明明該萬象者也。得之者神而明之。不死於句下。故其應機而用。皆脫略窠臼。使不滯影迹。謂之有語中無語。此汾陽所謂。重陽九日菊花新者也。三玄之說。本由遣病。故達法者。貴知其意。知意則索爾虛閒。隨緣任運。謂之不遺時。此汾陽所謂。得意忘言道易親者也。

此覺範之所謂三玄也。自此方教體。至一句明明該萬象。明體中玄也。自得之者。至重陽九日菊花新。明句中玄也。自三玄之說。至得意忘言道易親。明意中玄也。昔古塔主。以汾陽頌。分配三玄。大乖汾陽之旨。今覺範亦從而分之何耶。又覺範每呵古塔主。不合妄立體中玄等名目。今亦暗承而用之何耶。且其釋義。前二玄。亦祇是玄沙古塔主之說。惟後一玄不同耳。是知覺範所論。多任一時之快。矛盾若是。人每愛其才。而遂信其說。其遺害可勝道哉。

覺範曰。非特臨濟喜論三玄。石頭所作參同契。備具此旨。嘗深觀之。但易玄要之語。為明暗耳。文止四十餘句。而以明暗論者半之。篇首便標曰。靈源明皎潔。枝派暗流注。又開通發揚之曰。暗合上中言。明明清濁句。在暗則必合上中。在明則須明清濁。此體中玄也。至指其宗而示其意。則曰本末須歸宗。尊卑用其語。故下廣敘明暗之句。奕奕聯連不已。此句中玄也。及其辭盡也。則又曰。謹白參玄人。光陰莫虛度。道人日用能不遺時失候。則是真報佛恩。此意中玄也。

以參同之明暗。為玄要。復以三玄。分判參同。大失兩家之旨。文字禪中亦有一篇。與此大同小異。又謂參同即臨濟之句中玄。夫同一參同。亦同一覺範也。所判之不同若此。將何以取信於人乎。吾觀覺範之謬妄。視古塔主。殆似過之。彼一生屢經禍患。踰[跳-兆+屏]終身。蓋有以取之也。豈曰無妄之災乎。

龍潭考

宋景德傳燈。止載天皇悟嗣石頭。而不知同時有二道悟。一嗣馬祖。住荊州城西天王寺。一嗣石頭。住荊州城東天皇寺。歷考唐歸登撰南嶽讓碑。圭峰答裴相國宗趣狀。權德輿撰馬祖塔銘。皆可據。及後達觀穎所引。丘玄素符載二塔銘。載之益詳。此無可疑者。但丘銘中。以龍潭信嗣天王悟。此則不能無疑焉。予嘗考雪峰語錄。峰對閩王。自稱得先德山石頭之道。又鼓山晏國師語錄序中亦稱。晏為石頭五葉孫。此二書在五代之際。去龍潭不遠。豈應遽忘其所自哉。據此。則知龍潭信所嗣者天皇悟。非天王悟。其證一也。又龍潭信家。居荊州城東天皇巷。以賣餅為業。日以十餅。饋天皇和尚。皇每食畢。嘗留一餅曰。吾惠汝以蔭子孫。信一日自念曰。餅是我持去。何以返遺我。其別有旨耶。遂造而問焉。皇曰。是汝持來。復汝何咎。信聞之。頗曉玄旨。因投出家。皇曰。汝昔崇福善。今信吾言。可名崇信。由是服勤左右。據此。則知龍潭信所嗣者天皇悟。非天王悟。其證二也。又信一日問天皇曰。某自到來。不蒙指示心要。皇曰。自汝到來。吾未嘗不指示汝心要。信曰。何處指示。皇曰。汝擎茶來。吾為汝接。汝行食來。吾為汝受。汝和南時。吾為汝低頭。何處不指示汝心要。師低頭良久。皇曰。見則直下便見。擬思即差。師當下開解。復問。如何保任。皇曰。任性逍遙。隨緣放曠。但盡凡心。別無聖解。又一日問。從上相傳底事如何。皇曰。不是明汝來處不得。信曰。這箇眼目。幾人具得。皇曰。淺草易於長蘆。據此。則知龍潭信所嗣者天皇悟。非天王悟。其證三也。今此三段所證。昭彰如是。而丘玄素塔銘中。以龍潭嗣天王。何得獨異。察知。明是後人。妄將崇信。改入天王塔銘中。以為爭端耳。不然。必將前三段所證之文。一筆抹去。而後可以成其說也。又張無盡嘗謂。雲門機鋒似臨濟。宜為馬祖之後。此則齊東野人之語也。古來同稟一師。而機鋒各別者多矣。豈必盡同。如雲門法眼。同出雪峰。若雲門當歸馬祖。則法眼又當歸石頭耶。如丹霞投子機鋒。不亞臨濟。杏山與三聖。皆失機於石室。則丹霞投子石室。又當改入馬祖下耶。又如南泉父子。皆馬祖之嗣也。而不用棒喝。為山父子。皆百丈之嗣也。而不事孤峻。又當改入石頭下耶。且予嘗考雪峰全錄。其禪備眾格。波瀾濶大。故其語有時似臨濟。有時似曹洞。其徒如玄沙長慶保福鼓山安國鏡清等皆然。即雲門雖機用獨峻。而實語不十成。機不觸犯。且歷參曹山疎山九峰乾峰。其語具在如三種病二種光等語。則全本乾峰。此尤其顯然者也。豈可謂其同於臨濟。當嗣馬祖下也。無知之徒。固難與辯。高明之士。可考而知。故作是以告天下智者。幸詳察焉。

永覺和尚廣錄卷第十六

疏

獨詣師造靜室疏

原夫。無動無靜者。妙道之體。有動有靜者。妙道之用。舍靜趨動者。凡夫之迷。厭動耽靜者。二乘之執。若然。則晏坐深林。株守寒谷。避塵氛而弗入。甘枯木之弗榮。將無蹈二乘之偏轍。乖實教之大旨乎。是蓋有微權也。道非靜也。必由靜而後明。道非動也。必由動而招蔽。語云。探珠宜浪靜。動水取應難。故我佛設教。上根之士。則動靜雙忘。超然獨證。其次則先習定水。次發慧光。非耽靜為休歇之場。實借靜為入道之要。誠能由靜而明。慧光輝映。則山河大地。一切境緣。謂其洞然無物可也。謂其決非他物可也。謂其為山河。為大地。為一切境緣亦可也。夫如是。則朝市不為鬧。山林不為寂。大千不為富。一壑不為貧。大眾不為多。一人不為獨。雖終身向萬仞峰頭。目視雲漢。謂其為厭動耽靜得乎。若生死根未能斬絕。水牯牛未免犯稼。浪游俗境。不知返攝。將見心逐境而駛遷。智隨物而霧惑。雖托名大乘。其為自欺亦甚矣。壽昌獨詣師。子影七石山頭。精修禪寂。已經三載矣。茲復于龍津之源。擬立數椽。以為宴坐之所。蓋亦借靜以求其無動無靜者也。閩中古號法窟。宰官居士。無不久味禪悅。洞深法喜。慨然而施。不日而成。又豈待余言之多贅乎。但動靜不相干一句。却請師自領荷去。

道顯建佛頂庵疏

東崑之口。有山名峒嶺。峒嶺之巔。有庵名佛頂。歲月寢久。棟宇差脫。風飄雨灑。雪霰滿床。道顯上人居之。垂二十秋。今勢難仍舊。理在更張。乃謀重建於余。余曰。子亦知建剎之意乎。昔世尊遊山次。顧曰。此處宜建梵剎。帝釋即豎起一莖草曰。建梵剎竟。看他父子唱和。如線透金鍼。舉揚斯事。如滴含巨海。若能識得此剎。則吸盡江西之水。推倒大雄之山。轉大千經卷於半晌之間。參剎海如來於一塵之內。雖然如是。帝釋未豎草時。世尊梵剎早成就了也。還識得麼。呵呵。此二千年前。臭爛葛藤。是事且置。今日斬新公案。不免為諸人拈出。峒嶺深處。宜建梵剎。普請諸檀出一

隻手。正好當機領略。切莫道。神通妙用不如帝釋也。且出一隻手時如何。合掌曰。珍珠撒出紫羅帳。直教大地盡黃金。

妙高峰建觀音殿疏

栴檀觀音像者。先是秋浦上人募造。邑中王臣宰官。長者居士。咸樂助之。像既成。將擇地以居。適上人告寂。擇地未決。僉議以妙高峰當三里之中。為一邑之鎮。翠映全城。影搖二水。宿為名勝之區。擇是以居大士。誰曰不宜。於是眾不約而集。手昇大士像。置之峰頂。將別營殿以祀之。住僧某。特來山中。乞某一言為勸。某溪南之鄙人也。濫竽緇侶。藏拙荒林。奚敢持鴻毛之輕。瀆大人之聽乎。既弗克辭。乃藉大士之靈。以告曰。經言大士之惠。上與諸佛全慈。下與眾生同悲。與諸佛同慈。則慈應而無緣。與眾生同悲。則悲發而無盡。由是大士實無一處。無一事。無一時不在眾生心想中。眾生亦實無一處。無一事。無一時不在大士心想中。大士日於眾生心想中。放大光明。施大甘露。而眾生不知。唯不知。而大士之慈悲益深矣。眾生日於大士心想中。鼓黑暗風。長煩惱燄。而大士不捨。唯不捨。而眾生之苦惱或有瘳乎。故大士之視眾生。如慈母之撫孺子。眾生之歸大士。宜如孺子之戀慈母。倘背母而他逝。則零丁辛苦。豈母之弗慈也耶。今者旃檀瑞像。既已示現峰頭。黃金寶殿。次當奏成日下。某願。人人發孺慕之心。回他逝之情。撥轉向上機關。露出通身手眼。則雲輪川委之金帛。麗天絢日之莊嚴。又何待吾言之喋喋也。雖然如是。大士今向妙高峰頭。放光動地久矣。各請直下承當。更莫回睛轉腦。

降福山建庵疏

建治之東五十里。有山名降福。巉巖歷落。雄踞雲間。每歲中秋。居民必備香儀。祀月天於其上。今上丁卯。僧某結廬茲山。習杜多之行。已經三載。里中士女。咸謂宜建庵以便焚修。乃謀于余。余曰。月之為物也。懸形蒼表。流光大地。生民藉其輝映。萬彙資其清涼。故民咸樂祀之。報其功也。且其德大。有近于吾佛之道者。靈照自如。虧蔽不能損其光。何其明也。影現眾水。大小未嘗異其照。何其公也。觸波瀾而不散。何其寂也。歷汙濁而不染。何其貞也。循環不失其運。何其恒也。盈虧不爽其時。何其信也。光被四洲吞萬象。而心實無應。何其虛也。備茲七者。大有近於吾佛之道。故靈鷲標之。藥山嘯之。韶陽對之。濂洛弄之。至于寒山道底。則曰。我心似秋月。無物堪比倫。嗚呼月之德亦云盛矣。即立

庵而專祀之。亦奚不可。況能因月而事佛。因佛而事心。則本覺自昭。障不能昏。非月之明乎。廣利無方。恩怨不二。非月之公乎。處喧囂而常靜。非月之寂乎。居塵穢而獨潔。非月之貞乎。自強不息。非月之恒乎。孚及豚魚。非月之信乎。順物而應。應而無心。非月之虛乎。夫如是。是真能事月者。不然。不克反求諸心。而逐逐於儀文香火之末。是媚之也。亦誑之也。媚之誑之。不可以事月。況佛乎。況心乎。茲者降福之役。蓋將因事月而事佛。因事佛而事心者也。夫橫目之民。皆知有月。舉頭見月。孰不歸心。吾將見樂輸而樂成之。固不待勸而集。第恐其不免於媚與誑也。故因以廣告之云。

南禪寺結盂蘭盆會疏

天下之有為者。莫盛乎生。天下之有生者。莫盛乎親。親也者。生之本。而有為之原也。可弗重歟。故夫子獨首務於此。乃著孝經。且曰。吾行在焉。若我佛。張無為之化。崇出世之法。宜于孝在所略者。然考其大戒。開端即曰。孝名為戒。亦名制止。曰孝順至道之法。是孝為大戒之本也。又經曰。使我得成無上正真之道者。由孝德也。是孝不獨為大戒之本。亦為六度之本。亦為三藐三菩提之本也。至于訓諸弟子。則謂父母與補處菩薩等。許弟子減衣鉢之資。養其父母。父母有正信者。可恣與之。無正信者。可稍與之。藏中勸勉。不一而足。何嘗不以孝為首務哉。但我佛之孝。與世俗異。世俗之孝。在順其情。我佛之孝。在順其性。世俗之孝。在資其形。我佛之孝。在資其神。且謂。父母之精神。逐浮情而變化。隨幻業以昇沉。乃推及於三世。無不欲委曲保護。俾得措於大道。第以神性之理既微。變化之機復冥。故世俗莫之能知。莫之能信。輒曰。佛氏無父。佛氏無父。亦未之深考也。夫順性資神之道。固所難明。而形情之間。亦豈遠于人法哉。如釋尊初割愛入山。修無上道。道既成。乃謁母於忉利。為母說法三月。而還其國。為父說法。國人皆化之。及父王沒。躬率諸釋。負棺以塋。弟子目犍連。欲求其母。則為說盂蘭盆法。且囑諸弟子。歲必行之。凡若此者。皆示同人法。特其教迹各異矣。建城諸居士。請百拙座主。於孟夏之朔。啟講盂蘭盆經。至望日則如法設供。兼修懺摩及瑜珈施食法。是俾其親神超冥漠之天。化移思議之表。天地有所不能制。惑業有所不能拘。其法利殊常。豈但五鼎之豐。三獻之勤。以為能孝乎。蓋其迹則略近於世俗追遠之祭。而資神之妙。唯我釋為獨至也。某歸禪有日。祀事久虛。不孝之罪。無所逃責。聞茲勝舉。不

覺慚喜交發。故不辭筆舌。首為唱言。凡有親者。請入斯會。倘不以余言為妄。則幸矣。

栢山建庵疏

粵自摩騰入漢。僧會來吳。寶剎碁布。幾徧域中。列聖相承。靡不崇重。豈徒為是不急之務。侈耳目之觀乎。蓋以佛之為教也。究極一心之原。則孔老有所未發。廣包十界之外。則經史有所未周。立因緣以為宗。則空有雙妙。而百家無以置其喙。設止觀以為門。則體用交融。而千聖莫能異其轍。蕩開積劫之迷謬。翻示本有之真常。故二千年來。洞性命之奧。窮生死之源者。未有不歸於我佛者也。故其崇奉之間。必極其誠敬。而金錢穀帛。所弗吝矣。即其下者。或藉之以開自新之路。或假之以成請福之門。雖功在有漏。終不唐捐。近之可作入道之緣。遠之必為解脫之因。如華嚴經食金剛之喻是也。如法華經聚沙為塔。各成佛道是也。茲建水之西。真武嶺之陽。有山名栢山者。突出天半。俯瞰全城。千峰頓舞於座下。二水交流於席間。晴嵐夕暉。帶瑞光而掩映。松雲竹雨。傍佳氣而葱籠。實靈秀之所鍾。吉祥之所集。第隱而未發。大有待於今日者也。某上人夢寐斯山。蓋亦有年。今暫依敗屋。習靜其中。而里閭諸老。咸謂此地宜建寶方。為國祝釐。但以山非止於一簣。海必資於羣流。乃不揣綿力。徧干有緣。唯願各弘檀度。共贊嘉猷。施一文以及百千萬文。滴滴全歸海若。勸一眾以及百千萬眾。珠珠普攝網光。則栢山雖小。終為淨國之殊因。建立雖粗。咸為妙道之勝行矣。謹疏。

雙滌寺造佛像疏

吾聞。易之為教也。必立象以盡意。而造易之道者。必忘象以明心。象不立則意弗盡。象不忘則心弗明。故未有不由象而入。亦未有不忘象而得者。用觀我佛之教。亦若是。曩者靈山會上。橫說豎說。不為不多矣。而猶必設像以示之。蓋以像者象也。象之所示者圓。言之所示者方。象之所示者廣。言之所示者局。學者多以有執著之心。觀有局量之言。所以機死於境。神困於慮。求其廓然天解。不亦難乎。唯懸象以立教。則言不可得而詮。心不可得而計。忽然遇於目。契於神。心與象俱忘。而慧光渾圓。輝映十方矣。彼三百餘會。五千餘軸。又有過於此者乎。雙滌某上人。重建寶方。棟宇落成。但聖儀未備。勢必次及。復有待於諸檀也。夫造像功德。諸經備載。亦諸檀所稔聞者。至於由像契心。優入覺域。則其

功德較前功德。為何如哉。且由心造佛。佛即是心。假彼他佛。成我心佛。是又不獨為雙滌造佛也。謹疏。

北山靜室化米疏

北嶺峇嶷。直聳千尋之勢。東峰橫亘。常浮萬竈之煙。清冷雲中。昔來已成寶所。荒蔓草裏。今日幸構蝸廬。歷六載以修因。蓋有志矣。攝一心以入道。乃願學焉。但釋種兒孫。本無卓錫之地。比丘軌範。獨有持鉢之緣。祇此凡軀。未可指松栢為食。素無仙術。詎能吸沆瀣而充。勵功信在於一人。資糧必假於眾助。不免打開布袋。便請撒出珍珠。

避影山房化佛像疏

優填瑞像。肇勝化於西乾。阿育靈儀。浮祥光於東震。休道跋提已滅。疑從兜率再生。炳煥世表之休明。映奪人間之秀麗。戒定慧三學。離此難求。法報化三身。祇這便是。儼神像之如在。敢不敬乎。望佛果而知歸。賴有此矣。今既就陰而息影。首假立像以攝心。欲成滿月之容。請下如椽之筆。

龍潭靜室化田疏

石塘巖畔。珠樹映白毫之光。龍井窩中。金繩耀彩雲之色。數椽草屋。堪為息影之區。一片冰心。早成逸老之計。蒲團拄杖。已結友於青丘。雨笠雲蓑。將有事於綠畝。但仰山無插鋤之地。平田少驅犢之場。恒產無存。供資有待。蒸砂未能作飯。烹雲詎可療饑。欲求百丈之疇。必須甘贄之鏟。鋤頭下。好窮大義。筆尖上。請放光明。

蕉林金仙庵化萬人緣買田疏

蕉林積翠。久覆舊隱之蹤。金剎浮光。遠繼古仙之苑。萬松影裏。不妨揭起把茆。十字街頭。便好打開布袋。要得食輪先轉。的須檀度樂成。驅牛未問於平田。出鏟冀逢乎須達。欲從一鋤下。覓取半箇。敢向片楮中。尋出萬人。不辭拈起話頭。便請各開笑口。

白水巖諷華嚴經疏

盡大地是沙門一隻眼。更於何處有經。徧法界是華嚴一經卷。更於何處著眼。若也於斯領略。便已脫彼廉纖。說甚十種玄門。打入不須彈指。縱道一真法界。笑破豈用回頭。祇為習障轉深。無奈塵封難剖。若不從音聲海震地喧天。怎能得光明雲輝今映古。要入毗盧海裏。橫架鐵船。且向觀音門頭。直揚影草。一聲入耳。何須更歷百城。半偈冥心。正好直超九界。梵音纔舉。豁開大地之心光。寶帙初繙。頓圓一生之佛果。偉哉法力。奇哉眾生。箇箇自具一經。祇要自悟自證。人人同登此會。管取同號同名。

萬石灘頭建中元水陸齋疏

煙汀雲暗雨空濛。常漲翻空之浪。沙磧月明風慘切。時聞泣夜之魂。綠柳岸頭。正好垂援溺之手。白蘋浦上。孰能橫度險之舟。茲某當日連球倒之日。啟梁武修齋之儀。直教鐵圍山頓消日下。佇看金沙地立現灘前。大川漩澗。任乘風而利涉。客帆搖蕩。儘破浪而無虞。願出五家之財。全修三堅之法。實有徵而可信。幸勿迂而弗從。

寶善庵請大藏經疏

靈山老人。出世一番。從無說有。舌根拖地。雖曰經曰律曰論。因機而設。藉緣而興。若千波競起。萬峰爭峭。要之。祇明此本地風光而已。是知。大藏之中。一言一句。竝是諸佛之心髓。眾生之法藥。又安論其為權為實為教內為教外乎。近日黃口禪雛。動輕三藏。却記宗下語言棒喝。以為生活。不知其執滯筌蹄。度量佛智。在宗而違宗。在教而背教。其弊正等也。茲聞谷大師飛錫南來。寓劔州之寶善。禪衲輻輳。機固非一。而大師門庭廣大。三根竝攝。由是監院心師。思請大藏普潤羣機。時有文學徐君。首發大心。揮金為倡。然大廈非一木之能構。為山非一簣之可成。倘得同出一手。共贊嘉猷。則一文一粒。皆濁海之寶帆。而佛果之真種也。待他年踏著本地風光。却向他道。三藏靈文原是多年故紙。亦有何過。

鼓山鑄法華銅鐘疏

眾生礙於形。局於方。分寸成隔。而不能通。其能通者。唯聲與聞也。是知。聲之所暨最廣。而聞之所迨最神。凡寓內齊眾之法。醒眾之方。捨聲聞無能及者。今上自朝廷。下及僧舍。凡警晨昏。齊

進止。必有藉于鐘。豈非鐘以聲聞為用。乃處眾者。所必資乎。至于釋典所載。冥途聞鐘聲。而苦具為之頓息。關內聞鐘聲。而髑髏為之頓碎。則其用益神矣。鼓山湧泉寺。闢草重創。能始曹公。首建大殿齋堂。得山林公。乃於大殿之前。建鐘鼓二樓。及方伯申公來遊茲山。遂捐俸金。命範法華銅鐘。由是。寺乃遣僧行乞。翼成勝事。夫以法華而入鐘聲。以鐘聲而宣法華。俾人人一著耳根。即領全經。無勞濡滯草庵。而頓獲家藏。不庸走出火宅。而穩駕白牛。其為福田利益。為何如也。抑聞之。鐘之為器也。必三合而後成聲。必五合而後成聞。夫聲必假於三合。則聲而非聲矣。聞必假於五合。則聞而非聞矣。聲而非聲。則非聲之聲。逼塞虛空矣。聞而非聞。則非聞之聞。周徧法界矣。從此悟入。鼓山鐘早鑄成了也。如其未然。且待一火功成之後。自有大口阿師。普為一切人說破在。

一中上人請方冊藏經疏

曰經曰律曰論。黃鳥一聲兩聲。若佛若法若僧。白雲三片四片。世尊從無說有。橫安龜上之毛。眾生自有尋無。苦索爐中之雪。未免空鑽故紙。恰如癡守枯株。若是出格之機。定不從門而入。怎奈迷封滯殼。每驚暗裏繩蛇。所以說短道長。特架空中樓閣。法法盡從這裏去。沙礫總是精金。言言不自別處來。瓊宮現於莖草。三百餘會。誰非搖影之鞭。五千靈文。盡是止狂之藥。因指若能見月。長安不用更尋。就路便可還家。漢陽去此不遠。茲有一中上人。戒月久嚴。悲花頓發。欲窺大智之域。須假多聞之方。未轉半藏於趙州。先請全書於秀水。是佛說是魔說。直須倒却剎竿。非權乘非實乘。祇要踏穿漆桶。海中波無二味。豈計來源。門外路有千條。均趨輦下。三草二木。竝資法雨以芬敷。七寶八珍。一任貧兒之採取。筆乾舌短。弘讚固不可窮。蚊負蟻緣。流通豈其敢後。為題卮語。徧告檀門。同轉法輪。的屬菩提種草。共出寶手。庶栽般若根苗。謹疏。

鼓山諷華嚴經疏

鼓山故禪剎也。自興聖肇基。聯燈不絕。七十餘代。禪化大行。至嘉靖間。為祝融氏所廢。鞠為茂草。天啟復創。延博山和尚開堂。大演宗風。庶幾匹美前休。但禪堂歲必諷華嚴。以為日課。禪者或以為嫌。予謂。華嚴宗法界。少林傳一心。路分兩徑。歸本一揆。況真實參禪者。自古必兼庶務。如雪峰為山。皆充典座。楊岐興

聖。竝作監院。豈以一卷華嚴。而遂為參禪者所礙乎。又如龍機馬鳴。皆兼教乘。圭峰溫陵。竝註經論。豈以一卷華嚴。而遂為參禪者所礙乎。昔杜順和尚作頌曰。懷州牛喫禾。益州馬腹脹。天下覓醫人。灸猪左膊上。此頌若謂是教。華嚴八十一卷。出於何卷。若謂是禪。渠又是華嚴初祖。可知。但要明此。禪也著。教也著。不必割截虛空。競分彼此。為識者所笑。茲因歲例。募諷華嚴。故筆此以解其惑。若夫因果福德之說。茲不敢贅。

鼓山募米疏

石鼓乃省會之鎮。湧泉為禪衲之淵。忠懿肇基以來。遠歷七百餘祀。興聖唱道之後。永聯七十餘燈。無奈禪風漸替而弗揚。所以佛力益窮而莫振。加之。祝融煽熾。遂爾蘭若丘墟。殘碑倒臥莎庭。狡兔橫眠佛座。茲者。欲吹久灰之燄。結茅於衰草之中。思續既斷之絃。豎拂於荒煙之下。腰包方集。畎畝已空。未及一心而問教問禪。方將仰首而呼庚呼癸。枵腹何能辦道。備緣方可安居。佛有遺規。止資命於一鉢。僧無恒產。但糊口於四方。若欲先轉食輪。必須遠遣乞士。雲門餅趙州茶。固是咀嚼有分。廬陵米金牛飯。便請布施將來。

怡山長慶西禪寺重建法堂疏

閩城之西五里許。為怡山。其上蓋有長慶西禪寺云。寺昉於唐。懶安禪師。自大滄來居。白牛橫觸。耕翻大地。有句無句。攪亂當時。繼而稜道者。則以雪峰鼉鼻毒氣。薰滿閭浮。歷代燈傳。繩繩不絕。與雪峰鼓山。稱閩中三大刹。自入明來。法燈漸泯。以至今日。則無論振宗揚教。不及疇昔。即棟宇之彫弊。亦幾不可支矣。憲長曹公。有痛於衷。乃極力主張之。命住僧。募修大殿。今經三載。功幸告成。而法堂傾頽如故。居者抱慙。遊者興嗟。曹公之意。猶未釋然也。由是住僧復發大心。再行募化。薛居士某。則首捐金以為眾倡。余惟。叢林之立。必建堂以演法。蓋以三寶住持。雖曰竝重。而接物利生。莫法之尚。佛者主此法者也。僧者演此法者也。使佛而無法。何貴於佛。僧而無法。何貴於僧。且諸佛之所同師。羣僧之所共奉。為出險之寶筏。為破暗之明燈。法誠不可一日緩。而堂顧可一日廢歟。是宜緇流之旦夕弗寧。亟思締搆也。然檀那之傷今弔古者。實有同悲。今順風呼之。豈有弗應者乎。吾知金帛之委輸。棟宇之崢嶸。可計日以待矣。第法必藉地而後弘。地必藉法而後重。使有堂而無法。亦何貴於有斯堂也。萬象

之中獨露身。乃七百年來未了公案。迦陵玄音。不容久歇。余又不能無厚望焉。諸君其勉之。

寶善庵建舍利塔疏

昔世尊化權既畢。斂彩雙林。復化為舍利。俾流光現瑞。永為人天福田。蓋其悲心弘願。無有窮盡。乃爾垂迹於末代也。汴之通許縣洪福寺。故有塔。歲久傾圮。近年因流寇至。縣官取其磚修城。得一石匣方二尺。啟之。中藏銀匣一。貯金像二尊。銀瓶一。貯佛骨一節。骨中舍利如黍。水晶瓶七。各貯舍利若干粒。及考其舊碑。則宋皇祐初。曹后命中官。瘞佛骨舍利於塔之第五層。蓋宮中歷朝所奉。悉舉而藏之塔中也。時宜興曹安祖大參。為兵驛道。請舍利一瓶。歸宜興。擬建塔南岳山中。以疾作弗果。臨屬續。以舍利囑嘉興曹愚公侍御。余次年到苕溪真寂。侍御公乃送舍利至。托余任其事。適值屢歲弗登。弗克速成。因思。金陵匡廬鄮山。俱有舍利。輝映人天。而閩中獨未之聞。乃欲歸閩立塔。會心石師暨諸檀越來請。遂俾頂戴入閩。今議建塔於劍州之寶善。蓋以劍州為八閩要道。而寶善復僻入山中。非飲酒茹葷之輩。所得過而問也。夫此舍利。遠在十萬餘程之外。歷三千餘年之久。而止於茲丘。我閩眾生。自開闢以來。所未見聞者。今得遇而躬禮之。是豈眇小之緣哉。且此塔既成。庶幾紫磨金身。常在說法。而一瞻一禮。咸沾殊利。永為菩提種子矣。願我同倫。共出隻手。

羅山法海寺修淨土懺疏

淨土之教。本於大彌陀十六觀等經。稱西方有極樂世界。其功德莊嚴。最為第一。而彌陀世尊。攝諸眾生。歸於極樂。其誓願廣大。又最為第一。眾生者。永斷諸苦。直至成佛。無有退轉。其福德利益。又最為第一。求生此者。但以淨心為本。其淨心之方。或持名或修觀。或廣修眾善。其簡直易行。又最為第一。故諸經廣讚。列祖弘揚。自佛教入中國來。受持之盛。獲效之捷。無有踰於此者。但恐。無始劫來。罪根深重。則障緣實多。淨德難成。由是。宋慈雲懺主。依天台教法。歷考諸經。撰為懺法。總之以淨心為體。以三觀為宗。以滅罪為用。以往生為趣。事備理圓。凡修此者。當先發三種心。一者直心。二者深心。三者廣大心。具此三心。然後依之而修。則非獨罪山可摧。黑業可滅。當不出道場。而可以親見佛光。蒙受記莂。即娑婆界內。坐金色寶蓮之座也。茲羅山法海寺爾和上人。乃結諸淨侶。同修此法。普為四恩三有。布淨

土之因。作往生之緣。毋曰有為之功。久必敗壞。將見金剛之種。永不消亡。倘能各發三心。共修二施。則金池之花輪日長。而菩提之妙果非遙矣。謹疏。

重建鼓山湧泉禪寺疏

昔當五代之際。象骨峰頭。玄波海湧。其間首出一枝。號聖箭子者。則興聖國師是也。國師應閩王之請。居鼓山湧泉寺。唱三毬下事。擁毳徒一千五百人。禪風大播域中。厥後聯燈續焰者。七十餘代。可謂。罕匹其休者也。入明。禪風不競。而佛火經聲。猶自不絕。至嘉靖間。以弗慎厥德。遂為祝融氏所廢。鞠為茂草者。將七十載。萬曆間。郡紳陳公一元曹公學佺。始倡復之。功未及半。力已告竭。以任事者非其人也。崇禎辛巳。殿復為海風所敗。岌岌乎不可復支。適余自浙東歸。諸郡紳命余尸其役。余見勢不可。仍乃謀更造。時在癸未冬十月也。未幾。世厄陽九。事勢之難。實百千於前。幸龍天默護。亦得漸次修建於大亂之中。七歷寒暑。而功尚未竣。今歲干戈甫定。乃仍遣僧行乞。蓋人心有佛。決不以時之治亂而有存亡。況佛誓無疆。又豈以勢之難易而有間斷哉。惟冀諸檀門。各捨不堅之財。共補久虛之闕。事雖墮於世諦。終成勝果之因。道雖極於菩提。不捨有為之績。謹疏。

鼓山建中元廣薦會疏

慨自人事非一。天命靡常。乾坤值否泰之交。民物當鼎革之會。兵戈劫起。儘教血染青山。鯨浪禍生。忍見尸沉黑海。況疾疫繼至。每聞哭泣之聲。饑饉洊臻。難免溝壑之殍。下民無自活之計。鬼錄多枉死之冤。惟仗我佛之良猷。可解斯民之毒苦。目連餉母。乃中元賑濟之期。僧伽自恣。實諸佛歡喜之日。親恩固堪仰報。滯魄亦可兼超。經演十玄。圓頓之妙門可入。懺宣十卷。梁武之遺教猶存。設蘭盆於日中。聖凡普供。施甘露於景暮。神鬼同歸。是為大聖之慈航。亦增下凡之厚祉。那箇作佛。同懷普濟之思。誰人無親。共存追遠之念。惟願揮彼阿堵物。正宜圓此菩提心。不辭拈起話頭。便好各開笑口。

修長樂龍泉寺疏

長樂之有沙京。文獻之勝區也。沙京之有龍泉寺。又禪祖之勝區也。寺創自唐之中葉。咸通中。始賜今額。百丈大智禪師。實脫白

受業於茲。自唐迄宋。殿宇之崔嵬。龍象之蹴踏。郁郁乎稱上剎也。入元。禪學寢衰。日就凌夷。至明之天順。遂盡化為屍陀林。凡一百三十載。至萬曆間。故太守陳公玉運丞葉公時敏。首倡興復。舉僧大正董其役。復得其徒常惺佐之。由是。轉棘林為寶方。化北邙為淨國。而四方之考往蹟弔前修者。無復彼黍離離之嘆矣。然烏兔邁往。計今已五十餘年。屢經風蕩雨漬。凜凜有大過棟撓之懼。夫世運遞變。物力漸消。固無有常而不壞之理。但補偏救敝。以貽諸久遠。功則在人也。釋今弗修。將前功且歸於何有。而後來亦失所憑依。則是役烏容緩乎。此正諸檀那。急出一手之時也。宿緣有在。時機不再。白毫光中。正好打開武庫。紫羅帳裏。便請撒出珍珠。雖家有貧富之殊。物有輕重之異。而好善一念。實靡有間。竝自菩提心中流出。萬善同歸。皆成佛道。正如江河溪澗。以及涓涓之泉。咸趨溟渤。盡化為鹹。又安有小大異同之可辯哉。或者謂。天造草昧之時。生民以救死為急。何暇營此不急之務。予謂。世運有否泰。佛性無存亡。諸佛在眾生心想中。日轉無上法論。無有斷絕。又豈治亂之所能間哉。惟在有智者。能不昧耳。今日之事。為有智者言。非為無智者言也。為有佛性者言。非為無佛性者言也。又何辭於喋喋哉。謹疏。

諷經護國疏

鼓山湧泉禪寺傳法住持比丘某。謹卜今年三月朔旦。躬率僧眾。諷誦仁王護國經二十四部。祈靖寇氛以綿國祚者。伏以。勢居坎[穴/臼]。誰為出險之援。禍至堅冰。安得回春之力。仰于大覺。俯[田/升]洪慈。切念。某誕躬塵世。寄跡空門。木食草衣。滴水悉濡於聖澤。巖居穴處。寸土竝覆於天庥。捐頂踵而難酬。捧涓埃而莫報。何意。日中之運。遽逢薄蝕之災。饑饉洊臻。老稚盡轉於溝壑。干戈數起。士農半入於潢池。鯨波未靖於海南。鐵馬正驕於塞北。中原板蕩。陣雲染戰血成黃。全楚陸沉。原草將枯骨同白。秦關既破。兵投刃而鼠奔。晉險亦逾。官奉檄而草偃。害將及乎宗社。勢必迫於神京。近因南北之耗不通。以致上下之憂特甚。緇衣既弱。徒懷獻曝之誠。佛德可憑。恭宣護國之典。伏願。金輪永鎮。鼇極常安。鋒鏑頓消。四郊之呻吟驟息。寇兵遠遁。萬姓之疲困盡紓。日月代明。長懸無外之炤。地天交泰。共釀太和之休。匝地而大有書年。普天而太平垂象。某無任激切懇禱之至。

崇禎皇帝遐升禮懺疏

伏以。堯天久運。八紘戴覆育之恩。舜日驟沉。四海失依怙之主。思修報國之典。聊陳用禱之誠。竊惟。某四依托活。六事隨身。山密林深。甘作釋氏之子。天高地厚。容為聖世之氓。躍冶頑金。亦是乾坤之陶鑄。不材凡木。誰非雨露之資成。歌帝力而未能。沐皇仁而思報。雖乏股肱效忠之力。尚有晨昏致祝之勤。夫何。禍起綠林。敢揮戈而犯闕。變生宮掖。忍鬻國而啟關。驚軒轅之上升。徒仰龍車而莫及。悲放勳之徂落。欲攀天仗而無從。鬼哭神號。孤憤上干於白日。天崩地裂。深痛直徹於赤心。空懷寸草之哀誠。罔答三春之大化。用遵古皇遺範。特申虎拜之恭。徧舉善逝洪名。屢罄嵩呼之悃。提瑜伽之秘印。兩法財於空中。顯[口*紇]哩之妙光。破鐵城於地下。修茲圭撮之微善。仰答鴻濛之巨恩。伏願。天祚彌隆。皇仁仍溥。神威廣運。再造不壞之河山。睿德益昌。重揭大明之日月。挽回殺運。躋蒼生於仁壽之天。殲滅妖氛。轉鴻鈞於清寧之宇。某無任激切懇禱之至。

崇禎皇帝遐升禮懺表

伏以。天步多蹇。適值震驚之時。帝德難忘。益深孺慕之悃。隔幽明而寸心弗易。亘今古而大義不磨。思報德之無從。聊摠誠而致禱。臣某等。誠惶誠恐。稽首頓首上言。竊惟。貞元運變。古今之局何常。天澤分彰。上下之名素定。域中首崇三大。敢忘修敬之心。釋典尤重四恩。深懷報德之念。蜎飛蠕動。誰能背化日光天。澗草岩花。亦盡沾和風甘雨。普天在宥。易地歸仁。茲蓋伏遇 皇帝陛下。神明天縱。英武性成。視民如傷。類周文之至德。律身以儉。同夏禹之丕謨。夫何。國運方衰。遂爾天災洊至。百千萬變拮据。惟屬於一人。一十七年焦勞。豈紓於半日。痛丁陽九之厄。苦遭龍亢之殃。禍起潢池。叛賊布衽金之網。機深社鼠。逆璫開鬻國之門。致使龍馭驟升。棄萬機而弗顧。天容益邈。悲九土之何依。某等田衣賤品。髡髮遺氓。痴蠢何知。出俗甘同於野鹿。貧寒苟活。無家實類於飄蓬。借潤恩波。愧寸長之無補。偷生草野。欲百贖而何從。徒有梵竺之科。少殫緇流之敬。上仗佛天之洪願。下集僧行之精誠。七日勤劬。演梁皇之懺法。午夜秘密。行古佛之瑜伽。用茲善因。上嚴聖駕。伏願。睿德日隆。天禧益盛。遊神金闕。還著佛日於諸天。毓德蓮臺。廣播皇仁於九有。再祈。勿靳宜炤之光。仍[田/卩]否傾之吉。廓清妖孽。重見宇宙之清寧。默鞏皇圖。共喜河山之帶礪。臣等無任瞻天仰聖激切屏營之至。謹具表稱上以聞。

建州孫道臺請祈雨疏

疏為祈降甘霖。以蘇民困事。今歲入夏以來。亢旱日久。本府道臺孫某。率諸僚屬。徧禱羣祀弗得雨。乃差官齋香入山。命某代請。某集闔山大眾。持誦大悲神呪。開壇之次。謹露心章以聞。伏以。國以民為本。牧養之政宜勤。民以食為天。稼穡之功難廢。必資雨澤之灌溉。豈容旱魃之焦枯。何當祝融司令之時。全無顛頊效靈之日。雲屏屏兮風使之漓。日皜皜兮雨無以至。已嘆其乾矣。如遭坐甑之炊。乏雨以潤之。孰慰望雲之想。維禾穉穉。漸悴豳野之黃。彼黍離離。將槁周原之白。種稻翻成畫餅。療饑那可蒸沙。乃籲覺皇。用宣秘典。大慈悲之妙應。必能轉彼天災。不思議之神功。庶可度茲民厄。伏願。頓起蛟龍之蟄。遠震雷電之威。鬣鬣雲興。掩蔽烏輪之虐炎。滂沱雨下。沾濡龜坼之良疇。既沛優渥之仁。豐亨兆慶。終収簡穰之利。大有書年。某不勝激切懇禱之至。謹疏。

誕日薦親疏

疏為恭修梵典。追報親恩事。某今歲行年七十。孟秋十九日。實為母難之辰。預於初一日。啟誦大方廣佛華嚴經二十四部。繼禮梁皇慈悲懺法二十四部。念五日告滿。仍於是夜。設放瑜伽法食一壇。白佛回向。專薦先考蔡雲津先妣張氏范氏各超苦海。共證無生者。伏以。精氣為物。必藉生育以成功。引滿受身。誰非陰陽之幻合。親恩允同三大。邈矣難量。孝道實首五倫。誠哉至德。釋門極果。皆由此而積成。孔氏為仁。先務茲而立本。乃在緇在素之所同遵。亦希聖希賢之所共勉。蠢茲賤品。徒抱凡軀。愧為荒谷之廢材。忝當法門之重寄。少遵魯誥。未達作聖之方。晚歸佛乘。久昧明心之旨。根塵互發。粘妄而難契無為。惑業交纏。執相而彌增有漏。虛此形骸之賦。負彼陶鑄之恩。永言之思。每因時而倍切。不孝之罪。直與歲而俱深。茲當昔日之懸弧。用作今秋之出否。恭崇聖典。恪轉圓詮。六相十玄。啟遮那之心印。七處九會。演法界之真宗。罪從心生。僕僕而專勤五悔。食由法布。兢兢而等運三檀。修茲寸善之微因。用嚴三親之樂土。伏願。毫光特照。金臂垂慈。立摧罪山。菡萏花中毓妙質。頓消惑障。頻伽聲內證無生。方盡寸草之心。聊酬罔極之德。更祈。有生咸脫苦輪。血屬同為淨侶。是僧是俗。共登般若妙門。亦步亦趨。同遊涅槃彼岸。庶圓學佛之初願。得暢利生之本懷。謹疏。

永覺和尚廣錄卷第十七

銘

真寂聞谷大師塔銘(并序)

古今大聖大賢之興於世也。雖隱顯殊途。收放異轍。無非範正軌防逸流。俾眾生歸於本元覺地而已。自入明來。祖席荒涼。稀若晨星。加之。狂慧競張。濫觴已極。於此非有人。焉為之防橫決之波。迴既倒之瀾。其如眾生何哉。吾於武林聞谷大師。見其人矣。按狀。大師諱廣印。字聞谷。掌石其別號也。[橘-矛+佳]李嘉善人。姓周氏。父珊。有隱士風。母趙氏。夢玄武神仗劍。率諸甲士。擁護其門。覺而生師。為兒時。常於左眼角。見一浮屠懸空而住。稍長隨父入邑。過大勝寺。父呼視浮屠。師曰。我眼前常見此。第不識其名。不以告人耳。此後不後再見。七歲從塾師受小學。即能通其義。父命習儒。不願。常瞑目端坐。誦秘密伽陀。年十三。父知其志。乃捨送杭之開元寺。為驅烏。寺為空谷隆禪師道場。師既剃度。慨然有慕隆之志。一日見壁間法界圖。問其師曰。十界從心生。心從何處生。其師不能答。時西蜀儀峰和尚。結茆於清平之陰。往叩之。峰曰。汝要會。須妙悟始得。師曰。如何得悟去。峰乃教看雲門露字。師一聞便信。直下挨拶。至忘寢食。峰深器之。偶閱七賢女遊屍陀林話。忽有省。峰舉丙丁童子來求火話。詰師曰。青峰恁麼道。法眼亦恁麼道。如何有悟不悟。師曰。初以識心湊泊。所以不悟。後則直下承當。便能大悟也。峰舉拳揮案一下。厲聲曰。恁麼則汝大悟也。痛罵驅出門。師於此。直得白汗津津浹背。於是更發憤力參。年二十四。儀峰和尚歸蜀。師乃離受業。入雲棲進具。二十六。從介山法師習台宗。暮年臻奧。介異之。每開講。必徵師為座元。二十七。會城當道。請雲棲大師。開法淨慈。時萬眾圍繞。龍象蹴踏。特舉師為維那。時頭角已浸浸露矣。數年來。晝則聽講。夜則坐禪。功夫並進。未能純一。及參無幻禪師。勉以綿密工夫。師乃謝去講肆。攝靜於西溪法華山。單丁四年。或數日不食。或一坐連朝。因參請漸多。恐廢已事。乃曳杖而去。乞食民間。尋上雙徑。結茆於白雲峰下。影不出山者六載。看亮座主參馬祖因緣。疑不能釋。一日見黃瑞香花。忽大悟。作偈曰。却是虛空講得經。碌磚瓦礫正堪聽。向來扭捏娘生鼻。錯認葫蘆作帝瓶。從茲礙膺之物。已釋然矣。於是出山至雲棲。受菩薩

戒。朝夕請益。遂盡得雲棲之道。至宜陽。參龍池幻有和尚。適池負暄堦下。師問曰。和尚在那裏。池曰。恰好不在。師即展禮。池便攜手上法堂。人事畢。池曰。昨日上堂。舉鰲奴白牯話。雖有進語。不愜老僧意。子作麼生道。師應聲曰。三世諸佛不知有。鰲奴白牯却知有。從來迷悟不相干。如何教他出得手。池復出所著德山托鉢頌示師。且曰。汝別頌看。師即頌曰。末後之句有也無。德山父子太譎訛。同條生不同條死。活得三年恨轉多。池喜甚。謂師曰。何不承當此事共相唱和。師不自肯。池曰。更欲如何。曰。視圓悟大慧。為多愧耳。池撫然曰。當今學者未會先會。那能得不自肯如子者乎。老僧當避一頭地矣。盤桓數日。瀕行。池送至門外。撫師背曰。老侄。我還疑你在。師曰。甚處疑某甲。池曰。如何是密啟其意。師曰。今日不打宜興轉。池呵呵大笑。師頂笠便行。北遊五臺。還至徑山。時海內禪席寂寥。吳越間至不聞名字。師甚愍之。乃與髻峰諸師議。始初禪期於觀音殿。繼復結期於蓮居永慶。英衲駢至。尅期煅煉。多有噴地一發者。時儀峰老人。復來自蜀。師因得益徵玄奧。重辯差別。印明濟上之旨。無何峰歸。師乃隱於湖之菁山。寒苦特甚。因得痞疾。眾勸出山。王子將還雙徑。取道瓶甸。止宿丁道者家。丁以瓶甸為雙徑兩目之孔道。而行脚師僧。無所託宿。欲豎莖草。為接待之所。乞師主其事。師雖志在巖扃。而大悲願重。聞斯惻然。遂鳩同志四十八人。各捐衣鉢。草創數椽。聊資雲水之一宿。適朱平涵相國。入山禮紫栢大師靈龕。聞其事深加嘆賞。乃為購地為址。既而縉紳諸公。皆竭力贊成。不數載鬱成叢席。乃移真寂廢寺舊額名之。戊午秋。師以接待之事苟定。仍欲巖棲以遂初志。乃以院事。託一善上人。杖笠南遊。隱於建州之廢寺。凡三載。而為蹤跡者。所得迎請。絡繹於道。師掉頭不顧。會一善遷化。乃從眾請而歸。歸則稍稍經理。即請淨慈玄津法師主之。師乃退居。無何津師遷化。師不_已復視事。時四方衲子。參請如雲。眾至五千指。規約之嚴整。僧行之精勤。稱江南法社之最矣。庚午復以叢席。屬長明玄筭法師。而自為峨嵋之遊。因病乃中止於楚之黃安。建州寶善徒大堅。與孝廉徐公天倪等。聞師在黃。即往迎歸寶善。浙人復往請之。師曰。候七旬不掩息當歸耳。甫及四載。而玄師復化去。眾乃請師復歸真寂。實崇禎乙亥。正當師七旬之年也。師既啟行。閩人呼道遮留。輿不得前。及杭。杭人忻忭踴躍。以為師從天而下也。明年曹安祖大參。延師於荊谿度夏。秋七月歸自荊谿。徧歷舊遊諸處。眾頗疑之。臘月八日說戒畢。即示微恙。至十七日戌刻。泊然而逝。其逝前一日。猶手書與徑山長老。送仁王經。勸其展誦報國。復索紙書誠語云。某老矣。今更狼狽之甚。切思。叢林雖建行法。初未加勉。汝等當各務

本參。加功運行。以報佛恩 皇恩。此老僧耿耿一片熱心腸也。餘更無所言。師器宇清和。定動嚴密。初剃染時。歸省覲辭行。母送之曰。三朝媳婦。一世禪和子。其勉之。師常言。我於此兩句。終身受用不盡。故師生平滴水滴凍。不肯一念自弛。其服膺深也。常與無盡法師。修法華懺於勝果寺。入觀時。聞劈地一聲。如大山崩。不覺身心俱釋。以問尊宿。宿曰。此罪滅相也。師雖洞透祖關。而懲世俗之弊。終不以悟自居。當叢席既成。徑山僧眾雲集。懇師開堂。師堅持不許。及自閩歸。司理黃公與諸檀護。復以為請。師曰。我孀居久矣。復更適人耶。教家三宗鼎立。師皆能洞晰其微。時或為眾演說。聞者靡不心服。常與三宗諸師論議。屢能屈之。師遊五臺。時月川法師。出示正量論。師力闢其非。往返數日。川卒無以應。其化導法眾。則禪教雙舉。不局一途。然必以尸羅為之閑。學者少逞知解。師必深錐痛筭。未嘗少假。期於爆斷命根而後已。其於古德機緣。則多有偈頌。別出手眼。其問答語句。則機辯自在。絕無定軌。然皆嚴誠不許錄。故知者鮮矣。大抵師之一言一行。無非力為大法隄防。至有蒙眾諂而弗恤。犯眾怒而弗顧者。庶幾使學者於衰殘寥落之餘。猶見漢官威儀。然後知師閑道之心獨苦。而維世之功獨深也。師主叢席二十五年。建道場二所。度弟子。千有餘人。其得戒弟子。萬有餘人。若夫彤弓紫綬屈節而問道者。則不下數百人也。生於嘉靖丙寅六月十六日。寂於丙子十二月十七日。世壽七十有一。僧臘五十有八。至丁丑年九月初六日。弟子奉全身。塔於孔青之陽。其所編集。有宗門警語二卷。門人錄其遺語。凡四卷。先是某癸酉春。一見師於建州。遂有水乳之契。因付以大戒。明年春推主鼓山。今春訃音至。千里赴弔。而諸縉紳。遂以虛席見命。且屬以塔上之銘。某以受知之深。義不敢辭。乃為之銘。銘曰。祖庭日晦。狂慧轉蝕。癡執昧空。鹵莽何極。唯師屹然。揮戈之力。一心獨證。萬行俱飭。眾道用揚。師道用抑。厥化彌弘。厥精彌翕。雲棲為師。永明是式。後學之標。前聖之翼。孤塔凌虛。過者心惻。億萬斯年。永懸杲日。

博山無異大師衣鉢塔銘(有序)

博山無異大禪師既遷化。弟子智闇輩。奉全身塔於本山棲鳳嶺之陽。吳宮諭應賓。已為大書特書銘之。而弟子之居閩中鼓山者。以師實開化鼓山。厥功靡[耳*少]。特請衣鉢。擬建塔以寄永思。力弗克就。今春某自浙歸閩。眾復請住鼓山。乃率眾建塔。藏衣鉢於鉢盂峰之前。去師遷化。則十有二年也。眾謂。塔不可以不銘。復請於某。某於師為法門昆季。而實稟具於師。且相依三載。屢嘗法

味。有師資之義。不可忘也。但自師既沒。虛空中忽有坑壑。未得
焚片香於棲鳳。此實某之隱痛。而不能言者。嗚呼銘師之塔。乃在
今日也耶。據狀。師諱大艤。一諱元來。學者稱無異和尚。龍舒沙
氏子。年十六。有出世志。逸遊金陵。過瓦棺寺。聞雪浪師講法
華。喟然嘆曰。是法非思量分別所能解。習講何為。遂棄去。遇五
臺靜菴通和尚。乞為薙落。通詔習空觀。每觀心露地。身土湛如。
如是者五年。別通往參無明老人於寶方。及見以為一簑笠翁爾。乃
入閩止光澤之白雲峰。仍以空觀為事。一日因寶方印宗上座到。勉
以參究。因舉船子藏身話。忽疑情頓發。凡五十句有半。於趙州有
佛無佛處。如釋重負。遂作心經指南寄寶方。方立焚之。復書云。
直待飲光破顏。別出相見。而印宗亦勉以偈。有低頭始見月孤明之
句。師猶自負所見。以為老人或不我知也。乃趨寶方。盡呈伎倆。
曾不得其一領。居再閱月。形色枯瘁。望之似木鷄矣。一日從赴玉
山途中。揚挖洞上宗旨。時得印可。忽問。佛印云。蟻子解尋腥處
走。蒼蠅偏向臭邊飛。是君耶是臣耶。師曰臣邊事。方呵曰。大有人
笑汝在。師曰。前何以是。今何以非。方曰。此一非。一切非
矣。既達辟人端居。頃間聞護法神倒地。不覺心開。呈偈曰。玉山
誘一言。心灰語路絕。幾多玄解會。如沸湯澆雪。沒巴鼻金針。好
因緣時節。梅蕊綻枯枝。桃花開九月。觸目如。休辨別。急水灘頭
拋探篙。溺殺無限英雄客。方曰。一到多門又到門。後別居宗乘堂
三載。一日覩登樹人。始徹源底。趨謁寶方。入門便拜。方問。近
日事何如。師曰。有箇活路。不許人知。方曰。因甚不許人知。師
曰。不知不知。方舉婆子燒庵話。詰師。師曰。黃金增色耳。復舉
玄則龍吟霧起公案。命師頌。師援筆立就曰。殺活爭雄各有奇。糝
糊肉眼豈能知。吐光不遂時流意。依舊春風逐馬蹄。方笑曰。子今
日方知吾不汝欺也。師自是佩離文字印。入正徧知海。香幢剎土。
湧沒毫端。多聞總持得大無畏。正徧妙挾。圓頓雙銷。不知五位之
為三玄。六相之非三墮矣。方乃命首眾。萬曆壬寅夏。往信州鷺湖
圓戒。鷺湖亦以元座屬焉。是冬隱靜於豐邑之博山。凡三閱寒暑。
邑劉孝廉崇慶。鄭節推維城。楊別駕時芳。請師住博山能仁禪寺。
雖草昧乎禪律威儀。居然三代禮樂。戊申年。無明老人開法於閩中
董巖。乃召師分座說法。師不得已。勉為一眾舉似家珍。而博山宗
風。遂震天下。故六和麈至。四事雲臻。久之金碧煒煌。園林葱
菁。而據燈王師子。稱八百人善知識矣。閩中鼓山大仰諸剎。亦屢
請結制。頻垂鞭影。時宇內名流。載自綸扉圭弁。泊乎墨綬銅符。
西向而咨。北面而禮者多。至不可殫述。崇禎己巳。金陵余開府大
成。全文學陳丹衷。聞所聞而至。見所見而慕。乃謀諸縉紳。邀請
豎法幢於天界。魏國徐公首先歸依。由是狂奔暱就。號為四輩弟子

者。指以萬億計。師圓音曲唱。無不人人各欣所得。及歸輒營窳堵。經始子來。忽命簡錄方丈。若遠行者之戒處守。未幾而大悲之疾示矣。延及經旬。師曰。會當行矣。遂有遺訓。漏當子夜。坐脫翛然。時崇禎庚午季秋十有八日也。却顧來時。萬曆乙亥仲冬念有九日。僧臘四十有一。世壽五十有六。踰年辛未孟冬念有一日。奉全身。塔於寺西棲鳳嶺之陽。師所自筮也。師慈容滿淨。道骨堅凝。眉采燁然。春秋在類。法筵清眾。不肅而嚴。刈麥負薪。無不人人委蛇詳敘。若有深湛之思者。為法求人。婆心徹困。而高提祖印。把斷要津。相似悟頭推入活埋坑裏。痛與鉗鎚。故三十年中。不少當機。罕聞付法。終不以如來慧命。博禪雛手中瓣香矣。有所請益。唯勉以真參實究。深戒知解。如鳩毒焉。其說法之語。如雷震如電激。如雲蒸如瓶瀉。如海若瀾漫。莫可涯涘。三百年來。實鮮匹其休者。當此魔羅競起之日。瓜印之徒。塵沙蔽日。使無有力抗之者。將大地僧伽。盡化為波旬孽子。而師獨能唱道於晦冥否塞之秋。有若還魯陽之三舍焉。其衛道之功。豈在禹下哉。所手著。有禪警語。拈古。頌古。淨土詩。宗教答響。宗教通說。凡十餘卷。語錄則信地說。回源錄。錫類法檀。歸正錄。剩錄。凡二十餘卷。竝行於世。乃為之銘。銘曰。寶鏡三昧。霧隱塵蒙。壽昌崛起。如日湧東。吾師繼之。厥化彌隆。圓炤無外。赫赫日中。雲包雨笠。萬派朝宗。公孤以降。靡不景從。揀魔辨異。祛惑破夢。唯師一人。壯哉釋雄。另崩峇嶷。勢壓羣峰。衣鉢斯藏。高入穹窿。說法音聲。海濤天風。千載之下。式此遺封。

博山古航舟禪師塔銘(有序)

佛祖之道。至今日而敝極矣。其敝也以多言。言多則道愈晦。道愈晦則行愈乖。至于行愈乖。而尚何言哉。今海內開堂說法者。至百有餘人。付拂傳衣者。至千有餘人。世謂。宗風之盛。莫過于今日。而予謂。宗風之衰。實莫過于今日。求其言行慥慥。事理函蓋。稱善知識者。指不能多屈。則吾不得不于古航禪師。一傾心焉。據狀。師諱道舟。字古航。晉江鄭氏子。父我翰。母蘇氏。周歲失怙。蘇氏和熊畫荻。俾就外傳。師天資穎異。嗜學能文。郡中諸大老。罔不以大器期之。少嘗娶婦。以弗順于蘇。蘇命去之。師不敢違。及蘇謝世。師乃棄家。寓于承天。日誦金剛經不輟。林季狝宗伯雅重之。一日因閱壽昌語錄。至問僧死了燒了。作麼生是你本性。心大疑之。時聞博山盛化。欲往參叩。林季狝宗伯遂成其志。送至博山落髮。時師年已三十有八也。落髮後。領行堂職。夜坐不語堂。目不交睫者三月。適金陵余集生中丞訪道博山。乃延師

至金陵。閉關于烏龍潭山。以青布直裰併偈貽之。偈曰。君不見。天目山頭石作船。高峰大士居其巔。三十餘年纓絡粥。至今人把清名傳。吾徒靜室亦何有。口不開兮足不走。赤身唯剩兩條眉。白手空拳誇抖擻。又不見朗公禪。鋤為枕子草為氈。佛法世緣何所似。磐石多恣白晝眠。吾徒不聞鋤與草。磐石藤蘿何處討。開窓只可見青天。一道靈明光皜皜。莫將此際當尋常。光非照境境非光。倏然廓徹通無碍。便是心空及第郎。師領偈參究益力。凡兩載乃有省。謂劉心城居士曰。吾今于無可奈何處。得窺其巴鼻矣。會金陵諸縉紳。延博山于天界開堂。師出關司客。及山歸。師仍入關。明年博山訃音至。師乃返錫博山。及喪事畢。遂歸閩。時回龍眾僧。慕師之風。延主丈室。居三載乃歸泉。隱于德化之戴雲。戴雲峭削萬仞。人迹罕至。師枯坐一室。苔錢滿砌。蓋四載如茲也。丙子會林宗伯致政家居。乃延師出山。挂錫于郡之承天。是冬余集生中丞。以雪峰來迎。丁丑春。師乃蒞彼建天王殿。仍修諸屋。以僧眾樂于放逸。梗化者多。乃謝去之。王京臺太卿。延至西禪過冬。明年余集生中丞。黃元公司理。乃請歸回龍。開放生池併子院。余黃為記石。己卯冬。信州劉出子春元。以博山主席久虛。率眾請師繼之。辛巳秋。往建陽議卓庵于鳳凰山之下。壬午始。鳩工結屋。得張沈黃諸居士。共勸成之。先是師出家時。常帶二木主以行。迄今有是役。為祀先計也。故名之曰報親庵。成復歸博山。甲申冬。惠藩駕臨信州。特來歸依。賜紫衣一襲。乙酉秋。辭博山入閩。會當鼎革之秋。戎馬紛馳。師乃避入深山。居無定止。至戊子。復居報親。凡閱八寒暑。道風愈著。若貴若賤。罔不景其芳躅。四方衲子來參者。師如鍊壁千尋。絕無肯諾。多望崖而退。乙未春三月始示疾。然尚視事如常。至八月望日疾革。乃召諸檀越。囑後事。文學張九生問。一口氣不來時。向何處安身立命。師曰。政好安身立命。張曰。莫便是和尚得力處麼。師曰。何得認奴作郎。遂跏趺而逝。時八月念五日酉刻也。回視師降生于萬曆乙酉年三月十二日戌時。得世壽七十有一。僧臘三十有四。門人收其遺稿。凡若干卷。刻行于世。以丙申年十月初二日。塔全身于鳳凰山之陽。厥子濟益然。狀其行。請予為塔上之銘。予以法門之眷。得納交于師。其實未能染指其法味。又安敢輕相塗污哉。然予觀師之鴻才碩學如斯。使其坐曲蠶床。說黃道白。簧鼓一方。實優為之而甘。三緘其口。深藏若虛。是豈小丈夫之所能為哉。且予聞。其天性狷介。素履端方。孤風峻節。表表于世路。人亦能言之。即此知師之意。謂當茲末造。主法者多空騰口說。故師以不言而躬行挽之也。是師于法門。實欲回既倒之狂瀾。其所慮為甚深。其所操亦為甚苦耳。故不辭謏劣。敬為之銘。銘曰。明道以言。非行莫造。如歸本鄉。運步

方到。痛茲頽風。孰為明導。爰有報親。獨能允蹈。抗節雲霄。幽貞自好。雪嶺梅開。霜空月照。卓哉良模。前修是倣。後學欽式。是以身教。為破夢雷。為援溺權。哲人既遐。高風難紹。維茲窳堵。白雲長繞。貞珉斯藏。如日永耀。

壽塔銘(有序)

甲申之春。烏程陳白菴太守。以予老且病。為營壽藏於湧泉寺之西畚。繼以世難。阻弗克成。迨辛卯冬。功始竣。而予老病益甚。因思。壙中片石。後人必欲邀榮光於峻秩。假藻繪於鴻章。是重予之愆也。然考古諸師。有自狀其行者。有自銘其塔者。世所共傳。不以為非。迺效顰而為之。予名元賢。字永覺。建州建陽蔡氏子。稟性枯淡。不樂世氛。又才實遲鈍。不善趨時。故雖習儒業。為邑諸生。而每懷出世之志。至年四十。始棄妻子。往建昌壽昌寺。禮無明和尚落髮。未幾。謬承心印。及和尚遷化。往依博山三載。又歸閩隱山。一十二載。灰頭土面。擬與草木同朽。一日因謁聞谷大師。力勉出世。遂推主福之鼓山。因以大戒付之。時年已五十有七矣。繼而歷主泉之開元。杭之真寂。劍之寶善。後復歸鼓山。迺重創梵宇。諸所撰述。并語錄凡二十種。計一百餘卷。竝不藏醜拙。恣世指摘。嗚呼生平履歷。渾如昨夢。一場敗缺。難免高鑑。其入道為最鈍。其出世為最遲。其應世為最拙。又不能廣羅英衲。以張大其門庭。較之諸方。若跛鼈之望飛龍。何足道哉。今年已七十有五。不久將化為異物。故預為此壙以待。亦預為之銘。銘曰。是誰髑髏。建茲窳堵。壽昌之兒。石鼓之主。不通世情。一味莽鹵。志大言大。眼空佛祖。據興聖座。呵今罵古。役鬼驅風。重建茲宇。撇下皮囊。掩藏荒塢。莫道無口。有聲如虎。生耶死耶。請繹斯語。廣告來者。誰繼吾武。

方鏡銘

厥體則方。厥炤則圓。物至斯應。我自虛玄。切忌覓於影後。直須達於鑑前。

端硯銘

稟形端穴。効職祇園。色玄而紫。德潤而堅。靜以制動。方以待圓。身含雨露。面帶雲煙。一點實心。渾不改。任渠眾手幾回旋。

鼓山鐘銘

維圓維密。爰寂爰虛。發必以時。應而不逾。吟風敲月。白雲之區。弗斬鯨音。用醒昏衢。今日之可依以為範者。其唯斯乎。

開元寺鐘銘

閩中首剎。偉矣開元。惟茲重器。用贊乾坤。鳴風敲月。遠齊晨昏。虛而弗匱。靜而能喧。圓通並德。幽明戴恩。萬姓共稟。千古永存。

瑞石銘(并序)

松崗翁家居葉溪之滸。得五丈夫子。皆英敏秀特。挾重貲遊齊魯燕趙間。家日益碩。而好義樂施。屢為邑侯所旌。既謀廣其所居。始工于萬曆癸卯。至天啟癸亥。而工告竣。落成之日。適於扁溪之旁。得一石焉。其高及丈。奇峭如俠客。秀潤如文彥。挺直端嚴如正士立朝。蓋非常石也。夫以非常之石。居于尋常耳目之地。歷億萬斯年。無能得者。得之乃在廣廈落成之日。謂非應維新之會出以兆永昌之慶乎。於是移置于大門之內。別作亭以對之。名曰瑞石。乞予銘。銘曰。

韞玉之粹。凝川之精。樸而且文。秀而猶貞。抱質太古。作瑞來今。比德比業。永以為徵。

永覺和尚廣錄卷第十八

論贊

建州弘釋錄論贊(十篇)

達本論

論曰。禪那一法。徧在諸乘。悉從修證。並落格量。唯達摩直指一心。強號為禪。無修證格量之可言。正如輪王鬘珠。尊貴無上。非他寶可並。亦如灌頂王子。雖在襁褓。非朝臣可擬。亦如金剛王劍。殺活縱橫。無不自在。非軌則可局。故為僧者。必首重之。倘舍此而他務。雖苦行積劫。終墮半途。非善術也。我建。自唐馬祖首開甘露之門。嗣是分燈續燄。在處昭灼。入傳燈者。四十餘人。至於宰官居士田父村媪。亦得與沾法味。同入宗鏡。猗歟盛矣。勝國之季。禪學寢衰。然鐵關晚出。猶有古尊宿之風。至於國朝。則慧林久凋。正脉已失。學禪之士。指不多屈。即有一二稱善知識者。要皆認奴作郎。守鼠為璞。反不若專修白業者之為得也。嗚呼碧水丹山。千載如昨。俯仰憑弔。豈勝寂寥。余於是有重慨焉。

顯化論

論曰。釋氏之學。道其本也。通其末也。法當務道。道成而通發矣。若意在求通。則必失道。道失而通得。是為魔事。況通亦必失乎。故正見者。寧得道而無通。非厭通也。法不可務也。且通之法。大略有五。有修大乘而得者。有修小乘而得者。有修凡夫乘而得者。有修外道法而得者。有因宿習感報而得者。大小不同。邪正亦異。未可槩而齊之。是篇如瑞巖扣冰。則古聖垂跡。無可異者。其餘或偏獲小果。或尚滯凡夫。或落鬼倫。或出外種。或亦大權菩薩。方便攝化。既有數種差別。不容槩抑。詎可俱揚。在俗之士。固莫能辨。出俗之英。應知所務。若徒見異跡而生欣。必將流邪轍而莫返。可不慎歟。

崇德論

祖庭秋晚。狂慧競興。明道者多。行道者少。夫明之將以行之也。明之而弗行。與未明何異。且假此以鈎顯譽。營厚殖。則雖機辨自在。說法如雲。吾以為直一裨販而已。茲篇所錄。並積粹純誠之士。雖契悟弗逮馬祖。神化難齊扣冰。而依教行持。動不踰矩。陶鍊之極。終歸聖果。又安取狂慧之詡詡哉。若夫闇修之士。或道大而知希。或德成而遇蹇。形晦聲泯。物色無從。則非茲錄所能盡矣。

輔教論

論曰。儒釋分教。門戶迥別。大儒融之以神理。則千差頓忘。小儒局之以格量。則一塵成礙。此大儒所以辨不禁而自泯。小儒所以謗欲息而不能也。昔自六朝以來。謗佛者不少。皆以私意揣摩。自成水火。其於我佛之藩。尚隔萬里。即如昌黎一人。毅然以道統自任。而原道諸篇。特昏昏醉夢語耳。至於宋室諸儒。實非昌黎之比。第於梵經。皆粗浮一往。不能深窮其旨。故困於知解。而不信有絕解之境。束於人倫。而不知有超倫之事。所以有異說之紛紛也。茲錄諸儒。則不然。竝皆徧參諸老。深耽禪悅。未嘗株守本局。夫諸公皆天挺人豪。地縱神智。而卒不能謗佛。則佛之決不可謗明矣。彼黃口淺學。毫無所窺。而藉口前賢。妄生橫議。抑何其不思之甚也。噫。

棲賢澄湜禪師傳贊

禪學晚進。妄意高遠。輒謂戒律不足持。三藏不足閱。傲然自恣。以為身在三界之外。而不知已落泥犁之中矣。今觀湜禪師。律身精嚴。動不踰矩。晚年三閱藏經。以坐閱為未敬。乃立誦行披之。嗚呼真萬世標表也。雪竇不合而去。自是雪竇不奈習氣何。若黃龍南。依之最久。可謂。善依人者。

天寶逆川智順禪師傳贊

逆川初住天寶。未幾即棄去。繼而住歸原。住東禪。住雪峰。皆如之散財退位於方盛之日。非大丈夫。能然乎。古有稱大知識者。一院之間。戀戀而不能割。以此觀之。逆川真萬世之師也。獨其語錄。今不傳。惜哉。

金道人燒身傳贊

燒身之法。大乘所開。小乘所禁。意以大乘則悲願既重。忍力已充。故可開。開之者。或為供大法而燒。或為護大法而燒。或為說大法而燒。其為益大矣。小乘則自利心重。厭苦情深。急欲燒之。為益既[耳*少]。況忍力未充。臨危而失其正念。則其害可勝道哉。世復有為魔所著者。或有貪身後之名者。或有激而為之者。既非正念。必招惡果。可弗禁歟。是篇如哀公化後得舍利數合。金道人於空中擲下僧舄一隻。其為可燒無疑矣。第恐。無知之徒。妄相倣效。則余未見其可也。

楊文公億傳贊

大年見地超曠。不亞慈明。且於告終之際。灑落自在。歸處分明。真沒量大人也。史氏稱公性耿直尚節義。真宗欲立德妃為后。命公草詔。使丁謂諭旨。公弗從。丁謂曰。勉為之。不憂不富貴。公曰。若此富貴。非所願也。公之所守如此。豈學禪而弗驗哉。說者乃謂。其聞命而惶懼失措。以此謂公之禪。亦弗之審矣。豈有於生死關頭。自在若此。乃于尋常利害之間。反爾動心耶。此必當日柔小之徒。巧生誣謗。而傳聞失實。遂有吠聲之譏也。

胡文定公安國傳贊

文定彊學力行。志在春秋。憂國愛君。遠而彌篤。其於禪學。深參獨到又如此。則禪何害於忠孝哉。世之不達者。輒謂。學禪有害於忠孝。夫亦未之考也。昔宋游定夫先生。與呂本中書曰。佛書所說。世儒亦未深考。前輩往往。不曾看佛書。故詆之如此之甚。殊不知。其破佛者。皆佛自以為不然者也。定夫。可謂知言哉。

朱文公熹傳贊

文公於釋氏之學。或贊或呵。抑揚竝用。其揚之者。所以洗世俗之陋。抑其之者。所以植人倫之紀。蓋以身為道學主盟。故其誨人之語。不得不如此耳。公晚年有齋居誦經詩云。端居獨無事。聊披釋氏書。暫息塵累牽。超然與道俱。門掩竹林密。禽鳴山雨餘。了此無為法。身心同宴如。觀此。則其有得於經者不淺。非特私心向往之而已也。

鼓山寺志論(六篇)

勝蹟志論

論曰。昔王敬美謂。茲山以峻名。以登眺勝。靈源之外。奇麗無聞。而議者猶惜其不到鳳池。而白雲洞尚未闢也。蓋山中諸勝。奇秀則稱靈源。超異則稱鳳池。怪險則稱白雲三天門。若夫登高眺遠。兼收山海之奇。為八閩之獨勝者。則劣削無尚矣。故今古名賢。杖履而遊。嘆賞之不足。繼之以歌詠者。趾相錯也。然吾以為善遊者。蓋亦鮮矣。倏然而開豁。倏然而幽鬱。倏然而身世可捐。倏然而塵埃難脫。豈遊之義乎。豈遊之義乎。孔子曰。登東山而小魯。登泰山而小天下。固當自有別論也。

建置志論

論曰。湧泉之興廢。路人能言之也。夫亦知易之道乎。易曰。上棟下宇。以待風雨。蓋取諸大壯。取其四陽之方盛也。亦取其盛而未極也。又曰。棟隆吉。以其剛而得中也。棟橈凶。以其剛而失中也。豈非以宮室不欲其過盛。且必有剛中之德以待之。不則有棟橈之凶而已。昔湧泉之盛也。飛甍峻宇。已極人間之鉅麗。猶賴有德者居之。庶可持盈而不墜。厥後以涼德。處盛極之勢。如之何。不至湮沒乎。故雖以列祖之德。閩王之威。而曾不能與樵豎之火格數也。亦理也。今茲再造。二十餘秋。尚弗逮古人之半。而居者。多以缺陷為耻。遊者。且以觀覽未壯為嫌。獨不思古之學佛者。樹下可宿。塚間可居。今之湧泉。固非樹下塚間之比。況剛中之德未聞。而妄希棟隆之吉。無論其求之弗得。營之弗就。即能[媿-凶+(色-巴+凶)]美前規。亦安能保其無棟橈之凶乎。是亦未講於易之道也。

僧寶志論

論曰。閩中諸刹。首必推雪峰。而鼓山實次之。豈以巖巒之秀麗。登眺之奇偉哉。良以列祖之主斯席者。率皆慧光渾圓。足以輝映人天。而光大我覺皇之教也。故古之名賢。如張德遠李伯紀趙子直朱晦菴輩。皆能降心折節。相訪於深林僻谷之中。豈非以其人有足重者乎。勝國以來。風漸不競。至 國朝。而斯道絕響矣。此其故何哉。蓋宋以前。稱住持者。上必奉詔旨降香。次必由監司舉請。故茲山皆極一時之選。勝國但由廣教考中宣政給筭。此可以致抱道之士哉。洪武永樂間。則由僧綱舉報。僧錄給筭。宣德以後。竟置不問。由是裨販如來者。率以其力攘之。竊十方之公物。潤一家之私

橐。子孫相繼。醉濃飽鮮。又安問佛法之何若哉。重興以來。稍提唱斯道。庶幾復見漢官威儀。然當此魔羅競起之日。危如一髮引千鈞。而欲希蹤宋唐。不其難乎。不其難乎。

田賦志論

論曰。膳僧必以田。居田必以德。德之所在。田必隨之。田之所在。害必伏之。昔鼓山之盛也。僧眾萬指。施者唯恐其後。故雖於邪萬畝。無敢覬覦。及其衰也。誰忍其以檀信之膏腴。恣無賴之嗜欲乎。由是豪強扼而奪之。海波蕩而吞之。官府且用其六。用其八。而莫之恤矣。余昔來鼓山。見廨院僧。盡其歲之所斂。尚不足以完官。鞭笞既急。日夜唯豪家之鏹是求。其不至於產盡僧亡不止也。此其咎果安在哉。今俗僧率營厚殖。以遺子孫者。其請問之鼓山。

藝文志論

論曰。鼓山之名。唐以前未著。故詩文亦少見聞。朱梁時。有徐寅靈源洞記及十二咏。皆軼弗傳。自宋以後。始見篇什。而傳者蓋亦寡矣。至我明永樂間。僧善緣始輯之。為靈源集。嗣有僧古鑑。再輯之。至萬曆間。謝武林徐興公始為志。搜羅稱大備焉。迨今幾三十載。興公復收之為續志。余乃得因二志。而更益之。蓋斯文未墜。人握隋珠。將來源源。未有艾也。予獨悲。夫江山如故。佛國長存。而搦管登壇者。卒如浮雲幻影倏忽有無。雖曰名存。實將安在。況久之名亦不存。則立言稱不朽者。不亦難乎。是必有貫今古。參天地。卓然而不可泯者。固不在區區名字之末也。或者猶思希蹤韓柳。比肩李杜。謂名決可不墜。愚以為。韓柳李杜。特雕蟲刻楮之雄而已。丈夫豎立。可不圖其大哉。

雜誌論

論曰。茲志所載。俱非大節所係。似亦可略。然嘗徧讀儒家諸經及歷朝正史。豈非傳世之大典哉。其中鳥獸草木之繁。器用文物之富。非博及諸書者。鮮能盡通。故知大舜詢及芻蕘。誠為至訓。禮失必求之野。決非謾談。昔閩人有吳海者。謂。諸子百家。六經之賊。外紀野錄。正史之賊。欲盡去之。不知楚之萍實。魯之爰居。漢之刼灰。又孰從而辨之哉。予謂。君子之學。當先其大。而後其小。務其本而游其末。則片言隻字。異書曲典。皆藥籠中物也。然

猶見世有負盛名。稱博雅者。日探討瑣僻以自張。至於身心性命之微。禮樂刑政之大。古今治亂之故。率皆鹵莽涉躐。間有陳論。如魘窠中語。則何其隘而鄙也。譬之井中之鮒。樂升斗之水以自濡。而溟渤之滄茫浩渺。非所願矣。請擴而大之。不亦善乎。

溫陵開元寺志論(四篇)

建置志論

論曰。紫雲舊刹故域。甚廣居者。亦嘗萬指。自永樂之後。主席又虛。禪風漸泯。高明之衲。雲散四方。而守鷄肋者。視為故物。德既下衰。外檀弗至。地廣人稀。睥睨斯起。由是寺之不能保故域者。十之七八矣。然猶賴為綿叢所設之場。故經聲佛火。不至全銷也。近年戒壇法堂已復。大殿亦幸鼎新。則似當七日來復之會。在人益善其事以應之。則為臨為泰。未可知也。若徒芥蒂於故物之未歸。而厥德弗修。則雖疆宇盡復。又將何以居之乎。若能懋修厥德。則雖敝寮老屋。儘可跣趺。固不止蝸廬草舍僅容七尺而已也。況人心有佛。各能放光。安知黃長者。不再見於今日乎。是在諸君之自勗耳。

開士志論

論曰。余作開士志。而嘆紫雲之多賢也。非吉祥殊勝之地。能有是哉。然自桑蓮現瑞以來。幾及千載。古如斯。今亦如斯。何古則聖賢輩出。而今則寥寥絕響也。語云。嘉羽生應龍。應龍生鳳皇。鳳皇生百鳥。其勢必漸下耶。抑法運下衰。聖賢隱伏。今之不逮古。非獨一刹耶。嗚呼此豈可以局志道之士哉。凡有待於外者。時與勢得而局之。無待於外者。非時與勢可得而局也。故春秋雖厄。不能局仲尼。陋巷雖貧。不能局顏淵。首陽雖困。不能局伯夷叔齊。是在有志者之自立耳。若夫規厚殖。逐榮名。旦夕孳孳。不能以時勢自安。是惑之甚者也。悲夫。

藝文志論

論曰。嗚呼吾於志藝文。而嘆不朽之難也。世書稱不朽者三。立言居其一焉。夫言固可傳。言而不文則不傳。有言而文矣。而猶不傳何也。或曰。以其人不足傳也。夫夏殷之禮。且無徵矣。尼父六經。且失其二矣。豈人之果弗可傳哉。嗚呼幻化匪堅。雖遠必亡。

天地且不能免。而況於人乎。況於文乎。吾釋自有不可滅者。在有志者。自勉之耳。

田賦志論

論曰。紫雲寺產。乃唐宋以來。眾檀所施。僧賴之以存活。而輸官稅。供里役一如民間。非有耗於國也。至於近世。謂僧非民且耗國。忍為變賣之議及請給之謀。非獨無以施之。且扼而奪之。產已失十之五矣。至嘉靖間。防倭事起。當道抽其六餉軍。巡撫金公。且徵其八。至於今日。軍已撤而餉不減。又有加焉。如之何僧不窮且竄也。昔紫雲高僧。有弘則者。王公與之膏腴。謝不納。有棲霞者。州牧王繼勳。為廣其居殖其糧。固辭曰。毋為子孫累。有禹昌者。人施其膏腴。則曰。有是吾子孫其不免狼虎矣。今日觀之。三師真偉人哉。

永覺和尚廣錄卷第十九

諸祖道影贊(有序)

真不可邈。邈者非真。影不離形。形實非影。若從有影迹上揣摩。奚啻水中撈月。若從無影迹上揣摩。猶是空裏生花。有無既去。畢竟作麼生。普化盡力翻箇筋斗。誌公出手劈破面門。將知費了多少鹽醬。雖然如是。事無一向。方有多門。今此描摹虛空之眉目。指點夢幻之行蹤。已朽葛藤。重為扶起。積年臧物。盡底掀開。其於已往諸祖。果是一耶。是二耶。但是一等之機。法緣在茲。莫道全身未露。便已覲面相呈了也。呵呵。不因夜來鴈。怎見海門秋。

僧寶之始

僑陳如尊者

歌利揮劍。早已說破。鹿苑初唱。唯師首和。一箇耳聾。一箇話墮。熱瞞大地。居僧上座。

禪宗諸祖

初祖迦葉尊者

一花纔拈。千聖膽落。遇無知漢。微笑而作。死柴頭火。今古輝爍。還是禪宗初祖麼。錯。

二祖阿難尊者

百千佛法。舌根吞吐。多聞總持。何為禪祖。倒却剎竿。老婆心苦。雖然。莫道齊一變至于魯。

三祖商那和修尊者

青林懸記。瑞草知期。尊者崛起。乃應其時。以毒破毒。龍何能窺。施地建剎。返被渠印破面皮。

四祖優波鞠多尊者

是十七。非十七。話分兩橛。著甚麼急。震動魔宮成夢事。室籌充滿曾無一。畢竟有甚長處。眉橫鼻直。

五祖提多迦尊者

我師出纏智。猶彼出屋日。至今尚自仰餘輝。不是其人見如漆。呵呵。此蓋夢話。原非真實。炤燭有無俱莫識。

六祖彌遮迦尊者

昔生梵天。既逢親友。支離累劫。是誰之咎。冤債相逢。落這窠臼。原來一步不曾移。始識三三原是九。

七祖婆須密尊者

金雲浮蓋。毓聖之土。手中執器。還家之路。說法等虛空。分明落分疏。豈容梵王帝釋却來當面塗汗。正好劈脊便打。庶幾于佛懸記不相孤負。

八祖佛陀難提尊者

義即不論。虛空難釘。論即不義。鉢盂安柄。狹路相逢。沾甘露味。雖是一語知歸。也孤負渠生來肉髻。

九祖伏默密多尊者

雖曰未言。已示其意。雖曰未行。已詣其至。針芥相投。真沒巴鼻。便行七步。却落第二。

十祖脇尊者

祥光燭座。腥臭早露。脇不至席。脊梁鐵鑄。坐金色地。敷破坐具。還有真實義麼。七錯八悞。

十一祖富那夜多尊者

汝非諸佛。諸佛亦非。只此一語。便堪授衣。踏翻金色地。覷破佛祖機。說甚麼覺花成。大似枝上生枝。

十二祖馬鳴尊者

不識是佛。佛不可識。這裏撞著。銀山鐵壁。一朝鋸解木斷。始識秤鎚有汁。露出空中爪牙。摧伏大幻冤敵。噫。空起一場是非。到底魔佛難析。

十三祖迦毗摩羅尊者

神力能化巨海。果是何等妖異。忽然識得性海。看來只同兒戲。是魔是佛總虛閒。百千神力俱拋棄。擒得毒龍來作子。果然不枉作馬鳴之嗣。

十四祖龍樹尊者

當場現月輪。此實不容己。祇這畫餅子。覷著千萬里。非色亦非聲。誰人敢輕擬。唯是嫡骨兒。方不負斯旨。

十五祖迦那提婆尊者

以針投鉢。是作賊漢。覷滿月輪。止得其半。指木菌之前因。示比丘之後患。打草祇要蛇驚。了我家之陳案。

十六祖羅睺羅多尊者

藉樹頭耳。聞世外調。佛誌不虛。祖燈斯紹。窮金河源。垂千仞釣。擎來一鉢梵天飯。難免作家傍笑。

十七祖僧伽難提尊者

敝屣世榮。宴坐石窟。冤債相尋。磁石引鐵。取甘露普飲大眾。聊應時節。若問是何滋味。儘教大地結舌。

十八祖伽耶舍多尊者

持鑑而來。好與打破。諸佛之機。是甚殘唾。非風非鈴。指歸這箇。也似猢猻上樹。不免一狀領過。

十九祖鳩摩羅多尊者

夙善說法。般若之力。遇毒惡手。當場指出。忽然摸著鼻孔。莫道無人。虛空逼塞。雖然一槌便就。却也遲了八刻。

二十祖奢夜多尊者

因形現影。溯流尋源。宿慧頓發。默契厥元。體本無生。法有何言。有為無為。夢裏徒喧。

二十一祖婆修盤頭尊者

秋水明月。斷崖寒雪。漁翁睡醒向前汀。始識夜來舟暫歇。黑如玉白如鐵。誰人敢向當頭說。我師逗著便知歸。果然賢眾非饒舌。

二十二祖摩拏羅尊者

誕質王宮。達茲玄奧。法本無礙。宛同幻泡。應佛懸記。分燈化導。降香鶴林。火必就燥。

二十三祖鶴勒那尊者

持環而來。不為別事。久為鶴師。豈行異類。冤債相逢。香結成穗。一日聞偈知歸。鶴眾釋然遠離。

二十四祖師子尊者

道不可求。用即非功。達本無作。祖脉潛通。昔有異氣。應在汝躬。頭落臂斷。彼此蘊空。切莫道是冤債相逢。

二十五祖婆舍斯多尊者

神劍本銛。拳珠自瑩。其來有因。肘後懸印。時當難起。傳衣表信。久煉愈明。真嗣始定。

二十六祖不如密多尊者

外道為山。癡禪之力。觸著無心。自貽伊戚。俾歸真乘。反曲作直。故人忽逢。二五一十。

二十七祖般若多羅尊者

不是勢至。喚作勢至。從因緣來。為法之寄。常轉妙經。豈落文字。兩手放光。更沒巴鼻。

二十八祖菩提達摩尊者

航海而來。不為別故。踢翻窠臼。英雄失據。面壁九年。是何門戶。也可笑也可惡。賴有作家下毒手。只得隻履西歸去。至今流禍未曾消。盡墮一千七百之數。

二十九祖慧可大師

斷臂安心。三拜得髓。如空合空。是何道理。教渠覓罪不可得。畢竟更無別旨。雖說轉轉相傳。却似無風浪起。

三十祖僧璨大師

覓罪不得。家破路絕。寄跡空山。形單影子。不是其人。何敢饒舌。晚得童子。皮下有血。

三十一祖道信大師

宿習解脫門。早佩祖師印。吉水城邊賊膽驚。破頭山上法雷震。皇詔四徵不出山。始知道人不用命。

三十二祖弘忍大師

來時有約。生處難稽。莫道無姓。還渠自知。黃梅果熟任風吹。一卷金剛成露布。惹得獗獠便授衣。

三十三祖慧能大師

這賣柴漢。一字不識。撞著金剛成粉末。三更直入黃梅室。真是舉網張風。更論甚麼軌則。從茲甘露徧寰中。鳥近金山無異色。

牛頭山融禪師

寂寞空山。禽獸作侶。賴遇作家。坐斷佛祖。狼蹤虎跡無尋處。迸出日輪正當午。前日後日爭幾許。問取菴中主。

嵩嶽慧安國師

據少室座。秉黃梅印。鈍置南嶽。提挈萬乘。入水始見長人。末後猶提正令。猖狂晤語無人會。野火却能聽遺命。

南嶽讓禪師

一毒礙霄。八載奈何。忽然撲落。是箇甚麼。菴前片磚。乃禍之囫。引出馬駒。陸地生波。

青原思禪師

當何所務。膠舟請渡。賴遇作家。賊心畢露。本無階級。何須動步。他年提出石頭。果然翻盡露布。

永嘉真覺禪師

鑑在機先。氣吞佛祖。振錫而來。適逢其主。機用超越。如縛猛虎。一宿便歸。別開門戶。

龔公山馬祖禪師

應讖而出。一磚打醒。縱橫蹴踏。機用最神。遭其毒者。百三十人。至今脚下。如雷如霆。

石頭遷禪師

稟曹溪命。入青原室。大膽如天祇自驕。不道嶺南有消息。性海直共祖師遊。一卷參同遺後式。覆地翻天智用殊。石頭路滑誰能及。

百丈海禪師

魏魏大雄峯。全是黃金鑄。一喝三日聾。牙爪從茲露。撥轉野狐禪。分付下堂句。引出赤鬚胡。聖賢俱罔措。

南泉願禪師

超然物外人。遊戲皆芳躅。南泉三十載。牧牛水草足。一日出山去。大地遭橫觸。指花能破夢。斬猫誰解贖。

大珠海禪師

寶藏久埋。拋家外走。逢人指出。始知本有。炤用無方。龍吟獅吼。入道無門。師闢其牖。

天皇悟禪師

那邊既是不住。這邊何須更論。一到石頭撞破。自然兩下不存。萬仞峰頭獨足立。宇宙都教一口吞。

黃檗運禪師

祇為父大慈。致得子大驕。聞著一喝驚吐舌。便解如虎之虓。狹路親遭一口。幾乎師命難逃。從此門風大險。鈍置四海英豪。

溈山祐禪師

撥著一星。方始知有。踢倒淨瓶。不落窠臼。却作一頭水牯牛。無端落在仰山手。從茲父子立家風。暗機圓合相鼓誘。

趙州諗禪師

拾來鎮州蘿蔔。挂作東壁葫蘆。拈出庭前栢樹。直教大地糊塗。趙州關過也無。指東話西無道理。遇者須教骨髓枯。

睦州陳尊宿

機似閃電。用若神龍。七古八恠。覓之即空。等閒垂手。肇建兩宗。懸一草履而黃巢膽喪。睦州人至今頌退賊之功。嗚呼予何能知此翁。

臨濟玄禪師

三十痛棒。直要見血。這裏猛省。豈容枝節。三拳一掌。霜上加雪。爪牙頓露。門風險絕。

洞山价禪師

無情却會說法。祇此便是師真。及至當場托出。如何依舊沉吟。過水炤見面孔。方知昔日婆心。從此橫開五位。剪斷諸見稠林。

徑山國一禪師

為真法寶。作丈夫事。鼻祖雙徑。龍王獻地。馬師不能惑亂。天王亦遭鈍置。豈獨為唐國一人。實乃百世之瑞。

圭峰密禪師

禪教分馳。一之者少。惟師一觸。二途俱了。為教之祖。為禪之表。滅諍啟迷。如日初曉。

雪峰存禪師

夙領師棒。晚藉友箴。蓋天蓋地。大用繁興。木毬[車*袞]出智不及。鼈鼻當路毒難親。巖頭張網如天濶。滿地兒孫皆鳳麟。

曹山寂禪師

洞水逆流。師嗣其慧。從那邊來。開此五位。寶鏡當臺。炤彼萬類。虛玄無著。豈容意會。

巖頭巖禪師

石裂崖崩。德嶠之令。師乃嗣之。如雷益迅。湖邊棹如龍活。巖頭路似天峻。遇著祇噓一聲。無限平人喪命。

龍湖闡禪師

以帝室胄。作法王臣。得石霜不說之印。會案山點額之心。龍避罰而匿袖。水報德而澄淳。臨終大家聽取。三十年秘密盡傾。

烏窠道林禪師

秦望山頭。是何模樣。明月挂松枝。紅塵飛不上。至險實至平。太守豈能諒。位鎮江山却太危。立著下風徒悵望。

雲門偃禪師

秦時[車*度]轆鑽。却入睦州門。豈特損渠一足。直令命根不存。纔寄雪峰一語。致得大地名喧。門庭壁立懸千仞。拈出餬餅幾能吞。

風穴沼禪師

不遭南院惑亂。棒下徹透根源。露出鐵牛之機。盧陂失後忘前。濟下慧命一綫。獨賴吾師僅延。垂涕拈出家藏。法浪從此滔天。

首山念禪師

臨濟之道。遇風欲止。賴師續之。淳然復起。不說之說。聽者非耳。拂袖便行。有何道理。胷中更無元字脚。七軸蓮經成故紙。

法眼益禪師

片石礙胸。途窮路絕。逢人撲落。三界影滅。一切現成。何須扭捏。是大法眼。炤用無缺。

汾陽昭禪師

穿過百丈席。撈得空潭月。獅子踞地坐。來者膽皆裂。三訣起干戈。十智生枝節。異僧為法來。特請勤宣說。

雪竇顯禪師

橫經窮叢。機辨風馳。一入智門。喪盡所齎。拂子之下。如臨朝曦。奔流度刃。難喻其機。

慈明圓禪師

詬罵法施。其用果別。唯師當之。狂心頓歇。便解當陽哮吼。直是天驚地裂。一言推倒神鼎屋。今古何曾有豪傑。

佛印元禪師

早中楞嚴猛毒。死在開先齧甕。一具利齒齟牙。諸方聞著頭痛。祇管侮聖欺賢。直要撈龍打鳳。描得師真喜大笑。誰知笑破閻浮夢。

天衣懷禪師

夢從星降。悲乃宿習。徧遊叢社。早便超逸。遇惡辣手。面對鐵壁。爆地擔折。鼻孔打失。萬仞銀山當下崩。虛空突出一輪日。

永明壽禪師

懸一心鏡。圓萬行影。幽義徧窮。千光竝炳。開念佛門。示唯心境。廣攝三根。普垂接引。

黃龍南禪師

慈明脊梁。硬錚似鐵。師一見之。心膽頓裂。趙州勘破沒來繇。說甚紅爐一片雪。險絕如天不可攀。三關截斷英雄舌。

楊岐會禪師

輔弼慈明。綱維叢席。一語知休。渙若冰釋。三脚驢兒踏殺人。何問南山有白額。他日兒孫果滿地。臨風各有冲霄翼。

白雲端禪師

抱珠而來。一笑被奪。誰知此笑。能殺能活。及至識破。如桶底脫。始知此珠本自開豁。

長蘆蹟禪師

禪淨兩關。誰權誰實。設化任機。千聖道一。大士幽贊。首茲勝集。莫道達摩直指。不是遠公遺式。

五祖演禪師

一出門來。擔一片板。逢人亂撞。幾遭換眼。却因白雲為牙。買得祖父田產。雖是自家舊業。也費幾多重趂。

天童宏智禪師

丹霞遭一拂。坭丸頭拋棄。超出空劫外。摸著自家鼻。三更不借明。本光難思議。坐斷太白峰。法乳流大地。

徑山大慧禪師

從寶峰安箇鼻孔。從天寧打出殼封。佛日輝天鑑地。竹篋趁象鞭龍。腥臊徧聞震旦國。不孤渠付臨濟正宗。

虎丘隆禪師

入長蘆門。識圓悟語。想酢生液。竟入其旅。莫道柔易。瞋睡之虎。踞坐虎丘。不容佛祖。

天童應菴禪師

探虎丘穴。似湊泊不得。坐金輪頂。似埋沒不得。放出楊岐驢。野干俱屏息。甘露門開深似海。山高路險雲昏黑。

普菴肅禪師

大瀉門頭覓影。華嚴海裏翻身。本莫測迹難尋。別顯權機祖意深。可憐白日人遭劫。無限魔雲賴汝清。

無準範禪師

悞入破菴。罄無所得。有眾如海。化行莫測。文煨武煉。陶鑄綿密。兩人內庭。挈開天日。

雪巖欽禪師

知見若存。關楨猶隔。觸破琉璃。殿前古栢。借仰山座。通楊岐脉。全提正令。千妖喪魄。

高峰妙禪師

打落拖尸句。擒得睡中主。死關天似險。負之以猛虎。三喚不回頭。爪牙不輕吐。一條黑竹篋。鞭撻諸佛祖。

鐵山瓊禪師

髑髏觸破。再下一槌。本無欠少。須經這回。龍睛鬼眼尚難識。萬里無端逐臭來。熏天炙地無藏處。法網彌天海外開。

中峰本禪師

一遇流泉。見神見鬼。度得竹篋。毀巢破壘。超然幻住。隨在雲委。說法無礙。海漩之水。

斷崖義禪師

踏斷千丈巖。炤破一片雪。機辨若奔雷。孤峭如硬鐵。甘隱五十秋。火燒不能熱。末後更顛狂。滅盡千聖轍。

松隱茂禪師

無量劫來。抱此革囊。一擊之下。如雪沃湯。通身是口。毛孔放光。光前絕後。天花飛颺。

千巖長禪師

窮佛歸處。枯木遇雪。惡狗當門。截斷途轍。老鼠翻盆。漆桶墮裂。伏龍山上。證龜作鼈。

天如惟則禪師

無出豁漢。萎萎隨隨。水邊林下。如藏六龜。有時在師子林中一嘯。也不忝幻住之師。

泐季潭禪師

龍飛五位。法運更新。如雲之從。作國上珍。終不受官。天語益親。末後傾出。誰賡其音。

金壁峰禪師

白光燁燁。法中之瑞。伐木聞聲。更有何事。兩人帝庭提祖印。開天首慶風雲會。皇恩正渥歌歸去。舍利燦燦如珠綴。

啟教諸祖

天親菩薩

二難竝興。發慈尊秘。偉論雲蒸。釋無遺義。唯識既明。性相始備。永為法燈。炤千萬世。

攝摩騰尊者

金人入夢。荷法而東。開天挈日。力在厥躬。如盲始見。如聾忽聰。攝伏外眾。永播吾宗。

竺法蘭尊者

聖不獨化。必有其輔。摩騰既東。師亦步武。肇譯諸經。始霑法雨。如來之使。震旦之祖。

康居會尊者

江南緣熟。有光燭天。尋光而至。師善其權。首請舍利。為大法先。塔寺肇建。慧炬始然。

鳩摩羅什法師

靈發母胎。妙慧若神。持鉢悟旨。幼齡說經。佛法東傳。訛謬相承。實藉師至。放大光明。

台宗諸祖

北齊慧文尊者

禪法西來。多局漸因。惟師崛起。悟乃天真。法稟龍樹。觀宗一心。圓頓妙門。如日初昇。

南嶽慧思尊者

抱經空塚。悲淚何切。普賢摩頂。默然為說。稟觀北齊。法華頓徹。展拓義門。永廸來哲。故知宿誓弘持。當是地涌之列。

天台智者大師

受囑而來。茲乃復遇。南岳親承。遽爾長悟。獨宗經王。法雨滂澍。圓頓妙音。千聖一路。噫弘持若師者。庶幾不孤靈山所付。

章安灌頂法師

龍樹教觀。天台始昌。有師結集。法波愈揚。歷難註經。雪被冰牀。烈火弗熱。其綱永張。

法華智威尊者

出宰官宅。入法王家。定慧交發。圓證法華。飛錫定止。法鼓長撾。胡為所願者小而所獲者奢。其母乃地涌之一。特現權而來耶。

天宮慧威尊者

大威之室。廣而且幽。惟師入之。作大法舟。勇退深山。鹿豕同遊。卷舒以時。厥化自周。

左溪朗尊者

晚入天台。一吸無遺。頭陀自律。澗飲巖棲。異類感化。舍利空垂。行粹道圓。表表羽儀。

荊溪湛然尊者

家學緘授。其道未揚。我師嗣之。于前有光。獨挾兩輪。廣運無方。窮玄劇辯。豎最勝幢。

國清邃尊者

偉哉荊溪。難乎其繼。我師靈慧。獨與之契。法流海外。光煥天際。如日東昇。炤破幽蔽。

國清修尊者

善入教觀。妙旨如躍。篤於事行。行本無作。塵尾之下。神智自廓。金地之藏。寶光映爍。

國清物外尊者

會當其厄。教法晦沉。雲散鳥飛。子影深林。妙入正定。影滅塵凝。一絲之脉。以待曙明。

國清琇尊者

善說法者。必如法說。眾寡無形。虛空有舌。異僧來聽。稽首而別。凌空笑謝。始知是賊。

國清竦尊者

唐運既傾。羣雄競霸。安知內地。惟王實藉。勤修益勵。用答國化。高論雲興。秉炬深夜。

螺溪淨光尊者

體合觀音。炤用不窮。欲絕之緒。賴師再隆。搜古藏于灰燼之餘。取逸簡于大海之東。赫赫吾師。是謂能亢其宗。

寶雲義通尊者

魏魏梵表。東海之傑。來學中華。圓頓畢轍。寶雲彌布。法運超越。舍利鱗砌。證甘露滅。

四明法智尊者

台教彫殘。其復未久。賴佛真子。操智種首。掃除異計。作獅子吼。惟一具字。折服眾口。

華嚴諸祖

杜順和尚

華嚴大海。汪洋莫擬。若非大智。孰窮其底。開法界門。示還源軌。是知我師。必曼殊氏。

賢首法藏法師

來必有因。燃指立誓。遊毗盧海。窮法界致。口門放光。神京震地。偉哉我師。垂範萬世。

清涼澄觀法師

報緣之勝。吾不暇致其稱。毓德之粹。吾無能指而名。以法界海慧。窮法界海經。吾又何得而探其深。若我師者。豈獨七帝之師。實萬世之儀刑。

慈恩諸祖

玄奘法師

少歷講席。神悟擅聲。間關求法。委命秉誠。五百餘部。窮高極深。大教斯備。相宗始弘。

窺基法師

唯識一家。其義最微。奘得其訣。非師孰窺。撰疏述鈔。直揚其徽。如暗得炬。百世所師。

淨土諸祖

東林慧遠禪師

深入般若門。別開骨董舖。濁浪儘滔天。一舟橫古渡。莫道將錯就錯。何曾不是長安路。

法旻禪師

宿必有因。境乃先現。及到其處。文殊覲面。指歸淨土。末季方便。捨茲一途。轉見暝眩。

律宗諸祖

南山宣律師

佛制弟子。依戒而住。狂慧既興。越畔而去。師弘四分。戒光遠著。百世所依。法門一柱。

靈芝旻律師

該練三學。以戒為本。如水如霜。秉誠力踐。節彼南山。賴師繼顯。蓮邦緣熟。天樂聞遠。

瑜伽諸祖

不空上師

據灌頂位。佩毗盧印。心精冥感。如響斯應。文殊特為現身。天王亦來聽令。豈徒秘密之功。實乃不思議之聖。

一行禪師

五部教法。師獲其印。陰陽讖緯。俗稱其聖。既契心於嵩山之門。胡為盤桓乎他學之徑。是知大人智用。若摩尼珠。何殊方而不圓。

映。

應化聖賢

佛圖澄國師

石氏之暴。如猛虎嘖。師胡為來。乃作厥賓。百千光恠。用何其神。實以行師之仁。所謂如狎鷗鳥者。其未得師之心。

慧約國師

此大菩薩。現比丘身。戒從性發。通豈修成。作帝王師。主大法盟。誌公之匹。千載遺馨。

寶誌大士

從鷹巢來。異跡莫測。梁武頗解相親。怎奈認著形色。不免斲破面門。何妨通身漏洩。祇為僧繇不作家。致令千里雲昏黑。

寒山大士

世人見汝。如風如狂。汝見世人。可笑可傷。高歌松下。抵掌路傍。寒巖子影。草長烟涼。賴有豐干拾得。大家同上戲場。

拾得大士

無姓無住。却是恰好。逢人拶著。敗露不少。寒山接拍。哭笑不了。一自寒巖歸去後。至今凉月炤秋草。

布袋和尚

祇這布袋。惑亂人多。逢著便乞。為箇甚麼。縱遇作家挨拶。却也不奈渠何。噫。古恠一任古恠。切莫認渠作未來佛陀。

長耳和尚

石龕松戶。心甘行苦。百鳥是歸。天花可雨。為是不傳之妙。為是神通之普。具眼衲僧齊看取。

濟顛禪師

不依本分。七倒八顛。攪渾世界。欺地瞞天。任渠翻盡窠臼。何曾
出這絆纏。逃返天台難隱拙。虛名猶自至今傳。
永覺和尚廣錄卷第二十

諸贊

彌陀佛贊

祇是這箇。喚作彌陀。若是那箇。喚作甚麼。駕空華之寶筏。接幻住之娑婆。示淨示穢。一場懣懣。舍穢趨淨。夢踰大河。若遇鐵額銅睛漢。一定從他不順他。且道。是往生不是往生。噫。東村王大無思算。倒騎石馬過新羅。

釋迦佛贊

三世一切薄伽梵。唯我釋尊最希有。降生偏向難忍邦。五濁借作歸元路。降生皇宮處極尊。飄然棄去如敝屣。示知本有天然貴。區區凡榮豈能等。納妻誕子同人法。一旦割去如斬絲。示知情愛為大患。復性初關首斷之。徧遊外道親穿過。知非便捨明且決。示知彼法非究竟。歷劫煉行盡唐捐。雪山六載嘴盧都。雪覆千峰不暇看。示知研道貴精勤。情根見刺俱斷絕。一覩明星云大悟。大驚小恠稱成佛。示知成佛有正因。不從心外強修證。菩提場中暢本懷。却如旭日照高山。俯就羣機啟方便。權隱珍袍著敝衣。鹿野初轉四諦輪。陳如接拍便成令。從茲三寶住世間。光明熾盛照一切。說漸說頓仍說圓。應機雨化度無極。不論三草及二木。觸著一一皆暢茂。金河法浪流不窮。至今餘潤猶瀝瀝。纔沾一滴徹根源。光吞十虛誰敢匹。佛功德海如沙界。我贊一塵尚如是。塵塵功德廣難量。我有舌根不能及。即使法界諸大覺。慇懃各出廣長舌。說偈直滿百千歲。贊我釋尊亦難罄。痛思我與釋迦等。無量劫來無有二。渠遊濁土若蓮華。我陷泥塗不能出。纖毫未曾有減增。祇從迷悟分凡聖。迷則心反成外物。濁浪拍天不可渡。悟則外物盡唯心。渾圓炤耀光明聚。到底迷悟不相干。淨穢兩途俱坐斷。法身笑破等枯椿。向上有句如何說。我今稽首問釋尊。釋尊垂眸復閉舌。但願身心奉塵刹。普使眾生悉成佛。

出山像贊

空山峭絕。凍雲未開。形類枯木。舌長深苔。堆堆兀坐。任世疑猜。明星夜覩。不勝自哈。忍俊不禁。再嘆奇哉。三思大事。却出山來。咄。四十九年阿漉漉。至今滿面是塵埃。

觀音大士贊(二首)

以眼觀音。聞性自空。以音遇眼。音性自泯。音聞兩寂。唯是一心。孤光迴脫。不廢音聞。二俱徧滿。罔不圓通。一根如是。諸根亦然。交炤互用。靈妙難思。八萬四千。手眼竝彰。故稱大悲。其德無量。應此方機。斯為第一。妙觀之力。是菩薩師。供養弟子。盍省其師。若得其師。是真供養。不是金沙灘頭婦。亦非普陀巖畔客。老僧見他鼻半邊。祇是箇十界無家底老賊。

三大士贊

三老相逢說甚麼。證南作北奈渠何。扶同附會任唇舌。總是一場噀哩囉。直至于今毒未息。看來一字也成多。請君體取未生句。莫管無風水上波。

文殊大士贊

稽首大士。為佛長子。智光普炤。實諸佛母。影現娑婆。釋尊良輔。坐師子座。震塗毒鼓。

布袋和尚贊(二首)

我不重你。臉笑嘻嘻。我不重你腹大便便。我不重你身量腰脰。我不重你胸次廓然。我祇重你負著布袋不知年。到處逢人乞一錢。癡癡不捨無時了。姪坊酒肆亦留連。婆心果是如天濶。收歸布袋沒中邊。雖然如是。若渠放下布袋。又作麼生贊嘆。也祇得稽首南無慈氏尊前。大了肚寬了腸。看來無界不收藏。未知此願何時滿。祇好呵呵笑一場。

寒山拾得贊

敝衣垢面。蓬髮婆娑。持帚回顧。為箇甚麼。為彼世人。癡蠢者多。強執空影。為禍之因。直須掃破。免彼蹉跎。長言不足。繼以悲歌。悲歌不薦。無可奈何。悲轉為笑。拍手呵呵。笑彼逐逐。如自燒蛾。噫。國清門外溪山古。至今明月挂松蘿。

空生尊者贊

既名空生。云何有相。相耶空耶。為一為兩。碎諸有關。破如來藏。不管巖前雨華。且把手中拄杖。雖云是東方青龍陀。也祇是這般模樣。

十八羅漢贊。為金仙庵題

豎指

若為指佛。何者是佛。若為指心。何者非心。一指分明太漏逗。千年祇作野狐精。還有為尊者出氣的麼。唐時却有老俱胝。

執卷

祇這手卷。親從佛得。文彩已彰。炭中露墨。咄。好向堂前把火焚。免使人見賊捉賊。

扶杖

一條拄杖子。照用不容分。扶過斷橋水。伴歸無月村。到不如放下著。何以故。正眼看來。不值半分文。

撥眉

撥開長眉。分明覲面。怎奈迷何。依然不見。見不見。休向空中尋閃電。

入定

寂不聞聲。天華亂墜。最先見佛。熱瞞一會。似此等惡模惡樣。祇好貶向人天。永作福田之類。

合掌

合掌當胸。歸依那箇。若言見佛。分明話墮。縱言不見。未免有過。噫。看來合掌當胸。真不如撒手長臥。

擊磬

擊磬一聲。大地平沉。虛空髓露。枯木龍吟。若到山僧門下。大有事在。為渠祇見其影。不見其形。

洗耳

洗耳去塵。還成白汙。雖是圓通。七錯八悞。正好當胸打一拳。那管你靈山親囑付。

降龍

娑竭出海。神變叵測。似鶻提鳩。未為奇特。既是似鶻提鳩。何以未為奇特。請問唐時白拈賊。

伏虎

寧虎失威。怙然馴伏。要騎便騎。却如跨犢。若是本分衲僧。安用這箇業畜。豈不見道。巴歌不是陽春曲。

憑几

試問尊者。還有憑依也無。若有憑依。何須這箇。若無憑依。安用這箇。所以衲僧據令。不免一拳打破。雖然。佛事門中響。

抱膝

昔也曲膝而請。今也抱膝而坐。長年無事商量。却似習成怠惰。休怠惰。一自靈山分付後。不會打發得這些滯貨。

補衲

瞿曇舊衲衣。片片裁雲補。持來重七斤。包著細腰鼓。還有要識老瞿曇者麼。祇這是。

看經

祇這一卷經。從來不許轉。晝夜鑽紙窓。太近翻成遠。畢竟要轉這一卷麼。腦後一眼開。大地秋雲捲。

弄獅

汝弄獅子。弄得幾出。六即是一。一即是六。好手還渠老作家。白雲深隱禪那窟。

寫經

須彌為筆。大海為墨。寫這一卷經。虛空都逼塞。還寫得出麼。雖然。今日筆尖上。放光動地。見者乃仙陀之客。

負袋

寬了肚皮。打開布袋。逢人乞一文。償却前生債。酒肆與娼坊。到處俱無礙。呵呵。十字街頭。一場破敗。

托塔

寶塔從西來。驚天復動地。光恠百千秋。見者難擬議。休擬議。恐不是阿育王的舍利。

達摩贊(三首)

西來老胡。甚是糊塗。梁武問著第一義。大膽說出廓然無。再云不識似銀山。闔國蹉過空踏躡。祇得暗向長江渡。九年面壁嘴盧都。一堆滯貨誰承買。雪夜安心髓亦枯。看來西天未發足時。也好與三十棒。何以故。為渠起樣作模。一蘆渡江。九年面壁。擬議不來。千聖莫識。流毒震旦。至今未息。有甚好處。破鞋一隻。堆堆面壁。說箇甚麼。三拜得髓。一場懨懨。傳虛接響至今日。却似重添水上波。

三教圖贊

三老出來。冰片霰雪。割裂虛空。掉三寸舌。成得何事。證龜作鼈。一朝聚首。更有何說。

達觀大師贊

其骨若鋼。其氣如虹。肩荷大法。力振頹風。如護君父。豈顧厥躬。雖罹其難。法門之忠。

雲棲大師贊

末風浮薄。法網久隕。賴師振之。狂瀾頓回。專一心而歸淨國。弘萬行以布深慈。是知。師固當世之柱石。亦萬世之繩規。

雲棲壽昌真寂三大師贊

三師竝出。日照昏衢。或禪或教。異路同趨。承前啟後。作眾良模。吾雖不敏。願學之而未能者乎。

壽昌和尚贊(二首)

一旦推翻大好山。等閑跳出祖師關。耕兩鋤雲五十載。何曾有意入塵寰。鍊骨凌空難比擬。鳥道無人獨往還。一條拄杖如龍活。至今洞口自潺湲。

這老和尚。全沒巴鼻。指東話西。實無道理。惱亂眾生。無風浪起。建二十餘刹。使鬼驅風。歷五十餘年。填坑空地。臨了一場逗漏。却云今日分明指示。莫是從大好山過麼。咄。切莫向此中擬議。

博山和尚贊

從玉山絕却路頭。向峨峰安下鼻孔。錦繡囊中飄異香。虛空面上鑽窟竈。牢把鐵關不暫開。末後誰能繼其踵。

滕秀實居士贊(二首)

秀而華。秀而實。雖是一場好夢。醒後何須更覓。學道八載。遽爾趨寂。可喜者問道之念方勤。可惜者履道之功未畢。雖然。末後一曲讓君長。跌坐西逝明歷歷。老鶴踏翻松頂巢。帶月飛歸人未識。閻浮一夢誰先覺。五欲重重自成縛。先生腰纏十萬貫。更曾跨箇揚州鶴。臨終拍手唱歸來。獅子迸斷黃金索。好似昔年馮濟川。不免將錯去就錯。穩坐蓮華大若輪。五色寶光相映爍。天衣飄緲絢雲霓。琉璃地上聞天樂。世間多少競英雄。看來輸君最後著。尚留這箇在娑婆。惡水當頭潑一杓。

兵憲林得山居士贊

君性多豪爽。磊落稱奇英。心胸洞無物。肝膽向人傾。憂時獨上批鱗疏。壯心直欲靖胡塵。轉輸軍餉三邊足。抗守危城萬虜驚。北門鎖鑰君堪寄。遭讒拂袖東海濤。屢約披緇叩石鼓。胡為濡滯愧山靈。韓范功業今何在。算來贏得一虛名。若待功成方斂迹。巖石雲中也笑人。舉世盡因名利醉。堪嘆無人號獨醒。我今預掃峰頭石。奚君共操沒弦琴。

侍講陳仲謀居士贊

剛介如君有幾人。寒梅雪裏一枝春。披緇獨對巖前月。却是先朝骨鯁臣。

德山樵者贊(有引)

樵者楊姓。諱逢京。別號泰宇。德山其所隱也。生出華胄。跡混禪侶。其宅心制行。月旦多賢之。然以賢而貧。亦以貧而益見其賢。則其貧也不亦善乎。厥嗣逸凡氏。有乃父風。持其像求贊。余謂。若居士者。可以風矣。漫題數語。以塞其請。淵淵其衷。穆穆其容。居德以厚。育德以冲。中歲好道。益晦厥躬。樂施弗倦。晚乃愈窮。矢志西方。如水必東。臨終翛然。鴈過長空。嗚呼居士。其取之物則儉。取之道則隆者乎。

自贊(三十九首)

這等模樣。最是可嫌。拂也不豎。棒也不拈。坐朽木榻。漢語胡言。呵佛罵祖。欺地瞞天。簧鼓後學。八倒七顛。山不露頂。月隱半邊。雖然全無道理。要也不負曹洞之傳。

苒荏半生。行年五十。逢人惡發。全無諱忌。罵盡百聖千賢。自云為諸佛出氣。出言不涉典章。舉動全同兒戲。直是攪亂乾坤。一任人天厭棄。莫是教外別傳麼。咄。迦葉師兄也未是(白水巖請)。
癡隱荷山八載。未敢虛空安櫬。諸方浩浩談禪。這裏縮頭如鱉。每歲栽禾博飯。甘把黃金當鐵。分明是半文不直。如何稱壽昌嫡血。蓋為多虛不如少實。千巧不如一拙(荷山請)。
我不是你。你却是我。春風一面。秋雲一朵。黃楊木禪。無罅縫鎖。今年走入溫陵城。恰似泥塗行鱉跛。咦。溫州橘皮不是火(開元寺請)。

這箇老漢。一生杜田。不解學佛學祖。祇會伸脚打眠。有人問著無可對。便說渠是教外別傳。呵呵。曾在壽昌橋上過。鼻孔從來沒半邊。

這箇老乞兒。鄙哉無所能。古今俱不似。凡聖並生憎。掀翻三藏教。滅盡五家燈。渠有甚長處。光頭一箇僧。這漢無知。不分亥亥。掉頭不說壽昌宗。舉足踏破苕溪戒。全是使鬼驅風。一任貴買賤賣。浪得虛名在世間。祇為少了閻浮債(真寂院請)。

鼓山一片雲。苕溪一點泡。祇是破敗凡夫。那能論禪論道。切莫將他供養。只好深埋雪窖(真寂院請)。

撞破南泉之門。逸出壽昌之廐。胸中全沒半點。到處說三道四。如今流泊苕溪灣。沙盆指作珊瑚器。雖然歷主三刹。一任虛舟游戲。莫道渠是五百人善知識。却也祇同浮寄。

向諸佛頂上橫行。借壽昌棒下出氣。祇在唇邊鼓是非。有口無心無避忌。呵呵。誰能得見半邊鼻。

這漢無知。肚裏無禪。妄拈拂子。誑惑人天。出世纔四載。開堂祇二年。便爾縮頭度日。每好伸脚打眠。謬傳渠是壽昌嫡子。看來不值半文錢。

把苕溪釣。撾鼓山鼓。半點佛法全無。却要呵佛罵祖。諸方寶若黃金。渠直詆為糞土。因甚不近人情。只為苦瓜連根苦。

石鼓峰頭。一場破敗。苕谿岸畔。喪盡家風。逢人專好打哄。盡是指西為東。今被人描上紙去。原來是箇老禿翁。

黃龍峰下橫遭毒。延津岸畔喪全身。而今遺影在沙陽。切忌認假為真。

石鼓山頭。舉網張風。苕谿岸畔。垂竿釣月。看來一場懨懨。不如閉口藏舌。甘心五載不開堂。直是癡癡長守拙。相逢切莫問他宗。不是曹溪一點血。

這老乞兒。是何模樣。三界不能安。虛空不可量。無端影落世間。一任天人供養。

悞入大好山中。便敢當仁不讓。佛法半點也無。只知十尺一丈。

一張白紙頗相似。怎奈丹青塗汙何。空潭月影非真實。任你諸人枉揣摩。

誰人描我像。形貌也不殊。右手握拄杖。左手持數珠。翻成太多事。何必徒區區。不如兩撒手。方能識得渠。識得渠。只是一頭驢。

劣崩峰頭。白雲一片。苔溪岸畔。釣綸一線。六凡渠不入。四聖渠不見。一任諸人描出。也祇是箇炎天破扇。悞入壽昌門。冒繼興聖席。通霄路上許誰行。獨握雲中一柳栗。橫拈直豎幾人知。徹底全無消息。

咄哉老乞兒。不識達摩禪。虛受人天供。高臥白雲邊。有時豎一拂。欺地亦瞞天。被人亂描出。看來大可憐。年老無知何所能。非凡非聖得人憎。莫謂壽昌嫡血嗣。只是光頭一老僧。

此老漢。無可說。兀坐石鼓峰頭。分明只得一橛。瞎盡眾生眼。畫餅指作月。莫道渠得洞上禪。白雲深處長守拙。

一匙洞水作波瀾。豎拂敢將千聖瞞。抖碎虛空無可似。任他十界也難安。

黎川橋下。撥波求水。劣崩峰頭。舉網張風。顛倒全不成人。指西便喚作東。只是無識任唇舌。騙人道是洞上宗。

入壽昌門。繼洞上武。播苔溪浪。搥鼓山鼓。等閒笑破五家宗。箇裏不容諸佛祖。祇是空拳誑小兒。直把黃金喚作土。

壽昌碌碌僧。冒坐鼓山頭。不達教外旨。見馬却呼牛。倒佛祖旗鎗。結七眾冤仇。眼中滄海小。凡聖竝生愁。石鼓輕搥十四秋。直教凡聖盡成愁。何如穩臥深雲裏。一任山高及水流。

行年七十。徹底愚痴。問禪不會。問教不知。祇是一柄拂子。橫拈直豎。令人可疑。恁麼脫空老漢。千佛聞之攢眉。渠却自負道。靈山最後拈出一枝。

劣崩峰頭客。尋常無軌則。開口不是話。凡聖俱莫測。賊賊。東土西方容不得。

此老比丘。法門中賊。據興聖座。說黃道白。破滅佛祖宗猷。截斷眾生命脉。如今年老益猖狂。倒倒顛顛無軌則。騙盡人間供養。難逃閻老訶責。咦。

博地凡夫僧。不識諸佛祖。橫擔一片板。非今亦非古。執一少變通。直是愚且魯。任他人笑罵。默然祇自許。

壽昌孤風。崛起萬仞。鼓山得之。繼行其令。興洞水波。出曹山奔。不知正偏。起眾生病。金針玉線幾人知。是謂諸佛慧命。

劣崩峰頭。潦倒比丘。已靈不重。諸聖不求。開口偏罵佛祖。大似冤仇。炊無米飯。駕無底舟。直是箇不本分僧。却道渠是洞水逆流。

大圓鏡中。突然者箇。若道是渠是我。便成錯過。若道非聖非凡。亦是話墮。船子藏身。誰能勘破。洞山靚影。方堪領荷。道順持此作麼。只好當面便唾(順侍者請)。

壽昌崛起。洞水生波。博山繼之。如江如河。我是何人。亦唱哩囉。三箇柴頭安品字。玉石依稀差不多。于今遺影在世間。一任笑者笑訶者訶(右壽昌博山及師三像同軸)。

劣崩峰頭老禿翁。長年高臥白雲中。有人問彼西來意。笑指天邊日出東。

這老翁杜蠻禪。自言渠在威音前。搖頭不信佛與祖。五宗不值半文錢。口中好起無風浪。教人掘地去尋天。似者樣顛倒作口業。不如且學痴呆漢。饑時吃飯困時眠。

幼齡學東魯。矢志師前賢。中歲慕西竺。志不在人天。收得壽昌塵。效顰亦說禪。始末經四剎。拈弄二十年。警俗多苦口。衛道在諸篇。一生渾夢事。幻像徒儼然。寄住閻浮八十年。半生蹤跡白雲邊。矢口千言欺佛祖。看來不值半文錢。

這老漢。性太偏。橫擔板一片。不信達摩禪。逢人好起無風浪。教他掘地去尋天。行年八十成何事。笑破虛空嘴半邊。

老漢行年今八十。世間事事皆收拾。惟者影子徧諸方。敗露重重遮不及。還知麼。有相身中無相身。低頭方見明歷歷(師臨終前一日。坐方丈受大眾參禮。僧有持師像求贊者。為題此)。

永覺和尚廣錄卷第二十一

偈頌上

示張居士

波斯閉眼嚼生鐵。十界聖凡都撲滅。忽然嚼破血淋漓。啞子吞聲向誰說。耀天徹地普光明。樓臺處處懸秋月。照破東西南北門。彌勒原來乾屎橛。有等阿師格量猜。好似紅爐尋片雪。曾向壽昌橋上過。始識虛空非彩色。張公好道幾經年。請把從前都放歇。休管魔來與佛來。盡情內顧當胸結。定光岩上浪翻空。正好曹溪尋點血。莫教皮袋兩頭忙。鐵漢從來須自決。鎮日經營一局棋。局終大巧返成拙。臨行不覺太囉哆。堪笑空中重下楔。

玉爐峰夜坐。見月上紙窓。因成二偈(辛酉年二月十八夜)

偏從槁木尋生意。幾載推車逢峭壁。大像橫遭擱一拳。鐵牛濺出黃金汁。
頂門突出摩醯眼。十界聖凡無一點。謾說桃花兩岸紅。虛空到底不容染。

自沙邑取舟到劍津。舟中聞僧誦法華經。因成二偈(癸亥年九月二十一日)

金雞啄破碧瑠璃。萬歇千休祇自知。穩臥片帆天正朗。前山無復兩鳩啼。
今日無端有一偈。四七二三都不識。分明舉出報諸方。睜起眉時眼落地。

客問山居何所作為。占偈答之

我不參禪不學佛。釋迦老兒是何物。只因到底無思算。破衲蒙頭煨檟杻。

送僧謁五臺

見說文殊不易探。金剛窟外碧藍毳。君逢直奪玻璃盞。休管前三與後三。

晝臥

山藤七尺倚雲邊。日午長伸兩脚眠。時有客來相借問。搖頭不道祖師禪。
老衲談禪別一途。拈提全不費工夫。儘教棒喝都休去。直臥橫眠會也無。

拄杖頌

雖然全無形似。出入也得支持。無端橫拈倒卓。縱是佛祖難知。

拂子頌

偶爾向人舉似。閃空之電猶遲。誰將兔角為杖。我便當堂付伊。

戒尺頌

壽昌尋常用底。甘把賢聖俱瞞。一揮殺活雙行。直使髑髏頓乾。

淨瓶頌

百丈當場提出。華林不知背向。橫遭瀉山一踢。露出廣長舌相。

念珠頌

畢竟是珠轉佛。畢竟是佛轉珠。晝夜循環百八。捻破方知是渠。

蒲團頌

臨濟接得便打。長慶直教坐破。一任師僧顛倒。渠實無待無我。

鉢盂頌

但有仰天一口。却會單行祖令。曾經鷲嶺付來。不消特地安柄。

袈裟頌

多子塔前流毒。遞代承虛接響。擬欲生心授受。便好攔腮一掌。

坐具頌

收來却成一字。放去便似方田。祇如不收不放。須彌掇出眼前。

辭博山歸閩(二首)

勉持瓶錫出閩山。為取先師最後關。歷盡艱辛無可得。如今掉臂却空還。

三秋穩坐蒲團月。此日翻携拄杖雲。自是衲僧無定軌。難將行止向君論。

送印南上人住山(二首)

年少雖當歷苦艱。卓庵疑是學偷閑。為僧應要知慚愧。試想瞿曇在雪山。

斬絕塵緣去住山。空花滿眼莫須攀。一念須求無上寶。可將半點挂人間。

送巖心上人入關(二首)

西來大意莫顛預。佛祖從來鐵作關。有朝拶入無人識。石女生兒血滿山。

黃龍一路絕躋攀。鐵壁銀山過者難。拾得威音前一簇。等閒發動破三關。

庚午夏。余病甚篤。沈道礎居士來山。為作四偈

昨日強而走。今日病而臥。形實非我主。此中宜識破。
忽然如水寒。忽然如火逼。水火變須臾。境緣皆可識。
形衰如枯木。聲細若喑啞。此識亦昏散。誰為不死者。
君今來問疾。疾竟在何處。試請問維摩。維摩亦無語。

示修淨業(四首)

綿綿密密勤持念。生滅何曾成一片。念到生滅不相干。脚底蓮華恒出現。
他佛分明皆自佛。念他還同念自時。有朝念寂忘他自。極樂收歸東院西。
休道西方無極樂。只因這裏有娑婆。打破娑婆成粉去。西方不隔一塵多。
五濁娑婆本自空。只緣迷執自牢籠。空花實實無生滅。燦爛全因翳眼中。

示禪人參即心即佛

即心即佛太囉哆。非心非佛是甚麼。直指單傳成委曲。千言萬語奈迷何。
分明輝天亦鑑地。眼前黑暗任奔波。至近翻能成至遠。南北東西枉揣摩。
欲要尋光休擬議。不重己兮不重他。一句話頭拚命拶。譬如入室更操戈。
毒中毒加猛中猛。殺人重關直搗窠。山窮水盡路自活。出頭天外笑呵呵。
倒拖佛殿出三門。僧堂騎來竈下過。萬聖千賢俱拱手。不成佛也不成魔。

心曇禪人請益(四首)

一句話頭如鐵橛。千思萬想爐中雪。盡情拶破太虛空。大地山河一輪月。
一句話頭如鐵橛。冰片何嘗不是雪。等閒不被雪冰瞞。亭午當空露明月。
一句話頭如鐵橛。雪上加霜霜上雪。春意每從寒極生。鐵牛吼破前山月。
一句話頭如鐵橛。白似漆兮黑似雪。此中關棧儘瞞人。莫向指邊尋出月。

示禪人參乾屎橛

無上圓滿正覺尊。如何喚作乾屎橛。任渠百妙與千玄。到此矢盡弓亦折。
剔起眉毛仔細看。大似獐牙嚙生鐵。直教嚙破始甘休。不問前後與歲月。
嚙到情枯識泯時。十界形亡影自滅。屎橛便放大光明。虛空盡吐廣長舌。
狸奴白牯是家親。酒臺木杓成標格。雲門打殺太多生。惹得石人笑不徹。

示禪人參趙州無

趙州因甚道箇無。有口無心未可圖。若從語下生穿鑿。癡癡逐塊似韓盧。破皮折骨須窮髓。休從門路強分疏。步步秉誠一條鐵。却如杼海要尋珠。不管瀾漫千萬里。直下期教大海枯。狗子一朝徧大地。世界身心都是渠。更好切上重加切。忽然撲破更無餘。趙州面目無藏處。祇是當年破鉢盂。

過漏澤園

生前百戰競山河。死後空埋七尺坡。蝸角力爭榮有幾。菜根久嚼味偏多。千長盡屬黃埃蓋。百巧其如白骨何。假使韶光如可駐。巢由應不臥山阿。

端陽送施主

壑舟負走失居諸。截出奔流始丈夫。劍為久埋光必露。金須重煉鑛方除。鏡中妄認疑無首。衣內還搜信有珠。聽罷楚歌煙水暮。佇望明月照寒廬。

偶成(十首)

休認一漚為全海。豁然看破萬緣休。乾坤寥廓渾無際。九萬鵬搏得自由。
蒼溟煙波日夜流。鏡中白髮幾經秋。就中便有無生路。木馬懷胎產鐵牛。
根塵靡二本來空。祇為生心大不同。直使一虧能喪兩。泥牛入海覓無蹤。
一回撞著便如仇。賢聖都教棒下收。黃金甘把同鑰石。直得虛空笑點頭。
夢裏谿山知是假。醒來榮辱認為真。夢醒同觀俱不昧。爆破乾坤喪古今。
花上春來未可尋。暫忘分別便相親。著眼看時偏障眼。紛紛蝴蝶過西隣。
一片圓明本不分。耳談鼻視目能聞。自從虛妄生經界。劫盡家珍氣似焚。
扇子無端打地神。韋天受痛便生嗔。帝釋旁觀尤不肯。金剛喫棒淚如淋。
世界都是一塊情。返情歸性事非輕。直從情裏尋歸路。一段常光本現成。

松枝忽折鶴巢翻。驚醒漁人夢裏魂。蘆岸月明寒入髓。崑崙倒被石龜吞。

與儒生論中和

中和妙體原無二。妄截虛空作兩頭。擬向未生尋鼻孔。睫毛丈二掩雙眸。

火炮

懸象正當寒已極。發機每在歲將新。箇中點著無情處。爆破全身喪古今。

示量智上人

趙州因甚道箇無。擬議生時轉見疎。窟穴從頭都踏破。始知東壁挂葫蘆。

示無餘上人

若道圓同太虛。早是無事生事。更道無欠無餘。是甚街前露布。且請脫下娘生袴。

示松溪嚴用正居士

金剛妙義是甚麼。無著天親不奈何。人法雙空須進步。如如不動亦當訶。起照便差千萬里。無思落在鬼神窠。直待心花頓發後。始知佛法本無多。

為百拙座主閉關

紫芝山下鐵為關。淨極光中絕往還。三載養成無礙力。縱橫大地沒遮攔。

示松溪陳蘊奇茂才

萬緣莫問撥不撥。心迷雖靜成纏縛。一切能全泡影觀。便是成佛真機括。境有只因心未空。心空何愁境不豁。老盧解道本來無。黃梅

夜半傳衣鉢。

示松溪葉泰交茂才

一句彌陀切上切。千里萬里一條鐵。萬行旋歸不二門。大地茫茫成片雪。成片雪休自輟。更把石牛鞭出血。虛空突出一輪紅。彌陀是甚乾屎橛。

題龍頭井

龍頭一滴水。飲者貴參詳。莫作去來想。休將冷煖嘗。遡流知有本。出口潤無方。要辯曹溪脉。此中滋味長。

示順侍者

佛法從來不在多。祇須體究自彌陀。憤然直要親相見。念念追尋莫放他。却似持鎗逢猛敵。亦如把柁涉鯨波。有境可觀全屬妄。無心守寂也當訶。一句疑情渾不散。百萬魔軍豈奈何。有朝捻破泥丸子。跳出虛空唱哩囉。

示武林夏調生居士

一句話頭切上切。萬別千差都撲滅。只教一路向前行。直得虛空腦亦裂。五千餘卷拭瘡紙。三世諸佛乾屎橛。趙州面目無藏處。破鑊原來是舊鐵。

云三山陳茂才

仲尼昔日欲無言。游夏何曾敢浪傳。只消截斷閒知解。喫飯穿衣喫本元。

示初度沙彌(八首)

剃頭切莫將頭賣。賣得頭來命亦亡。日用不妨隨分過。鶉衣百結道名香。
既然充作如來子。裨販如來罪更深。不若歸家重蓄髮。如來滴水莫相侵。

伽藍飯食療饑瘡。豈可于中論短長。喫者應須具慚愧。不喫憑君別主張。

壽昌在日硬如鐵。懶向人前曲脊求。稀粥三餐荷鋤去。歲荒尚有麥羹坵。

壽昌衲子盡開田。老漢扶犁自向前。雖然不識開田義。也免閻羅算飯錢。

如今飽食不須憂。百事無營正好休。怎奈閒中閒不得。百非造起積愆尤。

莫言訶罵人非善。地獄門前滅禍胎。你身只要無拘束。儘有無邊業造來。

北去南來尋好處。誰知好處在心頭。心若不休無處好。天涯走徧盡如仇。

示契宗上人(二首)

為僧直要骨如鋼。苦行須知受用長。憶昔雪山修道者。多年歷盡幾風霜。

單持正念研真宗。坐斷閒情境自空。萬仞峰頭獨足立。新羅祇在海門東。

示圓常上人(四首)

劣崩山高鳥絕蹤。石門天險孰能通。若非鐵額銅睛漢。祇在青烟翠靄中。

通霄一路白雲深。驀直行來豈費心。若是喜從他徑走。經年蹇滯在荒林。

昔人不出飛鳶嶺。指頭踢破海山平。每見許多伶俐漢。千山雲水恁麼行。

衲子須憑一瘦筇。登山渡水莫教鬆。忽逢水盡山窮處。拍掌高歌天外峰。

示康上人(二首)

妄緣聚處現身心。幻影須知却有真。直把虛空窮出骨。大千沙界總圓明。

止觀雙忘方入道。有無不涉始歸真。出家不是貪閒散。荊棘林中要轉身。

送僧歸博山

草鞋似虎尋歸處。趁得東風出嶺去。須記玄沙嶺上時。指頭踢破海天曙。

送僧歸博山

翩翩瓢笠出閩關。千里長途任往還。歸去飽看東塢月。應知絕不異谿山。

警眾(四首)

壽命若風燈。浮根同幻影。如何苦執我。到底不能省。
色聲非外生。美惡從心計。逐逐不知休。如魚貪粉餌。
妄情遣復來。正念起還滅。未獲真常理。塵勞難暫歇。
上升似登峰。下墜如歸壑。努力尚難成。順情豈不錯。

示徽州余維坤居士

看箇話頭如嚼鐵。世界身心爐裏雪。忽然腦後放千光。世法佛法影俱滅。須知更有向上關。釋迦老子猶結舌。馬師一喝大雄山。三日耳聾有何說。

示我白居易

子母相逢事若何。西方不隔一塵多。祇要脚跟紅線斷。低頭自見古彌陀。

示芙蓉和上人

山僧不開骨董舖。遇著阿師無可似。七花八裂最郎當。剩得破船依古渡。空守螺江夜月寒。敢向人前閒露布。天險石門澹如水。無人更問通霄路。

甲戌冬。修山堂和尚塔

古塔沉埋日久。忽然現露雲邊。昔年何有今日。今日大非昔年。今古全因人計。成毀祇任世緣。固是有相皆壞。須知無火不傳。超出古今一句。歲歲波逝前川。

參禪偈(十二首)

參禪人莫廉纖。公案商量大可憐。一毫頭上親相見。管取鑑地亦輝天。
參禪人莫儻侗。一喝一棒徒粗獷。墮在孤危死水浸。轉身一路多如懵。
參禪人莫妄求。萬妙千玄盡放休。鐵壁銀山成粉末。德山臨濟也難儔。
參禪人莫自足。門外草庵休久宿。寶所未歸終不了。請君唱箇還鄉曲。
參禪人莫自屈。誰家屋裏無真佛。祇須一念契無生。兔角杖挂龜毛拂。
參禪人莫多知。五燈讀徧轉增迷。泥牛踏破澄潭月。五葉花開別有枝。
參禪人莫猖狂。許多岐路會亡羊。歷盡千山雲水窟。須知更有白雲鄉。
參禪人莫懈怠。百萬魔軍日相待。時時別起吹毛利。始識南無觀自在。
參禪人莫他營。營得徒能益死生。衣裏藏珠如不昧。遮身一衲有餘榮。
參禪人莫嫌貧。貧不極時見不親。須知徹骨風流事。寒盡元來別有春。
參禪人莫執一。死法相傳盡成癖。好漢須如出海龍。五宗門下無蹤跡。

念佛偈(四首)

念佛人要純一。出息還須顧入息。淨心相繼障雲開。摩著生前自家鼻。
念佛人要心勤。懈怠從來長妄情。憤然一念常如此。寶蓮日日放光明。
念佛人要志堅。滴水須知石也穿。念頭迸出燎天燧管甚西方五色蓮。
念佛人要端正。端正方能成正信。菩提種子自培成。便是彌陀親法胤。

示林泡庵居士(二首)

佛號綿綿不斷聲。恰如猛火煉真金。鑛盡金全成大用。鑑地輝天別樣明。
佛號直如倚天劍。截斷千枝與萬枝。眼前便是蓮華國。那管彌陀願力慈。

示淨土社諸善友(七首)

一念彌陀渾似鐵。閒忙動靜離生滅。此土西方成粉去。說甚無生湯裏雪。
崛然一句若金剛。百煉千鎚未肯忘。直透威音那畔去。不離方寸即西方。
劔輪揮處夜光寒。山色溪聲未可瞞。直待金鷄親唱曉。五色蓮華映寶欄。
持名不用更求玄。一句頓超聲色先。萬境融成一片月。何分東土與西天。
癡狂外逐何時足。山積黃金也積愁。若肯盡情都放下。長空雲淨月輪秋。
總攝六根惟念佛。浮情煉盡自圓成。巍巍臺上黃金相。不須起念自分明。
莫向境緣生好醜。凝成一念竟無分。忽然打破琉璃鏡。說法音聲許獨聞。

與丘守戎將軍

學道猶如上陣時。金戈鐵馬莫教遲。軍中直斬渠魁首。奏凱歸來春滿蹊。

與馮中軍

魔軍百萬知藏處。擣穴焚巢立可除。戰勝自然家國泰。輪王髻上奪明珠。

示茶頭

客來祇是一杯茶。攪動叢林亂似麻。底事明明無向背。無端特地隔天涯。

示超覺上人

靈光迥出根塵外。用著根塵那得知。但能滅盡偷心去。始識趙州東院西。

示龜洋山僧(二首山有二祖師肉身)

峇嶢三紫聳雲間。中有幽人據祖關。須信觸體還有眼。頂門迸出照人寰。
真身見說在龜洋。日月雙懸照上方。愧我瓣香無可爇。兩餘山色正蒼蒼。

示大道巖僧

清源山色翠光浮。聞有真人在上頭。大道明明如箭直。往來無限曲如鉤。
從來大道透長安。透得長安法界寬。其奈時人都好徑。歷盡艱辛到却難。

示密因上人

石鼓當軒震一聲。山河大地亦心驚。任君鐵額銅頭漢。猛火爐中要再烹。

答尼覺林

萬法本來空。祇緣心妄有。妄心共分別。說空實非空。拶入空中性。空有二俱非。是名本來空。亦名真實義。

示海濱太蘇善友

生死如大海。漠漠連天碧。肯具堅固志。自然亦可適。挂箇萬里帆。豈戀一區宅。片葉乘天風。千丈濤難隔。究竟登彼岸。寶山手可摘。學道亦如是。聖域在咫尺。勉哉勿自委。便是出塵客。

凡木上人歸里省親(二首)

歷盡艱辛經幾年。歸來破衲飽風煙。一朝直見親生面。不知何物獻堂前。

踏徧高低祇等閒。橫擔榔栗返閩關。丹霞驛畔荔枝熟。應有幽香散萬山。

戒多營僧

馳逐茫茫幾肯休。齒黃頭白尚貪求。經營百世三更夢。建立千秋等小漚。盡道積功終積惡。誰知增樂總增愁。饒君算得都如意。鐵棒臨頭不自繇。

示志西上人

至道本來嫌揀擇。何須特地志東西。回光看取脚跟下。等閒坐斷碧瑠璃。

安平尤母道喬死入冥司。冥司令歸請偈

明明有箇西方路。祇在當人一念中。看破身心同馬角。劍樹刀山當下空。

答劉仲龍文學用來韻

居士能栽火裏蓮。現身混俗且隨緣。欲明大道休存見。纔落玄言未脫詮。淨穢雙忘猶隔岸。有無俱遣尚非禪。妄情息處真如現。步步高遊極樂天。

示莊太振居士

緊把繩頭獨往還。那愁劍樹及刀山。歷盡艱辛能不退。撥轉娑婆祇等閒。

示吳善友

念佛一門。最為直截。不須多知解。不用巧言說。祇要一句佛。崛然如寸鐵。管甚恩與愛。管甚怨與結。諸念俱不生。娑婆影自滅。

示膺可上人

把住虛空做一回。萬慮千思當下灰。鐵柱門前開口笑。等閒吞却石烏龜。

示王無偏居士

一句從來絕正偏。等閒擬議盡成纏。鐵牛吼出山前路。踏破三春萬里煙。

示夏君都居士

左右皆毒火。背後鼈鼻蛇。唯前這一路。却有生冤家。定要向前去。刻頃不容他。有朝裂破後。火裏現蓮華。

示慈茂上人

百萬軍中獨戰時。輪刀舞劍莫遲疑。任渠長蛇併偃月。直取渠魁報主知。

示省安上人

一句當空橫寶劍。千聖尋之不見蹤。白牛穩臥坡前草。有時跳出小溪東。

示心宇居士

一句當空橫寶劍。山河大地總無蹤。有朝爆破虛空也。曦輪涌出海門東。

示寧遠上人(四首)

鬚鬚赤是赤鬚鬚。那箇男兒不丈夫。莫戀蘧廬茶飯熟。一吸須教大海枯。

衲子從來不傍他。路逢佛祖是冤家。謾說泥牛鬪入海。須知鐵壁不栽花。

獨橫一劍自當空。悉達波旬總滅蹤。超出虛空頭上立。須彌搭在藕絲中。

門前有路終難穩。腦後生光恐是邪。有窮射落天邊日。啞子驚慌叫出爺。

示慧真上人住山(二首)

住山切莫染浮塵。學道從來要學貧。直得囊空無半粒。自然寒盡轉生春。

住山切莫盜虛名。把定身心鐵鑄成。百匝千重俱透過。石牛步步火中行。

示卓然上人

百城煙水自蒼茫。荷錫南來路正長。苔上砂鍋雖舊樣。近年托出發千光。

示雲庵上人住山

卓庵遠在白雲邊。煮石餐松別有天。一日案山頭自點。須彌倒掛夜明簾。

示空諸上人(二首)

這箇非空非不空。祇緣迷執成諸有。迷情散盡日輪孤。照徹三三元是九。

這箇何須更說空。老龐嚼飯餒兒童。石人拍掌木人唱。驚起東村王六翁。

示心求上人

有求心變物。無求物障心。殿上香獅子。識破是黃金。

永覺和尚廣錄卷第二十二

偈頌下

牧牛圖十頌

未牧

頭角生鬐未受調。出門那管犯佳苗。雲深泥滑山前路。背却家鄉日轉遙。

初調

忽然狹路得相逢。驀鼻牽來不放鬆。頑性幾回貪入草。拽來賴有握鞭童。

受制

幾番鞭策性猶存。祇為繩牽未可奔。每向平田窺草色。山童執杖視朝昏。

回首

調伏多年性漸柔。不思外逐自回頭。牧童手索難輕放。得到家山始肯休。

馴伏

晚來隨步古谿邊。歸去芒繩不用牽。一任連天春草綠。何曾有意入人田。

無礙

毛色皤然露地眠。綠楊芳草自翛然。鞭繩遺落青松下。短笛橫吹近午天。

任運

渡水穿雲任往來。隨緣飲啖更誰猜。牧童自是無思算。枕石高眠曲水隈。

相忘

林間無事久昇平。彼我渾忘不用親。明月光中雲影度。到頭雲月兩無情。

獨照

境迹金銷智鏡懸。孤光獨照更無前。空山寂寂人猶在。腦後還當贈一拳。

雙泯

心境雙亡一段空。泥牛入海更何蹤。箇中消息無人會。夜半東方日正紅。

示初參(二首)

截斷一切偷心。自然正念常存。譬如滴水穿石。何愁入道無門。多知轉見多誤。多求定是多忘。切須勤護正念。莫令羊走他方。

示汪子野居士

世緣不實。幻形靡堅。無明內薰。毒龍潛淵。執心斯起。乃有人天。如汲井輪。苦海何邊。繩蛇鬼杓。猛火炎炎。唯有智者。達在幾先。空花頓泯。體本如然。不天不地。非聖非賢。喚作甚麼。木頭碌磚。

示來上人

來公擅風騷。晚亦愛逃禪。過我苕溪上。索我賦短篇。慚余老且病。抱拙臥林泉。舉筆重若杵。展卷動經年。矧彼浮文句。春露及秋煙。難將墜堦葉。喚作黃金錢。君思太古世。一畫未興前。却有詩一卷。孔老咏不全。

示初度沙彌

大凡出家兒。莫自墮庸劣。人人具天真。與佛曾無二。祇為迷情重。妄生能與所。遂有分別生。因而去及取。善惡自分途。輪迴成七趣。輾轉無已時。安知有出路。我佛三界師。苦口重叮嚀。頓了本來真。虛空成殞墜。迥迥白牛車。安穩出凡聖。娑婆與極樂。一腳踏翻去。如若未能了。依樣畫貓兒。一句彌陀佛。提起若金剛。俗情都粉碎。坦蕩遊西方。但自淨其心。何愁土不淨。此為真實語。勉哉毋自棄。

交割

滿把虛空作一擔。疲精竭力豈能閒。不如拈出無聲笛。顛倒橫吹過晚山。

示法林上人

小舟棹入蘆花岸。夜半溪頭月正明。忽得金鷄喚醒後。娘生鼻孔不須尋。

示明給上人

極遠窮高要志堅。淺薄邪涎切忌沾。但得石頭開口笑。自然掘出地中天。

答林道敬居士(四首)

世路無夷險。夷險起于心。脚跟若自穩。山海坦然平。謾說口業重。業體本自空。但得紅輪出。霜露有何蹤。賊是自家親。終非第二人。主人能不昧。諸賊不須擒。本形元不遠。隔處在多枝。分別如頓泯。了了自能知。

示眾(十二首)

吾道如虛空。探索竟何有。妄情若未消。無物亦塵垢。吾道如青霄。接竹不能及。若是凌虛客。揮扇雲端立。吾道如玄酒。莫將滋味求。村沽偏醉客。甘說解千愁。吾道如康莊。有足皆可遊。人心自荊棘。迷回墮荒丘。

直下成委曲。平常便反常。祖師門下事。好當土灰颺。
本來非是佛。木偶見真如。山僧舌無骨。陸地好尋魚。
把定牢關如鐵櫪。一片苦心向誰說。門前幸有莓苔石。相逢解解同心結。
把定牢關如鐵櫪。白雲甘許藏千拙。相逢只自笑呵呵。莫把硃砂來畫月。
有口相傳皆是妄。無心坐斷始名真。真妄若能俱蕩盡。娘生鼻孔不須尋。
威音那畔休存見。十字街頭莫出身。藏蹤不許閑知識。惟有狸奴獨得親。
他禪易學我禪難。休怕青山綠水寒。大海杼乾珠自露。虛空踏破始心安。
我法從來一字無。有語須知法轉踈。昔日青原提正令。紅爐點雪月輪孤。

咏芝山佛牙

流落人間幾萬春。天龍呵護色如新。芝山深處煙雲裏。親覩如來紫磨身。

雙際寺

歷盡羣峰逕轉幽。白雲紅葉滿山秋。天風怒吼谿頭石。驚起蒼龍雨一周。

示謝介菴居士

休道三家共一家。一三不立亦空花。正如繩因麻上見。豈堪繩上復言蛇。威音那畔開雙眼。何論孔老及釋迦。君今此去無相贈。叮嚀好泛白雲槎。

勉洞生維那

克賓不入這保社。古人志氣真猛烈。打了罰錢又出院。的的渾身是生鐵。維那立志須學古。剛刀截斷千秋結。底事推窮莫放鬆。一棒直教一條血。若得一番寒入髓。臘月枯梅逢著雪。自然爆出一枝來。幽香自與尋常別。鐵壁銀山當下穿。普天匝地一輪月。

勉順侍者

多年參箇黃楊禪。箇中消息若為傳。的須拚命拶將去。却似冤家立我前。金剛寶劍倚空立。直斬渠儂始自全。至此尚有末後句。巖頭到底亦茫然。

勉九達知客

禪和志氣須猛烈。豈可悠悠度時節。祇將此事掛心頭。動靜常如一塊鐵。閑情幻境莫分岐。大海直教杼到竭。杼到竭。珊瑚枝枝撐著月。

示恒初上人

脚跟底事的難詮。掘地何曾覓得天。今日與君通一線。須彌倒挂夜明簾。

示悟心上人

心本無物從何悟。悟得方知一物無。夜半木人敲月戶。驚起毗盧出故都。

示壽昌禪者

壽昌橋下流未乾。黃龍峰頭雪猶寒。伯牙彈罷霜空月。子期一去知者難。上人擁毳入茲社。莫隨流俗甘自瞞。好向山中窮大好。揭起西江月一團。

示粹然禪者

荷錫南來經幾年。今朝問路白雲邊。不跨石門端的句。達磨不識祖師禪。驀地一聲聾兩耳。始知黃面有家傳。宇宙掀翻饒有術。虛空抖碎若為宣。

示古源上人

古源一滴味無多。嘗得端能出愛河。不是等閑諸水比。孔聖分明不識他。

示楊逸凡居士

寰內紛紛盡俗塵。離塵方是箇中人。不勞披衲稱禪者。識破塵根便出身。
學道還須硬似鐵。世緣好付湯中雪。直參嚙齧波斯句。跳出虛空莫饒舌。

示張克一茂才

年少須窮理。心空理始親。能所如未盡。猶自隔迷津。忽然能所破。始見本來心。為問宣尼老。何須說六經。

示沈同青茂才

年少須窮理。見理未為親。忽然無可見。始是渡迷津。不道亦不禪。非佛亦非心。却笑宣尼老。空勞說六經。

答黃仲馨文學

成聖固不難。看來亦非易。只為妄見生。白日成自蔽。性蔽情必生。情生境成累。逐逐不知休。癡迷滿大地。盡道有良知。誰顧仁與義。盡道是男兒。甘心同犬彘。病在我不空。所以自暴棄。孔門重克己。顏生能請事。己克境自忘。境忘性自契。廓然無可名。成聖早不是。

示皎日居士

儒多言有釋言空。須識真空自不同。若言執有還成累。到底終歸樹杪風。

明儒(八首)

中庸道在愚夫婦。魚躍鳶飛更灼然。恠底考亭多錯認。却將邪習自成纏。
通天通地亦通人。脚跟底事轉難明。一念纔生全體味。六經考徧祇詮名。
孔門的旨在誠明。慎獨教渠扼要津。若識念從何處起。誠明兩字亦非真。

孟氏支離稱集義。顏生四勿亦非仁。一己病根能照破。廓然宇宙是全身。

仲尼一日欲無言。分明指出孟津源。顏氏如愚方契旨。雲散秋空月滿軒。

儒門盡道能經世。經世先須世相空。一點未消成禍種。多少西行却轉東。

靈光一點本周圓。只因物蔽便難全。所以曾生種格物。窮到源頭便豁然。

妙體空空出見思。細觀四絕豈存知。擬欲多知希聖學。分明辜負一雙眉。

送南詢禪者住白雲洞

古洞幽深獨坐時。泉聲滴瀝鳥鳴枝。千山雲影如消盡。一笑當空許孰知。

示別傳上人

曹洞門庭與眾別。從來不許多言說。直向無言深會去。猶是雲中望明月。

示陳其人居士

此事從來絕見思。語言顯處便參差。是非截斷忘情慮。古佛堂堂出現時。

王正南居士五旬求偈

君顏方壯盛。行年乃五十。昔時伯玉氏。知非正此日。仲尼稱其賢。至今名熠熠。君今能慕道。訪我雲邊室。宜斷浮塵根。幻夢須早息。注思清淨境。蓮花毓妙質。巍巍金色師。壽量何有極。

日光禪人薦親求偈

妙體本來無淨穢。何分東土并西方。金鷄叫破三更後。法界無垠總放光。

示朱居士

從前底事俱成幻。能知幻者自常如。鐵牛跳過東西岸。不數楊岐三脚驢。

示莊居士

西方有佛久相招。肯信須知路不遙。還觀此念從何起。歷劫娑婆當下超。

示張魯白居易

孔聖門中參也魯。祇緣魯處道相應。但得心田如白練。方可深求向上人。

示道目上人

年少須當立志堅。莫隨流俗漫相牽。衣裏有珠宜急省。趙州十八見南泉。

示一鋤禪人

近日叢林風薄惡。晝夜增長無明殼。真參實究有幾人。惟將殘唾恣卜度。卜度學得滿肚禪。驢唇馬舌相凌爍。冬瓜印子漫相傳。根本喪盡遭墮落。君今不入者保社。却向鼓山甘寂寞。鼓山無禪無商量。空諸所有是真藥。直須不被外塵分。萬念收歸者一著。朝斯夕斯志不移。忽然雲破天寥廓。靈光迥出絕見知。便是少林真實學。三界蓋纏一頓超。豈比人間水潦鶴。

付戒(六首)

跬存禪人

鼓山妙挾苕溪戒。末法堤防此最先。欲架岑樓原有本。莫言靈岳重單傳。

洞生禪人

鼓山妙挾苕溪戒。穿衣喫飯做祇園。須憶涅槃最後囑。莫使波旬入此門。

藻鑑禪人

鼓山妙挾茗溪戒。石女吹笙識者希。持說還須知此意。莫使天花點衲衣。

莫違禪人

鼓山妙挾茗溪戒。虛空把住得人憎。須信毗尼皆妙行。頭陀迦葉首傳燈。

警心禪人

鼓山妙挾茗溪戒。五篇七聚總玄玄。豈比近時狂亂漢。足纏魔胃口譚禪。

宗聖禪人

釋子妄分禪教律。看來總是一心光。首弘戒法為前導。廣引羣生到覺場。

勉王右君居士

大事從來不涉詮。任渠六籍豈能宣。請看茂叔窓前草。太極昭然未畫前。

示鄭用弼居士

心淨土自淨。此理萬難移。淨心無別法。一佛破羣疑。藕絲如未斷。能牽大象馳。直教片念息。方名見佛時。

示朱朗仲畫士

一筆丹青百億身。看來終不是他人。靈光變現周塵界。反顧方知面目真。

勉為霖禪人

一番入處一番親。親處何妨更轉身。到底窮源何所有。眉下從來是眼睛。

示逸倫禪人

妙性本圓融。善惡俱無著。染惡固不堪。滯善亦成錯。如何波旬輩。專恣肆行惡。藉口言超曠。貪嗔狗不若。縱學百千偈。毋乃增毒藥。知識可冒稱。鐵圍良非樂。汝等謀道初。出門須審度。妄心若一放。展轉難制縛。古師教牧牛。豈可縱繩索。人牛若兩忘。天地誠寥廓。

示參微禪人

棄家學道事誠難。造進如登萬仞山。步步若能常不退。不知身在白雲間。

示事玄禪人

參禪工夫無多訣。百事推開守一拙。唯將大事挂心頭。直把鐵牛鞭出血。

示柯止言居士

大道分明不屬詮。名言纔涉便生纏。一念廓然能所盡。石牛吼出古溪邊。

示清宇上人

剎那生即剎那滅。廣長舌相分明說。即此剎那亦假名。萬法從來本寂滅。

示睿侍者(四首)

學道先須識自己。最尊最貴誰可擬。勵志勤求莫放鬆。譬如杼海要窮底。

學道先觀世相空。根身器界了無蹤。祇是空中元有骨。即此便是主人公。

學道先須貴一心。莫分他岐亂追尋。朱紫雖然從世好。那知背却本來人。

學道先勤克己功。克己功成萬境融。大千沙界非他物。始知法法本來空。

示彭爾仁居士

此心體本絕離微。鵲噪鶯啼顯妙機。莫將閑解生枝節。千古茫茫妄是非。

示彭爾達居士

靈光廓徹徧虛空。豈在區區簡牘中。好窮庖羲未畫處。三絕韋編枉費功。

示黃仲丹居士

千聖血脉不容言。吃飯穿衣契本元。仲尼昔日稱無隱。庭桂花開入妙門。

淨土偈(四首)

瑠璃寶地黃金相。不在西方不在東。妄想盡銷歸一佛。自然身坐藕花中。

纔生一念便生纏。攝念無如念佛先。直把娑婆全放下。毓神端在紫金蓮。

人人自有古彌陀。十二時中莫放過。但得心光長不昧。不勞彈指出娑婆。

彌陀一句無他念。萬念俱空見本然。便是塵塵成解脫。不須更問祖師禪。

示唯省禪人

不逐浮塵唯內省。重重披剝莫貪玄。揀擇既忘能所盡。自然直下見真源。

示守愚禪人

靈光獨露根塵外。者裏何曾有智愚。夜半木人開石戶。果然無意得逢渠。

示法珍禪人

此道昭然覲面。何須特地要見。師姑元是女人。山門定對佛殿。所以世尊拈花。也是空中閃電。百萬人天無對。果是真實知見。

示陶太諒居士(二首)

佛道深且廣。不可世智擬。必須依聖言。用為標月指。若執指為月。翻成自悞矣。自誤且誤人。白雲千萬里。學道若登峰。最要路頭正。路頭若一差。坦途成深阱。路正莫憚勞。猛力可前進。若得到其巔。轉身方免病。

勉寄生禪人

幻影浮光切莫耽。虛空有骨更須參。名言銷盡方端的。何用南詢五十三。

勉爾白禪人

祖師心印本難明。擬議纖毫墮俗情。夜半金鷄忽破夢。空中突出一雙睛。

示覺海禪人

禪本寂滅離名相。即言寂滅亦非禪。不用求真須息見。祖師苦口露玄詮。

示燦然禪人

一句話頭如鐵橛。動靜綿綿休要歇。更須別起眉毛看。莫但悠悠聽時節。此道何曾隔一毫。不須向外別尋他。但要歇得偷心去。三千佛法本無多。

示孤月上人

一輪明月到天心。碧漢曾無半點侵。學人到此休住脚。鼻孔從來別樣深。

示上生上人

立心切要做古。制行莫近狂禪。內省常自知過。方能遠俗希賢。

示鄭居士

眾生迷昧自成纏。分別難忘愛染堅。苦海波濤何日已。須信西方有妙蓮。淨念但能離四句。大地河山總廓然。寶網金池安養國。祇在平常眉睫前。

示晉江楊居士

學者從來重識見。杏壇却道欲無言。須知一貫非他物。默識方知契道源。
仲尼祇在脚跟下。回也分明向外求。錯見目前如卓爾。到底方知果末由。

示潘山子孝廉

一點靈光無老少。為凡作聖總由渠。還觀不被情塵蔽。徹地通天本自如。

示潘中子茂才

孔門喫緊在求仁。一己能為百病因。了得根塵元是妄。廓然宇宙現全身。

示萬法上人(二首)

萬法元歸一。此一更何歸。踏翻波是水。夜月正光輝。
吾身本無物。何處著禪宗。所以學道人。祇在得心空。

示達理上人(二首)

西方有路不難通。送想歸西莫戀東。念佛常如子憶母。何愁子母不相逢。
向道西方甚易生。祇恐凡心不肯休。歇盡凡心歸正覺。此心便是渡人舟。

送石岐禪人歸省

還鄉本是兒孫事。祖父從來不出門。此回若見親祖父。好把乾坤一口吞。

示寒輝禪人參方

古道參方須具眼。入門辨主貴知音。如今口鼓家家有。行正方知是正人。

示明一禪人

君今學道已多年。一知半解許君說。若要縱橫無礙用。尚須拔去一重楔。到此方知事事如。豈容俗學妄分別。穿衣喫飯只尋常。通天徹地一輪月。

病中示眾

老漢生來性太偏。不肯隨流入世纏。頑性至今猶未化。剛將傲骨掄儒禪。儒重功名真已喪。禪崇機辯行難全。如今垂死更何用。祇將此念報龍天。

臨終偈

末後句親分付。三界內外。無可尋處。
永覺和尚廣錄卷第二十三

詩上

五言古

遊白水山剎

晨起出南郊。征衣冷如鐵。迢迢青松道。冉冉寒雲結。疊嶺每崔嵬。山窮路欲絕。小橋架危壑。思理緣雲策。崎嶇穿翠微。中有法王闕。重門亦窈窕。僧老眉如雪。迎賓解倒屣。軒渠笑相接。石隙取新泉。銅瓶烹雀舌。小樓瞰絕崖。開窓待明月。松風吹凍耳。濤聲未曾歇。問我拈華旨。一字不能說。乞我寫新詩。便似隄頭決。莫道文字禪。恐是甘露滅。

廬陽茆叢

闢土建茅齋。築基尚平實。橫架有三間。東西張兩翼。編茅似剪齊。立柱如箸直。外籬儘空疎。內壁須完密。既無斧鑿痕。也省丹雘飾。開牖任吐吞。設扉謹出入。可以避苦霜。可以避烈日。顯者不肯來。俗士何由集。惟有無事僧。終日長抱膝。或時出門去。手扶一柳栗。或時入門來。雲簑并雨笠。興至且高歌。慵發便偃息。呵呵別有天。廣大真難匹。寄語未歸人。世事何時畢。畢後始歸山。噬臍恐不及。

金仙庵得李青郎茂才書。有懷其人

睡起搔頭坐。窗外雨毛空。客來扣我扉。剝啄聲重重。何家美丈夫。能將雙鯉通。開緘讀再四。大如破寂鐘。飲我薔薇露。拂我楊柳風。羨君自甘貧。清癯若瘦筇。靈龜終不舍。矯矯雪中松。作詩尚奇險。李賀與盧仝。時來白雲裏。往復探禪宗。嗟彼東家郎。墨綬亦彤弓。指顧生風雨。掀鬚每自雄。朝昏登壘斷。逐逐市中庸。鄙哉良自賤。玉骨孰如公。坐久篆灰白。日暮篝燈紅。懷人偶成句。芭蕉夜雨中。

寓秀水楞嚴寺。聞復創之緣。賦以志慨

昔人註經地。巨剎鎮市廛。歲久漸傾圮。化為金谷園。名葩每競艷。寶媛亦爭妍。引白消長晝。呼盧雜管絃。堂堂亞聖士。來訪舊楞嚴。觸日成長噫。悲驚夜不眠。會有青雲客。彩仗拂雲煙。肯將披誥手。轉作扣關拳。共思復侵地。結構紹前緣。遣以金剛燄。灑以清冷泉。俄然成寶剎。恍如釋梵天。畫棟燦碧瓦。金殿垂珠簾。梵唄喧春晝。沉雲靄暮筵。大將臨濟喝。顯發碌磚禪。仍鏤貝葉書。薄海頗爭傳。猗歟亦盛矣。庭燎難久炎。大士既西逝。遺像徒儼然。虛堂青兩眸。繼者有誰賢。我來遭病困。偃臥久留淹。時從長者後。往復考陳鮮。因思否與泰。反掌亦可憐。世局每如此。鐵石何能堅。坐久意忘寐。秋月轉前簷。

城南路

芳草城南路。迢迢來上都。古槐夾道綠。好鳥仍相呼。願言寄遊子。君行莫躊躇。踐此車馬道。避彼荊棘途。徘徊岐路側。問君欲何徂。嗟哉千里錯。乃在發足初。所以君子學。擇術當慎圖。

答清漳劉漁仲戴平子來山見贈

運當劫火後。祖庭久荒蕪。賴有布金客。重構釋氏居。湧泉猶潺湲。白雲尚卷舒。靈源流未竭。喝水聲非無。昔人頗神怪。萬指繞圓蒲。不跨石門句。古今寧有殊。我來繼其席。跛鼈出通途。敢迫逐電驥。聚觀盡軒渠。胡為枉賢達。松際來高車。甘避文石陞。邀入煙霞廬。山童共喜躍。好鳥競歡呼。白龍亦不禁。灑雨洗塵塗。揮毫走龍蛇。璨璨皆玉珠。遺響落千巖。流光燭九衢。促席論底事。何禪亦何儒。識得達摩意。方知孔聖書。陶然忘喧寂。松月照窓虛。山空澹雲影。幽香入庭除。慚予坐枯槁。兀兀長守株。徒虛匠石顧。山頭一老樗。

往玄沙埽祖塔

日午出松關。崎嶇下碧巒。天風吹我衣。飄搖巖岫端。江光遠亦近。山雲去復還。綠疇何渺茫。草徑幾盤桓。灑灑冶城東。悵望飛來山。日暮抵其下。頗思行路難。金剎久已頽。石塔亦半殘。有僧能弔古。重構荒坵間。我來訪故事。主賓乃盡歡。拈香古塔前。葉落秋煙寒。分明說法音。至今尚未闌。

登昇山有感

迴然天外峯。望之青且碧。石磴穿雲過。松門草未闢。仙人不可招。丹井沙填積。禪翁去不回。塔倒封蘿薜。物化本如斯。朝來何保夕。有僧作身謀。抵死志不易。為己營方墳。敢移祖塔石。不知身死後。斯墳有誰惜。日落吹晚風。寒蛩聲嘖嘖。

登鼓山大頂

登峰須造極。斯言聞之古。屢欲緣雲上。志靡輒自阻。今晨決策往。力羸憑杖拄。崎嶇達彼巔。萬峯皆下俯。五虎不敢渡。伏在江之滸。依微見諸城。澹煙鎖平楚。諸山到海盡。漾蕩去何所。極目蒼茫中。夷島若可數。晚風起天末。逢逢發石鼓。劃然一嘯歸。響落千巖塢。

祝聞大師七十壽

大道久沉晦。崛起稱雲棲。高蹤迴難企。惟師克嗣之。法雲垂鬢鬣。大地徧流滋。我閩尤多幸。勞謙錫三移。振衣劣崩巔。一笑羣山低。空谷駭登音。陰崖仰朝晞。惟願長住世。寶掌恒挈提。雪眉連鶴髮。海國共瞻依。

贈僧養母

孝道名為戒。作佛權輿茲。亦曰至道法。佛諭非一辭。出家雖離俗。必報父母慈。豈為墮愛網。至性不可遺。作堂名養母。黃梅百世師。行脚擔母去。孝行良可追。嗟彼裨販者。逃釋潤其私。痛哉非佛意。何恠世共訾。上人徧參竟。不能忘所思。拽杖歸故里。為母營山茨。堂堂賢相國。乃為手一揮。春生楊柳陌。月挂珊瑚枝。我來聞及此。不覺為開頤。但願汝母壽。法喜長僖僖。

答黃麗甫文學用來韻

桐城古名區。毓材多奇逸。歐陽崛起後。譽髦迭相迫。君世簪纓胄。英名早能識。堂堂大詞宗。惟君繼其迹。如日奪眾明。獨懸天中碧。問業鏡山下。道價高斗北。探奇吳越間。時混野衲錫。到處發天籟。幽寂喜重闢。珠玉燦千巖。山神護寶畫。下視佔畢流。呖然同戲劇。遊倦賦歸來。春光已收畢。寄傲紫雲房。染翰蓮華宅。時有五色光。直向寒空射。南面擁萬卷。足立千秋績。山僧來紫雲。孤負一短策。安得從君遊。揮灑千丈壁。

題道士松巖圖

貞姿自孤特。況乃生巖扃。巖扃抱石乳。貞姿懷茯苓。所以松下人。獨誦黃庭經。清陰傲白石。野潤含清冥。奈何世上客。苦欲腰紅鞵。

題用拙齋

青山有神姿。白玉足清弄。高人息世鞅。田父好懷共。晁生未上書。意氣不可控。柳子既一揮。乃欲托愁諷。簷蛛布晴網。野繭作春甕。物化固何如。勿語癡人夢。

山中有感

春山橫翠嵐。春水漾新綠。落花不肯住。流出前溪曲。道人自何來。欲借白雲宿。白雲非可依。聊爾避塵俗。春墾半畝畦。秋收一擔粟。每挑野菜根。和作纓絡粥。一飽更何求。高臥林下屋。睡起出門去。更栽兩行竹。聞說東家郎。趨金如趨鹿。金盡橐還空。妻嫌子罵辱。一拙守有餘。百巧營不足。寄語東家郎。何如多種穀。

懷智者慧約國師

我來智者鄉。披荊考陳迹。不見本生碑。婺山空自碧。青草迷荒烟。躊躇長嘆惜。獨龍鏟幽光。人事千載隔。尚遺智者名。迨今如雷霹。安得起斯人。重與探玄蹟。澡瓶大幾何。那堪容七尺。寄語措大流。切莫空思索。譬彼北辰高。誰能將手摘。

懷博大士

悵望雲黃山。飄渺白雲裏。一搭迥千秋。去天纔尺咫。憶昔善慧翁。道冠亦儒履。謁帝入承明。據榻獨抗禮。揮案說全經。虛空若為擬。甘露每夜泫。天仙頻來止。寺廢足寒煙。棟橈陸亦圯。誰為魯靈光。巋然雙樹底。

七旬[言*(廷-王+旦)]日

行年今七十。眼暗齒亦疎。躑躅難舉步。風雪滿頭顱。閱世良已久。杌夢歷居諸。千古止一念。滄桑不用歎。十界同影事。鏡體本

皆無。菩提尚非實。況彼俗之餘。百慮俱消盡。閒披古佛書。夜深獨隱几。明月滿庭除。

贈潘士閣居士四十誕辰

潘君少好學。弱冠蜚英聲。搦管風雲起。步趨近古人。中歲能好道。遁跡秦溪潯。陶然仁智樂。永謝蝸角名。詩文自娛悅。語語見幽貞。恍惚晉處士。五柳揚風清。今年當強仕。懸弧節載臨。鄙句聊相贈。瓦礫作黃金。

送沈君耀居士還潭邑

沈君故人子。千里來石門。憐予老且病。依依問寒溫。因之詢舊交。屈指幾能存。嗟哉予獨後。朽廢何足論。今晨別我去。雲白紛前村。丁寧不再三。但道欲無言。

因跌臥病(十首)

一足躓而仆。四體竝為殃。僵臥不能起。動靜俱失常。況當三伏日。如居火聚傍。流汗每浹背。揮扇未暫忘。皆由幻身起。幻起還自傷。須知不幻者。安坐無為鄉。偶因一步錯。遂成無盡憂。展轉枕席間。痛苦未曾休。思彼世路險。寸寸有戈矛。一念稍失謹。禍起更誰尤。所以君子學。頃刻宜慎修。素履欲無咎。端不在他求。病來已週月。瞑眩藥弗離。志已不帥氣。寸步豈能移。暑威今謝職。金風動桂枝。漸入清涼境。恍如無病時。且喜無客至。默然得自怡。不似維摩詰。雄辯四筵馳。病後更添病。皮骨僅連立。惟有鼻孔高。依然還似昔。西風透被來。亂蛩鳴四壁。時序任推遷。何日是好日。更有人請法。指曲喚作直。不是強欺君。為君說真實。偃臥經三朔。寒露浥芭蕉。日月如丸跳。肌膚已半消。牀前初學步。扶翼行幾朝。一室方丈餘。猶若百里遙。時近九日節。遊客興偏豪。病僧無足力。豈敢望登高。枕上四閱月。回觀祇片時。痛苦雖少息。步趨尚弗宜。經書久已廢。筆墨未曾辭。客來索偈言。信筆頗不疑。有風欺病體。却自不能支。擁毳守鷄骨。聊以待歸期。奄奄百餘日。每自嘆居諸。堅冰今已至。辛楚未全除。饘粥既少進。營衛且日枯。醫術已告困。奏效良亦疎。拄杖尚無力。猶倩侍

僧扶。甚矣吾衰也。徒抱此殘軀。
寂寥守一室。陰雨倍生寒。堦前梅影瘦。籬下菊英殘。厥疾未曾
瘳。展轉猶痛酸。年衰力亦弱。計日詎能安。但觀萬象始。冥然得
自寬。病與不病者。總是太無端。
十月今既望。竹影靜橫窓。夜深蓮漏永。寒生席上霜。擁衾不成
寐。自省還自傷。受生三有中。業繫未能亡。病久難勿藥。恐成跛
脚殃。因思雲門老。說法亦何妨。
余年七十四。數載縈疾苦。況經此一交。五月未出戶。茲動律管
灰。雲廓日當午。扶翼出堂前。勉行十數武。望見屋前山。山容翠
而紫。松頭老鶴歸。臨風勢欲舞。

懷鄭所南(有序)

所南氏宋末一布衣耳。宋亡孤憤不已。齋志而沒。嘗作心史一
書。用鐵為函。沉蘇州承天寺井中。至崇禎戊寅。其書始出。予
讀之。悵然有懷。
世局如秤子。頃刻變每新。反覆絕無定。豈論君與臣。何如鄭處
士。堅作宋遺民。未沾升斗祿。秉志自忠貞。鐵函裹心史。語語泣
鬼神。畫蘭不畫坡。此意良獨深。直輕呂望富。甘作伯夷貧。縱有
堯舜出。傲骨亦難平。壯志雖未酬。抵死惟一心。斷斷不可轉。豈
貪後世名。挑燈讀君書。掩卷為長吟。安得借清風。披拂世間人。

懷夢觀禪師(有序)

夢觀泉人也。為開元佛果之嗣。其學瞻博。其文典雅。性狷介寡
合。有司辟主承天。辭弗就。所著有開士傳夢觀集二書。余寓開
元時訪得之。首所服膺。蓋有道之士也。自元以至今日。少有能
匹其休者。法門下衰。殊可深慨。故私心於夢觀。獨向往之切
云。
泉南稱佛國。名衲多雀起。夢觀最後出。世能知者幾。積學有淵
源。著作追前軌。秉操甚堅貞。辭檄甘自否。一室大如斗。深臥紫
雲裏。四壁盡蕭然。圖書却盈几。昔賢不可見。得之在故紙。閩粵
三百年。誰能嗣其美。時睇彼遺編。淵哉難測底。悠然有遠懷。綉
綉不能已。

破屋歌

我有數間屋。祖父遺來久。登樓可作賦。對月堪呼酒。衣冠襲漢唐。几席對窓牖。焚香每獨坐。論文常會友。只為歷年多。其如朽蠹何。父雖言修緝。予惟宴逸過。一夜陰雲集。風暴雨滂沱。墻屋盡崩圯。佳麗頓消磨。男女遁空谷。孤露無止宿。六藉淪淤泥。何論麻與菽。野狐跨灶行。山鬼傍垣哭。依依不改顏。獨有東籬菊。我生本多迍。惟言學避人。於今無可避。孤立一窮身。回思祖父事。日暮不勝情。嗚呼發長慨。風寒天地冥。

七言古

讀紫栢老人集有感

古道無人久寂寥。祖庭積雪欲齊腰。陰崖白日山鬼嘯。荒草寒煙狐兔驕。平人無限遭魔魅。牽入荊榛不可招。紫栢老人心血熱。揚聲大叫魂欲銷。君不見。包胥泣血灑秦庭。秦穆君臣亦淚傾。無衣賦罷鳴刁斗。揮回楚日垂休聲。又不見。諸葛出師不顧身。鬼神號泣蛟龍吟。成敗何嘗敢逆覩。揚義祁山賊膽驚。復楚延漢雖不同。大義均如貫日虹。丁茲叢林秋晚日。老人激烈如二公。俗士徒知保身重。謾爾譏為亢位龍。進而不退良有以。鞠躬盡瘁漢之忠。挑燈夜讀老人書。志弘大法早捐軀。一片苦心如赤日。金光曦赫天東衢。嗟我守株徒自困。慧命如絲勢日孤。安得妖氛頓廓落。坐令此日見唐虞。

袁水部乘遊招住壺山。前住持印山師願充修造。賦此以壯其行

憶昔壺山化盛日。飛簷走棟逼天衢。撾鼓升堂臨萬指。激電轟雷每自如。入明寥落幾殘僧。種禾博飯守居諸。豈知祝融猶作妬。傑剎化去成蝸廬。墻頭亂草挂蘿衣。堦前苜蓿滿庭除。古殿已荒餘舊砌。伐鼓考鐘事久虛。袁公好道出天姓。金湯大法如惜珠。每憂壺山不能寐。晨興遺我八行書。嗟嗟跛鼈出頭來。笑殺南泉陸大夫。雖無廣廈藏龍象。猶存餘地放圓蒲。休怪屋窄難容膝。翻憶古人樹下居。佛法不在棟隆吉。插草建剎知也無。君今何苦思營構。只緣日夜痛前模。按下雲頭效乞士。豈為能安七尺軀。前途日暖江山麗。到處春深長柳榆。一條榔栗隨身去。好向人間問給孤。

謝曹能始憲長來山見贈

石鼓嶙峋障海東。層巒面面金芙蓉。摩崖刻石首朱趙。神光夜夜燭寒空。古來遊者如有幾。多蝕蒼煙碧蘚中。始知名節貴自立。假石何能示不窮。曹公繼起廟廊姿。歸來兩袖拂清風。八斗才高未曾試。簡編聊寄補天功。宦情久付滄江外。喜同野衲探禪宗。重布黃金開石鼓。天上移來梵釋宮。我乘業風吹到此。通霄一路寡相逢。又見祖機化魔令。陰崖白日鬼橫蹤。狂瀾莫挽東趨勢。熱血幾欲噴玄穹。大法垂秋僅一綫。赫赫金湯賴有公。趨閒便駕籃輿至。扶筇踏破白雲封。藻思綺句誇七步。筆光墨怪搖千峰。盟心直下菩提種。力扶寶炬祛朦朧。愧我難搏轉運日。却羨子韶神臂弓。

與清漳何平子茂才

聖主羅賢心最熱。撐天拄地須豪傑。近日經生估畢流。十用看來九敗裂。先生崛起丹霞城。八斗才高氣橫絕。治安書策似賈生。言言淚灑英雄血。特疏禹貢翼前賢。山經水緯詳分說。奇偉分明希世珍。董賈如今非兩舌。北塞天驕尚未降。中原弄兵猶未滅。願君休臥南山廬。快著祖鞭應時節。

潭陽瀛洲橋成。丁生來索詩。頌沈侯德

潭上之山丹且嶂。潭中之水深更涵。靈光秀爽萃瀛洲。今古英賢多傑出。昔有橋東江處士。解道人家藹秋色。晦翁杯酒餞季通。步吟橋上成勝集。怒濤劫去幾經年。往蹟難追我心惻。渡頭客立暗魄銷。浪急湍高風雨泣。共喜陽春今有脚。仁風飴蕩滋育息。百里熙熙化雨中。口碑載道頌侯德。戴仁揚義有丁君。長虹臥波不借力。捐金半萬未為難。驅石運材成不日。君不見。端明海上駕石梁。靡金十倍出非一。閩南燕北共爭傳。盡道神功非人及。何如沈侯不下令。坐看功成萬民逸。

祝支提樵雲老師八十壽

支提屹立東海隅。重巒疊嶂擁禪居。天冠聖蹟邈莫測。仙人遺竈在丘墟。中有高僧頭似雪。辟支巖下抱瑾瑜。恰如水壺濯桂魄。亦如火聚現芙蕖。行年八十猶矍鑠。飲澗眠雲每自如。願師住世同寶掌。長為明炬照昏衢。

贈鷲峰上人書華嚴涅槃二經

菩提場內法雷喧。七處幻出妙莊嚴。最後雙林垂顧命。四德巨浸渺無邊。上人運腕依誰力。一毫吐出無後先。謾言海墨書不盡。點點畫畫箇中圓。我來焚香為披讀。筆光墨怪搖蒼天。譬如獅子用全力。古鏡重重頓現前。我覺身入毗盧境。法界交羅常湛然。亦覺身泛涅槃海。滴滴醞醐眾味全。掩卷與君暫借問。何如一畫未生焉。穎翁高臥芸窓下。壁角燈籠笑欲顛。

題般若庵。兼壽主人

秋江三浙何潏然。浪勢如山欲拍天。江干有庵大如斗。柴門長閉封雲煙。繞逕修篁垂露淨。金經四壁勒珉璠。中有穆然雙乞士。阿兄阿弟難後先。阿兄韻古不染俗。獨坐空床究碌磚。阿弟今年六甲週。心素何妨入市廛。我欲掇出須彌盧。為君更祝無量年。自笑虛空祝不得。聊秉毛錐述短篇。

饑饉行

去年河伯大為災。青秧蕩盡田如海。蝗虫繼起勢遮天。掠地傷苗數千里。涕泣號呼不暫停。祀天禱鬼終莫已。更加春雪大如拳。半月霏霏不肯止。流離無地可容身。溝壑殭屍數難紀。鬻妻賣子強支持。又質自身充下使。麩糠泥土是家常。草根樹皮亦稱美。弱者捨命入鬼鄉。強者攘奪各蜂起。南北叢席盡凝塵。檀那不至將誰倚。鐵板雖挂舊堂前。托鉢空回烹白水。僧徒鳥散無可棲。暫見朝遷暮又徙。綠林豪客甚縱橫。住山行脚俱難[米*文]。君不見。海住城中優婆夷。小器兩寶濟貧餒。又不見雙林大士誓燒身。欲救眾災甘自毀。愧我於茲兩不能。未審將何來救彼。但願秋成大有年。淑氣頓開天地否。

福城嘆

福城圍久。饑饉與疾病交急。為作此嘆。
嗚呼。福城苦最堪悲。無限深殃集此時。兵圍十月猶未解。人家十萬總難支。三災竝起天弗厭。尸首盈城數莫知。見說昔賢曾有讖。三山流血可成池。果腹遍尋池上草。溝中割肉亦療饑。人既相食同禽獸。市中有虎語非欺。幾見朱門路行乞。妻兒一旦任披離。只為殘生難自保。門風掃地有誰嗤。無諸建國稱福地。到此如何禍更奇。假使生民俱喪盡。猶恐空城亦禍基。嗚呼。福城苦最堪悲。

僧兵嘆

元季泉州亂。肉食者鄙毆僧為兵。夢觀禪師為作僧兵嘆。今日之僧。不待毆而為兵者夥矣。此法滅之相也。乃繼夢觀而有作。覺皇制律首禁殺。徒畜殺具猶見訶。古傳生草不敢拔。況復從戎屠戮多。搖頭掉臂出蘭若。日思爭戰類修羅。袈裟直付東流水。身披鎧甲肩荷戈。羞說威儀推馬勝。自誇暴虎與馮河。半點全無忠義膽。只為癡貪起禍囚。刀山劍樹眼前現。白骨徧橫衰草坡。況復三途櫻劇苦。千生百劫若為過。嗟哉嗟哉胡不悟。自暴恰似赴燈蛾。晨起摩頭須自省。覺皇苦口奈君何。

送淨和師歸舊隱

近日禪和多似粟。逢人箇箇阿漉漉。盡言生死不相干。藕絲絆倒如禽犢。吾師參得博山禪。半生甘伴白雲宿。不將半點掛人間。恬然穩坐三間屋。一條拄杖入深雲。千尋寒木藏幽谷。豈比諸方垢膩禪。紅塵堆裏苦馳逐。今夏重來石鼓山。做予不啻再三告。清晨別我還故居。屹屹孤風良絕俗。末法如君有幾人。頓令千載仰芳躅。

送卓庵禪師歸壽昌

黃龍峯下金繩界。西竺重遊立梵宮。一朝火燄來說法。蕩然當下現元空。得君任此良不易。剛骨擎天復舊蹤。却似女媧能煉石。而今果有補天功。先師窳堵元無縫。無影樹下好相逢。何時更起凌霄勢。屹然長鎮石溪東。君今辭我出石門。草鞋踏破白雲封。願言步步須仔細。好把鉏頭振祖風。

送本立上座歸潭陽

老僧行年七十五。業重猶司鼓山鼓。未得安然正首丘。潦倒連年縈疾苦。君來問疾良亦難。孤槎歷盡幾青灘。撥雲直上通霄路。海天霜雪正嚴寒。喜晤榻前相對語。恍如隔世重相與。歷問故交得幾人。多少英賢埋下土。我今脫白四十年。藏身祇在伏羲前。生平所學拋東海。一條榔栗白雲邊。隨風鼓舌如雲雨。瞿曇秘密今全吐。一千五百幾能聞。婆心瀝盡終無補。仲尼昔日欲無言。默識方能契本源。莫道鼓山塵韻絕。從來別是一乾坤。君今年已六十四。登山豈作等閒戲。彼此老大似殘陽。後日相逢能幾次。今晨辭我出石門。桃李蹊邊春鳥喧。丁寧須記臨行句。適燕切莫駕南轅。

輓林得山兵憲

憶昔相逢劍水濱。乍瞻芝宇如天人。慷慨披襟譚國事。卓哉意氣壓羣英。首將石鼓相付囑。訂交泉石廿餘春。山門倚重若城塹。再造論功莫與京。舊年勉以末後事。尋常茶飯不堪陳。報言自有通霄路。英靈豈肯等凡倫。近日忽聞易簀信。通霄路上果先行。孑立空山徒悵望。願言莫失舊時盟。

輓鄭漢奉司空

憶昔祝釐趨建水。淨慈菴上始逢公。從此納交近十載。往來不憚登龍從。虛襟厚德不常有。榮名峻秩視如空。諦信斯道更不疑。宿緣想在般若中。昔日楊李及蘇黃。法喜之樂垂休蹤。至今六百有餘白。唯公尚有古人風。今歲臘月天愈寒。雪花如掌舞穹窿。干霄喬木忽摧折。黃童白叟俱失容。嗟哉死生固大矣。不生不死亦須窮。等閑揣出虛空骨。拍手高歌天外峰。

五言律

登聖泉岩

山高俗自遠。林幽境乃偏。垂籐棲倦鳥。怪石濺寒泉。徑曲穿雲度。亭空待月懸。我來日正暮。披露晚風前。

山中聞邊警(二首)

羽檄連年至。天驕迫漢疆。骨枯塞草白。血濺陣雲黃。未見請纓壯。誰為借筴良。銷兵是何日。令我憶馮唐。見說天王怒。千軍出漢京。曉霜嚴楚劍。夜雨洗天兵。邊耀止戈武。天懸日月明。單于應膽落。指日塞煙清。

寓蓮臺山

青蓮開淨域。半榻借同棲。枕上濤聲急。窓中樹色迷。閒來披梵典。睡起覺鶯啼。晚向沙頭坐。風清虎渡溪。

春日同諸子。遊雲際山

孤塔迴雲際。下有摩尼宮。路古苔長密。庭幽翠欲籠。松枝挂海日。竹影弄江風。汲得岩前水。烹茶論苦空。

西圃

橋西管小圃。圃內半為塘。靜覺魚遊樂。閒看蝶過忙。摘葵帶曉露。種菊傲秋霜。學圃雖云鄙。鄙中滋味長。

謁白雲約禪師塔

雲山最深處。樹古競參天。塔廢尚餘壘。碑殘更帶煙。傳心懸白日。說法倩鳴蟬。莫道師無語。雷音震大千。

山居(四首)

獨喜重巒峻。卜居在上方。雲深埋小屋。樹密護低牆。叢桂堪招隱。幽蘭每自芳。回思前日事。深似失頭狂。百年生計少。家破只甘貧。旅泊半間屋。漚花七尺身。架頭堆亂帙。几上足浮塵。獨倚寒岩臥。枯槎不管春。一塢白雲深。幽居愜野心。繡經每獨嘯。對月喜長吟。種竹開苔徑。栽松益翠岑。因嗟塵俗客。誰似暮歸禽。生無適俗韻。柄鑿誰與宜。迂只從他笑。狂尤愧自知。雲間頻撿藥。月下細敲詩。且學龜藏六。臨風自解頤。

小塘

窓前閒半畝。開作小方塘。雲過暫留影。月來時有光。灌花春借色。洗硯墨流香。唯有塘中水。澹然却自忘。

過寶山菴。逢友人話舊

觀方來故里。繾綣舊遊蹤。門內驚新主。堦前識老松。古道誰人問。知交汝獨逢。共談今昔事。笑破白雲封。

辛未秋日。寓清修寺。刻弘釋錄

挂錫古禪房。秋風冷竹牀。照懷唯白月。入帳有清霜。慕往愁難繼。傳來慮欲長。喜聞巖上桂。猶發晚秋香。

季夏八日。同本智洞微二師。遊喝水巖。次韻

喝水聲消久。虛名尚有巖。徑危欺峭壁。江渺小孤帆。探洞知源遠。摩題歎蘚緘。攜朋坐磐石。微韻出松杉。

贈空生師修玄沙祖塔。用聞大師韻

生平多遠思。長憶古玄沙。屢斲雲間石。重敷座上花。臺因寒葉點。影為夕陽斜。疑是釣魚客。來弘舊日家。

題玄沙院

暮入獅峰下。隔林響梵鐘。涼煙迷白塔。寒露冷青松。舊礎藏荒草。新椽傍古榕。雷音今已寂。徒爾弔前蹤。

和聞大師登昇山掃祖塔

孤峰橫按杖。眼小無諸城。雲幻將千態。江流止一泓。蘿深籠塔暗。煙細惹衣輕。為訪先朝蹟。呼童剪棘荆。

秋日搗謙居士。來山索賦

劣巖峰前立。海天何渺茫。斷煙迷遠樹。秋水澹斜陽。植杖聽泉落。倚巖聞桂香。憑高無限意。一笑白雲傍。

答魏具瞻遊鼓山。次韻

雨後山容淨。春深翠色新。登峰小溟渤。倚杖對[山*層]嶙。觀化嗟前蹟。安禪洗世塵。莫言徒邂逅。蓮社有前因。

題開元寺(寺古有桑樹白蓮。石柱牡丹庭前瑞草。紫雲蓋頂等瑞)

佛國名傳久。桑蓮獨擅聲。異葩根礎發。瑞草覆庭生。殿古藏雲紫。壇虛映日明。我來問陳蹟。金鐸向空鳴。

其二(寺有神僧。稱袒膊和尚挑燈道者。又有僧。稱文殊化身。鈔

唯識論)

昔產蓮華地。神僧每托栖。袒膊援羣溺。挑燈醒世迷。廊長旋日永。塔聳切雲齊。鈔論人何在。堂虛鳥自啼。

其三(寺有甘露戒壇。照律師所建。有井味如甘露。故名。戒環禪師著法華要解等書)

古賢能秉律。壇構幾經年。久沒凡塵暗。重開瑞色鮮。飛花常入座。甘露海流泉。安得環與照。垂光映大千。

其四(洪武間。帝命潔菴來住持。及引見曰。汝但清心潔己。自然眾服。故立清心潔己堂)

甘守白雲隈。春風吹幾回。祇因曾下種。故此却重來。石鼎生新燄。天華點舊苔。遙思潔己訓。帝語尚如雷。

遊彌陀巖。歷巢雲山房。晚抵大道巖賦

百折捫蘿上。凌霄一徑懸。蔦陰抽石笋。崖斷挂龍泉。磬落從天際。花飛點洞前。晚來歸寶所。一笑白雲邊。

南臺

節彼南山石。春深翠色濃。壁高欺日少。徑窄與天通。城郭兩煙裏。樓臺樹影中。莫言大似斗。萬里入簾櫳。

題片瓦巖 (二首 其形如龜故。又名六眸洞)

中峰懸小徑。虛窅洞長幽。片瓦含金剝。千秋負範疇。天風穿石吼。海浪拍空流。安得常來此。同君老一丘。為避城中暑。來遊小洞天。石樓侵翠色。松榻護嵐煙。煮茗待新月。敲詩入舊絃。沙彌不解事。猶問老僧禪。

宿薛際可居士風木堂

為尋碧石勝。來宿薛君房。徑僻穿松影。林幽散荔香。煙雲籠舊壁。風木慘虛堂。夜坐空山寂。鐘聲出上方。

宿龍山寺

挂錫龍山寺。堂虛半是雲。風從海上至。月向樹頭分。山鳥隔林
轉。潮聲入夜聞。坐來清不寐。更把片香焚。

遊紫雲室。和何鏡山先生韻(二首)

搔頭青嶂上。宴坐紫雲間。海岸孤城迴。松門野客閒。幽禽啼晚
樹。白鹿臥空山。浩浩煙波渺。遙看一鶴還。
一望將千里。茲山許獨尊。海風吹我袖。山翠擁僧門。欲學藏身
法。先須嚙菜根。叮嚀二三子。休逐利名繁。

題古拙上人靜室

塵外一區宅。居中別有天。槐陰垂徑僻。草色入簾鮮。室隘却如
斗。牆高僅及肩。食貧雖有日。飲啄且隨緣。

題彌天上人園居

東園聊息影。境僻草尤深。屋破憑雲度。牆低喜月臨。採蔬時帶
露。種樹為棲禽。莫道園居陋。悠然契宿心。

歸鼓山。寄答傅幼心諫垣。用來韻

一錫淹留久。言旋傍鶴飛。秋河影自澹。古路翠還微。彭澤方耽
飲。東林孰付衣。入門成一笑。恰似野雲歸。

過巖灘

晚山依落照。春水漾微瀾。雲淨江天澹。厓高石壁寒。披茸探往
蹟。倚櫂問前灘。多少英雄客。輸君一釣竿。

除夕(四首)

相彼苕溪水。何曾問歲年。祇為浮生幻。難同劫石堅。爆聲催去
臘。爐篆燼殘煙。瞻顧東方色。依稀近曉天。
安禪難論歲。老業貴知時。豈為辭窮鬼。非關祭舊詩。年華同燭
盡。老態逐更移。因憶北禪老。捫心暗自咨。

長年多自適。今夜却心驚。爐內紅將燼。枝頭白欲生。韶光迅易滅。壯志遠難成。休待鷄窓曙。願同鳥道行。梅花情欲盡。柳眼意將青。爆竹震寒寂。松燎破夜冥。百年渾是醉。此夕幾能醒。却愛凌霜栢。森森列一庭。

題香象菴

林幽積霧深。香象伏層岑。雲至巖生白。風來竹亦吟。然松烹石髓。對月話禪心。時聽東岡上。丁丁太古音。

登石盂山

崎嶇登鳥道。飛練[泳-永+剪]田衣。古洞藏雲密。深筠積翠微。主賢客屐集。山迥俗塵稀。晚眺小樓上。遙天鶴正歸。

寓娑羅塢(二首)

深翠掩重巒。澹煙籠僻塢。挂天白練寒。布地黃雲普。怪石裹苔衣。空堦垂竹雨。悵望夕炤中。孤塔渺誰主。遯跡山宜峻。依雲立數椽。鶉衣侵翠雨。箬笠飽嵐煙。蘿月穿簾冷。松風弄影偏。夜來清不寐。獨對一燈懸。

過等巖。為冲如上人賦

選得昔賢地。重營大士宮。嵐煙侵几席。牛斗宿簾櫳。海[澗-日+活]涵孤月。山窮跨臥虹。蓬萊疑不遠。惚恍白雲中。

秋日過邵練要居士山齋(二首)

鼓巘多奇麗。茲丘最賞心。江帆時入座。石笋自成林。礪險鳴寒玉。山幽噪暮禽。迥超塵世外。況又值秋深。異境驚初闢。山僧愧始遊。雲根露鳥背。石髓[泳-永+剪]松頭。葉落峰逾瘦。嵐深澗轉幽。西風颯颯至。猶喜暮煙收。

祝洞白師六十初度

臘高登耳順。身隱望彌彰。松偃寒崖蓋。梅飄晚節香。昂藏僧貌古。噓呬德風翔。欲滿閻浮願。何妨鶴髮長。

初夏苦雨

一陰方盡。赤帝令初行。鬢鬣雲猶密。淋漓澤久傾。子規難叫月。布穀懶催耕。擁毳忍寒坐。何時見日明。

清明日掃祖塔(二首)

春晴風正暖。好鳥囀芳林。塔上松雲密。堦前花雨深。瓣香先聖脈。杯茗後人心。因憶昔時事。如聞說法音。昔賢去已久。窳堵徒嵯峨。夜有虎狼宿。晝惟樵牧過。霜嚴石卵爆。雨漬苔衣多。三遶空惆悵。其如長臥何。

霜降

秋晚寒威迫。堦前草欲枯。林疎風掃葉。月落樹啼烏。荒塢蟬聲寂。寒塘雁影孤。堅冰雖未至。霜已遍長蘆。

咏魚鼓(二首)

禪門多閨寂。藉爾發聲洪。何用臨淵羨。可從緣木逢。無情還善應。不動自圓通。因甚能如此。全由肚裏空。成象非天育。掄材取鄧林。披鱗未涉水。流韻出無心。權秉師僧令。能和梵唄音。祇同鐘磬侶。漁父豈相侵。

秋興(四首)

秋深氣日肅。野衲恰相宜。不作悲秋賦。惟吟采菊詩。金風辭落葉。玉露浥寒枝。自有翛然趣。傍人恐未知。悄然坐荒塢。風清況益清。茶煙迷竹色。梵韻雜蛩聲。樹古足蟬噪。簾虛掛月明。更闌發深省。孤鶴嶺頭鳴。涼風起天末。曳杖數峰西。江靜蘆花曙。塘空雁影低。寒雲閉幽谷。衰草覆前蹊。一嘯歸來後。松頭練色迷。睡起庭前立。悠然忘寂寥。氣清天宇廓。境遠客情消。巖桂晚香淨。江楓醉葉飄。白猿來覓果。嘯月正中宵。

步林茂卿居士登鼓山韻

通霄無鎖鑰。五里盡松陰。石險苔猶滑。山空客亦臨。鶴飛凌漢遠。猿嘯入林深。喝水聲難繼。誰傳太古音。

中秋夕。全鄭漢奉司空。林得山農部。步月石門。因坐水雲亭

碧天淨如洗。乘興探靈源。步月穿松影。緣崖入石門。蟬聲來遠樹。漁火辨孤村。因坐鳳坡上。誰知秋露繁。

行

日照山容淨。舉杖陟崔嵬。徘徊秋草徑。微風拂面來。喜逐閒雲去。還同野鶴回。往來有何事。踏破舊蒼苔。

住

往來蒼嶺上。駐足碧岩頭。白雲觸衣冷。兼之風颼颼。遠村山外見。長江脚底流。近觀山蟻鬪。貪嗔未肯休。

坐

境閒雲寂寂。簾捲月明初。未識達摩意。面壁結雙趺。蒙頭惟破衲。席地用圓蒲。檻外天花雨。空生知也無。

臥

山深蓮漏永。一室風悄然。繩床方七尺。曲肱伴雲眠。有無渾不計。凡聖亦都捐。莫謂全無物。孤明一鏡懸。
永覺和尚廣錄卷第二十四

詩中

七言律

舟中望武夷

琢成紫玉逼蒼穹。下映青溪漾蕩中。迷蘚荒壇寒夜月。倚雲舊館冷秋風。洞遺仙蛻靈何在。巖鎖虹橋路孰通。休道仙舟藏壑穩。負趨歲月轉如蓬。

登黃楊山

幾重翠嶂隔塵埃。野寺嵐深淨綠苔。月到繩床僧正定。煙迷寶樹鶴初回。九霄牛斗窓間宿。萬里川原掌上開。滿眼風光猶似昔。紫陽何事不重來。

山中得家報。寄答諸友

自從一別冷雲居。見說風光不似初。溪上雨添三尺水。家中風落半床書。敝囊已識休深愛。破釜何勞更重歔。不學蹇驢旋磨走。直將大地作蘧廬。

廬陽山中。歲暮積雪。因小僧哦筦山偈為賦之

破衲重縫度歲窮。客囊何獨筦山空。風狂亂折窓前竹。雪重橫摧嶺半松。山鳥盡須春後至。故人多向夢中通。地爐未到全寥寂。楫櫓頻添徹夜紅。

山中得蕭傲韋明府書

建水忽分萍梗蹤。却從尺素得相逢。十年故我難同昔。一片頑心尚未鎔。花滿河陽君富麗。翠籠雙髻我疎慵。自知樗老難為用。甘向空山學種松。

壬戌冬十月。館於沙邑之雙髻峰。遺中陽居士

青嶂重重稱杖藜。煙鬢半露却成詩。雲深儘許藏千拙。樹密何妨借一枝。豪貴懶干因舌短。饑寒甘忍為書癡。人來一任呼牛馬。笑倒毗耶老古錐。

秋日登北山

翠壁嶢嶢鳥道懸。創開金剎逼秋天。千峰帶黛窺簾外。二水移舟送席前。發嘯每從明月下。經行多在白雲邊。夢中歷數漢唐蹟。衰草荒煙正慘然。

書林

羲皇以降幾春秋。文物靈光聚此丘。南北舟車行不盡。古今心眼鑑難周。刀刀刻露英雄骨。帙帙遠傳賢聖愁。惟有老僧無箇字。羲皇未畫問根由。

七石山訪獨詣師

超然寄跡萬峰巔。石磴穿雲鳥道偏。幾片巉巖天半露。數椽草屋壁間懸。掃窓每倩含煙柳。洗鉢常因漱壑泉。日暮凭欄頻倚徙。一聲長嘯月孤圓。

七石山中秋對月。渾朴上人請賦

雲廓千巖秋正清。長空如洗月孤明。朗然久絕懸弓影。閨爾誰聞搗練聲。愧我疎慵無劇興。知君豪爽有深情。莫將七石山頭月。換却娘生兩眼睛。

丁卯仲春居荷山。有感而賦

撥翠巢空建水東。黎峰爽氣入簾櫳。虎饑吼出重雲外。鳥倦飛來落照中。老去始知狂是疾。醒來方覺夢為空。碧蘿層裏無人到。一縷檀煙度澗融。

五十誕日

半生事業盡唐捐。忽爾知非暗自憐。二紀芸窗空映雪。十霜鷄寺祇磨磚。窺言權作止啼葉。弘釋唯搜久蠹編。一片幽心誰可托。蒙頭捲舌度餘年。

秋日過西湖

平湖瀲灩漾扁舟。水上風微拂面柔。三竺疎鐘雲外落。兩隄衰柳鏡中秋。荒臺草長平章恨。古廟嵐深武穆愁。千古悠悠無盡態。等閒都付一浮漚。

戊辰孟秋。往秀水請藏經。還過錢塘。適江潮大漲。客舟盡沒。余舟獨脫於險。喜而志之

海雲鬢鬣浪風顛。驚望江頭正慘然。一刻衝頹千里岸。萬家沉入幾重泉。自安死去渾無地。那料生留別有天。應是寶書龍亦護。片帆載出雨如煙。

己巳孟秋。歸壽昌掃和尚塔。夜坐有感

風帶秋聲透暮林。篆畦香燼暗愁深。空堦雨滴青燈影。虛院雲生白塔陰。慙掩鐵關藏百拙。難磨地墨寫孤心。先師靈骨今猶在。白浪滔天孰肯尋。

妙高峰訪達宇居士

昔年狂疾未曾瘳。十載湖山汗漫遊。歸路敢辭三伏暑。到山正值一林秋。涼風落葉東西徑。明月疎鐘上下樓。珍重故人情若海。依依恰似白雲留。

哭博山和尚

法幢高豎大江西。獨握羣盲剔翳鑿。正喜法雷喧上界。忽驚慧月落前谿。池頭霧暗龍猶泣。嶺上臺空鳳不栖。深痛妖蹤猶滿地。于今誰鼓戰中鼙(山有浴龍池栖鳳嶺)。

山中咏懷

枯抱殘經歲月遷。飽餐野菜任前緣。謾言昔學屠龍技。且喜今參伏虎禪。剪盡松雲放明月。引來石髓注青天。相逢若問山中事。拄杖如龍未許傳。

達宇居士以誕日來鼓山。同遊靈源洞。賦此致祝

海上峇嶢劣崩峰。喜君杖履特相從。誰人喝水蹤尤幻。昔代題名蘚半封。天外青螺分島嶼。眼中白浪起蛟龍。擬將何物堪為壽。千載懸崖甘露松。

謝徐興公居士見訪

見說閩中有鳳毛。君家伯仲擅風騷。慣扶短策穿松翠。橫臥深雲聽海濤。結社擬追陶遠笑。琢詩頓使鬼神號。雲收雨散巖花淨。劣崩峰頭月正高。

夜坐蹴鰲橋。次洞微師韻

出門舉步蹤金鰲。山露霏霏浥敝袍。鯨浪遠翻江上月。天風近鼓樹間濤。巖邊瀉玉泉聲細。橋外穿松石笋高。坐久不知蓮漏下。却乘幽興更揮毫。

一念法師見訪遽別。用韻奉答

垢面蓬頭傍石樓。風翻剎影洞門西。壁間泉湧飛花急。海上雲來掠地低。喜客披榛忘嶮巖。因樵問路入招提。相逢邂逅成知己。別去中宵月滿谿。

山中積雨初霽。鄭汝交二守見訪。用韻奉答

敝衲蒙頭一老翁。空山晏坐雨聲中。洞雲忽破懸朝旭。林鳥爭驕嘯曉風。擇木不妨搏翻下。酬機祇解舉拳通。共看剪盡西窓燭。回首東峰日又紅。

往壽昌掃塔。至建州遇徐興公。用韻奉答

萍蹤無意忽相逢。共聽濤聲幾樹松。舉拂難扶興聖脉。捫心多負壽昌宗。客程煙雨愁中落。師塔苔痕夢裏封。臨發已將歸日約。初秋

同笑白雲峰。

乙亥夏歸壽昌。掃先和尚塔

飄泊零丁經幾年。歸來始識舊田園。深耕淺種憑誰力。薄穫全收任外緣。一片檀雲連塔影。幾莖石茗煮山泉。慚予蕩子貧如洗。欲報師恩祇豎拳。

麥羹坵(有引)

和尚不發化主。日取給於鋤下。歲荒食不足。以麥為羹。率眾開田。田成。眾呼為麥羹坵。乙亥夏歸壽昌。再遊其處。淒然有感。壽昌脊梁硬似鐵。六月開田日如熱。歲荒祇取麥為羹。枵腹揮鋤不肯輟。至今田有麥羹名。山中故老能傳說。禾黍離離屯綠雲。盡是我師汗流血。

歸潭日寓天堂寺。有感

重遊梓里幾經年。謾說谿山尚似前。朋輩殷勤憐故態。兒童驚怪問生緣。柳梢垂露朝含翠。桑影搖風暮帶煙。泡沫光陰全不久。何如共學祖師禪。

歸潭日示諸姪

去家念載今來旋。白髮衰顏敢自憐。故我已知難似昔。物情誰道更如前。長城築怨猶非計。巨石留身豈得堅。世事浮虛休苦慮。好將仁義繼前賢。

山居

青山老去髮長鬆。種樹栽禾學野農。信口詩成多自喜。橫肩杖出少人逢。透窓舒白巖前月。對榻凝青海上峰。頃刻白雲迷遠近。殿頭傳得一聲鐘。

楊復自居士登山見贈。用韻奉答

撥草登山獨探奇。江風松月自成詩。石門路險藤蘿密。另削峰高鳥鵲稀。禮塔遠懷興聖箭。烹茶不用趙州機。雲中握手深談久。轉憶

維摩一嘿時。

聞谷大師放生社。留別和韻(十首)

慈雲靄靄覆芝城。川泳空飛各遂生。默轉殺機扶聖化。廣培仁脉藉經聲。緇袍幾染嵐煙重。寶錫還依鶴影輕。臨發叮嚀無別慮。顧茲魚鳥倍關情。

化風吹滿富沙城。插草江頭勉放生。羅網纔遭腸欲斷。刀砧已近訴無聲。已軀不啻千金重。物命何如一芥輕。惟有吾師悲願切。關山迴隔每含情。

飛錫南來立化城。楞嚴結社護羣生。市中頓鮮腥葷氣。林下時聞梵唄聲。古岸雲籠孤刹寂。寒溪波漾片帆輕。應知潭水深千丈。難比吾師愍物情。

竭來說法徧州城。欲證無生首放生。脫網魚翻前浦浪。出籠鳥囀隔谿聲。巖頭寒月穿蓬冷。江上春風送棹輕。多少飛潛猶入夢。悲心藹藹異凡情。

碧水丹山繞禁城。弘開金刹護旁生。禪扉靜掩籠松翠。寶筏浮遊載梵聲。吞月萍間魚戲樂。衝煙江上鳥飛輕。猶愁釣弋終難息。聊賦詩篇寄別情。

東風披拂遍山城。七里灘頭春水生。澹澹江光搖塔影。微微花雨溼鐘聲。社中香火懷偏重。夢裏飛潛意靡輕。緇素未能留去棹。捧來白雪若為情。

每隨淨侶出重城。結社荒郊共放生。孤塔倒垂寒渚影。暮鐘遠送客舟聲。羽穿樹杪驕人慣。鱗集潭心躍浪輕。師錫驟回深綫綫。滿江風雨悵離情。

建郡渾如舍衛城。人師流水活殘生。寧于食鮮羣腥氣。莫遣庖傳不忍聲。雲裏儘教翻翻遠。江心一任弄波輕。臨岐千里回煙棹。返顧難忘愛物情。

昔曾問道建州城。見說禽魚盡樂生。松下風傳金錫響。蘆邊雲隱木魚聲。永明願重悲猶切。幻住庵居去每輕。一自法舟回浙水。煙波盼斷若為情。

魚鳥歡然育化城。憑師法雨度餘生。贖來幸脫烹煎苦。放去猶聞解脫聲。寶錫頻過悲自重。蘭舟今別意非輕。夜深波漾江頭月。益動悲心護有情。

元宵登尊勝閣

千家燈火暮雲間。海上鰲來共戴山。眼底乾坤終變幻。樓頭烏兔幾回環。管絃處處客長醉。鐘磬聲聲僧獨閒。夜半苦啼歸去好。莫教直待鬢毛斑。

再登尊勝閣用前韻

傑閣崢嶸紫翠間。重來長憶舊溪山。蓮園在昔元尊勝。寶構于今喜復還。簾捲直觀滄海小。窓虛長對白雲閒。滿城第宅渾如錦。鏡裏誰饒兩鬢斑。

遊九日山(山有晉朝松姜相峰秦系註經硯)

層巒疊疊映晴光。雨後春生色正蒼。樹古~~鷹~~雲猶屬晉。峰高入漢亦名姜。幾摩斷碣終難讀。屢問荒垣倍可傷。石硯註經人已去。至今墨蹟尚留香。

過報親寺登飛來閣

小閣飛來古剎東。翠光掩映入簾櫳。荔陰石湧千尋浪。橋外風吹一短篷。雲出金鷄回紫帽。波分玉筍自黃龍。千山秀色渾如黛。江北江南春正濃。

遊清源洞

移來海上小丹丘。紫氣氤氳古洞幽。幾壑翠雲籠怪石。千尋苔壁迸寒流。~~已~~靈拋盡從仙乞。聖蹟難追祇醉休。日暮風悲遊客散。一聲猿嘯碧巖頭。

避暑黃氏山房

暫借山房寄客身。樹高如蓋草如茵。登樓路轉穿危石。煮茗煙微繞密筠。雲度松關涼潑席。月移塔影冷窺人。暑威~~已~~藉天風掃。獨挹清源爽氣新。

遊五峰和羅一峰先生韻

一衲飄然興獨優。穿雲選勝任遨遊。五峰絕處青霄近。大地窮邊滄海浮。片石寒清三伏暑。孤輪夜散百巖秋。憶君素節高如斗。此日

相逢碧嶂頭。

過安平石佛寺

古寺蕭然歲月深。須彌座半蘚苔侵。殘碑橫臥虛亭下。狡兔長居廢殿陰。相好尚存緣是石。陞基頹折孰鋪金。踟躕獨立荒煙裏。愁聽蟬聲噪暮林。

到鼓山。寄答呂天池司農。用來韻

雒陽江上水盈盈。趁得秋風拂杖行。歸去山頭玄露冷。惹來足下紫雲輕。兩期棒喝空中出。一會因緣夢裏成。孰若維摩能示疾。塵中說法語猶清。

翠雲庵(八首)

埋頭結舌度朝昏。草屋三間不掩門。鋤斷青山分石髓。剪開翠竹露雲根。扶藜谷口看歸鶴。抱甕溪邊學灌園。昨夜於菟庵外過。無端踏破舊苔痕。

年衰懶得辨由求。抱拙空山事事幽。岩下負暄深愛日。堦前雜草自知秋。林花一任因風落。菜葉難教逐水流。莫比昔賢藏未密。逢人猶說兩泥牛。

山迴谷密貯雲深。構得蝸廬傍翠岑。沿澗徐行頻顧影。倚松獨眺喜披襟。塵中隱跡渾如石。世外論交孰斷金。客至但言多種竹。龍孫幾箇擬成林。

疎慵成癖笑如匏。避俗何妨住處高。憂世未能傳大易。消閒偏喜讀離騷。月窺山缺篩林影。風透岩扃鼓翠濤。黃土一杯堪掩骼。浮生何用夢勞勞。

翠微深處便為家。石澗潺湲洗落霞。門外有山皆種竹。庵前無隙可栽花。鐵牛踞地休加策。石鼓懸空勿用撻。且學寒蟬甘自閉。客來不點趙州茶。

重重翠嶂隔凡囂。苔徑窮時渡小橋。治圃披星勤灌溉。採薪冒雨上嶠嶢。白雲飛去渾無跡。玄鶴歸來不用招。也識括囊原少譽。漸鴻有陸任迢遙。

睡起搔頭覺悄然。客來煮茗汲新泉。引盃不數金莖露。對席惟參玉板禪。磬韻逐雲傳竹逕。松風趁雨入茅簷。飽餘一枕西窓下。恍惚羲皇大古天。

懶跨黃牛入市廛。白雲一塢了殘年。登峰每值山君嘯。採蕨時同犢子眠。曲澗泉聲間鳥語。疎林月色染風煙。岩花亦自知時節。榮瘁休推鬼谷篇。

重過嚴陵灘(二首)

富春山水下如苔。一葉翩翩破浪來。翠壁未消前夜雪。蒼煙猶護昔時臺。足輕萬乘天垂象。志抗千秋俗強猜。躡屐重登孤館寂。依依江上思悠哉。

野館年深長綠苔。曾經五夏却重來。每逢兔跡橫樵徑。誰見羊裘隱釣臺。傲骨肯容丹詔重。孤蹤不許白鷗猜。浮名未解全收拾。致使遊人嘆惜哉。

寓王回庵(二首)

昔建文君避難時。隱幽居菴。其臣結茅於此。故名。山房半畝碧雲遮。草徑盤回盡落花。懷古忍尋先帝蹟。避囂聊寓舊臣家。一丘松竹篩新月。萬里川原綴晚霞。扶杖菴前舒老眼。遙看春鴈點平沙。

昔人築室倩雲遮。祇種青松不種花。憂主未能回聖馭。藏身權且學山家。炊煙林下翬歸鶴。汲水巖前帶落霞。極目蘭江去何渺。蒼蒼春色繞晴沙。

普明山中偶興(二首)

踏徧千山一短筇。近來活計只為農。塍頭夜雨催秧馬。壑底春雷起籜龍。雲樹依微藏古寺。池塘澹蕩浸寒松。幾年棒喝成何事。甘臥南窓聽遠春。

拗折當年一瘦筇。雲簑雨笠化成農。天邊風舉籠中鶴。澗底雲藏海上龍。放犢偏宜谿畔草。愛山却剪屋頭松。遙聞柳岸深煙裏。黃鳥聲聲答暮春。

余自浙歸閩。寓寶善庵。百拙法師以詩見訊。用韻奉酬

法末風澆學鮮真。直鈎何處可求人。舟虛隨浪漫遊浙。葉落歸根卒返閩。莫謂括囊原少譽。敢將枯杌仍懷春。忽逢白雪雲中下。暗喜疎慵得輔仁。

石笋江放生

笋江煙樹正蒼蒼。移櫂中流漾渺茫。鼓吹聲中兼梵唄。花香影裏映波光。金鱗透網海天濶。玉翮歸空雲路長。共轉殺機資盛化。更將仁壽祝吾皇。

挽燕京死節諸臣

死事寥寥纔幾人。亦知正氣未全湮。揮戈恨莫回天日。伏劍真能泣鬼神。節義文章難強屈。忠貞肝膽必成隣。捐生豈為留虛譽。未忍甘存七尺身。

詔上建文皇帝徽號及贈死節諸臣爵諡

一旦無端大器移。天心玄穆果難知。孤身遠遁神猶惕。十族咸誅世共疑。昔日君威誠太重。此時臣節自當稀。龍章喜得來荒壠。枯骨沉魂釋怨時。

寓雙滌寺(二首)

昨夜西風透竹扉。樹頭紅葉滿庭飛。一場戲劇今初罷。百粵山河更孰歸。濯足翠臨雙滌瀑。樵薪雲惹五條衣。晚來喜得全無事。背倚松關對落暉。

千峰蕭索一茅茨。野衲行藏自有時。註就遺經聊度日。掘來新蕕勝茹芝。戰爭到此終難息。佳麗於今已頓虧。但幸谷深雲更密。安身恰似六藏龜。

九日自雙滌歸寶善。途中有感

歸來秋老野煙涼。觸目尤增宋玉傷。兵後盡驚鷄犬寂。雨中難對菊松荒。兒童向母啼無袴。小婦尋姑問宿糧。縱有西風能落帽。那堪攜酒醉重陽。

山中即事。用寓雙滌韻(二首)

石門深處隱茅茨。寒色蕭然歲暮時。難向紅塵扶短策。好從翠壑採靈芝。堦前掃葉葉頻至。屋後栽花花迭虧。世變如斯誰可定。懶將休咎問蒼龜。

天風催雨拍柴扉。幾度寒雲掠地飛。世上未休蠻觸鬪。山中猶許鶴猿歸。難尋四利伊蒲供。已失千針屈眊衣。每覺戰聲常在耳。好將身命等殘暉。

續山中即事。仍用前韻

狂飈吹破舊茅茨。冷落如何度歲時。但飽粗糲休問米。只挑野菜謾尋芝。山中竹杖雲邊化。海上蜃樓日下虧。堪嘆古來伶俐客。喪身多是負圖龜。

松雲十里接柴扉。斫盡松雲任鶴飛。捉月痴猴難自歇。失頭狂子幾時歸。窮年廢學緣多客。徹夜圍爐為少衣。世上繁華誰敢擬。看來亦似暮林暉。

丁亥夏五月。霖雨如注。江流大漲。芝城為之半淹。至七日始退。賦以志災

七日滂沱未肯休。瀾漫巨浸過城頭。田廬半逐藻萍去。老稚多從魚鼈游。蛙產灶中難舉火。波翻樹杪任行舟。老僧雖在洪流外。日望洪流不盡愁。

重陽有感

丁亥秋七月。海兵來福州。屯古碕江。鼓山密邇。戰場備見殺戮。至重九。兵猶未釋。登高勝事尚何言乎。乃為賦二律。牛山揮涕漫悲傷。此日乾坤頓拂常。鼓角聲喧雲盡暗。旗鎗隊展日無光。雨中花木愁中對。兵後村墟病後望。黃菊紫萸雖未改。絕無佳客問重陽。

節屆深秋玉露寒。殘荷敗柳不堪觀。江橫戰艦鼉鼉嚇。野戮妖狐土石丹。萬井蒼黃農事廢。千林冷落鬼呼酸。臨風那有登高興。獨痛黎蒸借活難。

中秋臥病

九十秋光止半存。月華散彩獨當軒。砧聲淒切銀河澹。桂影參差玉露繁。病骨不禁乘晚吹。私情惟喜負朝暄。千峰一任渾如洗。獨臥空房懶出門。

自嘲

七十餘年老病身。難將一髮引千鈞。三宗撰述波間月。四剎弘揚鏡上塵。性懶祇甘長守拙。道孤元是寡為隣。如今成得何蟲豸。孰若終身學隱淪。

獨坐有感(二首)

雲來橫掩半林松。獨坐蕭然聽暮春。揭起把茅徒蓋頂。張開空網幾撈籠。謾言門下桃如醉。忍見堂前草盡封。每惜許多伶利客。祇從村店問鮮濃。

空齋憑几對殘蕉。四壁涼煙助寂寥。自分衰蹤同鹿豕。敢言壯志薄雲霄。古泉有韻咽危石。枯樹無枝拂野飈。七十餘年成底事。等閒拋手付前潮。

初春日慶無諍居落成

初開柳眼對霜禽。新構禪房倚翠岑。客屐幾能來僻谷。茶煙每自出平林。室中日月無寒暑。門外江山任古今。長揖世間塵夢絕。灰頭土面臥雲深。

山中元霄。燈火寥寥。而月色如畫。為賦一律

燈節紛喧盡俗囂。山中僻遠自寥寥。雖無火樹燃深塢。却有冰輪挂永宵。徧地寒光同雪嶺。滿林曙色近星橋。庭前獨坐三更後。時覺香風幾度飄。

鄒連山孝廉遊鼓山信宿禪院。以詩見示。用韻奉答

登山弗憚綠蘿遮。遊屐何妨石逕斜。出谷黃鶯聲愈巧。倚雲紅杏色猶奢。禪龕仍作漆園夢。佛火還開優鉢華。寂寂虛庭清似水。更無月下鬧青臺。

謝祁文載居士

祖庭秋晚值狂飈。擬撼崑崙勢頗驕。手托紅輪懸漢表。狂飈頓息絕塵囂。洞水從茲波愈壯。晝夜滔滔入海潮。須記此時疏淪力。灼然千載讓功高。

贈渾朴禪人五十初度

半世親參洞上禪。九龍深處抱雲眠。三間草屋倩巖立。一柄金鋤帶雨懸。蝸角虛名曾久謝。蠅頭微利豈甘緣。謾言世數知天命。傲雪凌霜操永堅。

送僧歸江北

晨起摳衣出石門。秋風吹破白雲村。棋上江山隨手變。夢中眷屬幾人存。訪道四年依喝水。懷親千里賦招魂。還鄉一曲西原上。衰草寒烟日欲昏。

人日全諸。友遊靈源洞(二首)

勝日風和拂面柔。松雲掩映小丹丘。玉虹一線聲猶細。鐵壁千尋霧正收。喝水親瞻神境力。忘歸頓泯世間愁。臨滄亭上扶筇望。獨覺乾坤只一漚。

攜朋共探洞天幽。雪霽春光遍地浮。碧嶂千層橫五虎。溟波萬頃醉雙眸。觀詩獨喜端明句。弔古深懷子直遊。茶鼎烟消殘照澹。一聲猿嘯暮林頭。

仲春望日。佟開府同顧南金林得山諸公。宿上院坐月。以詩見示。用來韻奉酬

積翠千層隔俗氛。德星偶集正春分。東樓月映西樓月。上洞雲連下洞雲。蓮漏切時山鳥靜。經聲歇處梵鐘聞。珠璣燦燦終難和。豈是雕蟲小技文。

初春日。薛玉海明府。登鼓山見訪。賦詩以謝

春風初動海天開。文旆偏乘景運來。淑氣夜浮橋畔柳。祥光朝映洞前梅。杖藜歷盡通霄路。撥草高登繡石臺。安得東南烽火息。浩歌雲際共徘徊。

孟春三日偶作(四首)

七十八年銷落久。奄奄一息却猶存。白衣蒼狗何堪戀。蝸角蠅頭豈足論。憫俗未能忘遠慮。談心何用露卮言。許多歲月蹉跎過。坐見前江日夜奔。

七十八年彈指過。殘生能得幾時存。夢中今昔休嗟嘆。棋上江山懶講論。不向孔顏尋樂處。那從紙墨覓陳言。白雲古道無人到。多少英賢祇外奔。

七十八年營底事。從頭檢點盡難存。魯經讀徧增綺語。梵典掀耆乏要論。力竭始知前是錯。心灰却喜近忘言。現今一息成千古。說甚桃花逐浪奔。

七十八年吾已矣。歷思同輩幾能存。雕蟲刻楮皆邪業。嘯月吟風盡俗論。揮塵空垂千尺釣。逢人難得十成言。門前有路如弦直。駘驥從來各自奔。

設粥賑饑(二首)

莫道披緇萬事休。流離滿目孰無憂。田園荒盡口猶在。妻子散來身亦愁。進食每懷漂母惠。棄家豈學子長遊。自慚未是忘情者。饒舌豐干勸普周。

生遭末劫苦干戈。貿貿流民載道過。出路無依情落魄。逢人難告淚滂沱。三條篋在腰徒束。幾樹花開食豈多。昔日雙林欲自煉。其如願學未能何。

永覺和尚廣錄卷第二十五

詩下

五言絕句

登西山(蔡西山先生讀書處四首)

昔人謝俗氛。結架龍岩下。古砌餘荒草。寒蛩夜復夜。
此岩窈然虛。中可席而臥。我暫假偃息。不知風雨過。
尋得古殘碑。雲埋在幽谷。揩摩至再三。畢竟不能讀。
聞說最勝處。名為讀易臺。路荒不可往。日暮風悲哀。

溪樓晚眺(二首)

碧水浸殘日。虹橋斷落霞。漁人沽酒去。茆店酒旗斜。
江空雲影澹。岸遠柳煙迷。扁舟何處客。泛月過城西。

乞食

持鉢入王城。幾回還自顧。歸來雨忽暴。溪漲不能渡。

臨川道中

遇晚思投宿。風寒日又斜。蒼煙浮竹外。疑是野人家。

題茆齋壁

雲隱巖前屋。深埋一死人。北窓長偃臥。休道葛天民。

空亭獨宿

獨宿空亭下。虛窓足細風。一聲清磬落。秋露月明中。

山齋即景(二首)

楞嚴方讀罷。揮塵對斜暉。山靜松花落。庭空燕子歸無事支頤坐。
檀雲惹衲衣。祇為無心久。野雀自依依。

春日遊南澗

漫緣石崖下。散坐飛花地。貪聽溜石聲。不知春雨至。

入東林

獨步碧雲裏。披衣漫遊戲。道人自何來。持得烹茶器。

城南有感(二首)

十里城南路。桃花與杏花。野人數畝地。留得種桑麻。
衰草荒煙裏。壘壘古墓多。一杯黃土下。貴賤竟如何。

六言絕句

劣巔峰

村底羣峰盡伏。方知身入層霄。笑看閩越舊國。興替渾如海潮。

鳳池

靈境迥開天際。池空鳳去何年。青蒲白鳥如故。黃獨新種雲邊。

靈源洞

橋上山雲乍散。洞前海月初圓。白猿夜過西澗。喝水巖頭打眠。

舍利窟

小徑斜通別嶺。深源忽見孤村。雲中鷄犬出沒。古樹半掩荆門。

七言絕句

羅參軍歸隱東山(二首)

自昔參軍推俊逸。歸來遯跡白雲隈。黃庭讀罷尋芝去。日落山空一嘯回。
林下而今喜見君。石邊倚杖課耕耘。逢人但道桑麻長。塞北風煙未忍聞。

葉茂才請題畫(二首)

數曲春溪野樹渾。沙頭處處隱煙村。一竿獨釣垂楊下。幾片桃花逐浪奔。
芙蓉秋老練江空。翠壁丹崖返照中。何處扁舟江上客。橫將短笛弄西風。

秋夜懷翁仲實文學

偶因月色便登樓。顧影蕭然憶舊遊。不識杜林書帳下。殘編料理幾時休。

懷陳蓋臣文學

百尺樓前風雨寒。元龍高臥幾能安。自慚山野無長慮。地放圓蒲學壁觀。

講經臺(三境俱在博山)

天半參嵯石壁開。林光掩映法王臺。經聲祇許孤峰聽。不用天華動地來。

禪那窟

大唐國裏豈無禪。一窟雲中却宴然。坐斷千峰天地黑。一聲鷄唱日孤懸。

靈源橋

潺湲曲曲瀉銀河。橫架飛虹蘸綠波。試探靈源深幾許。白雲幽渺碧蘿多。

庵居雜咏(六首)

四望千峰黛色迷。春鶯哈哈向人啼。山頭昨夜添新雨。流得桃花出小谿。
春雨如膏春樹濃。煙花繚亂醉春風。牧童偶為尋牛至。草長雲深不見蹤。
萬仞峰頭祇一家。嵐光翠色映袈裟。下方有路人難到。石險林深日又斜。
長空雲捲桂輪低。錯落河星映玉谿。竹塢風清蓮漏永。一聲孤鶴數峰西。
山前何事苦紛紜。爆竹聲聲徹夜聞。閒殺闍黎無箇事。挑燈戲作送窮文。
燃松煑石白雲邊。遮莫春秋暗自遷。破壁爛苔渾舊歲。客來却道是新年。

殘蕉

伶仃已折翻風葉。憔悴猶存傲雪容。早惜清姿難久住。豈堪歲暮更相逢。

贈清涼山僧

山頭剩有千年樹。澗底猶藏百尺冰。坐對[山*層]嶙忘夏日。冷雲深處一閒僧。

頑石過訪。索余舊稿。為占二絕

琴書拋散忍離羣。幾載橫眠楚地雲。敗鼓何曾堪再擊。論交豈敢仍譚文。
聖世自甘同散木。浮生唯合任虛舟。暗中檢點無長處。却似多君一指頭(頑石因參禪[不薦斷其一指])。

湖山堂

樓臺影落空明外。鐘磬聲傳紫翠中。白日一庭歌舞地。蕭蕭菰蔣已秋風。

送百拙座主住山

直撥重雲去卓庵。好將松石結同參。如今世路風波險。黃獨深煨且學憨。

往崇福道中

古城禾黍盡離離。轉入深林翠欲迷。扶得短筇過野水。松雲半掩小招提。

宿崇福院

數椽禪室倚松開。北嶺嵐光撲面來。夜靜涼風來月下。桂花吹落點蒼苔。

石林即景

石林精舍傍雲開。見說青松盡手栽。翠長已堪巢白鶴。乘風飛去更飛來。

白雲洞

凌霄孤岫影重重。載月憑風掩翠容。大地山河成片雪。渾疑天目訪高峰。

達摩洞

天開古洞碧巖頭。吐月吞雲事事幽。石壁迸流甘露滑。何須斷臂夜深求。

達磨洞次聞大師韻

孤嶂嶙峋擬少林。洞中窈窕集雲深。客來對月嘗新茗。共論當年面壁心。

示素謙上人

松龕石壁荆為門。晨夕煙雲任吐吞。待得洞中和氣洽。自然春色滿乾坤。

咏甘露松壽我白居易

矯矯雲邊出處高。蒼鱗翠鬣弄風濤。春秋歷盡渾如昨。甘露霏霏又幾遭。

題石船(二首)

渡海何人駕石船。而今高閣白雲邊。祇因到岸無人問。解纜停橈不記年。
解纜停橈不記年。風吹日炙暮籠煙。靜思藏壑終難固。夜半冥趨亦可憐。

過雒陽橋(二首)

穩渡狂瀾不用愁。誰驅巨石鎖洪流。海天漠漠潮聲急。日落風生古岸頭。
荷錫橫過海上橋。端明遺像獨當潮。銀鈎鐵畫摩觀罷。愁對煙波萬里遙。

聞黃克念居士別館災。以二偈奉訊

半生珍惜不勝濃。此夕如何便變空。火燄應知能說法。白牛穩駕疾如風。
每逢作賦喜登樓。笑傲江天等小漚。此夕親知元不住。一輪月掛舊樓頭。

題黃季弼先生讀書處

南臺翠壁削天高。臺上嵐光映布袍。讀罷憑欄雲滿地。海天萬里送寒濤。

山居(五首)

古佛巖頭絕往還。月明時復到松關。焚香煮茗無餘事。搔首雲邊對鶴閒。
山南山北炊煙少。庵後庵前虎跡多。中有幽人守貞獨。誰來同唱紫芝歌。

柳栗橫擔入白雲。深山寂寞鹿為羣。夜來獨坐小樓上。笑聽村童讀梵文。
雨後青山翠欲滴。雲間流水碧如苔。客來借問庵中主。倚杖巖前看落梅。
茅火深煨折脚鐺。灰頭土面度殘庚。窓前漫展遺經讀。忽聽金鷄叫一聲。

巖居(八首)

一石憑虛蓋上方。八窓空洞射天光。海雲無意隨風入。長伴山僧臥石牀。
巖頭雙鶴衝風去。海上孤帆破浪來。獨向蒲團耽宴坐。天花一任點蒼苔。
閒來倚杖碧峰頭。一嘯雲中萬壑幽。璀璨千林渾是玉。休從海上覓丹丘。
風送海濤來異國。月移松影入巖房。楞嚴註罷無餘事。寶篆還添一炷香。
九夏炎炎日正悠。綠雲千畝見龜疇。夜來驟得如膏雨。笑看芭蕉葉又抽。
小窓分得洞中天。日借餘光閱梵篇。茶竈煙消香滿室。客來踏破舊苔錢。
南去滄波險莫窮。北來瘴霧仍迷空。為僧宜學龜藏六。贏得清風滿洞中(古有藏六禪師居此)。
忽鼓松濤萬壑喧。密雲混合晝猶昏。須臾雨散雲收後。海岸依然見遠村。

玉林八咏

何年浮出碧峰頭。吐月吞雲事事幽。受得靈山藏六訣。世間休咎付東流(六眸洞)。
仙鶴歸來不記年。蹣跚長在白雲邊。莫言城郭猶如故。滄海桑田幾更遷(雙鶴巖)。
松際風來漏正深。巖頭箕踞自披襟。劃然一嘯千山響。獨見銀鈎挂晚林(嘯月臺)。
石樓長吸海山雲。獨枕雲中半似醺。睡起搔頭無箇事。笑看四壁自成雯(醉雲樓)。
昔代雙垂法乳泉。溶溶如玉注階前。我來一滴纔濡口。滌盡塵心不用禪(法乳泉)。

石邊湧出老龍身。矯矯雲中若有情。肯念眾生枯槁甚。日垂甘露灑
焦塵(甘露樹)。
見說輪王髻上珠。將軍戰勝亦難圖。而今突出孤峰頂。爍地輝天鑑
也無(髻珠石)。
金刹曾將玉作關。白雲長護鎖青山。千秋截斷紅塵路。不許凡蹤妄
往還(碧玉關)。

晚登開寶庵(二首)

數里透迴小徑斜。山頭開徧石蓮華。新營半畝雲中宅。坐對諸峰映
晚霞。
百雉城頭過晚鴉。四圍秋色藹人家。僧歸懶說城中事。却羨山中樂
事賒。

莆田道中(二首)

平疇漠漠繞莆城。水色林光相映明。行過小橋煙雨霽。隔林聽得賣
花聲。
荷錫端明學士鄉。蕭蕭古道澹斜陽。許多賢達歸何處。只見豐碑豎
道傍。

渡馬頭江

馬頭江上浪翻空。巨艦橫過趁曉風。潮落潮生經幾險。鼓山尚在白
雲中。

西湖有感

柳外煙浮日正晡。坐看蝦蟇翻春蒲。滿前盡是新歌舞。誰為君王弔
舊都。

題畫

雲迷幽谷冷如水。古木寒巖破衲僧。樵採歸來日正午。一聲嘯出碧
蘿[山*層]。

送某法師歸閩

一髮千鈞勢最孤。法門寥落幾人扶。君歸故舊如相問。但道天寒霜滿顛。

題王回菴(二首)

春來爛熳染青山。幾度花開映竹關。住久不知身是客。笑看雲出與雲還。
柳栗橫擔入碧山。焚香靜對掩松關。有時漫踏落花去。又向前山採蕨還。

到莊屏菴次前韻

飄渺雲籠萬疊山。數椽草屋掩柴關。空林寂寂花如雨。一錫雲中獨往還。
幾重翠靄幾重山。盡日無人祇閉關。漠漠輕煙迷古道。萬松影裏一僧還。

秋思(四首)

久坐漁磯放直鈞。滄江煙水幾經秋。金鱗不遇收綸去。黃葉西風滿地愁。
黃葉西風滿地愁。狸奴倒挂樹梢頭。漫天張網成何事。深悔當初不早休。
深悔當初不早休。吳山越水空淹留。何如穩臥荷山頂。破衲蒙頭老一丘。
破衲蒙頭老一丘。千鈞巨鼎付東流。綠蘿深處無人到。虛院沉沉月滿樓。

辛巳仲秋歸閩。度仙霞嶺(二首)

老病歸來晚度關。危巒久磴強躋扳。關頭一片青苔石。冷笑行人幾往還。
白雲黃葉萬山秋。颯颯西風動客愁。世路從來如趨鹿。可憐老死不知休。

山門晚眺

松頭日落洞天昏。月色梅花掩寺門。獨立石橋涼露下。漁燈明滅照江村。

似李可甫居士

青鳳山頭翠欲流。鷓鴣聲裏雨如油。客來若問山中主。祇是疎慵老比丘。

似李羽吉居士

青鳳山頭樹色蒼。喬松古栢間新篁。有時直上孤峰頂。一嘯天空雲渺茫。

贈元佐裴將軍

知君本是將家種。逸氣英標壓萬人。好為皇家勤股肱。金戈鐵馬靖邊塵。

寶善雜咏(四首)

寶善山深雲氣涼。秋風颯颯度松窓。蟬聲啼到無聲處。一片冰輪挂上方。

寶善山深客到稀。琅玕林外採新薇。門前小犬無人吠。知是青猿抱子歸。

寶善山深雨乍晴。焚香獨坐月初生。虛堂寂寂無人到。惟有流螢晴自明。

寶善山深小徑斜。毵毵草色映殘霞。松頭喜見歸來鶴。不問青宵雲路賒。

宿劍津

禁城樓上漏聲殘。水面霜飛苦被單。疑是昔年雙劍氣。至今猶逼斗牛寒。

秋九月既望。菊尚未開。為賦二絕

金風雖冷放花遲。誤却幽人泛酒期。細看早開還早萎。何如忍耐守寒枝。

籬間寂寞晚風斜。獨見南山映落霞。翻憶昔年陶處士。高名豈在對黃花。

山中聞警(二首)

羽檄紛馳海國驚。山中猶有木魚聲。為僧不識封疆事。祇羨旃檀願太平。
棋上江山那用求。無端苦戰幾時休。東村野老愁難訴。淚漬黃泉尚未收。

採茶(四首)

雷雨頻催春滿叢。紫茸迸出笑東風。指頭不覺難收拾。又入前坡翠霧中。
子規聲裏展旗槍。雨霽雲收滿目蒼。逐隊不辭山路峻。攜籃歸去帶天香。
春晚山居事正勤。歌聲嶺上幾回聞。登高摘得迎風葉。却笑渾身惹白雲。
出門遙望碧雲層。淑氣氤氳枝上凝。兩兩三三同摘取。詠歸喜見月初昇。

春雨

陰雨淋漓陰霧濃。百花洗盡昨宵容。許多艷美終難久。何似青青嶺上松。

春晴

煙消檻外日初晴。謝豹花開布穀鳴。因過前山尋笋蕨。回頭又見白雲橫。

題獅子菴(二首)

剎竿高豎石溪東。半掩松雲翠色濃。日午金經方讀罷。一聲獅吼白雲中。
峰迴地迴境偏幽。曲逕端宜客屐遊。金磬一聲僧出定。茶煙每伴白雲浮。

贈心閑上人住閩安萬壽寺

南來歷盡幾關津。駐錫緣歸閩海濱。讀罷華王禪剎寂。超然世外一閑身。

戲贈樵者

伐木丁丁春鳥鳴。蹴鼇橋畔落花輕。等閒踏入雲煙裏。幾見青猿抱子行。

反催牡丹

春來百卉競妍時。獨有花王出更遲。尊貴自宜居最後。諸人何必費催詩。

反贈牡丹

醉飽春風國色成。嬌姿元自惹凡情。須臾零落歸何處。轉憶前賢咏獨精。

世難(六首)

世難如今苦莫瘳。兵圍十月尚難休。資生競取溝中瘠。千佛聞之盡淚流。
鋒鏑場中戰血鮮。況今斗米已千錢。漏卮未可沃焦釜。百萬蒼生幾得全。
每見貴人嘆金玉。不如勺米可療饑。妻孥散去渾閒事。猶恐孤身亦莫支。
頽垣敗瓦見荒村。十灶炊烟九不存。草長齊腰迷客路。淒淒風雨暗銷魂。
旌旗兩載蔽江干。路絕民逃乞食難。自古河山經百戰。雲霓望斷幾能安。
忍饑忍凍度殘庚。日夜惟聞鼓角聲。四野橫屍誰解掩。風吹日炙怨難平。

懷徐希虞廣文(二首)

數載分齏讀典墳。妙峰一別便離羣。何時再剪西窓燭。徹夜同君細論文。
喝水巖頭一望間。故人官舍眼前山。祇因衣帶長年隔。浩渺煙波絕往還。

贈本智上座

一人空山萬慮灰。巾瓶那肯近塵埃。浮雲幾見穿林去。又逐西風入洞來。

贈跬存上座

北嶺雲邊翠色濃。松窓竹几寂寥中。焚香默坐惟觀息。一任山花白與紅。

贈一中上座

萬仞峰頭只一家。重重翠色映袈裟。金經讀罷無餘事。汲水親烹穀雨茶。

送黃植三司馬北上取藏經(二首)

旌旆翩翩向北遊。西風吹徧白蘋洲。瞿曇大寶如探得。法海汪洋徹底收。
靈鷲遺言貝葉傳。等閒流布在人天。惟除巨力能擔荷。甘露門開灌大千。

送稅擔淨輝二禪人請藏經(二首)

秋日乘風出石門。白雲縹緲隱江村。關津歷盡原非遠。拄杖全擔佛祖言。
飛飛黃葉滿山秋。金錫穿雲踰嶺遊。取得龍宮無價寶。祥光早映鼓山頭。

為李寤生居士。題峩眉山圖

萬疊巉巖一旦開。普賢大士放光來。靈源洞裏發深省。如侍山中說法臺。

讀周櫟園司農瑞蓮記(二首)

義方垂訓已多年。清慎居官世共傳。瑞發庭前雙老笑。應知兒再近堯天。
世途自古多迍蹇。長使英雄淚滿襟。空裏白毫光焰處。靈枝瑞瓣見貞心。

橫山夕照

石壁橫開古岸邊。山光倒影水中天。一僧扶杖歸來晚。笑指殘陽帶暮煙。

錦江夜釣

月印寒江一色秋。小船移過白蘋洲。錦鱗未遇風烟冷。千尺絲綸敢自休。

建溪春色

勒馬山前鎖翠烟。崑花簇簇錦文鮮。黃鸝唱盡華亭偈。笑殺漁人尚醉眠。
永覺和尚廣錄卷第二十六

洞上古轍卷上

序曰。道無今古。而有今古者。世之變也。道無轍迹。而有轍迹者。世之防也。少林之道。六傳而至曹溪。曹溪之門。嗣法者眾。而青原思稱為得髓。後五傳而至洞山价。其時機器漸下。學漸乖宗。主法者憂之。乃立宗趣。設規矩。俾高者不滯於劫外。卑者不落於今時。剪諸見之稠林。截萬端之穿鑿。鑪錘之妙。淘汰之工。箴以加矣。但其法最精。有才者不得騁其才。有智者不得騁其智。一毫意氣之粗。情識之濁。不得與於其間。且諸宗單重見地。吾宗兼論功勳。故諸宗稱為了當者。吾宗方許入門。自新豐以來。傳持斯道者。稀若晨星。學此者。鮮不厭其難而趨其易。一綫之脉。若斷若續。亦無怪其然也。當勝國之際。主法者。多略妙悟而談宗旨。如欲適燕者。但日計路程。足實未嘗踰閩。燕京固邈在萬里也。至我明弘治中。有四家頌古註。嘉靖中。有曹洞宗旨緒餘。及少林筆記等書。悉皆謬妄。迷亂後學。又如指羊腸小蹊。僻谷荒徑。為適燕之通途也。豈不哀哉。老僧生當末造。幸窺一隙之光。見諸書謬妄。破滅正法。乃作洞上古轍二卷。盡刪邪說。惟取古德舊案。類集成書。間有發明考訂。乃不顧危亡。直犯忌諱。嗚呼。豈得已哉。老僧桑榆殘景。兼之病魔日侵。奄奄一息。與死為隣。而猶力疾作此。豈尚執人我於空中。競是非於世上乎。蓋不忍斯道久晦。冥如長夜。欲令天下共仰扶桑朝旭。豐亨日中也。知我罪我。其惟是書。

峇崇禎甲申二月既望永覺老人元賢題于鼓山聖箭堂

參同契註

此洞宗之源也。宋有法眼大師註。世所共宗。今已湮沒不可考。故余不自揣。輒為效顰。

竺土大僊心。東西密相付。人根有利鈍。道無南北祖。

首拈出心字。標宗也。心如何可付。乃是以心印心。不落言詮。故曰密付。南北二宗。雖分頓漸。正由人根性不同。為利根說頓法。為鈍根說漸法。方便各異。道本無殊。總之契此妙心而已。靈源明皎潔。枝派暗流注。執事元是迷。契理亦非悟。

靈源。心也。本不落名言。因明而見其皎潔。枝派。事也。本無有實體。因暗而見其流注。枝派流注。是謂執事。認妄為真。固是迷矣。靈源皎潔。是謂契理。有理可契。豈為真悟乎。此言明之與暗。總妄明之顯晦。學者不可依之以自惑也。

門門一切境。回互不回互。回而更相涉。不爾依位住。

門。根也。境。塵也。諸根境有回互不回互二義。言回互者。謂諸根境互相涉入。如帝網珠也。不回互者。謂諸根境各住本位。未嘗混雜也。雖互相涉入。而實各住本位。雖各住本位。而實互相涉入。此非意識之境。

色本殊質象。聲元異樂苦。暗合上中言。明明清濁句。四大性自復。如子得其母。

此明色聲諸法。熾然殊異。暗則上中莫辨。明則清濁攸分。此皆滯於迹。而不能反於性也。若反於性。豈有明暗之可言哉。正如子得其母。天然妙契。而知與不知。俱不足言矣。

火熱風動搖。水濕地堅固。眼色耳音聲。鼻香舌鹹醋。然於一一法。依根葉分布。本末須歸宗。尊卑用其語。

諸法雖殊。總根於心。心。本也。諸法。末也。然必有宗焉。宗者。諸佛之秘要。列祖之玄旨。不達此宗。則本末俱妄。能達此宗。則本末俱真。此宗既得。由是出一言。行一令。無非毗盧之正印。孰能不遵用之乎。

當明中有暗。勿以暗相遇。當暗中有明。勿以明相覩。明暗各相對。比如前後步。

此重破明暗之非實也。當其明時。中便有暗。特其暗之相不可遇。當其暗時。中便有明。特其明之相不可覩。其義云何。以明暗對待而立。正如人行步。前步因後步而得名。若無後步。何名前步。後步又因前步而得名。若無前步。何名後步。明暗之義亦如是。大都明待暗成。故言明中有暗。暗待明立。故言暗中有明。生滅互顯。非為真實。若是本有妙光。絕無對待。豈有生滅之可言哉。迷固不存。悟亦不立。始為妙性之真明也。

萬物自有功。當言用及處。

前就心上言明暗之非實。此就境上言萬物之非實。世俗執萬物為實者。以其各自有功也。若果自有功。當言其用之及物為何如。今觀其用之所及。悉皆藉外緣而後成。若無外緣。不能及物。是知自本無功也。自既無功。則同為虛妄而已。

事存函蓋合。理應箭鋒拄。承言須會宗。勿自立規矩。

執心境為實。則事理俱乖。達心境為妄。則事理俱妙。事存。言不必遺事。自然與理相合而不差。理懸。言發之於用。自然箭鋒

相拄而不爽。此無他。以能會其宗也。所以承言必須會宗。若違背宗旨。自立規矩。則事理乖謬。非愚即狂矣。觸目不會道。運足焉知路。進步非近遠。迷隔山河固。謹白參玄人。光陰莫虛度。

此總結。而勸其勤求會道也。大道祇在目前。觸目皆是。若非法執法。則不能會。故如盲者運足。進趨末由。豈路之有遠近哉。蓋不迷。則運足知路。無遠弗屆。迷。則山河永固。咫尺難通。參玄之人。可不勤求會道哉。若與道會。庶光陰不至虛度。不然。虛生浪死而已。昔法眼註此云。住住。恩大難酬。意深哉。

寶鏡三昧註

寶鏡三昧一書。洞山室中。密授曹山者也。洞山云。吾得雲巖先師親印寶鏡三昧。則知非洞山所作。乃雲巖所作。或又謂其傳於藥山。今不可考。是書洞下諸師。恐屬流布。轉辱大法。但於室中密授。以定宗旨。以防滲漏。自宋朱世英得之老僧。乃囑覺範註釋以行。覺範不達此宗。又性多疎略。故是非相半。迷悞後學。余不得已。乃為別註。

如是之法。佛祖密付。汝今得之。宜善保護。

理無不是之謂如。事無不如之謂是。付者。如是而付。得者。如是而得。保護者。如是而保護。稍不如是。便非種草也。

銀盃盛雪。明月藏鷺。類之弗齊。混則知處。

如是之法。本非正非偏。強而名之。則亦正亦偏。此正偏之法。本非分非合。強而言之。則亦分亦合。先聖不得已。乃有銀盃盛雪。明月藏鷺之喻。類之弗齊。混則知處。即是詮釋上二句意也。學者於此。能弗滯於言句。神而明之。則洞上無遺旨矣。

意不在言。來機亦赴。

意雖不局於言。應機而有言。亦可以達意。

動成窠臼。差落顧仁。

弗安於常謂之動。動則意所偏向。便成窠臼。非超然無住之境也。不合於理謂之差。差則失本有光。便落陰界。反顧仁思。乃鬼家活計也。

背觸俱非。如大火聚。

般若。如大火聚。觸則被燒。背則非火。但兩頭捉汝不著。便免得苦樂相形。明暗相酬。

但形文彩。即屬染污。

百丈曰。從來不是箇物。不要知渠解渠。是渠非渠。但刈斷兩頭句。刈斷有無句。不無不有句。不是欠少。不是具足。非聖非

凡。不明不暗。不是有知。不是無知。不是繫縛。不是解脫。不是一切名目。謂之佛。是染污。謂之法。是染污。

夜半正明。天曉不露。

謂之正。則兼偏。不可言正也。謂之偏。則兼正。不可言偏也。不欲犯中。故如此明之。洞上之機貴回互。其源實出於此。

為物作則。用拔諸苦。雖非有為。不是無語。

為山曰。實際理地。本無一法。所以不欣取著。為物作則之時。要用使用。若於餘時。無一塵繫念。涅槃經云。有所說者。名有為法。藥山却曰。第一不得絕却言語。他說箇語。是顯箇無語底也。

如臨寶鏡。形影相覩。汝不是渠。渠正是汝。

見道之者。如人臨鏡自照。形影相對。不滯名言。寂然昭著。若纔以為汝。則汝外有渠。而汝不是渠。言汝者非也。若更以為渠。則渠全無渠。而渠即是汝。言渠者。亦非也。是一涉名言。便成染污。豈妙契斯道之意哉。

如世嬰兒。五相完具。不去不來。不起不住。婆婆和和。有句無句。終不得物。語未正故。

涅槃經云。云何名嬰兒行。善男子不能起住去來語言。是名嬰兒行。如來亦爾。不能起者。如來終不起諸法相。不能住者。如來不著一切諸法。不能來者。如來身行無有動搖。不能去者。如來已到大涅槃。不能語者。如來為諸眾生演說諸法。實無所說。經中舉嬰兒行。以例如來之行。今舉以例法中具五位也。

重離六爻。偏正回互。疊而為三。變盡成五。

偏正回互。謂陰陽變易也。疊而為三者。謂疊變至三爻也。變盡成五者。以上三爻。變則成水火既濟。卦象正中偏。以下三爻。變則成火水未濟。卦象偏中正。以中間互體三四五爻。變則成風雷益。卦象兼中至。以二三四爻。變則成山澤損。卦象兼中到。既未二卦。以火配偏。以水配正。其義可見。損益二卦。皆出於互。即兼義也。風雷俱動。象兼至之發於用。山澤俱靜。象兼到之歸於體。離本卦象正中來。以離乃心象。心居一身之中。又正中來。象內黑而外白。正離之象也。五位配五卦。非獨其義皆合。且如未濟既濟。名正相對。損益名亦相對。以此觀之。可見五位之立。天造地設。毫非人力安排。而兼中至。改為偏中至者。益見其謬矣。

如莖草味。如金剛杵。

莖草。五味子也。一草具五味。例一法中。全具五位也。金剛杵。首尾潤而中狹。今法中。正中偏。偏中正。二位居前。兼中

至。兼中到。二位居後。惟正中來。一位居中。兩頭潤而中間狹。故其象為金剛杵。

正中妙挾。敲唱雙舉。通宗通途。挾帶挾路。

正位之中。本無一物。而實妙挾一切事相。故必正偏雙舉。不可落於偏枯。通宗者。自受用三昧。冥契宗旨而無滯也。通途者。他受用三昧。賓主音信相通。血脉不斷也。挾帶者。妙挾而通宗也。挾路者。妙挾而通途也。

錯然則吉。不可犯忤。

離卦初九爻辭云。履。錯然敬之。終吉。借此以言正中。乃尊貴之位。當錯然敬之。不可觸犯。洞山頌亦云。若能不觸當今諱。也勝前朝斷舌才。

天真而妙。不屬迷悟。因緣時節。寂然昭著。

道本天然。不屬迷悟。迷悟者。人也。但時節到時。離於言說。了然昭著。

細入無間。大絕方所。毫忽之差。不應律呂。

此道之昭著。語其細。則入無間。語其大。則絕方所。可謂極其周徧者也。道雖周徧若是。而造道之人。貴得其法。若得其法。則自然與之冥合。若失其法。則愈求而愈遠。正如作樂者。尺中毫忽有差。則十二律之聲音俱不相應矣。此言後學。當詳審古轍。而不可忽也。

今有頓漸。緣立宗趣。宗趣分矣。即是規矩。

天真而妙。一切皆然。特以眾生。機有不同。便成頓漸。故宗趣分。而規矩各殊矣。

宗通趣極。真常流注。

宗趣妙極。猶為理障。礙正知見。故名真常流注。玄沙曰。汝諸人須信有一分真常流注。亘古亘今。未有不是者。未有不非者。如此一句。成平等法。何以故。以言逐言。以理遣理。平常性相。說法度人。然猶明前不明後。未有出格之句。死在句中。

外寂中搖。擊駒伏鼠。

真常流注者。外觀似寂。中實搖搖。如繫駒不忘馳。伏鼠。偷心在也。

先聖悲之。為法檀度。隨其顛倒。以緇為素。顛倒想滅。肯心自許。

只此肯心。便是金鎖玄路。故有十劫觀樹之事。

要合古轍。請觀前古。佛道垂成。十劫觀樹。

法華經云。大通智勝佛。十劫坐道場。而諸佛法。不現在前。過十劫已。諸佛之法。乃現在前。曹山曰。未忘大果故。愚謂十劫。表十成。過十劫。表不滯十成。

如虎之缺。如馬之鼻。

虎。一名李耳。虎食畜。不至耳。又每食人耳。則耳必一缺。此以例不敢犯諱也。鼻者。馬後左脚間有白色也。此以例語忌十成也。

以有下劣。寶几珍御。以有驚異。鰲奴白牯。

凡情聖見。是金鎖玄路。故先聖以法淘汰之。

羿以巧力。射中百步。箭鋒相值。巧力何預。

射至百步。力也。射中百步。巧也。至箭鋒相值。則非巧力之所能及。

木人方歌。石女起舞。非情識到。寧容思慮。

此正明天真妙用。非智力所及。如箭鋒相值也。

臣奉於君。子順於父。不順非孝。不奉非輔。

此明當以偏輔正。如臣事君。子事父。故洞山復立功勳五位。石霜復立王子五位。皆細明奉順之義。

潛行密用。如愚若魯。但能相續。名主中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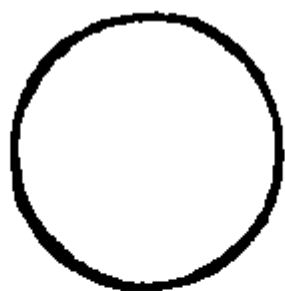
此四句。明君父之事。位極尊貴。本無作用之可見。而實為萬化之樞紐。故曰潛行密用。雖有炤體之獨懸。而實無知覺之分別。故曰。如愚若魯。又此體常自如是。相續不斷。非有動靜之殊。顯晦之異。故名之為主中主。若有動靜之殊。顯晦之異。則是賓中主。非主中主也。

洞山五位

丹霞淳和尚序曰。夫黑白未分。難為彼此。玄黃之後。方位自他。於是借黑權正。假白示偏。正不坐正。夜半虛明。偏不坐偏。天曉陰晦。全體即用。枯木花開。全用即體。芳叢不艷。摧殘兼帶。及盡玄微。玉鳳金鸞。分疎不下。是故威音那畔。休話如何。曲為今時。由人施設。略陳管見。以示方隅。冀諸同心。幸毋撫掌。

黑白未兆 混沌既分 疊而為三變盡成五。

五位總圖



正中偏



偏中正



來中正



到中兼



至中兼



向上一竅 黑白交互 如莖草味如金剛杵。

五位圖說

最上一相。表黑白未兆之前。所謂向上宗乘事也。學者當先悟此。若未悟此。而說理說事。分體分用。與教下習講者何異。次一相。

表黑白既分之後。所謂正中有偏。偏中有正。偏正交互之義。盡見於是。中間仍有一虛圈者。表向上事。今亦隱於黑白之間也。又以此偏正交互之義廣之。則成五位。即一成五。合五成一。豈假安排哉。以黑多白少者。為正中偏。此位正中含偏。故黑多而白少。以白多黑少者。為偏中正。此位偏中含正。故白多而黑少。以中黑外白者。為正中來。由前二位造至尊貴位。復不守尊貴。乃轉正向偏。而正不居正。偏出於正。而偏不落偏也。故黑在內而白在外。以全白者。為兼中至。乃正中來之後。妙印當風。縱橫無忌。事理雙炤。明暗並用者也。以其全體即用。故其相全白。以全黑者。為兼中到。乃妙盡功忘。混然無迹。事理雙銷。是非不立者也。以其全用即體。故其相全黑。前二位相對未兼者也。後二位相對既兼者也。惟正中來一位無對。是妙挾前後四位。如五方之中。五常之信。五行之土。皆無對也。前後各二位。中間止一位。兩頭潤。中間狹。故象之為金剛杵。一位纔分。五位俱彰。如世間物。纔說前。便有後。既有前後。便有左右及中。是一位便有五位。故喻之為莖草味。俗傳五位圖象。偽妄不經。故今特立此圖。以告後學。又見有以功勳五位。王子五位。君臣五位。皆如次配入此五位者。不可從。蓋功勳與王子。皆是偏位上事。況功勳是豎論功夫淺深。王子是中分內紹外紹。故有不同。君臣五位。君臣分兩位。乃接人之法。是兼至一位中分出也。

寂音。改兼中至。為偏中至。以對正中來。大悞後學。今為訂之。正中來一位。乃四位之樞紐。前二位入此者。後二位從此出者。正象至尊之位。不可有對。其不可從。一也。又以偏中至。對正中來。則中間有兩位。非金剛杵之象。其不可從。二也。又偏中至。是全白之象。正中來。是內黑外白之象。全不相對。其不可從。三也。又兼中到。是全黑之象。與兼中至。全白之象正相對。豈可謂兼中到。獨在後。而無對乎。其不可從。四也。寂音。謂古來諸老師大衲。皆用兼中至。不曉其何義。故今為出之於此。

洞山五位頌註

正中偏。三更初夜月明前。莫怪相逢不相識。隱隱猶懷舊日嫌。

正中偏。就初悟此理時立。理。是正。悟。是偏。三更初夜。黑而不明。表理也。然以月明前顯其黑。是黑顯時。中便有明。亦猶理必由悟而顯。理顯時。中便有悟也。有理可見。則是悟迹不除。理尚非真。故雖相逢而不相識。猶不免有舊日之嫌。此位師家多作體中發用釋者非是。以洞山意。是正中便有偏。非正後起偏也。詳洞曹二頌可辨。

偏中正。失曉老婆逢古鏡。分明覲面別無真。休更迷頭猶認影。
偏中正。就見道後用功時立。功勳。偏也。所奉之理。正也。失曉老婆。表正中之偏。古鏡不明。表偏中之正。此位由奉重之力。所見更親於前。但未能親造此理。則所認亦祇在影象之間。故曰迷頭認影。此位師家多作轉用歸體釋者非是。以洞山意。是偏中便有正。非偏後歸正也。

正中來。無中有路隔塵埃。但能不觸當今諱。也勝前朝斷舌才。
正中來一位。即是得法身。亦即是正位。前半分。是轉功就位。後半分。是轉位就功。中間。即尊貴位也。無中。正位也。有路。來偏也。隔塵埃者。以其內方轉身。尚未入俗。與塵埃隔也。有作出塵埃者非是。以出字之義。是入塵而後出也。此尊貴位不可犯。犯即屬染污。須善回互。能回互。則從傍敲顯。有語中無語。無語中有語。故勝斷舌才。據曹洞宗旨中載云。隋時有辨士。名李知章。每有辨論。眾皆結舌。故人號之為斷舌才。此位。後人頌者。多用披毛戴角。入塵垂手等語。皆非。惟曹山頌云。未離兜率界。烏鷄雪上行。深得洞上之旨。後有古德。分此一位為小五位者。最為精密。天童覺有四轉靈機。亦是明此。學者不可不知。

兼中至。兩刃交鋒不須避。好手猶如火裏蓮。宛然自有冲天志。
兼中至。就功位齊彰時立。正既來偏。偏必兼正。作家相見之際。明暗交參。縱奪互用。不涉一毫擬議。自然不至傷鋒犯手。如火裏蓮花。而卒無所損也。此乃他受用三昧。即是透法身。即是大機大用。洞山離三滲漏。臨濟具三玄要。俱不出此。

兼中到。不落有無誰敢和。人人盡欲出常流。折合還歸炭裏坐。
兼中到。就功位俱隱時立。前兼中至。雖偏正交至。猶有偏正之迹。此則無迹可見。故曰不落有無。蓋是造道之極。及盡今時。還源合本。故曰折合還歸炭裏坐。如佛說究竟涅槃義。乃自受用三昧也。既得此三昧。雖大用繁興。總不出此。洞山臨終曰。吾閒名已謝。正明此旨。九峯虔云。塵中雖有隱形術。爭似全身入帝鄉。雲門云。直饒透得法身。放過即不可。仔細檢點將來。有甚麼氣息。亦是病意。亦在此也。

按正法眼藏中。載大慧釋五位頌一篇。切不可信。如釋三更初夜月明前。謂是向白說黑。回互黑字不犯諱。釋失曉老婆逢古鏡。謂是向黑說白。回互白字不犯諱。誠如彼說。他大死翁答正中偏云。黑漆老婆被白練。又答偏中正云。白頭翁子著皂衫。宏智覺頌偏中正云。婦人鬢髮白垂絲。又答云。白髮老婆羞看鏡。自得暉云。白雲籠嶽頂。終不露崔嵬。皆可責其犯諱乎。且洞宗之機貴回互但如此。又何以出生死乎。學此宗者。請詳之。

汾陽五位總頌

五位參尋切要知。絲毫纔動即相違。金剛透匣誰能用。唯有那吒第一機。舉目能令三界靜。振鈴還使九天歸。正中妙挾通回互。擬議鋒鋸失却威。

慈明圓五位總頌

偏中歸正極幽玄。正去偏來理事全。須知正位非言說。朕兆依稀屬有緣。兼至去來興妙用。到兼何更逐言詮。出沒豈能該世界。蕩蕩無依鳥道玄。

投子青頌(并序)

夫長天一色。星月何分。大地無偏。枯榮自異。是以法無異法。何迷悟而可及。心不自心。假言象而提唱。其言也。偏圓正到。兼帶叶通。其法也。不落是非。豈關萬象。幽旨既融於水月。宗源派混於金河。不墜虛凝。回途復妙。

正中偏。星河橫轉月明前。彩氣夜交天未曉。隱隱俱彰暗裏圓。
偏中正。夜半月明羞白影。朦朦霧色辨何分。混然不落秦時鏡。
正中來。火裏金鷄坐鳳臺。玄路倚天通陌上。披雲鳥道出塵埃。
兼中至。雪刃籠身不回避。天然猛將兩不傷。暗裏全施善周備。
兼中到。解走之人不觸道。一般拈掇與君殊。不落是非方是妙。

宏智覺頌(洞曹二家頌後推此五頌為最)

正中偏。霽碧星河冷浸天。夜半木童敲月戶。暗中驚破玉人眠。
偏中正。海雲依約神仙頂。婦人鬢髮白垂絲。羞對秦臺寒炤影。
正中來。月夜長鯨蛻甲開。大背摩天振雲翼。翔遊鳥道類難該。
兼中至。覲面不須相忌諱。風化無傷的意玄。光中有路天然異。
兼中到。斗柄橫斜天未曉。鶴夢初醒露葉寒。舊巢飛出雲松倒。

自得暉頌

正中偏。混沌初分半夜前。轉側木人驚夢破。雪蘆滿眼不成眠。
偏中正。寶月團團金殿冷。當明不犯暗抽身。回眸影轉西山頂。
正中來。帝命傍分展化才。杲日初升沙界靜。靈然曾不帶纖埃。
兼中至。長安大道長遊戲。處處無私空合空。法法同歸水見水。

兼中到。白重斷處家山好。撲碎驪龍明月珠。崑崙入海無音耗。

鼓山賢頌

正中偏。黑漆崑崙空裏眠。雖是不曾親切得。眼前影象却昭然。
偏中正。將軍手持無字印。鐵馬金戈事正勤。未得歇時難自信。
正中來。夜半梅花鬪雪開。一陣香風飄出谷。始知未許雪深埋。
兼中至。出匣青蛇難擬議。陰陽反覆事何常。莫道相逢憑意氣。
兼中到。事理全銷無可道。不是寒崖獨守空。本無變易閒名埽。

曹山五相頌(此頌載五燈會元者俱錯列今依宗門玄鑒圖定之)



白衣雖拜相。此事不為奇。積代簪纓者。休言落魄時。
此即正中偏也。初悟此理。喻白衣拜相。然實本來尊貴。特暫沈淪耳。故有積代簪纓。暫時落魄之喻。



王宮初降日。玉兔豈能離。未得無功旨。人天何太遲。
此即偏中正也。王宮初降。喻初悟此理也。必假功勳以保任之。故以玉兔喻功勳。既未能無功。則尚滯人天。故曰人天何太遲。

⊙子時當正位。明正在君臣。未離兜率界。烏鷄雪上行。
此即正中來也。子時當夜半。故以喻正位。明正在君臣。謂明此正位。如君之視臣。不可坐著尊貴。亦如臣之奉君。不可背不可犯也。未離兜率界。喻方在正位上轉身。尚未入俗也。烏鷄。喻正。雪。喻偏。烏鷄雪上行。乃轉正就偏之象。

○箬裏寒冰結。楊花九月飛。泥牛吼水面。木馬逐風嘶。
此即兼中至也。箬。表偏。寒冰。表正。是偏中含正也。楊花。表偏。九月。表正。是正中有偏也。泥牛。木馬。皆表正。吼水面。逐風嘶。皆表偏。是理事兼至。偏正交參。不可得而思議者也。

●渾然藏理事。朕兆卒難明。威音王未曉。彌勒豈惺惺。
此即兼中到也。造道之極。理事俱泯。非獨凡眼莫窺。即過去未來一切諸佛。亦不能窺。蓋還歸於混沌之竅。本不可得而明也。五位之旨。當以洞山曹山之頌為指南。故今詳註之。後有作者。多失前人之旨。至於大陽玄。浮山遠二家頌。皆屬偽撰。全乖祖意。今刪之。

五位答問

僧問。如何是正中偏。

汾陽昭云。玉兔既明初夜後。金鷄須唱五更前。宏智覺云。雲散長空後。虛堂夜月明。自得暉云。昨夜三更星滿天。大死翁云。黑漆老婆被白練。鼓山賢云。千尺井底夜燃燈。

問。如何是偏中正。

普賢秀云。輕烟籠皎月。薄霧鎖寒巖。宏智覺云。白髮老婆羞看鏡。大死翁云。白頭翁子著皂衫。自得暉云。白雲籠嶽頂。終不露崔嵬。鼓山賢云。將軍手持無字印。

問。如何是正中來。

汾陽昭云。旱地蓮花朵朵開。僧云。開後如何。汾云。金蕊銀絲承玉露。高僧不坐鳳凰臺。普賢秀云。松瘁何曾老。花開滿未萌。宏智覺云。霜眉雪鬢火中出。堂堂終不落今時。道吾真云。皎潔乾坤震地雷。自得暉云。莫謂鯨鯢無羽翼。今日親從鳥道來。鼓山賢云。肘後懸符出禁城。

問。如何是兼中至。

普賢秀云。猿啼音莫辨。鶴唳響難明。宏智覺云。大用現前。不存軌則。大死翁云。雪刃籠身不自傷。自得暉云。應無迹。用無痕。鼓山賢云。寶劍揮空不問誰。

問。如何是兼中到。

普賢秀云。撥開雲外路。脫去月明前。宏智覺云。夜明簾外排班早。空王殿上絕知音。大死翁云。崑崙夜裏行。自得暉云。石人衫子破。大地沒人縫。鼓山賢云。夜間墨汁染烏紗。

洞山五位功勳

僧問。如何是向。師曰。喫飯時作麼生。又曰。得力須忘飽。休糧更不饑。

向。謂趣向。然必先知有。若不先知有。向箇甚麼。答。喫飯時作麼生者。謂日用動靜之間。不可須臾忘却也。得力須忘飽。休糧更不饑者。言向之專。則不暇計饑飽也。

頌曰。賢主由來法帝堯。御人以禮曲龍腰。有時鬧市頭邊過。到處文明賀聖朝。

問。如何是奉。師曰。背時作麼生。又曰。只知朱紫貴。辜負本來人。

奉。如承奉之奉。向而後奉。如人奉事長上。必先歸敬。而後承奉。若背。則不能奉。言背者。謂貪合外塵。乃背本分事者也。

只知朱紫貴。辜負本來人。言其貪合外塵之事。
頌曰。淨洗濃粧為阿誰。子規聲裏勸人歸。百花落盡啼無盡。更向亂峯深處啼。

問。如何是功。師曰。放下鋤頭時。作麼生。又曰。撒手端然坐。白雲深處閒。

把鋤頭。是有向奉。放下鋤頭。是不向奉。由前向奉之功。至此頓忘。故曰。放下鋤頭也。撒手端然坐。白雲深處閒者。謂契入正位也。猶名功者。即湧泉欣。所謂立中功。就中功也。

頌曰。枯木花開劫外春。倒騎玉象趁麒麟。而今高隱千峯外。月皎風清好日辰。

問。如何是共功。師曰。不得色。又曰。素粉難沈路。長安不久居。

共功者。諸法並興。故曰共。洞山云。不得色者。乃為前位是一色。諸法俱隱。今位一色消盡。諸法俱現。一色不可復得也。素粉難沈跡。長安不久居者。亦指前一色。不可久居也。

頌曰。眾生諸佛不相侵。山自高兮水自深。萬別千差明底事。鷓鴣啼處百花新。

問。如何是功功。師曰。不共。又曰。混然無諱處。此外復何求。

功功者。此功比前尤深。故名功功。洞山云。不共者。由前有共。今則不共。非特法不可得。非法亦不可得也。混然無諱處。此外更何求者。言理事混然。並無藏隱之迹。乃造道之極致。更有何求哉。然猶名功者。以視向上事。則亦屬人力造到。是亦功也。

頌曰。頭角纔生已不堪。擬心求佛好羞慚。迢迢空劫無人識。肯向南詢五十三。

永嘉欽頌

到處相逢元不識。有時不識却相逢。師裏無目還如見。師曠能聰恰似聾(向)。

金針密密繡鴛鴦。錦縫重重玉線長。挂向春園人不識。引他蜂蝶過來忙(奉)。

顏生陋巷不堪憂。終日如愚樂自由。謾說坐忘為益矣。累他尼父一場愁(功)。

淮南道士著真紅。勿謂情忘色是空。醮罷玉壇移斗柄。步虛一曲對春風(共功)。

漢高初起沛豐間。三尺龍泉帝業安。待得叔孫成禮樂。元來不共汝同盤(功功)。

洞山三種滲漏

師謂曹山曰。末法時代人多乾慧。若要辯驗真偽。有三種滲漏。直須具眼。

一。見滲漏。機不離位。墮在毒海。

明安云。謂見滯所知。若不轉位。即在一色。

二。情滲漏。滯在向背。見處偏枯。

明安云。謂情境不圓。滯在取舍。前後偏枯。鑒覺不全。是識浪流轉。途中邊岸事。直須句句中離二邊。不滯情境。

三。語滲漏。究妙失宗。機昧終始。濁智流轉。

明安云。究妙失宗者。滯在語路。句失宗旨。機昧終始者。謂當機暗昧。語中宗旨不圓。句句中。須有語中無語。無語中有語。始得妙音密圓也。

泐潭炤頌(此三頌舊刻顛倒今正之)

木人嶺上輕開口。石女溪邊暗點頭。堪笑當年李太白。夜來還宿釣魚舟(見)。

天下谿山絕勝幽。誰能把手共同遊。回頭忽聽杜鵑語。笑指白雲歸去休(情)。

昔年曾作參玄客。徧扣玄關窮要脉。更闌墨汁染皂衫。說向他人口門窄(語)。

洞山賓主句

師訪龍山。問如何是主中賓。山曰。青山覆白雲。問如何是主中主。山曰。長年不出戶。問賓主相去幾何。山曰。長江水上波。問賓主相見。有何言說。山曰。清風拂白月。師乃再拜。

師問僧。何者是汝主人公。僧曰。現祇對者。師曰。苦哉苦哉。今時人類皆如此。祇認得驢前馬後底。將為自己。佛法平沈。此其兆也。賓中主。尚未明。況主中主乎。僧問。如何是主中主。師曰。闍黎自道取。僧曰。某甲道得祇是賓中主。(雲居代云。某甲道得不是賓中主)如何是主中主。師曰。不辭為汝道。相續也大難。

僧問。廣德義。如何是賓中賓。師曰。蕩子無家計。飄零不自知。曰如何是賓中主。師曰。茅戶挂珠簾。曰如何是主中賓。師曰。龍樓鋪草座。曰如何是主中主。師曰。東宮雖至嫡。不面聖堯顏。

四賓主者。主。即正。即體。即理。賓。即偏。即用。即事。理之本體。不涉於用者。名主中主。喻如帝王深居九重之內也。親

從體發出用者。名主中賓。喻如臣相奉命而出者也。在用中之體。名賓中主。如閩市裏天子也。用與體乖。全未有主。名賓中賓。喻如化外之民。無主之客也。此四賓主。與臨濟不同。學者詳之。又有書載明安語。以四賓主配四料揀者。謬妄殊甚。乃偽撰之書也。

天童覺頌

平生心事結眉頭。滿面風埃鬢已秋。大抵出門無伎倆。奈何今日路貧愁(賓中賓)。
日應經商利萬金。曉來古路問家音。分明得報尊親健。爭奈難憑喜懼心(賓中主)。
御樓吹角六街明。金馬將軍出禁城。閩外威權良有準。不傷風化自昇平(主中賓)。
不動金輪萬德全。宸居苔合未排班。當頭諱字寰中禁。誰敢依稀犯聖顏(主中主)。

綱宗偈

金針雙鎖偈曰。金針雙鎖備。挾路隱全該。寶印當風妙。重重錦縫開。

金針句。言偏正並用。不落一邊。亦非執於中道也。挾路句。言應機之路。正必挾偏。偏必挾正。其一雖隱而弗顯。其實偏正無不全該也。寶印句。言正中妙挾之印。當眾生之機感也。重重錦縫者。因眾生之機感。而五位法門。重重顯現也。

金鎖玄路偈曰。交互明中暗。功齊轉覺難。力窮忘進退。金鎖網鞵鞵。

明喻大功。暗喻正位。初用功時。是借功趨位。明中有暗也。次則借位明功。暗中有明也。至於功位齊彰。猶貴功位並轉。若力窮而不能轉。則事理之迹未消。聖凡之情未盡。是謂金鎖玄路。不墮凡聖偈曰。事理俱不涉。回照絕幽微。背風無巧拙。電火爍難追。

前二偈。明正偏互用。此偈明正偏雙泯。乃返道之本源也。回照此境。非特無形迹可見。即幽微亦絕。而不可見矣。背風無巧拙者。以有機感。則巧拙斯形。此機感不到之地。何有巧拙哉。巧拙。指聖凡也。電火爍難追者。以有形故可追。無形。則不可追。喻智不能及也。此即是兼中到位。

石霜五位王子

誕生

誕生。言初育也。最初知有。即能頓入一色。全不借功勳。如王嫡長之子。初生即得灌頂者也。此與洞山正中偏。有異。正中偏。只是最初知有。未能頓入一色。入一色。乃正中來事。天然貴胤本非功。德合乾坤育勢隆。始末一期無雜種。分宮六宅不他宗。上和下睦陰陽順。共氣連枝器量同。欲識誕生王子父。鶴騰霄漢出銀籠。

初句。言其本來尊貴。不假功勳也。德合乾坤。言與父母同德也。育勢隆。言其生育之勢甚隆。本是王種也。始末句。言其不雜外紹之功。分宮句。言其六根用殊。而皆不外宗也。上和句。言其順於父也。共氣句。言六識如兄弟。同其器量。皆順於父也。末二句。明王子父。銀籠。喻一色。超出一色。始見尊貴。喻之為父也。

朝生

朝生者。言祇在外朝。居臣位。非宮中所生也。此子不能知有。止事外紹之功。故不能轉功就位。正是臣種。亦名王子者。九峰。所謂外紹王種姓也。與洞山。偏中正。有異。以偏中正。是內紹。而未就位者。此是外紹而不就位者。苦學論情世莫羣。出來凡事已超倫。詩成五字三冬雪。筆落分毫四海雲。萬卷積功彰聖代。一心忠孝輔明君。鹽梅不是生知得。金榜何勞顯至勳。

初句。言其用功之勤也。次句。言其由功之勤。故一出而事皆超倫。乃功之著也。詩成二句。正喻其超倫之事。萬卷積功二句。喻借外功以輔其君也。鹽梅。正喻輔相之事。不是生知。言其由學而至也。末句。喻雖大功顯著。如金榜標名。終在臣職。不登王位。何勞有此哉。

末生

末生者。言用功之久。而後成者也。此子遠謝一切。專事內紹。得入一色。比之誕生。則頓漸有異。及其所到。一也。此與正中來。亦異。此乃久用功而方入正位者。正中來。則入正位而轉身者也。

久棲巖穴用功夫。草榻柴扉守志孤。十載見聞心自委。一身冬夏衣
縑無。澄凝含笑三秋思。清苦高名上哲圖。業就巍科酬極志。比來
臣相不當途。

初二句。不貪朱紫貴。專顧本來人也。十載句。言不重見聞。一
身句。言不著塵緣。澄凝二句。言其怡神於清虛恬淡之天。皆內
紹之意也。業就二句。言內紹功成。轉劫就位。不立臣位也。

化生

化生者。言傍分帝化。乃轉位就功之子。古人謂之出使將軍才。
即洞山。兼中至也。

傍分帝命為傳持。萬里山河布政威。紅影日輪凝下界。碧油風冷暑
炎時。高低豈廢尊卑奉。五袴蘇塗遠近知。妙印手持烟塞靜。當陽
那肯露纖機。

初句。備位明功。奉行帝化也。萬里句。金剛寶劍。橫揮世界
也。紅影句。智炤無私。破諸幽暗也。碧油句。神用莫測。清諸
熱惱也。碧油。幢名。漢太守。建碧油幢於門。以表正化之威。
高低二句。總言神化廣運。上下同稟。遠近咸知也。五袴。漢廉
叔度為太守。民作歌曰。廉叔度。來何暮。昔無繻。今五袴。蘇
塗。言蘇民之塗炭也。妙印句。言心印獨持。則十方坐斷。天下
太平也。烟塞者。塞下立烟墩。賊來。則舉之。以傳報。故曰烟
塞。末句。言雖妙用顯行。其機密而不可窺也。

內生

內生者。長在深宮之內者也。此是功功之極。與父無異體。即理
智一如。冥合不分之義。然猶云有父者。以子則猶守珍御。父則
無家可坐。無世可興。又父則全屬無為。深不可窺。其間掛敝垂
應。以代行父事者。亦子也。正同洞山。兼中到。

九重深密復何宣。掛敝由來顯妙傳。祇奉一人天地貴。從他諸道自
分權。紫羅帳合君臣隔。黃閣簾垂禁制全。為汝方隅官屬戀。遂將
黃葉止啼錢。

初句。言與父合體。寂爾無言也。次句。言有時復出。以顯其妙
也。祇奉句。言實智證理也。從他句。言六根各效其職。而主本
不動也。紫羅二句。言既與父合體。則臣僚隔絕。以其體本無為
也。為汝二句。言雖是無為。有時應眾生之機。而方便說法。即
權智也。

善權志頌

貴胤生時輪跡空。玳瑁玉珮處東宮。月堂炤處朝君父。直扣堯階却借功(誕生)。

學問詩書德行全。金門投策紫微班。客星不自離簞釣。爭得寅昏奉聖顏(朝生)。

貧來今日極清虛。且喜寥寥一物無。便欲升為九苞鳳。依稀雲樹月巢孤(末生)。

帝命傳來下九天。禁城中外化親宣。回途復妙持金印。正令曾無一字傳(化生)。

鳳鷲龍驤大丈夫。天然尊貴六宮殊。苔封古殿無人到。造次凡流識得無(內生)。

王子答問

僧問石霜。如何是誕生王子。曰貴裔非常種。天生位至尊。問如何是朝生王子。曰白衣為上輔。直指禁庭中。問。如何是末生王子。曰循途方覺貴。漸進不知尊。問。如何是化生王子。曰政威無比況。神用莫能儔。問。如何是內生王子。曰重幃休勝負。金殿臥清風。

曹山君臣五位旨訣

曹山曰。正位即空界。本來無物。偏位即色界。有萬象形。正中偏者。背理就事。偏中正者。舍事入理。兼帶者。冥應眾緣。不墮諸有。非染非淨。非正非偏。故曰虛空大道。無著真宗。從上先德。推此一位。最玄最妙。要當詳審辨明。君為正位。臣為偏位。臣向君是偏中正。君視臣是正中偏。君臣道合是兼帶語時。有僧出問。如何是君。曰妙德尊寰宇。高明朗太虛。如何是臣。曰靈機弘聖道。真智利羣生。如何是臣向君。曰不墮諸異趣。凝情望聖容。如何是君視臣。曰妙容雖不動。光燭本無偏。如何是君臣道合。曰混然無內外。和融上下平。又曰。以君臣偏正言者。不欲犯中。故臣稱君。不敢斥言。是也。此吾宗法要。乃作偈曰。學者先須識自宗。莫將真際雜頑空。妙明體盡知傷觸。力在逢緣不借中。出語直教燒不著。潛行須與古人同。無身有事超岐路。無事無身落始終。

大陽玄頌

不立功勳坐廟堂。羣臣何敢望清光。沈沈禁殿尊嚴甚。寂寞無人夜未央(君)。

文經武緯定中華。徧立階梯贊國家。功業已隆加九錫。與君神氣隔些些(臣)。

位尊九五不曾居。常與羣臣共一途。不隱後官天下治。免教夷狄望來蘇(君視臣)。

念念輸忠不敢欺。頭頭奉重丈夫兒。君看千里長安道。玉鐙皆趨闕下歸(臣向君)。

臣主相忘古殿寒。萬年槐樹雪漫漫。千門坐掩靜如水。只有垂楊舞翠烟(君臣道合)。

無中有路透長安。劫外靈枝孰敢攀。寶殿苔生尊貴重。三更紅日黑漫漫(總)。

曹山四禁

莫行心處路。

心有所忻之處。即是偏蔽。雖極其玄妙。亦不可行。必須心心無處所。方是衲僧行履也。

不挂本來衣。

本來衣。乃認得法身。而法執不忘。已見猶存。墮在法身邊。必須翻轉窠臼。始得妙用全彰。

何須正恁麼。

道本無方。擬之即失。說正恁麼。早不恁麼。故不可擬。

切忌未生時。

道貫古今。豈局未生。若祇認著父母未生前。一段空寂境界。以為自己。豈不見同安察云。迢迢空劫勿能收。作此見者。乃墮空落外之流。故切忌之。

曹山三墮

曹山曰。凡情聖見。是金鎖玄路。直須回互。夫取正命食者。須具三種墮。一者披毛戴角。二者不斷聲色。三者不受食。稠布衲問。披毛戴角。是甚麼墮。師曰。是類墮。問。不斷聲色。是甚麼墮。師曰。是隨墮。問。不受食。是甚麼墮。師曰。是尊貴墮。乃曰。食者。即是本分事。知有不取。故曰尊貴墮。若執初心。知有自己及聖位。故曰類墮。若初心知有己事。回光之時。擯却色聲香味觸法。得寧謐。即成功勳。後却不執六塵等事。隨分而昧。任之則礙。所以外道六師。是汝之師。彼師所墮。汝亦隨墮。乃可取食。

食者。即是正命食也。亦是就六根門頭。見聞覺知。祇是不被他染污。將為墮。且不是同向前均他。本分事尚不取。豈況其餘事耶。師凡言墮。謂。混不得。類不齊。凡言初心者。所謂悟了同未悟耳。

正命食者。教中有邪命食。正命食。邪命食。有四。仰口食。下口食。方口食。維口食。是也。正命食者。惟依乞食法。清淨自活。是也。今曹山立正命食者。意謂。受一切法。同名邪命。不受一切。是為正命。言三墮者。大修行人。本無所住。然亦暫有所寄。隨處自在。如鴈過長空。影沈寒水。豈有滯礙哉。故此墮字。是借義。非實義也。五燈會元。於尊貴墮後。復有乃曰食者一段。文義乖謬。予甚疑之。及見後有師凡言墮句。出一師字。方知是後人註釋之語。今不槩論。姑舉其一二訂之。如云本分事知有不取。故曰尊貴墮。是墮字作借義說。下文又云。執初心知有自己。及聖位。為類墮。是又作實墮了。其謬甚矣。又曹山云。披毛戴角是類墮。是異類中行。乃後後行徑。今則云。初心知有自己。及聖位。豈曹山之意乎。又僧寶傳中。亦戴此段。但多為改削。凡十四句。其義仍乖。如首句改云。冥合初心而知有。是類墮。夫初心知有。亦非披毛戴角之意也。又智證傳中。謂三墮之名。皆本聖經。乃改類墮。為不斷聲色墮。其悞後學甚矣。今并訂之於此。

明安嘗釋此三墮曰。此三語。須明轉位。始得。一作水牯牛。是類墮。師曰。是沙門轉身語。是異類中事。若不曉此意。即有所滯。直是要伊一念無私。即有出身之路。二不受食是尊貴墮。師曰。須知那邊了却。來這邊行履。若不虛此位。即坐在尊貴。三不斷聲色是隨墮。師曰。以不明聲色。故隨處墮。須向聲色裏有出身之路。作麼生。是聲色外一句。乃曰。聲不自聲。色不自色。故曰不斷。指掌。當指何掌也。

按曹山云。須具三種墮。是必一念無私底。方能類墮。必不守尊貴底。方能尊貴墮。必透過聲色底。方能隨墮。是墮之名。乃權立也。今大陽謂此三種。須明轉位。是實有所墮。故須轉也。與曹山之意大乖。然余考明安別錄一書。中載五位頌。洞山五位頌註。又以四賓主配入四料揀。及此三墮之說。種種乖謬。疑為大陽既沒。嗣法無人。而偽妄之徒。托名為之。覺範不能察。乃為收入僧寶傳中。貽悞後學。觀者詳之。

百丈端頌

著起破襪衫。脫下娘生袴。信步入荒草。忘却長安路(類)。

秦樓歌夜月。魏闕醉春風。家國傾亡後。鄉關信不通(隨)。
獨坐孤峯頂。輪蹄絕往還。可憐一雙足。曾不到人間(尊貴)。
雲不戀青山。鏡不籠妍醜。未透鬼門關。逐處成窠臼(總)。

又頌

披毛戴角。隨類自在

頭角混泥塵。分明露此身。綠楊芳草岸。何處不稱尊。

見色聞聲。隨處自在

猿啼霜夜月。花笑沁園春。浩浩紅塵裏。頭頭是故人。

禮絕百僚。尊貴自在

畫堂無鎖鑰。誰敢跨其門。莫怪無賓客。從來不見人。

總頌

昨夜荒村宿。今朝上苑遊。本來無位次。何處覓蹤由。

同安察十玄談

十玄談。大弘正中妙挾之旨。前五首示大旨要。後五首使履踐之也。

心印

問君心印作何顏。心印誰人敢授傳。歷劫坦然無變色。呼為心印早
虛言。須知本自靈空性。將喻紅爐火裏蓮。莫謂無心便是道。無心
猶隔一重關。

祖意

祖意如空不是空。玄機爭墮有無功。三賢尚未明斯旨。十聖那能達
此宗。透網金鱗猶滯水。回途石馬出紗籠。殷勤為說西來意。莫問
西來及與東。

玄機

迢迢空劫莫能收。豈為塵機作繫留。妙體本來無處所。通身何更有蹤由。靈然一句超羣象。迴出三乘不假修。撒手那邊千聖外。回程堪作火中牛。

塵異

濁者自濁清者清。菩提煩惱等空平。誰言卞璧無人鑿。我道驪珠到處晶。萬法泯時全體現。三乘分處假安名。丈夫自有冲天志。莫向如來行處行。

佛教

三乘次第演金言。三世如來亦共宣。初說有空人盡執。後非空有眾皆緣。龍宮滿藏醫方義。鶴樹終譚理未玄。真淨界中纔一念。閻浮早已八千年。

還鄉曲

勿於中路事空王。策杖還須達本鄉。雲水隔時君莫住。雪山深處我非忘。尋思去日顏如玉。嗟嘆來時鬢似霜。撒手到家人不識。更無一物戲尊堂。

破還鄉曲

返本還源事亦差。本來無住不名家。萬年松逕雪深覆。一帶峯巒雲更遮。賓主睦時純是妄。君臣合處正中邪。還鄉曲調如何唱。明月堂前枯木花。

轉位

涅槃城裏尚猶危。陌路相逢沒定期。權挂垢衣云是佛。却裝珍御復名誰。木人夜半穿靴去。石女天明戴帽歸。萬古碧潭空界月。再三撈攬始應知。

回機

披毛戴角入[廓-享+墨]來。優鉢羅花火裏開。煩惱海中為雨露。無明山上作雲雷。鑊湯爐炭吹教滅。劍樹刀山喝使摧。金鎖玄關留不住。行於異類且輪迴。

正位前(亦名一色過後)

枯木巖前差路多。行人到此盡蹉跎。鷺鷥立雪非同色。明月蘆花不似他。了了了時無可了。玄玄玄處亦須訶。殷勤為唱玄中曲。空裏蟾光撮得麼。

大陽三句

大陽一日示眾云。諸禪德。須明平常無生句。妙玄無私句。體明無盡句。第一句。通一路。第二句。無賓主。第三句。兼帶去。一句道得獅子嘖呻。二句道得獅子返擲。三句道得獅子踞地。問。如何是平常無生句。曰白雲覆青山。青山頂不露。問。如何是妙玄無私句。曰寶殿無人不侍立。不種梧桐免鳳來。問。如何是體明無盡句。曰手指空時天地轉。回途石馬出紗籠。問。如何是獅子嘖呻。曰終無回顧意。爭肯落平常。問。如何是獅子返擲。曰周旋往返全歸父。繁興大用體無虧。問。如何是獅子踞地。曰迴絕去來機。古今無變異。

琅琊覺。因僧請益次。乃曰。山僧亦有三句。報答大陽。僧問。如何是平常無生句。曰言前無的旨。句下絕追尋。問。如何是妙玄無私句。曰金鳳不棲無影樹。玉兔何曾下碧霄。問。如何是體明無盡句。曰三冬枯木秀。九夏雪花飛。

平常無生句。即最初知有也。妙玄無私句。即入尊貴位也。體明無盡句。即轉位就功後事也。玄鑑中。又有三句圖象。全無意義。乃後人妄立耳。三種獅子。是於前三句中。各進一步說。乃三句中轉位也。

芙蓉楷門風偈

妙唱非千舌

剎剎塵塵處處談。不勞彈指善財參。空生也解通消息。花雨巖前鳥不銜(芙蓉楷)。

如如寂寂似無情。一句從來本現成。舌運廣長元不間。雪峰相見望州亭(自得暉)。

古佛巍巍體廣長。交光絲網剎塵彰。也知不費娘生舌。巖桂庭花善舉揚(古德)。

死蛇驚出草

日炙風吹草裏埋。觸他毒氣又還乖。暗地忽然開死口。長安依舊絕人來(芙蓉楷)。

金鞭遙指玉堂寒。驚起將軍夜出關。三尺鎊鎗清四海。攬旗一掃絕癡頑(自得暉)。

死蛇打殺露霜牙。無底籃盛臭莫加。既是善呼須善遣。觸他毒氣喪渾家(古德)。

解針枯骨吟

死中得活是非常。密用還他別有長。半夜觸髅吟一曲。冰河發焰却清涼(芙蓉楷)。

宮漏沈沈夜色深。燈殘火盡絕知音。木人位轉玉繩曉。石女夢回霜滿襟(自得暉)。

功齊神聖旨何深。豈使膏肓便陸沈。父子不傳真秘訣。解針枯骨作龍吟(古德)。

鐵鋸舞三臺

不落宮商調。誰人和一場。伯牙何所措。此曲舊來長(芙蓉楷)。

鐵牛無角臥山坡。鞭起如飛見也麼。鬧市橫騎人不識。擡頭鷄子過新羅(自得暉)。

乾闥婆王鼓似雷。靈山獻樂未曾回。海波洶湧須彌震。何妨鐵鋸舞三臺(古德)。

今古無間(諸家語錄中。不見有此題。獨芙蓉有之)

一法元無萬法空。箇中那許悟圓通。將謂少林消息斷。桃花依舊笑春風。

古德立小五位

大功纔轉。借位誕生。

擔荷頓忘。初至一色。是得尊貴氣分者也。故名誕生王子。

一色若消。方名尊貴。

一色若消。正尊貴之位也。但猶守尊貴。則亦是兒孫邊事。所以古德云。須知尊貴之人。不守尊貴之位。

暗中移足。鶴出銀籠。

此不守尊貴。正當轉位時。同安察云。涅槃城裏尚猶危。故須轉也。

回機入俗。月鋪金地。

此正垂手接人之事。同安察云。披毛戴角入[廓-享+墨]來。優鉢羅花裏開。是也。

天童覺四轉靈機

未轉靈機。了忘擔荷。

此正轉大功而至一色。但坐在一色中。所謂月巢鶴作千年夢。雪屋人迷一色功也。

機雖轉紐。印未成文。

一色既消。如機轉紐。但尚守尊貴。機用亦未全彰也。

靈機密運。印已成文。

位裏轉身。從正出偏。文彩全彰。應用無闕者也。

寶印當空。迴超文彩。

此乃通身無影。應用無迹。不可得而思議也。

天童覺三一色

一色者。由轉功就位。證一片清虛境界。乃法身初立也。此中分三。大功一色者。由功力成就。猶存功力也。正位一色者。理境之空寂也。今時一色者。事境之潔白也。

大功一色頌

白牛雪裏覓無蹤。功盡超然體浩融。月影蘆花天未曉。靈苗任運剪春風。

正位一色頌

無影林中鳥不棲。空堦密密向邊啼。寒巖芳草何曾綠。正坐堂堂失路迷。

今時一色頌

觸髓識盡勿多般。狗口纔開落二三。日用光中須急薦。青山祇在白雲間。

天童覺四借

借功明位

蘋末風休夜未央。水天虛碧共秋光。月船不犯東西岸。須信篙工用意良。

借位明功

六戶虛通路不迷。太陽影裏不當機。縱橫妙展無私化。恰恰行從鳥道歸。

不借借(即兼至位上說)

吃盡甘辛百草頭。鼻無繩索得優游。不知有去成知有。始信南泉喚作牛。

全超不借借(即兼到位上說)

霜重風嚴景寂寥。玉關金鎖手慵敲。寒松盡夜無虛籟。老鶴移棲空月巢。

自得暉五轉位

匣內青蛇吼

寶劍橫斜天未曉。洗清魔佛逼人寒。匣中隱隱生光處。衲子徒將正眼看。

金針去復來

清虛大道長安路。往復何曾有間然。暗去明來鋒不露。渠儂初不墮中邊。

秦宮炤膽寒

巖房閭寂冷如冰。妙得冥符處處靈。轉側無依功就位。回頭失却楚王城。

午天銀燭輝

午天皎皎玉輪孤。一點光明分鑑湖。閒步却來遊幻海。十方沙界大毗盧。

深巖藏白額

白額深藏烟霧昏。異中來也自驚羣。草深直下無尋處。觸著輕輕禍到門。

永覺和尚廣錄卷第二十七

洞上古轍下

先德微言

師家作用。本無定軌。然古人必立之綱宗者何。正如走盤之珠。雖宛轉橫斜。莫可方擬。然必不可出於盤也。今自藥山以降。凡有發明綱宗者。錄之以為後學式。

藥山惟儼禪師。僧問。學人擬歸鄉時如何。師曰。汝父母徧身紅爛。臥在荊棘林中。汝歸何所。曰恁麼。則不歸去也。師曰。汝須歸去。汝若歸去。我示汝箇休糧方子。曰便請。師曰。二時上堂。不得咬破一粒米。問雲巖作甚麼。巖曰。擔屎。師曰。那箇甕。曰在。師曰。汝來去為誰。曰替他東西。師曰。何不教並行。曰和尚莫謗他。師曰。不合恁麼道。曰如何道。師曰。還曾擔麼。遵布衲浴佛。師曰。這箇從汝浴。還浴得那箇麼。遵曰。把將那箇來。師便休。

眾中喚作兼帶語。

李翱太守問。如何是戒定慧。師曰。貧道這裏無閒家具。守莫測玄旨。師乃曰。太守欲保任此事。直須向高高山頂立。深深海底行。閨閣中物捨不得。便為滲漏。道吾山宗智禪師。離藥山。見南泉。泉問。闍黎名什麼。師曰。宗智。泉曰。智不到處作麼生宗。師曰。切忌道著。泉曰。灼然道著。即頭角生。三日後。師與雲巖。在後架把針。泉見。乃問。智頭陀。前日道。智不到處。切忌道著。道著即頭角生。合作麼生行履。師即抽身入僧堂。泉便歸方丈。師又來把針。巖曰。師弟適來為什不抵對和尚。師曰。你不妨靈利。巖不薦。却問南泉。適來智頭陀為甚不抵對和尚。泉曰。他却是異類中行。

投子頌曰。金剛際下古髑髏。幾被人踏血濺空。明月任從君自掬。寒松那棄白雲封。

丹霞頌曰。饑飡嫩草遙山去。渴飲清泉曲澗回。放蕩不耕空劫地。暮天何用牧歌催。

巖曰。如何是異類中行。泉曰。不見道。智不到處切忌道著。道著即頭角生。直須向異類中行。巖亦不會。師知巖因緣不在此。却同回藥山。山曰。汝回何速。巖曰。只為因緣不契。山曰。有何因緣。巖舉前話。山曰。子作麼生會。巖無對。山乃大笑。巖便問。

如何是異類中行。山曰。吾今日困倦。且待別時來。巖曰。某甲特為此事歸來。山曰。且去。巖便出。師在方丈外。聞巖不薦。不覺齧得指頭血出。師却下來問巖。師兄去問和尚。那因緣作麼生。巖曰。和尚不與某甲說。師便低頭。

吾觀藥山南泉二老。如水合水。豈有二家之異。異自後人也。異自後人。而吾道衰矣。

為山問師。什處去來。師曰。看病來。山曰。有幾人病。師曰。有病者。有不病者。山曰。不病者。莫是智頭陀麼。師曰。病與不病。總不干他事。速道速道。山曰。道得也與他沒交涉。

天童頌曰。妙藥何曾過口。神醫莫能捉手。若存也。渠本非無。至虛也。渠本非有。不滅而生。不亡而壽。全超威音之前。獨步劫空之後。成平也。天蓋地擎。運轉也。烏飛兔走。

雲巖曇晟禪師掃地次。道吾曰。太區區生。師曰。須知有不區區者。吾曰。恁麼則有第二月也。師豎起掃帚曰。是第幾月。吾便行。玄沙下語云。正是第二月。

問僧什處來。曰石上語話來。師曰。石還點頭也無。僧無對。師自代曰。未語話時却點頭。

尼僧禮拜。師問汝爺在否。曰在。師曰。年多少。曰年八十。師曰。汝有箇爺。不年八十。還知否。曰莫是恁麼來者。師曰。恁麼來者。猶是兒孫。洞山云。直是不恁麼來者。亦是兒孫。

院主遊石室回。師問。汝去到石室裏許。為甚麼便回。主無語。洞山代云。彼中已有人占了也。師曰。汝更去作麼。山曰。不可人情斷絕去也。

天童拈曰。低頭失却針。開眼拾得線。線無頭而莫度。針無穴以難穿。到這裏鸞膠續絃。須是洞山始得。

僧問。二十年侍百丈巾瓶。為甚心燈不續。師云。頭戴寶花冠。僧云。頭戴寶花冠。意旨如何。師云。大唐天子及冥王。後僧問九峯。大唐天子及冥王。意旨如何。峯云。却憶洞上之言。

船子德誠禪師。夾山往參。師問。大德住什麼寺。山曰。寺即不住。住即不似。師曰。不似。似箇什麼。山曰。不是目前法。師曰。什處學得來。山曰。非耳目之所到。師曰。一句合頭語。萬劫繫驢橛。師又問。垂絲千尺。意在深潭。離鈎三寸。子何不道。山擬開口。被師一橈打落水中。山纔上。師又曰。道道。山擬開口。師又打。山豁然大悟。乃點頭三下。師曰。竿頭絲線從君弄。不犯清波意自殊。山遂問。拋綸擲釣。師意如何。師曰。絲懸淥水浮。定有無之意。山曰。語帶玄而無路。舌頭談而不談。師曰。釣盡江波。金鱗始遇。山乃掩耳。師曰。如是如是。遂囑曰。汝向去。直須藏身處沒蹤跡。沒蹤跡處莫藏身。吾三十年在藥山。祇明斯事。

汝今已得。他後莫住城隍聚落。但向深山裏鑿頭邊。覓取一箇半箇
接續。毋令斷絕。山乃辭行。頻頻回顧。師遂喚闍黎。山乃回首。
師豎起橈子曰。汝將謂別有。乃覆舟入水而逝。

投子頌曰。泛舟駕險三十春。擊處竿頭活死人。夾嶺桂芬千古
韻。朗江山翠萬重新。

百巖明哲禪師。洞山與密師伯往參。師問。二上座甚處來。山曰。
湖南。師曰。觀察使姓什麼。曰不得姓。師曰。名什麼。曰不得
名。師曰。還治事也無。曰自有郎幕在。師曰。還出入也無。曰不
出入。師曰。豈不出入。山拂袖便出。師次早上堂。召二上座曰。
昨日闍黎對老僧一轉語。不相契。一夜不安。今請闍黎別下一轉
語。若愜老僧意。便開粥相伴過夏。山曰。請和尚問。師曰。豈不
出入。山曰。太尊貴生。師乃開粥同過夏。

天童拈曰。主張門戶。自有傍來。拱默威嚴。誰敢正視。借功施
設。轉位提持。全成左右分權。不犯尊貴一路。還知尊貴處麼。
寶殿無人不侍立。不種梧桐免鳳來。

丹霞頌曰。燭香人靜杳無聲。苔滿丹墀皓月明。入戶當堂慵正
坐。出門猶懶下階行。

洞山良价禪師。因供養雲巖真。僧問。先師道。只這是。莫便是
否。師曰。是。曰意旨如何。師曰。當時幾錯會先師意。曰未審先
師還知有也無。師曰。若不知有。爭解恁麼道。若知有。爭肯恁麼
道。長慶云。既知有。為甚又恁麼道。又云。養子方知父慈。

天童頌曰。爭解恁麼道。五更鷄唱家林曉。爭肯恁麼道。千年鶴
宿雲松老。寶鑑澄明驗正偏。玉璣轉側看兼到。門風大振兮規步
綿綿。父子變通兮聲光浩浩。

僧問。寒暑到來。如何迴避。師曰。何不向無寒暑處去。曰如何是
無寒暑處。師曰。寒時寒殺闍黎。熱時熱殺闍黎。

偏正回互之旨。於此最顯。昔遠錄公命十六題。與投子青頌。此
其一也。

雪竇頌曰。垂手還同萬仞崖。正偏何必在安排。瑠璃古殿照明
月。忍俊韓獹空上階。

問僧什處來。曰遊山來。師曰。還到頂也未。曰到。師曰。頂上有
人麼。曰無人。師曰。恁麼則不到頂也。曰若不到頂怎知無人。師
曰。何不且住。曰某甲不辭住。西天有人不肯。師曰。我從來疑著
這漢。

僧問。蛇吞蝦蟇。救則是。不救則是。師曰。救則雙目不覩。不救
則形影不彰。

上堂云。有一人在千人萬人中。不背一人。不向一人。你道此人具
何面目。雲居出曰。某甲參堂去。

問師尋常教學人行鳥道。未審如何是鳥道。師曰。不逢一人。曰如何行。師曰。直須足下無私去。曰祇如行鳥道。莫便是本來面目否。師曰。闍黎因什認奴作郎。曰如何是本來面目。師曰。不行鳥道。

問三身中。阿那身不墮眾數。師曰。吾嘗於此切。僧問曹山。先師道吾嘗於此切。意作麼生。山曰。要頭便砍去。又問雪峯。峯以拄杖劈口打云。我亦曾到洞山來。

天童頌曰。不入世。未循緣。劫壺空處有家傳。白蘋風細秋江暮。古岸船歸一帶烟。

問。和尚初見南泉。為什麼與雲巖設齋。師曰。我不重先師道德佛法。只重他不與我說破。曰和尚為先師設齋。還肯先師也無。師曰。半肯半不肯。曰為什麼不全肯。師曰。若全肯。即辜負先師也。

僧問。如何是青山白雲父。師曰。不森森者是。曰如何是白雲青山兒。師曰。不辨東西者是。曰如何是白雲終日倚。師曰。去離不得。曰如何是青山總不知。師曰。不顧視者是。

疎山問。一切處不乖時如何。師曰。此是功勳邊事。幸有無功之功。子何不問。山曰。無功之功。豈不是那邊人。師曰。大有人笑子恁麼問。山曰。恁麼則迢然去也。師曰。迢然非迢然。山曰。如何是迢然。師曰。喚作那邊人即不得。山曰。如何是非迢然。師曰。無辨處。

師一日問雪峯作什麼來。峯曰。斫槽來。師云。幾斧斫成。峯云。一斧斫成。師云。猶是這邊事。那邊事作麼生。峯云。直得無下手處。師云。猶是這邊事。那邊事作麼生。峯休去。汾陽昭代云。某甲蚤是困也。

師與密師伯過水次。乃問曰。過水事作麼生。伯曰。不濕脚。師曰。老老大大作這箇語話。伯曰。你作麼生道。師曰。脚不濕。師與雲居過水次。問曰。水深多少。居曰。不濕。師曰。羸人。居曰。請和尚道。師曰。不乾。

青林一日辭師。師云。子向什麼處去。林云。金輪不隱的。徧界絕紅塵。師云。善自保任。林珍重而出。師門送。謂林云。恁麼去一句。作麼生道。林云。步步踏紅塵。通身無影像。師良久。林云。老和尚何不速道。師云。子得恁麼性急。林云。某甲罪過。便禮辭而去。

華嚴靜問師。學人無箇理路。未免情識運為。師云。汝還見有理路也無。嚴云。見無理路。師云。什麼處得情識來。嚴云。學人實問。師云。恁麼則直須向萬里無寸草處去。嚴云。萬里無寸草處。還許學人去也無。師云。直須恁麼去。

上堂云。還有不報四恩三有者麼。眾無對。師云。若不體此意。何超始終之患。直須心心不觸物。步步無處所。常無間斷。始得相應。直須努力。莫閒過日。

有僧不安要見師。師遂往。僧云。和尚何不救取人家男女。師云。你是什麼人家男女。僧云。某甲是大闡提人家男女。師良久。僧云。四山相逼時如何。師云。老僧日前也向人家屋簷下過來。僧云。回互不回互。師云。不回互。僧云。教某甲甚處去。師云。粟畚裏去。僧噓一聲云。珍重。便坐脫。師以拄杖敲頭三下。云汝祇解與麼去。不解與麼來。

師不安。僧問。和尚病。還有不病者麼。師云。有。僧云。不病者還看和尚否。師云。老僧看他有分。僧云。和尚看他時如何。師云。則不見有病。

天童頌云。卸却臭皮袋。拈轉赤肉團。當頭鼻孔正。直下觸體乾。老醫不見從來癖。少子相看向近難。野水瘦時秋潦退。白雲斷處舊山寒。須勦絕。莫瞞預。轉盡無依功就位。孤標不與汝同盤。

雪峯在洞山作典座。一日淘米次。師問。淘沙去米。淘米去沙。峯云。沙米一時去。師云。大眾吃箇什麼。峯便覆却盆。師云。子他後別見人去在。

天童拈云。雪峯祇管步步登高。不覺草鞋根斷。若也正偏宛轉。敲唱俱行。自是言氣相合。父子相投。且道洞山不肯雪峯。意在什麼處。萬里無雲天有過。碧潭似鏡月難來。

師將圓寂。謂眾曰。吾有閒名在世。誰人為吾除得。眾無對。沙彌出曰。請和尚法號。師曰。吾閒名已謝。雲居云。若有閒名。非吾先師。曹山云。從古至今。無人辨得。

洞山立兼中到。正明此旨。所謂折合還歸炭裏坐也。雲居云。若有閒名。非吾先師。曹山云。從古至今。無人辨得。果是入室之子。此非特洞山有之。昔南院問風穴曰。汝聞臨濟將終時語不。穴曰。聞之。院曰。臨濟曰。誰知吾正法眼藏。向這瞎驢邊滅却。渠生平如師子。見人即殺。及其將死。如何乃低頭妥尾如此。穴曰。密付將終。全生即滅。院又曰。三聖如何亦無語乎。穴曰。親承入室之真子。不同門外之遊人。院頷之。瑞鹿先得法於天台韶。臨終坐方丈。手結印。謂如晝曰。古人云。騎虎頭。撩虎尾。中央事作麼生。如晝曰。也只是如晝。先曰。汝問我。晝遂問。騎虎頭。撩虎尾。中央事作麼生。先曰。我也弄不出。遂趨寂。今觀三老之意。若合符節。惜後鮮有能知之者。佛法之衰。固不止在今日也。

石霜慶諸禪師。因僧自洞山來。師問。和尚有何言句示徒。僧曰。解夏上堂云。秋初夏末。兄弟或東或西。直須向萬里無寸草處去。良久曰。祇如萬里無寸草處作麼生去。師曰。有人下語不。曰無。師曰。何不道出門便是草。僧回舉似洞山。山曰。此是一千五百人善知識語。明安云。直饒不出門。亦是草漫漫。

丹霞頌曰。歸家不坐白雲床。出戶豈行青草地。南北東西本自由。渠無背向那迴避。

天童頌曰。草漫漫。門裏門外君自看。荊棘林中下脚易。夜明簾外轉身難。看看幾何般。且隨老木同寒瘡。將逐春風入燒瘢。師在方丈內。僧在窗外。問。咫尺之間。為什麼不覩師顏。師曰。徧界不曾藏。後僧請益雪峯。峯曰。何處不是石霜。師聞曰。這老漢著什麼死急。峯聞曰。老僧罪過。

天童拈云。石霜雪峯。相去多少。直是千里萬里。若有人問長蘆。徧界不曾藏。意旨如何。向道什麼處是石霜。僧問。三千里外。遠聞石霜有箇不顧。師曰是。曰祇如萬象歷然。是顧不顧。師曰。我道不驚眾。曰不驚眾。是與萬象合。如何是不顧。師曰。徧界不曾藏。

疎山仁參。問如何是頭。師曰。直須知有。曰如何是尾。師曰。盡却今時。曰有頭無尾時如何。師曰。吐得黃金。堪作什麼。曰有尾無頭時如何。師曰。猶有依倚在。曰頭尾相稱時如何。師曰。渠不作箇解會。亦未許渠在。雲蓋問師。萬戶俱開即不問。萬戶俱閉時如何。師云。堂中事作麼生。蓋無對。經半年。方道得云。無人接得渠。師云。道則太煞道。只道得八成。蓋云。和尚又作麼生。師云。無人識得渠。

天童拈云。穩密田地。忌墮功勳。貼體布衫。會須脫却。宗中辨的。量外轉機。須仔細始得。同中之異。灼然尚帶依稀。異中之異。直是難臻妙極。還到石霜父子轉側處麼。燭曉玉人初破夢。夜寒青女未登機。

投子頌曰。古殿巖開月鎖松。霜凝雪露韻無窮。星前人臥千峯室。佛祖無因識得渠。

神山僧密禪師。因把針次。洞山問。作什麼。師曰。把針。洞曰。把針事作麼生。師曰。針針相似。洞曰。二十年同行。作這箇語話。豈有與麼工夫。師曰。長老又作麼生。洞曰。如大地火發底道理。他日問洞山。智識所通。莫不遊踐。徑截處乞師一言。洞曰。師伯意何得取功。師因斯頓覺。下語非常。

西園和尚。一日自燒浴。僧問。和尚何不使沙彌童行。園撫掌三下。僧舉似曹山。山云。一等是箇撫掌拍手。就中西園奇怪。俱抵一指頭禪。蓋為承當處不諦當。僧却問。西園撫掌。豈不是奴兒婢

子邊事。山云是。僧云。向上更有事也無。山云。有。僧云。如何是向上事。山咄云。這奴兒婢子。

天童拈云。識尊卑。知貴賤。西園是作家。分玉石。辨金鎗。曹山不出世。這僧雖解切磋琢磨。也只向奴兒婢子邊著倒。還知麼。放曠淋漓兩不傷。猶是夜明簾外客。

夾山善會禪師。因洛浦來見。不禮拜。當面叉手而立。師曰。鷄棲鳳巢。非其同類。出去。洛曰。自遠趨風。請師一接。師曰。目前無闍黎。此間無老僧。洛便喝。師曰。住住。且莫草草忽忽。雲月是同。谿山各異。截斷天下人舌頭即不無。爭教無舌人解語。洛佇思。師便打。洛因茲服膺。興化代云。但知作佛。莫愁眾生。

洛浦墮在孤危。故不知轉身一路。興化代云。但知作佛。莫愁眾生。正好連棒打出。豈不知夾山是逢佛殺佛底人。

天童頌云。搖頭擺尾赤稍鱗。徹底無依解轉身。截斷舌頭饒有術。拽回鼻孔妙通神。夜月簾外兮風月如畫。枯木巖前兮花卉長春。無舌人。無舌人。正令全提一句親。獨步寰中明了了。任從天下樂欣欣。

上堂云。明不越戶。穴不棲巢。目不顧他位裏。足不踏他位裏。六戶不掩。四衢無蹤。學不停午。意不立玄。千劫眼不借舌頭底。萬劫舌頭不顧眼中明。峻機不假鋒鋌。事到這裏。有箇什麼事。竿頭絲線從君弄。不犯清波意自殊。

丹霞頌云。月沈碧海龍非隱。霧鎖蒼梧鳳不知。劫外森森無影木。垂陰自有未萌枝。

僧到參。師問。近離甚處。僧云。洞山。師云。洞山有何言句。僧云。和尚道我有三路接人。師云。有何三路。僧云。鳥道。玄路。展手。師云。實有此三路那。僧云。是。師云。軌持千里鉢。林下道人悲。

黃山輪參。師云。什處來。輪云。閩中來。師云。還識老僧麼。輪云。和尚還識學人麼。師云。不然。子且還老僧草鞋錢了。然後老僧還汝廬陵米價。輪云。恁麼則不識和尚。未審廬陵米作麼生價。師云。真獅子兒。善獅子吼。

丹霞頌云。父子相逢眼倍明。靈苗叢裏坦然行。箇中若謂金毛子。已是鹽梅觸大羹。

曹山本寂禪師。僧問。五位對賓時如何。師曰。汝即今問那箇位。曰某甲從偏位來。請師向正位中接。師曰。不接。曰為什麼不接。師曰。恐落偏位中去。師却問僧。祇如不接。是對賓不是對賓。曰早是對賓了也。師曰。如是如是。

丹霞頌曰。月中玉兔夜懷胎。日裏金烏朝抱卵。黑漆崑崙踏雪行。轉身打破瑠璃碗。

金峯志蓋屋來。師問。蓋了未。志曰。這邊則了。師曰。那邊事作麼生。志曰。候下工日白和尚。師曰。如是如是。問。子歸就父。為什父全不顧。師曰。理合如是。曰父子之恩何在。師曰。始成父子之恩。曰如何是父子之恩。師曰。刀斧斫不開。

天童拈云。翡翠簾垂。絲綸未降。紫羅帳合。視聽難通。纔動毛頭。月昇夜戶。密移一步。鶴出銀籠。還知麼。脫身一色無遺影。不坐同風落大功。

紙衣道者來參。師問。莫是紙衣道者否。者曰。不敢。師曰。如何是紙衣下事。者曰。一裘纔挂體。萬法悉皆如。師曰。如何是紙衣下用。者近前應諾。便立脫。師曰。汝祇解恁麼去。不解恁麼來。者忽開眼問曰。一靈真性。不假胞胎時如何。師曰。未是妙。者曰。如何是妙。師曰。不借借。者珍重便化。師示頌曰。覺性圓明無相身。莫將知見妄疎親。念異便於玄體味。心差不與道為鄰。情分萬法沈前境。識鑿多端喪本真。如是句中全曉會。了然無事昔時人。

紙衣道者。不假胞胎。正是借句。正是妄疎親。所以曹山示不借借三字。後示頌。全明不借借也。

問強上座曰。佛真法身。猶若虛空。應物現形。如水中月。作麼生說箇應底道理。曰如驢覷井。師曰。道則太煞道。祇道得八成。曰和尚又如何。師曰。如井覷驢。

問。如何是師子。師曰。眾獸近不得。曰。如何是師子兒。師曰。能吞父母者。曰既是眾獸近不得。為什麼却被兒吞。師曰。豈不見道。子若哮吼。父母俱盡。曰盡後如何。師曰。全身歸父。曰未審盡時。父歸何所。師曰。所亦盡。曰前來為什麼道全身歸父。師曰。譬如王子。能成一國之事。

雲門問。如何是沙門行。師曰。喫常住苗稼者是。曰便恁麼去時如何。師曰。你還畜得麼。曰畜得。師曰。你作麼生畜。曰著衣喫飯。有什麼難。師曰。何不道披毛戴角。門便禮拜。

昔雲門初見雪峯。是什麼氣槩。乃能俯就雪峯鉗鎚。及雪峯遷化。復徧參洞下諸尊宿。如曹山。疎山乾峯。九峯。皆有因緣。今此一則語。是知大人行徑決非鹵莽。彼執一槩以自高者。視此蓋天淵矣。又安能到古人田地耶。

又問。密密處。為什麼不知有。山云。只為密密。所以不知有。門云。此人如何親近。師云。莫向密密處親近。門云。不向密密處如何。師云。始解親近。門云。諾諾。

昔陸亘大夫。問南泉姓什麼。泉曰。姓王。曰王還有眷屬也無。泉曰。四臣不昧。曰王居何位。泉曰。玉殿苔生。後僧舉問師。玉殿苔生。意旨如何。師曰。不居正位。曰八方來朝時如何。師曰。他

不受禮。曰何用來朝。師曰。違則斬。曰違是臣分上。未審君意如何。師曰。樞密不得旨。曰恁麼。則燮理之功。全歸臣相也。師曰。你還知君意麼。曰外方不敢論量。師曰。如是如是。

又南泉答長沙偈曰。還鄉盡是兒孫事。祖父從來不出門。是知君臣父子之說。並見於南泉。非洞山石霜始立也。後人分疆列界。殊覺可耻。

師一日入僧堂向火。有僧云。今日好寒。師云。須知有不寒者。僧云。誰是不寒者。師策火示之。僧云。莫道無人好。師拋下火。僧云。某甲到這裏却不會。師云。日照寒潭明更明。

師問僧作什麼。僧云。掃地。師云。佛前掃。佛後掃。僧云。前後一時掃。師云。與曹山過鞞鞋來。

示眾曰。僧家在此等衣線下。須會通向上事。莫作等閒。若也承當處分明。即轉得他諸聖向自己背後。方得自由。若也轉不得。直饒學得十成。却須向他背後叉手。說什麼大話。若轉得。則一切羶重境來。皆作得主宰。假如泥裏倒地。亦作得主宰。如有僧問藥山曰。三乘教中。還有祖意也無。答曰。有。曰既有。達磨又來作麼。答曰。只為有。所以來。豈非作得主宰。轉得歸自己背後乎。如經云。大通智勝佛。十劫坐道場。佛法不現前。不得成佛道。言劫者滯也。謂之十成。亦曰斷滲漏。只是十道頭絕矣。不忘大果。守住耽著。名為取次承當事。到此直須仔細始得。不論天堂。地獄。餓鬼。畜生。但是一切處不移易。元是舊時人。只是不行舊時路。若有忻心。便成滯著。若脫得。揀箇什麼。古德云。只恐不得迴轉。汝道作麼生。只如今人愛說淨潔處。愛說向去事。此病最難治。若是世間羶重事。却是輕。淨潔病最重。只如佛味祖味。盡為滯著。先師曰。擬心是犯戒。得味是破齋。且喚什麼作味。只是佛味祖味。纔有忻心。便是犯戒。如今說破齋破戒。不知三羯磨時。早破了也。若是貪瞋癡。雖難斷。却是輕。無為無事淨潔。此乃重。無以加也。祖師出世。亦只為這箇。亦不獨為汝今時。莫作等閒。鰲奴白牯。修行却快。不是有禪有道。如汝種種馳求。覓佛覓祖。乃至菩提涅槃。幾時休歇成辦乎。皆是生滅心。所以不如鰲奴白牯。兀兀無知。不知佛。不知祖。乃至菩提涅槃。及以善惡因果。但饑來喫草。渴來飲水。若能恁麼。不愁不成辦。不見道計較不成。是以知有。乃能披毛戴角。牽犁拽杷。得此便宜。始較些子。欲知此事。饒令成佛成祖去。也祇這是。便墮三途六道去。也只這是。雖然沒用處。要且離他不得。須與他作主宰始得。若作得主宰。即是不變易。若作主宰不得。便是變易也。不見永嘉云。莽莽蕩蕩招殃禍。問如何是莽莽蕩蕩招殃禍。曰只這箇總是。問曰。如何免得。曰知有即得。用免作麼。但是菩提涅槃煩惱無明等。總

是不要免。乃至世間羸重之事。但知有便得。不要免。免即同變易去也。乃至成佛成祖。菩提涅槃。此等殃禍為不小。因什麼如此。只為變易。若是不變易。直須觸處自由始得。

雲居膺禪師上堂云。得者不輕微。明者不賤用。識者不咨嗟。解者無厭惡。從天降下則貧寒。從地湧出則富貴。門裏出身易。身裏出門難。動則埋身千丈。不動則當處生苗。一言迴脫。獨拔當時。言語不要多。多則無用處。

丹霞頌曰。門頭戶尾事千差。了盡猶來未到家。明月堂前無影木。嚴凝雪夜正開花。

向去底人。須常慘悚戢翼始得。若是知有底人。自解護惜。終不取次。十度發言。九度休去。為什麼如此。恐怕無利益。體得底人。心若臘月扇子。直得口邊醜生。不是強為。任運如此。欲得恁麼事。須是恁麼人。既是恁麼人。不愁恁麼事。若無恁麼人。恁麼事即難得。

尋常見輕浮淺露者。雖世事必無所成。況學道乎。近日禪人競趨浮薄。吾知其自暴棄而已。

一切事。須向這裏及盡。若一毫去不盡。即被塵累。豈況更多。差之毫釐。過犯山嶽。不見古人道。學處不玄。盡是流俗。閨閣中物捨不得。俱為滲漏。直須向這裏及取。及去及來。併盡一切。始得無過。

如人頭頭上了。物物上通。祇喚作了事人。終不喚作尊貴。將知尊貴一路自別。便是世間極重極貴物。不得將去向尊貴邊。須知不可思議。所以古人道。猶如兩鏡相對。光光相照。更無虧盈。豈不是一般。猶喚作影像邊事。又如日出時。照世間明朗。是一半。那一半。喚作什麼。如今人。未認得光影門頭事。將作屋裏事。又爭得。

最初知有底人。於尊貴一路。祇在影像之間。直須一色消盡。方能親證。

欽山邃禪師。良禪客問。一鏃破三關時如何。師云。放出關中主看。良云。恁麼則知過必改。師云。更待何時。良云。好箭放不著所在。便出。師云。且來。闍黎。良回首。師把住云。一鏃破三關。且置。試與欽山發箭看。良擬議。師打七棒云。且聽這漢疑三十年。

天童拈云。山堆嶽積來。瓦解冰消去。則時人知有。與我放出關中主看。且合作麼生。有底道。當時便喝。當時便掌。一期瞎用則得。要且未是關中主在。還體得麼。當堂不正坐。那赴兩頭機。

疎山匡仁禪師上堂。病僧咸通年前會得法身邊事。咸通年後會得法身向上事。雲門出問。如何是法身邊事。師曰。枯椿。曰如何是法身向上事。師曰。非枯椿。曰。還許學人說道理也無。師曰。許。曰枯椿豈不是明法身邊事。師曰。是。曰非枯椿豈不是明法身向上事。師曰。是。曰祇如法身還該一切也無。師曰。法身周徧。豈得不該。門指淨瓶曰。祇如淨瓶。還該法身麼。師曰。闍黎莫向淨瓶邊覓。門便禮拜。

法身決無向上向下。乃是見有親疎。故作是說。

因鼓山舉威音王佛師。師乃問。作麼生是威音王佛師。鼓山曰。莫無慚愧好。師曰。闍黎恁麼道即得。若約病僧即不然。鼓山曰。作麼生是威音王佛師。師曰。不坐無貴位。

靈泉問。枯木生花。始與他合。是這邊句。是那邊句。師曰。亦是這邊句。泉曰。如何是那邊句。師曰。石牛吐出三春霧。靈雀不棲無影林。

枯木生花。正是這邊功勳邊事。石牛吐霧二句。是那邊回來發用。所謂無功之功也。

丹霞頌云。滄海無風波浪平。烟收水色虛含月。寒光一帶望何窮。誰辨箇中龍退骨。

青林師虔禪師。僧問。學人徑往時如何。師曰。死蛇當大路。勸子莫當頭。曰當頭者如何。師曰。喪子命根。曰不當頭者如何。師曰。亦無回避處。曰正當恁麼時如何。師曰。失却了也。曰向什麼處去。師曰。草深無覓處。曰和尚也須隄防始得。師拊掌曰。一等是箇毒氣。

丹霞頌云。長江澄徹映蟾華。滿目清光未是家。借問漁舟何處去。夜深依舊宿蘆花。

天童頌曰。三老暗轉柁。孤舟夜回頭。蘆花兩岸雪。烟水一江秋。風力持帆行不棹。笛聲喚月下滄洲。

華嚴休靜禪師。一日白槌曰。上間搬柴。下間鋤地。首座問。聖僧作什麼。師曰。當堂不正坐。那赴兩頭機。

乾峯和尚上堂。法身有三種病。二種光。須是一一透得。始解歸家穩坐。須知更有向上一竅在。雲門出問。庵內人。為什麼不知庵外事。師呵呵大笑。門曰。猶是學人疑處。師曰。子是什麼心行。門曰。也要和尚相委。師曰。直須恁麼。始解穩坐。門應諾諾。

示眾云。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雲門出眾云。昨日有人從天台來。却往徑山去。師云。來日不得普請。便下座。

天童拈云。坐斷十方。千差路絕。放開一線。萬派朝宗。二尊宿開拓家風。方見衲僧去就。還端的麼。太平天子寰中旨。汗馬將軍塞外心。

寶蓋和尚。僧問。世界壞時。此物何處去。師曰。千聖尋不得。曰。時人如何歸向。師曰。直須似他去。曰。還有的當也無。師曰。不立標則。

九峯通玄禪師。示弟子曰。佛意祖意。如手展握。先師安立五位。發明雲巖宗旨。譬如神醫治病。其藥只是尋常用者。語忌十成。不欲斷絕。機忌觸犯。不欲染污。但學者機思不妙。唯尋九轉靈丹。云能起死。是大不然。法華經中。有化城一品。佛祖密說。熟讀分明。大通智勝佛。坐道場。破魔軍已。垂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而諸佛法不現在前。如是一小劫。乃至十小劫。結加趺坐。身心不動。而諸佛法。猶不在前。言垂得者。言一小劫。言十小劫者。是染污。是斷絕。又曰。大通智勝佛。過十小劫。諸佛之法。乃現在前。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言過十小劫者。偏正回互之旨也。祖師曰。藉教悟宗。夫豈不然哉。

九峯玄初參德山。山獨奇之。然未大徹。後見洞山契旨。洞山云。掌有神珠。白晝示人。人且按劍。況玄夜乎。子可貴也。師曰。但不識珠者耳。識之。亦無晝夜。价稱之為俊士。价歿。廬於塔旁。至中和初。乃辭塔北遊。余觀其師資始末之間。不可謂不深得其旨者也。此段語。諸錄俱略之。惟覺範載之僧寶傳中。語忌十成。不欲斷絕。機忌觸犯。不欲染污。發明師意。語簡而盡。引經證成。本出寶鏡三昧。曹山亦有發明。與此若有少異。觀者詳之。

九峯道虔禪師。因石霜歸寂。眾請首座繼住持。師曰。須明得先師意始可。座曰。先師有什麼意。師曰。先師道。休去歇去。冷湫湫地去。一念萬年去。一條白練去。其餘即不問。如何是一條白練去。座曰。這箇祇是明一色邊事。師曰。元來未會先師意在。座曰。你不肯我那。但裝香來。香烟斷處。若去不得。即不會先師意。遂焚香。香烟未斷。座已脫去。師拊背曰。坐脫立亡即不無。先師意未夢見在。

天童頌曰。石霜一宗。親傳九峯。香烟脫去。正脉難通。月巢鶴作千年夢。雪屋人迷一色功。坐斷十方猶點額。密移一步看飛龍。

問。承古有言。向外紹則臣位。向內紹則王種。是否。師曰。是。曰。如何是外紹。師曰。若不知事極頭。祇得了事。喚作外紹。是為臣種。曰。如何是內紹。師曰。知向裏許。承當擔荷。是為內紹。曰。如何是王種。師曰。須見無承當底人。無擔荷底人。始得同一色。同一色了。所以借為誕生。是為王種。曰。怎麼。則內紹亦須得轉。師曰。灼然有承當擔荷。爭得不轉。汝道內紹。便是人王種。你且道如今還有紹底道理麼。所以古人道。紹是功。紹了非是功。轉功

就位了。始喚作人王種。曰未審外紹還轉也無。師曰。外紹全未知有。且教渠知有。曰如何是知有。師曰。天明不覺曉。問。如何是外紹。師曰。不借別人家裏事。曰如何是內紹。師曰。推爺向裏頭。曰二語之中。那語最親。師曰。臣在門內。王不出門。曰恁麼則不出門者。不落二邊。師曰。渠也不獨坐世界。裏紹王種名。外紹王種姓。所以道。紹是功名。臣是偏中正。紹了轉功名。君是正中偏。

臣在門內。王不出門。俱指推爺向裏頭。此臣乃指王子。非外臣也。裏紹王種名。外紹王種姓者。明石霜立五王子。實有不同。內紹者。只是得其名。外紹者。只是得其姓。必須紹了轉功。方是真王子也。紹是功。乃內紹也。內紹未轉。亦是臣位。總是偏。以其知有。是偏中正。紹了轉功。方是王種。云何名君。以其在儲君位。是正中偏。此與洞山所立不同。

問。誕生還更知聞也無。師曰。更知聞阿誰。曰恁麼則莫便是否。師曰。若是。古人為甚道。誕生王有父。曰既有父。為什麼不知聞。師曰。同時不識祖。

問。古人云。直得不恁麼來者。猶是兒孫。意旨如何。師曰。古人不謾語。曰如何是不恁麼來底兒孫。師曰。猶守珍御在。曰如何是父。師曰。無家可坐。無世可興。

僧問。如何是頭。師曰。開眼不見曉。曰如何是尾。師曰。不坐萬年床。曰有頭無尾時如何。師曰。終是不貴。曰有尾無頭時如何。師曰。雖飽無力。曰頭尾相稱時如何。師曰。兒孫得力。室內不知。

天童頌云。規圓矩方。用行舍藏。鈍置棲蘆之鳥。進退觸藩之羊。喫人家飯。臥自家床。雲騰致雨。露結為霜。玉線相投透針鼻。錦絲不斷吐梭腸。石女機停兮夜色向午。木人路轉兮月影移央。

韶山普禪師。僧問。是非不到處。還有句也無。師云。有。僧云。是什麼句。師曰。一片白雲不露醜。

天童拈云。通身回互。不觸尊嚴。退位傍提。要當宛轉。還見韶山相為處麼。盡力推爺向裏頭。

投子頌曰。白雲不到中峯頂。滿目烟蘿景象殊。一句曲含千古韻。萬重青碧月來初。

涌泉景欣禪師上堂。我四十九年在這裏。尚自有時走作。汝等諸人。莫開大口。見解人多。行解人。萬中無一箇。見解言語。總要知通。若識不盡。敢道輪迴去在。汝但盡却今時。始得成立。亦喚作立中功。轉功就他去。亦喚作就中功。親他去。我所以道。親人不得度。渠不度親人。恁麼譬喻。尚不會薦取。匳圖底。但祇管取

性亂動舌頭。不見洞山道。相續也大難。汝須知有此事。若不知有此事。啼哭有日在。

此盡却今時。正是轉功就位時事。非指最後人兼到位也。
蛤溪道者。相看洛浦。問云。自從梨溪相別。今得幾年。溪云。和尚猶記得昔時事。浦云。見說道者總忘却年月。溪云。和尚住持事繁。且容仔細。浦云。打即打會禪漢。溪云。也不消得。浦云。道者住山事繁。

丹霞頌曰。這般消息不尋常。蟾桂枝枝布遠香。昨夜嫦娥呈巧妙。眼睛直上繡鴛鴦。

雲門偃禪師曰。光不透脫。有兩般病。一切處不明。面前有物。是一。透得一切法空。隱隱地似有箇物相似。亦是光不透脫。又法身亦有兩般病。得到法身。為法執不忘。己見猶存。墮在法身邊。是一。直饒透得。放過即不可。子細點檢將來。有什氣息。亦是病。
石柱該通禪師。遊方到洞山。時虔和尚垂語云。有四種人。一人說過佛祖。一步行不得。一人行過佛祖。一句說不得。一人說得行得。一人說不得行不得。阿那箇是其人。師出眾曰。一人說過佛祖。一步行不得者。祇是無舌不許行。一人行過佛祖。一句說不得者。祇是無足不許說。一人說得行得。祇是函蓋相稱。一人說不得行不得者。如斷命求活。此是石女兒。被枷帶鎖。山曰。闍黎分上作麼生。曰該通分上。卓卓寧彰。山曰。祇如海上明公秀。又作麼生。師曰。幻人相逢。拊掌呵呵。

前二有正無偏。第三有偏無正。第四偏正俱無。故俱非其人也。
卓卓寧彰者。偏不全偏也。海上明公秀。半明半暗。即偏不全偏之相。幻人相逢。拊掌呵呵。正明兼帶語。

丹霞頌曰。水底泥牛耕白月。雲中木馬驟清風。胡僧懶捧西乾鉢。半夜乘舟過海東。

金峰從志禪師。僧問。如何是金峰正主。師曰。此去鎮縣不遙。闍黎莫造次。曰何不道取。師曰。口如磔盤。

護國澄禪師。僧問。如何是本來父母。師云。頭不白者。僧云。將何奉獻。師云。慇懃無米飯。堂前不問親。

丹霞頌曰。出門徧界無知己。入戶盈眸不見親。虛室夜寒何所有。碧天明月頗為隣。

石門獻蘊禪師。在青林作園頭。一日侍立次。林曰。子今日作什麼來。師曰。種菜來。林曰。徧界是佛身。子向什麼處種。師曰。金鋤不動土。靈苗在處生。林欣然。

同安志禪師。在同安。值丕將示寂。上堂曰。多子塔前宗子秀。五老峯前事若何。如是三舉。未有對者。末後師出曰。夜明簾外排班立。萬里歌謠道太平。丕曰。須這驢漢始得。

此洞宗最後之旨也。後人根器劣薄。不知堯舜之無為。侈談湯武之征誅。且將謂堯舜不逮湯武也。哀哉。

僧問。二機不到時如何舉唱。師云。徧處不逢。玄中不失。

丹霞頌曰。這邊那邊總難逢。一句無私不處中。紅日暮沈西嶂外。空留孤影到溪東。

石門慧徹禪師。華嚴隆嘗問曰。古人云。但得隨處安閒。自然合他古轍。雖有此語。疑心未歇。如何。師曰。知有。乃可隨處安閒。如人在州縣住。或聞或見。千奇百怪。他總作尋常。不知有。而安閒。如人在村落住。有少聲色。則驚怪傳說。先洞山示眾曰。欲知此事。如人家養三兒。一著州中。一著縣中。一著村中。其一用家中錢物。其一用外處錢物。有一人不得家中錢物用。亦不得外處錢物用。且道那一箇合在州中。那一箇合在縣中。那一箇合在村中。有僧便問。三人莫明輕重否。曰是。僧曰。如何是縣中人出身處。曰知有却不知有。是此人出身處。僧曰。未審此人從今日去也無。曰亦從今日去。僧曰。恁麼則屬功也。曰是。僧曰。喚作什麼功。曰喚作功就之功。僧曰。此還知有州中人否。曰知有。始解奉重矣。僧曰。恁麼則村中人全明過也。曰是。僧曰。如何是此人過處。曰不知有。喚作閒人。是此人過處。不見先師道。今時學道之人。須知有轉身處始得。隆乃問曰。古人知有。便能如州裏人耶。亦須因奉重而至耶。師為舉功勳五位。復曰。譬如初生鳩兒。毛羽可憐生。久久自能高飛遠蕩。

村中人。不知有者也。縣中人。知有者也。州中人。知有而不知有者也。縣中人初能知有。如用家中錢物。州中人格外施為。如用外處錢物。村中人既不知有。全無機用。故家中外處錢物俱不得用也。

廣德周禪師。僧問。波浪之中。如何得妙。師云。橈棹不施兼底脫。往來終不借浮囊。

丹霞頌云。一句相酬難取則。輪王不化閻浮國。無邊剎海浪痕平。獨駕泥牛耕月色。

谷山緣禪師。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半夜烏龜頭帶雪。天明啞子抱頭歸。

丹霞頌曰。瑞霧祥烟鎖玉樓。妙年王子恣優遊。瑠璃殿上騎金馬。明月堂前鞦繡毬。

梁山緣觀禪師。僧問。家賊難防時如何。師曰。識得不為冤。曰識得後如何。師曰。貶向無生國。曰莫是他安身立命處麼。師曰。死水不藏龍。曰如何是活水龍。師曰。興波不作浪。曰忽然傾湫倒嶽時如何。師下座把住曰。莫教濕却老僧袈裟角。

僧問師。如何是日用中事。師云。碧玉點破瑠璃色。滿目紅塵不見沙。

丹霞頌曰。劫火洞然無相宅。金門不覩御樓家。寶天雲淡銀河冷。浩浩波瀾豈動沙。

僧問。如何是空劫以前事。師云。擊動乾坤鼓。時人聽不聞。

丹霞頌曰。虛空為鼓須彌搥。擊者雖多聽者稀。半夜觸髅驚破夢。滿頭明月不思歸。

大陽警玄禪師。問梁山。如何是無相道場。山指觀音像曰。這箇是吳道子畫底。師擬議。山急索曰。這箇是有相底。如何是無相底。師於言下有省。禮拜起。歸位而立。山曰。何不道取一句。師曰。道即不辭。恐上紙墨。山笑曰。此語上石去在。後果上碑。

審承侍者侍立次。師曰。有一人徧身紅爛。臥在荊棘林中。周匝火圍。若親近得。此人大敞廬開。若親近不得。時中以何為據。承曰。六根不具。七識不全底人。始親近得。師曰。你教伊出來。我要見伊。承曰。適來別無左右。抵對和尚。師曰。官不容針。承便禮拜。

大陽曰。我要見伊。合答云。伊從來不見客。

投子義青禪師上堂。召大眾曰。若論此事。如鸞鳳冲霄。不留其迹。羚羊挂角。那覓乎蹤。金龍不守於寒潭。玉兔豈棲於蟾影。其或主賓若立。須威音世外搖頭。問答言陳。仍玄路傍提為唱。若能如是。猶在半途。更若凝眸。不勞相見。

丹霞頌曰。水澄月滿道人愁。妙盡無依類莫收。劫外正偏兼帶路。不萌枝上辨春秋。

上堂。孤村陋店。莫挂瓶盂。佛祖玄關。橫身直過。早是蘇武出塞。求路難回。項王臨江。何逃困命。諸禪德到這裏。進則落於天魔。退則沈於鬼趣。不進不退。正在死水中。諸仁者。作麼生。得平穩去。良久曰。任從三尺雪。難壓寸靈松。

興陽清剖禪師。在大陽作園頭。種瓜次。陽問。甜瓜何時熟。師曰。即今熟爛了也。曰揀甜底摘來。師曰。與什麼人喫。曰不入園者。師曰。未審不入園者還喫也無。陽曰。汝還識伊麼。師曰。雖然不識。不得不與。大陽笑而去。

僧問。娑竭出海乾坤震。覲面相呈事若何。師曰。金翅鳥王當宇宙。箇中誰是出頭人。曰忽遇出頭時。又作麼生。師曰。似鶻捉鳩君不信。觸髅前驗始知真。曰恁麼則叉手當胸。退身三步也。師曰。須彌座下烏龜子。莫待重遭點額回。

天童頌云。絲綸降。號令分。寰中天子。塞外將軍。不待雷驚出蟄。那知風遏行雲。機底綿聯兮。自有金針玉線。印前恢廓兮。元無鳥篆蟲文。

芙蓉道楷禪師。上堂。喚作一句。已是埋沒宗風。曲為今時通途消耗。所以借功明位。用在體處。借位明功。體在用處。若也體用雙明。如門扇兩開。不得向兩扇上著意。不見新豐老人道。峯巒秀異。鶴不停機。靈木迢然。鳳無依倚。直得功成不處。電火難追。擬議之間。長途萬里。

僧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曰。金鳳夜棲無影樹。峰巒纔露海雲遮。

丹霞頌曰。等閒無問豈安排。一句全提隱顯該。薄霧依依籠古徑。孤峰終不露崔嵬。

僧問師。夜半正明。天曉不露。如何是不露句。師云。滿船空載月。漁父宿蘆花。

丹霞頌曰。星流水國夜燃燈。月印江天明似鏡。隱顯無私位不該。依稀擬動成偏正。

大洪恩禪師。僧問。三玄三要即不問。五位君臣事若何。師曰。非公境界。曰恁麼。則石人拊掌。木女呵呵。師曰。杓卜聽虓聲。熟睡饒譎語。曰若不上來伸此問。焉能得見少林機。師曰。放過即不可。隨後便打。

寶峰闡提惟炤禪師。有法語五則。示其宗旨。以付聰藏主。一曰。曹山立四禁。盡衲僧命脉。透得過。切忌依倚將來。了事人。須別有生機一路。二曰。衲僧向異類中行履。先德道。異類墮。此是了事人病。明安道。須是識主始得。三曰。闡提尋常向人道。不得參禪。不得學佛。只要伊如大死人。只恐聞此語。作無事會。作無法可當情會。正是死不得。若是死得。決不肯作這般見解。他時為人。切宜子細。四曰。吾家立五位為宗。往往人以理事明。以寂照會。以能所見。以體用解。盡落今時。何得名為教外別傳之妙。生死路頭。那箇是得力處。總不恁麼時如何。卜度即不中。五曰。有情故情滲漏。有見故見滲漏。有語故語滲漏。設得無見無情無語。拽住便問他。你是何人。闡提平時不謾許與。而囑累於聰。其任固重。聰必穎然秀出於門弟子之間者。夫何出世福清之天王。不克行道而終。遂致名亦不聞於叢林也。

此五則語。精深圓密。皆先德所未及發者。但惜其嗣弗振。故世鮮能知之。其道。固傳之萬世而無弊者也。

大用齊璉禪師上堂。清虛之理。佛祖同歸。畢竟無身。聖凡一體。理則如是。滿目森羅。事作麼生。纖塵絕際。渠儂有眼。豈在旁窺。官不容針。私通車馬。若到恁麼田地。始可隨機受用。信手拈來。妙應無方。當風玄路。直得金針錦縫。線脚不彰。玉殿寶階。珠簾未卷。正當此時。且道是什麼人境界。古渡秋風寒颯颯。蘆花紅蓼滿江灣。

真歇清了禪師上堂。轉功就位。是向去底人。玉韞荆山貴。轉位就功。是却來底人。紅爐片雪春。功位俱轉。通身不滯。撒手亡依。石女夜登機。密室無人掃。正恁麼時。絕氣息一句作麼生相委。良久云。歸根風墮葉。炤盡月潭空。

問僧。瑠璃殿上玉女攏梭。明什麼邊事。曰回互不當機。師曰。還有斷續也無。曰古今不曾問。師曰。正當不曾問時如何。僧珍重便出。

天童正覺禪師。僧問。清虛之理。畢竟無身時如何。師曰。文彩未痕初。消息難傳際。曰一步密移玄路轉。通身放下劫壺空。師曰。誕生就父時。合體無遺炤。曰理既如斯。事作麼生。師曰。歷歷纔回分化事。十方機應又何妨。曰恁麼。則塵塵俱現本來身也。師曰。透一切色。超一切心。曰如理知事。又作麼生。師曰。路逢死蛇莫打殺。無底籃子盛將歸。曰入市能長嘯。歸家著短衫。師曰。木人嶺上歌。石女溪邊舞。

大死翁景深禪師。初參闡提炤。炤曰。直須斷起滅念。向空劫以前。掃除玄路。不涉正偏。盡却今時。全身放下。放盡還放。方有自由分。師聞頓悟厥旨。炤擊鼓告眾曰。深得闡提大死之道。學者宜依之。因號大死翁。

聞菴嗣宗禪師。僧問。如何是轉功就位。師曰。撒手無依全體現。扁舟漁父宿蘆花。曰如何是轉位就功。師曰。半夜嶺頭風月靜。一聲高樹老猿啼。曰如何是功位齊彰。師曰。出門不踏來時路。滿目飛塵絕點埃。曰如何是功位俱隱。師曰。泥牛飲盡澄潭月。石馬加鞭不點頭。

吉祥元實禪師。一夕有省。曉趨方丈。天衣見乃問。洞山五位。如何話會。師曰。我這裏一位也無。衣令參堂。謂侍者曰。這漢却有箇見處。奈不識宗旨何。入室次。衣預令五人分序而立。師至。俱召上座。師於是密契其旨。述偈曰。一位纔彰五位分。君臣叶處紫雲屯。夜明簾捲無私照。金殿重重顯至尊。天衣稱善。

山堂淳禪師要訣。新豐一脉。荷玉分流。始因過水逢渠。妙見無情說法。當今不觸。展手通玄。列五位正偏。分三種滲漏。夜明簾外。臣退位以朝君。古鏡臺前。子轉身而就父。雪覆萬年松逕。夜半正明。雲遮一帶峯巒。天曉不露。道樞綿密。智域困深。默炤空劫以前。湛湛一壺風月。坐徹威音那畔。澄澄滿目烟光。不萌枝上花開。無影樹頭鳳舞。機絲不挂。箇中雙鎖金針。文彩縱橫。裏許暗穿玉線。雙明唱起交鋒處。知有天然。兼帶忽來枯木上。方能作主。不存正位。那管大功。及盡今時。寧容尊貴。截斷情塵見網。掣開金鎖玄關。妙挾全開。歷歷類中混迹平懷常實。明明炭裏藏

身。卷舒不落功勳。去來了無變易。欲使異苗蕃茂。貴在深固靈根。若非柴石野人。爭見新豐曲子(柴石。即浮山遠別號)。

圓悟勤禪師曰。洞山謂之不變異處。更無佛。無眾生。無是非。無好惡。絕音響蹤跡。所以道。金屑眼中翳。衣珠法上塵。已靈猶不重。佛祖是何人。七穿八穴。神通妙用。不為奇特。到這裏。破衲蒙頭萬事休。此時山僧都不會。

日月運行太虛。未嘗暫止。不道我有許多名相。天普蓋。地普擎。長養萬物。亦不道我有許多功行。得道之人。亦復如是。於無功用中施功用。一切違情順境。皆以慈心攝受。到這裏。古人尚自呵責道。了了了時無可了。玄玄玄處更須呵。

洞下五位。回互正偏。接人不妨奇特。到這向上境界。方能如此。不消安排。自然恰好。浮山遠。以僧問洞山。寒暑到來。如何迴避公案。為五位之格。若會得一則。餘者自知。巖頭道。如水上葫蘆相似。捺著便轉。殊不消絲毫氣力。曾有僧問洞山。文殊普賢來參時如何。山曰。趕向水牯牛隊裏去。僧曰。和尚入地獄如箭。山曰。全得他力。洞山道。何不向無寒暑處去。此是偏中正。僧云。如何是無寒暑處。山云。寒時寒殺闍黎。熱時熱殺闍黎。此是正中偏。雖正却偏。雖偏却正。洞下有石女木馬。無底籃。夜明簾。死蛇等。十八般。皆明正位。

萬松秀禪師曰。睦州云。裂開也在我。捏聚也在我。問裂開。便提起一絡索。問捏聚。便斂手而坐。雖然收放自如。大似被他使喚。洞山斥為話作兩橛。缺針斷線不見道。恁麼道則易。相續也大難。直須當存而正泯。在卷而彌舒。鈎鎖連環。謂之血脉不斷。藥山一宗。實難紹舉。雲巖掃地。塵埃巨天。洛浦服膺。稱冤不已。好在無舌人解語。無手人行棒。直饒棒喝交馳。只得傍提一半。

後序

新豐創立五位。發明正中妙挾之旨。雖僅僅數言。而造道之方。接人之用。靡不畢備。造道則功位互明。而極於功位俱泯。接人則君臣互用。而極於君臣道合。大都剪諸見之稠林。截萬端之穿鑿。必底於閒名謝滅之境而後已。豈比乎儻侗之狂禪。廉纖之曲學。而混濫祖庭哉。但此法宜為知有人說。不宜為不知有人說。以知有人不滯言詮。雖說事說理。總成向上境界。不知有人專滯言詮。雖重玄複妙。總墮今時窠臼。所以闡提炤云。吾家立五位為宗。往往人以理事明。以寂照會。以能所見。以體用解。盡落今時。何得名為教外別傳之妙。生死路頭。那箇是得力處。總不恁麼時如何。卜度即

不中。觀此豈可令門外遊人窺覘於其間哉。古來諸尊宿。俱深秘室中。不敢輕有流布。至宋之末造。始顯行於世。然既非真正師承。各以己意揣摩。指鹿為馬。呼南作北。競相傳習。甚且偽撰諸書。簧鼓後學。後學未達。耽之不已。謂此可以得洞上宗也。不知正如狂子執鳩毒為茶飯。非獨不能療其饑渴。且有傷生滅性之慘。不亦愚乎。癸未之冬。予見少林所傳曹洞宗旨緒餘。謬妄殊甚。因思欲止之而不能。欲正之而弗得。亦將任其謬謬相傳於不窮乎。則予心又安能忍也。乃為作洞上古轍二卷。以私詔學者。甲申春。稿成。而未及訂。至今戊子之夏。乃取前稿。再四訂定。嗚呼。予豈得已哉。昔有僧問大洪恩曰。三玄三要即不問。五位君臣事若何。師曰。非公境界。曰恁麼則石人拊掌。木女呵呵。師曰。杓卜聽虛聲。熟睡饒譎語。曰若不上來伸此問。安能得見少林機。師曰。放過即不可。隨後便打。予謂識得大洪意。方可閱是書。不然。葛藤窠裏。纏絆殺人。切莫怪老僧好。

永覺和尚廣錄卷第二十八

窺言

序曰。虛空世界。一夢場也。三乘四教。一夢法也。諸佛眾生。一夢中人也。夢中之人。據夢場受夢法。又安保其不夢夢乎。故有夢中而言其不夢者。正大夢者也。有夢中而知其為夢者。有夢中而求出乎夢者。均之未離乎夢者也。忽然破夢而出。則夢場夢法。與夢中人一切銷隕。惟此元明圓照自在。本未嘗夢。亦未嘗覺。咄。此亦夢話也。荷山野衲。大夢不醒。狂心未歇。乃作窺言。喋喋不休。旁人聽之頗成倫次。錄而藏之。私相傳習。皆夢事也。客問誰為不夢者。曰這駮漢。又白日作夢去也。

峇崇禎壬申秋菊月題於荷山精舍

道本玄妙。而玄妙不是道。有玄妙可說。則玄妙亦法塵也。道本平常。而平常不是道。有平常可安。則平常亦法塵也。道本無心。而無心不是道。有無心可證。則無心亦法塵也。道本自然。而自然不是道。有自然可宗。則自然亦法塵也。蓋有可說。有可安。有可證。有可宗。則言思未絕。能所不忘。非妄而何。是故智者不作諸見。

世俗以根自是根。塵自是塵。特因相遇而起用者也。我佛則謂根本無根。因塵發根。塵本無塵。因根現塵。正如離明暗二塵。更於何處有見。離動靜一塵。更於何處有聽。是根必因塵發明也。又如木人見花鳥。更於何處有色。木馬聽鼓吹。更於何處有聲。是塵必因根現亦明也。塵既因根。則塵無實體。根既因塵。則根亦無實體。根塵交虛。但妄有因緣。妄起諸用而已。迷者不達。執根塵為實有。是為法執。執根為己。執塵為彼。是謂人執。二執起而美惡生。美惡生而見思起。見思起而業道成。業道成而果報彰矣。智者了達根塵本空。則彼我不計。彼我不計。則美惡不生。美惡不生。則見思消落。見思消落。則常光自圓。常光自圓。則耳可視。眼可聽。六根無不互用。極而言之。則根根塵塵。皆徧法界。又何窒礙之有哉。由是觀之。祇此根塵。迷之則成縛。悟之則成脫。經云。根塵同源。縛脫無二。又曰。知見立知。即無明本。知見無見。斯即涅槃。佛法雖多。數語盡之矣。

佛氏有無二義。與世俗迥別。故世俗少有信者。佛所謂有。必其歷劫常存。不可少損者。謂之有。佛所謂無。必其刻刻不住。不可常存者。謂之無。故佛之所有。天下莫能無。佛之所無。天下莫能

有。乃究竟之實法也。若有質有名謂之有。無質無名謂之無。此世俗之有無也。此有從無而生。亦必復歸於無。則現在雖有。刻刻不住。乃知言有者妄也。此無可因有而得。亦可倏變於有。則現在雖無。刻刻不住。乃知言無者妄也。或謂此有固有。此無亦有。立一切有為宗。或謂此無固無。此有亦無。立一切無為宗。或謂宗有者墮有。宗無者墮無。由是立雙亦以為宗。或立雙非以為宗。或又對此四見。立非四見以為宗。細而分之。凡九十六種。皆外道法也。其病在以見見道。而不知道不可以見見。唯悟入一心。則諸見消滅。諸見消滅。則常光自圓。雖說有也得。說無也得。說亦有亦無也得。說非有非無也得。蓋知有底人。語語歸根。悉順正法。殆非世俗所能測也。

人皆知釋迦是出世底聖人。而不知正入世底聖人。不入世不能出世也。人皆知孔子是入世底聖人。而不知正出世底聖人。不出世不能入世也。

佛氏之學。祇要識得諸法無性。識得諸法無性。則身心器界。以及無邊虛空。悉皆消隕。唯是一心。圓明獨露。不學佛而佛已成。不度生而生已度。若不知諸法無性。則妄生執著。起惑造業。寧有已乎。

問。孟軻謂人之性。與犬羊之性異。然則性有二乎。曰性無二也。曰然則物得其偏。人得其全乎。曰性無偏全也。曰然則人物同乎。曰不變之體。靡不同也。隨緣不用。靡不異也。經云。法身流轉五道是也。

問。孟軻言性善。學禪者多非之。唯東林總公是其說。謂本然之善。不與惡對。是否。曰性體寂滅。不落名言。凡有指注。俱乖本色。非獨孟軻不宜以善稱。即堯舜稱之曰中。大學稱之曰明。中庸稱之曰誠。乃至諸佛稱之曰真如。曰圓覺。詎可以言性哉。至於方便開示。則亦不廢言詮。因其不偏謂之中。因其不昏謂之明。因其不妄謂之誠。因其不妄不變謂之真如。因其統眾德。爍羣昏。謂之圓覺。則因其本然無惡。謂之善。亦何不可。且所謂善者。即所謂中所謂明誠者而善之也。第能知善為權巧設施。則孟軻乃仲尼之徒。若執善為真實法義。則孟軻亦告子之屬矣。

問。老子以虛無為宗。釋氏非之。謂其為無因外道。然嘗聞釋氏之說。乃曰。從無住本。立一切法。又曰。虛空之本。為眾生之原。與老氏何異。曰老氏宗虛無者。頑空也。釋氏言虛空之本。乃謂一切有為之法。無不始於無明。而此無明。實無體性。無所住著。因其實無體性。無所住著。故能隨緣成就諸法。熾然建立。故曰從無住本。立一切法。又曰。虛空之本。為眾生之原。豈老氏虛無自然之義哉。

問。訓詁之學。世間自不可廢。師苦非之。何也。曰訓詁何可非也。非其墮於訓詁。而不知實義者矣。使其知有實義。則訓詁即為神奇。使其不知實義。則雖巧生穿鑿。極意揣摩。皆頭巾習氣也。安足道哉。

儒家謂人物之性。本於天賦。學佛者多非之。不知儒所言天者。非實指天也。乃妄識未參之先。則曰天。人為莫與之日。則曰天。擬議不及之處。則曰天。故文始經曰。不可為。不可致。不可測。不可分。強而名之曰天。曰命。孟氏亦曰。莫之為而為者。天也。莫之致而至者。命也。此善談天命者也。誠如此說。則儒者原性於天。未與佛異。特引而未竟。隱而未發。作方便之權說耳。如書云。維皇上帝。降衷下民。詩云。天生烝民。有物有則等。正所謂妄識未參之先。人為莫與之日。擬議不及之處也。又如他言達天知命。及天意天心等語。俱不出此意。後儒不達厥旨。乃謂有主宰於冥漠之中。以為二氣五行之紐樞者。謂之天命。一切人物。稟之以成形成性焉。夫二氣五行之紐樞。實即吾人之妙心。故曰三界唯心。今捨心外。而謂別有主宰於冥漠之中。則是心外有因。心外有因。我佛闢為外道。以其因在一心之外也。又謂在天為命。合而未分。在人為性。分而非合。是以性為有分合也。氣聚而生。其性始有。氣散而死。其性即滅。是以性為有生滅也。有分合。有生滅。不可以言性。況謂之天命。謂之道乎。此決非儒家之本意也。

周子曰。無極而太極。太極動而生陽。靜而生陰。此數句。宋儒理學之源也。然迷亦自不少。何也。太極之說。老莊指一氣之初名之。則可以言動靜。至宋儒直指道體為太極。則一理渾然而已。豈有動靜哉。或曰。太極無動靜。則不生兩儀乎。曰不動不靜者。太極之體。有動有靜者。太極之用。用依體發。強名曰生。體超於用。實自無生。攝用歸體。生即無生。全體起用。無生而生。所以然者。以陰陽造化。一切如影。非有非無。非無故造化不妨有生滅。非有故實體畢竟永無生也。又陰陽造化。其與實體。非一非二。非一故太極迴超於兩儀。非二故兩儀全即是太極也。

或問。太極圖註曰。太極者。本然之妙。動靜者。所乘之機。又曰。太極無動靜而動靜之者。若如此解釋。似可無過。曰彼以太極為能乘。動靜為所乘。則動靜在太極之外。不得云。太極動太極靜。又云。太極有時乘靜機。有時乘動機。則太極乃一有分量有往來之物矣。非謬而何。且彼謂太極無動靜而動靜之者。謂太極之外。別有一氣。而太極動靜之耶。抑別無一氣。而太極動靜之耶。若謂別有一氣。則是氣不從太極生也。若謂別無一氣。則動之者動誰。靜之者靜誰。或曰。此即對後所生之陰陽言之也。曰若此。則是太極中忽自起能動之機。則動而成陽。忽自起能靜之機。則靜而

成陰。非太極亦有動靜乎。夫太極者。一理渾然。無有朕兆。無有名相者也。使此中忽有動之靜之之機。則有朕兆可窺。有名相可指。安得謂之太極哉。

問。宋儒言太極分為陰陽。是否。曰陰陽分於太極之中。非太極分為陰陽也。凡言可分者。必有形質。而太極無形質也。凡言可分者。必有變易。而太極無變易也。凡言可分者。必有偏全。而太極無偏全也。謂太極分為陰陽。不亦謬乎。昔老莊之流。指一氣之始。名為太極。故有分為陰陽之說。今儒者直指太極為道體。則不宜襲其說而不之答也。或曰。太極不可分。則萬物還具太極否。曰具。曰全體既不可分。萬物何以各具。曰此正非思量分別之所能解也。今不_已而分別之。太極之體。語大則包納太虛。語小則全具一塵。雖全具一塵。即包納乎太虛。雖包納太虛。即全具於一塵。使其能包納太虛。而不能全具一塵。是局於大也。使其能全具一塵。而不能包納太虛。是局於小也。太極豈有大小之形量哉。故統體一太極。即是各具一太極。各具一太極。即是統體一太極。若各具之太極。由統體而分。則各具者不得其全矣。統體之太極。既分為各具。則統體者_已失其全矣。尚得名為太極乎。學道之士。忘情而默證之可也。

或問。易言精氣為物。遊魂為變。是說輪迴之義否。曰未可據也。輪迴明三世。儒者止明現在。輪迴明六道。儒者只明人道。故儒者不言輪迴。徧考五經諸子。俱無是說。唯易遊魂為變一語似之。然既他無所證。則亦未可強解。況彼下句云。是故知鬼神之情狀。則不過言人死為鬼而已。但人死為鬼。情狀可知。則言死後斷滅者。豈聖人之意哉。

問。儒家言死後斷滅。果有據乎。曰無據也。儒家所論。鼻祖六經。六經但曰人死為鬼。且俱有在天之說。故祖廟有制。春秋有典。雖曰事死如生。所以盡仁人孝子之情。亦未可遽謂泯然無知。歸於散滅也。及左氏所稱。神化為狐。死後為厲等。則尤其顯著者也。暨後自漢以來。始有死後斷滅之論。違經背聖。自逞臆說。而世俗咸莫之察。爭引為據。則縛於童之所習。而不能自脫也。悲夫。

或曰。造化之機。生生不息。不必假既屈之氣。以為方伸之氣。故再生之說。似不可信。曰造化之生生不息者氣也。豈假既屈之氣以為方伸之氣哉。若夫此心之靈。則非氣也。雖稟氣受形。似有成壞。而妙體恒堅。歷劫不變。所以能主張造化。而稱為最靈最妙者也。若謂一死永滅。則同於草木。豈可謂人心之靈。而與草木俱盡哉。夫人身一天地也。天地有成壞。而為天地之主宰者。未嘗滅也。故壞而復成。人身有生死。而為人身之主宰者。未嘗滅也。故

死而復生。斯理昭昭如此。而人多不信。乃以上等天地之身。下同無知之草木。亦可怪也。

或問。中庸言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與吾釋一念不生之說相近否。曰非也。一念不生者。此心用而常寂。寂而常用。祇於自念上常離諸境。不因境生念而已。非有未發已發之辨。及為性為情之分也。

或問。五常可以言性否。曰就體指用。約用歸體。故以五常言性。而性實非五常也。蓋性乃一體渾然。本無名相。自一理隨緣。斯有五常之名。如金隨緣而為鉞鑿釵釧。故就體以言用。則曰金之中具鉞鑿釵釧。或約用以歸體。則曰鉞鑿釵釧悉是金。若直指金之本質。則鉞鑿釵釧云乎哉。宋儒不達此理。乃以五常為性。謂性中有此五者之分別。故其言曰。儒者全體中有許多道理。各各自有分別。有是非。降衷秉彝。無不各具此理。釋則只是箇渾崙底事物。無分別。無是非。夫謂全體中有許多道理者。非名相而何。不知理無名也。故能為名之祖。理無相也。故能為相之宗。若有墮於名相者。皆此理隨緣應用。因事而立其名。現其相者也。豈可以議其本寂之真體哉。本寂之真體。不可以言言。不可以識識。則一尚不可得。況分之為五乎。性尚強名。況名之為仁義禮智乎。故以仁義禮智言性者。謬也。

或問。性既不可以仁義禮智名。則無善無惡。性之體也。有善有惡。性之用也。善惡均之出乎其性。君子必舍惡而從善何哉。曰性雖無善惡。而順性者必善。逆性者必惡。惡之用起於我執法執。善之極歸於無思無為。無思無為者。順性之道也。我執法執者。逆性之障也。故君子必舍執以致於道。或曰。性非五常中無定。則莽莽蕩蕩。何以應機而曲當乎。曰應物有則。不出一心。心虛而靈。心寂而妙。物至斯應。無不炳然。譬之鑑空無形。萬形所以現其影。衡空無物。萬物所以定其平。若使鑑衡不空。又安能隨物而曲當哉。

或問。格物之說。曰諸儒或有訓格為正者。謂正其意之動也。夫靈心尚塞。則妄意橫興。強欲正之。不勝正矣。或有訓格為扞格之格。訓物為物欲之物者。謂格去其物欲之障。則元明自彰也。夫正見未開。理欲多混。認欲為理。將安去乎。或有訓格為扞格之格。訓物為一切外物者。謂屏絕外物。則心不受障也。夫事理不二。內外無間。今必欲去物以明理。是撥波而求水。特偏枯之見耳。唯晦庵訓為窮至事物之理。庶幾近之。但彼所謂理。特指事物當然之則。所謂窮理。特逐物而窮其當然之則。是此理乃名言之所及。思慮之所到。益增差殊之見。不達歸源之路。求其一旦豁然。果能之乎。愚謂格物者。須窮其實體。直徹根宗。易所謂精義入神也。精

義而至於入神。則不落義路。契悟亦忘。形化為性。氣化為道。物化為心。靈光獨露。迴脫根塵。無廣不照。無微不燭。格致之道。固如是也。視彼區區推測於形迹之間。又奚啻燭火之與日月哉。至一無一。故萬應而不窮。真空不空。故萬變而靡礙。此所以大本立而達道行也。宋儒不達此理。乃曰。佛說萬理俱空。吾儒說萬理俱實。理是實理。他却空了。所以大本不立。彼謂萬理俱實者。乃指事物當然之則也。此當然之則。有名可識。有相可指。故曰皆實。殊不知理在己。而不在物。理在心。而不在事。若事物之則。乃此理妙應之影。因事物而受其名者也。倏忽變遷。全無實體。故彼謂之實。吾謂之空。譬之水焉。或為方。或為圓。或為曲。或為直。莫不因其所受之器而異焉。若夫水之性。則溼而已。無所謂方圓曲直也。故方圓曲直為空。而溼性為實。今執萬理皆實。乃是執方圓曲直以為實也。豈不謬哉。又譬之月焉。或在江。或在河。或在淮。或在漢。莫不皆有圓月。而月之體實在天也。故在天者為實。而在江河淮漢者為空。今執萬理皆實。乃是執江河淮漢之月。以為實也。豈不謬哉。宋儒因執此理為實。故逐物以窮之。以分別之妄心。測度影響之幻境。自謂物可格。知可致矣。不知事物之變。機如閃電。事物之蹟。紛若塵沙。不能洞其根源。而區區逐物。能盡照哉。況有能分別之心。是謂人執。有所分別之理。是謂法執。二執並與。眾咎斯作。雖勉強為善。而叛道愈遠矣。嗚呼。宋儒失本求末。認末為本。其顛倒若此。豈曰大本之能立耶。

世儒謂太極有動靜。是以太極為有生也。謂五常為性。是以性為有相也。既局於有。即有人我。有美惡。有愛憎。有去取。乃分別而修習之。以歸於善。皆生滅法耳。故雖曰無思。實有思也。雖曰無為。實有為也。其用止可以奉天而治人。未可以離人而入天。老莊祖昔之無。是未能超無也。厭今之有。是未能超有也。見既局於有無。乃思去今之有。歸昔之無。由是墮肢體。黜聰明。絕聖智。棄仁義。以修混沌之術。皆生滅法耳。故雖曰無思。非真無思也。雖曰無為。非真無為也。其用。止可以離人而入天。未可以離天而入聖。

或曰。莊生之學。非墮於無也。其言曰。有有也者。有無也者。有未始有無也者。有未始有夫未始有無也者。既曰。未始有夫未始有無。則超於有無矣。非真性而何哉。曰非也。莊生不能離有無之見。故窮有以入無。窮無以入無無。窮無無以入無無亦無。雖能深入重玄。而總之捨有取無。認無之極者為至。是終不能出無也。故其言曰。未始有物者。至矣盡矣。不可加矣。非局於無而何。且論性而必索之於未形未氣之先。則必失之於已形已氣之後。是偏認寂寞者為性也。非局於無而何。或曰。莊生非以寂寞為性也。彼推極

於未始有物之先者。以無物之先。性體始見耳。曰悟性者。物即是性。何妨見於有物之後。雖有物未始有物也。迷性者。性即成物。何能窮於無物之先。雖無物是亦物也。譬之鏡焉。鏡之體非影也。影之體即鏡也。智者即影以識鏡。識鏡則不論影之有無矣。迷者執影以為鏡。或聞影之非鏡也。則執無影以為鏡。或聞無影之亦非鏡也。則更執無影之前以為鏡。若是可以得鏡乎。莊生之說。大率類是。故曰。局於無而已。

或曰。莊生非以寂寞為性也。所以必推極於未始有物之先者。乃窮萬化之所自出。是即所謂性也。曰萬化根源。不出一心。故曰。三界唯心。萬法唯識。今求之未始有物之先。則愈求而愈遠矣。夫未始有物之先。乃前劫之末。空劫是也。此界雖絕無形相。而一氣渾淪。默運不息。從微至著。生地生天。老莊即此空界。名之曰虛無。亦名之曰無極。即此一氣。名之曰太極。亦名之曰太乙。謂天地生於一氣。謂一氣生於空界。遂執此空。以為萬化之根源。一真之實性也。殊不知此空。從前壞劫而成。是有生也。天地既生之後。遂失其空。是有滅也。有生有滅。一幻妄法耳。安得為萬化之根源乎。又此一氣。非生於空也。乃從無始劫來。生生不息。闔闢不窮者也。學人若能於此。達其生生之本。則三界萬法。實非他物。今古可以一貫。有無可以不二。今莊生乃謂氣生於空。則失之遠矣。故曰。認寂寞為性者也。

宋儒曰。庚桑子一篇。都是禪。其他篇亦有禪語。但此篇首尾都是。嗚呼此宋儒之所謂禪也。豈識禪哉。夫莊生之學。自謂窮玄極妙。而要其旨歸。不過安於虛無自然。以為極致。夫道超有無。離於四句。則言虛無者。非道也。乃其境也。彼欲習虛無以合於道。而虛無翻為窠臼矣。道無有自。云何有然。隨緣而然。然而非自。則言自然者。非道也。乃其機也。彼欲習自然以合於道。而自然翻為桎梏矣。此莊生之所以為外學也。若吾釋之學則不然不以有心取。不以無心合。其要在圓悟一心而已。悟此一心。則主宰在神機之先。不必言順其自然也。運用在有無之表。不必言返於虛無也。聰無不聞。而非駢於聰也。明無不照。而非枝於明也。智無不知。而非傷於鑿也。聖無不通。而非淫於藝也。豈局局然守其昏默。一以是終云乎哉。

宋儒曰。佛氏將老莊文飾其教。此宋儒之妄也。彼老莊以太極之先為無。以太極之後為有。以無為是。以有為非。則有無之見未消。是非之情未泯。即此便為輪迴之根。虛妄之本。而況欣之厭之。取之舍之乎。雖自謂遊虛合漠。體道之極。而墮於虛無之獄。縛於自然之韁。因成有為。果招有漏。以之擬禪。不猶河伯之望海若哉。宋儒乃謂佛氏將老莊文飾其教。則何其敢於誣佛也。且佛說諸經。俱

在老莊之先。豈佛先取老莊文飾之歟。自漢以來。諸經迭至。文雖由譯。義實出梵。豈譯師自取老莊文飾之歟。譯經院內。羣英畢集。有譯語者。有筆授者。有證義者。豈容一人私取老莊文飾之歟。一經梵本。或更數譯。有前師之略。後師得據梵本而詳之。前師之悞。後師得據梵本而正之。豈容一時妄取老莊文飾之歟。但譯梵成華。必用此方言句。而此方談道之書。老莊為最。故多取其文。而意義甚殊。不可不察。如老莊言無為。我佛亦言無為。老莊言無己。我佛亦言無己。老莊言道德。我佛亦言道德。詎可比而同之哉。

昔惠子造指物論。強辯以齊萬物。莊子非之。乃作齊物論。其旨在舍己而因物。則物自參差。我自齊平矣。此莊子近道之論也。然惜未能竟其旨。夫物之不齊者。妄形也。見物之不齊者。妄情也。以理破情。則無不齊之見。以性奪形。則無不齊之形。譬如陶家取土作種種器。迷者執器之形。則萬狀乃分。智者達器之質。則實唯一土耳。今徒欲舍己。而己之情未破。徒欲因物。而物之形未虛。安得為究竟之論哉。

莊生安時處順。視生死為一條。能齊生死而已。未能忘生死也。未能忘生死。又安能無生死哉。其言曰。父母於子。東西南北。唯命之從。陰陽於人。不啻父母。彼近吾死。而我不聽。我則悍矣。彼何罪焉。是知其不可逆而安之也。其能忘生死乎。若吾釋之學則不然。一真恒寂。生而無生也。妙體常存。死而無死也。生乃幻生。生即不生也。死亦幻死。死即不死也。夫如是直謂之無生死可也。豈但曰人之不能勝天也。而安之哉。

問。經言眾生界起於無明。若無明未起。則渾然一真。無諸眾生世界乎。曰。經約理而究其所從。謂依正二報。由業而有。業由無明而有。無明依真如而有。然無明實無始起之時。經云。妄原無始是也。問妄既無始則是本來有妄乎。曰。真之與妄。二俱無始。而真體不變。妄體全虛。故曰。本來無妄。又妄依真有。不可謂真依妄有。如炷與光。雖無前後。而光必依炷有。故曰。本來無妄。

問。真如一而已。何以分為諸眾生。曰。有分未分者。局於形者也。真如超於形矣。有一不一者。囿於數者也。真如超於數矣。豈有時為一統體之真如。有時為各具之真如哉。蓋眾生各具者。即具此法界之全體。法界全體者。即全此眾生之各具。就其不變之體而言之。未嘗異也。就其隨緣之用而言之。未嘗同也。體不離用。同而異也。用不離體。異而同也。無始以來。本自如是。而求其何以分。果可得乎。

空谷隆。作尚直編。中間謂宋儒之學。皆出於釋。今諸儒之書具在。果得之於釋乎。若謂諸儒之所得。即釋氏之道。則非獨不知

儒。且自不知釋矣。如太極一圖。彼謂得之於釋氏。夫太極圖。原是儒家要旨。釋氏得而藏之。轉授濂溪。則濂溪正獲其家之故物。豈為竊我釋之學哉。如伊川見僧出堂。歎曰。三代禮樂。盡在此矣。此乃伊川因見僧而自見其禮樂。豈為竊我釋之學哉。即謂其著述之語。間用內典。似得之於釋。不知文同而理實迥別。若執此以為儒出於釋。則釋典用儒語為尤多。亦將謂釋出於儒乎。至於力詆晦庵。事無實據。不過私揣其意。而曲指其瑕。語激而誣。非平心之論也。空谷之所養可知矣。

佛氏論性。多以知覺言之。然所謂知覺者。乃靈光獨露。迴脫根塵。無待而知覺者也。陽明倡良知之說。則知待境起。境滅知亡。豈實性之光乎。程朱論性。直以理言之。謂知覺乃心。心中所具之理為性。發之於四端為情。陽明之良知正情也。即欲深觀之。則此情將動未動之間。有靈靈不昧。非善非惡者。正心也。豈實性之理乎。大都陽明之學。主之以儒。而益之以禪。故覺其精深敏妙。驚駭世俗。而不知止坐此昭昭靈靈之中。此昭昭靈靈者。乃晦庵已揀之砂。而釋氏深呵為生死本者也。乃以之睥睨今古。誇為獨得。不亦謬乎。

龍溪近溪二老。講陽明之學。而多用禪語。非有得於禪。乃以儒解禪也。以儒解禪。禪安得不儒哉。然自為他家語。無足怪者。至卓吾乃謂二老之學。可當別傳之旨。凡為僧者。案頭不宜少此書。此何異喚鐘作甕乎。昔人借禪語以益道學。今人反借儒語以當宗乘。大道不明。羣盲相惑。吾不知冥冥之何時旦也。

宗門語。如盤中珠。宛轉橫斜。衝突無常。未可捉摩。豈容註釋。近見二三大匠。多引宗註教。引教註宗。祖師心印。委於荒坵矣。或問宗是佛心。教是佛語。何故不許相通。曰。宗教一理。豈不相通。明宗而背教。即同魔說。演教而迷宗。止成戲論。要在聞言悟旨。切休滯語生情。非獨宗門語不可指註。而依經解義亦名佛冤矣。

佛語精微廣大。不可測識。即使地上聖人。分座演說。人人各殊。難有一人得佛密意。雖不得佛密意。要皆不違於佛。故疏經者。不妨各出一見。互相發明。要在綱宗不失。不違於佛而已。豈必古之為非。今之為是。人之為非。我之為是哉。唐宋弘經大士分疏諸經。其傳至今日者。雖未必其合佛意與否。而考其大旨。皆所謂不違於佛者也。初學之士。借之以為階為梯。亦何不可。第深造神理。顧其人何如耳。國朝嘉隆以前。治經者類皆膠守古註。不敢旁視。如生盲倚杖。一步難捨。其陋不足觀也。萬曆間。雪浪起而振之。盡罷諸疏。獨演經文。遂為講中一快。然而輕狂之士。強欲效顰。妄逞胸臆。率爾災木。其違經叛聖之害。豈止於陋而已哉。

少室心印。豈落文彩。古人聊為接引之計。始挂唇吻。然皆渾朴簡直。刻的示人。非誇會逞能。外飾觀美而已也。後世即大不然。雕章琢句。攢花簇錦。極意變弄。各競新奇。豈獨淫巧之意。乖衲僧之本色。而理因辭晦。道以言喪。欲其一言半句之下。觸發靈機。不亦難乎。

一士人謂師曰。月上紙窓。急取蒲團對之。別是一番境界。師曰。月未上窓時。境界在甚麼處。士曰無。日月落窓後。境界又在甚麼處。士亦曰無。曰。前後既無。中間豈有。祇如月正上窓時。不起念取相。境界又在甚麼處。士曰。斯則不見有月窓。安知有境界。曰。是知此境界。決不在人邊。以無月窓。則無境界也。亦決不在月窓邊。以無人則無境界也。月窓與人。既各各無。合之又豈能有。則此境界。直如龜毛兔角。但以妄念分別。故虛妄有生耳。非特此也。身心世界。以及一切榮辱利害。死生禍福。無不若此。公能於此勘破。則心境都泯。常光本圓。於無境界之中。有真境界。本無去來。亦無顯晦。諸佛證之。強號涅槃。又豈剎那光景。所能恍惚其萬一哉。

問。參禪須是起疑情。疑情發不起時如何。曰。此是近日學人通病。夫疑情不起。只為生死之心不切耳。誠能如處朽宅。欵然火起。唯有一門。更無別路。安得不疾馳而競出哉。故一分切。則一分疑。十分切。則十分疑。未有切而不疑。亦未有疑而不悟者也。第疑情之發。出於切心。非可擬議造作而強之發也。譬如父母之喪。忽然聞訃。仰天一號。寸腸幾絕。又安用擬議造作而強之哉。若稍有強之之心。則悲哀之情反澹矣。壽昌先師嘗曰。某當初全不曉得參禪。一日因閱傳燈。尚未終卷。便爾陡生疑悶。寢食俱忘。歷八箇月。忽然打破漆桶。今日諸人各各擬議。如何下功。如何策進。雖擬議得十分仔細。不知其已添幾重障礙了也。

做工夫三字。已是不得已而言之。早是埋沒諸人了也。況如今日之諄諄乎。今日諸兄弟不是不識做工夫。正病在講之太詳。識之太早。非預意以迎之。則先念而避之皆偷心也。古之為師者。但苦其鉗錘。巧其逼拶。使慕道之士。不識不知。而其情自激。其神自奮。果敢直前。有欲罷不能之意。由是忽然撞著。而大事畢矣。故吾嘗謂參禪一念。如李將軍箭。精神踊躍。射石沒羽而已。亦不知其何以至此也。若稍有擬議之心。弗克入矣。今之參禪者。皆擬議射石者也。弗入則咎其擬之弗精。不大瞶瞶乎。

問毫釐繫念。三途業因。瞥爾情生。萬劫羈鎖。只如今教人看話頭。正是繫念。正是情生。如何免得業因羈鎖去。曰絲毫情見。不免輪迴。只如今話頭尚存。疑情未釋。誰許渠出得死死去。但這箇繫念。這箇疑情。又是借世間法。作出世因。圓覺所謂以幻修幻。

也。到得心路絕處。廓徹無依。則人法雙亡。心境俱捐。謂還有繫念得麼。還有疑情得麼。還有業因羈鎖得麼。是此繫念為無念之門。此疑情為忘情之法。乃眾生脫凡入聖之大道。而諸聖攝化度生之微權也。諸佛教法。誰不皆然。而獨疑於是耶。僧曰。圓覺云。知幻即離。不作方便。離幻即覺。亦無漸次。何嘗有繫念來。曰。此經緊要在一知字。及其知之。誠無方便。即所謂心路絕處。廓徹無依也。然點著便知底。古今能有幾人。既未能即知。則未知之前。豈無方便。經有明文。盍往考之。

問。百丈只教人盡情放下。便如雲開日出。豈不直捷。後人教看話頭。百計搜尋。無乃太多事乎。曰。果能聞恁麼道。便全身放下。誠為省事。然我今教汝放下。還放得下麼。假饒放得下。又坐在這放下裏。假饒這放下者。亦放得下。又存這放下底知解。假饒不作知解。這不作知解底又放不下也。總之如猿猴上樹。捨一取一。所以上代諸師。特出異方便以進之。方便頗多。不止一途。多因是一言半句上看不破。過不得。於是百計搜尋。千翻遍拶。疑情愈苦。鞭策愈急。忽然拶透。舉似無從。則生死涅槃。僅同昨夢。菩提煩惱。總屬空花。尚有何放不下也。故今人看話頭。只是作放下底方便耳。

問。百丈只說透得三句外。便是學人放身命處。後代立起許多門庭。說出許多古怪。總是解心未絕。故有斯事。曰。近日楚中。大有人主張此說。由渠全無悟入。只將六祖壇經。百丈廣錄。黃蘗心要等書。逐一將知解領略。由是胸中想著一箇空寂境界。喚作喜怒哀樂未發前氣象。至祖師關楨。無由拶破。便謗諸師。上堂小參。拈頌答問。皆是解心未絕。故有斯事。殊不知直透過三句底人。解心既絕。千機頓發。自然七縱八橫。天迴地轉。無滴水而作浪興波。沒寸絲而羅天網地。蓋龍象蹴踏。非驢所堪也。

參學之士。工夫遍拶到將悟未悟之際。解心未絕。往往巧見橫生。此謂之聰明境界。亦謂之樹下魔軍。便當盡情剪滅。庶進趨有路。而大事可期。若巧見悉滅。向父母未生前。瞪開正眼。悟則不無。若望衲衣下事。猶隔江在。直須向苦辣鉗錘下。陶煉一番。然後透向上之玄關。洞千差之門戶。而大事畢矣。

悟之一字。待迷得名。今人將悟字都錯認了。將謂有道理可知。方謂之悟。不知既有道理可知。則知道理者。是謂妄識。所知道理。是謂妄境矣。非迷而何。有善知識。見如是說。便謂本性空寂。無許多道理。一切泯絕。方是本地風光。不知有箇空寂。便非空寂了也。此知空寂者。是謂妄識。有空寂者。是謂妄境矣。非迷而何。有一居士。勸師營精舍。師曰。日食一升。夜眠七尺。過勞信施何為。士曰。建置精藍。先佛遺制。接引來機。菩薩悲願。何必過為

高尚。而成自利之局哉。曰。古人道充德立。方堪垂手。愚鈍如賢。而急於接人。有自點耳。況今天下所少者。非精藍也。為名之囿。為利之罟。潤後學之貪。夷前修之化。莫此為甚。吾所以疾馳而不敢一顧者。非違前佛之制。廢百丈之規。蓋欲以不接接之也。喪己而為人。吾寧避人而守己。非以守己為賢也。守己猶可以為人。喪己必巧於悞眾。是肆其惡也。輕用而多取。吾寧寡取而儉用。非以儉用為賢也。儉用猶可以養廉。輕用必曲於干眾。是長其貪也。

士人引古斷今。臧否人物。師曰。人物臧否。未易測識。非可以舊案律之。如放君誅君。古未有也。有之自湯武始。若引古斷之。則湯武為不臣矣。往來五就。古未有也。有之自伊尹始。若引古斷之。則伊尹為不忠矣。是知事有千古之所共是。而今日必非者。亦有千古之所共非。而今日必是者。非獨古今也。即使春秋有二孔子。生之世同。處之遇亦同。而仕止久速。必有不同。雖有不同。豈可是非於其間哉。大都見道之士。照用莫測。縱橫順逆。靡不合矩。公唯能得其心。斯可以論天下士矣。

佛氏說唯心。與孔子一貫之旨不同。一貫之旨。意在破隨事精察。故曰。吾道一以貫之。乃權語也。若深究之。則一是箇甚麼。貫又貫箇甚麼。全心造事。全事是心。如金鑄像。像非金外。如鏡現影。影在鏡中。是即唯心之義也。

孔子曰。操則存。舍則亡。出入無時。莫知其鄉。此正指妄心言之也。解者曰。心豈有出入。特以操舍而言矣。既可操舍。非妄而何。

問。先覺多言三教一理。是不。曰。教既分三。強同之者妄也。理實唯一。強異之者迷也。故就其異者而言之。則非獨三教不同。即同一佛教。而大小不同。即同一大乘。而權實不同。蓋機既萬殊。故教非一端。若就其同者而言之。則非獨三教是一。即一切魔外。以及資生業等。皆順正法。蓋理外無教。故教必歸理。如此方儒教。乃是此中眾生。形生神發。日趨於欲。不約而防之。何所抵止。故聖人因時勢。察人情。為之說仁義。立紀綱。化之以禮樂。束之以刑罰。使不亂也。即使佛處震旦國。說經世法。又豈過於周公孔子哉。然眾生既束於儒典。執著名相。則名相之區。翻為桎梏之地。豈儒家聖人之意哉。由是老莊出。而說虛無自然之道。使聞者閒曠超越。不為物累。庶幾為入道之方便。至於我佛所說。則超人越天之實法。而窮理盡性之實學也。昔夫子所謂予欲無言。而端木氏所謂聞於文章之外者。又豈有異於是哉。是知理一。而教不得不分。教分。而理未嘗不一。彼執異執同者。皆戲論也。

今人見諸佛。便作奇特想。於自己。便作下劣想。不知諸佛。只是本分的凡夫。凡夫只是不本分的諸佛。分內珍寶。掉頭不顧。分外艱苦。甘自承當。哀哉。

問。達摩印可神光。只是證箇無念心體。後人何故又道。無心猶隔一重關。曰。為渠見不透脫。坐在無心窠臼裏。既成窠臼。便非真無心也。所以更須猛著精彩。一脚踏翻。則有心無心。二俱成謗。神光三拜依位而立。證及此也。

或問。頓悟必假漸修。諸師多備言之。唯中峰不許漸修之說。謂習氣未除。只是悟心未圓。須力求其徹悟可也。二說未知孰是。曰。悟心既圓。命根頓斷。雖有習氣未除。但得正見不昧。習氣自然漸泯。不可別有修習。譬如伐樹者。既斷其根。則枝葉雖存。不日消落。不必別有消落之法。若悟心未圓。則命根未斷。習氣橫生。遏治罔效。故須力求其徹悟可也。又詳中峯之意。亦非全不許漸修。乃緣當時善知識。纔得入頭。便云徹證。及乎習氣不除。却歸於漸修之未到。故中峰喫緊而作是說耳。

西蜀鄧豁渠。作南詢錄。指機寂未發謂之無生。此直一己之僻解。非我佛之正義也。我佛言無生者。因凡夫見法界之內。熾然有生。由是生機起惑。造業招報。輪迴不息。無有出期。故我佛說無生之法以破之。謂諸法不自生。不他生。不共生。不無因生。四俱不生。則實無生。言有生者。特緣目中有眚。故妄見空花耳。若以機寂未發為無生。則必以機動已發為有生。以機動已發為有生。則無生者。卒至於有生。豈得為真無生乎。

一友晨起。問豁渠曰。睡著一醒。無有妄想時如何。豁曰。這箇就是父母未生前。說不得的。六祖云。不思善。不思惡。那箇是明上座本來面目。正謂此也。愚謂睡起無想。或落無記。則全體無明也。可指之為本來面目乎。且教中有五無心位。皆無善惡二念。可就指為本來面目乎。至於六祖示明上座者。其旨甚別。當明請法之際。非無記也。當明返照之際。又非無記也。既非無記。則離善惡二念。非本來面目而何。

豁渠曰。睡著不作夢時。便是無善無惡的境界。禪家謂之大寂滅海。學者學此而已。諸佛證此而已。愚謂睡著無夢時。須是識得真主落處。識得真主落處。則不管睡時不睡時。夢時不夢時。皆大寂滅海。高峰枕头落地。證及此也。今直指睡著無夢。謂之大寂滅海。則正認昏住無明為實性矣。非謬而何。

作家相見。機用超越。或讚或呵。不落常格。若以尋常情識揣摩。則遠之遠矣。昔有婆子。供養一僧住庵。嘗使一二八女子送供。一日使女子抱定問曰。正恁麼時如何。僧曰。枯木倚寒巖。三冬無煖氣。女子歸。舉似婆。婆曰。三年祇供養得一俗僧。令燒庵趲出。

其僧竟行無語。此二人顛顛倒倒。一等精靈。婆有參天之機。僧有入地之略。婆有趨象之手。僧有陷虎之謀。故先德拈云。等閒坐斷潑天潮。到底身無涓滴水。可謂洞徹腑腸矣。豁渠以俗情揣摩。乃向此僧求過。謂其止除妄情。故遭呵遣。果曾夢見此僧耶。

問。有師云。參禪者。先須看教。識得大意。方可用工。不然。恐墮於邪僻。有師云。參禪不必看教。看教恐增解路。障自悟門。二說未知孰是。曰。或宜看教。或不宜看教。此在機器不同。未可執一而論。如英明之士。何須看教。方可參禪。如愚鈍之流。看教尚恐難通。況參禪乎。又或有障重者。必先假教力薰陶。去其羸執。若障輕者。便可單刀直入。何必思前慮後。自生障礙乎。但參禪誠有墮於邪僻。或坐在半途者。此則貴得宗匠接引。非看教者所能自揀也。

問。宗師云。參禪須是參無義句。不可參有義句。從有義句入者。多落半途。從無義句入者。始可到家。是否。曰。參禪不管有義句無義句。貴在我不在義路上著倒而已。如靈光獨露。迴脫根塵。此百丈有義句也。汝能識得這獨露的否。汝纔要識得。早落根塵了也。如光明寂照徧河沙。此張拙有義句也。汝能識得徧河沙的否。汝纔要識得。早被雲遮了也。大都六祖以前。多是有義句。六祖以後。多是無義句。方便各異。實無優劣。學人參看。須是深求其實。深求其實。則不管有義無義。畢竟卜度他不得。卜度他不得。則疑情自發。疑情既發。則昏散自除。昏散既除。則根塵自落。根塵既落。則靈光自露。靈光既露。則回視有義句無義句。皆如炎天破絮矣。若不深求其實。唯在文字中領略。則雖無義句。如麻三斤。乾屎橛等。皆有義可通。今四家頌古註。少林秘要諸書是也。豈能透向上之關楨哉。

問。淨土之說。諸師辨之詳矣。然至謂參禪不及淨土。此疑未決。曰此在師家。主張淨土。故抑揚讚歎。勸歸念佛耳。若實論之。決無優劣。參禪要悟自心。念佛亦是要悟自心。入門雖異。到家是同。但參禪到家者。無淨土之緣。似為稍異。然心光發明。已與諸佛氣分交接。何必淨土乎。天上人間。隨意寄托。絕諸欣厭。何不淨土乎。況欲親近供養諸佛。亦祇在一轉念之間而已。何難淨土乎。或曰。兩途到家。誠為不異。但參禪未悟者。止滯人天。念佛未悟者。尚可往生。以此校之。似參禪不及念佛耳。曰。未悟往生者。必念佛極其誠切。若參禪者。亦如彼之誠切。則雖止滯人天。取悟不遠。再出頭來。慧根頓發。超證菩提。未可限量。念佛而未悟者。雖得往生。終墮疑城胎獄之中。俟其情識陶盡。始得見佛。豈可勝於參禪者乎。蓋禪淨二門。應機不同。而功用無別。宜淨土

者。則淨土勝於參禪。宜參禪者。則參禪勝於淨土。反此。非唯不及。必無成矣。學者宜善擇之。

問。永明四料揀。謂淨土可以無禪。禪必不可無淨土。似參禪不及淨土矣。曰。永明四料揀。亦是抑揚讚歎。勸歸念佛耳。若實論之。有禪而習氣尚重者。固有陰境可虞。然其功在平日。常加提醒。使佛知見不昧而已。非以靠著淨土也。念佛而得見彌陀。誠不愁開悟。然未見之前。豈無陰境可虞哉。蓋正見未開。則陰境不破。陰境不破。則業障難脫。雖彌陀悲願攝受。其如盲者之不見日何哉。故未悟往生者。特百中之一二耳。

問。參禪兼修淨土。可乎。曰。參禪之功。只貴併心一路。若念分兩頭。百無成就。如參禪人有一念待悟心。便為大障。有一念恐不悟心。便為大障。有一念要即悟心。亦為大障。況欣慕淨土諸樂事乎。況慮不悟時不生淨土。已悟後不生淨土乎。盡屬偷心。急加剿絕。可也。但於正參之外。一切禮佛念佛等。隨緣兼帶。任運不廢。如尋常穿衣喫飯焉。則淨土乃不兼而兼矣。若大事發明之後。志欲親覲諸佛。或接引羣機。發願往生。無有不可。蓋無生而生也。

諸法雖多。窮於有待。凡有待者。即知是妄。如空不自空。待色而空。色不自色。待空而色。待空而色。色果色乎。待色而空。空果空乎。即此推之。則知若今古。若大小。若美惡。若真妄。無不皆然。俱無自體。又共待一念。而後能成立者也。如一念不生。則諸法共無所待。共無所待。則各亦無所待。各無所待。則諸法雖森然布列。皆無待之光。實相之印也。故曰。一人成佛。墻壁瓦礫。亦皆成佛。

諸法窮於有待。固知是妄。若天機深者。因其有待。即知無我。如我本無我。待人有我。人本無我。待我有人。又如一本無我。待二成一。二本無我。待一成二。因其無我。所以有待。因其有待。益見無我。即此推之。則若身若心。若人若物。以及天地之覆載。虛空之寥廓。總之一無我之通光也。既總之一無我。則我不必廓之以容物。而已無非物。物不必會之以歸己。而物無非己。明此者謂之聖學。昧此者謂之外道。證此者謂之聖人。失此者謂之凡夫。三教聖人。設教不同。而所以必同者。此無我也。孔子證之。故曰絕四。絕四者。一無我也。孔子之後。唯顏氏能克己。克己為近之。故曰。有若無。實若虛。犯而不校。至孟氏則主之以我。主之以我。而無我之血脉斷矣。雖道性善。稱仁義。豈得為孔子之徒哉。蓋仁義雖善。皆以無我成其德。使其我有我。則必強物以徇我。物有我。則必喪己以徇物。而所謂仁義者。非偽則偏也。縱曰不偽不

偏。而勉強與外者。心非所安。謂之能仁義可乎。世儒不知我與物皆無我。而執之為實。堅不可破。乃曰我學孔我學孔。益悖矣。問。諸子論性。如何折衷。曰。荀卿言性惡。楊雄言善惡混。韓愈言性有三品。宋儒非之。謂其以氣質論性是也。唯孟軻言性善。東林謂其指本然之善。不與惡對。朱晦菴亦曰。此語却是。由是五百年來。儒者宗之。無敢違越。唯間有治釋氏之學者。不以為然。我茲不敢以釋辨儒。姑就儒語辨之。如孟軻之辨性善也。以水性之必下。喻人性之必善。則所謂善。非本然之善。乃與惡對之善也。既與惡對。則與荀楊諸論有何別乎。蓋四子之論性。皆指其用而已。譬之水焉。善則水之下行也。惡則水之上行也。善惡混。則兼上下也。三品。則上下而兼不上不下也。用有四種之殊。故論者亦有四種之殊。倘能識水之體。則不離四種。亦不即四種。而四種之論。不攻而自破矣。或曰。釋氏云。隨緣不變名性。是合體用名之也。曰不變。表性體之德。非直指性體也。如摩尼之珠。具有隨緣不變之性。詎可指隨緣不變為珠體哉。或曰。昔荷澤發明性體。以知為宗。圭峯稱其獨得珠體。是否。曰。以知論性。猶以光明論珠。是亦表珠體之德也。況體具寂照二德。知則專言其照。表德亦自不備。必為之解曰。空寂之知。則備矣。或曰。傅大士作頌曰。空手把鋤頭。步行騎水牛。人從橋上過。橋流水不流。杜順和尚作頌曰。懷州牛喫禾。益州馬腹脹。天下覓醫人。灸猪左膊上。二大士從用指體。不識能盡顯否。曰。二大士盡力敷宣。祇從旁敲。終非正指。或曰。師具甚麼眼。三教聖賢。盡皆檢點。請師直指出看。曰。此體非獨元賢不能指出。即釋迦老子。也祇得掩室摩竭。維摩老子。也祇得杜口毗耶。蓋無言可說。無理可伸。所以一切諸佛諸祖雖旁敲曲顯。費盡舌頭。其於本體。實未嘗動著半毫也。一念不生。則全體湛然而不失。一念暫生。則間關萬里而難尋。一念不生。則四聖之位無所立。一念暫生。則六凡之影不可逃。一念不生。則我大而虛空為小。一念暫生。則我小而微塵亦大。一念不生。則根塵皆徧於法界。一念暫生。則根塵各局於本位。一念不生。則耳目互用。依正交融。一念暫生。則耳目分司。依正永判。一念不生。則數不能拘。報不能及。一念暫生。則吉凶異域。苦樂殊途。一念不生。則不疾而速。不行而至。一念暫生。則疾而不速。行而不至。一念不生。則不動而敬。不言而信。一念暫生。則動而不敬。言而不信。一念不生。則空色雙泯。見化為性。一念暫生。則空色敵立。性化為見。一念不生。則世界可移。虛空可殞。一念暫生。則微塵亦礙。一膜生障。是此一念者。乃生死之根核。亦涅槃之康莊。人能鑄有念而成無念。則成佛尚有餘事乎。

永覺和尚廣錄卷第二十九

續窺言

序曰。昔余居荷山。因諸儒有所問辯。乃會通儒釋。而作窺言。梓行已二十載。近因自浙反閩。再居鼓山。目擊世變。時吐其所欲言。乃作續窺言。夫賢本緇衣末流。祇宜屏息深山。甘同寒蟬。何故磬磬向人。若孟軻之好辯。賈誼之痛哭哉。豈多生習氣未能頓降。抑亦有不得已而一鳴者乎。今此書具在。苦心片片。惟在大方之高鑑。歲在壬辰夏佛誕。日題於聖箭堂。

貢高我慢者。總猶我執情深。故橫起斯病。為大道之重障。今日學者專尚此習。謂之硬淨。謂之孤峻。及至遇著一點利害。則柔如繞指。全無主宰。此孔子所謂色厲內荏。乃穿窬之小人也。不知古人全不如此。昔遠錄公謂演首座曰。但得妙悟。自然心靜氣和。容敬色莊。五祖演曰。長於包荒。厚於隱惡。謙以交友。勤以濟眾。大慧戒首座書。尤諄諄以謙虛遜讓為勸。諸人既稱禪衲。下視流俗。豈可不思竝古人哉。

禪衲威儀。非是外修邊幅。蓋為內檢其心。必先外束其身。未有身既放逸。而心能靜一者也。所以佛制比丘。威儀必肅。百丈禮法。諸宗共守。宋伊川先生見僧出堂。歎曰。三代禮樂。盡在此矣。由此觀之。當日之威儀為何如也。今有等妄人。任情縱恣。決裂禮法。反笑守律儀者為局曲。果何心哉。昔大覺璉動靜尊嚴。圓通訥一見。直以大器期之。黃龍南進止有度。居常正襟危坐。二老豈局曲之士哉。是知輕浮躁動。必非大器。雖得悟入。終虧全德。惟願學人。毋以小器自安可也。

有等禪人。言在飛龍之前。行在跛鼈之後。却謂我宗門下。祇重見地。不重操履。不知青原下謂之功勳。如臣事君。如子事父。豈敢違背。南嶽下謂之牧牛。蓋得牛之後。猶須善牧。況未得牛者耶。且衲衣下。善不許著。惡豈可縱。佛祖尚不可為。勢利豈可偏逐。此乃無忌憚之小人。託聖言以自文。入地獄如箭射者也。有志之士。切宜自省。

古人公案。俱從不思議中流出。纔涉思惟。便隔千山。今人率用意卜度。師友講習。如少林筆記。及菴絕四家頌古註等書。一言半句。竝是邪涎。遭其惑亂。則永塞悟門。況又作頌作拈。如廁屋而塗丹腹。只增其臭耳。今真有志參禪者。必須坐斷此等惡知惡習。

單單向無縫罅處鑽研。憤然如遇著箇死對頭。直須滅此而後朝食。若能如是用心。則寶所在近。決不相賺。

棒喝之行。五宗皆有。而德山臨濟為盛。此如千鈞之弩。豈可妄發。怎奈無知之輩。相習成風。譬如庶人而妄逞干戈。非逆即狂。所以興化戒之曰。我聞前廊下也喝。後架裏也喝。諸人莫盲喝亂喝。直饒你喝得興化向虛空裏。却撲下來。一點氣息也無。待我蘇息起來。向汝道箇未在。何故。我未曾向紫羅帳裏撒真珠與汝在。胡喝亂喝作麼。後圓悟老人。一生不行棒喝。豈不是臨濟宗師乎。其子大慧。住徑山日。下喝者罰錢罰齋。蓋深知其弊。故痛懲而力挽之也。

門風之別。所宗有五。其實皆一道也。故真知臨濟者。決不非曹洞。真知曹洞者。決不非臨濟。如汾陽昭。雖善三玄。且遣瑯琊覺。浮山遠。學洞上之旨於大陽。雲門雖承雪峯。記荊而後。乃歷參洞下諸師。如曹山疎山乾峯九峯。皆有機緣。是知大道惟公。法無偏黨。後世妄生人我。割截虛空。嗣臨濟者。謗曹洞。嗣曹洞者。謗臨濟。破滅法門。自喪慧命。豈不深可痛哉。今願諸人。廓無外之觀。體無私之照。而斯道幸甚矣。

孔門心法。自孟軻之後。鮮得其傳。至漢諸儒。多以訓詁為業。惟得一董仲舒。庶幾近之。董氏所對天人三策。皆醇正無疵。其所對越有三仁之問。尤為精粹。程伊川。朱考亭。皆推其度越諸子。信矣。但其所治春秋。於所書災祥。必求其所感之事。則拘泥穿鑿。雜於讖緯之學者也。是豈得為醇儒哉。

楊雄玄湛之思。粹麗之辭。世所希覩。嘗作法言。以擬論語。作太玄以擬易。隱然以聖賢自居。使其生不值新莽之世。或莽未篡而身先死。必為一代名儒之冠。自一失身於仕莽。安保玄之不自白乎。身名俱喪。天下笑之。人品之難定也如是。

孔明之才智。實合漢家三傑為一人。而其忠誠則過之。其出師表後結云。鞠躬盡瘁。死而後已。此臣所以報先帝之恩。而忠陛下之職分也。至於成敗利鈍。則非臣之明。所能逆覩。此數語。丹心赤膽。照耀今古。在三傑非特不肯為。亦且不能道。吾故謂其忠誠過之也。

自魏晉以至唐。儒學寥寥。唯得一王通似之。其所著中說。識見議論。亦多醇粹。大非韓愈所可及。但中間事實。多似論語。恐是粉飾所成者。至其所作五經。則塵飯塗羹之戲耳。仲尼固如是乎。甚矣好名之蔽也。

歐陽修作五代史。謂五代無人物。余謂非無人物。乃厄於時也。如周世宗一人。出在漢唐盛時。諸君豈能及之。至若隱於山林。如五

宗諸哲。則耀古騰今。後世鮮能及者。余故曰。非無人物。乃厄於時也。

韓退之氣甚豪爽。每自比孟軻。欲力行其道。而躁於求進。三上宰相書。則不見諸侯之義未聞。及其晚年。見用於朝。全無建白。惟日以詩酒為事。與流俗何異。謂之力行其道可乎。

退之於孟軻之後。獨取荀卿楊雄。謂荀與楊。大醇而小疵。孟軻則醇乎醇者也。愚觀荀氏書。語多矯異。如子思孟軻。明先聖之道。闢邪說以正人心。是立天下之大閑也。彼則曰亂天下者。子思孟軻也。不亦異乎。如孟軻道性善。言必稱堯舜。是百世共趨之的也。彼則曰性惡。桀紂性也。堯舜偽也。不亦異乎。至於楊氏。雖不若荀氏之矯異。而以性為善惡混。則是認習為性。已乖孟氏之旨。且失身為莽大夫。其法言末章。盛稱莽之功德。可比伊周。復作劇秦美新之文。以頌莽。則大節既虧。所學謂何。是二人者。視孟軻之道。不啻風馬牛之不相及。詎可稱其大醇小疵。而列於孟氏之後塵哉。甚矣韓愈之謬也。

予考柳子厚。終於柳州時。僅得四十七歲。則作八司馬時。年齒甚少。使其洋洋得志。不受拂鬱。不知後來竟作何狀。却得一番貶謫。乃能安於寂寥。肆力學問。故其文。到柳州後始造其妙。其居柳日久。百姓愛之。卒乃血食其鄉。不賢而能之乎。朱晦翁曰。子厚却得柳州力。是也。

病能死人。亦能益人。如唐白樂天。則受病之益者也。樂天最稱風流艷冶。晚年因得病。乃能斂就平實。日修西方之業以自終。可謂失之東隅。收之桑榆者也。若東坡晚年錯謬。則弗逮樂天遠矣。東坡以禪自負。人亦以禪歸東坡。渠雖有悟入。而死於東林印下。不能徹證。依舊只墮在聰明境界中。何能敵得生死。至其晚年。乃好長生之術。用冬至日閉關養氣。卒以此得病而終。禪也其若是乎。禪也其若是乎。

朱晦翁謂釋氏初來。但卑卑論緣業。後人張大其說。遂極其玄妙。余謂摩騰初至此土。所譯出者。四十二章經也。此經本屬小乘。理自淺近。然其淺者。固不下於儒。其稍深者。亦非儒之所能知。朱謂但卑卑論緣業。何其言之妄也。

元氏諸儒。推從祀者。許衡吳澄也。二公出處之際。不達春秋之大旨。乃欲托足於仲尼之門。不亦難乎。劉因。金履祥。許謙。皆隱居不仕。授徒著書。其學術祖述考亭。為元氏諸儒之冠。然推從祀者反弗及之。則以其名位未大著也。余在俗時。喜講學。而怠於科舉之業。一友人戲之曰。老兄喜講學。也要戴箇紗帽。不戴紗帽。則其學弗著。此雖一時戲語。然亦切中世俗之弊也。因併記之。

仰山問僧甚處人。僧云幽州人。山云。汝還思彼中麼。僧云常思。山云。能思底是心。所思底是境。彼中有樓臺林苑。人馬駢闐。汝反思思底。還有許多般麼。僧云。某甲到這裏。總不見有。山云。汝見猶在心。信位即是。人位未是。愚謂仰山如此開示。非特為這僧發藥。一切人見道不真。皆落在此。蓋見有見無。皆是以心對境。如隔江望山。謂之信位則可。謂之人位則不可。以人位須忘能所。心不見心。如鏡不自照也。

棲賢辨。嘗携一筇。穿雙履。過九江。東林混融老見之。呵曰。師者人之模範也。舉止如此。得不自輕。主禮甚滅裂。辨笑曰。人生以適志為樂。吾何咎焉。援筆書偈而去。偈曰。勿謂棲賢窮。身窮道不窮。草鞋寧似虎。拄杖活如龍。渴飲曹溪水。饑吞栗棘蓬。銅頭鐵額漢。盡在我山中。愚謂一筇雙履。乃衲僧本色。正可謂後學模範。混融謂其主禮滅裂。不亦謬乎。辨公援筆書偈。語語矜誇。全是我慢之習。曹溪水當不如是也。

洪覺範書有六種。達觀老人深喜而刻行之。余所喜者。文字禪而已。此老文字。的是名家。僧中希有。若論佛法。則醇疵相半。世人愛其文字。併重其佛法。非余所敢知也。

當其時。覺範才名大著。任意貶叱諸方。諸方多憚之。唯靈源深知其未悟。嘗有書誡之曰。聞在南中。時究楞嚴。特加箋釋。非不肖所望。蓋文字之學。不能洞當人之性源。徒與後學障先佛之智眼。病在依他作解。塞自悟門。資口舌則可勝淺聞。廓神機終難極妙證。故於行解。多致參差。而日用見聞。尤增隱昧也。予善覺範。慧識英利。足以鑑此。倘損之又損。他時相見。定別有妙處耳。靈源此書。大為覺範藥石。然其痼疾弗瘳。亦且奈之何哉。

大慧云。千疑萬疑。祇是一疑。一疑破。則千疑萬疑無不破。或者未之信。愚謂千疑萬疑。雖有不同。總之祇在幻影上計校也。若親見其實。則幻影全消。幻影既消。更有何疑而不破乎。

尋常謂諸佛無情慮。絕知解。一有情慮知解。是謂眾生。愚謂眾生有情慮。諸佛亦有情慮。但諸佛之情慮出於無私。而眾生之情慮蔽於有私也。眾生有知解。諸佛亦有知解。但諸佛之知解。妙於常覺。而眾生之知解。滯於不覺也。

世所傳四家頌古。當以雪竇為最。天童次之。雪竇如單刀直入。立斬渠魁。天童則必排大陣。費力甚矣。蓋天童學甚瞻博。辭必典雅。然反為所累。故多不得自在也。

投子芙蓉之後。能振洞上一宗者。天童覺真歇了也。二師見處親切。而高行碩德。俱能不愧古人。但其說法。則有不同。天童仰遵古轍。步伍不失尺寸。而出奇神變。未見所長。真歇語言超逸。意趣自在。發揮醒露。不費氣力。雖不局局於法。而實不背於法也。

臨濟語尚直捷。曹洞語尚宛轉。此其大槩也。然諸大老。亦有不盡然者。如風穴云。釣船載到瀟湘岸。氣噎無聊問白鷗。又云。木鷄啼子夜。芻犬吠天明。皆酷似曹洞。如船子兩度打夾山。藥山便云看箭。皆酷似臨濟。此乃大慧所謂禪備眾格。不可以一途局也。慈明訪神鼎。祇道得箇屋倒也一句。神鼎歎曰。汾陽乃有此兒。遂力薦之。慈明之名。由是大震。若論機鋒。峻捷。慈明固是作家。然開後學輕薄之風。其弊有不勝言者。神鼎為晚輩所觸忤。不怒而力薦之。神鼎豈易及哉。是知慈明則捷鷹俊鷄。神鼎則天高地厚也。

白雲端初住九江承天。圓通訥讓圓通居之。而自退居西堂。久之羣小鬪搆其間。訥不能忍。頗訴於客。羣小遂謂訥不堪寂寞。有復住圓通之意。端乃辭而去之。去之誠是也。然其退院上堂之語。乃似歸過於訥。則為小人之所蔽。而不能自察耳。

王山體久依大明寶為侍者。一日抽單去。眾疑之。問曰。體侍者何往。寶曰。諸方來。諸方去。問他作麼。又問渠參學何如。寶曰。我若道有。栽他頭角。我若道無。滅他威光。眾始知其陰有付囑。體去。又深隱太原王山。十餘年。始創禪院。開堂演法。若師若資。其深潛謹密如是。俱可為後世法。今觀近日之事。而霄壤懸隔矣。悲哉。

壽昌先師得旨後。隱峩峰將三十載。始出住寶坊。躬耕隴畝。不事干謁。移壽昌日。里中有張侍郎。為起一緣簿。先師笑而受之。卒不發化主。後十年。巨剎煥然復新。財帛皆不求自至者。嗚乎。先師往矣。孤風峻節。誰有能繼之者乎。

先師粗衣糲食。躬秉耒耜。年至七十。未嘗暫輟。時歲大饑。磨麥為羹。率眾開田。其田今呼為麥羹坵。蓋百丈之後。一人而已。今吾輩直草不踏。橫草不拈。安坐享用。每思及此。便覺藏身無地。況敢恣意放逸。陷鐵圍百刑之痛哉。

先師一日謂余曰。馬祖百丈。教人牧牛。此事大不容易。蓋根蒂既久。未能卒斷。豈可孟浪哉。老僧在峩峩時。自謂天下事。無能動其心者。後在壽昌。因修造買木。業成券矣。約其人來取價。及期。無以應之。正逼迫間。忽見門外有轎數乘到。及見。得一百餘金。老僧不覺喜見於面。因自愧曰。三十年修行。被阿堵物轉將去。以此審知全未全未。古人常喚主人公。非欺我也。

因果報應之說。非釋氏所獨唱也。此方聖人。如大易洪範等書。亦詳言之。但報應有不盡然者。則舉而歸之命。歸之天。天果有所私乎。命果可倖值乎。蓋不達有三世之因果故也。

世上有一種議論。謂一飲一啄。莫非前定。全不由人力趨避者。若然。則為善者分當為善。為惡者分當為惡。聖賢無教化之功。下民

無趨避之術。由是小人安於放縱。君子亦怠於進修。其遺害可勝道哉。夫世間禍福。莫大於生死。亦有命不當死而死者。佛謂之橫死。凡有九種。故菩薩戒中。有冒難遊行戒。恐其冒難而橫死也。孟軻亦曰知命君子不立於巖墻之下。又曰桎梏死者。非正命也。即此推之。可盡委於命哉。大抵天命人力。功實相參。故君子必修身以俟之。

僧家寄跡寰中。棲身物表。於一切塵氛。尚當謝絕。況可貪祿位乎。一切文事尚不可與。況可操武事乎。自元時劉秉忠首開此禁。繼而姚廣孝效之。貪謬妄之勳名。破慈悲之大化。佛門中萬世之罪人也。

或曰。菩薩大戒。殺有時而許開。二師蓋大權之士。未可以比丘之法局之也。余曰。所謂殺有時而許開者。乃在家菩薩之事。如衛君父。如禦寇盜。既身任其職。豈可不殺。況殺一人。而能救百千人者。則可殺。殺一人。而能成百千好事者。則可殺。今二人者。既身為釋子非。在家之比。又其所為者破滅綱常。禍流四海。有何利益。而可謂之大權乎。是非獨為佛門之罪人。亦名教之罪人也。唐以前。僧見君。皆不稱臣。至唐則稱臣矣。然安秀諸師宮中供養。皆待以師禮。諸師稱天子。則曰檀越。自稱則曰貧道。至宋絕無此事。然猶有上殿賜坐。入宮陞座等事。至近代併此亦無之。僧得見天子者絕少。惟洪武間尚有數人。然止於奉和聖製。及差使外國。且有強畜髮而官之者。且有和詩。用一殊字。而被殺者。待僧之禮。果安在乎。蓋以僧德歷代而遞衰故待僧之禮。亦歷代而遞降。此勢之不得不然也。自此以往。愈趨愈下。法門消滅。跬步可待。豈勝痛哉。

禪教律三宗。本是一源。後世分之為三。乃其智力弗能兼也。以此建立釋迦法門。如鼎三足。缺一不可。合之則俱成。離之則竝傷。無奈後學。以我執之情。起生滅之見。互相詆訾。正如兄弟自相戕賊。而曰。吾能光大祖父門庭。不亦愚乎。

三宗之中。難莫難於禪。教次之。律又次之。以禪則超情離見。妙契在語言文字之表。非若教之可以揣摩而得。講習而通。故獨難也。至於律。則事相淺近。皆有成法。稍有智者。皆可學習。非若教理之圓妙精微。非大智莫能窮也。然數百年來。禪教猶有一綫之脉。而律學則寥寥絕響何哉。蓋以聰明才辯之士。多以律學為淺近而忽之。不屑自局於此。又以人之常情。喜自便而畏檢束。則又不肯安意於此。故律學之最易。却成最難也。悲夫。

律學。自靈芝照之後。鮮見其人。至於後代稱律師者。名尚不識。況其義乎。義尚弗達。況躬踐之乎。至於潭柘昭慶二戒壇。其流弊有不忍言者。若不奉明旨禁之。後來不知成何景象也。萬曆末年。

諸方得自說戒。正與佛意合。然鹵莽甚矣。今日欲起律宗之廢者。非再來人必不能也。悲夫。

少林懸記云。後來明道者多。行道者少。說理者多。達理者少。余謂明道而未能行。則其明亦非真明。譬如一人安坐一室。披閱輿圖。而曰天下已在吾目中。其實跬步未曾動也。說理而未能達。則其說亦非實說。譬如有人。精於畫龍。點畫俱工。一旦真龍現。則驚怖而莫能辨也。至於今日之事。尤有異焉。見閩越圖。而直曰。天下在是。但學畫馬。而曰吾能知龍。是則少林懸記之所弗及。法門之憂。不益深乎。

人天眼目一書。集在宋淳熙間。已有訛謬。至近日續收益廣。而訛謬尤多。蓋是水潦鶴之徒。托名杜撰。或是知識不善此宗。而勉強穿鑿。其迷誤後學。豈淺尠哉。大抵禪人須先具正法眼。而門庭施設。實在所緩。今日有志參禪者。輒首重此書。如已無眼。而欲借他為眼。必反為所蔽。有終身而莫知其非者矣。

末代弘法。魔事必多。貪進者必取辱。過侈者必招非。知此。即為攝伏魔軍之第一策。如萬曆間。達觀。憨山。二老。皆名震一時。以不達此意。卒至罹禍。豈可曰無妄之災。而盡委之命乎。唯雲棲老人。謹密儉約。一步弗苟。故雖享大名。而善始善終。絕無魔事。真末法之良規也。

旌旗蔽空。尸骸徧地。此吾之悲也。非吾之憂也。白刃環躬。饘粥弗繼。此吾之窮也。非吾之憂也。所憂者。魔鬼入室。禍起蕭牆。將來之事。有大不可言者在耳。昔魔向佛誓曰。我今不奈你何。待末法。入你門。著你衣喫你飯。稱你弟子。以壞你法。佛曰。汝壞但自壞。吾法不壞也。今日自壞之狀。靡所不有。雖曰法不可壞。而法門破矣。化儀滅矣。雖佛亦且奈之何哉。

此界名曰堪忍。必無安樂之處。一出人前。則異同順逆之境。雜然橫陳。雖先佛出現。亦所不免。況其他乎。要在攝歸平等本際之空。則所謂異同順逆者。無非煉心之地。煉行之時。日用中俱有深益。此非世俗所能知也。若但任情馳逐。自生顛倒。則非特外境不能平。兼自身亦無措足之地矣。

古人應世之法。必靜以守之。漸以需之。量力以行之。使我之力量常有餘。則不困不窮。事乃克濟。若好大喜功。急於有為。則力小而任重。鮮不仆矣。勢必廣求苦索以應之。至於廣求苦索。又何暇顧其他哉。勢必遣任雜選。因果弗論。委曲攀緣。廉耻盡喪。毋論其求之弗得。即求之而得。已不勝其顏之厚矣。豈佛祖之道則然哉。

人當年少時。歷世未深。志銳力強。多有發憤向上者。迨其歷世日久。塵念日深。初志漸覺頹靡。後被外境所轉。喪其所守者多矣。

有一僧。早歲脫白。留心參究。超然弗與俗伍。山居寂寞。二十餘年。人多稱之。及其晚年。偶得幾箇俗漢歸依。便欲出世。乃建寺立僧。開堂付法。一切勉強為之。卒之身名俱喪。為天下笑。詩云。靡不有初。鮮克有終。可不戒歟。

佛入滅後。正法像法。各一千年。末法一萬年。此但言其大槩也。若細論之。正法中亦有末法。末法中亦有正法。顧其人何如耳。孟子曰。若夫豪傑之士。雖無文王猶興。是知上根利智。決非三時之所可局。況佛法無時不圓明超絕。豈可得有汗隆哉。有志之士應當取法乎上。毋自墮於卑下。則幸矣。

殺人而食。江北嘗聞之。江南所未聞也。今已見於閩中矣。易子而食。古語嘗聞之。未聞母食其子也。今亦見於閩中矣。嗚呼。天親之愛。莫如父子。而母之愛子。尤甚於父。雖虎狼猶然。至於今日。則人反不如虎狼矣。豈非曠古以來一大變哉。

語云。人之所愛。莫甚於生。所惡莫甚於死。自今日觀之。則知名利之愛。尤有重於生死者。苟機有可乘。九牛莫挽。雖生死亦不暇顧耳。余自甲申之變。每見知友。必勸其斂戢身心。度茲厄會。不可因風妄動。自取禍患。後竟無一人信者。多至家破身亡。而不可救。其倖而免者。亦寡矣。名利之牽人也如此。

余行年七十有一。閱世久矣。古來未有之事。而今有之。生平未信之事。而今信之。深知貪瞋癡三毒。其變無涯。其禍亦無涯。雖至於伏尸萬里。流血成川。其心猶未已也。其始則一念之差而已。吾人可不思防微杜漸。痛懲而力反之哉。不然。熒熒弗熄。卒燎原野。涓涓莫遏。終變桑田。雖欲救之。噬臍無及矣。

殺盜淫三業。正輪迴之根本。此業不斷。雖有禪定智慧。總成魔外而已。或者多謂業性本空。何斷何續。不知業性固本空。而人執之為實。則起業招果。安得言空。昔梁有雲光法師。善講經論。而不奉戒律。誌公呵之。彼曰。吾不齋而齋。食而非食。後招報為牛。拽車泥中。力不能前。鞭答復急。誌公過而見之。召曰雲光。牛舉首。誌公曰。汝今日何不道不拽而拽。牛墮淚號咷而逝。以此觀之。虛頭狂解。何敵輪迴。雖欲欺人。還成自欺也。哀哉。

近世禪者。多是大言不慙。不守毗尼。每自居於曠達。不持名節。每藉口於圓融。迨一旦逐勢利。則如餓鬼覓唾。爭人我。則如惡犬護家。圓融曠達之謂何哉。

達摩一宗。超情離見。故曰。教外別傳。非可以口耳商量。文句擬議也。故先輩苦口丁寧勸勉真參。非為妄語。近日禪人。却以先輩之言為不然。惟相與學頌古。學機鋒。過日。學得文字稍通。口頭稍滑者。則以拂子付之。師資互相欺誑。而達摩之旨。又安在哉。不特此也。曾見付拂之輩。有顛狂而死者。有罷道還俗者。有嘯聚

山林劫掠為事者。他如縱恣險惡。為世俗所不齒者。在在有之。滅如來種族。必此輩也。嗚呼危哉。

博山來禪師。謂余集生曰。宗門中事。貴在心髓相符。不在門庭相紹。若實得其人。則見知聞知。先後一揆。絕而非絕。若不得其人。則乳添水而味薄。烏三寫而成馬。存豈真存。故我意寧不得人。勿授非器。不得人者。嗣雖絕而道真。自無傷於大法。授非器者。嗣雖存而道偽。反自破其先宗。有智之士。當知所擇。愚按博山之言若此。可謂真實為大法者也。今其嗣雖少。而世猶仰之。如麟如鳳。視近日之妄授非人。反辱先宗者。又奚啻霄壤哉。

有處諸紳聚飲間。一張姓者曰。近日僧家捏怪。動輒開堂說法。簞鼓流俗。欲與諸公各作一闢禪論以滅之。有陳姓者曰。公欲闢之。請聞其旨。張曰。無父無君。蠹國害民。此四罪。彼焉能逃。陳曰。公別有高見則可。若此四罪。決不可闢。今神州陸沈。生民塗炭。所謂無父無君蠹國害民者。皆儒者自為之。與僧何與。張乃語塞。客有自席中來者。持其語告予。予曰。今之禪誠可闢。惜此公不善其旨耳。予正欲作一闢禪論。但恐犯諸人之怒。而不敢作也。嗚呼。禪耶。儒耶。予將安歸。

泉千戶王某。一夕夢有人告曰。我張籍也。今身為鹿。不幸見獲於人。人以苞苴宦門。今轉寄侯之女弟尼。侯其救脫。毋我殺。王少寤。思之。不省張籍為何人。既而復寐。又夢籍哀懇甚至。乃心異之。蚤作。以告女弟尼。尼曰有之。乃以兄之言告於宦。乞全其命。宦不可。竟殺之。嗚呼。張司業其至是耶。司業當時以才學自負。雖與昌黎交。而不肯師昌黎。今乃陷身於鹿何耶。為鹿而求免於殺。亦不可得。又何耶。蓋殺業所牽。流入異類。酬還宿負。無術可免。吾不知張司業之苦。何時艾也。悲哉。

福州鼓山白雲峯湧泉禪寺永覺賢公大和尚行業曲記

師諱元賢。字永覺。建陽人。宋大儒西山蔡先生十四世孫也。父雲津母張氏。生母范氏。以萬曆戊寅七月十九日生。師初名懋德字闇修。為邑名諸生。嗜周程張朱之學。年二十五。讀書山寺。聞誦法華偈曰。我爾時為現。清淨光明身。忽喜謂。周孔外乃別有此一大事。遂叩同邑趙豫齋。受楞嚴法華圓覺三經。明年值壽昌無明和尚。開法董巖。師往謁之。反覆徵詰。昌曰。此事不可以意解。須力參乃契。因勉看乾屎橛。久之無所入。一日留僧夜坐。舉南泉斬猫話。乃有省。作頌曰。兩堂紛鬧太無端。寶劍揮時膽盡寒。幸有晚來趙州老。毗盧頂上獨盤桓。舉呈壽昌。昌曰。參學之士。切不得於一機一境上取則。雖百匝千重。垂手直過。尚當遇人。所謂身

雖已在青雲上。猶更將身入眾藏。是參學眼也。為別頌云。大方家之手段。遇物一刀兩斷。趙州救得此猫。未免熱瞞一上。若是有路英靈。畢竟要他命換。師得頌益省。逮二親繼歿。師年四十。竟裂青衿棄妻孥。投壽昌落髮。為安今名。師凡有所請益。昌但曰。我不如你。一日值昌耕歸。師逆問曰。如何是清淨光明身。昌挺身而立。師曰祇此更別有。昌遂行。師當下豁然。如釋重負。隨入方丈。拜起將通所得。昌遽棒之三。曰向後不得草草。仍示偈曰。一回透入一回深。佛祖從來不許人。直饒跨上金毛背。也教棒下自翻身。師不及吐一辭而退。然猶疑云。因甚更要棒下翻身。明年戊午。壽昌遷化。博山無異和尚。以奔喪來。及歸師與偕往博山。山曰。和尚像前禮未。師曰。禮竟。山曰。還見得和尚不。師曰。見。山曰。見底作麼生。師曰。與和尚當年見底一般。山曰。且放過一著。無何進具戒。以生母病篤歸省。母既卒。復往博山。圓菩薩戒。留居香爐峯。山時相與商榷玄奧。師每當仁不讓。山歎曰。這漢生平自許。他時天下人。不奈渠何。越三年歸閩。住沙縣雙髻峯。明年以葬親。回建陽。舟過劍津。聞同行僧唱經云。一時警效。俱共彈指。是二音聲。徧至十方諸佛世界。廓然大悟。乃徹見壽昌用處。因作偈云。金鷄啄破碧琉璃。萬歇千休只自知。穩臥片帆天正朗。前山無復雨鳩啼。時癸亥秋九月。師年四十有六矣。居甌寧金仙庵。閱大藏三年。徙建安荷山。明年之樵李。請藏經歸。作建州弘釋錄。先是師住博山時。無異和尚。嘗屬師志建州諸釋。師曰。吾大事未竟。不暇及此也。迨師隱荷山。異自石鼓歸。道建州。師晤異於光孝寺。異一見而識之曰。今可志建州僧也。師咲而不答。異乃問曰。壽昌塔掃也未。師曰。掃即不廢。祇是不許人知。異曰。恁麼則偷掃去也。師曰。和尚又作麼生。異曰。掃即不廢。祇是不曾動著。師曰。和尚却似不曾掃。遂相笑而別。及是書成。異序而傳之。又會通儒釋。而作寢言。辛未往建陽。修蔡氏諸儒遺書。壬申謁聞谷大師于寶善庵。一見投合。以為相遇之晚。適宜興曹安祖兵憲。請大師作諸祖道影贊。因屬師命筆。師成百餘贊。大師驚訝不已。且曰。我不入建。公將瞞盡世人去也。即以大戒授師。明年先大夫赴闕。之蕃以計偕從。道繇汾常。謁聞大師。始得瞻師道範。遂與曹雁澤宗伯。暨諸善信。延主鼓山。甲戌入院。請開堂弗許。惟為四眾說戒。有請法者。以庵主禮示眾而已。是秋建天王殿。及鐘鼓二樓。乙亥往壽昌掃塔。歸過建州。為淨慈庵。著淨慈要語。是冬張二水相國呂天池侍郎。仰師道化。率眾請入泉州開元寺。師知機緣已稔。始開堂結制。四眾雲集。懷中瓣香。特為無明老人拈出。明年相國二雲曾公。時分憲泉南。訪師為建殿開元。以楞嚴義奧。請師疏之。秋歸鼓山。建藏經堂于法堂之

東。丁丑聞大師訃至。師躬弔真寂。浙西諸先生。以大師治命。合請住持。刻大師遺語。奉遺體而塔之。且銘焉。戊寅從侍御愚谷曹公。請復作諸祖道影傳。庚辰建翠雲庵于餘杭西舍。辛巳遷婺州普明寺。秋歸閩居劍之寶善。明年赴泉州開元結制。修開元志。遂歸鼓山。殿宇山門及諸堂寮。次第鼎新。莊嚴畢備。又作佛心才寒岩升二師塔于香爐峰下。復作塔藏博山和尚衣鉢銘之。癸未應建州興福請。期畢至寶善。建舍利塔。冬歸鼓山。刻禪餘內外集。乙酉著金剛略疏。修鼓山志。丙戌鄭如水司空。暨諸縉紳先生。復請至建州淨慈庵。為國祝釐已。乃移寶善說戒。著四分戒本約義。律學發軔。丁亥歸鼓山。著洞上古轍。及續稟言。己丑著補燈錄。以補五燈會元之闕。庚寅收無主遺骸千餘瘞之。辛卯作繼燈錄。先是宗門錄傳燈者。止于宋。自宋末至明。四百餘年。一燈相承。未有修者。師廣蒐博採。至是乃有成書。壬辰夏刻晚錄。秋造報親塔于舍利窟東隅。復修山堂檜堂二禪師塔。遣徒取金陵大藏經。甲午著心經指掌。收遺骸二千八百餘。乙未春興化福清長樂罹兵變。饑民男婦。流至會城南郊。踴蹙之狀。人不忍見。師乃斂眾遣徒。設粥以賑。死者具棺葬之。凡二千餘人。至五十日而止。丁酉師年八十矣。于上元日。舉衣拂。付上首弟子為霖霈公。即命首眾分座。眾大悅服。秋七月十九日。屬師初度。四方咸集。請師開法。師自辛卯。禁止上堂。雖力請弗許。至是忻然登座。然每示謝世意。九月朔果示疾。不食者二十餘日。起居如常。乃說偈曰。老漢生來性太偏。不肯隨流入世塵。頑性至今猶未化。剛將傲骨掬儒禪。儒重功名真已喪。禪崇機辨行難全。如今垂死更何用。祇將此念報龍天。曰老僧世出世事。盡在此偈。汝等毋忽也。遂閉目吉祥而臥。若入定然。復數日首座問。曰末後一句。如何分付。師索筆書曰。末後句親分付。三界內外。無可尋處。越三日中夜。謂首座曰。不有病了。令侍者扶起。坐定脫去。實十月七日子時也。三日始掩龕。顏色如生。眾咸歎異。師器宇峻特。具大人相。出世凡歷主四刹。所至深居丈室。澹然無營。若不事事。而施者爭先。百務皆舉。四方學者。來不拒去不留。座下每多英衲。皆勉以真參實悟。深誠知解雜毒。其登堂說法。機辯縱橫。若天廓雲布。其操觚染翰。珠璣滾滾。即片言隻字。無不精絕。曹洞綱宗。從上遭濁智謬亂者。皆楷以心印。復還舊轍。生平慎重大法。開堂將三十載。未嘗輕許學者。至年八十。始舉霈公一人授之。諸方皆服其嚴。且立身如山岳。操行若冰霜。衛道掬世。即白刃當前。亦不少挫。嗚呼師豈常人哉。世稱師為古佛再來。福慧圓明。悲智具足。誠不誣耳。且所至每者異跡。天啟丁卯。居建安荷山。一日山門外經行。虎突至。行者驚仆地。師以拄杖指之。虎翻身咆哮而去。甲戌師住鼓山。四

月十一日。甘露降山門松樹上。師作偈曰。聖瑞端宜降大都。窮山何得獨沾濡。曉來扶杖三門外。笑看松頭綴玉珠。是年九月十九。甘露復降。師再偈曰。玉露霏霏又一番。滿林花木盡同繁。丁寧莫道甜如蜜。恐惹遊人入石門。師之往溫陵也。呂先生率開元僧眾。至洛陽橋相迎。時潮水已退。及師到。潮水復湧。眾皆愕然。有僧問。潮汐之期。千載不爽。今日因何再至。師曰。問取主潮神。僧曰。莫是為和尚否。師曰。莫塗汙老僧好。泉州有神。曰吳真人。即晉許旌陽弟子吳猛南安產也。泉人多祀之。丙子四月。師說戒于開元寺。神先一日。見夢于祝曰。可為我備千錢。我欲往開元受戒。明日神乘板輿至寺。以轎竿書地。求法名并五戒。師為起名道正。授三皈五戒而去。神善醫病者。多往請之。自受戒後。不受請。有人廟祀者。悉不用葷酒。壬午春。師再至泉。真人復來。乞菩薩戒。其鄰村有神張相公者。亦同來求戒。師為起法名道誠。俱受菩薩戒云。安平尤氏母名道喬。受師五戒。一夕病終。冥官問。汝生有何德業。喬曰。曾到開元。受永大師五戒。官曰。汝五戒無大毀。當生善處。可為我到永大師處。請一偈來。喬遂甦。遣其子來請偈。師與偈曰。分明有箇西方路。祇在當人一念中。看破身心同馬角。劍樹刀山當下空。喬得偈復瞑目而逝。戊寅師在杭真寂院。時歸安諸生茅蔚起家。素不奉佛。一夕夢。鬼使來追。蔚起苦辭不往。使曰。我暫去看可轉移否。至十餘日。鬼使復來曰。事決不可轉移。但寬汝七日。收拾可也。明日蔚起徑到真寂。求救于師。師曰。余何能救汝。但汝能蔬食乎。曰能。汝能發無上心。受菩薩戒乎。曰能。遂與授戒而歸。居一月無事。父母復強以酒肉。一日因大醉。為鬼攝入冥司。司讓之曰。汝能發心。受永大師戒。故我不取汝。今日因何。自遭墮落。蔚起訴謂。我非敢破戒。我母只得我一人。恐蔬食體弱。強令開之。今後誓不復犯。冥司許之。乃醒自刻其事以傳。辛巳夏。師在金華普明寺。時歲大饑。居民絕食者眾。蘭溪趙姓者。家貧以燒石灰為業。賣灰一壺。以其半來設齋。師嘆其不易。後秋病瘡。一日死去。自午至戌復甦。自言。初去時茫茫。不知何往。後歷高山數重。忽遇永覺和尚。問汝何以至此。對曰。不知。曰汝欲歸否。對曰。欲歸甚急。但不識路。曰汝但隨我來。走數里。和尚指曰。此金華府也。又數里復指曰。此蘭溪縣也。又數里復指曰。汝家也。以手推之。遂醒。時人甚傳其事。師曰。我豈能入冥救人。皆由渠一念善根。故現斯事。癸未夏。師居劍津寶善。值大旱。凡三月不雨。草木如焚。人心惶懼。有司徧叩靈祠。俱不應。備兵使者孫公。遣中軍官。詣寶善。求師禱之。師為上堂云。諸仁者。風從何來。雨從何起。電王飛出黑雲頭。問渠畢竟何所止。娑竭羅龍王行雨時。但動一念。娑婆世界。

雨悉周徧。子細看來。也不離這裏這裏。是甚麼所在。還知麼。拈拄杖云。老僧拄杖子化為龍。吐霧興雲。遮天掩日。大布滂沱。盡閣浮提。悉皆周徧。大眾且道。承何恩力。卓拄杖。下座。即時雨若盆傾。水滿三尺。是歲大稔。丁亥寇掠鼓山。以籃輿舁師至半嶺。眾忽顛仆。遂送師還山。其船泊江。干檣亦為雷所轟。寇恐不敢再犯。有梵僧。自迦毗羅國來。獻師木碗一口。師二時常用之。癸巳春正月。方丈邊榭火。惟木碗不壞。次日得于灰燼中。種種靈異。師皆謝弗居。誠勿許傳。所依從率三百餘人。問道受戒者。不啻幾萬人。得度者共若干人。付戒弟子六人。跬存思公雪樵涪公藻鑑真公莫違順公警心銘公宗聖善公。所說法語錄諸撰著。共八十餘卷。以戊戌正月二十一日。奉全身于本山西畚壽塔。之蕃服師教最久。悉師生平頗詳。又重以霈公之請。用是謹記之以傳。然字字實錄。不敢別加色澤。點染虛空。惟務揭師實行。昭示萬世。云爾。賜進士出身奉政大夫吏部考功清吏司郎中前本部文選清吏司員外郎浙江道監察御史菩薩戒弟子林之蕃謹撰。

鼓山永覺老人傳

師以儒而入釋。嘗云釋迦乃入世底聖人。孔子乃出世底聖人。蓋不出世不能入世。故得道之後。經世說法。力救儒禪之弊。直參實悟。廣大悉備。若師者蓋有明三百年之一人也。師歸寂之明年戊戌。私念展覲無從生平從霖首座。得師本末甚悉。謹掃素而為之傳。以寄無盡之思耳。師諱元賢字永覺。建陽人。姓蔡氏。宋西山先生十四世孫。父雲津母張。生母范。以萬曆戊寅七月十九日生。師初名懋德字闇修。為邑名諸生。嗜周程張朱之學。壬寅年二十五。讀書山寺。聞誦法華偈。我爾時為現。清淨光明身。即知周孔外。乃別有此一大事。癸卯壽昌無明和尚。開法董岩。師往謁之。反覆徵詰。昌曰。此事不可以意解。須力參乃契。因勉看乾屎橛。一日聞僧舉南泉斬猫話。遂有省。乃作頌呈昌。昌曰。參學之士。切不得於一機一境上取。則雖百匝千重。垂手直過。尚當遇人。所謂身雖已在青雲上。猶更將身入眾藏。是參學眼也。師唯唯奉教。逮二親繼歿。丁巳師年四十。竟裂青衿棄妻孥。投壽昌落髮。為安今名。師凡有所請益。昌但曰。我不如你。一日昌耕歸。師逆問曰。如何是清淨光明身。昌挺身而立。師曰。祇此更別有。昌遂行。師當下豁然。如釋重負。隨入方丈。將通所得。昌倒拈鋤柄。痛擊三下曰。向後不得草草。即說偈曰。一回透入一回深。佛祖從來不許人。直饒跨上金毛背。也教棒下自翻身。師通身汗下。不及吐一辭而退。然猶疑云。因甚更要棒下翻身。秋九月懷香入方丈。

請行實。昌為手述六百許語授之。臘月十八。昌示微恙。除夕自命侍者。掛上堂牌。師跪啟曰。和尚弗安。大眾不敢煩起居。昌曰。有始者必有終。子知之乎。蓋親承末後囑累也。明年戊午正月十七日。昌書偈坐化。師哭之慟。特撰行業鶴林二記藏之。而昌之生平出處。師獨得之矣。時博山以奔喪至。及歸師與偕往。稟具戒。遂相依三載。每商榷玄奧。生機橫發。山歎曰。這漢生平自許。他時天下人不奈渠何。越王戌歸閩。住沙縣雙鬢峰。癸亥以葬親回建陽。舟過劍津。聞同行僧唱法華經云。一時警歎。俱共彈指。是二音聲。徧至十方諸佛世界。師廓然大悟。乃徹見壽昌用處。因作偈云。金鷄啄破碧琉璃。萬歇千休只自知。穩臥片帆天正朗。前山無復兩鳩啼。時師年四十有六矣。遂掛錫甌寧之金仙庵。閱大藏。丁卯徙建安荷山。一日山門外經行。虎突至。行者驚仆地。師以拄杖指之。虎翻身咆哮而去。戊辰春。博山自石鼓回道建州晤於光孝。山問曰。壽昌塔掃也未。師曰。掃即不廢。只是不許人知。山曰。恁麼則偷掃了也。師曰。某只如此。和尚又作麼生。山曰。掃即不廢。只是不曾動著。師曰。和尚却似不曾掃。遂一笑而別。癸酉謁聞大師於寶善。水乳相投。宛若夙契。適宜興曹安祖兵憲。請作諸祖道影贊。因屬師命筆。師成百餘贊。大師驚曰。我不入建。公將瞞盡世人去也。即以大戒授師。甲戌曹宗伯雁澤林兵憲得山暨諸善信。延主鼓山。請開堂弗許。唯為四眾說戒。有請法者。以庵主禮示眾而已。四月十一日。甘露降山門松樹上。師作偈曰。聖瑞端宜降大都。窮山何得獨沾濡。曉來扶杖三門外。笑看松頭綴玉珠。九月十九復降。偈曰。玉露霏霏又一番。滿林花木盡同繁。丁寧莫道甜如蜜。恐惹遊人到石門。明年乙亥。張相國二水呂侍郎天池率眾。請入泉州開元開法。初至洛陽橋。潮水已退。時復湧漲。眾皆愕然。有僧問。潮汐之期。千載不爽。今日因何再至。師曰。問取主潮神。僧曰。莫是為和尚否。師曰。莫塗污老僧好。師知機緣已熟。始開堂。懷中瓣香。特為無明老人拈出。嘗曰。禪本壽昌。戒本真寂。不可誣也。四月說戒。南安有吳真人。乘板輿至寺。求法名並受五戒而去。時有僧問曰。洞山三十年。土地神覓不著。和尚因甚為吳真人授戒。師曰。拯溺須臨水。嘯月却登峯。秋歸鼓山。丁丑聞大師訃至。師躬弔真寂。浙西諸先生。以大師治命。合請繼席。道風大著。時歸安諸生茅蔚起。夢鬼使來攝。往真寂求救於師。師為授菩薩戒而去。竟無事。後茅毀戒。鬼復來攝。責其所以破戒之罪。茅苦訴悔過。始放還。茅自刻其事以傳。庚辰建翠雲庵於餘杭西舍。辛巳遷婺州普明寺。歲大饑。居民絕食者眾。蘭溪趙某家貧。治石灰為業。忽捐資本設齋普明。師贊嘆良久。一日病瘧死。自午至戌。冥中遇師引導復甦。時人甚傳其事。師曰。我豈能

入冥救人。皆由渠一念善根。故現斯事。冬歸閩。開戒劍之寶善。時得戒者千餘人。壬午赴泉開元結制。土神張復同吳真人。歸依乞戒。冬歸鼓山。龍象雲從。諸緣輻輳。凡大殿山門及諸堂寮。次第鼎新。莊嚴畢備。為八閩叢林之冠。以嘗稟戒博山。有師資之義。為建塔藏衣鉢銘焉。癸未應建州興福請。至寶善建舍利塔。值大旱。孫兵憲遣官。詣寶善求禱。師為上堂。罷即時雨。若盆傾。水滿三尺。是歲大稔。冬歸鼓山。丁亥戊子省會大亂。寇將掠鼓山。以籃輿舁師。至半嶺眾忽顛仆。遂送師還山。寇船泊江。干櫓亦為雷轟。不敢再犯。庚寅吳浙諸禪。競為爭宗之說。形於訟牘。以書達師。師笑而不答。冬作壽塔於寺之西畚。乃自狀其行。而銘之曰。是誰觸體。建茲翠堵。壽昌之兒。石鼓之主。不通世情。一味莽鹵。志大言大。眼空佛祖。據興聖座。呵今罵古。役鬼驅風。重建茲宇。撇下皮囊。掩藏荒塢。莫道無口。有聲如虎。生耶死耶。請繹斯語。廣告來者。誰繼吾武。至今讀之。生氣凜然。令人斂衽。癸巳春。方丈邊榭火。有水碗一口。先是梵僧自迦毗羅國來獻師者。師二時常用之。至是竟不壞。次日得之灰燼中。乙未春興化福清長樂罹兵變。饑民流會城。踴踴萬狀。師乃斂眾遣徒。設粥以賑。死者具棺葬之。凡二千餘人。丁酉師年八十。眾皆以法嗣未得人。甚為師憂。上元日忽鳴鐘集眾。舉衣拂。付維那為霖霈公。偈曰。曾在壽昌橋上過。豈隨流俗漫生枝。一髮欲存千聖脉。此心能有幾人知。潦倒殘年今八十。大事於茲方付伊。三十年中鹽醬事。古人有語不相欺。逆風把柁千鈞力。方能永定太平基。即命首眾分座聞其提唱。眾皆悅服。莫不人人相慶。以為洞上一宗可倚。秋七月十九。屬師初度。四方雲集。請師開法。師自辛卯禁止上堂。雖力請弗許。至是忻然登座。有慶弔相尋之語。識者知師已辭世矣。九月朔果示微疾。不食者二十餘日。起居如常。乃說偈示眾曰。老漢生來性太偏。不肯隨流入世塵。頑性至今猶未化。剛將傲骨救儒禪。儒重功名真已喪。禪崇機辯行難全。如今垂死更何用。祇將此念報龍天。曰老僧世出世事。盡在此偈。汝等毋忽也。遂閉目吉祥而臥。若入定然。首座問曰。末後一句。如何分付。師索筆書曰。末後句親分付。三界內外。無可尋處。越三日中夜謂首座曰。不有病了。令侍者扶起。坐定以目普觀大眾訖。良久脫去。實十月七日子時也。三日始掩龕。顏色如生。眾咸歎異。師歷主四刹。所至深居丈室。若不事事。而施者爭先。百務皆舉。四方學者。來不拒去不留。座下每多英衲。皆勉以真參實悟。深誠知解雜毒。生平一言一行。皆斬釘截鐵。無一毫塗飾。曹洞綱宗。從上遭濁智謬亂者。楷以心印。復還舊轍。開堂三十載。未嘗輕許學者。至末後。始舉霈公一人授之。師自狀。出世最遲。應世最拙。又不事廣收學徒熱

開門庭。蓋有所感云。師平生說法語錄及諸撰述。共二十種。凡八十餘卷。盛行於世。山中所依。止率三百餘人。問道受戒。不啻數萬人。得度共若干人。付戒弟子六人。跬存思雪樵涪藻鑑真莫違順警心銘宗聖善。以戊戌正月二十一日。奉全身於本山西畚壽塔。遵治命也。道靖臺髫年師居荷山時。即獲瞻禮。丁亥七月。師七旬侍先嚴。至寶善為師上壽。涕泣狂喜。自慶得未曾有。辛甲丁。三人鼓山。展覲師涅槃之前。二十日。竟得親承警效。第恨根器鈍置。於師之門牆。望若登天。而師法乳時灌。多方汲引。不肯置之門外。茲特不揣固陋。敢以所得實錄。昭示來茲。比於鳥之鳴春。蟲之鳴秋。為大造敷揚法化。云爾。

建安弟子道靖潘晉臺百拜謹識

永覺和尚廣錄卷第三十(終)

[CBETA 贊助資訊](#)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自 2001 年 2 月 1 日起，CBETA 帳務由「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承辦，並成立「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CBETA 專戶，所有捐款至 CBETA 專戶皆為專款專用，歡迎各界捐款贊助。

您的捐款本協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聯合信用卡中心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前往捐款](#)

信用卡（單次 / 定期定額）捐款

本授權書可提供單次捐款或定期定額捐款之用途。

請於下載並填妥捐款授權書後，請傳真至 02-2383-0649，並請來電 02-2383-2182 確認。

或掛號寄至 10044 台灣台北市中正區延平南路 77 號 8 樓 R812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收。

請在此下載 [授權書](#) (MS Word 格式)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1 9 5 3 8 8 1 1

戶名: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CBETA is part of Seeland Educational projects, any donation (ex- cheques, remittance, etc.,) please entitle to "The Seeland Education Foundation".
